# Politics

아리스토텔레스 저 | 라종일 역 교수신문이 선정한 최고의 번역본이다. 대학에서 정치학과 수업 교재로 가장 많이 쓰인다. 역자는 그 공을 아리스토텔레스에게 돌린다. 사회의 정의에 대하여 고대에서 가장 중요한 업적을 남긴 학자는 아리스토텔레스다. 오늘날 정의에 관한 담론도 아리스토텔레스를 상기하며 거론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그가 말한 직접민주정치의 원형인 폴리스의 형성과 발전, 바람직한 구조와 통치 기술이 담겨있다.



## Politics

\*본 문서에 대한 저작권은 사단법인 올재에 있으며, 이 문서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하여 상업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 2012 Olje All Rights Reserved



#### 올재의 꿈

올재는 지혜 나눔을 위해 2011년 9월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예술과 문화 속에 담긴 지식과 교양을 널리 소개하고 향유함으로써, 격변하는 세상의 지향점을 찾고, 올바르고 창의적인 교육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올재의 꿈입니다. 특히 올재는 인문고전이나 문화예술을 접할 기회가 많지 않은 소외계층과 저소득층 청소년들을 위해 다양한 지혜 나눔의 계기와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올재의 첫 번째 지혜 나눔은 인문고전입니다. 〈올재 클래식스〉는 최고 수준의 완역본을 부담 없는 가격에 보급합니다. 각 종당 5천 권을 발행하며 4천 권은 교보문고에서 6개월 간 한정 판매합니다. 미판매된 도서와 발행부수의 20%는 복지시설, 교도소, 저소득층 등에 무료 기증합니다. 출간한 번역본은 일정 기간 후 올재 인터넷 홈페이지(www.olje.or.kr)에 게시합니다. 〈올재 클래식스〉가 열어가는 새로운 세상에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소중한 후원이 지혜와 영감의 원천, 고전 한 권으로 태어납니다.

Share the wisdom. Change the world.



#### 올재의 벗

《올재 클래식스》「정치학」의 발행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 상당액은 《올재 클래식스》의 지혜 나눔의 취지에 적극 공감한 SK의 도움으로 마련됐습니다. 국내 최대의 서점 교보문고는 〈올재 클래식스〉의 유통 지원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코리아헤럴드와 헤럴드경제를 발행하는 헤럴드미디어는 출판인쇄와 교열을, 출판 디자인 전문기업인 캠퍼스헤럴드는 편집디자인을 도맡았습니다. 특히 귀한 번역본을 올재에서 펴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라종일 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작은 홀씨가 날아가 퍼지면 수많은 꽃들로 피어나듯이, 〈올재 클래식스〉의 첫 출간이 씨앗이 되어 전국 곳곳에 인문고전 나눔이 뜨겁게 싹트기를 기대합니다. 지혜 나눔을 위한 아름다운 첫걸음을 뗄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전합니다.

#### 올재 후원함 | 예금주 사단법인 올재

국민은행 023501-04-184681 농협 301-0100-8607-71 신한은행 100-027-966986 우리은행 1005-401-996902 하나은행 162-910013-46904

#### 후원 문의처 | 올재 사무국



#### 지혜 나눔을 함께 한 벗들



Olje Foundation | Share the wisdom. Change the world.

# 차례

서 문		7
제 1 권	가족론	10
제 2 권	이상국가에 대한 견해	48
제 3 권	시민과 헌정질서에 대한 이론	104
제 4 권	실제적 헌정질서와 그 변형	160
제 5 권	혁명의 원인과 헌정질서의 변화	210
제 6 권	안정기반을 위한 민주정치와 과두정치의 건설 방법	270
제 7 권	정치적 이상과 교육적 원리	294
제 8 권	청소년의 교육	348

## 《정치학》을 새로 펴내면서

거의 30여 년 전에 출판이 되었던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이 다시 세상에 나오 게 된 것에 여러 가지로 감회가 깊습니다. 우선은 미흡하나마 대학에서 이 주제에 관한 교재로 가장 많이 쓰였다고 들었던 책입니다. 절판이 된 이후에 몇몇의 교수 님들에게서 계속 출판을 하여 달라는 말씀을 듣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다른 일로 분주하게 지냈고 또 출판사의 사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구라파에서 한때에는 이름을 거명하지 않고도 〈철학자〉라고 하면 바로 아리스토 텔레스를 의미하는 것이었다고 들었습니다. 1970년대 초 정부에서 '희랍에 보낼 교환교수 모집을 한다'고 듣고 바로 지원을 한 것도 실은 주로 아리스토텔레스에 관한 관심 때문이었습니다. 현지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한 일 중에 하나도 희랍의 북쪽 테살로니카에서 자동차로 수 시간 걸리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고향을 찾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막상 그의 고향에서는 그에 관한 관심도 이렇다 할 만한 기념물도 연구시설도 없었던 것이 실망이었습니다. 단지 언덕 위에 큰 동상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을 가르키면서 그에 관하여 물어 보아도 현지인들은 별 관심도 반응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은 사정이 나아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중요성에 관하여서는 여기서 새롭게 되풀이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현재 우리의 첨예한 관심사와 관련해서 몇 가지 언급하려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정치에 있어서 새롭게 올바름, 즉 정

의란 무엇인가에 관심이 일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당연하게 생각하던 일들이 새 삼 회의와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올바른 사회질서는 어 떤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일고 있고 이런 주제에 관한 저술들도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기존 질서에 대한 회의와 새로운 질서에 대 한 관심과 관련된 것이겠지요. 그런데 사회의 정의에 대하여 고대에서 가장 중요 한 업적을 남긴 학자로 모두가 아리스토텔레스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정 의에 관한 담론들도 대개는 아리스토텔레스를 상기하며 거론하는 것으로 시작합 니다.

새로운 질서의 모색과 관련하여서도 아리스토텔레스는 움직일 수 없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우리가 근대 서양과의 만남에 있어서 가장 큰 관심거리가 된 것이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정치질서, 정부형태에 관한 실험적인 태도입니다. 동양에서는 대개 한 가지의 정치질서, 하나의 정부형태에만 집착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양에서는 여러 가지 사정이나 시대적인 요청에 따라 여러 가지 정부형태를 채택하여 왔습니다. 《정치학》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여러 가지 정부형태에 관하여 경험적인 자료를 가지고 상황에 따른 그 장단점을 논하고 있습니다. 그 자신이 선호하는 정부형태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정치에 관한 실험적인 자세이며, 이것이 사회적인 군서동물과 사람을 구별할 수 있는 척도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새천년의 벽두에 아시아의 부상을 지켜보면서 새삼 지난 수세기에 걸친 서구와의 조우를 여러 모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생각이 다시 이 〈철학 자〉에게로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절판이 되었던 책이 다시 나오게 되면, 응당 원문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는 추고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옳은 일이지만 그렇게 할 여유도 능력도 없는 것을 애석하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변명 겸 드립니다.

2011년 12월 라종일

### 일러두기

- 1. 대본을 번역할 때는 희랍어 원전의 참고번호를 따랐다. 예를 들면 1316a1은 원전의 1316쪽 a단 1행이라는 뜻이다. 문단이 시작되는 앞에다 쪽, 단, 행수를 표시하는 방법을 택했다.
- 2. 번역 대본으로는 주로 E. Barker의 것을 사용했으며, Racham의 대역본을 참조했다.
- 3. 역문은 한글 전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자와 영철을 괄호 안에 넣었다.
- 4. 원주와 역주는 각 장의 말미에 두었다.
- 5. 본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부호를 사용했다.
- 『 』 독립적인 인용 또는 대화를 묶을 때
- 〈〉 부분적인 인용 또는 강조를 나타낼 때
- 《》 저서명 · 작품명 · 신문명 · 잡지명을 나타낼 때
- [ ] 거듭된 부호의 총괄 또는 내용상 역자가 본문에 삽입하고자 할 때



가족론



#### 제1장

(1252a) 1. 우리가 경험적인 관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모든 국가 는 결사(結社)의 일종이며, 모든 결사는 어떤 좋은 것을 달성하기 위하여 형성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어떤 좋은 결과를 가져오리라는 생각에서 행동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결사는 일정한 좋은 목적을 갖고 있고, 또한 모든 결사들 중에 가장 으뜸가며 여타의 결사들을 모두 포괄하는 어떤 특정한 결사는 특히 이 목적을 추구하며, 더욱이 가장 으뜸가는 좋은 목적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 가장 포괄적이며 가장 중요한 결사가 이른바 국가, 즉 정치적 결사인 것이다.

- 2. 이 국가의 일을 맡아 보는 〈정치가〉는, 왕국을 다스리는 군주, 가솔을 거느리는 가장, 혹은 여러 노예를 소유한 노예주인과는 다르다. 어떤 사람들은 이 차이가 근 본적으로 다른 성격을 갖는 것이 아니고 정도의 차이, 즉 다스리는 사람들의 수의 과다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이 견해를 따른다면 약간 명을 거느리는 사람은 주 인이고, 더 많은 수의 사람들을 다스리는 사람은 가장이며, 그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는 자는 〈정치인〉혹은 군주인 것이다. 이 견해에 의하면 가솔이 많은 가정과 작은 국가 사이에는 진정한 차이는 없는 셈이다. 뿐만 아니라 〈정치가〉와 군주 사이의 차이는, 후자는 제약을 받지 않는 유일한 권위를 갖는 반면에 전자는 정치의 도(道)에 따라 권위를 행사하며 지배를 하기도 하고 타인의 지배를 받기도 한다는 사실에 불과한 것으로 되고 마는 것이다.
- 3. 우리가 정상적인 분석의 방법에 따라 이 문제를 생각해 나간다면 우리의 논점 은 더욱 분명해진다. 모든 다른 분야의 연구에 있어서도, 어떤 복합체이건 그것이 가장 기본적이고 순수한 요소(즉 다른 말로 하면 전체의 가장 작은 원소)를 찾아낼

<sup>1.</sup> 국가: 그리스어의  $\pi\lambda$ LIC를 번역한 말이나 물론 무리이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그것은 오늘날 보는 바와 같은 근대국가와는 매우 다른 독특한 형태의 정치공동체이다. 규모ㆍ크기ㆍ인구ㆍ정치제도 등과 같은 외형적인 것을 제쳐 놓고도 가장 현저한 차이는 물론 그것이 오늘날의 국가와 사회를 한데 합쳐놓은 것에 상당하리라는 점일 것이다.

때까지 분석을 거듭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가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도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기본적인 요소들을 분석적으로 고려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위에 언급한 결사들과 그 지도자들 사이의 차이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우리는 이것에 관련된 일반적인 문제들에 관하여 체계적인 견해를 얻을 수 있는지 알아낼 수 있을 것이다.

#### 제2장

- 1. 다른 분야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문제에 있어서도 최선의 연구 방법은 사물을 그성장의 벽두에서부터 고찰하는 것이다. 이 방법에 의하여 우리는 과학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 2.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 서로 상대방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두 사람의 결합이 있어야 한다. 즉 종(種)의 번식을 위하여 남성과 여성이 결합하여야 하는데 이것은 의식적인 의도에서라기보다 자연적인 충동에서 비롯한다. 이러한 형태의 결합은 일반적으로 식물이나 동물의 세계에서도 있는 것으로서 후세에 자신들과 같은 것을 남기려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는, 자연적으로 지배적인 요소와 자연적으로 피지배적인 요소의 결합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양자의 존속에 다 같이 필요한 것이다. 지성에 의하여 예견의 능력을 갖는 요소는 자연적인 주인 즉 지배계층이며, 육체적인 힘으로 지배층이 계획한 것을 실행하는 요소는 자연적으로 노예 상태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주인과 노예는 서로 상대방의 결함을 보충해 준다는 점에서 공통의 이해를 갖는 것이다.

(1252b) 3. 그러므로 여자와 노예는 근본적으로 구별이 된다. 왜냐하면 자연은 매사물마다 독자적인 목적을 위하여 만들었을 때 가장 훌륭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서한 가지 사물은 한 가지 목적을 위하여서만 존재하도록 하였기 때문이다. 이것은

대장장이들이 델포이의 칼<sup>2</sup>을 만드는 것과는 아주 다른 경우이다.

4. 그러나 야만인들 사이에는 자연적 질서에 위배되게 여자와 노예가 같은 위치를 차지한다. 그 이유로는 그들 사이에는 자연적으로 지배자적인 요소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결혼은 노예와 노예 사이의 결합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sup>3</sup> 그러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시구가 생겨난 것이다.

당연하게도 야만인들은 그리스인에 의하여 지배 받아야 한다.

- —이것은 즉 야만인과 노예는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는 것이다.
- 5. 이 두 가지 기본적인 결사의 (즉 남자와 여자, 주인과 노예 사이의) 첫 결과는 가정 혹은 가족이다. 헤시오도스(Hesiodos)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읊었다.

먼저 집, 그리고 부인, 그리고 쟁기를 이끌 황소.

이것은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집에서 부리는 노예 대신에 가축을 사용하여 노동을 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매일 되풀이 되는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자연적으로 형성되는 최초의 결사 형태는 가족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의 성원을 카론다스(Charondas)는 〈식량창고의 동료들〉이라고 불렀고, 크레테 (Krete)의 에피메니데스(Epimenides)는 〈구유통의 동료들〉이라고 했다. 그 다음형태의 결사는—한 개 이상의 가족이 모여 이루어지는 최초의 결사인데, 매일 되풀이 되는 필요 이상의 것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으로서—부락인 것이다.

- 2. 델포이(Delphoi)의 칼: 무엇인지 확실히 알려져 있지 않지만 아마도 단도(短刀)겸 식도(食刀) 또는 칼과 수저가 함께 붙어 있는 것처럼 다목적용 칼이라고 생각된다.
- 3. 이것은 그리스 도시국가의 특색인 자율적인 자유민 계급이 야만인들 사이에는 존재하지 않고 따라서 야만인들은 한 사람의 전제자에 의하여서 지배받는다는 것을 뜻한다.

- 6. 부락의 가장 자연적인 형태는 한 가족의 증식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부락을 〈같은 모유를 먹는 사람들〉 혹은 〈아들들과 아들들의 아들들〉 등으로 부른 것이다. 이것은 또한 어째서 그리스의 도시국가들 이—야만족들이 아직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왕에 의하여 지배를 받았는가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들은 이미 왕에 의하여 다스려지는 사람들로 이루어졌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가족 혹은 부락들로부터 이루어진 정치공동체들이었으며, 가족은 항상 일족(一族)의 최연장자가 다스리는 법이며, 이것은 가족의 증식으로 이루어진 부락들이 친족관계에 의하여 다스려지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 7. 이 원시적인 친족관계가 바로 호메로스가 키클로페스족<sup>4</sup> 에 관하여 언급하면서 다음과 같이 기술한 바일 것이다.

그들은 모두 *각자가* 자기의 처와 아이들을 다스린다.

- 이 구절에서 볼 수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고대에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분산되어 있는 집단으로서 생활하였다. 고대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왕이 사람들을 다스 렸고 오늘날에도 일부 사람들은 그 방식대로 통치를 받기 때문에 사람들은 신(神) 들까지도 왕이 다스리는 것이라고 말한다. 우리들은 신들의 형상을 사람과 비슷한 것으로 생각하며 신들의 생활방식도 사람들의 생활방식과 유사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 8. 우리는 끝으로 최종적이고 완벽한 결사에 도달하게 되는데, 이것은 여러 개의 부락으로 이뤄지며 이것이 바로 국가이다. 이 결사는 말하자면 완전한 자급자족<sup>5</sup>

<sup>4.</sup> 키클로페스(Kyklopes): 고대 그리스에 살았다는 전설적인 부족

<sup>5.</sup> 아리스토텔레스에 있어서 자급자족이란 그저 경제적  $\cdot$  물질적인 뜻만이 아니고 도의적  $\cdot$  인간적인 뜻 도 포괄하는 것이다

을 이룬 것이며 혹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국가란 그저 생존만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성장하는 반면에—그리고 그 단계에서는 아직도 완전한 자급자족에 미치지 못한다—일단 완전히 성숙하고 나면 좋은 생활을 위하여 존재하며 따라서 이 단계에이르러서는 완전히 자급자족한다고 할 수 있다.<sup>6</sup>

국가는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결사들의 완성이므로 모든 국가는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며, 이런 뜻에서 국가 성립 이전의 관계인 여러 결사들이나 마찬가지의 성격을 갖는 것이다. 국가는 이런 여러 결사의 종착역이며 최고의 단계이다. 그리고 사물의 〈본성〉이란 바로 그것의 최후의 형태 혹은 완성에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이나 말이나 가족이거나 간에 각 사물의 성장이 완성되었을 때를 그 사물의 본성이라고 부르기 때문이다.

(1253a) 9. 그리고 국가를 자연적 존재라고 생각하는 두 번째 이유로서 사물의 최종의 형태가 항상 그것의 최선인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가 실현을 목적으로 삼는 자급자족이야말로 최종의 목표이며 따라서 최선의 단계이다. 결론적으로 국가는 최선을 실현하며 따라서 자연적이다. 왜냐하면 자연은 항상 최선의 실현을 목표로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고찰에서 명백해 진 것은 국가는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것들에 속하며, 또한 사람은 본질적으로 국가에서 살도록 되어 있는 동물이라는 것이다. <sup>7</sup> 어떤 우연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성질상 국가가 없는 사람은 보잘것없는 존재이거나 아

<sup>6.</sup> 이 구절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에 공통된 정치사상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즉 최고의 형태로써 국가도 낮은 차원에서는 물질적인 필요나 혹은 외적(外敵)에 대한 방어 같은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 불과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좋은 생활〉 자체를, 즉 도의적인 완성을 목표로 한다는 점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들에게 〈국가〉는 자연적인 존재이다. 즉 그것은 다른 결사나 마찬가지로 사람들에게 자연적으로 내재하여 있는 성질과 필요를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 점이 아마도 양자(兩者)를 소피스트들(sophists)로부터 명확하게 구별하는 것일 것이다.

<sup>7.</sup>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정치적 동물〉이라는 것이다.

니면 인간 이상의 존재이다. 이런 사람을 호메로스는 다음과 같이 비난하였다.

부족도 법도 가정도 없는 자

**10.** 성질상 국가가 없는 자—즉 국가에서 살 수 없는 자—는 곧 격정적으로 전쟁을 즐기는 자이다. 그는 마치 장기판에서 홀로 튀어나온 말과도 같다.

사람이 벌이나 혹은 다른 군거동물(群居動物)들에서 볼 수 있는 것 같은 집단생활 보다 더 높은 차원의 정치적 결사에서 사는 이유는 명백하다. 우리들의 이론에 의 하면 자연은 아무 뜻도 없이 어느 사물이고 만들지는 않는다. 그런데 모든 동물 중 유독 사람만이 언어 능력을 구비하고 있다.

- 11. 그저 고통이나 쾌락을 나타내는 소리를 낼 수 있는 능력은 일반적으로 모든 동물에게도 있다. 즉 그들의 본성은 그들이 고통이나 쾌락을 느끼고 그것을 서로에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정도이다. 그러나 언어는 무엇이 유리하고 무엇이유리하지 않은지, 따라서 무엇이 올바르고 무엇이 올바르지 않은지를 말할 수 있게 한다.
- 12. 다른 여타의 동물들과 비교하여 볼 때, 사람의 독특한 점은 사람만이 선과 악, 정의와 불의, 또는 다른 유사한 성질들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이 사람들 사이에서 공통되므로 가족이나 국가가 형성되는 것이다.
- 이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겠다. 즉 개인이나 가족이 시간상으로 는 국가에 선행하지만 논리적으로는 국가가 개인이나 가족에 선행한다.
- 13. 그 이유는 전체가 필연적으로 부분에 선행하기 때문이다. 만일 신체가 전부 파괴된다면 팔이나 다리만 살아남을 수는 없다. 예외적으로 사람들이 모호하게 같은 말을 사용하여 다른 뜻을 나타내는 경우는 있다. 즉 석상(石像)의 손에 관하여 이야기할 때는 몸 전체가 부서진 후에도 〈손〉은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만물의 근본적인 성격은 그들의, 기능과 능력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다. 따라서 만일 어떤 것이 더 이상 그것의 고유한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면 그것을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어용법의 모호성 때문에 같은 이름으로 불릴 뿐인 것이다.

- 14. 이제 우리는 국가는 자연적으로 존재하며, 개인에 선행하는 것이라는 점을 이해하게 되었다. 이 두 가지 명제의 증거는, 국가는 전체이며 개인은 그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개인들은 고립되어서는 자족적(自足的)일 수 없으므로 전체(국가)에 모두 같이 의존하여야 한다. 그리고 국가만이 자족한 상태를 이룰 수있다. 고립된 개인은 즉 정치적 결사의 혜택을 타인과 더불어 누릴 수 없거나 이미 자족해 있으므로 그럴 필요가 없는 국가의 일부가 아니며 따라서 금수(禽獸)이거나 아니면 신일 것이다.
- 15. 이렇게 사람은 본질적으로 정치적 결사(즉 전체)의 일부가 되도록 되어 있으며, 따라서 모든 사람들에게는 어떤 결사를 형성하려는 잠재적인 충동이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사를 처음으로 건설한 사람은 사람에게 가장 큰혜택을 준 사람이다. 사람은 완성되었을 때 동물 중에서 가장 뛰어난 존재이지만, 법과 정의가 없으면 가장 나쁜 동물로 전략하고 말기 때문이다.
- 16. 불의는 유용한 도구가 있을 때 더욱 심각한 것이 된다. 그런데 사람은 날 때부터, 예를 들어 언어 같은 유용한 도구를 갖고 태어난다. 이런 도구들은 원래 도의적인 덕(德)이나 사려분별을 이루기 위한 것이지만 때로는 그 반대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덕이 없으면 가장 추악하고 야만스러운 존재이며 탐욕과 무절제함이 다른 동물보다도 더 강하다. 사람은 국가의정의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는다. 왜냐하면 정의(正義)란 옳고 그름을 판별하는 것인데 이것을 정치적 결사가 실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 제3장

(1253b) **1.** 위의 분석을 통하여 국가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무엇인지 확인하였으므로 이제 먼저 가정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아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모든 국가는 우선 가정들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가정의 운영은 바로 가정을 이루는 여러 부

분별로 나누어서 볼 수 있다. 완전한 가정은 노예와 자유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어떤 대상이는 먼저 그것의 가장 단순한 기초적인 요소로 나누어 연구할 필요가 있는데 가정에 있어서는 가장 기본적이고 단순한 요소가 주인과 노예, 남편과 아내, 그리고 부모와 아이들의 관계이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 이 관계를, 즉 이 관계들 각기의 성격과 이들이 갖고 있어야 하는 성질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 2. 따라서 조사하여 볼 요소는 세 가지이다. 먼저 주인과 노예의 연결, 그리고 결혼관계라고 부를 수 있는 것(왜냐하면 우리말에는 남편과 아내의 결합을 정확히 기술하는 단어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끝으로 부모와 아이들의 관계인데 이것에 관해서도 우리말에는 특정하게 이 관계만을 기술하는 단어는 없다.
- 3. 그러나 이 세 가지의 연구 대상 이외에도 네 번째의 요소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가정운영의 전부와 같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재산을 획득하는 기술〉인데, 우리는 이것도고려해 보아야 한다.

먼저 주인과 노예에 관하여 논하여 보자. 이것은 부분적으로는 (실제적 이유에서) 실제 생활의 필요에 관련되는 교훈을 얻기 위하여서이고, 부분적으로는 (이론적인 이유에서) 현재에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의견보다 더 우월한, 즉 이 문제에 관하여 과학적인 지식을 증진할 만한 견해를 얻기 위하여서이다.

4. 어떤 사람들은 노예를 부리는 것이 과학의 한 형태라고 주장한다. 그들은, 우리가 벽두에서 말한 바와 마찬가지로 가정의 운명, 노예를 부리는 것, 정치인의 권위, 왕의 통치 등이 모두 같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 다른 견해를 따르자면, 주인과 노예의 구별은 법이나 관행에 의한 것인데 이것은 자연에 배치된다는 것이다. 즉 주인과 노예의 관계는 힘에 기초를 두고 있는 것이며, 따라서 정의(正義)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8

8. 이것은 물론 궤변론자(sophist)들의 주장에 관하여 언급한 것이다.

#### 제4장

- 1. 재산은 가정의 일부이며 재산 획득의 기술은 가정운영의 일부라고 우리는 전제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생존에 필요한 조건들이 갖추어져 있지 않는 한 잘 사는 것은 고사하고 우선 살 수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또한 특정한 기술을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연장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가정운영에 있어서도 운영에 필요한 도구가 있어야 한다고 전제할 수 있다.
- 2. 끝으로 우리는 이 도구들 중의 어떤 것은 생명이 있는 것이고 어떤 것들은 생명이 없는 것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배의 키잡이 도구 중에 키는 생명이 없는 것이고 망보는 사람은 생명이 있는 도구이다. 어떤 기술에 있어서도 아래에 두고 부리는 사람은 도구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이런 전제들을 근거로 하여서 재산은 모두 생활을 영위하는 목적을 위한 도구이며, 일반적으로 재산이라 하면 이 도구들의 총계를 가리키는 것이고, 노예는 재산 중에 생명이 있는 부분이며, 일반적으로 하인이나 시중꾼들은 다른 도구보다 우선적으로 필요한 도구들이라고, 즉 생명이 있는 도구들이 생명이 없는 도구들에 앞서 있어야 한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 3. 가정을 운영하는 사람이 하인이 필요치 않거나 주인이 노예가 필요치 않은 경우는 꼭 한 가지 경우밖에는 없다. 이것은 생명이 없는 도구들이 각기 마치 다이달로스(Daidalos)가 만든 동상들이나 헤파이스토스(Hephaistos)가 만든 제기(祭器)처럼 명령을 받아서 혹은 주인의 뜻을 스스로 헤아려서 일을 하는 경우이다. 호메로스는 이런 것들을 다음과 같이 시로 읊었다.

그것들은 스스로 움직여서 올림포스산 위에 있는 신들의 회의 장소로 들어갔다 다시 말하면 베틀의 북이 스스로 천을 짜고 현악기의 픽이 스스로 하프를 연주하는 식이다. $^9$ 

(1254a) 4.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는 또 한 가지 확실히 해둘 것이 있다. 우리가 방금 말한 직조기의 북 같은 도구는 생산의 도구이지만, 노예나 다른 가재도구 같은 가정 재산의 품목들은 직접적인 행동을 위한 도구인 것이다. 북으로부터는 그것의 직접적인 사용과는 다른, 별개로 존재하는, 어떤 것이 (즉 생산품) 나온다. 그러나 옷 혹은 침대 같은 가재도구들은 그저 사용을 하는 것 뿐이다. 생산과 행동은 종류가 서로 다르며, 서로 다른 도구들을 요하는 것이므로, 거기에 사용하는 도구들도이 차이에 상응하는 차이가 있음이 틀림없다고 부언할 수 있겠다.

5. 생활은 행동이지 생산이 아니다. 따라서 노예는 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도구이므로. 행동의 영역에 속하는 하인이다.

노예의 본성을 완전하게 설명하기 위하여서는 한 가지를 더 고려하여 보아야 한다. 〈재산의 품목〉이란 말은 〈부분〉이라는 말이 사용되는 용법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다. 그런데 〈부분〉이란 그 자체와는 다른 어떤 것의 일부일 뿐만 아니라 그 다른 어떤 것에 전적으로 속하는 것이며 이 속한다는 사실 이외에는 따로 생명을 갖거나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은 재산의 한 품목이나 어떤 것의 일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것이다. 따라서 주인은 주인이라는 사실 이외에 자기 자신의 생활과 존재를 가지면서 그저 노예의 주인일 뿐이며 노예에게 속하지 않는 반면에, 노예는 그 주인의 노예일 뿐만 아니라 노예로서 주인에게 속하여 있다는 사실이외에는 다른 생활이나 존재가 없이 전적으로 주인에게 속하는 것이다.

6. 이런 고찰에서 우리는 노예의 본성과 그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정의를 내릴 수 있다. 첫째, 『누구든지 본성으로 인하여

9. 이것은 오늘날에 과학기술을 응용한 산업이나 제품 혹은 〈기계노예〉라고 부르는 현실과 연관되는 재미있는 지적이다. 또 공산주의는 마르크시즘에 전기(電氣)가 합하여져서 이루어진다고 한 레닌의 말을 연상시킨다.

그 자신의 주인이 될 수 없고 타인에게 속하는 사람은 그 자신의 본성에 따라서 노예이다.』둘째, 『누구든지 사람으로서 재산의 품목인 사람은 타인의 소유물이다.』 셋째. 『재산의 품목은 행동을 목적으로 하는 도구이며 양도될 수 있다.』

#### 제5장

- 1. 다음으로 우리는, 본성적으로 여기에 정의되어 있는 것 같은 사람이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즉,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사람들에게는 노예 상태가 더 낫고 올바른 조건인가, 혹은 그 반대인가 그리고 모든 노예제도는 자연에 역행하는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다. 이 문제는 철학적으로 이성에 입각하여 고찰해 보든지, 혹은 경험적으로 실제 사실에 입각하여 고찰해 보든지 간에어려운 것은 아니다.
- 2. 주인과 노예의 관계인 지배·피지배의 관계는 필연적인 일들의 범주에 속할 뿐만 아니라, 편리한 일들의 범주에도 속하는 것이다.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이미 종류가 다르게, 지배하도록 되어 있는 집단과 지배받도록 되어 있는 집단의 사람들이 있다.

또한 지배적 · 피지배적 요소들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 현실이 이러하므로 좀 더나은 피지배 요소를 지배하는 것은 열등한 요소를 지배하는 것보다 더 우월한 것이다. 예를 들어 짐승을 부리는 것보다 사람을 지배하는 것이 더 우월한 지배이다. 3. 그 이유로는,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 요소가 더 훌륭하고 더 고차원인 경우 그기능도 더 훌륭하고 더 고차원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떤 요소는 지배하고 다른

- 지하고 더 불형하고 더 고자된에게 베군이다. 그러고 이번 요모는 시배하고 다른 요소는 지배를 받는 경우에 우리는 이 두 요소가 합하여 짝을 이룬다고 할 수 있다. 한 개 이상의 부분으로 이루어져서 하나의 공통된 실재(實在)를 이루는 복합체가 있는 모든 경우—그 부분들이 사람의 몸처럼 연속적이거나 주인과 노예의 관계처럼 따로 떨어져 있거나 간에—항상 지배적 요소와 피지배적 요소를 찾아낼 수 있다.
- 4. 이 지배 · 피지배 요소의 공존은 자연의 전반적 구성에 따라서 생명이 있는 존

재에서 항상 발견할 수 있다. 이것은 또한 생명이 있는 존재나 생명이 없는 존재에도 마찬가지이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음악의 화음에 있어서처럼 무생명의 사물에도 일종의 지배의 원칙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연의 생명이 없는 부분에 관한 이러한 생각은 아마도 좀 더 통속적인 연구방법에 속할 것이다. 여기에서는 생명이 있는 존재들이, 자연의 수직체계에서, 영혼과 육체로 구성된 최초의 것이며, 이 중에서 자연적으로 영혼이 지배적이며 육체는 피지배적인 것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좋겠다.

- 5. 그런 생명이 있는 존재들에 관하여 연구함에 있어서 자연이 의도하는 바를 알아내기 위하여서는 변질된 것이 아닌 자연적 상태에 있는 사물에 우리들의 주의를 집중시켜야 한다. 그러므로 육체나 영혼의 양면에 있어서 최선의 상태에 있으며 따라서 영혼이 분명하게 육체를 지배하고 있는 사람을 연구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영구적이거나, 잠정적이거나 나쁜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때로는 그 반대가 사실일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1254b) 즉 그들의 악덕과 비자연적인 상태의 결과로 육체가 영혼을 지배하는 일이 있기 때문이다.
- 6. 이미 위에서 말한 바와 마찬가지로, 무생명의 사물에 관해서는 어떻든 간에, 생명체들에 있어서는 우선 주인이 노예에게 행사하는 식의 그리고 정치가가 동료 시민에게 행사하는 것 같은 지배적 권위의 양(兩) 형태가 함께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영혼은 주인이 노예를 다스리는 것과 같은 종류의 권위를 갖고 육체를 지배한다. 정신은 욕망을 정치가나 군주와 같은 종류의 권위로써 다스린다. 사람의 내적 생활의 영역에 있어서는 육체가 영혼의 지배를 받는 것이 분명히 자연적이고 또 유익하기도 하며, 또한 영혼의 감정적인 부분이 정신과 이성적인 부분의 지배를 받는 것이 자연스럽고 유익한 것이다. 반면에 이 양면(兩面)이 균형을 이루거나지배 · 피지배 관계가 거꾸로 된다면 항상 유해한 일이다.
- 7. 사람의 내적 생활에 있어서 사실인 것이 또한 외적 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영혼과 육체의 관계에 있어서도 올바른 원칙이 된다. 길들여진 짐승이 야생의 짐승보다 더 좋은 성질을 가지며, 모든 짐승들이 사람에 의하여 다스려지는 것이 그들에게는 더 좋다. 왜냐하면 그들은 보존(保存)이 되는 혜택을 입기 때문이다.

또한 남성과 여성의 관계도 자연적으로 우월한 자와 열등한 자의 관계, 즉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관계이다. 이 일반적인 원칙이 유사하게 모든 인간들 사이의 관계에 일반적으로 적용된다. 따라서 주인과 노예의 관계에도 적용되는 것이다.

- 8. 그래서 우리는 육체가 영혼과 다른 것처럼 혹은 집승이 사람과 다른 것처럼, 다른 사람과 차이가 나는 모든 사람들은 (이것은 육체적인 노동을 기능으로 하며 그러한 노동을 할 때 최선의 성과를 내는 모든 사람들의 경우이다) 본질적으로 노예이며, 위에 언급한 바로 그 원칙에 의하여 주인에게 지배를 받는 것이 그들에게는 더 좋다.
- 9. 그래서 만약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소유물이 될 만한 소질이 있거나(이것이 사실상 남의 노예가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 자신이 이성이 결핍되어 있지만 타인이 이성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알 정도의 이성이 있다면, 본질적으로 노예이다. 이는 이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단지 본능에만 의존하는 동물과는 다르다. 그러나노예의 용도는 길들인 짐승의 용도와 별로 다를 바 없다. 양자가 모두 그들의 소유자의 매일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 있어서 육체적 노역을 제공하여 주는 것이다.
- 10. 이제까지는 정신적인 차이에 관하여서만 논급하여 왔다. 그러나 자연은 자유인과 노예 사이에 육체적인 차이도 만들어 놓았다. 그리하여 노예에게는 천역(賤役)을 위한 힘을 주었고, 자유민에게는 육체노동에는 쓸모가 없지만 시민생활의여러 가지 목적을 위한 신체적 특징과 당당한 체구를 주었던 것이다. 시민 생활은보통 병역과 평화시(平和時)의여러 가지 직책으로 구분된다. 그러나 때로는 자연이 의도하는 바와 반대되는 일도 일어난다. 어떤 노예는 자유인의 체구를 갖고 있고 또 어떤 노예는 자유인 같은 영혼을 갖고 있다. 그러나 만일 자연의 의도가 실현된다면—즉만일 사람들이 육체적인 형태에 있어서, 신상(神像)이 사람의 형태와 다른 정도로서로 다르다면—열등한 계층이 우월한 계층의 노예가 되어야한다는 점에 우리 모두가 의견의 일치를 볼 수 있을 것이다.
- 11. 그리고 만일 육체적인 차이의 경우에 이 원칙이 적용된다면 영혼적인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 원칙이 훨씬 더 올바르게 적용될 것이다. 그러나 물론 육체의 우열을 판단하기보다 영혼의 우열을 판단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렵다는 난점은 있다.

(1255a)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자유롭고 어떤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노예인데, 후자에 속하는 사람들에게는 노예상태가 올바르며 동시에 유익하다는 것이 분명하다.

#### 제6장

- 1. 그러나 반대의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어떤 의미에서는 옳다고 생각하기 쉽다. 〈노예제〉혹은 〈노예〉라는 말은 두 개의 서로 다른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 우리가 위에 지적한 바와 같이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노예제가 있는 반면에 법 혹은 더 확실하게 이야기 한다면 관행에 의해서만 존재하는 노예나 노예제도 있다. (전쟁에서 패배한 자들은 승리자들의 소유물이 된다고 규정하는 법은 사실상 관행의 일종이다.)
- 2. 그런 관행에 의하여 노예제가 정당화될 수 있다는 원칙에 대하여 많은 법률가들이 〈불법이라고 제소〉<sup>10</sup>를 한다. 그들은 이 원칙이 자연법을 위반하는 것이며, 우월한 힘에 의해 정복당한 자가 그러한 힘으로 그를 정복한 자의 노예가 된다는 것은 사악한 생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 원칙을 반대하는 반면에 또 이것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고, 심지어는 학식과 사려분별이 있는 사람들 사이에도 이견(異見)이 많다.
- 3. 이러한 이견의 원인과 반론들이 서로 중복되는 이유는 다음 고찰에서 찾아보아 야 한다. 즉 선(善)이 물질적인 수단이 갖추어져 있을 때는 타인을 복속시킬 막강한 위력을 갖는다. 역으로 승리자는 항상 어떤 종류의 선이든 간에 뛰어난 면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권력과 선, 혹은 어떤 종류의 선이 연관이 되므로 『권력은 선과

10. 이것은 아테나이의 의회에서 기존의 법에 위반되는 조처를 제의한 사람에 대하여 제기하는 것이다. 바커(Ernest Barker)의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화(The Politics of Aristotle)》의 14페이지 주(註)2를 인용. 함께 있다』라는 생각이 나오게 된 것이다. 그리고 노예제의 원칙에 관한 찬반 양론이 모두 이 생각을 공통으로 갖고 있으므로, 양측 사이의 논쟁이 유독 정의(正義)의 문제에 관해서 집중하게 된 것이다.

- 4. 이 문제에 있어서 일방(一方)은 정의란 사람들 사이의 상호적인 선의(善意)의 관계라고 생각하며 따라서 관행을 따라 강행되는 노예제와 양립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일방은 우월한 자의 지배는 그 자체로서 정의이며 따라서 노예제가 정당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양측이 공통적으로 정의에 관한 관념이 모호하므로 문제 전반이 애매하게 되는 것이다. 만약 이 이견들을 각자 서로 별개의 것으로서 (즉 공통의 입장이 없는 것으로) 대조하여 보면, 양측이 모두 조리가 없고 설득력도 없다는 것이 드러나며 진리는 이 중의 어느 것도 아닌 다음과 같은 것이 될 것이다. 즉 선을 갖고 있으며 동시에 우월한 힘이 있는 자가 열등한 자들을 지배하고 이들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5. 우리는 다른 방법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같은 결론—우월한 선은 노예를 소유하고 지배하는 기초이다—에 도달할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전쟁으로 인하여 생긴 노예제는 합법적이며 어디서나 항상 올바르다고 주장하는 것이, 어떤 형태의 정의 (왜냐하면 법도 일종의 정의이므로)에 입각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것은 자가당착적이다. 왜냐하면 첫째로 어떤 전쟁의 이유가 올바르지 못할 수 있으며 이런 경우에는 아무리 합법적일지라도 이 전쟁 후에 생긴 노예제는 정의롭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로 노예 상태에 있으면 안될 사람을 진정한 노예라고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다. 만일 그런 견해를 받아들인다면, 가장 훌륭한 사람들도 그들 자신이나 그들의 부모가 포로가 되어 노예로 팔린다면 노예나 노예의 자손이되는 결과가 나올 것이다.
- 6. 이런 이유로 그리스인들은 전쟁포로를 노예로 하는 원칙을 옹호하면서도 그런 사람을 노예라고 부르기를 꺼려하며 야만인만을 노예라고 부르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말을 사용함으로써 그들은 이미 자기들의 견해가 틀리다는 것을 증명하는 셈이며, 사실은 우리가 애초에 논한 자연적인 노예와 동일한 견해를 피력하는 셈이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야만인들처럼 어디에서나 본질적으로 노예인 사람

들이 있는 반면에, 그리스인들처럼 어디에서나 본질적으로 자유인인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7. 노예제와 마찬가지로 귀족제에 관해서도 같은 방식의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리스인들은 자기 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어디에서나 절대적으로 자신들을 귀족이라고 생각하지만, 야만인들에 대해서는 자기 나라에서만 귀족으로 여긴다. 즉 어떤 형태의 자유와 귀족 신분은 절대적이지만 다른 형태의 것은 단지 상대적일 뿐이라고 전제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테오텍테스(Theodektes)의 희곡 중에 헬레네 (Helene)가 하는 말을 연상하게 된다.

부모 양계(父母 兩系)에서 모두 금지옥엽(金枝玉葉) 같은 신들의 후예인 나를 누가 감히 하녀라고 부른단 말인가?

- 8. 이러한 말들을 사용할 때, 사람들은 노예와 자유인, 혹은 또 귀족과 천민을 구별하기 위하여 선의 유무를 판정하는 하나의 기준을 사용한다. (1255b) 그들은, 사람은 사람에게서 나며 동물은 동물에게서 나는 것처럼, 훌륭한 사람은 훌륭한 사람에게서 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때로는 자연(自然)이 이러한 결과를 내려고 해도 그렇게 못하는 경우가 있다.
- 9. 따라서 위에 논급한 바와 같은 이견들이 있는 것에는 약간의 이유가 있으며, 실제적으로 모든 노예나 모든 자유인이 모두 자연적인 노예나 자연적인 자유인이 아닐수 있다는 것이 명백하다. 또한 자연적인 자유인과 자연적인 노예의 구별이 사실인 경우도 있으며, 이런 경우에는 전자(前者)가 주인이 되고 후자가 노예가 되어서 후자는 지배를 받고 전자는 자연적으로 타고난 주인으로서의 지배를 행사하는 것이 유익함과 동시에 올바르다.
- 10. 그러나 주인이 올바르게 지배하지 못하는 것은 주인과 노예의 양자에게 모두 불리한 일이다. 육체와 영혼처럼 전체와 부분은 동일한 이해를 갖고 있다. 그리고 노예는 생명체이지만 주인의 몸의 일부라는 의미로서 주인의 일부인 것이다. 그래서 주인과 노예 사이에는 양자가 모두 자신들의 위치를 자연적으로 차지했을 때

공통의 이해와 우정의 관계가 성립하는 것이다. 그러나 만일 이러하지 못하고 노예제가 그저 법적인 제재(制裁)나 우월한 힘에 의거하였을 때는 이와 반대로 이해의 갈등과 적대관계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 제7장

- 1. 위의 논의에서 노예주인의 권위와 정치가의 권위는 서로 다르며,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모든 종류의 권위가 동일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 명백하여졌다. 정치가의 권위는 자연적으로 자유인에게 행사되는 것이며, 노예주인의 권위는 자연적인 노예에게 행사되는 것이다. 또한 가장(家長)이 가정 내에서 행사하는 권위는 군주의 권위와 같다. 왜냐하면 모든 가정은 왕정(王政)처럼 다스려지기 때문이다. 반면에 정치가의 권위는 자기와 동등한 자유인들에게 행사하는 것이다.
- 2. 앞장의 말미에서 논한 것처럼 노예주인의 정의(定義)는 자연적인 노예들을 다스리는 천품을 타고난 사람이므로, 주인이 되는 것은 어떤 체계적인 지식을 배워서가 아니라 타고난 재질 때문인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노예나 자유인에게 모두적용되는 말이다. 그러나 주인으로서 배울 수 있는, 체계적 지식이 있고, 또 노예로서 배울 지식이 있을 수 있다. 후자의 것은 아마도 시라쿠사이(Syrakusai)의 어떤 학자가 고용된 하인들에게 어떻게 그들의 일상의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지 가르쳤다는 지식과 같은 성질의 것일 것이다.
- 3. 그런 주제에 관한 강습은 더 확대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요리법이나 다른 비슷한 형태의 기술을 요하는 가사일 같은 것을 포함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강습이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비록 다른 일들(즉 일상적인 천역)이 더 필요하다 하더라도, 어떤 일들(즉 기술을 요하는)은 보다 더 높게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속담이 있는 것이다.

노예보다 높은 노예도 있고, 주인보다 높은 주인도 있다.

- 4. 모든 이런 형태의 지식은 필연적으로 노예에게나 필요한 지식이다. 그러나 주 인으로서 필요한 지식도 있는데, 그것은 노예의 사용법이다. 주인됨은 그저 노예 를 소유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노예를 사용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이 주인에게 필 요한 지식이란 그다지 어마어마하고 굉장한 것이 아니다. 주인은 그저 노예가 할 수 있는 일을 시키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 5. 그러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대리 감독인에게 노예를 부리는 일을 맡기고, 그래서 남는 여가를, 정치나, 철학에 쓰는 것이다. 소유하기 위하여 노예를 획득하는 기술은 주인 노릇을 하는 기술이나 노예의 일을 하는 기술 과는 다르다—이것은 물론 이 기술을 올바르게 사용했을 때의 이야기이다. 왜냐하면 이 경우에 있어서 이 기술은 어떤 면으로는 전쟁의 기술 혹은 사냥의 기술이기때문이다.

노예와 주인의 구별과 정의(定義)에 관하여는 이 정도로 충분할 것이다.

#### 제8장

(1256a) 1. 우리는 이제 노예는 재산의 한 품목이라는 것을 고찰하였으므로 정상적인 방법에 따라서 (즉 분석적, 생성적 방법에 따라서) 여러 형태의 재산과 그것을 획득하는 기술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고찰하여 보자. 여기에 제기되는 첫 번째의 문제는 재산을 획득하는 기술이 가정을 운영하는 기술과 동일한가, 그것의 한부분인가, 아니면 그것에 보조적인 것인가 하는 것이며, 그리고 만일 그것이 보조적이라면 북을 만드는 기술이 옷감을 짜는 기술에 보조적인 의미에서 그러한가 아니면 청동을 주조하는 기술이 조각의 기술에 보조적인 의미에서 그러한가 하는 문제이다. 이 두 개의 보조적인 기술은 서로 다른 방법으로 주된 기술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즉 전자는 도구를 제공하는 것이며 후자는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2. 〈자료〉란 생산품으로 만들어지는 물체를 뜻한다. 예를 들어 양모는 옷감 짜는 사람에게 천을 만드는 물체가 되어 주는 것이고, 청동은 조각가에게 마찬가지의 역할을 하여 주는 것이다. 가정을 운영하는 기술이 재산 획득의 기술과 동일하지 않음은 명백하다. 후자의 기능은 단순히 경우에 따라서 자료나 도구 같은 것을 마련하는 것이지만 전자의 기능은 마련된 것을 사용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가정운영의 기술이란 바로 가정의 자원의 사용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획득의기술이 가정 운영의 기술과 동일하지 않다면 그것의 일부인가 혹은 그것과는 별개의 것인가 하는 문제에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

- 3. 만일 재산을 획득하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어떤 다른 원천에서 그가 재화나 재산을 획득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야 한다면, 그리고 재산이나 부(富)가 서로 다른 여러 부분들을 포함하고 있다면 우리는 획득이라는 것 전반을 고찰하기 전에 먼저이 여러 부분들을 고찰해 보아야 하며, 농사가 획득의 기술의 일부인가 아니면 별개의 기술인가 하는 점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실상 우리는 생활필수품을 마련하는 것과 관련된 직업이나 벌이의 모든 형태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이 질문을 제기해야 한다.
- 4. 이것은 또한 다음과 같은 고찰을 할 수 있게 한다. 즉 세상에는 여러 가지의 상이한 생존 형태가 있으며, 그 결과로 동물의 세계나 인간 세계에 있어서 모두 여러가지의 서로 다른 생활방식이 있다. 생존의 수단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 그리고 동물의 세계에 있어서 생존 수단의 차이에 따라서 생활방식에 여러 가지로 차이가생기는 것을 볼 수 있다.
- 5. 어떤 동물은 무리를 지어서 살며 또 어떤 동물은 분산하여 고립되어서 산다. 이 것은 모두 각자의 생존 수단이 편리하다고 생각되는 데 따른 것이다. 즉 어떤 동물은 육식이며 어떤 동물은 초식이고 또 다른 동물은 혼식인 것이다. 이렇게 자연은 각자가 더 편안하고, 생존에 필요한 것을 더 잘 얻을 수 있도록 서로 다른 생활방식을 구분하여 놓았다. 사실 같은 종류의 식물이 어떤 같은 부류에 속하는 모든 짐 승들에게 맞지 않는 것처럼, 그리고 다른 종류의 식물이 다른 종류에 각기 맞는 것처럼 육식동물들 사이에서도—초식동물들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지만—그 종류에 따라서 서로 생활방식이 다름을 볼 수 있다.
- 6. 이것은 인간의 세계에 있어서도 사실이다. 즉 사람들의 생활방식도 상당히 차

이가 난다. 가장 게으른 것은 유목민들이다. 그들은 별로 마음을 쓰지 않고 한가히 가축으로부터 생존 수단을 얻는다. 그리고 가축들이 목초지를 찾아서 이동하는 것이 필요하듯이 그들도 또한 이들을 좇아서 살아 있는 그리고 움직이는 농장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을 경작하여야 한다.

- 7. 수렵으로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들도 또한 서로 다른 수렵방식에 따라서 종류가 다르다. 어떤 사람들은 해적질로 생활을 한다. "어업에 적합한 호수나 높지대, 강, 혹은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은 고기를 잡는 것으로 생활하며, 또 어떤 사람들은 조류나 야생동물을 사냥하며 산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땅에서 그리고 농작물로부터 생계를 유지한다.
- 8. 자기 자신의 노동에 의존하는 직업을 가진, 즉 교환이나 상행위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만을 생각해 보면, 사람들의 생활방식은 대략 다섯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1256b)—즉 목축·농업·해적질·어업 그리고 수렵이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업종에 동시에 종사하면서, 그 중 어느 한 생활방식으로 생활을 충족하지 못할 때는 다른 부업으로 모자라는 부분을 보충하면서 안락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은 목축을 하면서 해적질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농사를 지으면서 사냥도 한다. 또 사람들은 자기 필요와 취미에 따라서 비슷하게 결합시켜 다른 생활방식들을 겸용한다.
- 9. 이런 식의 재화들은 확실히 자연(自然)이 모든 생물들에게 그것들이 태어날 때부터 성장이 끝날 때까지 제공해 주는 것이다.
- 10. 어떤 동물들은 새끼가 태어날 때 그 새끼가 자라서 스스로 먹이를 마련할 수 있을 때까지 지탱할 수 있는 양식을 함께 준다. 유충을 까서 번식하는 곤충이나 알 로써 번식하는 동물들이 그렇게 한다. 태생(胎生)의 동물들은 일정한 기간 동안 우리가 젖이라고 부르는 음식을 새끼들을 위하여 자체 내에 갖고 있다.

11. 해적질을 농사나 목축·수렵 같은 정상적인 상업으로 기술한 것이 이상한 일이지만 그 당시에는 아마도 무역이나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 인정이 되는 일이었던 것 같다. 바퀴의 앞의 책 110페이지 이하참조.

- 11.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다 성장한 생물에게도 또한 양식이 마련되어 있다고 믿지 않을 수 없다. 식물은 동물에게 생존의 수단이 되기 위하여 그리고 동물은 사람에게 생존의 수단이 되기 위하여 존재한다. 가축이 된 짐승들은 사람에게 노력과 식량을 제공한다. 야생의 짐승들도 대부분의 경우에 사람에게 식량뿐만 아니라의류나 혹은 그와 같은 생활에 도움이 되는 다른 일용품을 제공한다.
- 12. 따라서 자연은 목적 없이는 아무것도 만들지 않으므로 모든 동물들은 본래 사람을 위하여 만들어졌음에 틀림없다. 또한 전쟁의 기술도 어떤 의미에서는 재화획득의 한 자연적인 방식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수렵은 전쟁 기술의 일부이며, 우리는 야생의 짐승만을 사냥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타인에게 지배를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는 인간들도 사냥해야 한다. 왜냐하면이런 전쟁은 자연적으로 정당하기 때문이다.
- 13. 여기에서 어떤 형태의 재산 획득도 자연적으로 가계운영 기술의 일부라는 결론이 나온다. 이것은 가계를 운영하는 사람이 항상 쉽게 구할 수 있든지 아니면 자기 자신이 제공하거나 마련할 수 있어야 하는 획득의 형태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생활에 필요하며, 국가나 가정에 유용하며, 저장할 수 있는 물품들을 공급해 주기때문이다.
- **14.** 이들은 진정한 부(富)를 구성하는 물품들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좋은 생활을 위하여 충족한 가재(家財)의 양은 무제한적인 것은 아니다. 이것을 솔론(Solon)은 다음과 같이 시로 읊었다.

부의 한계란 사람들에게 정하여진 일도 알려진 일도 없다.

15. 가계운영의 기술에 필요한 재산에 관해서는 정해진 한계가 있다. 이것은 다른 기술에 필요한 수단들에 있어서 한계가 있는 것과 같다. 모든 기술에 있어서 필요한 도구들은 그들의 수단이 되는 기술의 필요에 따라 양과 크기로 한계가 정해지는데, 부는 가정 혹은 국가에 있어서 필요한 도구들의 집합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가정을 운영하는 사람들이나 혹은 정치인들이 행해야 하는 자연적인 획득의 기술이 있음이 명백하다. 그리고 그것이 존재하는 이유도 명백한데, 그것은 자연이 마련한 것을 사람은 자기의 필요를 위해 획득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다.

#### 제9장

- 1. 그러나 특별히, 그리고 올바르게 〈획득(獲得)의 기술〉이라 불리는 또 다른 형 태의 재산 획득의 일반적 기술이 있다. 이 두 번째 형태의 기술의 특징 때문에 (1257a) 부와 재산은 아무 한계가 없는 것이라는 의견이 생기게 된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 두 번째 형태의 재산 획득 기술이, 위에서 우리가 고찰해 본 다른 형태의 기술들과 비슷한 점이 많으므로, 그들과 동일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사실 그 것은 같은 것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매우 다른 것도 아니다. 우리가 위에서 언급한 기술들은 모두 자연적인 기술이지만 이 두 번째 형태의 것은 자연적이 아니고 어떤 종류의 경험과 숙련의 산물인 것이다.
- 2. 이 기술에 관해서 다음 관점에서 고찰을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 모든 재산 품목들은 두 가지의 가능한 용도가 있다. 이 두 가지의 용도가 모두 그 품목 자체에 속하는 것이지만 그 정도와 방식은 서로 다르다. 첫 번째 용도는 관련된 품목의 본성에 특유한 것이고 두 번째 것은 그렇지 않다. 신발을 예로 들면, 그것은 신을 수도있고 또 다른 물건과 교환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용도는 모두 신발 자체의 용도인 것이다.
- 3. 돈이나 음식을 대가로 신발을 필요로 하는 사람과 그것을 교환하는 사람도 신발을 신발로써 사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신발은 교환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므로 그러한 사용은 신발의 본성에 맞는 특유한 사용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 것은 다른 재산에도 모두 해당되는 것이다.
- 4. 모든 재산 품목은 교환이 가능하다. 이러한 사실은 현실에서 자연적으로 나온다. 즉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필요로 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은 부족하게 갖고 있음으로써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행위가 자연적

- 인 재산 획득의 일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일 이것이 자연적 획득의 일부라면, 거래 양측에 필요를 충족할 정도로만 이루어지면 될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상행위는 거래하는 한쪽이 이윤을 남기고 다른 쪽은 손해를 보는 것이다.
- 5. 첫 번째 형태의 결사, 즉 가정에 있어서는 교환의 기술은 전연 어떤 목적에도 소용이 닿지 않는다. 교환은 결사의 규모가 부락의 정도로 확대되었을 때에야 필요하다. 가족의 성원은 모든 것을 공유하였다. 부락의 구성원들은 여러 다른 가족들로 나뉘어 있으므로 여러 가지의 서로 다른 물품들을 갖고 있었는데, 필요에 따라서 이들을 물물교환의 형식으로 서로 바꾸지 않을 수 없었다. 오늘날에 있어서도 여러 미개인들은 같은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 6. 이러한 방식으로 유용한 물품들은 서로 직접적으로 교환되었지만 이 거래들은 더 이상 발달하지 못했다. 예를 들면 포도주와 밀이 교환되거나 다른 유사한 물품들이 서로 교환되는 것이다. 이런 방식에 따르면 교환의 기술은 자연에 위배되는 것도 아니고 결코 어떤 형태로건 간에 획득의 기술이 될 수는 없었다. 교환은 단지 충족을 위한 자연적 요구만을 만족시켜 주는 데 불과하였다.
- 7.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행해진 거래들로부터 두 번째 의미로서 획득의 기술 이 발전된 것이다. 이런 과정을 우리는 추리에 의하여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결핍된 물자들을 수입하고 남아도는 것들을 수출함에 따라서, 사람의 필요에 응하는 공급이 차츰 외국의 자원에 의존하게 되었다. 이런 방식에서 불가피하게 유통화폐가 생기게 된 것이다.
- 8. 이 화폐제도가 생겨나게 된 이유는 자연적으로 필요한 모든 물품들이 쉽게 운반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때문이다. 따라서 사람들은 교환의 목적을 위해 그 자체로서 유용한 물자와, 생활필수품을 얻는데 다루기 편리한 물품을 주고받기로 합의한 것이다. 그런 물품이란 철·은 혹은 다른 유사한 금속들이다. 처음에는 그것들의 가치가 단순히 무게와 크기로서 결정되었으나 마침내 그 금속들에게 일정한 양을 나타내는 표지를 해서 그때 그때마다 그 가치를 결정해야 하는 수고를 덜게 되었다.

(1257b) **9.** 이런 방식으로 어떤 화폐가 정해진 다음에는 교환의 필연적인 과정으로

부터 새로운 재산 획득의 형태가 생겨나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상행위이다. 처음에는 이것이 아마도 단순한 방식으로 이루어졌을 것이다. 즉화폐는 하나의 수단으로 간주되었지 이익의 원천으로는 취급되지 않았다. 그러나 시간이 가고 경험이 쌓임에 따라서 좀 더 복잡하고 기술적으로 행해지게 되었는데, 그래서 더 큰 이윤을 낼 수 있는 원천과 방법을 찾으려고 하게 된 것이다.

- 10. 그 결과로 재산 획득의 기술이란 특히 돈을 버는 것이며, 그것의 기능이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재원을 찾아내는 능력이라는 생각이 나오게 된 것이다. 이 견해를 뒷받침하여 재산 획득의 기술이란 부와 돈을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런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재산 획득의 기술이 유통 화폐를 대상으로 한다는 근거에서 부는 단순히 화폐의 축적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 11. 이런 생각에 반대하는 또 다른 견해도 있다. 이 견해에 의하면 화폐는 가짜의 부이며 전적으로 관행에 불과하다. 또한 본질적으로 화폐란 허구이다. 왜냐하면 만일 어떤 화폐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다른 화폐를 사용하기로 결정한다면 그 화폐는 생활의 필요에는 아무 가치도 소용도 없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때로는 화폐를 잔뜩 갖고 있는 사람이 생존에 필요한 물품을 입수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사람이 그 물건을 잔뜩 갖고 있으면서도 굶어 죽을 수 있는 것을 부라고부르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에 틀림이 없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은 우화에 나오는미다스(Midas)왕이 그 자신의 탐욕스러운 소망에 따라서 그 앞에 놓인 모든 물건이 곧 금으로 바뀌어 버렸다는 이야기에서 볼 수 있다.
- 12. 이런 주장을 근거로 해서 이 두 번째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부와 획득의 기술에 관한 다른 개념을 찾아내려고 하는데, 이런 기도는 올바른 것이다. 자연적인 획득의 기술과 자연적인 부는 서로 다른 것이다. 획득의 기술의 자연적인 형태는 가정의 운영과 관련이 있는 것이지만 다른 형태의 획득의 기술은 단지 상행위에 불과하며 화폐를 벌어들이는 것이고, 그저 물품의 교환을 수단으로 할 뿐이다.이 두 번째 형태의 기술은 화폐의 힘에 의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화폐가 상거래의 시작이며 동시에 그 목표이기 때문이다.
- 13. 또 다른 하나의 차이점은 이 두 번째 형태의 기술에 의해 만들어지는 부는 한

정이 없다는 것이다. 의술(醫術)은 건강을 유지하도록 하는 데 있어서 아무 한계도 설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모든 기술은 각자가 그 기술의 목적을 최대 한도로 실현하려 하므로, 목표를 추구함에 있어서 어떤 한계도 인정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물론 의술이나 다른 기술들이 일반적으로 그들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사용하는 수단에 한계를 설정하고 이를 지킨다. 왜냐하면 목표 자체가 수단의 한계를 구성하기 때문이다. 상행위로써 재산을 획득하는 기술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그것이 추구하는 목표에는 한계가 없다. 그 목표는 위에 말한 바와 같은 부이며 그저 돈을 버는 것이다.

14. 그러나 상행위를 통한 치부와는 달리 가정운영 기술을 통한 재산 획득에는 한 계가 있다. 그리고 이 기술의 목적은 무한정한 부가 아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고찰하여 보면 모든 부에는 한계가 있음이 틀림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제의 경험에 있어서는 그 반대의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재산을 획득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쉬지도 않고 한정도 없이 돈을 더 많이 벌려고하는 것이다.

15. 이 모순의 원인은 두 개의 서로 다른 획득 방식들 사이에 깊은 연관이 있다는데 있다. 그들은 모두 같은 대상을 다루며 같은 획득의 분야에서 활동하므로 중복이 된다. 그러나 그들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활동을 하는 것이다. 한쪽이 목적으로삼는 것은 그저 재산의 축적에 불과하며 다른 쪽의 목적은 이와는 아주 다른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 방식이 중복되므로 어떤 사람들은 단순한 축재가 가계운영의목적이라고 믿으며,이런 사고방식 때문에 그들은 부를 돈으로 저축하여 놓고 그것을 쓰지 않으며 또 무한정하게 증가시켜야 한다는 생각에 집착하는 것이다.

16. 그러나 이러한 마음가짐의 근본적인 원인은 자신의 좋은 생활보다도 생계에 대한 걱정이 더 크다는 사실이다. (1258a) 그리고 사람들의 생활에 대한 욕망이 무한정하므로, 생활을 지탱해 주는 물건들에 대한 욕심도 무한정 커지는 것이다. 좋은 생활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까지도 물질적인 향락을 얻는 수단들을 추구한다. 그리고 그들이 추구하는 바가 획득의 활동에 달려 있는 것처럼 보이므로 그들은 전적으로 돈을 버는 일에 몰두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다른 형태의, 즉 저

차원적인 획득의 기술이 유행하게 된 것이다.

17. 향락은 물질적인 여유의 소유에 달려 있으므로, 사람들은 향락에 필요한 여유를 만드는 기술에 전념하는 것이다. 그리고 만일 그들이 원하는 바를 그 기술로—즉 획득의 기술로—얻을 수 없으면 그들은 다른 수단을 사용하여, 즉 모든 능력을 본성에 위배되는 방식으로 동원해서 목적을 달성하려고 한다. 예를 들면 용기의본래 기능은 돈을 버는 것이 아니고 자신(自信)을 주는 것이다. 무술 혹은 의술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어느 것도 돈을 버는 기술은 아니다. 무술은 전쟁에서 이기는 것을, 그리고 의술은 건강을 가져다 주는 것을 본령으로 한다.

**18.**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은, 마치 돈을 버는 것만이 유일한 목적이고 다른 모든 것은 이 목적을 좇아야 하는 것처럼, 모든 능력을 재산 획득의 기술들로 전환한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제까지 불필요한 획득 기술의 형태에 관해 논하였다. 우리는 그 기술의 본성을 묘사했고 어째서 사람들이 그런 기술이 필요한지 설명했다. 우리는 또한 그것의 필요한 형태에 관해 논하였다. 즉 그 기술은 다른 기술과 다르고 생활필수품을 조달하는 기능을 하며, 따라서 다른 형태의 기술과는 달리 무한한 목표를 갖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한계를 갖는 가정운영 기술의 일부라는 것을 관찰했다.

#### 제10장

1. 앞장에서 논한 바는 우리가 애초에 제기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명확하게 해결해 주었다. 『획득의 기술은 가정을 운영하는 자나 정치인의 영역에 속하는 것인가? 혹은 그 영역 밖에 있어서 그들은 재산의 획득에는 관여치 않고 재산은 그저 주어져 있는 것으로 생각하려 하는가?』 두 번째의 명제가 옳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근거로서, 마치 정치인의 기술이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것과는 관계가 없고 자연이 공급해 놓은 사람들을 다스리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사람들의 생존에 필요한 수단은, 육지나 바다 혹은 다른 어떤 것이고 간에 자연이 마련하여 주었음에 틀림없다

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논거에서 가정을 운영하는 사람의 본령 은 그가 이미 갖고 있는 것을 잘 경영하는 것이다.

- 2. 옷감을 짜는 기술은, 양모를 만드는 것과는 상관이 없고, 그것을 사용하고 또한 질이 좋고 적합한 양모와 그렇지 못한 것을 구별해 내는 것이다. 똑같은 원리가 가정운영에도 적용된다. 만일 이와 같지 않다면, 즉 획득의 기술이 가정운영의 기술의 일부라고 주장한다면, 어째서 의술도 또한 그 기술의 일부가 아닌가 하는 질문이 제기될 수 있으며, 가정의 구성원들이 우선 생명을 유지해야 하고 생존에 필요한 다른 필수품들을 필요로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건강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할수도 있을 것이다.
- 3. 가정을 운영하는 자나 정치인은 그 성원들의 건강을 돌보아야 한다는 합리적인 견해의 주장에도 일리가 있지만, 건강의 유지는 이들의 책임이 아니고 의사들만의 책임이라는 견해도 또한 한번 고려해 봐야 한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재산의 문제에 있어서도, 가정을 운영하는 자가 재산 획득의 문제도 돌봐야 한다는 것도 일리가 있지만 관점을 달리하여 생각해 보면 이것은 그의 업무가 아니며 획득은 보조적인 기술에 속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미 고찰한 바와 마찬가지로 재산의 공급은 자연이 마련해 준 것으로서 운영 이전에 이미 있어야 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생물에 대하여 자연은 생존수단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이것은 짐승의 새끼들이 항상 그 출생을 가능하게 했던 모체로부터 영양을 공급받는다는 사실로 미루어 보 아 알 수 있다.

4. 따라서 획득의 기술의 자연적 형태는 어느 경우나 항상 자연의 과실 혹은 짐승으로부터 필요품을 얻는 것이다.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이 기술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다. 하나는 상거래와 관련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가정의 운영에 관련 된 것이다. 이 두 가지 형태 중에 후자가 필요하며 또 떳떳한 것이고, 전자는 비난을 받아 마땅한 교환의 방법이다. (1258b) 왜냐하면 그것으로 얻는 이득은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희생으로 한 것이기 때문이다. 대금업자(貸金業者)들의 장사는 가장 미움을 받는데 이것은 당연한 일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화폐의

본래 기능인 유통 과정으로부터가 아니라 화폐 자체로부터 이득을 얻기 때문이다. 5. 화폐는 단지 교환의 수단으로서 생겨난 것이다. 대금업자들은 마치 화폐 자체가 목적인 양 그것을 증식시키려고 한다. 이런 이유로 대금업을 흔히 〈새끼를 친다〉라고 부른다. 12 왜냐하면 마치 새끼가 그 부모를 닮는 것처럼 돈의 증식인 이자는 그것을 낳은 원금과 같은 것이며 따라서 〈돈의 새끼인 돈〉이라고 부를 수 있기때문이다. 그러므로 획득의 여러 방식 중에서 왜 대금업이 가장 비자연적인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 제11장

- 1. 우리는 순수이론적인 면과 관련하여 획득의 기술이라는 주제를 충분히 논하였다. 이제는 실제적인 사용에 관하여 고찰해 보아야 한다. 이런 문제들은 이론적으로는 자유롭게 다루어도 좋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주변 환경에 따라서 다루어야 한다. 실제에 사용되는 획득 기술의 여러 가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목축인데 우리는 어떤 종류가 제일 이득이 많이 나는가, 그리고 어떤 땅에서 어떻게 다루어야 제일 유리한가를 알아야 한다. 예를 들면 말·소·양 혹은 다른 가축들을 기르는 방법을 바로 알아야 한다.
- 2. 우리는 경험에 의해서만 어떤 종류의 가축이 다른 것과 비교해서 이득이 더 남는가, 혹은 어떤 땅에서 어떤 종류가 잘 되는지를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어떤 종류는 어떤 땅에서 잘 되지만 다른 종류의 가축은 또 다른 땅에서만 되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는 농업인데 이것은 곡물 경작과, 포도와 올리브 등의 과수재배·양봉(養蜂), 또는 생계에 도움이 되는 어류나 조류를 치는 것이다.

12. 그리스어의 대금업인 tokos의 어원은 같은 말인 〈새끼를 치다〉혹은 〈새끼〉이다. 그리고 기원전 4세기 경의 그리스의 아테나이는 이미 오늘날의 은행 같은 금융업이 발달하기 시작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현실에서 자극을 받아 이 부분을 썼을 것이다.

- 3. 이것들이 바로 자연적이고 올바른 형태의 재산 획득, 즉 생산의 기술이다. 그 다음으로는 교환에 관해 고찰해 보면,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이 상업인데 해운 · 운수, 그리고 판매의 세 가지가 있으며, 이들 중 어떤 것은 안전성이 높고 다른 것은 이익률이 높다는 차이가 있다. 두 번째로는 투자를 하여 이득을 남기는 것이고 세 번째는 보수를 받고 용역을 제공하는 서비스업이다.
- 4. 교환의 이 마지막 업종, 즉 서비스업에는 기계공학적인 숙련된 기술공이 하는 일이 있고 육체적인 노동만을 할 수 있는 비숙련공이 하는 일이 있다. 획득 기술의 세 번째 형태는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중간쯤 되는 형태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첫 번째 즉 자연적 형태의 획득 기술적인 요소와 두 번째 즉 교환 형태의 획득 기술을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즉 땅 속에서 나오는 물건들이나, 과실을 맺지는 않지만 역시 유용한 땅의 생산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예를 들면 임업 또는 광업 등이다.
- 5. 광업에는 여러 업종이 있는데 이것은 땅에서 나는 금속에도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이다
- 이제 여러 가지 형태의 획득에 관해 일반적으로 언급하였다. 이들에 관해 세부적 인 사실을 자세하게 고찰하면 실제적으로는 유용하겠지만 별로 좋은 취미는 되지 못할 것이다.
- 6. 그저 다음과 같은 말로써 고찰을 끝내면 충분하겠다. 가장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업종은 우연적인 요소가 가장 적은 것이다. 가장 나쁜 것은 몸에 해가 많이 미치는 업종이며, 가장 천한 것은 육체적인 힘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직업이고, 가장 저급의 것은 사람다운 우수함(goodness)을 제일 필요로 하지 않는 직업이다. 7. 여러 학자들이 이 문제들에 관해 저술을 냈다. (1259a) 파로스(Paros)의 카레티 데스(Charetides)와 레므노스(Lemnos)의 아폴로도로스(Apollodoros)는 곡물 경작과 과수원(포도와 올리브) 경작에 관해 책을 썼고, 다른 사람들은 또 다른 문제들에 관해 저술들을 하였다. 이 문제들에 관해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이 책들을 참고하여 연구하는 것이 좋겠다. 또한 여러 사람들이 치부를 한 방법들에 관해 기술한 이야기들을 수집하는 것도 좋겠다.

- 8. 이런 저술들은 모두 획득의 기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유용한 것이다. 예컨대 밀레토스(Miletos)의 탈레스(Thales)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 이야기는 탈레스가 지혜롭기로 이름났기 때문에 그에 관한 이야기로 알려져 있다. 이 것은 돈을 버는 한 방법에 관한 이야기지만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원칙을 포함하고 있다.
- 9. 이야기에 의하면, 사람들은 탈레스가 가난한 것을 비웃으며 철학이란 쓸모없는 것이라고 조롱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는 그의 기상학의 지식으로 그 해에 올리브수확이 많을 것을 예견하고 일찌감치 그가 갖고 있는 적은 돈으로 밀레토스와 키오스(Chios)에 있는 모든 올리브유(油)를 짜는 기계를 임대하는 보증금을 걸어 놓았다. 그때에는 다른 경쟁자가 없었으므로 싼 값으로 계약을 할 수가 있었다. 그런데 수확기가 되어 갑자기 모두 기름 짜는 기계가 필요하게 되자 그가 부르는 값으로 그는 그 기계를 빌려 주었다. 그는 이렇게 큰 재산을 만듦으로써 만일 철학자가마음만 먹으면 부자가 될 수 있지만 단지 그것이 철학자의 관심사가 아닐 뿐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한다.
- 10. 이것은 탈레스가 그의 지혜를 증명하여 보여준 이야기로 알려져 있지만, 위에 언급한 것처럼 그가 사용한 계획은—즉 결과적으로 독점의 창조였는데—획득의 기술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원칙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어떤 국가나 개인들은 돈이 필요할 때 이 방법을 사용한다. 즉 물품의 공급을 독점하는 것이다.
- 11. 시칠리아(Sicilia)에 있는 어떤 사람은 자기가 맡아 가지고 있는 돈으로 철물점의 철물들을 모두 매점해서, 소매상들이 철물을 사려고 했을 때에는 그 사람에게서 밖에는 살 수가 없도록 했다. 그는 값을 너무 크게 올려 받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50탤런트<sup>13</sup>의 비용을 들여 100탤런트의 이유을 남겼다.

13. 탤런트(talent): 드라크마(Drachma)와 같은 고대 그리스의 화폐 단위의 하나.

- 12. 이 투기(投機)가 시라쿠사이의 지배자인 디오니시오스(Dionysios)에게 알려지자, 그는 이 사람에게 그가 번 돈은 갖되 시칠리아를 떠나라고 명령했다. 그 이유는 그가 디오니시오스 자신의 이익에 해로운 돈 버는 방법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의 착상은 탈레스와 동일한 것이었다. 즉 이 두 사람이 한 짓은 사적인 독점이었던 것이다.
- 13. 그러나 이런 방법들을 알고 있는 것은 개인이나 마찬가지로 정치인에게도 유용한 것이다. 즉 국가는—가정이나 마찬가지이지만 그보다 더 정도가 심하게—재원(財源)이 필요하며, 따라서 치재(致財)의 방법을 더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해서 정치적으로 입신하려는 사람들 중에 어떤 이들은 그들의 정치적인 활동을 재정적인 문제에만 국한한다.

### 제12장

- 1. 위에서 우리는 가정운영의 기술에는 세 부분이 있다고 했다. 첫 번째 부분은, 우리가 말한 바 대로 노예를 다스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부모로서의 권위를 행사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남편으로서의 권위를 행사하는 것이다. 끝의 두 가지 부분에 관해서는 앞으로 따로 따로 논해야 한다. 왜냐하면 가장(家長)은 부인과 아이들을 지배하며, 이 지배관계는 가정의 자유인의 성원들로서의 관계이지만, 이 지배는 양자의 경우 각기 그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다. (1259b) 남편의 아내에 대한 지배는 동료시민에 대한 정치인의 지배와 같으며 아이들에 대한 지배는 군주의 신하에 대한 지배와 같다. 자연적인 상태에서 이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남성이 여성보다 지배에 더 적합하다.
- 2. 정치인의 지배와 같은 종류의 지배관계가 있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지배와 피지배 관계는 교대로 뒤바뀌는 것이다. 정치적 결사의 구성원들은 본질적으로 평등하며 차이가 없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런데, 이런 목적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시민의일부가 지배하고 있을 때 다른 일부는 지배를 당하는 것이다. 전자는 자신들을 후

자와, 외형적으로, 말하는 방식이나 경칭 등으로, 구별하려고 한다. 이것은 아마시스(Amasis)가 그의 발 씻는 대야에 관해서 말한 것을 상기시켜 준다. 나 남자의 여자에 대한 관계는 정치인이 동료시민을 다스리는 관계가 영구화된 것과 같다.

3. 반면에 아이들에 대한 부모의 지배는 군주가 신하를 지배하는 것과 같다. 아버지의 권위는 그가 당연히 받아야 하는 애정과 연장자로서의 권리에서 나오는 것이므로 그의 위치는 왕권과 같은 성질의 것이다. 따라서 호메로스가 모든 신과 사람들의 왕인 제우스(Zeus)를 칭하여, 모든 인간과 모든 신의 아버지라고 한 것은 올바른 것이다. 왕은 그의 신하들보다 자연적으로 우월해야 하지만 동시에 그들과같은 사람들이어야 한다. 젊은이에 대한 연장자의 관계, 그리고 자식에 대한 부모의 관계도 마찬가지이다.

### 제13장

- 1. 위의 논의에서 가정을 운영하는 것은 생명이 없는 재산보다 사람들에 더욱 관련되어 있으며, 재산을 잘 유지하는 것(즉 富)보다 사람들을 잘 유지하는 것에 더욱 관련되어 있으며, 그리고 끝으로 가정의 노예보다 자유인 구성원들에 더욱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 명백하여졌다.
- 2. 여기에서 노예에 관해 예비적인 질문을 제기하여도 좋겠다. 노예는 주인의 도구로서 천역(賤役)에 종사하는 것 이상의 어떤 〈선(善)〉을 갖고 있는가? 즉 절제 · 인내 · 정의 혹은 다른 어떤 도덕적인 성질에 속하는 것 같은 더 고차원의 가치를 갖는 것인가? 아니면 그가 제공하는 육체적 노역 이외에는 아무런 〈선〉도 없는 것

14. 아마시스는 원래 이집트의 하층민 출신으로 왕이 되었는데 국민들이 그를 업신여기므로 그의 발 씻는 대야로 신상(神像)을 만들고 나서 국민들이 그것에 예배하는 것을 비유로 하여, 출신이 천하더라도 귀하게 될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고 한다. 래컴(H.Rackham)의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 58페이지 주 (註)b 참조.

# 인가?

- 3. 이 질문의 양쪽이 모두 곤란한 문제를 제기한다. 만일 노예들이 고차원의 〈선〉을 갖는다면, 자유인과 어떻게 다른 것인가? 만일 아무런 선이 없다면 역시 놀라운 일이다. 그들도 이성이 있는 인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렇게 노예에 관해 제기되는 질문은 아내와 아이들에 관해서도 거의 꼭 같이 제기될 수 있다. 그들도 고차원의 〈선〉을 가질 수 있는가? 아내도 절제 있고, 용감하고, 정의롭다는 뜻에서 〈선〉해야 하는가? 아이를 절제가 있다 없다 하고 말할 수 있는가? 이 문제의 답은 과연 긍정인가 아니면 부정인가?
- 4. 우리는 어떤 답을 내리기 전에 좀 더 논의해야 할 것이 있다. 이 문제를 우리는 일반적인 형태로 고찰해야 한다. 자연적으로 지배자인 자의 선은 자연적으로 지배 받는 자의 선과 동일한가 아니면 다른가? 만일 양자가 모두 공통의 선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어째서 그들 중의 하나는 영원히 지배자이고 다른 하나는 영원히 지배를 받아야 하는가? 양자의 차이가 그저 정도의 차이에 불과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지배자와 피지배자 간의 관계는 서로 다른 종류의 차이이며 정도의 차이와는 아무 관련이 없기 때문이다.
- 5. 만일 반대로, 그들 중의 하나는 도덕적 선이 있고 다른 하나는 없다면, 이것은 이상한 일이다. 양자가 모두 절제와 정의로움을 갖추지 않는 한, 어떻게 지배자가 올바르게 다스려질 수 있겠는가? 방종하고 비겁한 자는 그의 의무를 전혀 수행할 수 없을 것이다. (1260a) 이제 다음과 같은 결론이 분명해진다. 즉 양쪽 계급이 모두 함께 선을 갖추고 있어야 하지만 그 선의 종류는 다른 것임에 틀림없다. 이것은 마치 피지배층들 사이에서도 서로 다른 계층에 따라 서로 다른 선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 6. 여기에서 제시된 지배자와 피지배자는 서로 다른 선을 갖고 있다는 견해에 의해서 우리는 영혼의 본성을 바로 깨달을 수 있다. 영혼에는 본래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지배적 요소이고 다른 하나는 피지배적 요소이다. 이들 요소는 각자 서로 다른 선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이성적이며 지배적 요소에 속하는 선과 비이성적이며 피지배적 요소에 속하는 선이다. 영혼에서도 이렇다면, 가정과 국가

에도 명백히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sup>15</sup> 따라서 우리는 자연적으로 지배적인 요소와 자연적으로 피지배적인 요소가 공존하는 것이 어디서나 통용되는 일반법칙이라고 결론 내릴 수 있다.

- 7. 자유인의 노예에 대한 지배와, 남성의 여성에 대한 지배, 그리고 성인의 아이들에 대한 지배는 각각 그 종류가 다르다. 이 모든 사람들이 공통으로 영혼의 서로다른 부분들을 소유하고 있지만 그 소유의 정도가 서로다른 것이다. 노예는 사고(思考)의 능력이 전혀 없으며, 여성은 사고의 능력이 있지만 그 소유의 형태가 불분명하며, 어린아이는 그것이 제대로 성숙되지 못한 형태다.
- 8. 이것은 그대로 도덕적 선의 소유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모두 그것을 함께 갖고 있지만 각자가 그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만큼만 갖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지배자는 이성적 사고에 기초한 완벽한 형태로 도덕적 선을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의 기능은, 그 전체적인 성격에서 절대적으로 고려하자면, 우두머리 장인(匠人)의 기능을 요구하는 것이며 이성이야말로 그런 우두머리 장인의 기능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든 다른 사람들은 그들의 특별한 위치에 따라서 그들에게 필요한 정도로만 도덕적 선을 갖는다.
- 9. 따라서 도덕적 선은 위에 언급한 모든 사람들이 갖추어야 하는 것이지만, 절 제—마찬가지로 인내와 정의도—는 소크라테스가 주장한 것처럼 여자에 있어서도 남자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는 아니다. 예를 들어, 남자에게 있어서의 인내는 지배와 연관되어 나타나는 것이고 여자에게 있어서는 봉사와 연관되어 나타나는 것이다. 다른 형태의 선도 마찬가지이다.
- 10. 우리가 주제를 더 자세하게 그리고 부분별로 나누어서 고찰해 보면 이 결론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일반적인 개념으로 말을 하거나, 선은 〈영혼의 좋은 상태〉 혹은 〈올바른 행동〉이라고 주장하거나, 또는 이와 같은 종류의 말을 하는 것

15. 이와 같이 사람의 영혼을 이성적인 부분과 비이성적인 부분으로 나누고, 이것을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계급들의 설명에 확대하여 적용하는 것은 소크라테스에서부터 낯익은 것이다. 플라톤의 《국가》 참조.

은 자기기만의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그런 일반적인 정의들을 하는 것보다 고르기아스(Gorgias)가 한 것처럼 선의 상이한 형태들을 단순 열거하는 방법이 훨씬 더 좋다.

11. 따라서 우리는 시인 소포클레스(Sophokles)가 여자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한 것이 일반적인 진리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겸손한 침묵이 여자의 영예이다.

그러나 이 진리는 남자에게는 허용되지 않는다. 어린 아이는 미숙하며, 따라서 그의 선은 분명히 그의 현 존재와 관련되는 것이 아니고 그가 성년이 되었을 때의 존재와 그리고 그의 보호자와 관련되는 것이다.

- 12. 또한 마찬가지로 노예의 선도 그의 주인과의 관계에서 생각해야 할 문제이다. 노예에 관해 논하면서 우리는 노예란 생활에 필요한 목적들에 유용한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그렇다면 노예가 필요로 하는 선은 보잘것없는 것이 분명하다. 즉 무절제, 비겁함 같은 것 때문에 자신의 의무를 수행하는 데 결함이 없도록 하는 정도의 선 밖에는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이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직공(職工)들도 선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이 제기된다. 왜냐하면 그들도 때때로 무절제 때문에 그들의 일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이다.
- 13. 그러나 직공들의 경우는 노예의 경우와는 매우 다른 것이 아닌가? 노예는 주인의 생활의 한 수행자이지만, 직공은 자기 주인에게 그 정도로 매달려 있는 것은아니다. 그에게 있어야 하는 선의 정도는 그의 예속적 위치의 정도에 비례하는 것이다. 기계의 일을 하는 직공은 그 예술적인 지위가 한정되어 있으므로 노예보다는 예속이 덜하다. 또한 (1260a) 노예는 자연적으로 노예의 계급에 속하지만 구두만드는 직공이나 또는 어떤 다른 직공은 그 계급에 속하는 것은 아니다.
- **14.** 따라서 한 가정의 가장은 노예에게 우리가 논의한 종류의 선이 있도록 해야 하며, 특정한 일들에 관해 지시를 내리는 운영자로서가 아니라 도덕적 안내자로서 그렇게 해야 한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노예에게는 이성이 없다는 사람들, 그리고

노예는 그저 개별적인 명령들만을 따라서 일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동 의하지 않는다. 아이들에게보다 노예들에게 훈계가 더 필요하다.

15. 이것으로써 이 문제들에 관해서는 충분히 논의한 셈이다. 아직 남아 있는 다른 문제들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 부모와 자식들의 관계, 그리고 이 관계들에 있어서 관련된 사람들 각기의 고유한 선의 성질, 각자들의 상호 연결의 성격, 즉 그것의 우수한 성질과 결함, 그리고 이 성질을 성취하고 결함을 피하는 방법들이다. 이 모든 문제들은 후에 정부의 형태에 관해 논하면서 취급될 것이다. 이 문제를 연기시키는 이유는 이러하다. 모든 가정은 국가의 일부이며, 남편과 아내의 세계, 부모와 자식들의 세계는 모두 가정의 일부분들이다. 이 모든 부분의 선은 전체의 선과 연관하여 생각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어린아이와 여자들의 선이 국가의 선에 관련 있다고 생각하는 한에 있어서는, 어린아이와 여자들의 교육을 다루기 전에 정부에 관해 생각해 봐야 한다.

16. 그런데 어린아이와 여자들의 선은 국가의 선과 관계가 깊다. 여자는 전체 자유인 인구의 반이고 아이들은 자라서 장래 국가의 운명에 참여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미 가정의 어떤 면들에 관해서는 논했고, 다른 문제들에 관해서는 후에다시 논할 것이므로, 이제는 가정에 관해서는 일단 논의를 끝내고 새로운 문제를고찰해도 좋을 것이다. 먼저 이상적인 정부형태에 관해 의견을 내놓은 사람들의이론들을 연구해 보자.

Olje Foundation | Share the wisdom. Change the world.



이상국가에 대한 견해



## 제1장

(1260b27) 1. 여기에서 우리들의 목적은 가장 이상적인 생활방식을 추구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형태의 정치공동체는 어떤 것인가 고찰해 보는 것이다.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형태의 이상적인 정부들을 살펴보아야 한다. 우리는 좋은 정치를 하고 있다고 알려진 나라들에서 실제로 시행되고 있는 형태들뿐만 아니라 이론가들이 설계하여 좋은 명성을 얻은 다른 형태의 정부들도 고찰해야 한다. 이런 고찰에 따르는 결과로 두 가지 이득을 얻을 수 있다. 첫째로 우리는 우리들이 연구하는 분야에 있어서 무엇이 유용하고 무엇이 올바른지 알아낼수 있다. 둘째로 우리가 조사한 정부형태와는 다른 어떤 것을 찾으려고 하더라도, 사람들은 우리가 마치 어떤 대가를 치르고라도 그들 자신의 창의력만을 나타내려는 사상가들과는 달리, 기존 정부형태들에 결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 2. 우리는 먼저 이런 논의에 있어서 가장 적절한 출발점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우리는 다음의 세 가지 대안(代案)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첫째 모든 시민들은 모든 것을 공유(共有)로 해야 한다. 둘째 아무것도 공유로 해서는 안된다. 셋째 어떤 것은 공유로 하고 어떤 것은 공유로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두 번째의 것—즉 시민들은 아무것도 공유로 해서는 안된다—은 분명히 불가능하다. 국가는 근본적으로 사람들의 공동체이며 그 구성원들은 우선 거주지가 공통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1261a) 어떤 국가든 일정한 지역을 차지하고 있으며 또 이 국가는 그 시민들에게 공통으로 속하는 것이다.
- 3. 이제 우리는 위에 말한 첫 번째와 세 번째 대안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국가가 잘 운영이 되려면 가능한 한 모든 것을 공유로 해야 하느냐, 아니면 어떤 것을 공유로 하고 어떤 것을 사유로 해야 하는가? 첫 번째 것을 선택한다면 시민들은 서로 간에 아내와 아이들과 재산을 공유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은 플라톤의 《국가》에서 주장된 것인데, 바로 그 책에서 소크라테스는 처자와 재산을 공유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현재의 상태—즉 사유재산과 개별적인 가족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국가》에 설명되어

있는 생활의 규칙을 따라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 제2장

- 1. 아내를 공유하는 체제를 만드는 데 여러 어려운 점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두 가지의 주된 난점이 있다. 소크라테스가 주장한 이러한 제도의 실행은 명백하게 그가 사용하는 논리로는 확립되지 않는다. 그가 국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설명하는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서 그가 그린 계획은 실현하기 어려운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계획을 해석할 방향에 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 2. 소크라테스가 그의 주장의 전제(前提)로 삼은 목적은 『전체 국가의 가능한 한 최대한의 일치성이 최선이다』라는 원칙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계속해서 자꾸만 하나의 단위로만 되어가는 국가는 결국에 가서는 국가가 아닌 것으로 변질되고말 것이다. 국가란 본질적으로 어떤 종류의 집합체이다. 만일 국가가 한 개의 동질적 단위로 되고 만다면 그것은 우선 국가라기보다 가정이 되고말 것이고, 그러고는 가정이라기보다는 개인이 되고말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국가보다는 가정이 한 개의 동질적 단위에 가깝고 가정보다는 개인이 한 개의 동질적 단위에 가깝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설혹 우리가 이러한 목표를 성취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국가가 파괴되고말 것이기 때문이다.
- 3. 여기에는 또 다른 반론이 있다. 국가는 여러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다른 종류의 사람들로써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같은 사람들 끼리는 국가를 이룰 수 없기 때문이다. 국가와 군사동맹과는 다른 것이다. 군사동 맹은 본질적으로 그 동맹의 구성원들이 상호 제공할 수 있는 서로의 도움을 위해 형성된 것으로서, 그 효용이란 순전히 그것의 양적인 크기에 있다. 즉 그 동맹 구성원들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 하더라도 그 동맹의 규모만 크면 좋은데 마치이것은 저울에 있어서 추의 무게만이 문제가 되는 것과 같다. 국가는 이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다. 즉 국가의 구성원들은 각기 다른 능력을 갖고 있어서 서로

보완적인 역할을 하고, 각기의 서로 다른 봉사를 상호 교환함으로써 모두다 더 높은 그리고 더 나은 삶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가는 또한 부족과도 다르다. 즉 아르카디아 처럼 그 부족민들을 여러 개의 부락으로 산재 시켜 놓지 않고 한 연방체(聯邦體) 안에 통합하고 있는 부족일지라도 국가는 아닌 것이다. 국가와 같은 진정한 통일체는 서로 종류가 다른 여러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

- 4. 국가는 서로 다른 요소로 구성되며, 서로 다른 능력을 상호 교환하는 것이라는 위의 논의로부터 우리는 하나의 결론을 끌어낼 수 있다. 즉 모든 국가의 안녕은 그 구성 요소들이 각기 국가로부터 받는 것만큼의 봉사를 하는 것에 달려 있는 것이다. 이것은 내가 이미 《윤리학(倫理學》》에서 주장한 원칙이다. 2 이 원칙은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 사이에서도 지켜져야 한다. 그들 모두가 동시에 지배할 수는 없다. 그들은 예를 들어 일 년씩 관직을 맡거나 아니면 기간(期間)이나 승계절차(承繼節次)를 달리하여 번갈아 가면서 정치를 담당해야 한다.
- 5. 이처럼 제화공이나 목수가 그들의 직업을 바꾸게 되면 동일인이라 할지라도 항상 제화공이나 목수가 아닌 것과 같이, 모든 시민은 지배자가 될 수 있다.
- 6. 만일 기술이나 기능적 직업에서 지켜지는 원칙이 정치적인 분야에서도 적용된다면 더 좋을 것인데, 이런 점에서 동일인이 가능한 한 어디에서든 지배자가 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그러나 (1261b) 모든 시민들은 자연적으로 평등하므로—그리고 또한 논란이 있긴 하지만 관직이 좋은 것이건 나쁜 것이건 간에 모든 사람들이 관직에 참여하는 것이 올바르다는 이유도 있으므로—이러한 이상이 불가능할 때에는, 동등한 사람들이 번갈아 가면서 관직을 맡고, 관직을 떠나서는 모두 같은 지위를 갖는다는 식으로, 그것을 모방하거나 그것에 근사한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 7. 이것은 시민들이 당분간은 마치 다른 종류의 사람이 되는 것처럼, 교대로 일부는 지배를 하고 다른 일부는 지배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 한다. 또한 일시적으로 지

<sup>1.</sup> 아르카디아(Arkadia): 고대 그리스 산속에 있었다는 이상향.

<sup>2. 《</sup>윤리학》 5권 5장 4 참조.

배자가 되는 사람들조차도 서로 다르다는 것을 부언할 수 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한 관직을 가지면 다른 사람은 다른 종류의 관직을 맡게 되는 것인데, 이것은 종류의 차이가 바로 국가의 구성요소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위의 논의로 다음과 같은 점이 분명해졌다. 첫째 국가의 본질이란 어떤 사상가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의미로서의 한 개의 단위가 아니며, 둘째 국가의 최고선(最高善)이라고 주장된 것이 사실은 국가의 파멸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모든 사물의 〈선〉은 그것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본질을 보존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8. 국가를 극단적으로 단일화(單一化)하려는 기도가 올바른 정책이 아니라는 것을 또 다른 방향에서도 고찰할 수 있다. 가정은 개인보다 더 높은 차원의 자급자족을 성취할 수 있는 제도이며, 국가는 또한 가정보다 더 높은 차원의 자급자족을 이룩할 수 있는 제도이다. 그러나 국가는 국가를 구성하는 결사가 자급자족을 이루기에 충분할 만큼 다양화되고 클 때에만 이 목표를 달성하고 완전한 국가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더 높은 차원의 자급자족이 더 바람직한 것이라는 전제에서, 단일성의 정도가 더 적을수록 바람직한 것이다.

# 제3장

- 1. 이제 목적의 비판에서 수단의 비판으로 옮겨가 보도록 하자. 정치적 결사의 최고선이 가능한 한 최대의 단일성이라고 하더라도, 이 단일성은 『모든 사람들이 같은 사물을 동시에 〈내 것이다〉, 〈내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방식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소크라테스의 견해에 의하면 이 제도가 한 국가의 완전한 단일성의 지표라는 것이다.
- 2. 〈모든 사람〉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 (모든 개개인의 의미로 사용될 수도 있고 집합적으로 모든 사람이라는 뜻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 첫 번째 의미에서 이해한다면, 소크라테스가 실현하려고 하는 목표는 두 번째 의미에서 이해하는 것보다 아마도 더 잘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은 각기 같은 사람을 칭하여 〈나의 아내〉혹은 〈나의 아들〉이라고 부를 것이며 재산이나

혹은 다른 일에 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부를 것이다. 그러나 처자를 공유하고 있는 모든 사람이 그들에 관해 실제적으로 〈나의 아내〉혹은 〈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각자 개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나의 아내〉혹은 〈나의 아들〉이라고 부르겠지만 개인적으로가 아니라 집단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다.

- 3. 재산의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모든 사람이 그것을 〈나의 것〉이라고 부르지만 그것은〈각자 개별적으로〉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모두 집단적으로〉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모든〉이란 말의 사용에 어떤 오류가 있음에 틀림없다. 그것은〈양쪽 모두〉,〈까지도〉,〈나머지의〉라는 말과 같이, 그 말의 애매성 때문에 실생활에서 논란을 일으키기 쉽고 논리에 있어서 궤변적인 주장들을 낳기 쉬운 말인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같은 사물을〈나의 것〉이라고 부른다』는 공식은〈각자가 개별적으로〉라는 첫 번째의 의미에서 볼 때는 훌륭한 것 같지만 실현 불가능하고,〈모두 집단적으로〉라는 두 번째의 의미에서는 국가의 전체적인 조화에 기여하지 못함 것이라고 결론 내릴 수 있다.
- 4. 그것은 전체적인 조화에 기여하는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도 해를 가져온다. 최대한의 사람들에게 공유로 되어 있는 것은 항상 최소한의 돌봄을 받는다. 사람들은 그들 자신의 것에 최대한의 주의를 기울이며 공동의 것에는 덜 관심을 쏟는다. 하여튼 그들은 각자가 개인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는 한에서만 주의를 기울인다.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이유가 있을 때조차도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그것에 주의를 기울인다고 생각할 때는 그들의 의무를 소홀히 하기 쉬운 것이다. 이러한 일은 바로 집안에서 일어난다. 일꾼이 많은 것이 때때로 일꾼이 적을 때보다 실제적으로 돕는 손이 더 적은 것이다.
- 5. 플라톤의 계획에 따르면 시민 각자가 천여 명의 아들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 아이들은 개별적인 시민 각자의 아들이 아니고 모든 아버지에게 동시에 아들이어 야 한다. 이것의 결과는 모든 아버지들이 꼭 같이 모든 아들들을 등한히 하게 되는 것이다.

시민 각자가 천여 명의 아들을 갖는다는 것에 대한 또 다른 반대가 있다. 모든 시

민이 잘 해나가고 있거나 혹은 그 반대인 어떤 아이를 〈나의 아이〉라고 할 때는 부분적으로만 그렇게 부르는 것이다. 즉, 그는 그 아이가 전부 〈나의 아이〉라는 뜻이 아니고 시민들의 전체의 수로 나누어지는 부분에 한해서만 그렇게 부르는 것이다. 그가 『그 아이는 나의 아이이다』 혹은 『그 아이는 아무개의 아이이다』 라고 말할 때, 〈나의 아이〉 혹은 〈아무개의 아이〉라는 말은 여기에 관련된 전체, 사람 즉천 명 혹은 몇 명이건 간에 시민의 전체 수를 염두에 두고 사용된 것이다. 그러고 나서도 그는 확신을 가질 수가 없다. 왜냐하면 누가 그 자신의 소생의 아이를 갖고 있는지 혹은 그 자신의 소생이 있는 경우에 그 아이가 살아남았는지 아무런 증거가 없기 때문이다.

- 6. 2천 명 혹은 1만 명의 시민들이 각자 이 부분적인 의미에서 어떤 아이를 〈나의 아이〉라고 부르는 체제와 각자가 오늘날 정상적으로 쓰이는 의미로써 〈나의 아이〉로 부르는 체제와 어떤 것이 더 우월한가?
- 7. 실제적으로는 A라는 사람이 〈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동일인을 B라는 사람은 〈나의 형제〉라고 부르며, C라는 사람은 〈내 사촌〉, D나 E 등은 〈내 친척〉이라고 부른다. 왜냐하면, 그는 그들과 모두 멀게 가깝게 혹은 혈족이거나 결혼에 의해서 어떻게든 연결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사람을 부를 수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 방식이외에도 X와 Y라는 사람은, 또 다른 방식으로 그를 〈나의 문중인(門中人)〉 혹은 〈나의 부족인(部族人)〉이라고 부를 수도 있다. 플라톤의 방식대로라면 어떤 사람의 아들이 되는 것보다 그 사람의 사촌이 되는 것이 더 낫다.
- 8. 플라톤의 체제를 따를지라도 어떤 시민들은 자기들의 진정한 형제 · 자식, 혹은 아버지 · 어머니들을 추측으로 알아낼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부모와 아이들 사이의 유사점은 서로 간의 동일성에 관해 필연적으로 어떤 결론을 유도해 낼 수 있게 함이 틀림없다.
- 9. 이러한 사실이 실생활에 있어서 실제로 일어난다는 것이 기술지리학(記述地理 學)의 몇몇 저술가들에 의해 사실로 기록되고 있다. 그들에 의하면 리비아 북부 의 거주민들은 아내를 공유했는데, 그러한 결합에 의해 생겨난 아이들도 그들 아 버지와의 유사성에 의해 구별될 수 있었다고 한다. 사실 인간 세계에서의 여성과,

동물 세계에 있어서의 암말 혹은 암소와 같은 종류들은 아버지 쪽을 닮은 자손을 출산하려는 강한 자연적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응보(應報)라고 불리는 파르살로스 (Pharsalos)의 암말이 그 좋은 예이다.

### 제4장

- 1. 처자(妻子)를 공유하는 체제에는 또 다른 난점들이 있는데, 이 난점들은 이러한 체제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지지하여도 막기 어려울 것이다. 그 예로 우리는 폭력, 무의식적인 살인이나 고의적인 살인, 싸움, 또는 비방의 경우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사건들은, 그것이 부모나 가까운 친척에게 저질러질 때에는 친척관계가 아닌 사람들에게 저질러지는 것과는 다른 것이다. 즉 이런 경우에는 인간의 자연적인 인정에 위배되는 것이다. 이러한 인정에 위배되는 사건은 사람들이 누가자기의 친척인가 알고 있는 경우보다는 모르고 있는 경우에 보다 더 잘 일어날 것이 틀림없다. 왜냐하면 이러한 사건이 일어날 경우 누가 자기와 친척관계인가 알고 있는 경우에는 관례에 따른 속죄를 할 수 있지만 모르는 경우에는 아무것도 취할 수 없기 때문이다.
- 2. 또한 플라톤이 그가 구상한 국가의 모든 젊은이들이 모든 연장자(年長者)들의 아들이 되도록 제정한 다음에 젊은이들과 〈연인〉관계인 연장자가 그 젊은이들과 육체적인 관계를 갖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정도로 만족하고, 젊은이들로 하여금 〈연인들〉로서 행세하거나 혹은 다른 친밀한 관계를 갖지 못하도록 금하지 않은 것은 놀라운 일이다. 3 이런 친밀한 관계가 부자간이나 형제간에 일어난다면 그것은 가장추악한 일인 것이다. 이것은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이런 형태의 애정을 마음에 품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옳지 못한 일이므로 더욱 그러하다.
- 3. 이것은 그리스 시대에 흔히 있었던 동성애에 관하여 언급한 것이다.

- 3. 또한 플라톤이 지나친 쾌락의 추구가 옳지 못하다는 근거에서만 남성 간의 육체적인 동성연애 관계를 갖지 못하도록 규정하기만 하고, 이 〈연인들〉이 부자간이거나 형제간일 수도 있다는 점에 관해서는 무관심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 역시놀라운 일이다.
- 4. 처자를 공유로 하는 제도가 지배계급들에서보다 피지배계급인 농부들 사이에서 시행된다면 플라톤의 목적에 더 유익할 것으로 보인다. (1262b) 우애의 정신은 처자를 공유로 할 때 더 적어지기 쉬울 것이다. 그리고 피지배계급이 잘 복종하고 혁명 같은 것은 꿈에도 생각지 못하게 하려면 그들 사이에서의 우애의 정신이 없어져야 한다.
- 5. 일반적으로 플라톤이 제시하는 바와 같은 체제는 올바른 헌정체제가 낳는 결과 와는 정반대되는 결과를 자아낼 것임에 틀림없다. 또한 그것은 플라톤이 생각하고 있는 처자를 공유로 하는 목적 자체에도 정반대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 6. 일반적으로 우애란 국가의 주된 선이라고 간주된다. 왜냐하면 우애야말로 내부의 분열에 대한 최선의 방지책이기 때문이다. 플라톤 자신도 특별히 〈국가의 동일성〉에 대한 이상을 높이 내세우고 있는데, 그것은 이 동일성이야말로 일반적으로 그리고 플라톤이 분명히 언명한 바와 마찬가지로—우애의 결과라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이다. 《향연(Symposion)》의 주장을 인용하여 보자. 그 책의 〈사랑〉에 관한이야기 중에, 플라톤은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아리스토파네스(Aristophanes)의 입을 빌어 자신들의 〈우애〉의 관계를 초월하여 하나의 동질체로 화(化)하기를 바라는, 그리하여 마침내는 둘이 아닌 하나가 되기를 바라는 두 연인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
- 7. 이 연인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일체가 되려는 욕망이 너무 지나친 결과로 두 사람이 전혀 새로운 존재로 모두 없어지거나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로 흡수되어져 버려야 한다. 그러나 정치적인 결사의 경우에는 일체성에 대한 욕구가 너무 지나치면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될 것이다. 즉 우애관계가 흐리멍덩해지고 말 것이다. 예를 들어, 위에서 본 바와 마찬가지로 아버지는 아들을 보고 〈나의 아들〉이라고 부르기를 꺼리게 되고 아들도 아버지를 보고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기를 꺼리게 될

것이다.

- 8. 마치 소량의 단 포도주를 다량의 물과 섞으면 아무 맛도 없는 혼합물이 나오는 것처럼, 가족 내의 호칭들이 플라톤식의 질서체제하에서와 같이 별 의미가 없게 되거나, 아버지가 아들을 아들로서, 혹은 아들이 아버지를 아버지로서, 그리고 형제들이 서로서로를 형제로서 대하여야 할 이유가 별로 없는 경우에는, 가족적인 감정이 엷어서 무의미하게 되고 마는 것이다.
- 9. 사람들로 하여금 특별히 어떤 대상에 관심을 갖게 하고 애정을 느끼게 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즉 그 대상이 그 자신에게 속하거나 아니면 그 자신이 그 대상을 좋아하여야 한다. 플라톤적인 질서하에 사는 사람들에겐 이 두 동기 중 어떤 것도 존재할 수 없다.

또 다른 하나의 난점이 있다. 이것은 플라톤의 계획 중 계급의 이동이라고 부를 수 있는 부분에 관한 것으로, 플라톤의 질서하에서는 열등한 농부나 장인계급의 부모에게 태어난 아이들은 (만약 자질이 뛰어나면) 우월한 지배계급으로 이전되어야 하고, 거꾸로 우월한 계급의 부모에게 태어난 아이들은 (만일 열등하면) 열등한 계급으로 내려가야 한다. 실제로 그러한 이전이 어떻게 시행될 수 있는지는 매우 곤란한 일이다. 어쨌건 간에 그런 아이들을 이전시켜 새로운 지위에 배속시키는 사람들은 그 아이들이 누구이며 그리고 그 아이들을 누구에게 맡기는가 하는 것을 알지 않으면 안될 것이기 때문이다.

10. 더구나 위에 이미 언급한 폭력, 비자연적 애정, 살인의 문제들이 플라톤의 계획 중 이 부분에 있어서는 더욱 예리하게 제기될 것이다. 계급을 이동하게 되면 지배자 계급으로부터 열등한 계급으로 이전된 사람들은 장래에는 지배자들을 가리켜, 비록 그들과 실제적으로는 연관성을 갖고 있음에도, 형제·아들·아버지·어머니 등으로 부르지 않게 될 것이며, 이것은 우월한 계급으로 이전된 사람들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따라서 그런 사람들은 위에 말한 죄악들을 저지르는데 대하여 인척관계가 마련해 주는 어떤 방지책도 전적으로 상실하게 될 것이다.이것으로 처자를 공유로 하자는 생각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모두 다룬 셈이다.

# 제5장

- 1. 다음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는 재산이다. 이상적인 질서하에서 사는 시민들에게 있어서 적절한 재산관계란 무엇인가? 그것은 공산주의 체제인가, 사유재산 체제인가?
- 2. 이 문제는 처자를 공유로 하자는 제안과는 별도로 그 자체로써 고려할 수 있는 문제이다. (1263a) 오늘날 보편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가족은 각기 독자적으로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재산에 관련된 문제들은 여전히 토론의 대상이 되고 있다. 재산의 소유와 사용은 모두 공동으로 하여야 하는가? 우리는 가능한 세 가지의 대안(代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첫째는 땅은 각기 소유하되 작물(作物)은 공유로 하여 공동으로 소비하는 체제인데, 이것은 실제로 몇몇 야만 부족들이 시행하고 있다. 둘째는 이와 반대로 땅의 소유와 경작은 공동으로 하되 작물은 개인들에게 나누어 주어 각자 소비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것 역시 몇몇 야만족들이 실시하고 있다고 한다. 셋째는 땅과 그 작물의 소비가 모두 공동으로 되는 체제이다.
- 3. 마치 농노나 노예처럼 토지를 경작하는 사람들이 토지를 소유하는 시민들과 다른 집단인 경우, 문제는 이와는 좀 다르고 다루기에 더 용이할 것이다. 그러나 토지를 소유하는 시민들이 동시에 그 토지의 경작자인 경우에 재산의 문제는 매우큰 곤란을 야기할 것이다. 사람들이 노동과 그 보상을 공평히 나누지 않으면, 일은더 많이 하고 보수는 덜 받는 사람들이 보상을 많이 받으면서 일을 적게 하는 사람들에게 불평을 터뜨리게 될 것이다.
- 4. 사실상 사람들이 함께 살며 어떤 형태의 인간 활동을 같이 한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진리이다. 더욱이 재산의 문제가 연관되어 있을 때에는 특히 그러하다. 예를 들어 단지 여행길의 동반자에 지나지 않는 사람들의 경우를 생각하여 보자. 그들은 보통 일상적인 문제에 관하여 다툼을 하고 사소한 일로 화를 낸다. 또한 하인들 중에서 우리가 제일 쉽게 화를 내게 되는 자들은 특별히 매일 매일의 일상적인 일을 하는 자들이다.
- 5. 이러한, 그리고 또 다른 많은 난점들이 재산을 공유로 하는 체제에 연관되어 있

- 다. 만일 관습 또는 적절한 법률의 시행에 의하여 개선된다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유재산 체제가 훨씬 나을 것이다. 이 체제는 양 체제의 장점을 모두 갖게 될 것이며 공산 체제의 장점과 사유재산 체제의 장점을 결합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이상적일 것이다. 왜냐하면 재산은 일반적으로 주로 사유제이어야 하지만 한 가지점에 관해서는 (즉 그 사용에 있어서) 공동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 6. 모든 사람들이 이해의 영역을 달리하는 경우, 분쟁이 일어날 공동의 근거는 없을 것이다. 이 경우 각자는 자기 자신의 소유물을 위하여 일하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므로 소득의 양이 증가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제도하에서는, 도의적인 선—플라톤의 계획에서처럼 법적 강제가 아닌—에 따라 각자의 재산은 모든 사람의 필요에 봉사하기 위하여 있는 것으로 될 것이다. 이것은 속담에 「친구의 물건은 공유이다」라고 한 것과 그 정신이 같은 것이다. 오늘날에도 어떤 나라들에 있어서는 이러한 계획의 윤곽이 뚜렷하게 실시되고 있으므로 이 계획은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특히 훌륭한 법질서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에 있어서는, 이러한 계획의 어떤 요소들이 이미 실시되고 있으며 여기에 다른 요소들을 추가할 수 있을 것이다.
- 7. 이 나라들에 있어서 시민 각자는 그 자신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 그러나 그 재산의 사용에 있어서, 각자는 자기 재산의 일부를 친구들이 쓰도록 하고 또 다른 부분을 모든 동료시민들이 공동으로 즐길 수 있도록 기여한다. 예를 들어 스파르 타에 있어서 시민들은 서로서로의 노예나 말이나 개 등을 마치 자기 것처럼 사용한다. 또한 여행 도중에 필요하면 다른 시민들에게 속해 있는 시골 농장으로부터 식량을 얻는다.
- 8. 위에서 논의한 바 재산은 사유로 하되 사용을 공동으로 하는 체제가 우월한 체제임이 명백하다. 입법자는 사람들로 하여금 재산을 이러한 방식으로 다루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 다른 하나의 고려할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쾌락의 문제이다. 여기에서도 역시 선의 문제에서처럼—어떤 사물을 자기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커다란 차이를 나타낸다. 자연적인 감정의 만족은 쾌락을 가져온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것은 (1263b) 단순히 우발적인 충동이 아니고 자연적으로 심어진 감정일 것이다.

- 9. 이기심은 비난을 받아 마땅한 것이지만 비난의 진정한 대상은 이기심 그 자체가 아니고 지나친 이기심이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수전노를 비난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즉 돈을 아끼는 그 자체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지나치게 아끼는 것을 비난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이런 것들(예를 들어 자기 자신·돈·재산 등)을 좋아하는 단순한 감정은 대략 보편적인 것이다. 또한 친절한 일을 하거나, 동료나 손님이나 친구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도 매우 즐거운 일이다. 그런데 이렇게 친절한일을 하거나 도움을 주는 것은 재산이 사유제일 때만 가능하다.
- 10. 그러나 국가가 지나친 일체성을 강요하는 체제하에서는 이러한 즐거움들이(즉 자연적인 이기심의 만족 또는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만족)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두 가지 형태의 선의 활동마저도 분명히 파괴되어 버린다. 그 하나는 성적 관계에 있어서의 절제이고 (즉 절제를 지켜서 다른 사람의 부인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도 의적 가치가 있는 행동이다) 나머지 하나는 재산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의 관대함이다. 지나치게 일체화되어 있는 국가에 있어서는 아무도 관대함을 보이거나 혹은 관대한 행동을 할 수도 없다. 왜냐하면 관대함의 기능이란 재산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 11. 플라톤이 제의하는 바와 같은 입법(立法)은 매력이 있어 보이고 자비로운 것 같아 보인다. 이것을 듣는 사람은 모두 상호 간에 아름다운 우애감(友愛感)을 갖게 되리라고 생각하면서 그 제안을 기쁘게 받아들인다. 특히 오늘날 보통 볼 수 있는 정부형태하에서 존재하는 악들이 재산 공유제도가 없기 때문에 생겨났다고 비난을 받으므로 더욱 그러하다.
- 12. 그러나 이들 악 중의 어느 것도 공산주의가 없기 때문에 생겨난 것은 아니다. 이 악들은 모두 인간성의 사악함에서 나오는 것이다. 사실 재산을 공유로 하고 그 것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람들이 재산을 사유로 하고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분쟁이 많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산을 공유로 하는 결과로 다툼질하는 사람들의 수가 재산을 사유로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과 비교하여 극소수에 불과하므로 우리는 그릇된 견해를 갖기 쉬운 것이다.
- 13. 또 다른 문제 하나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사람들이 그들의 재산을

공유로 하면 없애 버릴 수 있는 악들뿐만 아니라 같이 없어질 유익한 점도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들이 살아야 하는 생활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플라톤이 오류를 저지른 이유는 그의 주장의 근거가 되었던 일체성의 성격에 대한 전제가 틀린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14. 일체성이 어느 정도까지는 가정이나 국가에서나 다 같이 필요하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전체적인 일체성은 그렇지 아니하다. 어느 정도에 이르면 국가는 일체성을 증진하려다가 국가로서의 성격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이 지경에 이르지 않고도 국가가 국가로서의 성격을 그대로 지닐 수는 있지만 그러나 거의 본질을 상실하게 되는 지경에 이를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나쁜 국가가 될 것이다. 이 것은 마치 음악에 있어서 어떤 주제를 하나의 박자로 처리해 버리거나 화음(和音)을 동음(同音)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과 같다.

15. 사실은 위에 이미 언급한 바와 마찬가지로 국가는 많은 사람들의 집합체이다. 따라서 교육은 이 집합체를 공동체로 만들고 그것에 일체성을 주는 수단이다. 그러므로 교육제도를 도입하려 하고 그리고 이 제도를 수단으로 하여 그의 이상국가가 선을 달성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관습이나 정신적 문화 혹은 입법의 방법을 취하지 않고 그가 실제로 제의한 바와 같은 그러한 방법에 의하여 국가를 올바르게 해놓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입법의 예는 스파르타와 크레테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거기에서는 법에 의하여 식사를 공동으로 하는 제도를 채택함으로써 재산제도가 공동 사용에 기여될 수 있도록 마련하여 놓았다.

(1264a) 16.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또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실제 경험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이다. 즉 플라톤이 새로운 발견으로서 제시하였던 계획들이 정말로 좋은 안들이었다면 옛날에 이미 우리가 주목하였을 것이다. 왜냐하면 벌써 그것들 중의 거의가 사람들에게 이미 알려진 것들이기 때문이다. 단지 그중의 일부는 학문적으로 체계화되어 있지 못하였고, 또 다른 일부는 알려지기는 했지만 실행되지 못했을 뿐이었다.

17. 만일 우리가 플라톤이 제안하는 바의 질서를 실제로 건설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면, 그의 생각들이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지 알아내기 쉬울 것이다. 어떠한 국가도 항상 그 구성원들이 여러 계급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그것은 어떤 때는 공동식사를 위한 집합체의 형태를 갖고, 또 어떤 때는 씨족이나 부족의 형태를 갖는다. 따라서 플라톤이 제의한 입법 중 유일하게 독특한 면모는 지배계급이 토지를 경작하지 않는다는 원칙인데 이 원칙마저도 스파르타인들은 이미시도하였다.

- 18. 실상 플라톤이 제의한 질서의 전반은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플라톤은 자기가 계획한 질서하에서 서로 다른 구성원들의 위치를 설명하지 않았으며 또 그것을 설명하기란 쉬운 일도 아니다. 지배계급이 아닌 시민 대중—다른 말로 하면 농부들—은 결과적으로 거의 시민 전체에 해당된다. 그런데도 플라톤은 그들의 위치를 정의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었다. 즉 그는 이 농부들이 지배계급들이나 마찬가지로 재산을 공유로 하는 것인가 사유로 하는 것인가를 설명하지 않았고 또 그들이 처자를 공유로 하는가 혹은 각자가 별개의 가정을 이루는가 하는 것도 말하지 않았다.
- 19. 우리는 세 가지의 대안(代案)을 가지고 이들을 하나하나 검토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경우는 모든 것(처자와 재산)을 공유로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경우에 있어서 그들과 지배계급들 사이의 차이는 무엇인가? 그들이 지배계급의 지배를 받아들임으로써 얻는 이익이란 무엇인가? 또한 크레테에서처럼 어떤 정책적인 변화가 있지 않는 한 그들이 어떻게 하여서 그러한 지배를 받아들이게 되는가? 크레테에서는 농노들이 그들의 주인들과 마찬가지의 일반적인 특권을 누리도록 허용이 되었는데 단지 체육과 무기의 소유만을 금지하였다.
- 20. 두 번째 경우는 농부계급에 있어서 재산과 결혼의 제도들이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 되는 것이다. (즉 사유재산과 개별적인 가족제도이다) 이 경우에 있어서 전 공동체의 기본이 되는 질서는 무엇인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이런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한 국가 내에 두 개의 국가가 있게 될것이며 이 두 개의 국가는 서로 대립하게 될 것이다. 즉 지배계급은 점령군의 성격을 띠는 집단이 되고 말 것이고 농부들이나 장인들 그리고 또 다른 계층의 사람들

- 은 일반 시민의 위치에 서게 될 것이다.
- 21. 또한 농부들은 개별적인 가족제도와 사유재산 제도를 가지고 있다는 가정 위에, 플라톤이 현실 국가들에서 존재하는 것으로 주장한 모든 사회악들 그리고 법적인 소송이나 행동들이 이들 국가에도 그대로 존재하게 될 것이다. 사실 그는, 농부들은 교육의 덕택으로 복잡한 법률—경찰이나 시장법칙 그리고 이와 유사한 다른 법규들과 같은 법칙으로서의—이 필요 없으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지배층에만 교육의 기회를 부여해 놓은 것이다.
- 22. 플라톤이 제의한 질서에 있어서 또 다른 하나의 난점은 농부들이 그들의 재산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한 조건을 붙여 놓은 데 있다. 그 조건이란 농부들은 그들의 생산물의 일부를 지배계급에게 바쳐야 한다는 것이다. 이 조건으로 말미암아 농부들은 스파르타의 농노들이나 테살리아(Thessalia)의 농노들이나 혹은 다른 국가들의 농노들보다 훨씬 더 자존심이 강하고 따라서 더 다루기 어렵게 될 것이다.
  23. 어쨌건 간에 플라톤의 계획은 농부들이 지배층과 마찬가지로 공산주의 체제하에서 사는 것인가 혹은 어떤 다른 체제하에서 사는 것인가를 언급하지 못하였다. 그것은 또한 이 문제와 연관된 다른 문제들에 관해서도 아무런 시사가 없다. 그 문제들이란 정치체제 내에 있어서의 농민들의 위치, 그들이 받는 교육의 성격, 그들이 준수해야 할 법률의 성격 등이다. 그리하여 지배계급의 공동생활이 유지되려면 농부계급이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가장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아내기 힘들게 된 것이다. (1264b)
- 24. 세 번째이며 마지막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경우는 농부들이 처자(妻子)는 공유로하고 재산은 사유로 하는 체제를 갖는 것이다. 이 경우에 있어서 남자들이 농사일을 돌보고 있는 사이에 누가 가정일을 돌볼 것인가? 그리고 또한 다른 경우이지만위에 말한 첫 번째 경우에 있어서, 즉 처자와 재산이 모두 공유인 경우에 누가 가정일을 돌볼 것인가? 플라톤은 동물 세계에서의 유추에 의하여 여자도 남자와 같은 일에 종사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기이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동물들은 인간 세계의 여자와는 달리 집안에서 할 일이라고는 없기 때문이다.
- 25. 플라톤이 제안한 통치의 방식에 있어서도 위험한 요소가 있다. 그의 이상국가

에 있어서는 한 집단이 영구적으로 지배자이다. 이러한 체제에 있어서는 특별히 뛰어나지 못한 사람들에 있어서도 불평과 불만이 나오게 마련이다. 더구나 기개가 넘쳐흐르는 무사 계급에 있어서는 특히 그러할 것이다.

- 26. 그가 한 집단의 사람들을 영구적인 지배자가 되도록 한 이유는 명백하다. 〈사람의 영혼에 깃들어 있는 신성한 황금〉<sup>4</sup> 은 어떤 시기에는 한 집단의 사람들에게 속해 있다가 또 어떤 시기에는 별개 집단의 사람들에게 속해 있을 수는 없는 것이다. 즉 그것은 영구하게 일정한 집단의 사람들에게만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는 이러한 근거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신(神)이 사람을 만들 때에 어떤 사람에게는 금을 혼합하였고, 그 밖의 다른 사람들에게는 은을 혼합하였고, 장인(匠人) 사이나 농부가 될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청동과 쇠를 섞어 넣었다.』
- 27. 여기에 플라톤의 지배계급에 관한 일반적 계획에 대한 또 다른 하나의 반대를 제기하여야 한다. 플라톤은 입법의 목적이 되는 것은 전체 국가의 행복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지배계급은 아무 행복도 누리지 못하도록 해놓은 것이다. 어떤 국가의 전부 혹은 대부분, 아니면 적어도 어느 부분이 행복하지 않은 한 전체 국가가 행복하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행복하다는 것은 균등하다는 것과는 그 질이 다른 문제이다. 균등하다는 것은 부분들에 있어서 존재하지 않으면서도 전체적으로는 존재할 수 있다. 그런데 행복하다는 것은 그렇게 될 수 없는 것이다.
- 28. 또 다른 문제가 제기된다. 만일 지배계급이 행복할 수 없다면 국가에 있어서 행복한 요소란 무엇인가? 왜냐하면 분명히 장인 혹은 다른 평민 대중에게 있어서 도 아무런 행복도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플라톤이 생각한 이상국가는 우리들이 위에 언급한 모든 어려운 문제들과 그에 못지않게 심각한 다른 문제들을 제기한다는 것이다.

4. 이것은 플라톤이 사람이 타고날 때부터 특별한 자질을 갖고 태어난다는 것을 설명한 비유이다.

## 제6장

- 1. 플라톤의 후기 작품인 《법률》도 마찬가지이거나 혹은 거의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거기에 기술된 정치질서를 간단하게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하는 또 다른 이유는 《법률》에서는 충분히 논의하고 있지만 플라톤은 《국가》에서는 매우 적은 수의 문제들만을 해결하려고 시도하였기 때문이다. 즉 주로 처자를 공유로 하는 제도와 공산주의 체제를 확립하는 적절한 방법, 그리고 헌정체제하에서 권력을 분배하는 적절한 방법만을 다룬 것이다.
- 2. 《국가》에서 그는 국민을 두 부분으로 나누는 것으로 만족하였다. 즉 한 부분은 농부 계층이고 다른 부분은 군인 계급인 것인데, 후자로부터 명상적이고 주권을 갖는 완전한 지배자계급에 속할 인원이 보충되는 것이다.
- 3. 그러나 첫 번째 부분, 즉 농부들과 장인들에 관한 한 《국가》는 그들이 관직을 담당하여야 하는가 또는 무기를 소유하고 병역의 의무를 하여야 하는가 하는 점에 관해서는 미정인 채로 언급하지 않고 있다. 실로 《국가》에서는 여자도 병역의 의무를 담당하고 남자 지배계급과 마찬가지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씌어 있다. 그러나 이것을 제외하고는 플라톤의 대화는 주제와는 상관없는 지엽적인 문제들과 지배계급이 받아야 하는 교육의 성격에 관한 논의로만 가득 차 있다.
- (1265a) 4. 《법률》의 대부분은 입법에 관련하여 기술하고 있다. 플라톤은 헌정적 질서에 관해서는 별로 언급을 하지 않았다. 또한 그는 현존하는 국가들이 달성하기에 더 쉬운 형태의 정부를 설치하려고 한다고 말은 하면서도, 어느새 다른 형태의 정부(즉《국가》에서 기술한 것과 같은)를 끄집어내는 것이다.
- 5. 처자와 재산을 공유로 하는 것을 제외한 다른 모든 점에 있어서는 《법률》이나 《국가》에서 나오는 제도들이 모두 꼭 같다. 교육도 양자에 있어서 똑같으며, 이러한 국가에 사는 구성원들은 천역에 종사하지 않고 자유로운 생활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식사를 공동으로 하는 제도도 마찬가지이다. 유일한 차이점이라고는 《법률》에 있어서는 여자도 남자와 마찬가지로 공동식사에 참여하는 것이며, 무기를 소지하는 시민의 수도—《국가》에서는 1천 명에 불과한 데 반해—5천 명으로 고정되어 있다는 정도이다.

- 6. 플라톤의 저술은 모두 독창적이다. 이 저술들에서 우리는 창의력, 새로운 견해, 또한 탐구정신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아마도 모든 것에 있어서 완성이란 어려운 것이다. 예를 들어 방금 언급한 시민의 수를 생각해 보자. 그 정도의 사람들이살려면 바빌론 정도의 넓이나, 혹은 그와 비슷한 정도의 제한이 없는 공간이 필요할 것이다. 5천 명 정도의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고 생활하려면 그 정도의 땅이 필요할 것이고 특히 여기에 가산하여 이들의 몇 배가 될 여자들과 또 하인들의 수를 생각하면 특히 그러하다.
- 7. 가정(假定)을 자유롭게 하는 것은 괜찮은 일이지만 뚜렷하게 불가능한 가정을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법률》에서는 법을 시행함에 있어서 입법자가 주의해야 할 점이 둘이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 첫째는 영토이고, 둘째는 그 영토의 거주자이다. 그러나 사실은 세 번째 요소가 있다. 만약 어떤 국가가 고립되어 살지 않고 다른 국가들과 정치적인 관계가 있다면 그 국가의 입법자는 인접 국가들도 고려에 넣어야 한다. 예를 들어 자기 자신의 영토 내에서만 사용하기 좋은 전쟁기구를 쓸 것이 아니라 외국에서도 사용하기 좋은 전쟁기구를 써야 한다.

8. 그러한 생활방식이 개인이나 혹은 국가 전체로나 이상적인 생활방식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적에 대해서는 공격을 할 때나 후퇴를 할때나 간에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여야 한다.

군사력의 비축의 양과 마찬가지로 재산의 양도 또한 고려해 보아야 한다. 즉 플라톤이 한 것과는 좀 다른 양식으로, 다시 말하면 좀 더 정확하게 재산의 한계를 정해야 한다. 《법률》에서 플라톤은 재산의 양은〈절제 있는 생활을 위하여 충분한〉정도여야 한다고 말한다.

9. 이것은 〈좋은 생활을 위하여 충분한〉 정도라고 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사실 이런 표현을 쓴다면 좀 더 일반적인 언명을 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그러 나 또한 플라톤의 그와 같은 정의에 머문다면 〈절제 있는 생활〉이란 불행한 생활 일 수도 있다는 난점도 있다. 플라톤보다도 더 낫게 정의를 하려면 〈절제 있는 그 리고 넉넉한 생활을 위하여 충분한〉 정도라고 말해야 할 것이다. 이 두 목적은 항 상 결합되어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들이 따로 떨어지면 넉넉함이란 사치가 되기 쉽고, 절제는 빈곤한 것이 되기 쉽기 때문이다. 그런데 부(富)의 바람직한 사용에 있어서는 이 두 가지 목표만 고려하면 된다. 우리는 우리의 부를 온순하거나 혹은 남자다운 방식으로 사용할 수는 없지만, 절제하면서 동시에 관대하게 그 부를 사용할 수는 있다. 따라서 부의 사용에 연관된 두 개의 원칙은 절제와 넉넉함이다. 10. 재산의 양에 관한 플라톤의 견해와 연관되는 다른 입장이 제기될 수 있다. 플라톤은 토지자산을 시민들에게 균등하게 분배한다고 하면서 여기에 상응하는 시민들의 수를 확실하게 하는 문제는 다루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좀 이상한 일이다. 5 그는 출산아의 수에는 아무 제한을 가하지 않고, 아무리 아이들이 많이 태어난다고 할지라도 소생이 없는 집도 있으므로 생산율이 현 인구 수준을 유지하기에 충분할 것이라고 믿으며, 그 근거로서 실제로 이러한 현상이 현존 국가들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1256b) 11. 그러나 《법률》에서 상정한 국가들에서는 현존 국가들에 있어서 보다 인구의 수준이 훨씬 더 정밀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현존 국가들에 있어서는 그 규모가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전체 국가들에 걸쳐서 재산이 자유롭게 분배될 수 있으므로 아무도 재산이 없어야 할 필요는 없다. 반면에 플라톤이 상정한 국가에 있어서 재산은 재분배될 수 없으므로 잉여의 인구가 생긴다면 그 수가 많건 적건간에 가질 재산이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12. 재산을 제한하기보다 인구를 제한하거나 또는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 생산을 못하도록 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만약 인구가 제한되어 있다면 유아 사망의 경우 또는 출산 불능의 부부들의 경우를 고려하여 여유를 두고 생산율을 고정해야 할 것이다.

5. 이 점에 관해서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옳지 못하다. 플라톤은 《법률》에서 이 문제를 취급하고 있다. 《법률》 740페이지. 바퀴의 앞의 책 58페이지, 주(註)3 참조.

- 13. 만약 출산율을 제한하지 않으면 필연적인 결과로 빈곤이 생기며, 빈곤은 또한 내분과 사회악을 낳게 된다. 고대의 입법자의 하나인 코린토스(Korinthos)의 페이돈(Pheidon)은, 시민들이 처음에는 토지소유의 규모가 모두 달랐을지라도 가족이 소유하는 토지의 수와 시민의 수가 서로 꼭 같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우리가 《법률》에서 볼 수 있는 바는 페이돈의 정책과는 정반대인 것이다.
- 14. 플라톤의 계획 중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좀 더 개선의 여지가 있는 점은 다음 기회에 논의하기로 한다. 여기에서는 플라톤이 또 한 가지 빠뜨린 점에 유의하지 않을 수 없다. 플라톤은 지배자가 어떻게 피지배자와 구별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하지 않고 있다. 그는 단순히 직위를 사용해서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관계는 다른 종류의 양모로 짜여진 천의 날과 씨와 같다고 하였다.
- 15. 한편 플라톤이 한 사람의 전체 재산이 5배까지 증가할 수 있도록 허용한 반면에 어째서 토지의 규모도 일정한 정도로 까지 소유가 증가할 수 없는가를 설명하지 않은 것은 또 한 가지 빠뜨린 점이다. 농장의 분배도 고려해 보아야 하는 또 다른 문제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가계를 운영하는 효율성에 별로 유리한 것 같지 않기 때문이다. 플라톤은 시민 개개인이 위치가 서로 다른 2개의 집을 갖도록 배정한다. 2개의 집에서 효율성의 손실 없이 산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 16. 플라톤이 《법률》에서 제시한 체제는 민주정치도 과두정치도 아닌 그 중간의 형식으로서, 흔히 〈혼합정체(policy)〉라고 불리는 것의 일종이다. 예를 들어서 시민들은 무기를 소지하는 사람들로부터만 나온다. 만일 이러한 정치질서를 이룩하는데 있어서 플라톤의 견해가,이것이 대부분의 국가가 가장 쉽게 성취할 수 있는 형태를 나타낸 것이라고 한다면, 플라톤은 거의 옳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만일 그가 이것이 그 좋은 점에 있어서 그의 첫 번째 즉 이상적 형태의 질서에 다음 가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는 오류를 범한 것이다. 사람들은 스파르타의 정치질서나 혹은 《법률》에서 묘사된 것보다 더 귀족적인 성격을 띤 다른 형태의 정치질서를 더놓이 살 것이다.
- 17. 어떤 사상가들은 이상적인 정치질서란 그 자체가 모든 다른 질서들의 혼합체

라고 주장하며, 이러한 이유로 그들은 스파르타의 질서를 찬양한다. 이 사상가들은 모두 스파르타의 질서가 세 가지 요소—즉 군주정치, 과두정치, 그리고 민주정치—를 모두 구비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이 세 가지 요소의해석이 서로 다르다는 것이다. 이들 중의 어떤 사람들은 군주정치는 2명의 왕에의한 정치이고 과두정치는 원로원에 의한 정치이고, 민주정치는 민중의 대표인 감독관(ephoros)에 의한 정치라고 한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감독관에 의한 정치는 사실상 폭군정치이며, 스파르타의 공동식사 제도 그리고 일상생활의 일반적 관습에서 민주정치적인 요소가 있다고 생각한다. (1266a)

- 18. 스파르타의 정치질서에 대한 이런 계열의 의견이든 이와 다른 해석이든 간에, 《법률》은 결과적으로 가장 좋은 정치질서는 민주정치와 폭군정치로만 구성된 것이라는 주장인데 이 정치형태들은 헌정질서가 아니거나 최악의 정치질서라고 분류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다. 두 가지 형태 이상의 질서를 혼합하려고 기도하는 것이 더 올바른 접근 방법이다. 왜냐하면 더 많은 요소로써 구성된 정치질서일수록더 좋은 것이기 때문이다. 플라톤에 대하여 또 다른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데, 즉《법률》에 기술된 정치질서는 사실상 군주정치의 요소는 없고, 다만 과두정치와 민주정치의 요소들만 있으며 그 중에서 특히 과두정치의 요소가 강하다는 것이다.
- 19. 이것은 그가 제안한 관리들을 임명하는 방법에서 뚜렷하게 드러난다. 이것은 사실상 민주정치와 과두정치를 결합한 면도 있는데 그것은 이미 선출된 한 집단의 사람들로부터 최종적으로 관리가 될 사람을 고르기 위해서 추첨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명백하게 과두정치적인 두 가지의 면모가 있는데, 첫째로 부유층의 시민들은 관리의 선출을 위하여 의무적으로 의회에 참석해야 하는 반면에 다른 시민들은 참석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부유한 계급으로부터 더 많은 수의 관리들을 확보하려고 하고, 가장 좋은 관직은 가장 부유한 계층 출신들로 채우려고 하는 것이다.

- 20. 대의원<sup>6</sup>의 선출 방법도 또한 과두정치적이다. 사실상 모든 시민들은 이 선거에 참여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 일반적 의무는 제1부유계층 출신의 후보자들, 그리고 같은 수의 제2부유계층 출신의 후보자들을 선출하는 예비선거에만 적용되는 것이다. 제3계층 그리고 제4계층 출신 후보들의 예비선거의 경우에는 제1계급 그리고 제2계급 사람들만 투표할 의무가 있다.
- 21. 이 모든 것은 예비선거의 과정과도 연관된다. 그리하여 플라톤에 의하면 예비선거에서 선출된 사람들 전체의 명단으로부터 각 계급별로 동일한 수의 사람들이 선출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선거제도의 결과는 가장 부유하고 가장 높은 계급 출신의 선거인들이 항상 다수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평민 중의 많은 사람들이 투표할 의무가 없으므로 기권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 22. 이렇게 고려해 보면, 또한 우리가 최선의 정치질서의 성격을 고찰해 볼 때 언급할 문제들에 비추어 보면, 최선의 정치질서란 민주정치와 군주정치를 혼합하여 형성하면 안된다는 것이 분명하게 증명된다. 또한 예비선거와 최종선거의 이중적 과정에 의해 관리들을 선출하는 방식에도 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부언해 두어야 할 것이다. 한 집단의 사람들이, 비록 소집단이라 할지라도, 연합하여 행동하기로 결정을 한다면 선거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법률》에 기술되어 있는 정치질서에 제기되는 문제점들은 대략 이제까지 말한 바와 같다.

#### 제7장

- 1. 새로운 정치질서를 만들려고 하는 계획들은 이 이외에도 많이 있다. 그들 중의 어떤 것은 이 분야에 있어서 아마추어들이 제안한 것이고, 또 다른 계획들은 철학 과 정치에 정통한 사람들이 제의한 것이다. 이 제안들은 모두 위에 언급한 플라톤
- 6. 여기에서 대의원이라 함은 위에 나온 의회(assembly)의 의원이 아니고 특별히 360명의 대의원 (councillor)을 갖는 평의회(council)의 의원을 말한다.

의 양 계획보다 현재 사람들이 실시하고 있는 기존 정치질서들에 훨씬 더 가까운 것이다. 처자를 공유로 한다거나 여자들까지도 공동식사를 해야 한다는 것 같은 기발한 제안을 한 사상가는 없다. 그 반대로 다른 사상가들은 일상생활의 직접적 인 필요성들을 출발점으로 한 것이다.

- 2. 그리하여 어떤 사람들은 재산문제가 항상 잡음이 제일 잘 일어나는 문제이므로 이 문제를 적절하게 규제하는 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칼 케돈(Chalkedon)의 팔레아스(Phaleas)가 시민들 사이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산을 규제해야 한다고 처음으로 제의한 사람이다. 그리하여 그는 모든 시민이꼭 같은 양의 재산(즉 토지에 있어서)을 소유하도록 하자고 제안하였다.
- (1266b) 3. 그는 새로운 식민지가 설립될 때에 별 어려움 없이 이 제안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7이미 존재하고 있는 국가들에 있어서는 어려운 점이 더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가능한 한 최단 시일 내에, 평등을 확립할 수 있다. 그 방법이란 부유한 사람은 지참금을 주기만 하고 받지 않으며, 반대로 가난한 사람들은 지참금을 받기만 하고 주지는 않으면 된다는 것이다.
- 4. 《법률》을 저술할 때 플라톤은, 재산은 일정한 수준에까지는 제한이 없어야 하고 그 수준 이상에서는 제한을 가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었다. 그는 즉 아무도 재산을 최소한으로 갖고 있는 사람보다 다섯 배만큼 소유하면 안된다고 한 것이다.
- 5. 이러한 입법을 제안하는 사람들은 항상 재산의 양을 규제하려면 동시에 가족에 있어서 어린아이들의 수도 규제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잊어버리는데 이것은 옳지 못한 일이다. 만일 아이들의 수가 재산의 양으로 볼 때 부양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다면 어쩔 수 없이 그 법을 폐기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 이외에도 많은 수의 사람들이 안락한 생활로부터 궁핍한 생활로 전락해야 한다는

<sup>7.</sup> 그리스인들은 본토의 자원 부족과 인구증가로 인하여 주변에 이민단을 보내어 많은 식민지를 건설하였는데, 팔레아스의 제안은 이런 경우에 관하여 언급한 것이다.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이러한 운명에 처한 사람들이 혁명적으로 되지 말란 법이 없는 것이다.

- 6. 사실상 우리는 과거의 그러한 평등이 정치적 결사의 성격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된다. 아테나 이에서의 솔론(Solon)의 입법을 예로 들 수 있다. 즉 다른 국가들에 있어서도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땅을 획득하지 못하도록 방지한 입법들을 발견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재산의 매매를 못하도록 방지한 입법도 있었다. 예를 들어서 로크리아 (Lokria)인들에게는 명백하게 재난이 닥쳐서 그들의 재산을 팔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으면 재산을 팔 수 없도록 규정한 법이 있었다.
- 7. 또한 본래의 토지는 건드리지 않고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한 입법들도 있었다. 예를 하나 들자면 레우카스(Leukas)에서는 그러한 법을 잘 지키지 않은 결과로 정치질서가 지나치게 민주적으로 되었다. 즉 그 결과로 필요한 법적인 자격(일정 토지량)을 소유하지 못하게 된 사람들이 관직을 맡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로부터 도출된 재산의 평등에 찬동하는 논의에도 불구하고, 재산의 평등이 확립되어 있긴 하지만 불완전한 체제인 것이다. 왜냐하면 개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양이 지나치게 많아서 사치로 흐르거나, 혹은 지나치게 적어서 궁핍하게 되거나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산평등의 일반적인 원칙을 확립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고 고정적이며 절제 있는 양의 재산을 모두 소유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 8. 그러나 각 개인에게 같은 양의 적절한 재산을 고정시켜준다 하더라도 아무런 이득도 없을 것이다. 사람들의 재산보다도 사람들의 욕망을 평준화시키는 것이 더 필요한데, 이것은 사람들이 법의 영향을 받아 적절하게 훈련이 되지 않는 한 성취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팔레아스는 이것이 바로 그 자신이 주장하는 견해라고 대답할는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그의 견해에 따르면 평등은 국가에 있어서 이중적으로 추구되어야 하며, 동시에 평등은 교육의 평등과 재산의 평등을 동시에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 9. 그러나 그러한 경우에 우리 모두가 똑같이 수긍할 수 있는 교육의 성격이란 무

엇인가에 관하여 말하지 않으면 안된다. 만약 그것이 그저 모든 사람에게 꼭 같이 동일한 것이라면 아무 이득도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교육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 하면서도 부를 탐내는 성향이나, 관직을 탐내는 성향, 혹은 양자를 모두 탐내는 성향을 낳을 수 있는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10. 이것은 또한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한다. 즉 시민 사이의 분쟁은 재산의 불평등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차지하고 있는 관직의 불평등으로부터도 일어난다. 그러나우리는 여기에서 한 차이점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안된다. 재산의 분배는 관직의분배와는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 즉 재산의 분배가 불평등할 때에는 대중이 혁명적이 되며, 관직의분배가 평등할 때는 지식층이 혁명적이 된다. (1267a) 호메로스의 시 중에 다음 구절은 바로 이것을 지적한 것이다.

관직과 명예는 선인(善人)이나 악인(惡人)에게도 모두 동일하다.8

11. 고려해 보아야 할 또 다른 문제가 있는데, 즉 시민적 불화의 원인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범죄의 원인도 고려해 보지 않으면 안된다. 어떤 범죄들은 생활필수품의 결핍 때문에 일어난다. 이 점에서 팔레아스는 재산의 평등이 이러한 범죄의 방지 책이며, 사람들이 단순히 춥고 배가 고파서 물건을 훔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여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물자의 결핍만이 범죄의 원인은 아니다. 사람들은 단순히 저지르는 즐거움 때문에 범행을 하고, 욕구불만을 해소하기 위하여 범행하기도 한다. 사람들은 단순한 생활필수품 이상의 욕망의 시달림을 받는데, 이 시달림에서 벗어나기 위해 범죄자가 된다.

**12.** 또한 세 번째로 고려해 보아야 할 요소가 있다. 사람들은 그들이 이미 느끼고 있는 욕망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범죄를 저지를 뿐만 아니라, 고통이 없는 쾌락을 즐기기 위하여 어떤 새로운 욕망을 품기도 하는 것이다.

8. 《일리아스》 9장 319.

- 이 세 가지 종류의 범죄에 대한 구제책이란 무엇인가? 첫 번째 종류의 범죄에 대해서는 약간의 재산이 있거나 어떤 일거리가 있으면 된다고 대답할 수 있다. 두 번째 종류의 범죄에 대해서는 절제 있는 성향이 필요하다. 세 번째 종류의 범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을 뿐이다. 즉, 만일 자기 자신의 독자적인 노력으로서만 순수한 쾌락을 얻으려는 사람은 철학의 도움 이외의 것으로는 아무런 만족도 얻을 수 없다. 왜냐하면 철학의 즐거움 이외에 다른 모든 쾌락들은 다른 이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 13. 그러므로 생활필수품의 결핍으로 인한 범죄의 유형만 취급하는 팔레아스의 구제책 이상의 다른 어떤 구제책이 필요하다. 최악의 범죄들은 생활필수품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치와 허영 때문에 저질러진다. 사람들은 추위를 피하기 위하여 폭군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이유로, 폭군의 범죄는 크기 때문에 단순한 절도가 아닌 폭군을 암살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명예도 또한 크다. 이렇게 해서 우리들은 팔레아스가 제안한 정치질서의 일반적인 계획은 작은 범죄만을 막을 수 있는 것에 불과함을 알았다.
- 14. 팔레아스에 대하여 또 다른 비판을 할 수가 있다. 그는 정치질서가 내적으로 제대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그의 계획의 자세한 부분까지도 거의 모두 마련해 놓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국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인접국가와 외국에 대한 국방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마련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어떤 정치질서를 건설하는 데 있어 군사력도 고려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팔레아스는 여기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 15. 정치질서에 적용이 되는 것은 또한 재산문제에도 적용된다. 부(富)는 내적으로 시민들의 정치활동을 위한 근거로서 적절해야 할 뿐만 아니라 외부로부터 오는 위험을 막는 데 필요한 자원으로서도 적절해야 한다. 이 두 번째 관점에서 고려해 보면 재산의 적절한 양을 짐작할 수 있다. 일면으로는, 부는 이웃의 더욱 강력한 국가들이 그것을 탐내어 공격을 해올 때 그것을 막을 수 없을 만큼 많아서는 안되며, 또 다른 일면으로는, 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른 점에 있어서는 그들 자신과 평등하거나 비슷하면서도 전쟁에 있어서는 그 부담을 지탱할 수 없을 정도로

적어서도 안된다.

- 16. 팔레아스는 이 점에 관하여 아무런 시사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는 재산이 약간 있는 것이 이로운 것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그리고 그 재산의 양의 최선의 척도로서 다음과 같은 시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어떤 나라의 부가 엄청나기 때문에 보다 강력한 국가들이 그 나라와 전쟁을 하는 경우 아무 이득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할 정도여야 하며, 그러나 다른 나라가 그 나라와 전쟁을 하는 경우에 그 나라의 부를 탐해서가 아니라 다른 이유로 그렇게 할 정도여야 한다.
- 17. 우리들의 논의를 예증할 수 있는 역사적인 사건이 하나 있다. 페르시아의 아우토프라다테스(Autophradates)가 아타르네오스(Atarneos) 시를 공격하려고 계획하고 있을 때, 그 도시의 지배자인 에우불로스(Eubulos)는 그에게 자기 도시를 공략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여 보고, 그리고 그 정도 시간 동안에 포위를 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계산하여 보라고 부탁하였다. 그는 말하길 만일 그보다훨씬 더 적은 액수의 돈을 지불해도 그 당장에 도시를 넘겨주겠다고 말하였다. 그결과 아우토프라다테스는 조금 생각을 해 본 후에, 그 도시를 공략하는 것을 단념해 버렸다.
- 18. 재산의 분배의 내적 효과에 관한 주제로 돌아가서, 우리들은 모든 시민에게 평등한 재산을 주는 제도가 상호 간의 알력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어떤 이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이 이점은 대단한 것은 아니다.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이 체제에 대해 불만스럽게 생각할 것이며, 자기 자신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사실상 우리가 실제로 관찰해 보면 이들은 바로 이 이유 때문에 반란을 일으키고 내분을 야기하는 것이다.
- **19.** 사실상 순수한 평등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모두 싫어하게 될 것이다. (1267b) 사람의 나쁜 본성은 결코 채울 수 없는 컵이나 마찬가지이다. 한때는 한 사람의 일

당(日當)이 2오볼<sup>9</sup> 로써 충분했던 시기가 있었다. 그러나 이것이 습관이 되고 나니 사람들은 자꾸 더 많은 돈을 바라게 되고 결국은 한정 없이 돈을 받지 않으면 만족 하지 않게 되었다. <sup>10</sup> 욕망의 본성은 무한한 것이다. 그리고 대중은 욕망의 충족을 위해서 산다.

- 20. 이러한 악의 구제책은 재산을 평등화하는 데서가 아니라 사람의 본성 중에서 좀 좋은 부분은 탐욕을 부리지 않도록 하고, 좀 나쁜 부분은 탐욕을 부릴 수 없도록 훈련시키는 방법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이 후자의 목적은, 본성이 고상하지 못한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열등한 위치에 놓이도록 하면서도 불공평한 취급은 받지 않도록 해줌으로써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 21. 재산의 평등에 대한 팔레아스의 제안에는 불완전한 점이 또 있다. 즉 그는 토지재산만을 평등화하려고 했는데, 그러나 부에는 노예·가축·돈 등도 있고, 또그 이외에 우리가 동산이라고 부르는 재산도 상당히 있을 것이다. 재산을 적절히 평등화하려면 마땅히 이 모든 형태의 부를 평등하게 분배하도록 하든지, 아니면 알맞은 최고한도를 고정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모두를 자유방업에 맡겨야 한다.
- 22. 또한 팔레아스가 제안한 입법을 보면 시민의 수를 아주 적게 되도록 하려고 한 것이 분명하다. 즉 모든 장인들은 공적인 노예가 되도록 되어 있으며, 따라서 시민 축에 속할 수 없는 것이다.
- 23. 장인들의 어떤 한 부류, 즉 공적 재산에 고용되어 있는 자들은 공적인 노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그렇다면, 에피담노스(Epidamnos)에서 시행된 것이나, 혹은 디오판토스(Diophantos)가 일찍이 아테나이에서 시행하려고 했던 계획과 비슷한 방식으로 되어야 할 것이다.
- 이제 팔레아스가 제안한 정치질서에 관하여 고찰하여 보았으므로 그의 제안들이 좋은지 나쁜지는 각자가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 9. 오볼(obol): 고대 아테나이의 화폐단위.
- 10. 기원전 5세기 경 아테나이에서는 축제 기간 동안 연극 관람료 등으로 시민에게 일당을 준 일이 있다.

# 제8장

- 1. 에우리폰(Euryphon)의 아들이며 밀레토스의 시민인 히포다모스(Hippodamos)는 실제적인 정치의 경험 없이 최선의 정치질서의 형태를 다루려고 한 최초의 사람이다. 그는 도시를 여러 구역으로 나누는 도시 계획을 생각해 낸 사람이고, 페이라에오스(Peiraeos)를 규칙적인 도로들로 정비해 놓은 사람이기도 하다. 그의 일반적 생활에서도 그는 이러한 현실을 떠나서 다른 사람의 관심을 끌려고 이상한짓을 하기도 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그가 너무 가식적이며 인위적인 방식으로 생활을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는 장발을 하고, 비싸게 치장을 하였으며, 값은싸지만 따뜻한 천으로 만든 멋지게 늘어진 옷을 비싸게 단장해서 여름에나 겨울에나 함께 입고 다녔다. 그는 또한 도시계획에 관해서 뿐만 아니라 자연계에 관해서도 일반적으로 많은 것을 알려고 하였다.
- 2. 그가 건설하려고 한 국가는 시민의 수가 1만 명이며 세 계급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첫 번째 계급은 장인들이며, 두 번째 계급은 농부들이고, 세 번째는 무장을 한군인계급이다.
- 3. 영토도 또한 마찬가지로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은 종교적 목적을 위한 것이고 두 번째 부분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며, 세 번째 부분은 사유재산으로 하도록 하였다. 첫 번째 부분은 국가의 여러 신들의 정규적인 제사 비용에 쓰이도록 하였고, 두 번째 부분은 군대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며, 세 번째 부분은 농부 계급의 사유재산으로 하는 것이다.
- 4. 히포다모스는 또한 법률에도 세 등급만이 있어야 한다고 하였는데, 이들은 각각 이유 없는 폭력행위, 재산의 손상, 그리고 살인에 적용되는 것이며, 그는 이 세가지가 모든 법적 소송이 일어나는 주된 문제들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는 또한 유일한 최고법정은 하나만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는데, 제대로 판결이 안된 모든 문제들은 이 최고법정에서 판결 받도록 되어 있으며, 그의 계획에 의하면 이 법정은 이러한 목적으로 선출된 원로들로 구성되는 것이었다. (1268a)
- 5. 그는 법정에서의 판결은 투표함에 조개껍질을 넣는 방식이 아니라 판사들이 각

기 일정한 패(牌)를 제출하는 방식에 의하여 행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만약 판사가 피고에게 절대적으로 유죄라는 판결을 내린다면 그는 자기의 패에 판결을 쓰며, 절대적으로 무죄라는 판결을 내리면 아무것도 쓰지 않으며, 조건부의 판결을 내리고자 하면 즉 부분적으로 유죄라거나 부분적으로 무죄라는 그 판결의 내용을 정확하게 써야 한다. 히포다모스는 일반적인 투표 방법을 나쁜 제도라고 하여 반대하였다. 즉 이 제도에 따르면 판사가 유죄 · 무죄의 경계가 불명확한 경우에 있어서도 절대무죄 혹은 절대유죄의 판결을 내리지 않을 수 없으므로 판사로서의 선서를 어기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 6. 그는 또 국가에 유익한 발명을 한 사람에게 명예를 부여하는 입법을 제안했으며, 나아가 이제까지 어떤 나라도 제정해 본 일이 없는 새로운 입법으로서, 전투 중에 전사한 사람의 자손은 공적인 비용으로 부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러한 법률이 이미 아테나이와 또 다른 나라에도 있는 것이다.
- 7. 결국 그의 계획에 의하면 행정관리들은 모두 시민들에 의해 선출된다. 이미 말한 바와 마찬가지로 시민은 세 계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들이 선출하는 관리들도 세 개의 문제, 즉 공적인 문제들, 외국인에 관련된 문제들, 그리고 고아들에 관한 문제들에 종사해야 했던 것이다.
- 이러한 것들이 히포다모스가 제안한 정치제도에 있어서 중요하고 가장 뚜렷한 특징들이다. 이 계획들에 대하여 우리가 제기해야 할 첫 번째 비판은 시민들을 여러계급으로 나누는 것에 관해서이다.
- 8. 장인·농부 그리고 군인계급들은 모두 실질적인 선거권을 갖는다는 의미에서 정치질서에 참여한다. 그러나 농부들은 무기를 소지하지 않으며 장인들은 토지도 무기도 소유하지 못한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이 양 계급은 무기를 소지하는 계급의 노예가 되고 말 것이다.

<sup>11.</sup> 고대 그리스에서는 투표나 판결에 조개껍질 또는 깨진 그릇조각 등을 사용하였다. 선거에 관한 과학 적 연구를 오늘날 psephology라고 부르는 것은 이를 어원으로 한 것이다.

- 9. 따라서 이 양 계급은 국가의 모든 관직을 맡는다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다. 왜냐하면 무기를 소지하는 계급의 구성원들만이 필연적으로 장군과 경찰관리들에 임명됨에 틀림없으며, 따라서 중요하고 가장 높은 관직들은 주로 이들이 맡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일 이 두 계급의 구성원들이 관리가 될 자격은 있으며, 그래서 수동적인 참정권을 소유한다는 면에서의 정치질서에 참여할 수가 없다면, 그들이 어떻게 이러한 정치질서를 우호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이것에 대해 무기를 소지하는 계급이 다른 두 계급보다 더 우월해 야 한다고 답변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답변에 대해서 우리는 무기를 소지한 계급이 다른 계급들보다 우월하려면 그 수도 또한 많지 않으면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대답할 수 있다.
- 10. 그러나 이 경우에 있어서 무기를 소지하지 않은 두 계급이 능동적인 참정권을 실행하는 면에서의 정치질서에 참여하거나, 관리들의 임명을 좌우하여야 할 필요가 있겠는가? 우리는 또한 농부들이 국가에 실질적으로 어떤 유용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 하는 더 큰 질문을 제기할 수 있다. 장인들은 모든 국가에 있어서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며, 그리고 히포다모스가 제의한 국가에 있어서도 다른 모든 국가에 서와 마찬가지로 장인들은 그들의 기술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농부의 경우는 다르다. 만약 농부들이 군인계급에 생존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라면 그들이 국가에 불가분한 일부라고 생각하는 것이 정상적일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중요한 계급에 생활을 제공함으로써 곧 국가에 중요한 공헌을 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히포다모스의 계획에 의하면 농부들은 토지를 사유 재산으로 소유하며 그들의 사사로운 이득을 위하여 땅을 경작한다는 것이다.
- 11. 또 하나의 난점은 군인들의 생활수단이 되며 공동재산인 세 번째 부분의 토지에 관한 문제이다. 만약 군인들 자신이 이 공유지를 경작한다면 군인계급과 농부계급 사이에, 히포다모스가 설정하려고 한 것 같은 구별이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와 반대로, 만약 이 공유지를 경작하는 사람들이 사유 재산을 갖고 있는 농부계급이나, 군인계급과는 별도로 존재한다면 우리들은 국가에는 네 번째 계급이었다고 생각해야 한다. 그러면 이 계급은 아무것에도 참여할 수 없으며 정치질서로부터 완전히 소외된 존재가 될 것이다.

- 12. 사실상 또 다른 그리고 세 번째 대안이 있는데, 그것은 사유지를 경작하는 농부계급이 공유지도 경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 있어서는 경작자각자가 그 자신과 군인계급의 두 가족을 충분히 부양할 만큼의 수확을 얻기가 어렵게 될 것이다. 또한 새로운 질문이 제기될 수 있다. (1268b) 『왜 사유지로부터 공유지를 떼어 놓고 시작하느냐? 그렇게 함으로써 농부들이—모든 땅을 사용하여, 단일한 구획으로서의 각자의 몫을 각자가 경작함으로써—그들 자신의 생활을 이룩하며 동시에 군인계급을 부양하는 그런 체계로부터 왜 즉시 시작하지 않는 가?』불행하게도 이러한 모든 문제들에 관해 히포다모스의 생각에는 어떤 혼돈이 있는 것이다.
- 13. 우리들은 또한 사법 판결을 내리는 방식에 관해 그가 제의한 법률에 동의할 수가 없다. 그는,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 소송이 절대적인 형태의 내용이라고 할지라도 판사는 조건부 판결을 내려야만 한다고 규정하여 놓았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판사가 중재인이 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규정한 것이다. 중재재판소에 있어서는 중재인이 여럿이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들이 서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가에 관해 의논할 수 있으므로, 조건부 판결이 가능하다. 그러나 법정에 있어서는 그런 판결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법률은, 판사들에게 서로 협의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오히려 판사들이 의견을 나누지 못하도록 하는 특별한 법적 조처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 14. 따라서 우리는 이런 경우 판결들이 곤란한 지경에 빠지게 되리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어떤 판사가 원고가 요구하는 것보다는 더 적은 액수로 손해배상을 물어 주어야 한다는 의견을 갖고 있는 경우를 상상해 보자. 예를 들어 원고가 20미네(minae)를 요구하는 소송을 하였는데 한 판사는 10미네의 판결을 내리고(혹은 원고가 더 많은 액수를 요구하고 판사는 그보다 더 적은 액수의 판결을 했는데), 많은 판사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판사는 5미네의 판결을 하고, 또 다른 판사는 4미네 만의 판결을 내린다고 하자. 이러한 면에서 여러 판사들이 청구된 금액에 대하여 서로 다른 액수를 주도록 조건부 판결을 내리게 되는 것은 명백하다. 그러나이것이 전부는 아니다. 우리는 명백한 그리고 무조건적인 판결을 내리는 판사도

역시 고려해 보아야 한다. 그래서 어떤 판사들은 소송을 청구한 금액의 전액을 주도록 하는 판결을 내리고, 다른 사람들은 아무것도 주지 말라는 판결을 내릴 수도 있다.

- 15. 이런 경우에 여러 가지의 서로 다른 판결들을 어떻게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 겠는가? 다른 입장으로 돌아가 보면, 소송 그 자체가 명확하고 절대적인 형태로 되어 있다면, 완전무죄 혹은 완전유죄의 명확한 판결을 내릴지라도 판사는 그의 판사로서의 선서를 어기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예를 들어서 만약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액이 20미네인 경우에 판사가 무죄의 판결을 내린다고 해서 피고가 아무것도 물어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판사는 단지 피고가 20미네를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을 한 것뿐이다. 판사는 원고가주장한 20미네를 피고가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고 믿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에게 패소 판정을 내리는 경우에 한해서만 선서를 어긴 것으로 되는 것이다.
- 16. 히포다모스가 제기한 또 다른 문제—즉, 국가에 유용한 어떤 개선책을 생각한 사람에게 명예를 수여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관해서, 우리는 그런 입법이 그럴 듯하게 들리지만 실제로 잘 제정될 수가 없다고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 그렇게 하면 개선하려는 사람에 대해 허위의 중상이 나올지 모르며 따라서 아마도 정치적인 분쟁이 많이 생길 것이다. 그러나 이 제안에는 또 다른 문제점이 있으며, 이것에 대해서도 또 다른 논의가 제기될 수 있다. 어떤 사상가들은 전통적인 법률을 다른 더 좋은 법률로 개선할 여지가 있어서 변경하면 국가들이 손해를 보는가, 이득을 보는가 하는 점에 관하여 의문을 제기한다.
- 17. 만일 우리가 이 문제에 관하여 법을 변경하는 것이 이롭지 못하다는 입장을 취한다면 히포다모스의 제안에 쉽게 동의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실제로 법이나 정치질서에 대해 파괴적인 변화들은 공동선(共同善)에 기여한다는 명목으로 제의될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서 이 문제가 제기된 김에 이것에 관한 우리의 견해를 좀 더 명확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
- **18.**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이 문제는 현재 논란이 많은 문제이다. 그래서 변경이 더 좋은 정책이라는 견해도 또한 가능하다. 다른 분야의 지식에 있어서는 명백하

게 변화가 유익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그 증거로는 의학·체육, 그리고 일반적으로 모든 형태의 인간의 기술과 직능에 있어서 전통적인 방식을 수정한 것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정치도 또한 기술의 한 형태이거나 직능이므로, 이것은 정치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하는 것이 논리적일 것이다.

- **19.** 또한 역사상의 실제적 사실도 변화가 유익한 것이라는 한 증거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 옛날의 관행은 매우 간단하고 비문명적이었다. 그리스인들은 무장을 하고 돌아다니면서 서로 상대방에게서 신부감을 구하였다.
- 20. 사실상 옛날의 관습의 잔재들은 아직도 여기저기에 남아있는데 그것들은 매우불합리한 것이다. (1269a) 예를 들어서 키메(Kyme)에는 살인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만일 원고가 자기 자신의 친척들 중에서 일정한 수의 증인을 세울 수 있으면 피고는 살인의 죄과를 짊어지게 되는 것이다.
- 21.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전통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그것을 일반적인 선을 좇아 개선하려고 한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알려진 최초의 인간들도, 그들이 〈땅에서 태어났거나〉 혹은 어떤 큰 재난의 생존자이었거나 간에, 오늘날 평범한 혹은 어리석기조차 한 사람들과 비슷하였으리라는 것이 거의 확실하다.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는 실제로 그렇다.) 그러므로 그들의 생각을 그대로, 지켜 나가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될 것이다. 그러나 불문율과 관련된 이러한 고려 이외에도, 성문법을 고치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것이 좋은 정책은 아니라고 또한 주장될 수 있다.
- 22. 그 이유는 일반적으로 모든 직능에서처럼 정치적 조직의 문제에 있어서도 모든 규칙이 확실하게 되어 있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규칙들이란 모두 일반적인 용어로 표현되지 않으면 안되지만 그러나 실제 사람들의 행위는 개별적이며 특수하다. 법률의 최초의 형태는 따라서 부정확한 것인데, 인간 활동의 경험이 점차 세밀화 되어감에 따라 변화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 이러한 논의들은 어떤 경우에, 그리고 어떤 때에는 법이 수정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밝히는 것이지만, 입장을 좀 달리해 보면 변화라는 것은 매우 조심성을 필요로하는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 23. 우리가, 개선됨직한 것은 매우 적으며, 그리고 사람들이 가벼운 마음으로 법을 폐기하는 습관에 젖는 것이 좋지 않다는 것을 반성해 보면, 입법이나 통치에 있어서 설혹 어떤 결함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그대로 두는 것이 더 좋다는 것은 확실하다. 만약 사람들이 정부에 복종하지 않는 습관에 빠지게 되면 야기될 손해보다는 변경을 함으로써 얻는 이득이 더 적을 것이다.
- 24. 우리는 또한 직능으로부터의 유추가 옳지 않다는 것에 주목하지 않으면 안된다. 즉 어떤 직능의 실제를 변경하는 것은 법의 실시를 변경하는 것과는 같지 않다. 법이 사람들에 의하여 복종이 되는 근거인 정당성은 습관으로부터 나오며, 이습관을 제외하면 아무것도 없는 셈이다. 그런데 습관이라는 것은 시간이 경과해야만 성립될 수 있다. 따라서 기존의 법률을 새로운 법률로 쉽게 바꾸면 법의 일반적인 권위가 약화될 것이다.
- 25. 또 다른 의문이 역시 제기될 수 있다. 즉 법을 변경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모든 법, 그리고 모든 정치질서에 그대로 타당한 것인가 혹은 그렇지 않은 것인가? 또한 어떤 사람이라도 기존 체제의 변경을 시도할 수 있는가, 아니면 특정한 사람들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 대안들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커다란 차이가 생긴다. 따라서 우리는 이 문제를 다음 기회로 미루고 여기에서는 취급하지 않기로 한다.

## 제9장

- 1. 우리가 스파르타와 크레테의 정치질서를 혹은 어떤 다른 나라의 정치질서일지라도—고찰해 보면 두 개의 문제가 제기된다. 첫째로 그들의 제도 중의 어떤 것이이상적 체제의 기준에서 판단해 보아서 좋은가 나쁜가 하는 문제이고, 둘째는 그중의 어떤 특정한 규정이 실제로 확립된 바의 그들 정치질서의 성격과 원칙들에위배되는가 하는 문제이다.
- 2. 좋은 질서를 갖고 있는 국가에 있어서는 여가, 혹은 다른 말로 표현하여 노동의 필요로부터의 자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어떤

방식의 조직에 의해서 이 여가가 확보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은 알기 어렵다. 테살리아(Thessalia)의 페네스타이(Penestai)의 농노제도는 이러한 방식 중의 하나이지만 그곳의 농노들은 때때로 그들의 지배자에게 대하여 반란을 일으켰다. 마찬가지로 스파르타의 노예들도, 마치 매복하여 있는 것처럼 하여 그들의 주인이 곤경에처하는가를 항상 살펴보고 있다가 반란을 일으키곤 하였다.

- 3. 사실 크레테에서는 이와 비슷한 일들이 한 번도 일어난 일이 없다. 아마도 (1269b) 그 이유는 그 섬 내의 인접 도시들이 서로 적대관계에 놓여 있을지라도 반란을 일으킨 농노들과는 결코 동맹관계를 맺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스파르타의 이웃나라들 아르고스(Argos), 메세니아(Messenia), 그리고 아르카디아(Arkadia)—은 모두 스파르타와 적대국이었다. 그리고 이것이 스파르타 노예들의 잦은 반란의 원인이다. 테살리아의 예도 같은 입장으로 증명된다. 테살리아에 있어서 초기의 농노의 반란은 테살리아인들이 그들의 이웃나라 사람들 아카이아(Achaia)인들, 페르하이비아(Perhaibia)인들, 그리고 마그네시아(Magnesia)인들등 과 전쟁 중이었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 4. 농노를 다루는 일은, 별다른 외적인 곤란이 없을지라도, 그 자체만으로도 힘든일이다. 농노들과 어떤 입장에서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가를 결정하는 것은 쉬운일이 아니다. 만일 그들을 해이하게 다룬다면 곧 자만심이 생겨서 그들이 주인과 평등해야 한다고 주장하게 될 것이다. 만일 그들을 심하게 다루면 원한을 갖고 모의를 하기 시작할 것이다.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명백하다. 이러한 방식으로 노예 체제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들은 그들의 생활방식을 조직하는 데 있어서 최선의 길을 발견하지 못한 셈이다.
- 5. 스파르타의 정치질서에 대한 또 다른 비판은 이 질서하에서는 여자들에게 너무 관대하다는 것이다. 이것 때문에 스파르타는 그 자신 정치질서의 목표나 시민 전체의 행복을 모두 성취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마치 남편과 아내가 꼭 같이 가족의 기본적인 부분인 것처럼 국가도 거의 동수의 남자와 여자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되어야 한다. 따라서 위치가 적절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모든 정치질서에 있어서는 시민들의 반은 제대로 법적인 고려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 6. 이러한 일이 실제로 스파르타에서 일어났다. 스파르타의 법률을 제정한 입법자는 전체 시민을 강건하게 만들려고 하였다. 그러나 남자들에 관한 한 이러한 입법 취지는 성취되었지만 여자들에 관해서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등한시 되었다. 왜냐하면 여자들은 사치와 방종에 젖은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 7. 이러한 정치질서하에서 일어나는 불가피한 결과가 바로 부의 숭배이다. 이것은 대부분의 군인과 무사 계층에서 일어나는데, 시민들이 자기 부인의 지배를 받는 경우에 특히 그러하다. (그런데 켈트(Kelt)인들만은 이 일반적 법칙에 예외이다. 또한 공공연하게 동성애적 관계를 인정하는 사람들도 여기에서 예외이다.)
- 8. 아레스<sup>12</sup> 와 아프로디테<sup>13</sup> 를 짝지은 신화를 처음 만든 사람에게는 지혜가 있었다. 이것은 모든 전사(戰士)들이 여자나 남자에게 열정적인 감정을 갖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스파르타에 있어서는 여자와 격정적인 관계를 갖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었다. 그 결과로 여자들의 전성기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권한이 여자들 손에 떨어지게 되었다.
- 9. 그러나 국가의 지배자들이 사실상 여자의 지배를 받는 것과 여자들 자신이 실제로 지배자가 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 결과는 마찬가지이다. 그러한 결과의 예를 하나 들어 보자. 스파르타의 여자들은 사람들의 용감성에 대해서도 나쁜 영향을 끼쳤는데, 원래 용기란 일상생활 상의 일에 있어서는 아무 소용이 없고 그것이 유용한 경우라고는 전쟁 때뿐이다.
- 10. 이러한 일이 테베(Thebe)의 침입 동안에 일어났는데, 다른 나라의 여자들과는 달리 스파르타의 여자들은 아무 짝에도 쓸모 없었고, 적보다도 오히려 더 많은 혼란을 야기하였다. 여자들이 방종한 생활을 즐기는 것은 애초에 스파르타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원인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1270a)

12. 아레스(Ares):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군신(軍神).

13. 아프로디테(Aphrodite):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미와 사랑의 여신.

- 11. 남자들은 오랜 기간 동안 외국에 원정을 나가고 집에 없는 일이 있었다. 아르 골리스(Arggolis)인들, 메세니아인들, 아르카디아인들과 계속하여 전쟁이 있었기 때문이다. 군인으로서의 생활을 함으로써 스파르타 사람들은 일정한 소양을 갖추게 되었고, 따라서 평화와 여가를 되찾아서 입법자가 마음대로 국정을 다룰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여자들은 이와 달리 가정에서 그들의 생활을 이룩하였다. 사실상 리코우르고스<sup>14</sup>는 전통을 좇아서 여자까지도 법적 규제의 대상이 되도록 하려고 시도하였다. 그러나 스파르타인들은 이것에 반대하였으므로 그는 이러한 기도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 12.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무엇이 실제로 일어났으며 이 스파르타의 체제에 있어서 결함의 기원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반면에, 무엇이 역사적으로 변명의 여지가 있는가 혹은 없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실제로 옳은가 그른가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 우리의 관심사임을 기억하지 않으면 안된다.
- 13. 위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스파르타에서의 여자들의 위치의 결함은, 만일 우리가 그 자체만을 생각해 본다면, 정치질서에 있어서 어떤 부조화를 야기하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탐욕을 증대시킬 가능성이 많은 것 같다. 따라서 이제 위에서 관찰한 바를 염두에 두고, 스파르타에서의 재산 분배의 불평등에 대하여 비판해 보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이다.
- 14. 어떤 스파르타인들은 지나치게 많은 재산을 소유하게 된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아주 조금밖에 갖지 못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토지는 대부분 소수 사람들의 손에 들어가게 되고 만 것이다. 이 문제는 스파르타의 법률에 의해서 매우 잘못 취급된 것이다. 스파르타의 입법자는 스파르타 시민의 소유인 땅을 매매하지 못하도록하여 놓았는데 이것은 올바른 일이었다.

그러나 그는 또한 사람들이 원하면 자기의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그저 주거나 혹

14. 리코우르고스(Lykourgos): 스파르타의 전설적인 입법자.

- 은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사실은 이것은 불가피하게 매매를 허용하는 것과 꼭 같은 결과를 낼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 15. 실제로 전체 국토의 5분의 2정도가 소수의 여자들에게 속해 있는데 이것은 여자 상속인들이 많고 또 지참금을 주는 관행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지참금 제도를 없애 버리든지 아니면 그것을 소액 혹은 적당한 액수로 고정시켜 버리는 것이 더 좋았을 것이다. 실제로는 시민이, 빈부를 막론하고 그가 좋아하는 어떤 남자에게나 자기의 재산을 상속하는 딸을 줄 수가 있고, 또는 만약 그가 유언을 남기지못하고 죽는 경우에는 딸의 보호자의 입장에 있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딸을 결혼시켜 버릴 수 있다.
- 16. 그 결과로 스파르타의 국토는 1천 5백 명의 기병과 3만 명의 보병을 유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숫자는 기원전 369~362년의 테베의 침공 때까지 점차로 1천 명 미만으로 감소하게 된 것이다. 스파르타의 재산 규제의 방법에 결함이 있다는 것은 역사가 명백하게 보여 준 것이다. 스파르타는 전쟁에서 단 한 번의 패전을 극복할 능력이 없었는데, 그것은 인력의 결핍으로 패망하고만 것이다.
- 17.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초기의 왕정 당시에 스파르타는 이방인에게도 시민권을 주는 관습이 있었고 그 결과로 장기간에 걸친 전쟁을 치르면서도 인력의 결핍으로 곤란을 받지 않았다고 한다. 사실상 한때는 스파르타의 시민 수는 1만 명까지이르렀다고 한다. 이러한 말이 사실이건 허위이건 간에 스파르타는 재산의 배분을 평등하게 유지해서 시민의 수를 보충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 18. 그러나 이러한 개혁에 방해가 된 것은 바로 스파르타인들이 출산율을 장려하기 위하여 채택한 법이었다. (1270b) 스파르타인들은 시민의 수를 가능한 한 최대 한으로 하려고 갈망한 나머지, 동료 시민들로 하여금 가능한 한 많은 아이들을 갖도록 권유하려고 아들을 셋만 낳으면 아버지를 병역에서 면제시켜 주며, 아들을 넷을 가지면 모든 세금을 면제시켜 주는 입법을 하였다.
- **19.** 그러나 명백히 가족의 수가 많아서 재산을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게 된다면 많은 시민들이 필연적으로 빈곤하게 될 수밖에 없었다.
- 여기에서 감독자 제도(Ephorate)라고 불리는 제도의 결함에 대해서도 비판이 있

게 된다. 스파르타의 감독자들(Ephors)은 최고로 중요한 문제들에 관하여 최고의 권위를 갖는다. 그러나 이들은 전체 일반 평민들 중에서 뽑히는데, 때로는 생활수 단이 없기 때문에 뇌물을 받기 쉬운 가난한 사람들이 이 관직을 얻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

- 20. 이 약점은 과거에 가끔 노출되었다. 최근에는 안드로스(Andros)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감독자들 중 몇몇이 뇌물을 받고 최선을 다하여 전 국가를 패망하도록 하려고 한 것이다. 이 제도의 또 하나 다른 결점은 이 제도가 너무 중요하며 너무나 독재적인 성격을 띠는 것이므로 왕까지도 감독자에게 잘 보이려고 애를 쓰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그 결과로, 부패 가능성 이외에도 정치질서 전반이 왕정과 마찬가지로 감독자들의 지나친 권력 때문에 고통을 겪는 것이다. 또한 그것은 귀족정치로부터 민주정치의 방향으로 흐르는 경향이 있다.
- 21. 그러나 감독자 제도가 전체 정치질서를 결속시키는 응집력이 된다는 것을 또한 인정하지 않으면 안된다. 국가의 최고 관직에 참여하는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일반국민은 만족스러워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것은 결과적으로, 이 제도의 영향에 기인하거나 혹은 우연의 결과이건 간에, 스파르타의 정치에 유익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다.
- 22. 만약 어떤 정치질서가 유지되어 나가려고 한다면 그 국가의 모든 요소들이 그질서의 존속을 기꺼이 원해야 한다. 그러한 의지는 스파르타의 각 요소들 속에 존재하고 있다. 스파르타에 있어서는 두 명의 왕<sup>15</sup>이 명예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 질서의 존속을 원하며, 상류계급은 원로원<sup>16</sup>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만족하고 있으며, 일반대중도 감독자 제도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만족하고 있어서 기존 질서의 존속을 원하기 마련이다.

<sup>15.</sup> 스파르타는 두 명의 왕을 두었는데 이들은 평소에는 별 영향력이 없지만 전쟁이 발발하면 절대권을 갖는 군의 최고 통수자가 된다.

<sup>16.</sup> 원로원(Senate): 스파르타에서는 뛰어난 업적에 대한 보상으로 상원 의석을 주었다.

- 23. 그러나 감독자 제도는 이러한 장점을 갖고 있지만 또한 결함도 안고 있다. 모든 사람이 이 관직을 담당할 수 있다는 것은 정당하며 또한 적절한 것이기도 하지만,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선거 방식은 너무 유치하여 온당치 못하다. 또한 감독자들은 평범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권한을 갖는다. 따라서 그들이 문제들을 마음 내키는 대로 처리하지 말고 법률의 형식을 갖추어 규정되어 있는 원칙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한다면 더 좋을 것이다.
- 24. 결국 그들의 생활방식은 국가의 목적과 합치되지 않는다. 즉 그들에게는 너무 많은 자유가 허용되어 있다. 이것은 일반시민에게 부과되는 엄격한 생활과는 모순되는데, 일반시민들에게는 이와 반대로 너무 엄격한 생활을 요구하므로 사람들이 그것을 견디지 못하며 비밀스러운 감각적 쾌락으로 도피하는 것이다. 원로워의 제도에도 결점이 있다.
- 25. 만약 이 회의의 구성원들이 청렴하며 또한 남자다운 덕성을 갖추도록 적절한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이 제도가 국가에 유익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역시 원로원의 의원들이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는 종신직 판사가 되어야 하는가 하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있다. 사람은 몸과 마찬가지로 마음에 있어서도 나이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1271a) 의원들의 훈련이 만족스럽지 못하여 입법자까지도 그들의 사람됨을 불신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의회가 안전한 제도라고 생각될 수 없다.
- 26. 경험으로 미루어 보아 의원직을 맡았던 사람들이 뇌물 혹은 인간적 관계의 영향을 받아서 공적인 일을 처리한 일이 가끔 있었다는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이유때문에 오늘날에 시행되고 있는 것처럼 이들의 행동이 감사를 받지 않으면 안되게된 것이다. 사실 감독인들은 모든 관리들의 행동을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이 보유하기에는 너무 큰 특권이며, 또한 우리의생각으로는 의원을 감사하는 것을 이러한 방식으로 하면 안된다.
- 27. 의원을 선출하는 방식도 또한 결점이 있다. 최종 선거는 어린이 장난 같은 환호하는 특별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피선되기 위해서는 공개적으로 자기를 선출하여 달라고 요청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도 온당치 못하다. 관직을 맡을 만한

사람은 본인이 그 관직을 원하거나 원치 않거나 간에 그것을 맡도록 되어야 한다.

- 28. 후보자가 자기를 선출해 달라고 요청하도록 해놓은 것은, 입법자가 분명히 정치질서 전체에 주입하려고 하는 정신에서 행동하는 것이다. 즉 이렇게 규정된 것은 모든 시민들이 명예 또는 관직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야심을 갖도록 하는 것을 원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러한 야심이 없이는 아무도 의원이 되려고 입후보를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야심과 탐욕은 바로 사람들로 하여금 거의 모든 고의적인 범죄를 저지르도록 하는 동기이다.
- 29. 군주제의 일반적인 문제, 그리고 국가가 왕을 갖는 것이 좋은가 나쁜가 하는 문제는 다음 기회로 미루는 것이 좋겠다. 그러나 만일 왕이 있어야 한다면, 현재 스파르타에서 좇고 있는 원칙으로 왕이 되도록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즉 왕은 각기 그 자신의 행동과 성격에 따라서 지명되어야 한다.
- **30.** 현 체제에서는 입법자 자신까지도 그가 왕들로 하여금 명예스럽고 훌륭하게 행동하도록 할 수 없다는 의견을 가졌음에 틀림없다. 어쨌든 그는 왕들이 그가 설정한 목적에 비추어 충분히 훌륭하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불신은, 실제에 있어서 왕들을 반대파들과 한데 묶어 외국에 사절로 보내는 사례에서 엿볼 수 있으며, 또한 왕들과 그 반대파들"사이에 의견의 분열이 있는 것이 정치적 안전판이 된다는 일반적인 견해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공동식사 제도(스파르타인들은 이것을 phiditia라고 부른다)를 제정할 당시에 이 것을 규제하기 위하여 만든 법적인 조처도 또한 비판의 여지가 있다.

31. 공동식사를 위한 모임의 비용은 크레테에서처럼 공공기금에서 지불되어야 한다. 그러나 스파르타의 규칙은, 어떤 시민들은 너무 가난해서 비용을 부담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각자가 자기의 몫을 가져오도록 되어 있다. 당연하게도 입법자의 의사와는 정반대의 결과가 되고 마는 것이다.

**17.** 즉 감독자들을 뜻함.

- 32. 공동식사 제도는 민주적인 취지를 가진 것이다. 그러나 스파르타에서 시행되고 있는 규칙은 거의 그 반대의 현상을 일으킨다. 극히 가난한 시민들은 공동식사에 참여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파르타 체제의 전통적 규정에 따르면자기 몫을 가져올 수 없는 사람은 정치적 권리를 누릴 수 없게 된다.
- **33.** 어떤 저술가들은 또한 해군 제독의 관직에 관련된 법을 비판하였는데, 이것도 일리가 있다. 이 법은 내분의 원인이 된다. 해군 제독의 관직은 종신으로서, 총통의 위치를 갖는 왕들에 대한 견제로서 만들어 놓은 일종의 제2의 왕권인 것이다.
- 34. 스파르타의 입법의 목적과 의도는 또 다른 관점에서 비판할 수 있다. (1271b) 그런데 플라톤이 이미 그의 《법률》에서 이 비판을 하였다. 전체 입법체제가 선(善의 한 요소 혹은 한 부분만을 즉 전쟁에 있어서의 선—육성하도록 되어 있다. 왜 나하면 그러한 종류의 선은 권력을 획득하는 데 유용하기 때문이다. 이 결과 필연적으로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이다. 즉 스파르타인들은 전쟁을 하는 동안에 한해서는 안정되어 있었지만, 그러나 전쟁에 이겨서 제국을 획득하자마자 붕괴하고 만 것이다. 그들은 평화가 가져다주는 것을 선용할 줄 몰랐으며 전쟁의 훈련 이외의 더 좋은 어떤 교육에도 익숙해 있지 못했다.
- 35. 스파르타에는 마찬가지로 심각한 또 다른 결점이 있다. 스파르타인들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價値〉)는 사람들이 선해야만 성취할 수 있고 악하면 성취할수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들이, 선한 것이 생활에 있어서 〈가치〉들에 이르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올바른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이들 〈가치〉가 선보다 더좋은 것이라고 믿은 일은 틀린 일이다.
- **36.** 스파르타에 있어서 또 다른 결점은 공공재정의 상태이다. 즉 국가가 큰 전쟁을 치르지 않을 수 없을 때에, 국고는 비어 있는데 세금은 제대로 납부되지 않는다. 토지의 대부분은 시민들의 소유인데, 토지세가 부과되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납세를 소홀히 한 것이다.
- **37.** 여기에서 스파르타 체제의 결과는 유익한 것과는 반대이다. 즉 이 체제는 사사로운 탐욕을 부채질하는 반면에 국가를 빈곤하게 만들어 놓았다. 이것으로써 스파르타의 정치질서를 살펴본 셈이며, 위에 언급한 것이 특별히 비판 받아야 하는 결

함들이다

#### 제10장

- 1. 크레테의 정치질서 형태도 스파르타와 비슷하다. 그러나 크레테의 정치질서는 한두 면에 있어서 스파르타와 동등한 수준이지만 전체적으로 보아 끝마무리에서 열등하다. 아마도 일반적으로 스파르타의 정치질서는 크레테 모형에 근거를 두었던 것 같다. 사실상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스파르타가 크레테의 질서를 모방하였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더 오래된 제도들이 그 후에 나온 제도들보다 더 정교하기 마련이다.
- 2. 전설에 의하면 리코우르고스는 카릴로스(Charillos)왕에게 통치자의 직분을 물려준 다음에 해외로 나가서 대부분의 시간을 크레테에서 보냈는데, 그는 크레테와 약간의 연고가 있었다고 한다. 즉 릭토스(Lyktos)는 (크레테의 도시국가 중의 하나) 원래 스파르타의 식민지로서 그 주민들은 스파르타 사람들이었다. 이들 스파르타의 개척민들은 그들이 이주할 당시의 원주민들이 시행하고 있었던 법을 채택하였다.
- 3. 스파르타의 크레테 이주민들이 이 오래된 법률들을 채택했다는 사실들은 우리로 하여금 어째서 그 법률들이, 미노스(Minos) 당시에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법률 체계로서 아직도 이 섬의 농노들 사이에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지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 이 섬은 그리스 세계에 있어서 제국을 유지하기에 훌륭한 위치를 갖고 있고, 또한 천연적(天然的)으로 설계된 것처럼 보인다. 그것은 바다 전체를 (즉 동부지중해) 지배하기에 유리한 위치를 가지고 있어서, 이 바다의 해변에 거의 모든 그리스인들이 정착한 것이다. 그것은 서쪽으로는 필로폰네소스 반도에서 멀지 않으며 동쪽으로는 로도스(Rhodos)봉과 크리오(Krio)봉을 돌아 아시아의 한 귀퉁이와 근접하여 있다.
- 4. 이렇게 보면 미노스왕이 해양제국의 건설에 성공한 이유를 알 수 있겠다. 그는

몇 개의 인접 도서를 복속시키고 또 다른 몇 개를 식민지화하였으며, 마침내 멀리 시칠리아까지 공략하였는데 결국 그는 그곳의 카미코스(Kamikos) 부근에서 죽었다.

크레테의 제도들의 일반적 형태는 스파르타와 유사하다.

- 5. 스파르타인들을 위하여 땅을 경작했던 노예들은 크레테의 페리오에키 (Perioeki) 즉 농노에 해당 한다. 그리고 양 국가가 (1272a) 모두 공동식사 제도를 갖고 있었는데, 스파르타인들은 예전에는 이것을 안드레이아(andreia)라고 불렀다(오늘날에는 이와는 달리 phiditia라고 부른다). 그런데 크레테인들은 아직도 이용어를 사용하며 이것은 스파르타인들이 크레테로부터 배웠다는 한 증거이다.
- 6. 크레테와 스파르타의 정치질서 체제에도 또한 유사점이 있다. 스파르타의 감독자들은 크레테의 코스모이(Cosmoi)와 같은 위치를 차지한다. 18 그 유일한 차이는 스파르타의 감독인들은 다섯 명인데 코스모이는 열 명이라는 것이다. 비슷하게스파르타의 원로들과 유사한 제도가 크레테에도 있는데 크레테의 원로원은 의회(boulē)라고 부른다(스파르타에서는 Gerousia). 스파르타와 같이 크레테는 옛날에는 군주정이었지만 후에 이를 폐기하였고 오늘날에는 코스모이가 군대를 통수한다.
- 7. 모든 크레테의 시민들은 일반의회에 참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의회의 권한은 그저 원로들 혹은 코스모이가 내린 결정을 비준하는 데 그친다.
- 크레테의 공동식사 제도는 스파르타보다 더 낫다. 스파르타에서는 시민 각자가 개 별적으로 자기에게 할당된 몫을 가져와야 하며, 그렇게 못하면 위에서 관찰한 바 와 마찬가지로 정치적 권리를 법적으로 박탈당한다.
- 8. 크레테에서는 공동식사 제도가 공적인 성격을 띤다. 공유지에서 사육된 가축 그리고 농작물 전부와 농노들에게서 징수한 물납세(物納稅)는 모두 공동기금이 되

18. 스파르타의 감독자에 해당하는 크레테의 관직 이름.

는데 그 중의 반을 종교의식과 공공업무 수행에 사용하고 나머지 반을 공동식사를 마련하는 데 쓴다. 이렇게 해서 모든 사람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공금으로 똑같이 식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 9. 크레테의 법률들 중에는 국가를 위하여 절식(節食)을 하도록 권장하는 취지를 갖는 기발한 여러 방안들이 있다. 그리고 또한 여자들이 아이를 너무 많이 갖지 않도록 남자들로부터 여자를 격리하는 조항도 있으며, 동성연애를 금지하는 조항도 있다. (이것이 옳은가 그른가 하는 문제는 뒤로 미루기로 한다.)
- 위에서 본 바대로 크레테의 공동식사 제도가 스파르타의 제도보다 우월하다. 반면에 코스모이는 감독자 제도보다도 열등한 제도이다.
- 10. 코스모이는 감독자의 결점—즉 적절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발적으로 임명이 된다는 결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감독자와 같은 정치적인 장점은 없다. 스파르타의 체제하에서는 모든 국민이 감독자가 될 수 있고 전 국민이 최고 관직에 참여할 수 있는 즐거움이 있으므로 인민들은 기존 정치질서를 지지하게끔 된다. 그러나 크레테에서의 코스모이는 일정한 가문으로부터만 나오며 전체 국민으로부터 선출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원로 회의의 구성원들은 그 나름대로 코스모이의 관직을 담당했던 제한된 부류의 사람들로부터만 나오는 것이다.
- 11. 이 크레테의 원로회의는 스파르타의 원로회의와 마찬가지의 근거에서 비판될 수 있다. 그들은 종신직이며 또한 아무런 감사를 받지 않는데, 이것은 모두 분에 넘치는 특권들이며, 그리고 성문법에 근거하지 않고 그들의 재량에 따라 행동하는 권한은 매우 위험한 것이다.
- 12. 코스모이 제도에 관해서는 국민들이 그것으로부터 소외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만 속하여 있다고 해서 그것이 적절하게 조직되어 있다는 증거는 아니라는 점을 우리는 첨가하지 않을 수 없다. 코스모이는 감독자와는 달리, 그들의 권한을 그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기회는 없다. 그들은 부패의 위험이 없는 섬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다.
- (1272b) **13.** 크레테인들의 이 제도의 결함들에 대비한 구제책은 기이한 것이며, 헌정질서적인 국가라기보다는 독단적인 과두정치에 속하는 것이다. 연합체는 거

듭 되풀이해서 그들 자신의 동료들이나 혹은 사적인 개인들의 집단에 의해서 형성되어 코스모이들을 관직으로부터 축출하며,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관직으로부터 또한 사임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런 모든 문제들이 법에 의하여 규제가 된다면 더 좋으리라는 것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이러한 일들을 그저 개인의 의사에 맡겨 놓는다면 공적인 활동을 위해서는 위험스러운 기준이 될 것이다.

- 14. 그러나 더욱 나쁜 것은, 때때로 강력한 귀족들이 정의에 복종하기를 꺼려할 때 흔히 하는 바 코스모이들의 직권을 정지시키는 관행이다. 이것은 크레테의 체제가, 비록 약간의 헌정적인 요소를 갖고 있을지라도 사실은 헌정질서가 아니고 독단적인 과두정치의 한 형태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크레테의 귀족들은 국민들과 그들 자신의 추종자들을 여러 파벌로 분열시키고 이 분열을 근거로 하여파벌의 수만큼이나 많은 왕정을 세운 다음에 골육상쟁의 내란을 일으키곤 한다.
- 15. 사실상, 그리고 그것이 지속하는 한 이러한 사태는 국가의 소멸과 정치적 사회의 해체를 의미할 뿐이다. 이러한 지경에 이르는 국가는 위태롭다. 왜냐하면 그 국가를 공격하려는 자들이 유리한 입장을 갖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바와 마찬가지로 크레테 그 자체는 그의 지리적 위치 덕택으로 이러한 위험을 면하게 된다. 그리하여 지리적인 거리는 다른 곳에서 이방인을 추방하는 법률로서 달성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
- 16. 크레테의 지리적 고립은 또한 어찌하여 이곳의 농노들은 순종하는데 스파르타의 노예들은 가끔 반란을 일으키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여 준다. 크레테에는 외방의 영지가 없다. 최근에 와서야 외국의 영향력이 이 섬에 침투하게 되었는데, 그결과로 크레테 제도들의 취약점이 드러나게 되었다.

크레테적인 정치질서에 관해서는 이것으로 충분할 것이다. 다음에는 카르타고로 옮겨가기로 한다.

## 제11장

- 1. 카르타고(Karthago)의 정치질서는 일반적으로 좋은 질서라고들 하며, 또한 여러 면에 있어서 독특한 점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그것에 관한 중요한 문제는 그것이 여러 점에 있어서 스파르타의 정치질서와 유사하다는 것이다. 사실상 여기에서 우리의 관심이 되는 세 개의 정치질서들 즉 크레테, 스파르타, 그리고 카르타고의 정치질서들 은 모두 상호 간에 밀접히 연관되어 있으며, 이들 이외의 다른 정치질서들과는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것이다. 카르타고의 여러 제도들에는 확실히 좋은 점이 있다.
- 2. 카르타고가 많은 인구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정치 체제를 견고하게 지켜 온 사실은 그것이 좋은 정치질서를 갖고 있다는 증거이다. 카르타고는 이렇다 할 내분도 없으며 또한 누가 폭군정치를 하려고 시도한 일도 없었다.
- 3. 카르타고와 스파르타의 정치질서는 서로 비슷한 점이 많다. 카르타고의 〈회식자(會食者)〉의 공동식사는 스파르타의 피디티아(phiditia)와 비슷하다. 또 104인의 관직은 감독자 제도와 비슷한데—그 차이는 (카르타고의 것이 더 유익하다) 카르타고에서는 관리의 선출을 그 사람의 공적에 따라서 하지만, 스파르타의 감독자제도는 이런 것을 고려함이 없이 함부로 충원을 한다는 점이다. 결국 카르타고의왕들과 원로회의는 스파르타의왕들과 원로회의와 유사하다.
- 4. 그러나 여기에서도 역시 카르타고의 제도가 우월한데, 그것은 카르타고의 왕들은 스파르타에서처럼 그저 별 공적이 없이 평범한 한 가문으로부터 항상 나오는 것이 아니란 점이다. 카르타고의 왕들은 그 당시의 뛰어난 가문 출신으로서 선임제(先任制)가 아니라 선거로 뽑는 것이다. 어쨌든 간에 왕들은 상당한 권력을 갖는다. (1273a) 그리고 만약 그들이 별 대단하지 않은 인물들이라면 많은 해독을 끼칠수 있으며, 이러한 일이 실제로 스파르타에서 일어났다
- 5. 카르타고의 제도 중에서 그 원칙에서 벗어난 것으로 비판할만한 점의 대부분은, 여기에서 우리의 관심이 되고 있는 모든 정치질서들의 공통된 면모들이다. 그러나 카르타고의 정치질서의 독특한 점은 그것이 일반적으로 귀족정치 혹은 〈혼합정치〉의 원칙에 기반을 두고 있는 반면에, 때로는 민주정치의 방향으로 때로는

과두정치의 방향으로 빗나가기도 한다는 것이다. 민주정치의 방향으로 일탈하는 경우는 왕들과 원로들이 서로 합의를 하면, 의회에 어떤 문제를 제출할 것인가 혹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인가 하는 것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반면에, 의회도 마찬가지로 만약 그들이 그것을 제출 여부의 문제에 관하여 합의가 되어 있지 않다면 어떤 문제고 자유롭게 다룰 수 있다는 것이다.

- 6. 또한 왕들과 원로들이 합의에 의하여 어떤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 의회는 그저 정부의 결정을 듣고 그것을 승인하는 역할만을 하는 것은 아니다. 의회는 최종 결정을 하는 권한을 갖고 있으며 의회의 어느 의원도 자기의 뜻에 따라 그 제안에 반대할 수 있다. 스파르타와 크레테의 정치질서하에서는 의회가 이러한 권리를 누리지 못하다
- 7. 이와 반대로 과두정치의 방향으로 일탈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첫째로 많은 중요한 문제들을 담당하는 5두제(頭制), 즉 5인의 집회는 호선에 의하여 충원돼야한다는 규칙이 있다. 그 다음으로는 이렇게 충원된 5인 집회가 국가의 최고 권위체인 104인 회의를 선출한다는 규칙이 있다. 끝으로 이 5두제의 구성원들은 어떤다른 관리들보다 더 오래 관직에 머물 수 있다는 규칙이 있다. 사실상 그들의 정상적인 임기 기간 이전이나 이후에도 관직에 남아 있는 것이다. 또한 반면에 귀족정치적인 면모로서 관리들이 봉급을 받지 않는다는 규칙이 있다. 또 다른 귀족정치적인 면은 모든 법률 소송이 어떤 관리들의 집단에 의해 결정이 되며, 스파르타의경우처럼 어떤 것은 어떤 사람이 결정하고 또 다른 것은 다른 사람이 결정하는 제도가 없다는 점이다.
- 8. 또한 카르타고의 체제에 있어서 귀족정치로부터 과두정치의 방향으로 빗나가는 가장 중요한 면모를 고찰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것은 카르타고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유행되는 여론의 경향인 바, 즉 가난한 사람들은 관리가 되어도 그들의 의무를 이행할 여가가 없어서 좋은 관리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관리를 선출할 때에 사람의 공적이나 자질뿐만 아니라 생활의 근거도 고려하여 선출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 9. 만일 부를 기준으로 하는 선거가 과두정치의 특징이고. 공적을 기준으로 하는

선거는 귀족정치의 특징이라 한다면 카르타고의 정치질서 형성의 기반이 되는 체제는 이 양쪽의 어느 것과도 다른 어떤 것으로 보일 것이다. 카르타고의 관리의 선거에 있어서, 특히 최고 관직인 왕들과 장군들의 선거에 있어서는 이 양쪽의 입장이 모두 고려된 것이다.

- 10. 귀족정치의 순수한 원칙으로부터 이렇게 일탈한 것은 애초의 입법자의 실책이라고 간주되어야 한다. 그의 최초의 그리고 가장 커다란 의문은, 가장 자질이 뛰어난 사람들이 관직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관직에 있지 않을 때에도 여가를 즐길 수있는 위치에 있게 해주며 그리고 그들의 천품에 맞지 않는 직업을 갖지 않도록 보장하여 주는 것이었다. 어떤 경우이건 간에—여가를 갖고 있는 사람을 관직에 등용하기 위해서는 부를 고려해 넣는 것이 옳다고 인정한다 하더라도—우리는 최고의 관직들을(왕과 장군들) 단순히 매매할 수 있도록 하는 카르타고의 실제를 비판할 수 있다.
- 11. 이러한 성격의 규칙은 자질보다 부를 더 명예로운 위치에 올려 놓게 하며, 국가 전체에 탐욕의 정신을 불어넣는다. 국가의 우두머리들이 사물(事物)에 부여하는 가 치는 필연적으로 일반대중의 의견을 결정하는 것이다. 공적이 최고로 명예로운 자 리를 차지하지 못하는 정치질서에 있어서는 귀족정치가 공고하게 유지될 수 없다.
- 12. 그 이외에도, (1273b) 관직을 얻기 위하여 돈을 소비한 후에 관직을 매입한 사람들은 자연히 이 거래에서 이윤을 남기려고 하는 습관에 빠지게 될 것이다. 만약 가난하지만 정직한 사람들도 이득을 남기기를 원하려 한다면, 어떻게 이보다 더나쁜 사람들이, 돈이 떨어졌을 때에, 이러한 습관을 절제할 수 있겠는가?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겠다.

가장 높은 장점을 가지고 최선의 정치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통치를 해야 한다. 그리고 설혹 입법자들이 시민들 중의 훌륭한 사람들에게 항산(恒產)을 마련해 주 지는 못할지라도, 적어도 그들이 관직을 맡고 있는 동안에는 여가를 가질 수 있도 록 해주어야 한다.

13. 카르타고에서 흔히 있는 일인데, 한 사람이 여러 관직을 맡는 것도 좋지 않은 점으로 보인다. 어떠한 일도 한 사람이 그것을 전담할 때 제일 잘 되는 것이다. 입

법자는 이 원칙이 잘 지켜지도록 유의해야 하며, 실제로 자행되고 있는 것처럼 동일한 사람이 피리도 연주하고 동시에 구두쟁이도 하는 일이 있도록 해서는 안될 것이다.

- 14. 따라서 어떤 국가가 클 경우에는 관직들을 여러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더 민주적이고 동시에 더 정치인답다. 우리가 위에서 이미 논의한 바와 마찬가지로 그것은 모든 관련된 사람에게 더 공평한 것이므로 더 민주적이며, 또한 각기의 직분이 더 잘, 그리고 더 신속하게 수행되므로 더 정치인다운 것이다. 관직들을 널리 분배하는 제도의 이점은 육군, 그리고 해군의 분야에 있어서도 명백하게 드러난다. 양쪽에 있어서 모두 권위를 행사하는—그리고 복종하는—습관은 이 분야에 관련된 모든 사람과 병역 전체에 걸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 15. 카르타고인들은 귀족정치의 원리에 기초를 두고 있다 하더라도 실제에 있어서는 과두정치적이다. 그러나 그들은 부의 확산을 장려함으로써 과두정치의 위험을 피하는 정치질서를 갖고 있다. 때때로 인구의 일부분을 위성국가에 식민으로 보내는데, 이 정책은 이 정치질서의 결함을 보완하며 또 안정성을 주는 데 기여한다. 그러나 이것은 우연의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 내분의 위험을 방지하는 데는 우연으로서가 아니라 입법이 진정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
- **16.** 현재 상태에서는 만일 우연히 사태가 역전되어 대중이 지배자들에게 반란을 일으킨다면 법률에 의해서 국내의 평화를 확보할 수가 없다.

정당하게 높이 평가되고 있는 세 정치질서—스파르타, 크레테, 그리고 카르타고의 정치질서—의 성격은 위에 말한 바와 같다.

#### 제12장

1. 통치의 문제들에 관하여 그들의 견해를 기록으로 남겨놓은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 그 일부는 어떤 종류이건, 어떤 명칭이건 간에 실제 정치에 참여하는 일이 전혀 없으며, 일생을 사인(私人)의 자격으로만 산 사람들이다. 이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이 남겨 놓은 것에 관해서는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사실

상 모두 이미 언급한 셈이다. 그런데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입법자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 온 사람들이며—어떤 사람들은 그들 자신의 나라에서, 또 어떤 사람들은 외국에서—따라서 개인적으로 통치에 관련이 있었던 사람들이다. 이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을 세분할 수 있는데, 이들 중의 일부는 법전(法典)의 편찬에만 관련하였고, 다른 사람들은 법전과 함께 헌법(憲法)도 만든 사람들이다. 리코우르고스와 솔론은 모두 후자의 범주에 속한다. 그들은 법전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헌법도 만들었던 것이다.

- 2. 스파르타의 헌법에 대해서는 이미 기술하였다. 솔론은, 어떤 학파에 의하면, 세가지 업적을 이룬 훌륭한 입법자였다고 생각된다. 그는 지나치게 절대적인 과두정치를 없애 버리고, 인민을 노예 상태로부터 해방시켰다. 그는 또한 정치질서가 훌륭하게 조절되어 있는 〈예부터 내려오는 민주주의〉를 제정하였는데, 이 질서하에서 아레오파고스(Areopagos)의 의회는 과두정치적 요소를 대표하며 행정관리들을 선거하는 방식은 귀족정치적 요소를 대표하고, 대중의 법정 체제는 민주정치적인 요소를 대표하는 것이다.
- 3. 그러나 실제 사실에 있어서는, (1274a) 이들 중의 두 요소 즉 의회와 행정관리를 선거하는 방식—는 그의 이전 시대에도 있었으며 그는 단지 이 제도를 지속시켰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는 분명히 모든 시민이 법정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원칙을 도입하였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그가 그 구성원이 추첨에 의하여 결정되는 이 대중법정을 모든 경우에 있어서 최고의 권위를 갖게 함으로써 다른 요소들을 파괴하여 버렸다고 비난한다. 4. 후에 이 법정들의 권력이 강력해짐에 따라 솔론의 후예자들은, 일반사람들이 폭군에게 아부하는 방식처럼, 인민의 비위를 맞추려고 하였기 때문에 결국 정치질서를 현재와 같은 지나친 민주주의의 형태로 변형시키고 만 것이다. 에피알테스 (Ephialtes)와 페리클레스(Perikles)는 아레오파고스의 의회의 권한을 축소시켰으며, 페리클레스는 법정 구성원들에게 일당을 지급하는 체제를 도입하였다. 그리하여 모든 대중 선동가들이 차례로 인민의 권한을 증가시켜서, 결국은 정치질서가 오늘과 같은 형태로 되고 만 것이다.

- 5. 그러나 이러한 사태의 발전은 솔론이 계획적으로 설계한 것이 아니고 우연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페르시아 전쟁 중에 해양 제국을 획득하는 데 주동이 된 인민 대중은 자만심을 갖게 되었고, 그리하여 양식이 있는 시민층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하잘 것 없는 선동가들이 그들의 입장을 대변하도록 한 것이다. 솔론 자신은 인민들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권한만을 부여했을 것이다. 그는 인민들에게 단순히 관리를 선출하여 그들에게 책임을 묻는 권리만을 주었다. 그리고 만일 인민들이이 기본적인 권리들을 향유하지 못한다면, 그들은 노예나 다름없는 사람들이며, 따라서 정부의 적(敵)임이 틀림없게 될 것이다.
- 6. 이러한 권리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떤 제한을 설정하였다. 저명인사와 부유한 사람들만 이 관직에 선출될 자격이 있었으며, 관리는 토지자산으로부터 5백 단위의 수확을 내는 수입이 있는 계층인 펜테코시오메딤니 (Pentekosiomedimni), 2백 단위의 수입을 갖는 계층인 제우기타이(Zeugitai), 그리고 3백 단위의 수입을 갖는 계층인 히페이스(Hippeis) 출신만이 할 수 있으며, 한편 최하층 계급 즉, 2백 단위 이하의 수입을 갖는 계층인 테테스(Thetes)는 아무 관직도 맡을 수 없었다. 솔론과 리쿠르고스 이외의 또 다른 입법자들은, 이탈리아 남부에 있는 에피제피리움(Epizephyrium)의 로크리아인들에게 법을 만들어주었던 잘레우코스(Zaleukos)와, 칼키스(Chalkis)의 개척민들이 이룬 시칠리아와 이탈리아의 여러 도시들, 그리고 자기 자신의 나라를 위하여 입법을 한 칸타나 (Kantana)의 카론다스 같은 사람들이 있다.
- 7. 그러나 어떤 저술가들은 더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오노마크리토스 (Onomakritos)가 최초의 입법(立法)전문가였다고 주장한다. 그들의 말에 의하면, 그는 로크리아인이었는데 예언자로서 크레테를 방문하는 도중에 거기에서 교육을 받았다고 하며, 또한 그는 탈레스(Thales)의 동료였으며, 결국 리쿠르고스와 잘레우코스는 탈레스의 제자였고, 카론다스는 잘레우코스의 제자였다고 한다.
- 8. 이 견해는 시대의 전후관계를 너무 무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들의 입법자 명단에 테베를 위하여 법을 만든 코린토스의 필로라오스(Philolaos)를 포 함시켜야 할 것이다. 그는 그의 출생지에서 박키아다이(Bakchiadai) 가문으로 태

어났지만 디오클레스(Diokles)의 친구이며 연인이기도 하였다. 디오클레스는 올림픽경기의 우승자였는데, 자기 어머니인 알키오네(Alkyone)가 근친상간적으로 자기를 좋아하는 데 환멸을 느껴 코린토스를 떠났으며, 이때에 필로라오스가 그를 따라 테베로 가서 그곳에서 함께 살다가 죽었다.

- 9. 오늘날에도 그들의 무덤을 볼 수 있는데, 이 무덤들은 서로 잘 보이도록 되어 있지만, 하나는 코린토스땅 쪽을 향하고 있고 다른 하나는 반대 방향을 향하고 있다. 이야기에 의하면 이 두 친구는 이런 방식으로 묻히도록 일부러 마련을 했다고 한다. 즉 디오클레스는 자기의 과거를 회상하기도 두려워서 자기가 묻혀 있는 무덤으로부터 절대로 코린토스가 보이지 않기를 원했으며, 필로라오스는 코린토스가 보이기를 원했다고 한다.
- 10. 이러한 이유로 (1274b) 그들은 테베에 정착하게 되었으며, 이렇게 하여 필로라 오스가 그 도시를 위하여 입법을 하게 된 것이다. 그가 제정한 법 가운데는 가족의 구성원을 다룬 법률들이 있다. 이들은 양자(養子)의 법이라고 불리는데, 필로라오 스의 입법 중에 독특한 면모를 갖고 있는 것으로서, 가족이 소유하고 있는 땅의 수 를 변동이 없이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의도로 제정된 것이다.
- 11. 카론다스의 입법 중에서 유일하게 독특한 면은 위증(爲證)을 한 사람에 대한 고소에 관한 것이다. (그는 위증을 탄핵하는 법을 처음으로 제정한 사람이다.) 그러나 그의 법률들의 일반적인 엄밀성에 있어서 그는 그가 현대의 입법자들보다 훨씬 뛰어난 입법자임을 보여주었다.
- 12. 팔레아스가 제안한 입법의 독특한 면모는 재산의 평등화이다. 그런데 플라톤의 입법에 있어서 독특한 면모들은 너무나 많다. 즉 처자와 재산을 공동으로 하는 것, 여자도 공동식사를 하는 제도, 음주 연희석상에서는 술에 취하지 않은 사람이사회를 봐야 한다는 음주에 관한 규칙, 또 군인들은 양손이 모두 같이 유용하도록되어야 하므로 양손을 똑같이 쓸 수 있도록 훈련을 해야 한다는 군인 훈련에 관한

규칙 등이다.19

- 13. 드라콘(Drakon)도 입법을 여럿 하였는데 기존 헌법의 구조를 바꾸는 것은 아니었다. 이 법률들은 형벌의 양을 정하는 데 있어서 엄격함을 제외하고는 특별히 언급할 가치가 있을 만큼 독특한 점은 없다. 드라콘과 마찬가지로 피타코스 (Pittakos)도 법률을 제정했을 뿐이지 헌법을 제정하지는 않았다. 그에게 있어서 독특한 법 중의 하나는 술 취한 사람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정상적인 상태의 사람보다 형별을 더 많이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술 취한 사람이 술을 안먹는 사람보다 훨씬 더 폭력범죄를 잘 저지른다는 것에 주목했는데, 그래서 그는음주자들에게 특별한 고려를 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대신에 공공정책의 입장에서 이들에게 더 무거운 형벌을 주어야 한다고 했다.
- 14. 레기움(Rhegium)의 안드로다마스(Androdamas)도 입법을 했는데, 그는 트라케(Thrake)의 칼키디아 이주민 정착지들을 위해 법을 만들었다. 그가 만든 법들은 살인, 또는 여자의 재산상속 문제 같은 것을 다루지만 언급할 필요가 있을 만한특별한 면모는 없다.
- 이것으로 두 가지 형태의 정치질서—즉 실제로 행해지고 있는 것과, 정치이론가들이 계획한 것—에 관련된 문제들에 대한 연구를 끝맺는 것이 좋겠다.

19. 이 항목은 위에 말한 것들을 되풀이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이 장(章)의 맥락에서도 아무 연관이 없는 것이다.



시민과 헌정질서에 대한 이론



## 제1장

(1274b32) 1. 우리가 국가의 기본적인 질서와 정부형태의 문제를 다루며, 각 형태의 본질과 속성을 알아내려고 함에 있어서 제일 처음의 관심은 국가 그 자체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는 우선, 『국가의 본질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먼저 제기해야 한다. 그렇게 하는 데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로 국가, 혹은 〈도시국가〉의 본질이란 현재에 논란이 많은 문제이다. 어떤 사람은 『이러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이 국가이다』라고 주장하는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은 국가가 아니라 정부 즉 현재 지배하고 있는 과두체 혹은 폭군 일뿐이다』라고 대답하는 것이다. 둘째로 정치인과 입법자의 모든 활동은 명백하게 국가에 관련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활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가를 이해하지 않으면 안된다. 끝으로 정체(政體) 혹은 정치질서는 도시국가의 거주민들 사이에 정치권력의 배분을 규정하기 위하여 세워진 조직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조직을 이해하기 위하여 도시국가를 먼저 이해해야 한다.

- 2. 먼저 도시국가 혹은 국가란 단일한 〈전체〉를 구성하는 모든 다른 것들과 같은 방식으로 〈복합체〉의 범주에 속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개의 서로 다른 부분으로 이루어진 〈전체〉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1275a) 국가의 본질을 고찰하기 전에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시민의 본질을 고찰하지 않으면 안된다. 바꾸어 말하면 국가는 시민들로 이루어진 복합체이다. 따라서 우리는 누구를 시민이라고 부르는 것이 옳은가, 그리고 시민이란 사실 무엇인가 하는 것을 고찰하지 않으면 안된다. 시민의 본질은 국가의 본질이나 마찬가지로 논쟁이 많은 문제이다. 그리고 시민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도 아무런 일반적인 합의가 없다. 즉 때때로 민주정치에 있어서의 시민은 과두정치에 있어서는 시민이 아닌 것이다.
- 3. 우리는 엄격한 의미에서는 시민이라고 부를 수 없으면서도 그저 명칭만이 시민인 사람들—예를 들어 귀화한 시민—은 우리의 고려 대상에서 제외해도 좋을 것이다. 본래의 의미에서의 시민이란 일정한 장소에 거주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다. 즉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과 노예도 거주지는 같은 것이다.
- 4. 또한 법정에서 고소를 하거나 피소될 수 있는 정도의 시민으로서의 사회적 권

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시민이라고 부를 수 없다. 일정한 조약에 의하여 외국인 일지라도 이러한 권리를 가질 수 있다. 그렇지만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 이렇게 한정된 권리마저도 향유치 못하는 곳도 많이 있다. 이러한 곳에서는 그들은 사회적인 권리를 제한된 정도로나마 향유하기 위해서 법적 보호자를 선택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5. 따라서 우리는 우리들의 고려 대상에서 단지 고소를 하거나 피소당할 권리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제외해도 좋겠다. 마찬가지로 너무 어려서 시민 명단에 올릴 수 없는 어린 아이들이나 정치적인 의무에서 면제되어야 할 만큼 늙은 사람들도 고려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좋겠다. 어린이나 늙은이들도 모두 시민이라고부를 수도 있겠지마는 그렇게 하는 데는 일정한 조건이 불어야 한다. 즉 우리는, 어린이는 아직 제대로 성숙하지 않은 시민이며, 늙은이는 이미 연한이 지난 시민이라는 유보 조건을 첨가하거나 혹은 다른 단서를 붙여야 한다. 여기에 적용해야하는 정확한 용어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이미 그 뜻이 명확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아무 보완되어야 할 결격사유가 없는, 그리고 엄밀하게 유보사항이 없는 의미에서의 시민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정의하지 않으면 안된다—즉 미성년, 소년, 혹은 투표권을 박탈당했거나 유배를 당한 시민 같은 결격사유가 없는 시민을 정의해야 하는 것이다. (결격사유가 있는 시민들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의 질문을 제기하고 해답을 추구해야 한다.)

- 6. 이렇게 엄밀한 의미에 있어서의 시민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하여 가장 잘 정의될 수 있다. 이 기준이란 〈관직과 법정의 운영에 참여하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관직은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어떤 관직은 시간적으로 계속적이 아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이러한 관직들은 단일 임기 이상으로는 역임할 수 없거나, 혹은 두번째 임기를 역임하려면 일정한 간격을 두어야만 한다. 예를 들어 대중법정에 있어서 판사의 관직이나 대중의회의 구성원의 관직 같은 것이다.
- 7. 법정의 판사나 의회의 구성원들은 〈관직〉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며, 그들의 위치 때문에 〈관직〉을 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될 수도 있다. 그러나

국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위를 실제로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을 관리의 범주에서 제외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일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주장은 말의 유희에 지나지 않는 사소한 것으로 일축해 버려도 좋겠다. 문제는 우리가 판사나 의회의 구성원에 공통된 요소를 포기하거나, 혹은 양자가 모두 갖고 있는 위치를 기술하기위한 하나의 단어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명확한 분석을 위하여 그것을 〈임기가 일정하지 않은 관직〉이라고 부르기로 하자.

8. 이러한 근거 위에서 우리는, 시민이란 이렇게 정의된 관직을 담당하는 데 참여하는 사람들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시민이라는 이름을 갖는 모든 사람들의 위치를 가장 만족스럽게 포괄할 수 있는 시민의 정의(定義)의 일반적인 성격은 대략 위에 말한 바와 같다. 그러나 어려움은 여전히 남는다. 시민의 자격은 아래와 같은 사물(事物)의 특정한 분류에 속하는 것이다. (1) 사물의 기반이 되는 조건들이 서로 다르고, (2) 이 기본조건들이 종류와 그 성질에 있어서 서로 달라서 어떤 것은 일차적으로 중요하며 또 다른 것은 부차적인 의미를 갖는 식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 특정한 부류에 속하는 사물들을 고려해 본다면 아무 공통요소가 없고, 혹은 공통적인 요소가 있더라도 그 정도가 매우 빈약할 뿐인 것이다. 1

- 9. 헌법들은 분명히 그 종류가 서로 다르며, 어떤 것은 분명히 열등하고, (1275b) 어떤 것은 우월하다. 왜냐하면 결점이 많고 변태적인 헌법들은 필연적으로 결점이 없는 헌법들보다 열등하기 때문이다. (후에 어떤 의미에서 〈변태적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겠다.) 따라서 각기 다른 종류의 헌법하에서는 시민들도 또한 필연적으로 서로 다르게 될 것이다.
- 10.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정의한 시민이란 특정하게 그리고 특별하게 민주정치하

<sup>1.</sup> 이 일반적인 고려들을 시민의 자격에 적용해 보면, 첫째 시민 자격의 기본은 헌법이며, 둘째 헌법에는 여러 다른 종류가 있고 이들이 각각 다른 성질들을 갖고 있으며, 셋째로 따라서 시민의 자격은 그 성질 이 서로 달라서 공통적 요소 혹은 정의가 있기 어렵다는 것이다. 바커의 앞의 책 94페이지 주(註)1 참조.

의 시민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다른 종류의 정치질서하에서 살고 있는 시민들에게도 이 정의가 적용될 수도 있겠지만 필연적으로 그러한 것은 아니다. 예를들어서 대중적 요소가 전혀 없는 국가들도 있는 것이다. 그러한 국가들은 정기적인 의회의 소집이 없고 단지 특별히 소집된 회의들만이 있다. 그리고 법정의 구성에 관한 한 사건들의 판결을 특별한 기구들에게 맡기고 만다. 예를 들어, 스파르타에서는 감독자들이 계약에 관한 사건들을 맡으며(전체가 한 기구로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각자가 개별적으로 그렇게 한다), 원로회의는 살인에 관한 사건들을 담당하고, 또 다른 기구들이 다른 사건들을 맡는다.

11. 카르타고에 있어서도 이것은 대체로 마찬가지인데, 여러 관리들의 집단이 각기모든 사건들을 판결할 권리를 보유한다. 그러나 시민에 관한 우리의 정의는 이러한 난점들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수정을 가하여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우리는 민주정치가 아닌 여타의 정치질서에 있어서 의회와 법정의 구성원들이 무한정하게그 관직을 맡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그들은 이 관직을 일정한 기간동안만 맡으며, 이러한 정치질서하에서 그런 임기를 갖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다수이건 소수이건 간에) 심의에 참여하고 판결을 하는 (모든 문제에 관해서이건 소수의 문제에 한해서이건 간에) 시민의 기능이 맡겨지는 것이다.

12. 이렇게 고찰해보면 시민 자격의 본질 일반이 명백하게 드러난다. 따라서 우리들은 다음과 같이 최종적으로 정의를 내릴 수 있다. (1) 심의와 사법적인 관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자는 이에 의해서 그의 국가의 시민의 지위를 얻으며, (2) 가장 간단한 용어로, 국가는 자급자족의 생활을 이룩할 수 있는 적당한 수의 사람들로 이루어진 단체이다.

### 제2장

1. 실제적인 목적에서 흔히 시민을 『부모 양쪽이 모두 시민인 자』로 정의하며, 부모 양쪽 중에 어느 한 쪽만이 시민인 자는 시민이 아닌 것으로 정의한다. 그러나가끔 이러한 요구조건은 조상의 2대, 3대, 혹은 그 이상까지 거슬러 올라가기도

한다. 이런 대중적이며 피상적인 정의 때문에 어떤 사상가들은 다음과 같은 의문을 제기한다. 즉 『그러면 조상의 3대 혹은 4대의 시민 그 자신들은 어떻게 시민이되었는가?』

- 2. 레온티노이(Leontinoi)의 고르기아스(Gorgias)는—아마도 반쯤은 역설적으로 또 반쯤은 이러한 난점을 의식하면서—다음과 같이 말했다. 『절구는 절구를 만드는 장인들이 만든 물건인 것처럼, 라리사(Larissa)인들은 라리사인을 만드는 〈장인〉들이 만드는 사람들이다.
- 3. 그러나 사실은 이 문제는 매우 간단한 것이다. 만일 조상들이 그 당시에 우리들이 정의한 바와 같은 헌정적인 권리를 향유했다면 그들은 틀림없이 시민들이었다. 국가를 처음 만든 사람들이나 혹은 그 국가에 처음으로 거주했던 사람에까지부모 양측이 모두 시민이어야 한다는 요구조건을 적용하는 것은 명백히 불가능한일이다.
- 이보다 더 심각한 난점은 아마도 정치질서에 있어서 혁명 같은 변화의 결과로 정치적인 권리를 획득한 사람의 경우이다. 일례로 아테나이의 클레이스테네스 (Kleisthenes)의 행동을 들 수 있는데, 그는 폭군들을 추방한 후에 다수의 외국인 과 노예계급에 속하는 많은 외국인 거류민을 아테나이의 부족들에 등록시켰던 것 이다.
- 4. 시민의 무리가 이렇게 불어나는 경우에 제기되는 의문은 『누가 실제로 시민인가?』라고 하는 사실상의 질문은 아니다. 그것은 『그들이 시민이 된 것은 정당한가?』하는 옳고 그름의 문제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또 하나의 질문이 제기될 수도 있다. (1276a) 즉 『부당한 절차로 시민이 된 사람도 사실상 시민일 수 있는가? 그리고 부당한 시민이란 현실적으로 시민이 아니라는 것과 같은 의미가 아닌가?』
- 5. 이 문제에 대해서는 쉽게 답할 수 있다. 명백히 관직(官職)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그러한 관직을 갖는 것이 부당한 사람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정당하게 관리가 된 것은 아니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관리라고 부른다. 시민들에 있어서도 같은데, 그들이 일종의 관직을 갖고 있다는 사실로 정의된다. (왜냐하면 시민들에 대한 우리의 정의에 따르면 시민은 심의와 사법적인 관직에 참여하

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헌정적(憲政的)인 변화 이후에 이러한 자격을 획득한 사람도 실제에 있어서 시민들이라고 불러야 한다.

## 제3장

- 1. 위에 말한 사람들이 시민으로 된 것이 옳은가 그른가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지만, 제1장의 앞부분에서 이미 언급한 더 큰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되는 것이다. 이 더 큰 의문이 제기하는 문제는, 어떤 일정한 행동이 언제 국가의 행동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또 언제 그렇게 간주될 수 없는가를 결정하는 문제이다. 예를 들어서 과두정치나 폭군정치가 민주정치로 바뀌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 2. 그러한 경우에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공적인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려고 하며— 그러한 계약이 집권하고 있는 폭군이 한 것이고 국가가 한 것이 아니라는 근거에 서—그리고 비슷한 성격의 다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려 한다. 그들은 어떤 정치 질서는 힘에 의해서만 존재하며, 공동선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견해를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우리가 그런 민주주의 정부하에서 이루 어진 행동일지라도 그 민주정치가 힘에 의존하여 존재했다고 생각한다면, 폭군정 치나 과두정치하에서 이루어진 행동이나 마찬가지로 국가에 의한 행동이 아니라 는 결론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 3. 그러나 여기에 제기된 문제는 또 다른 다음과 같은 의문과 밀접하게 연관되는 것으로 보인다. 즉, 『어떠한 원칙 위에서 국가는 그 본질을 유지하는 것인가, 혹은 거꾸로 말하면, 국가가 그 본질을 상실하면 전혀 다른 국가가 되는가?』 하는 것이다.
- 이 의문을 다루는 가장 명백한 방식은 단순히 영토와 주민을 고찰하는 것이다. 이근거 위에서 우리는 한 국가의 영토와 주민은 두 (혹은 그 이상의)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주민의 일부는 영토의 한 부분에 거주하고 다른 일부는 다른 부분에 거주하는 것이다.

- 4. 이 어려움을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여기서 제기되는 문제는 〈도시국가〉 혹은 국가라는 용어가 여러 다른 의미로 쓰인다는 사실을 상기하면 쉽게 해결될수 있다. 이제 우리가 어떤 국가의 전 인구가 단 하나의 영토에 거주하는 경우를고려해 본다 하더라도, 『언제, 혹은 어떠한 조건하에서 이 국가가 진정한 본질을 갖는 것이라고 간주해야 하는가?』 하는 의문은 여전히 남는 것이다.
- 5. 국가의 본질은 그것을 둘러싼 성벽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필로폰네소스 반도 전체를 한 성벽으로 둘러쌀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단일국가가 될 수 있겠는가? 바빌론은 (이야기에 의하면 사흘 동안이나 외적이 점령한 일이 있었는데 거주민들은 이 사실을 몰랐다고 한다) 아마도 이러한 엉터리 국가 중의하나였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한 도시보다 더 큰 규모의 주민을 갖는 어떤 도시국가도 마찬가지의 성격을 갖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 6. 이 문제는 다음 기회에 다시 고려해 보도록 남겨두는 것이 좋겠다.

도시국가의 적절한 규모를 결정하는 것—즉 도시국가의 규모가 어느 정도로 되는 것이 좋은가, 또는 한 민족으로만 구성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여러 민족으로 구성되는 것이 좋은가 하는 것을 결정하는 문제—은 정치가가 정해야 할 문제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도시국가의 본질론과 관계되기보다는 정치가의 기술과 연관되어고려되어야 할 문제이다.

이제 종족(種族)의 문제로 우리의 관심을 돌려 보도록 하겠다. 단일 주민이 단일 영토에 거주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우리는 거주민들의 종족이 동일한 한에 있 어서는(물론, 같은 사람들은 항상 나이를 먹어 죽고, 새로운 세대가 탄생하여 자라 나겠지만) 국가의 본질이 동일하다고 말해야 하는가, 또는 국가에게 강이나 생물 의 비유를 적용하여 물의 일부는 항상 흘러 들어오고 일부는 항상 흘러 나가더라 도 국가는 본질적으로 마찬가지라고 말해야 하는가? 아니면 이와는 다른 견해를 취하여 주민은 동일할지라도 이미 거주민들의 종족이 동일하게 계속된다고 말한 이유 때문에 국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할 수 있다고 말해야 하는가?

(1276b) **7.** 후자가 승리할 수 있는 견해이다. 만약 도시국가가 결사의 한 형태이고 또 이 결사의 한 형태가 어떤 정체(政體) 혹은 헌정질서로서 시민들의 결사라고 한 다면, 헌정질서가 어떤 종류의 변화를 겪어서 다른 정치질서로 바뀔 때, 국가도 또한 이미 동일한 국가가 아니고 그 본질이 변화하리라는 결론이 불가피하게 나오게 된다. 연극에서 하나의 비유를 인용할 수도 있다. 우리는, 어떤 때에는 희극을 상연하며 어떤 때에는 비극을 상연하는 합창단<sup>2</sup>이 항상 동일한 것은 아니며, 설혹 그 구성원들이 동일하다고 할지라도 그 본질은 변화를 보인다고 말한다.

- 8. 이것은 합창단에 있어서나 어떤 다른 종류의 결사, 혹은 모든 복합체 일반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만일 어떤 복합체의 배열의 조직이 달라진다면 그것은 다른 복합체가 된다. 같은 음정들로 이루어진 화음이라 할지라도 〈양식(樣式)〉 혹은 그것의 배열의 조직이 도리아(Doria)적인가, 혹은 프리기아(Phrygia)적인가에 따라서 다른 화음이 된다.
- 9. 만약 사실이 이러하다면, 우리가 국가의 본질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주로 염두에 두어야 하는 기준은 그 국가가 갖는 정치질서이다. 종족을 기준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 같은 집단의 사람들이 한 국가에 거주하거나 전혀 다른 집단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거나 간에 동일한 국가 혹은 다른 국가라고 부를 수 있다. 국가가 헌정질서를 변화하여 새로운 질서를 취하는 경우에 공적인 의무를 부인하는 것이 옳은가 그른가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며, 이와는 별개의 사항이다.

#### 제4장

1. 이제까지 논의한 문제들에 관련된 의문은, 좋은 사람으로서의 우수함과 좋은 시민으로서의 우수함이 동일한 것인가 혹은 상이한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의문을 제대로 연구하려면, 우리는 먼저 시민으로서의 우수함이 어떤 것인가 하는 윤곽을

<sup>2.</sup> 고대 그리스에 있어서는 합창이 연극의 불가결한 일부이며, 따라서 합창단이 연극을 상연하는 집단이 나 거의 마찬가지이다.

<sup>3.</sup> 여기 말한 것들은 고대 그리스의 음악의 양식들인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은 기록 이 남아 있지 않아 잘 알려지고 있지 않다.

- 기술하지 않으면 안된다. 선원도 어떤 결사—즉 여러 사람이 서로 다른 임무를 지는 선박회사 같은—의 구성원인 것과 같이 시민도 일정한 결사의 구성원이다.
- 2. 선원들도 그들이 수행하는 서로 다른 역할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 어떤 사람은 노 젓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항해사이고, 어떤 사람은 파수꾼이고, 또 다른 사람들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그들의 능력에 따라서 다른 직함들을 가질 것이다. 그러므로 선원 각자의 우수성을 가장 정확하게 정의한다는 것은 관련된 각자에 따라서 독특할 것이라는 것은 명백하다. 그러나 안전한 항해라는 것이 모든 사람이 일하는 동일목표이며, 각자가 노력해야 하는 목적인 한에 있어서는 공통적으로 모두에게 적용되는 우수성의 정의(定義)가 있다는 것도 또한 명백하다.
- 3. 이것은 선원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시민들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그들은 활동하는 능력이 다르다 하더라도 모두 공통의 목적을 갖고 있다. 그들이 추구하는 공동목표는 바로 그들의 결사가 안전하게 운영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결사란 헌정질서에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시민의 우수성이란 헌정질서에 따라 상대적인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그렇다면 만약 여러 종류의 서로 다른 헌법이 있는 경우, 시민으로서의 우수성에는 여러 다른 종류가 있게 되며 단한가지의 절대적인 것이 있을 수 없다는 말이 된다. 그러나 좋은 사람이라는 것은 단하나의 절대적인 우수성의 견지에서 그렇게 불리는 사람이다.
- 4. 따라서 좋은 사람으로서의 성질인 우수함을 소유하지 않고도 좋은 시민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확실하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즉 이 문제를 최선 의 혹은 이상적인 정치질서의 문제와 특별히 관련하여 고찰함으로써 꼭 같은 결론에 도달함 수 있다.
- 5. 만약 한 국가가 전적으로 좋은 사람으로써만 구성될 수 없다면,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시민 개개인이 자기에게 속하는 기능을 잘 이행해야 한다면, 또한 만일 그 시민이 그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그 자신의 우수성에 달려 있다면, 그렇다면 모든 시민이 모두 똑같아질 수는 없으므로, 좋은 시민의 우수성이란 좋은 사람의 우수성과 동일할 수 없다. (1277a) 바꾸어 말하면, 양쪽에 공통되는 단일한 우수성이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좋은 시민으로서의 우수성은 모든 시민에

게 마찬가지로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어떤 국가가 최선의 국가가 되는 데 필요한 조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좋은 사람으로서의 우수성은, 우리가 좋은 국 가의 모든 시민이 또한 좋은 사람이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는 한 모든 사람에게 속할 수가 없다.

- 6. 또 다른 문제가 있다. 국가는 상이한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다. 마치 생물이 영혼과 육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영혼은 이성과 육욕의 서로 다른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고, 또한 가정은 남편과 아내로 이루어지고, 재산은 주인과 노예로 이루어져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가도 또한 서로 다른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다—이들 다른 요소들 중에는 이미 언급한 남편과 아내, 주인과 노예와 같은 여러 요소들뿐만 아니라, 지배자와 피지배자, 군인과 시민과 같은 또 다른 요소들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이 이질적이므로 모든 시민들에게 공통된 단하나의 우수성이란 있을 수 없으며, 이것은 마치 연극에 있어서의 합창단의 지도자와 그 보조원들 사이에 공통된 유일한 우수성이 있을 수 없는 것과 같다.
- 7. 이러한 고찰로 미루어 보면, 좋은 시민으로서의 우수성과 좋은 사람으로서의 우수성이 모든 경우에 있어서 동일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 명백하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그들이 동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지배자와 정치가의 경우가 그러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우리는 좋은 지배자를 〈좋은〉 그리고 〈사려 깊은〉 사람이라고 부르며, 정치가는 〈사려 깊은〉 사람이어야 한다고 말한다.
- 8. 사실상 어떤 사람들은 지배자의 교육은 애초부터 보통 사람들과는 종류가 다른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실제로 관찰해 보면 왕의 아들들은 승마와 전쟁의 기술에 특별한 훈련을 받는다. 그리하여 에우리피데스 (Euripides)의 작품 중의 어떤 왕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에게는 정교함이 필요 없고, 국가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을 원할 뿐이다. 이것은 지배자에게는 특별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뜻을 내포하는 것이다.

- 9. 따라서 우리는 지배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좋은 시민으로서의 우수성이 좋은 사람으로서의 우수성과 동일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신하들도 또한 시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데, 그들의 경우는 좀 다르다. 따라서 좋은 시민으로서의 우수성은 특별한 경우—즉 시민이 지배자로서 활동하고 있는—에 있어 서만 좋은 사람으로서의 우수성과 동일하다 하더라도, 모든 경우에 있어서 동일한 것은 아니라는 결론이 나온다. 명령과 마찬가지로 복종의 덕을 필요로 하는 일반시민으로서의 우수성은 지배자의 우수성과는 다르다. 아마도 이러한 이유 때문에 페라이(Pherai)의 폭군인 이아손(lason)은 『그가 폭군이었을 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허기진 사람이었다』라고 말했다. 이 말은 그는 사적인 자격으로서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 수가 없다는 뜻이다.
- 10. 반면에 사람들은 어떻게 지배하는가 하는 것과 어떻게 복중하는가 하는 것을 함께 아는 이중의 능력을 높이 평가한다. 그리고 그들은 훌륭한 시민으로서의 우수성은 이중적 능력을 잘 행사하는 데 있다고 생각한다. 만약 좋은 사람으로서의 우수성은 지배하는 범주에 속하는 반면에 좋은 시민으로서의 우수성은 지배 · 피지배의 양 범주에 동시에 속하는 것이라면, 이 두 가지의 우수성은 같이 평가될 수 없다.
- 11. 그리하여 이제 우리는 사람들이, (1) 지배자와 피지배자는 동일한 종류의 지식이 아니라 서로 다른 종류의 지식을 소유해야 하며 (2) 시민은 양쪽의 지식을 동시에 함께 소유하여 양쪽의 활동에 함께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알아냈으므로 우리는 토론의 다음 단계를 이행해 갈 수 있겠다. 조정을 필요로 하고 또 인정해야 할, 서로 충돌되는 견해가 있다. 우리는 이 조정을 위하여 지배와 피지배의 상이한 종류를 구별해야 하고, 또 시민이 배울 필요도 없는 피지배의 어떤 종류가 있다는 것을 밝혀야 할 것이다.

주인이 노예에게 행사하는 일종의 규칙이 있는데 이것은 즉 천역(賤役)에 관련된 규칙의 일종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지배자는 피지배자들이 어떻게 일을 해야 하는가를 알 필요는 없으며, 단지 피지배자의 능력을 사용할 줄만 알면 된다. 사실

상 전자와 같은 지식(즉 친히 천역을 할 수 있는 능력)은 그 성격이 예속적인 것이다  $^4$ 

- 12. 우리는 천역이 실제적으로 노예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더 넓은 국면을 갖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예속적인 지위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것은 사회에 있어서 해야 할 천역에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천역 중의 하나는 육체노동자들에 의해서 제공되는 것이다. 육체노동자들이란 그들의 이름 그대로 자기 손으로 일하여 먹고 사는 사람들이며, 천역에 종사하는장인ㆍ기계공 등도이 계층에 속한다. 이러한 이유로 어떤 (1277b) 나라들에서는 노동계급은 예전에, 즉 극도의 민주주의 형태가 시작되기 전에, 관직에 취임할 수없도록되어 있었다.
- 13. 이제 막 언급한 것과 같은 종류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종사하는 직업은 좋은 사람, 정치인, 혹은 좋은 시민은 결코 배울 필요는 없다—단 때때로 그리고 주인과 노예 관계의 문제가 전혀 없는 경우에 개인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을 제외하고는 배울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예속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지배하는 자들이 실행하는 종류의 규칙을 제 외하고는 출신이 지배자와 유사하거나 혹은 마찬가지로 자유로운 사람들에게도 적용되는 규칙도 있다.

14. 이러한 종류의 규칙은 이른바 정치적 규칙인데, 지배자는 첫째 종류의 규칙과는 달리 피지배를 받으면서 그리고 남에게 복종을 하면서 이것을 배우기 시작해야 한다—이것은 마치 누구나 기병사령관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령관 밑에 복무하면서 배워야 하고, 혹은 보병사령관이 되려면 다른 장군 밑에서 복무하면서 먼저 대령 노릇을 하거나 혹은 그 이전에 대위 노릇을 하면서 배워야 하는 것이나 마찬 가지이다. 따라서 『먼저 남에게 지배를 받아 보지 않고는 좋은 지배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은 좋은 말이다.

**4.** 이 말의 뜻은 노예주가 노예를 부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배자는 사람을 부릴 줄만 알면 되며, 구체적으로 피지배자들이 하는 일을 전부 알아야 할 필요는 없다는 뜻이다.

- 15. 지배자와 피지배자는 정치적 규칙의 이런 체제 밑에서 사실 서로 다른 우수성을 갖는다. 그렇지만 좋은 시민은 지배를 하며 동시에 지배를 받기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겸비해야 한다는 것은 그대로 타당하다. 그리고 시민으로서의 우수성이란, 〈자유인을 이러한 양쪽 입장에서 모두 다룰 수 있는 지식〉에 있다고 정의할 수있다.
- 16. 정치적 규칙과 그리고 그러한 규칙의 체계하에서의 좋은 시민의 우수성의 성격에 관해서 이렇게 고려해 볼 때, 우리는 좋은 시민의 우수성이 좋은 사람의 우수성과 동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으로 돌아가게 된다. 좋은 사람은 좋은 시민이나 마찬가지로 이러한 양쪽 입장에서 필요한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지배함에 있어서 필요한 절제와 정의(正義)는 특별한 성질을 가지며, 이와 똑같이 자유로운 국가의 국민이 되기 위해 요구되는 절제와 정의도 특별한 성질을 갖는다는 전제 위에서, 좋은 사람의 우수성(예를 들어 그의 정의)도 어느 한쪽만의 우수성으로 될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다른 종류의 우수성—즉, 지배자로서 행동할 때 그에게 적합한 종류의 우수성과 일반국민으로서 행동할 때 적합한 우수성—을 모두 포함할 것이다. 우리는, 지배자로서 행동하는 사람의 절제와 용기가 국민으로서 행동하는 사람의 그것들과는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남자의 용기와 절제는 여자의용기와 절제와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17. 어떤 남자가 용감한 여자가 갖고 있는 정도의 용기만 갖고 있다면, 그는 비겁하다고 생각될 것이다. 역으로 어떤 여자의 겸손함이 좋은 남자에게 알맞은 겸손함보다 더 크지 못하다면 그 여자를 건방지다고 할 것이다. 가정에서의 남자의 기능은 여자의 기능과는 다르다. 즉 남자의 기능은 획득하는 것이고, 여자의 기능은 이것을 유지하고 저장하는 것이다.

《사려 깊음》은 지배자에게만 특유한 유일한 형태의 선(善)이다. 다른 형태의 선들 (절제·정의·용기)은 비록 지배자에 있어서 그것들의 성질이 국민들에 있어서의 그것들의 성질과 다르다 하더라도, 지배자나 피지배자에게 똑같이 속해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18. 피지배자들에게 특유한 형태의 선은 〈사려 깊음〉이 될 수 없고. 〈올바른 의견〉

이라고 정의하는 것이 좋겠다. 피지배자는 피리를 만드는 사람에 비교될 수 있다. 지배자는 피리를 만드는 사람이 만든 피리를 사용하는 피리 부는 사람과 같다. 좋은 사람의 우수성과 좋은 시민의 우수성이 동일한가, 서로 다른가, 혹은 어떤 의 미에서 그들은 동일하며 어떤 의미에서 서로 다른가 하는 것을 고찰하는 것은 이 것으로써 충분하리라 믿는다.

# 제5장

- 1. 시민 자격에 관해서 고찰해야 할 문제가 아직도 하나 있다. 시민의 자격은 진정한 의미에서 관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들에게만 국한되어야 하는 가, 아니면 기계공들도 또한 시민계층에 포함되어야 하는가? 만일 국가의 관직에 참여할 수 없는 기계공들도 시민 계급에 포함된다면, 우리는 좋은 시민으로서의 우수성을 결코 성취할 수 없는 사람들을 시민의 일부로 갖게 될 것이다. 이와 반대로 만약 기계공들을 시민이라고 부를 수 없다면 그들은 어떤 계층에 속해야 하는 가? 그들은 거류민도 아니고 외국인도 아니다. 그러면 그들의 신분은 무엇이란 말인가?
- 2. 이것을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1278a) 이 난점은 해결하기 어려울 만큼 심각한 것은 아니다. 사실상 노예나 자유민들도 위에 언급한 어느 범주로도 분류할수 없다. 사실은 우리가 국가의 존립에 〈필요조건〉이 되는 모든 사람을 시민에 포함시킬 수는 없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어린아이들도 곧 시민이 된다고 하더라도성인과 같은 의미에서의 시민은 아니다. 성인들은 절대적인 의미에서의 시민이다. 어린아이들은 제한된 의미에서만, 그리고 그들이 아직 미성숙했다는 유보조항을 갖고서야 시민이 될 수 있다.
- 3. 고대에 있어서 어떤 나라들에서는 기계공 계층이 실제로 노예나 외국인만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 점을 보면 오늘날에 있어서도 어째서 기계공 중 많은 수가 노예들이나 외국인들인가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최선의 국가에서는 기계공이 시민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기계공이 시민이 될 수 있도록 허용된 나라들

- 에 있어서, 좋은 시민은 지배와 피지배의 경험을 가진 자라고 우리가 이미 언급했던 시민의 우수성은, 시민 전체 혹은 명목상으로 자유민인 사람들 모두가 성취할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천역에 종사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만이 성취할수 있게될 것이다.
- 4. 천역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개인을 위하여 일하는 노예들이고, 둘째는 공동체 전체를 위하여 일하는 기계공들과 노동자들이다. 우리가 이러한 기본적인 입장에서 출발하여 조금 더 고찰해 보면, 이들 기계공과 노동자들의 위치는 곧 명백하여진다. 사실상, 논의의 취지가 파악된다면 우리는 이미 이 점을 명백하게 할 만큼 충분히 논의했다고 할 수 있다.
- 5. 정치질서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시민에도 여러 종류가 있음에 틀림없다. 더욱이 일반국민으로서의 시민에는 여러 종류가 있음에 틀림없다. 어떤 종류의 정치질서에 있어서는 기계공과 노동자가 시민이 될 필요가 있을 것이며, 다른 종류의 정치질서에는 그것이 불가능할 것이다. 예를 들어 관직이 개인적인 우수성과 가치에따라 분배되는, 〈귀족정치〉라고 불리는 형태의 정치질서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할 것이다. 왜냐하면 기계공이나 노동자로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우수한 일들을 추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 6. 과두정치의 경우는 약간 다르다. 과두정치에 있어서도 노동자는 시민이 될 수 없음이 사실이다. (왜냐하면 관직에 참여하려면 그 자격 요건으로서 재산이 많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계공은 관직을 가질 수도 있다. 왜냐하면 단순한 이유로 장인들은 때때로 부자가 되기 때문이다.
- 7. 그러나 과두정치 시절에 테베에서는 10년 동안 시장에서 물건을 팔아 본 일이 없는 사람이 아니면 관직을 맡을 수 없는 법이 있었다. 반면에 법이 외국인을 시민이 되도록 허용하는 정도로 너그러운 정치질서도 많이 있다. 예를 들어 어떤 민주 정치하에서는 자기 어머니가 시민인 사람은 시민의 자격을 가질 수 있다. 또한 사생아들에게도 꼭 같은 특권을 주는 나라도 많이 있다.
- 8. 그러나 시민의 자격을 그렇게 널리 확대하는 정책은, 진정한 시민의 수가 모자라기 때문에 임시로 시행하는 정책이다. 그리고 시민의 수의 감소만이 그러한 입

법의 원인이 된다. 인구가 다시 증가하면 먼저 노예인 아버지나 노예인 어머니에 게서 태어난 아들들이 시민의 자격을 박탈당한다. 그 다음에 이방인 아버지와 시민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자격을 박탈당하는데, 결국 시민의 자격은 부모 양쪽이 모두 시민인 사람에게 국한된다.

9. 이러한 고찰은 두 가지 사실을 증명한다. 첫째, 시민에는 여러 종류가 있으며, 시민의 명칭은 관직과 국가의 명예에 참여할 수 있는 자들에게만 특별히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호메로스는 《일리아스》에서 어떤 사람이

# 명예도 없이 마치 이방인처럼

취급당한다고 기술하였다. 그리고 관직이나 국가의 명예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외국인 거류민과 마찬가지인 것이다. 모호한 이유에 의해서 사람들에게 관직이나 명예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의 단 하나의 목적은 다른 사람들을 속이려고 하는 것뿐이다.

10. 다음과 같은 문제의 연구를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의 결론을 끌어낼 수 있다. 『좋은 사람으로서의 우수성이 (1278b) 좋은 시민으로 서의 우수성과 동일한가, 다른가?』첫째, 어떤 나라에 있어서는 좋은 시민과 좋은 사람이 동일하며 어떤 나라에 있어서는 다르다. 둘째, 전자의 형태의 국가에 있어서는 좋은 시민들이 모두 좋은 사람은 아니며 단지 그들 중의 정치인의 위치를 갖고 있는 사람들만이 좋은 사람들이다—다른 말로 하면, 혼자서나 혹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적인 일의 처리를 지휘하거나 지휘할 수 있는 사람들만이 좋은 사람인 것이다. 5

#### 제6장

- 1. 이제 시민의 자격은 정의되었으며 또 결정되었다. 다음은 정치질서의 문제를 고
- 5. 여기에서 좋은 사람(good man)이라는 것은 사람으로서 여러 기능이 어느 한 곳에 치우치지 않고 원만하게 제대로 발전된 사람을 뜻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빠를 줄 안다.

찰해야 한다. 정치질서에는 한 가지 형태가 있는가, 혹은 여러 형태가 있는가? 만일 여러 형태가 있다면 얼마나 있는가? 이 형태의 수는 얼마이며 그들은 어떻게 다른가? 정치질서는 "일반적으로 관직들에 관한, 그러나 특별히 모든 문제에 있어서 최고의 권위를 갖는 특별한 관직에 관한 도시국가의 조직』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주권체<sup>6</sup>는 어디에서나 국가의 최고기관이다. 사실상 주권체가 바로 헌정질서이고 정치질서 그 자체인 것이다.

- 2. 예를 들어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는 국민(혹은 dēmos)이 주권체이며, 반대로 과두정치에 있어서는 소수(혹은 oligoi)가 그 위치를 갖는다. 이 주권체들 사이에서 의 차이 때문에 우리는 헌정질서의 두 면이 서로 다르다고 말한다. 우리는 또한 이들 이외의 다른 형태의 헌정질서에도 꼭 같은 논리를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다. 우리는 먼저 두 가지 문제를 확실히 해야 한다. 즉 국가의 존립 목적의 성격, 그리고 사람과 사람들의 결사를 복속시키는 여러 종류의 권위들이다.
- 3. 첫째 문제에 관한 한 제1권에서 (거기에서 우리들의 주된 관심은 가정의 운영과 노예들을 부리는 일이었다) 이미 『사람은 본질적으로 정치적 공동체에서 살도록되어 있는 동물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따라서 사람들은 서로 도와줄 필요가 없는 경우에도 자연적인 충동 때문에 사회적인 생활을 하길 원하는 것이다. 그러나그들은 또한 각자가 각기 이룩할 수 있는 좋은 생활의 정도대로 공동이해에 의하여 함께 모이게 된다.
- 4. 좋은 생활이라는 것은 공동체 전체나, 그리고 우리들 각자 개개인에게 있어서 나 함께 주된 목적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또한 단순히 생존하기 위해서도 함께 모여서 정치적 결사를 형성하며 유지한다. 왜냐하면 생존에 따르는 악이 지나치게 크지 않는 한에 있어서는 단순히 살아간다는 자체에도 약간의 선(善)이 있기 때문이다.
- 5. 명백한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당한 정도의 고통을 견디어내고라도 생존

**<sup>6.</sup>** 주권체:  $\pi o \lambda \iota (\tau e \nu \mu a \alpha = 0)$  어떤 사람은 government로, 어떤 사람은 civic body로 번역하는데, 적당한 용어가 없어 위와 같이 번역하기로 했다.

에 집착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생명 그 자체가 일종의 건강한 행복, 그리고 자연적인 쾌락의 성질을 갖고 있다고 암시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국가의 존재 목적에 대해서 논했는데 이제 둘째 문제로 들어가 보자.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여러 종류의 권위 혹은 지배체제를 구별하는 것은 매 우 쉬운 일이다. 그리고 사실 우리 자신들도 때때로 일반대중을 위한 저술에서<sup>7</sup> 이 들을 정의한 일이 있었다.

- 6. 노예에 대한 주인의 지배는 한 종류의 권위 형태이다. 여기에서 자연적인 주인과 자연적인 노예를 결합하는 공동이해가 사실상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 지배는 주인의 이해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행사되는 것이며 노예의 이해라는 것은 부수적일 따름이라는 사실은 그대로 남는다. 그런데 이 경우에 노예는 이 지배 형태가 존속되려면 그 생존이 유지되어야 한다.
- 7. 처자, 그리고 가정 일반에 대한 지배는 둘째 종류의 지배체제인데 우리는 이것을 가정운영이라 불렀다. 여기에서 지배는 피지배자의 이해를 위하여, 지배자와 피지배자 양쪽에 공통된 어떤 이득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사된다. 근본적으로 이지배는 피지배자의 이해를 위하여 행사되는데 이것은 마치 지배 이외에도 의술과 (1279a) 체육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렇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기술은 그 기술을 행하는 자를 위하여 시행되기도 한다. 또한 체육교사가 때때로, 마치 조타수가 항상 승무원의 일원인 것과 마찬가지 방식으로, 자기가 훈련시키고 있는 사람들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
- 8. 그리하여 체육교사나 조타수는 우선적으로 그의 권위에 복속되어 있는 사람들의 선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그 자신이 훈련받는 사람이 되는 경우에 그는 부수적으로 그 선의 이익을 나누어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다—그리하여 조타수는 선원 중의 하나이며 체육교사도 교사이면서 동시에 자기가 훈련시키는 반(班)의 일원이 되는 것이다.
- 7. 일반 대중을 위한 저술이란 아리스토텔레스의 학교 리케이온(Lyceion)의 학생들을 위해 마련된 내부용(exoteric)과 대조되는 일반에게 공개되는(esoteric) 강좌라는 뜻이다.

- 9. 이 원칙은 또한 정치적 관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행사하는 셋째 종류의 지배에도 적용된다. 어떤 국가의 정치질서가 그 나라 국민들은 평등하며 동등한 사람이라는 원칙 위에 세워졌을 때에, 시민들은 번갈아 가며 관직을 맡는 것이 옳다고생각한다. 어쨌든 간에 이것은 자연적인 체제이며, 사람들이 차례대로 관직을 맡아야 한다고 믿고 각자가 그 자신이 재임 기간 동안에 다른 사람의 이해를 돌보아준 것과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도 자기의 이해를 돌보아주어야 하는 의무를 떠맡으리라고 생각했던 시대에 있어서 채택되었던 체제이다.
- 10. 그러나 오늘날은 사정이 바뀌었다. 관직과 공공재산을 취급하는 데서 나오는 이득 때문에 사람들은 계속해서 관직을 맡으려고 한다. 이것은 마치 관직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병자(病者)와 같아서, 그 관직을 영구히 맡음으로써만이 영원히 건 강해질 수 있는 것과 같다. 어쨌든 관직에 대한 그들의 열성이야말로 사실 병든 사람과 마찬가지이다.
- 11. 여기에서 나오는 결론은 명백하다. 공동이해를 돌보는 정치질서는 절대적 정의에 기준해서 판단해 보면 올바른 정치질서이다. 지배자의 개인적 이해(利害)만을 돌보는 정치질서는 모두 틀린 정치질서이거나 혹은 올바른 형태의 왜곡이다. 이러한 왜곡된 형태들은 독재체제인데, 이와는 반대로 도시국가는 자유인들의 결사이다.

#### 제7장

- 1. 이제 이러한 문제들이 결정되었으므로, 다음에 고려해야 할 주제는 여러 가지 다른 정치질서들의 수와 성격이다. 우리는 먼저 올바른 정치질서들의 종류를 고찰해 봄이 좋을 듯하다. 우리가 올바른 정치질서들이 어떠한 것인가를 확실히 하면 여러 형태의 타락된 정치질서들이 명백하게 될 것이다.
- 2. 〈정치질서(헌법: politeia)〉라는 말은 〈주권체: politeuma)〉와 같은 말이다. 모든 국가에 있어서의 주권체는 최고 권위체이며 최고 권위체는 필연적으로 한 사람 혹은 소수, 혹은 다수의 사람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근거에서 우리는 한

사람, 소수의 사람, 혹은 다수의 사람이 공동이익을 위하여 통치를 하는 경우에, 그들이 통치를 하는 정치질서는 필연적으로 올바른 정치질서라고 말할 수 있다. 반면에 1인, 소수인 혹은 대중의 개인적 이익을 지향하는 정치질서는 왜곡된 형태의 정치질서이다. 그들은 모든 사람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올바른 기준을 벗어난 것이며, 그래서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정치질서에 참여하지만 그들의 이해(利害)를 고려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시민이라 부를 수 없거나, 아니면 그들을 시민이라고 부르려면 그들도 사회에서 어떤 혜택을 받아야 한다.

- 3. 한 사람에 의하여 통치되는 정부형태 중에서 일반적인 언어의 용례에 따르면, 왕정은 공동의 이해를 지향하는 정치 형태를 뜻한다. 소수인(혹은 1인 이상)에 의한 정부형태들 중에서 귀족정치가 그러한 형태에 해당하며, 이러한 이름이 이형 태의 정부에 주어지게 되는 것은 최선의 사람들(aristoi)이 통치를 하거나, 혹은 그것의 목적이 국가와 국민들을 위하여 최선의 것(ariston)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결국 공동이익을 위하여 대중이 국가를 통치하는 경우에 이러한 형태의 정치를 부르는 이름은 모든 정치질서에 공통이 되는 속명(屬名)으로서 그저 정치, 혹은 〈혼합정치〉라고 부른다.
- 4. 이렇게 부르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한 사람이나 소수의 사람이 뛰어나게 우수할 수는 있다. 그러나 많은 수의 사람들에게서는 모든 종류의 뛰어난우수성을 기대할 수 없다. 다중(多衆)에게서 특히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군사적인 (1279b) 우수성으로서, 이것이 대중에 있어서 찾아볼 수 있는 종류의 우수성이다. 이러한 이유로 말미암아 군부가 이 정치질서하에서는 최고의 권위체가 되며, 무기를 소지하는 사람들이 정치적 권리를 갖는 사람들이다.
- 5. 위의 세 가지 형태에 상응하는 세 가지 형태의 왜곡된 정치질서가 있다. 즉 폭 군정치는 왕정의 타락된 형태이고, 과두정치는 귀족정치의 타락된 형태이고, 민주 정치는 혼합정치의 타락된 형태이다. 폭군정치는 한 사람이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위하여 통치를 하는 것이고, 과두정치는 부자들의 이익만을 위한 정치이고 민주정치는 가난한 계층의 사람들의 이익을 위한 정치이다. 이 세 가지 형태 중의 어떤 것도 시민 전체의 이익을 위한 것은 아니다.

# 제8장

- 1. 우리는 이 후자의 정치질서들의 각기의 성격을 약간 더 자세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여기에는 약간의 난점들이 있는데, 우리가 어떤 학문의 분야에 있어서 실제적인 고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철학적인 탐구방식을 추구할때, 올바른 방식은 아무소홀함이나 빠뜨림 없이 모든 특별한 경우에 관한 진리를 확립하는 것이다.
- 2.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폭군정치는 주인이 노예를 취급하듯이 시민을 취급 하는 독재정치에 속하는 일인통치의 정치결사이다. 과두정치는 재산을 가진 사람 들이 그 정치질서에 있어서 최고의 권위체를 이루는 경우에 존재한다. 반대로 민 주정치는 최고 권위체가 유산계급이 아닌 가난한 계급의 사람들로 구성될 때 존재 한다.
- 3. 여기에서 제기되는 첫째 난점은 방금 말한 민주정치와 과두정치의 정의(定義)에 관련된 것이다. 우리는 민주정치를 다수인들이 주권을 갖는 것으로 정의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국가에 있어서 주권을 갖는 다수가 부자인 경우를 상상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과두정치는 일반적으로 소수인이 주권을 갖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가난한 계층의 사람들이 부자보다도 소수이면서도 활동력이 강해서 그 정치질서하에서 최고 권위체를 구성하는 경우도 상상할 수 있다. 위에 말한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이전에 한 이들 정치질서에 관한 정의가 올바르다고 할 수 없다.
- 4. 우리는 이 두 요소들을 결합하여 이 난점을 극복하려고 시도할 수 있다 즉 부를 소수와 결합시키고 가난은 다중과 결합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근거에서 과두정 치는 소수인 부자들이 국가의 관직을 맡는 정치질서이며, 마찬가지로 민주정치는 다수인 빈곤한 사람들이 국가를 지배하는 정치질서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하면 또 다른 하나의 난점이 생긴다.
- 5. 만약 우리의 새로운 정의가 완벽해서 이 정의에 포함되어 있는 것 이외의 다른 형태의 민주정치나 과두정치는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방금 상상할 수 있다고 한 정치질서들을 어떤 이름으로 불러야 하는가? 즉 부유한 사람들이 다수를 구성

- 하며, 가난한 소수가 그 정치질서의 최고 권위체를 형성하는 경우에 무어라고 불러야 하는가?
- 6. 이렇게 생각해 보면 수(數)의 요소는 즉 과두정치에 있어서 최고 권위체가 소수라거나 혹은 민주정치에 있어서 최고 권위체가 다수라는 단순히 일반적으로 부자는 소수이고 가난한 자는 다수라는 사실에 기인하는 우연적인 속성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음에 언급했던 원인들은 즉 수의 많고 적음 사실에 있어서는 과두정치와 민주정치 사이의 다른 점의 진정한 원인은 아니다.
- 7. 민주정치와 과두정치의 차이점의 진정한 근거는 부와 빈곤이다. 어떠한 정치질 서일지라도 (1280a) 그 질서하에서의 지배자가 수가 많거나 적거나 간에 부의 덕 택으로 통치자가 된 것이라면, 과두정치가 되어야 한다. 또한 마찬가지로 가난한 사람들이 지배를 하는 정치질서는 필연적으로 민주정치라고 해야 한다.
- 8. 방금 말한 바와 마찬가지로 대개 부자는 소수이며 가난한 자들은 다수이다. 소수만이 부자이지만 모든 사람들이 자유민의 지위를 갖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이양측이 서로 정권다툼을 하는 진정한 이유이다.

## 제9장

- 1. 다음으로 우리는 과두정치나 민주정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각기 주장하는 색다른 원칙들은 무엇이며 정의에 관한 과두적인 또는 민주적인 개념들은 무엇인가하는 것을 확실히 하지 않으면 안된다. 과두주의자들과 민주주의자들은 모두 정의에 관한 일종의 개념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들 양자는 모두 그 개념을 확대하는데 실패하며이들 중에 어느 쪽도 정의의 진정한 개념을 그 전반에 걸쳐 피력하지못한다. 예를 들어 민주정치에서는 정의란 관직의 배분에 있어서 평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것은 사실 평등을 의미하지만, 평등한 사람들을 위한 평등이지, 모든 사람을 위한 평등은 아니다.
- 2. 또한 과두정치에 있어서는 관직을 분배하는 데 있어서 불평등이 올바른 것이라고 간주된다. 그리고 사실상 이것은 옳지만 단지 불평등한 사람들에게만 적용이

되며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민주정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나 과두정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모두 이 요소를 고려하지 않으려고 하며—그런데 이들이야말로 그들의 원칙들이 올바르게 적용되어지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그릇된 판단을 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그들 자신의 입장에서 매사를 판단하는데, 원칙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이해가 관련이 되어 있는 것에 관해서는 잘못 판단하기 때문이다.

- 3. 정의(正義)는 사람에 따라 상대적이다. 그리고 올바른 분배라는 것은 그것을 받는 사람들의 가치에 따라 주어지는 것들의 상대적인 가치가 상응하는 분배를 말하는데, 이 점을 나는 《윤리학》에서 지적한 바 있다. 그래서 여러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올바르게 관직을 분배하려면 각 사람들의 개인적 가치와 혹은 장점들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민주주의자들과 과두주의자들은 사물에 있어서는 무엇이 평등을 구성하는가 하는 것에 관하여 의견이 일치하는 반면에, 사람에 있어서는 무엇이 평등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한다. 이러한 의견 차이의 주된 이유는 방금 언급한 바로 그 이유인데, 그들은 자기 자신의 경우에 관해서는 잘못 판단을 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것 말고도 다른 이유가 있다—즉 그들은 어떤 종류의 정의의 개념을 믿고 주장하는데, 그것에 너무 빠져들어서 자기들이 믿는 정의의 개념이 절대적이고 완벽한 것이라는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 4. 과두정치를 주장하는 사람은 어떤 면에 있어서의 우월성이—즉 그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부(富)—모든 면에 있어서의 우월성이라고 생각하며 민주주의자들은 또한 어떤 점에 있어서의 평등이—예를 들어서 자유민으로 태어났다는 사실—모든 점에 있어서의 평등을 의미한다고 믿는 것이다.
- 5. 그러나 양측이 모두 진정으로 중요한 요소, 즉 국가가 존재하는 목적의 본질은 언급하지 못하고 있다. 만약 사람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형성한 목적이 재산에 있다면, 국가에 사람이 참여하는 것도 (즉 관직이나 명예 등) 그들의 재산 상태에 비례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과두주의자 측의 주장이—즉 100파운드의 기금에 1파운드만 낸 사람이 나머지를 모두 낸 사람과 꼭 같이 이 기금을 공유하거나 (혹은 이 기금에서 나오는 이자를 나누어 갖거나) 하는 것은 옳지 못하

다고 하는-매우 강력한 주장으로 보인다.

- 6. 그러나 국가의 목적은 그저 생존만이 아니며. 좋은 생활의 질이 목적이 되어야 한다. 만약 그저 생존만이 국가의 목적이라면, 노예들의 국가도 있을 수 있고 혹 은 동물들의 국가까지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한 세상 에는 그러한 국가라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노예와 동물들은 진정한 행복을 향유할 수도 없고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모든 침해 에 대한 공동방어를 위하여 동맹을 결성하거나 교환을 원활히 하고 경제적인 교류 를 증진하는 것도 국가의 목적은 아니다. 만일 그러한 것이 목적이라면 에트루리 아(Etruria)인들과 카르타고인들은 단일한 국가에 속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또한 상호 간에 통상조약을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꼭 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7. 이러한 국민들은 수입과 수출에 관하여 일정한 합의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 다. 이러한 조약들은 올바른 거래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며 공동방어를 위한 상호 방위조약들을 갖고 있다. 반면에 그들은 이러한 일들을 취급하기 위한 국가의 공 동관청을 갖고 있지는 못하다. 그와는 반대로 각자는 한정된 그 자신의 관청을 갖 고 있다. 양측의 누구도 다른 쪽의 사람들에 관해서는 그 사람됨의 질을 올바르게 하는 것에 대해 아무런 관심도 없다. 그들 중의 누구도 조약의 대상에 포함되는 모 든 사람들이 부정의와 어떤 형태의 악덕이라도 당하거나 행하지 않도록 노력하지 않는다. 또한 그들 중의 누구도 자기 측 사람들이 다른 쪽 사람들에게 옳지 못한 짓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목표 이상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 8. 그러나 잘 지켜지는 좋은 법률의 체제를 확보하려고 노력하는 어떤 국가에 있어서 항상 주된 관심이 국가에서의 생활이 선한가, 악한가 하는 문제이다. 명백한 결론은, 이름만이 아니고 진실로 국가라고 불릴 수 있는 국가는 선을 고취하는 목표에 헌신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정치적 공동체는, 그 구성원들이 서로 멀리 떨어져 사는 보통 형태의 동맹체와 단지 공간에 있어서만 차이가 나는 동맹체에 불과한 것으로 전략하고 말 것이다. 또한 법률도, 당위적인 상태인, 국가의 구성원들로 하여금 선하고 정의롭게 되도록 하는 생활의 규칙이 되는 대신에 단순한 조약에 불과한 것으로 되고 말 것이다—혹은 소피스트인 리코프론

(Lykophron)의 말을 빌면 『서로 간에 사람들의 권리를 보장하여 주는 것』에 불과 하게 될 것이다.

- 9. 이러한 것은 쉽게 증명될 수 있다. 만일 두 개의 다른 장소가 하나로 결합한다고 할지라도—마치 메가라(Megara)와 코린토스의 양 도시국가가 하나의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것처럼—그렇다고 해서 하나의 국가로 되는 것은 아니다. 또 한두 도시국가의 시민들이 서로 결혼한다고 할지라도—서로 결혼을 하는 것이 도시국가의 특징인 사회생활의 하나의 형태이긴 하지만—그렇다고 해서 두 도시가 한개의 국가로 되는 것은 아니다.
- 10. 또한 여러 사람들이 서로 떨어져 살고 있지만, 서로 상종을 할 수 있는 정도의 거리에 살아서—그들 사이의 거래 과정에서 서로 상해를 입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통의 법체제를 갖고 있을지라도—그렇다고 해서 한 개의 국가로 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목수이고, 다른 사람은 농부이고, 또 다른 사람은 구두장이이며, 나머지 사람들은 다른 물품을 생산해 내는 것을 상상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총 만여 명 정도의 인구를 상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만일이 사람들이 물품의 교환과 동맹 같은 것만을 위하여 결합되어 있다면, 그들은 아직도 국가의 단계에 도달하지 못한 것이다.
- 11. 이 이유는 무엇인가? 이 이유는 그러한 결사가 지리적 근접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은 아니다. 이렇게 구성된 집단의 구성원들은 같은 장소에 모여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만일 그것이 전부라면—즉 만일 각자가 그의 개인 집을 국가처럼 생각하거나 그들 모두가 침략자에 대한 공동 행동에만 상호 간의 도움을 국한한다면(마치방어를 위한 동맹이 문제인 것처럼)—혹은 한 마디로 말해서 이 사람들 간의 접촉하는 정신이 그들이 함께 모인 이후에도 서로 떨어져 살고 있었던 때와 동일하다고 한다면, 이렇게 새로운 기반 위에서 형성된 결사라고 할지라도 정확히 말해서국가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 12. 따라서 국가란 같은 장소에서 함께 살기 위한 결사가 아니며, 교환을 순조롭게 하거나 상호 간에 옳지 못한 짓을 막기 위해서 생겨난 결사도 아닌 것이 명백하다. 사실 이들은 국가가 존재하기 이전에 있어야 하는 조건들이다. 그러나 이들 조건

들이 모두 있다고 해서 그 자체로서, 도시국가를 형성하는 데 충분한 것은 아니다. 국가를 구성하는 것은 가정들과 부족들이 좋은 생활을 하도록, 즉 완전하고 자족 적인 생존을 이룩하도록 하기 위한 결사인 것이다.

- 13. 그러나 사람들이 같은 장소에서 거주하며 서로 상호 간에 결혼을 하지 않으면 이러한 최종 단계에 도달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여러 공동사회의 생활을 위한 제도들이—즉 결혼관계, 친척집단들, 종교적인 집단들, 그리고 일반적인 사회적 오락 등—국가에 생겨나게 된다. 그러나 이 제도들은 우정관계이며, 그것은 공동사회의 생활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존재하는 우정이다. 도시국가의 목표와 목적은 좋은 생활이다. 그리고 사회생활의 제도들은 그 목적에 대한 수단인 것이다.
- 14. 국가는 (1281a) 가족들과 촌락들이 완전하고 자족적인 생활을 하도록 결합함으로써 구성된다. 그리고 우리의 정의에 따르면 그러한 생존은 진정한 행복과 선의 생활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치적 결사가 존재하는 것은 사회적 생활을 위한 것이 아니라 좋은 행동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되어야 한다.
- 15. 이러한 결론을 통해서 우리는 정의의 올바른 개념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성격을 가진 공동체에 가장 많이 기여하는 사람들은 국가에서 출신과 가문이 그들과 동등하지만 (혹은 그들보다 더욱 훌륭하더라도) 시민적인 우수성이 그들만 못한 사람들이나 혹은 부에 있어서 그들을 능가하지만 우수성에 있어서는 그들만 못한 사람들보다 참여도가 더 크다. 이제까지 논해 본 것을 통해서 헌정질서에 관한 양측의 논쟁은 모두 단지 정의(正義)의 부분적인 개념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는 점이 명백해졌다.

### 제10장

**1.** 우리가 다음으로 국가에 있어서 어떠한 사람의 집단이 최고의 권위를 가져야 하는가 하는 것을 고찰해 볼 때에 하나의 난점이 제기된다.

인민 일반, 부자들, 자질이 훌륭한 사람들, 나이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한

사람, 폭군 등 대안은 많다. 그러나 이 대안들이 모두 어떤 것을 택하거나 간에 그 결과가 좋지 않은 것 같아 보인다. 사실상 어떻게 그러한 결과를 피할 수 있겠는 가? 만약 빈민들이 그들이 다수라는 근거에서 부자들의 소유물을 자기들 마음대 로 나누어 갖는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이것은 옳지 못한 짓이 아니겠는가? 민주 주의자는 다음과 같이 대답할 것이다. "맹세코 그렇지 않다. 이것은 주권을 가진 국민이 합법적으로 그렇게 선포한 것이다.

- 2. 여기에 대해 우리는. "그러나 만일 이것이 극단의 부정의가 아니라면 무엇이 부 정의이겠는가?』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떠한 종류이건 다수인들이, 빈부 에도 불구하고, 소수인의 소유물을 자기들의 마음대로 분배하여 갖는다면, 이 다 수인들은 분명히 국가를 망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선은 결코 선한 성질을 가진 어떠한 것도 파괴할 수 없으며, 정의는 그 본질상 국가에 대하여 파괴적일 수 없 다. 따라서 명백히 이러한 종류의 법. 즉 어떤 종류의 다수인에 의해 정해진 약탈 의 법은 올바른 것일 수가 결코 없다.
- 3. (그런 식으로 하면) 폭구의 행동도 필연적으로 올바른 것이어야 한다. 왜냐하 면 폭군도 빈민들이 부자를 강제하는 것과 같은 식의 방법으로 그의 우월한 권력 을 이용하여 강제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부자로써 구성된 소수인이 통치를 하는 것은 올바른가? 그들도 다른 사람들이나 마찬가지로 행동한다면—즉 만약 그들이 인민의 재산을 약탈하고 압수한다면—그들의 행동을 올바르다고 할 수 있겠는가? 만일 그릴 수 있다면, 그 반대의 경우에 있어서 빈민들의 행동도 마찬가지로 올바 르다고 해야만 한다.
- 4. 명백히 이 모든 압제의 행동들은 천하고 옳지 못하다. 그렇다면 자질이 훌륭한 사람들이 권위를 갖고 모든 문제들에 있어서 최고 결정권을 가져야 하는가?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나머지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아무 명예도 얻을 수 없게 될 것이 다. 왜냐하면 그들은 국가의 관직을 갖는 명예를 향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관직을 명예라고 한다. 그리고 단일한 집단의 사람들이 영원히 관직을 갖게 되는 경우에, 그 공동체의 나머지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아무 명예도 얻을 수 없게 된다.
- 5. 그렇다면 최선의 1인이 통치하는 것이 다른 어떤 대안들보다 더 나은 것인가?

이것은 더욱 과두적이다. 왜냐하면 이 경우에 명예를 갖지 못하게 되는 사람들의수가 더욱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 다른 대안이 하나 더 있다고 할 수도 있다. 즉최고의 권위를 어떤 사람이 갖도록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영혼은 때때로 격정에 의하여 혼란스러워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최고의 권위는 법에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좋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것이 그 난점을 해결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그 법 자체가 과두정치 혹은 민주정치의 방향으로 기울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법의 주권이 여기에 제기되어 있는 문제들에 어떤 차이를 일으키는가? 위에 이미 언급한 결과들이 똑같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 제11장

- 1. 다른 대안들에 대한 논의는 뒤로 미루기로 하자. 그러나 위에 언급한 대안들 중에 첫째 것은 즉 소수의 훌륭한 사람들보다 인민 일반이 최고 권위를 가져야 한다는 주장은—그럴 듯하게 보이며, 약간의 난점이 있지만 아마도 약간의 진리도 내포하고 있다.
- 2. 다수에 의한 정치를 지지하여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그들 중의 각자는, 그 자신으로서는 좋은 (1281b) 자질을 갖지 못할지도 모르지만, 그들이 함께 모이면—개인적으로는 아닐지라도, 집합적으로 그리고 한 집단으로서—소수의 훌륭한 사람들보다 그 자질이 더 뛰어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염출한 잔치는 한 사람의 비용으로 하는 잔치보다 더 훌륭할 수 있다. 마찬가지 방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각자가 자기의 몫만큼 선과 도덕적인 사려분별을 가져올 수 있고, 그들이 함께모이는 경우에는 인민 전체가, 여러 개의 발과 손과 감각을 갖고 있어서 인격과 지성의 자질도 역시 여럿 가질 수 있는 단일 인간의 본성과 비슷한 것으로 될 것이다. 3. 이러한 이유 때문에 다수는 소수보다 또한 음악이나 시인의 작품을 더 잘 판단할 수 있다. 즉 어떤 사람은 어떤 부분을 감상하고 다른 사람은 다른 부분을 감상해서 그들이 함께 모이면 모든 것을 감상하게 되는 것이다.
- 4. 좋은 사람을 군중 속의 단순한 한 단위와 다른 것으로 만드는 것은 보통 분산되

고 산만하게 흩어져 있는 요소들이 이 사람에서는 하나의 일체를 이루도록 결합되어 있다는 사실인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아름답지 못한 사람으로부터 아름다운 사람을 구별하는 요인이며 또한 예술적 표현이 일상적인 실재와 다른 원인이다. 왜 냐하면 만일 이러한 요소들을 개별적으로만 본다면, 어떤 예술작품에 대하여 이사람의 눈이 어떤 사람의 눈보다 못하고 또 다른 면모는 다른 사람보다 못하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 5. 그러나 다수와 소수의 사람들을 가장 잘 구별하는 근거로 삼은 이러한 여러 성질들의 결합이 모든 대중체나 모든 거대한 군중의 모임에 꼭 같이 적용되는가 하는 것은 확실하지 않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천만에, 그것이 절대로 적용될 수 없는 집합체도 있다는 것이 명백하다. 왜냐하면 만약 당신이 그들도 포함시킨다면, 당신은 마찬가지로 짐승들의 떼들도 포함시키지 않으면 안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우스운 꼴이 되겠지만, 사실상 이러한 군중들과 짐승의 무리와 다른 점이 무엇인가?』라고. 그렇지만 이러한 우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피력한 견해는 어떤 대중체에 있어서는 사실이다.
- 6. 따라서 우리의 고찰에 의하여 앞 장에서 제기된, 『어떤 사람들의 집단이 최고 권위를 가져야 하는가?』 하는 문제와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또 한 가지의 문제, 『일반시민들 혹은 자유민들이 즉 부유하지도 못하고 특별히 뛰어난 것이 없는 그 러한 종류의 일반시민들 권위를 올바르게 행사해야 하는 문제는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 보인다.
- 7.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러한 종류의 사람들이 최고 관직에 참여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정의롭지 못해서 나쁜 짓을 할 수도 있고 사려분별이 없어서 실수를 저지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면에서 보면 그들로 하여금 어느 정도로 권력의 향유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는 중대한 위험이었다고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많은 수의 빈곤하면서도 정치적 권리가 없는 시민들로 이루어진 국가는 필연적으로 적으로 가득찬 국가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 8. 여기에 대한 대안은 시민들로 하여금 심의(審議)와 사법적인 기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솔론이나 또 다른 몇몇 입법자들은 시민들에게 두

- 가지 일반적 기능, 즉 관리를 선출하는 기능과, 관직의 임기가 끝난 다음에 그 관리들에게 책임을 묻는 기능을 주었지만, 일반인들이 개인 자격으로 그들 자신이 관직을 맡는 권리는 주지 않은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
- 9. 일반인들이 함께 모였을 때는 그들은 상당히 훌륭한 이해력의 자질을 보여준다. 그리하여 이들이 더 훌륭한 계층의 사람들과 섞이면 국가에 유익한 기여를 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마치 순수한 음식물을 다른 음식물과 섞어서 혼합물을 만들 때, 이 혼합물이 소량의 순수한 음식물보다 더 영양이 많은 것과 같다. 그러나일반시민들 개개인으로서는 완전한 판단을 내리지 못한다.
- 10. 그러나 이러한 국민에게 심의와 사법적 기능을 부여하는 정치질서에는 약간의 난점이 따른다. 첫째의 난점은 의료시술이 제대로 되어 있을 때의 진단의 기능은, 환자를 돌보고 환자의 고통을 치료해 주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 즉 직업적 의술인들에게 속해야 한다는 주장에서 나오는 것이다. 예술이나 혹은 다른 종류의 직업에 있어서도 이것은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1282a) 그리고 마치여러 의사들이 모여 다른 의사의 행동을 평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른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그와 같은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행동을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 11. 그러나〈의사(醫師)〉라는 말은 세 가지의 다른 뜻으로 사용된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인 개업의도 의사라고 부르고, 치료 과정을 지휘하는 전문가도 의사라고 부르며, 또한 의술의 일반적인 지식을 약간 갖고 있는 사람도 의사라고 부른다. (거의 모든 기술 분야에서 이 마지막 형태의 사람들을 찾아 볼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이 전문가, 즉 개업의와 전문의들이나 마찬가지의 판단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 12. 우리가 이제 관심을 돌려 선거의 문제를 고찰해 보면 마찬가지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올바르게 선거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전문가들이 하는 일이라고 주장될 수 있다. 기하학자를 선택하려면 기하를 잘 아는 사람이 필요하며, 또한조타수를 선택하려면 조타술에 능통한 사람이 필요하다. 그리고 어떤 직업이나 기술에 있어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비전문가가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전문

가보다는 기술의 정도가 뒤떨어지는 것이다.

- **13.** 이렇게 보면 일반인들은 관리들의 선거에 있어서나 관리들의 행사를 검사하는데 있어서나 최고의 권위를 갖도록 하면 안될 것으로 보인다.
- 14.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전혀 근거(根據)가 확실하지 않다. 첫째로, 우리는 일반 대중들에서 발견할 수 있는 여러 성질의 결합에 관한 우리들의 이전의 주장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물론 그들이 성격상 천하지 않다는 것을 가정하고서이다. 각 개인은 사실상 전문가보다 훨씬 못한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모두 함께 모일 때에는 전문가보다 더 훌륭한 판단을 내리거나 혹은 어쨌든 간에 전문가보다 못하지는 않을 것이다. 둘째로, 물건을 만드는 기술자가 유일한 판단가가 아닐 뿐만 아니라 최선의 판단가도 아닌 그런 기술이 있다. 이들은 그 제품들이 그 분야에 있어서 아무 기술도 소유하고 있지 못한 사람들에게 서도 이해되고 판단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기술들이다. 예를 들어서 가옥은 건축자이외에 다른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것이다. 사실상 집을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혹은 다른 말로 하면 그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건축가보다 훨씬 더잘 판단할 것이다. 같은 방식으로, 항해사는 조선공보다 키를 더 잘 판단할 것이다. 그리고 음식을 먹는 사람—요리사가 아니라—이 어떤 연희에 있어서 가장 좋은 감식가가 될 것이다.
- 15. 사람들의 권리에 관한 우리들의 주장이 직면하는 첫 번째 난점은 이러한 고찰로써 충분히 답변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첫 번째 난점과 연결되는 또 다른하나의 난점에 직면하게 된다. 자질이 뛰어나지 못한 사람이, 자질이 훌륭한 시민들에게 위임되어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들에 관하여 최고의 권위를 갖는다는 것이 불합리하게 보인다. 관리의 선거와 그들의 임기가 끝난 후에 그들의 업적을 감사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문제들이다. 그러나 우리가 고찰한 바와 같이 이러한 문제들이 대중들로 구성된 회의에 위임되어 있으며, 또한 대중 집회가 그러한 문제들에 관하여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는 그러한 헌정질서도 있다.
- **16.** 이러한 어려움에 겹쳐서, 심의적이고 사법적인 기능을 갖고 있는 의원의 자격은, 연령을 불문하고 또 별로 재산이 없는 사람에게 부여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재무담당관리나 장군, 혹은 다른 어떤 최고 관직들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자격 요건으로 많은 재산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이 난점 도 첫 번째의 난점과 마찬가지 방식으로 해결될 수 있다. 그리고 결국 이러한 정치 질서에서 시행되는 것이 올바른 것이다.

- 17. 사법정 · 평의회(boulē), 혹은 의회(ecclésia)에 있어서 관직을 담당하고 있는 것은 개별 구성원들이 아니라 전체로서의 법정, 전체로서의 평의회, 전체로서의 대중의회 자체들인 것이다. 그리고 각 개별 구성원은 평의회거나, 의회거나, 혹은 법정이거나 간에 단지 전체의 일부에 불과하다.
- 18. 따라서 의회 · 평의회, 그리고 법정을 구성하는 일반국민은, 자질이 뛰어난 시민들에게 위임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최고의 권위를 갖는다는 것이 정당하며 적절하다. 또한 이러한 제도들의 구성원들의 재산을 전부합치면 개인으로서나 혹은 소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최고의 행정관직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재산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 19. 이것으로서 이제까지 논의된 난점들을 해결한 (1282b) 셈이다. 그러나 이들 난점들 중에 첫 번째에 관한 논의는 다른 것들에 앞서는 한 가지 결론을 낳게 한다. 즉 올바르게 제정된 법률들은 최종적으로 최고의 권위를 가져야 한다. 그리고 한사람에 의해서거나 혹은 한 집단의 사람에 의해서 행사되거나 간에, 사람에 의한통치는, 모든 우발적인 경우를 포함할 수 있는 일반적인 법칙들을 만드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법률이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들에 관해서만 최고의권위를 갖도록 해야 한다.
- 20. 그러나 올바르게 제정된 법률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은 아직 분명치 않은 문제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는 아직도 앞장의 끝에서 언급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즉, 법 그 자체가 어떤 일정한 계급에게 유리하도록 기울어져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그 법들이 어떤 헌정질서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좋을 수도 나쁠 수도 있고, 혹은 정당할 수도 부당할 수도 있다.
- 21.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법률들은 헌정질서에 맞도록 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올바른 헌정질서에 맞게 제정된 법률들은 필연적으

로 올바르며, 틀리거나 왜곡된 헌정질서에 맞게 만들어진 법률들은 정당하지 못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 제12장

- 1. 모든 학문이나 기술에 있어서 목표로 하는 것은 어떤 선(善)이다. 모든 학문과 기술에서 가장 뛰어난 것—즉 이것은 정치기술과 정치학인데—에 있어서 궁극적 인 목표는 최고의 선이며, 이것은 사람들이 가장 높이 추구하는 선이다. 정치 분야에서의 선은 정의(正義)이다. 그리고 정의는 공동이해(共同利害)를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있다. 일반적으로 정의는 어떤 종류의 평등에 있다. 일정한 정도까지는 이 일반적인 견해가 윤리에 관한 우리들의 결론을 포함한 철학적 연구와합치된다. 바꾸어 말하면, 정의는 두 가지 요소—사물과, 이 사물들이 배정되는 사람들 를 포함하고 있으며, 평등한 사람은 평등하게 사물의 배정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 2. 그러나 여기에서 등한히 해서는 안되는 한 문제가 제기된다. 평등한 자와 불평 등한 자를 구별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어떤 점에서 평등하고 불평등하다는 말 인가? 이것은 몇 가지 난점을 제기하며, 우리로 하여금 정치에 관한 철학적 사고를 하도록 하는 문제이다. 관직과 명예가 어떤 면에 있어서는 우월성을 근거로 해서—그 밖의 모든 점에 있어서는 유사하며, 아무런 차이가 없을지라도—불평등하게 배분된다고 주장할 수 있다. 이러한 주장에 의해서, 서로 차이가 나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그들의 자질에 따라 정의로운 것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 3. 만약 이러한 이론을 받아들인다면, 피부색이 좀 좋다거나, 키가 크다거나, 혹은 어떤 다른 비슷한 이점이 있다고 해서 그러한 사람들에게 정치적인 권리를 더 많이 주어야 한다는 주장이 성립될 것이다.
- 4. 그러나 이 주장은 명백히 틀린 것이 아닌가? 이 점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다른 학문과 기술에 비추어 연구해 보아야 한다. 만일 우리가 기술의 수준이 동등한

여러 명의 피리 부는 사람들을 취급하고 있는 경우에, 출신 성분이 더 좋은 사람에게 피리를 더 많이 주어야 한다는 원칙 위에서 피리를 배정하지는 않을 것이다. 가문이 좋다고 해서 피리를 더 잘 연주할 리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피리를 더 잘 부는 사람에게 그 도구를 더 잘 공급해 주어야 한다. 만일 아직도 논점이 확실하지 않다면 이 논의를 조금 더 밀고 나가 보면 그것이 확실하게 될 것이다.

- 5. 어떤 사람이 피리를 연주하는 데 있어서는 다른 사람보다 월등하지만, 출생이나 외모에 있어서는 열등하다고 가정해 보자. 가문이나 외모가 피리를 연주하는 능력보다 더 훌륭할 수도 있다. 그리하여 전반적으로 비교해 볼 때, 외모나 가문이뛰어난 사람이 그들에 비하여 피리 연주를 더 잘하는 사람보다 더 나은 위치에 있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리 연주를 잘하는 사람이 피리의 공급을 더 잘 받아야 한다는 것은 사실이다. (1283a) 출생이나 혹은 부(富)와 같은 자질이 우월하다고 하더라도 기능의 수행에 있어서는 어떤 것에 기여할 수 있어야한다. 그런데 피리를 연주하는 데 관한 한, 재산이나 출신 같은 것은 아무것도 기여할 수 없는 것이다.
- 6. 또 다른 하나의 반론이 있다. 만일 우리가 이러한 주장, 즉 관직과 명예는 어느점에서도 뛰어난 자질에 근거하여 배당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모든 자질이 다른 모든 자질과 공동의 척도로 측량될 수 있어야 한다. 우선 예를 들어, 일정한 정도의 키는 일정한 정도의 다른 자질보다 우월하다고 계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키일반이 부와 가문 일반과 어떻게 비교가 되는지 계산하도록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즉 일정한 주어진 경우에, 키에 있어서 A는, B가선에 있어서의 훌륭한 것보다 더 뛰어나다고 계산이 되며, 또한 일반적으로 키는선보다 뛰어난 정도가 더하다고 계산되는 식—여러 자질들이 같은 척도로 측량할수 있는 것으로 된다. 만약 어떠한 자질의 X만큼의 양이 다른 자질의 Y만큼의 양보다 〈더 나은〉 것이라면 X 이외의 어떤 다른 양은 명백히 그것과 동등할 것이다. 7. 이렇게 다른 성질의 것을 계산하는 식으로 단순하게 비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질이 다른 사물은 양의 면으로 취급될 수 없으며, 즉 동일한 단위로 계량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치적 문제에 있어서 어떤 종류의 우수성에 근거를

두고 권위의 행사를 정당화하려는 주장에는 아무 근거도 없다는 것이 명백하다. 어떤 사람은 동작이 빠르고 어떤 사람은 동작이 느릴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전자 가 정치적 권리를 더 많이 갖고 후자는 정치적 권리를 덜 가져야 하는 이유는 되지 못한다. 동작이 민첩한 사람이 동작의 민첩함 때문에 상을 받는 것은 체육 경기에 서나 그러하다.

- 8. 정치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기 위해서는 국가의 존재를 구성하는 요소들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가문이 좋고 자유민 출신이며 부자인 사람들이 명예와 관직을 요구할 수 있는 좋은 기반을 가지는 것이다. 관직을 담당하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자유민이어야 하며 납세자여야 한다. 국가는 생활수단이 없는 사람들만으로는 구성될 수 없는 바, 이것은 마치 국가가 전적으로 노예들만으로 구성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 9. 그러나 만약 부와 자유민 출신이라는 점이 필요한 요소라고 한다면, 정의로운 성질과 군인다운 습관도 필요한 요소라고 부언해야 한다. 이들도 또한 사람들이 한 국가 안에서 함께 살려면 구비되어야 하는 요소들이다. 한 가지 차이점은, 첫 번째 두 가지 요소는 국가가 단순히 존재하는 데 필요한 것이며 마지막의 두 요소는 국가에서 좋은 생활을 향유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라는 점이다.

#### 제13장

1. 만일 우리가 국가의 존재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생각한다면, 위에 언급한 모든 요소들, 혹은 적어도 그들 중의 몇 개는 관직과 명예를 수용하는 데 있어서 인정해 주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올바를지도 모른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국가에 있어서 좋은 생활에 대한 기여라는 면에서 생각해 본다면, 교양과 선이 위에서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가장 정당한 주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에한 가지 면에 있어서만 동등한 사람들이 모든 점에 있어서도 꼭 같은 권리를 요구하는 것이나, 혹은 한 가지 면에 있어서만 우월한 사람이 모든 면에 있어서 남보다우월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모두 옳지 않다는 우리들의 원칙을 좇아서, 이러한

주장들을 모두 왜곡된 형태라고 생각하는 모든 정치질서들을 고찰해 보아야겠다.

- 2. 우리는 이미 국가를 구성하는 서로 다른 요소들에 기여하는 사람들이 어떤 권리를 요구하는 것이—비록 그 중의 누구도 절대적으로 정당하지는 못하지만—옳다는 것에 일리가 있다는 것을 고찰한 바 있다. (1) 부유한 사람들은 그들의 땅을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갖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정당하다. 이것은 또한 공공의 이해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다. 일반적으로 또한 부자들은 계약의 문제에 있어서 가난한 사람들보다 더 믿을 수 있다. (2) 자유민과, 출신이 귀족인 사람은 밀접하게연관이 되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출신 가문이 좋은 시민은 출신이 천한사람들보다 그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정도가 더 크다. 그리고 가문이 좋은 것은 그자신의 나라에 있어서는 명예가 되는 것이다.
- 3. 더욱이 훌륭한 사람들의 후예들은 본질적으로 자질이 더 훌륭하기 쉽다. 왜냐하면 가문이 좋다는 것은 그 가문 사람들 전체가 좋다는 것이다. (3) 마찬가지로 우리는 성격(性格)이 선한 사람도 정당한 요구를 할 수 있다고 인정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견해에 따르면 정의의 덕(德)은 필연적으로 모든 다른 덕이 여기에 수반되며(그래서 일반적인 덕이나 선과 동일시 될 수 있다),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 나타나는 덕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정치적 사회의 존재에 기본적인 요소 중의하나이다.)
- 4. 그러나 또 다른 주장도 있을 수 있다. 다수는 소수보다 더 많은 권리를 요구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들을 함께 합쳐서 소수와 비교하여 보면 소수보다 더 강하고 부유하고 더 훌륭하기 때문이다. (1283b) 이들 경쟁적인 요구와 주장을 갖는 사람들이—예를 들어 선한 자, 부유하며 출신이 좋은 사람 그리고 일반시민들이—한 동일한 국가 내에서 모두 함께 사는 경우를 가상하여 보자.
- 5. 누가 통치를 하는가에 관하여 그들은 항의를 할 것인가 분쟁을 일으킬 것인가 하는 이 문제는, 우리들이 위에서 해놓은 분류에 언급된 어떤 헌정질서에서도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제는 아니었다. 이 헌정질서들은 어떤 집단이 최고의 권위를 갖는가 하는 것에 따라서 다르다. 그 중 하나(과두정치)는 최고 권위가 부유한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특징이고, 다른 하나(귀족정치)는 그것이 훌륭한 사람들에게

부여되어 있는데, 나머지도 이렇게 각자가 서로 다른 것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문제는 이와는 다르다. 이것은 서로 다른 집단들이 동시에 자기네들이 통치해야 한다고 주장할 때, 과연 누가 통치해야 하는가를 결정하는 문제인 것이다.

- 6. 예를 들어, 훌륭한 사람들이 그 수가 매우 적은 경우를 상상해 보자. 우리들은 어떻게 그들의 주장에 관하여 결정을 내려야 하는가? 우리는 다만 그들이 수행해야 하는 기능에 비해 너무 수가 적다는 점만을 고려해야 하는가? 그리하여 우리는 그들이 국가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겠는가 혹은 국가를 하나 구성할 만큼 수가 많은가 하는 점을 물어 보아야 하는가? 여기에 훌륭한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관직과 명예를 요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난점이 제기된다.
- 7. 마찬가지로 부유하다는 근거에서 혹은 출신 가문이 좋다는 근거에서 소수자가 통치를 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아무런 정당성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으며, 이러한 생각에는 명백한 이유가 있다. 만일 어떤 한 사람이 모든 다른 사람보다 부유하다면 이 한 사람이 위에 말한 것과 같은 원칙에 의거하여 다른 모든 사람을 지배해야만 한다. 마찬가지로 어떤 한 사람이 뛰어나게 출신 가문이 훌륭하다면 가문이 좋다는 근거로 정권을 요구하는 다른 모든 사람을 지배해야할 것이다.
- 8. 귀족정치에 있어서도 선 혹은 자질의 문제에 같은 논리가 적용될 수 있다. 만일어떤 한 사람이 주권체에 속해 있는 다른 모든 훌륭한 사람보다 더 훌륭하다고 하면, 이 한 사람이 귀족정치에 통용되는 정의의 원칙에 따라 최고의 권위를 가져야한다. 만일 다수가 통치권을 가져야하는 이유가 다수는 항상 소수보다 더 힘이 강하다는 것이라면, 어떤 한 사람이 모든 다른 사람보다 더 힘이 강한 경우—혹은 소수이지만 1인 이상의 집단이 나머지 사람들보다 더 강한 경우에—논리적으로 그한 사람이나 혹은 집단이 다수를 대신하여 최고의 권위를 가져야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
- 9. 이렇게 고려해 볼 때 사람들이 통치권의 근거로서, 혹은 다른 모든 사람을 자기들의 통치에 복종시키는 근거로서 내세우는 어떠한 원칙 즉 부·출신·선, 그리고 다수의 힘도 올바르지 못하다는 것이 증명되는 것 같아 보인다.

- 10. 예를 들어 선의 근거에서 일반 시민에 대하여 최고의 통치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자. 또는 부의 근거에서 그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자. 이들 양자의 주장은 모두 대중에 의해 정당하게 도전받을 수 있다. 왜 냐하면 다수로 하여금—만일 개인적으로가 아니면 집단적으로—소수보다 더 훌륭하거나, 더 부유하게 되지 못하도록 하는 이유라고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 11. 이 마지막의 고찰은 우리들로 하여금 일보 전진하여 때때로 제기되며 논의되는 난점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 난점이란 아래와 같다. 다수가 전체적으로 보아서 실제로 소수보다 더 낫다고 가정해 보자. 그러한 경우에 법률을 가능한 한 올바르게 시행하려고 하는 입법자는 어떠한 정책을 취하는 것이 옳은가? 그는 자질이 훌륭한 사람들의 이익을 위한 방향으로 입법을 해야 하는가, 혹은 다수의 이익을 위한 방향으로 입법을 해야 하는가?
- 12. 우리는 양자의 이익이 독점적으로 고려되어서는 안된다고 대답할 수 있다. 즉〈올바른〉것은〈평등하게 올바른〉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리고〈평등하게 올바른〉것은 국가 전체에 이익이 되며, 그 국가의 시민 전체의 공동선을 위한 것이다. 시민이란, 상식적인 의미에 있어서, 번갈아서 지배를 하며 또한 지배를 받는시민생활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시민이란 말의 특정한 의미는 (1284a) 정치질서에 따라서 다르다. 그리고 이상적인 정치질서하에서의 시민이란, 선에 부응하는 생활방식을 성취하려는 목적을 갖고 지배를 하며 또한 지배를 받는 능력과용의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 13. 우리는 이제까지 다수가 공동으로 소수를 지배하는 경우를 고려해 보았는데, 이제 그 반대의 경우를 보기로 한다. 만약에 선에 있어서, 타인보다 너무 현저하게 뛰어난 한 사람이 있어서 (혹은 여러 명이 있지만 완전한 국가를 형성하기에는 그수가 충분하지 못하다면) 그의 정치적인 능력이나 선(혹은 여러 명의 경우 그들의 정치적인 능력이나 선)은 여타의 사람들의 정치적인 능력이나 선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훌륭하다면 그러한 사람은 혹은 그러한 사람들은 이미 국가의 일부로 취급되어 질수 없다. 선과 정치적 능력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보다 그렇게 월등히 우월하기 때문에, 만약 그들을 그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취급한다면 매우 부당한

일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종류의 사람은 거의 사람 사이에 있는 신과도 같기 때문이다.

- 14. 이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법률은 필연적으로 출신과 능력에 있어서 평등한 사람들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다. 타인보다 절대적으로 우월한 사람들에게 대립되는 법이란 있을 수 없다. 이러한 사람들은 그들의 출신이 법인 것이다. 이들을 위하여 입법을 하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일 것이다. 그러한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은 안티스테네스(Antisthenes)의 동화에서, 토끼들이, 모든 동물들은 평등한 권리를 갖는다고 주장하는 연설을 할 때, 사자들이 했다는 말을 인용하여 답할 것이다. 이 동화에서 사자들은 이렇게 물었다고 한다. 「너희들의 발톱과이빨은 어디에 있는가?」라고.
- 15. 이러한 성질의 이유로, 어째서 민주주의 국가들이 패각추방(貝殼追放)의 제도를 제정하는지 설명이 된다. 그러한 국가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평등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그들은 부나 정치관계, 혹은 다른 형태의 정치적 힘 때문에 영향력이 너무나 많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에게 패각추방<sup>8</sup>의 선고를 내리곤 하였다.
- 16. 우리는 또한 전설에 나오는 이야기를 인용할 수 있다. 아르고(Argo) 호의 선원들은 이러한 종류의 이유로 헤라클레스(Herakles)를 뒤에 남겨두고 떠나 버렸다. 또한 아르고호<sup>9</sup> 자신도 헤라클레스를 배에 태우기를 거부했는데, 그것은 그가 모든 다른 사람보다 너무 뛰어났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견지에서 폭군인 페리안드로스(Periandros)가 그의 동료 폭군인 트라시불로스(Thrasybulos)에게 준 충고에 대해 폭군정치의 비판가들이 내린 탄핵이 전혀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
- **17.** 전해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트라시불로스는 조언을 구하러 사절을 보냈다고 하다. 페리안드로스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그저 그가 서 있던 옥수수밭에서 삐

<sup>8.</sup> 패각추방이란 인민투표에 의하여 일정한 사람을 일정한 기간 동안 국외로 추방하는 제도인데, 역사상 이름을 날린 정치가들이 많이 이 추방을 받았거나 아니면 이 추방을 당할 위험에 처한 일이 많았다.

<sup>9.</sup> 아르고 호(號): 그리스 전설에 나오는 배의 이름인데, 이 배는 말을 할 수 있었다고 한다.

죽하게 나온 옥수수 이삭을 비틀어 꺾어 버려서 표면을 완전히 편편한 정도로 만들어 놓았다. 그 사람은 이러한 행동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이것을 보고했지만, 트라시불로스는 그의 조언이 국가에 있어서 뛰어난 사람을 제거해 버리라는 것이라고 추측했다.

- 18. 이러한 정책으로부터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폭군들만은 아니다. 또한 이러한 정책을 폭군만이 실천하는 것도 아니다. 과두정치와 민주정치는 둘 다 같은 입장에 놓여 있다. 그리고 패각추방은 그 방식대로 뛰어난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을 끌어 내리거나 추방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
- 19. 패권을 잡은 국가들도 마찬가지의 정책을 다른 국가들과 국민들에게 적용한다. 예를 들어서 아테나이는 사모스(Samos), 키오스(Chios), 그리고 레스보스(Lesbos)에게 같은 방식으로 행동하였다. 아테나이가 일단 그의 제국(諸國)을 완전히 통수하게 되자 그들은 이전의 조약들을 위반하고 다른 나라들을 자기 앞에격하시켰다. 마찬가지로 페르시아의 왕도 (1284b) 계속하여 메디아(Media), 바빌로니아, 또는 예전에 한때 그들 자신이 제국을 갖고 있었다는 기억 때문에 주제 넘은 생각을 하는 그의 영토 내의 다른 지방들의 권력을 축소 시켰다.
- 20. 우리가 현재 논의하고 있는 난점은 옳건 그르건 간에 모든 형태의 정부에 공통된 것이다. 만일 나쁜 혹은 왜곡된 형태의 정부가 그들의 편파적인 이득을 위하여이러한 평준화 정책을 채택한다면, 공동선을 지향하는 그러한 형태의 정부들에 있어서도 이것은 마찬가지이다.
- 21. 이러한 균형의 법칙은 학문과 기술 일반에 있어서도 발견할 수 있다. 화가는 그의 화폭에 사람을 그릴 때 아무리 아름답다고 할지라도, 발 하나가 균형의 한계를 넘어서도록 허용하지는 않는다. 조선공은 배의 고물이나 혹은 다른 부분이 불균형하게 되도록 하지 않는다. 합창 지휘자는 다른 합창대원들보다 목소리가 훨씬 더 좋고 음성이 훨씬 더 큰 가수를 합창대에 넣어주지 않는다.
- 22. 이러한 일반원칙의 입장에서 보면, 형평화 원칙을 시행하는 군주는 그 정책 때문에 그가 다스리는 국가와 조화를 이루지 못하지는 않는다. 이것은, 즉 그의 정부가 다른 면에 있어서는 좋다는 전제하에서 그러하다. 그리하여 패각추방이 좋다고

생각하는 주장이 어떤 인정받은 탁월함의 형태와 관련하여 일종의 정치적 정의를 갖는다.

- 23. 입법자가 애초에 헌법을 만들 때, 이러한 구제책이 필요 없도록 만든다면 더 좋으리라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렇게 할 필요가 생겼을 때 차선의 방법은 이러한 종류의 조정을 적용하려고 하는 것이다. 실제로는 국가들이 이러한 정신으로 이 정책을 적용한 적은 없다. 각자는 모두 그들 자신의 특이한 헌정질서의 이해가 요구하는 바를 고려하는 대신에, 파벌 정신에서 패각추방을 하여 온 것이다.
- 24. 왜곡된 형태의 정부에 관한 한, 저명한 사람을 추방하는 것은 명백히 그들 자신의 입장의 편의에 따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그것이 절대적으로 정당하지 않다는 것도 또한 명백하다. 그러나 이상적인 헌정질서하에서 그러한 방식을 사용하는 데 심각한 난점이 제기된다. 이 난점은 정치적인 힘, 부, 혹은 친지관계가 없다는 것 같은 점에 있어서의 뛰어남에 관하여 제기되는 것은 아니다. 진정한 문제는 그보다 『선에 있어서 뛰어나게 훌륭한 사람을 만나는 경우에 어떻게해야 하는가?』하는 점이다.
- 25. 우리는 아무도 그러한 사람이 추방을 당하여 망명생활을 하는 것이 옳다고 말하지는 않으리라 믿는다. 그러나 또한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고 말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마치 인간들이, 제우스와 그들인간 사이에 관직을 교대하는 어떤 체제에 따라 제우스신을 지배하겠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단하나의 대안은, 이것이 또한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보이는데, 모든 다른 사람들이 뛰어난 선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기꺼이 복종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사람들은 그들 국가에 있어서 영구히 왕이 될 것이다.

#### 제14장

1. 위와 같은 논의 후에, 아마도 주제를 바꾸어서 왕정(王政)을 고찰해 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 왕에 의한 정부는 우리 견해에 의하면 올바른 헌정질서의 하나이다. 우리가 고려해야 하는 문제는, 이러한 형태의 정부가 올바르게 통치되어야 하는 국가나 영토를 위하여 올바른 방법인가, 혹은 이 방법은 편리하지 못하고 어떤 다 른 형태가 더 편리하다거나, 혹은 적어도 모든 경우에 있어서 편리하지는 않더라 도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더 편리하지 않은가 하는 것이다.

- 2. 우리는 먼저 왕정에는 한 가지 종류만이 있는가 아니면 여러 다양한 종류가 있는가 하는 것을 결정해야만 한다. (1285a) 왕정 안에는 여러 종류가 있으며, 각기나름대로 실시하는 통치체제는 동일하지 않다는 것은 쉽게 알 수 있다.
- 3. 우선 첫째로, 스파르타의 헌정질서에서 찾아볼 수 있는 왕정이 있다. 이것은 입 헌왕정으로서는 가장 강한 형태의 것이라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스파르타의 왕들은 어떤 일반적인 최고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며, 스파르타 의 영토 외부에서 전쟁을 지휘할 권력과 종교적인 의식 수행에 관련된 문제를 다 루는 권리만이 있을 뿐이다.
- 4. 스파르타와 같은 나라의 왕들은 따라서 독립된 군대 통수권과 영구 임기를 갖는 장군과 같은 성질의 것이다. 이러한 왕들은 생사여탈(生死與奪)의 권력을 갖는 것이 아니며, 그러한 권력을 갖는다면 이러한 형태의 왕정의 어떤 특정한 변형에 있어서만 그러하다. 예를 들어, 영웅시대에 있어서의 왕들은 강자의 권리에 의해서 군사적 원정 때에 사람들을 사형시킬 수 있었다. 그 증거로 호메로스를 인용할수 있다. 호메로스는 《일리아스》에서 아가멤논(Agamemnon)을, 의회에 나가서는 비난을 받더라도 참으면서, 일단 전장에 나가면 생사여탈의 권력을 행사하였다고 표현했다.
- 5. 하여간에 호메로스의 기술(記述)에 의하면 아가멤논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누구든지 간에 전장에서 달아나는 자를 발견하기만 하면… 그 자는 살 생각을 안 하는 것이 좋다. 개와 독수리가 그 자를 찢어 삼킬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생사여탈의 권리를 갖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 형태의 왕정을 실상 종신직 군사령관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덧붙여 말하여 둘 것은 이 같은 왕정에는 두 가지 다른 형태가 있는데, 하나는 세 습제이고 다른 하나는 선거제이다.

- 6. 다른 형태의 왕정은 몇몇 야만인들 사이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종류의 왕정들은 폭군에 유사한 점을 갖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헌적이며, 아버지에서 아들로 세습적으로 물려지는 것이다. 그 이유로는, 이들 야만인들이 그리스인들보다 성격상 더 굴종적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시아인들은 또한 유럽인들보다 더 굴종적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불평을 하지 않고 독재적인 통치를 용납한다. 7. 야만인들 사이에서의 왕정은 따라서 폭군정치의 성격을 갖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것은 입헌적이고 세습제이므로 동시에 안정성을 갖는다. 또한 그러한 나라들에 있어서 사용되는 왕의 근위대는 왕에게 알맞을 만한 것이고 폭군에게는 맞지 않는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왕은 신민(臣民)들 중에서 나온 병사들의 호위를 받는데, 폭군들은 외국인 용병의 호위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왕들은 입헌적으로 또한 신민의 동의에 근거를 두고 통치하기 때문에 신하들로 이루어진 호위병을 갖지만 폭군은 국민의 의사에 반대하여 통치를 하므로 신하들에 대하여 자기를 보호하여 줄 외국인 호위병이 필요한 것이다.
- 8. 이들이 군주정치의 두 가지 형태이다. 그러나 세 번째 종류의 왕정이 있는데 그 것은 고대 그리스인들 사이에 존재했었으며, 전제정치라는 이름으로 불리었다. 이 것은 대략 선거 형태의 폭군정치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야만인들 사이에 있는 왕 정의 형태와는, 세습제가 아니며 그리고 입헌제도 아니라는 점에 있어서만 차이가 난다.
- 9. 어떤 전제 군주들은 종신토록 통치했으나, 다른 사람들은 일정한 기간 동안에 한해서 재직했고, 혹은 일정한 의무만을 수행하였다. 예를 들어서 피타코스는 미틸레네(Mitylene)에서 안티메니데스(Antimenides)와 서정시인인 알카이오스 (Alkaios)가 지휘하는 망명자들의 침입을 막도록 선출되었다.
- **10.** 피타코스가 선출된 사실을 알카이오스는 그가 지은 연희석상의 노래 중의 하나에서 아래와 같이 신랄하게 꼬집었다.

천민 태생인 피타코스는 쓸개 없고 하늘에 의하여 저주받은 이 도시 위에

(1285b) 폭군으로서 군림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시민들이 법석스러운 선거로 온갖 예찬을 아끼지 않고 선출하여 만든 것이다.

- 11. 이들 전제정치는 이중의 성격들을 갖고 있었으며 그것은 오늘날에도 그렇다. 즉 그들은 독재적 권력을 휘두르는 폭군정치였지만, 선거제도를 채택했고 시민들의 동의에 기초를 두었다는 점에서 왕정이었다. 그러나 네 번째 형태의 왕정이 또하나 있는데, 이것은 영웅시대의 왕정 형태이며 입헌제였고, 국민의 동의에 근거를 두고 있었으며 세습제였다.
- 12. 왕가(王家)를 처음 연 사람은 전쟁이나 기술(技術)에서 국민들에게 혜택을 준사람들이었다. 이들은 국민들을 도시에 함께 모았거나 혹은 그들에게 영토를 마련해 주었다. 그리하여 이들은 일반적인 동의에 의하여 왕이 되었으며 그들의 후계자에게 세습되는 왕정을 확립한 것이다. 그러한 왕들은 세 가지의 최고의 기능을 갖고 있었다. 즉 전쟁에서는 사령관이었으며, 승려를 필요로 하지 않으면서 제물을 바치는 종교적인 기능을 수행하였고, 또한 법적인 소송에 있어서는 판사였다. 어떤 때에는 선서를 하고 판결했으며, 어떤 때에는 선서도 없이 판결했다. 그들이선서할 때에는 그 선서의 형식은 그들이 갖고 있는 홀(笏)을 치켜드는 것이었다.
- 13. 옛날에는 그들은 도시·촌락, 그리고 외교의 문제까지 포함하는 영구적인 권위를 가졌으나 후일에 와서 이것이 변경되었다. 그들의 특권 중에 어떤 것은 자발적으로 철회되었으며, 또 다른 것은 대중들이 몰수하였다. 결국에는 대부분의 권위에 있어서 왕들에게 남겨진 유일한 특권은 전통적인 제물의 관리를 관장하는 것뿐이었다. 진정한 왕정이 아직도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도 왕의유일한 효과적인 권력은 외국에 원정을 가는 경우 군사를 지휘하는 것이었다.
- 14. 따라서 전부 네 가지 형태의 왕정이 있는데 (1) 영웅시대(英雄時代)의 왕정으로서, 일반적인 동의에 근거를 두고 있지만, 왕이 수행하는 기능은 몇 가지로 한정되어 있고, 왕은 장군, 법관, 그리고 종교적 의식의 우두머리인 것이다. (2) 야만인들사이의 왕정 형태로서, 왕은 세습권에 의하여 전제적이지만 입헌적인 권위를 행사하는 것이다. (3) 독재정치라고 불리어지는 왕정으로서, 선거의 형태를 가진 폭군

정치이다. (4) 스파르타 형태의 왕정으로서, 대략 세습권리에 의하여 군대를 영구히 지휘하는 것으로 정의되는 것이다.

15. 이 네 가지 형태의 왕정은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은 방식에서 서로 다르다. 그러나 이들 모두와도 다른 다섯 번째 형태의 왕정이 따로 있다. 이것은 절대왕정의 형태로서, 단 한 사람이, 부족이나 도시국가가 공적인 문제에 관해 행사하는 것과 같은 권력을 갖고 모든 문제에 관하여 최고의 권위를 갖는 것이다. 이것은 가정에 대한 가부장적(家父長的) 제도와 상응하는 것이다. 가부장적 지배가 가족에 대하여왕정인 것처럼, 거꾸로 이러한 형태의 왕정은 국가·부족, 혹은 부족들의 집합에 대한 가부장적 지배라고 보아도 좋다.

## 제15장

- 1. 실제적인 목표를 위해서는 이 다섯 가지 형태의 왕정 중에 두 가지—즉 이제 막 언급한 것과, 스파르타 형태의 왕정—만을 고찰해 보면 된다. 나머지 세 형태의 대 부분의 예는 이 두 가지 형태 사이의 중간에 해당한다. 이들 형태에 있어서의 왕정 은 절대왕정(혹은 Pambasileia)에 있어서 보다는 좀 작은 정도로, 그러나 스파르 타적 형태에 있어서 보다는 더 큰 정도로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다.
- 2. 중간 형태의 것들은 두 양극을 연구함으로써 이해될 수 있는 것이므로, 실제로 우리들의 연구는 두 가지 문제에 국한된다. 첫째 문제는 종신직 장군이(세습제이 거나 혹은 어떤 다른 방식의 순번제이거나 간에) 통치체제로서 편리한가, 편리하지 못한가 하는 것이다. 둘째 문제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한 사람이 최고 권위를 갖는다는 사실이 (1286a) 편리한가, 그렇지 못한가 하는 사실이다.
- 위에 말한 첫째 문제는 헌정질서의 형태라기보다 법 시행의 분야에 속하는 것이다. 종신직 장군은 어떤 정치질서 상태에서도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문제를 당분간 생각하지 않기로 하자.
- 3. 절대왕정의 형태는 문제가 다르다. 그것은 헌정질서의 한 형태이며, 따라서 우리는 그것을 철학적으로 연구하고 그것에 내포된 여러 난점들을 간단하게 살펴보

아야 한다.

우리들의 연구는 당연히 아래와 같은 일반적 문제에서 출발해야 한다. 『최선의 사람 하나에게 지배받는 것이 더 좋은가, 아니면 최선의 법에 의해 통치를 받는 것이 더 좋은가?』

- 4. 왕정이 좋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법이란 단순히 일반법칙들을 제시할 수 있을 뿐 이라고 한다. 즉 법은 여러 다른 경우들을 취급할 수 있는 판결을 제시할 수는 없으며, 따라서 법조문의 지배란 어떠한 분야에 있어서도 잘못이라는 것이다. 이 집트에서의 의사는 4일이 경과된 후에는 치료 규칙을 변경해도 된다. 단 이 기간이 경과되기 이전에 변경하는 의사는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러한 입장을 따른다면, 법조문 혹은 법의 지배에 근거를 둔 정치질서는, 엄격한 법칙에 의한 의술적 치료가 최상의 치료는 아닌 것과 꼭 같은 방식으로 그리고 꼭 같은 이유 때문에, 최선의 정치질서라고는 할 수 없다.
- 5. 그러나 우리는, 일반법칙은 지배자의 마음속에도 있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한다. 감정적인 요소가 전혀 없는 것이 감정적인 요소가 개입되는 것보다 더욱 좋다. 법에는 감정적인 요소가 없는데 사람의 마음에는 항상 그러한 요소가 있어야만 한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대답할 수 있을 것이다. 개인의마음은 이러한 결점이 있는 대신에 또한 이점도 있다. 즉 그것은 특별한 문제들에관하여 더 잘 고려할 수 있고 더 좋고 적절한 판결을 할 수 있다.
- 6. 이렇게 생각해 보면 최선의 한 사람이 입법자가 되어야만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에는 일정한 법들이 있어야 하고, 이 법들은 모든 경우에 있어서 최고의 권위를 가져야만 하지만, 단 정곡을 찌르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되면 안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따라서 법만으로써는 전혀 판결될 수 없거나 혹은 올바르게 판결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법으로 판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결정하는 권능이 한 사람에게 있어야 하는가, 혹은 인민 전체에 있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다.
- 7. 오늘날에 있어서, 실제로 인민들은 집회에서 심의적인 그리고 사법적인 권능을 모두 지니고 있다. 그리고 이들은 이 두 가지 권능을 겸비하여 특별한 경우들이 관

련되어 있는 결정을 내린다. 이들 집회의 개별적인 구성원은 최선의 1인보다 아마도 열등할 것이다. 그러나 국가는 많은 개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추렴을 한 잔치가 한 사람이 마련한 잔치보다 더 나은 것처럼, 같은 이유로 여러 문제에 있어서 대중이 어느 한 개인보다 더 나은 결정을 할 수 있다.

- 8. 또한 사람의 수가 많으면 부패의 위험성이 적다. 물의 양이 많으면 양이 적을 때보다 오염될 위험성이 적은 것처럼 전체의 인민은 소수인들보다 부패의 위험성이 적다. 한 사람의 판단은 그 사람이 격분하였거나 혹은 다른 어떤 비슷한 감정의 영향하에 있을 때에 변질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전체 인민이 분노하거나 동시에 감정적인 결정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 9. 우리는 이 인민들이 모두 자유민이며, 법에 어긋난 일은 전혀 않고, 또한 법의 밖에서 행동하는 것은 법의 성격상 법률의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을 수 없었던 일에 국한한다고 전제한다. 이러한 제한들이 사람의 수가 많은 경우에 쉽게 지켜지지 않으리라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좋은 사람이며 동시에 좋은 시민인 한 집단의 사람들을 상정할 때에, 모두 좋은 사람인 한 집단의 사람들과 한 개인 중에서 어느 쪽이 부패의 위험성이 더 적을까? 아무래도 전자가 더 유리하지 않겠는가? (1286b) 그러나 또 다른 반대가 있을 수 있다—즉 한 집단의 사람들에 게는 파벌이 따르기 마련인데, 한 사람의 경우에는 파벌의 영향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 10. 아마도 이러한 반론에 대한 답변으로서, 여러 사람들로 된 집단이 한 사람과 마찬가지로 좋은 성격을 갖고 있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모두가 좋은 사람인 몇 명의 통치자들에 의하여 정치를 하는 것을 귀족정치라고 부르고, 한 사람이 통치하는 것을 왕정이라고 부른다면, 우리는 국가를 위해 귀족정치가 왕정보다 더 좋다고 할 수 있다. (왕의 지배가 친위대 세력에 의해 지지를 받건 안 받건간에) 단 모두 동등하게 선한 하나의 집단의 사람들을 찾아낼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만 그러하다.
- 11. 전에는 왜 왕정이 널리 실시되었는가 하는 이유는 아마도 뛰어나게 선한 사람을 찾아내기가 어려웠기 때문이었을 것이다—그 당시에는 국가의 인구가 적었기

때문에 더욱 그러했을 것이다. 왕으로 지목된 또 다른 이유는, 그들이 모두 국가에 혜택을 준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이러한 것은 좋은 사람들 모두가 해야 하는 것이지만 오직 한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었다. 후에 가서 동등하게 선한 사람들이 여러 명 나오게 되자, 그들은 한 사람에 의하여 지배받는 것을 용납하려 하지 않고, 그들이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것을 세우려고 했으며, 따라서 헌법을 설립하게 된 것이다.

- 12. 더 나중에 가서, 그들은 그들의 질이 나빠짐에 따라 공공재산을 횡령하여 자신들의 부를 축적하게 되었다. 대략 이렇게 하여—즉 명예 대신에 부를 중시하게 되어서—과두정치가 탄생하게 되었다고 추론할 수 있다. 그보다 더 후에 가서는 과두정치가 폭군정치로 바뀌게 되고, 폭군정치로부터 다시 민주정치로 바뀌게 되었다. 그 이유는 정부의 관리들이 관직에서 나오는 이득에 욕심을 내어, 관직을 담당하는 사람을 점점 더 적은 수로 국한했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정책에 의하여 그들은 대중의 힘을 강하게 만든 셈인데, 결과적으로는 대중들이 들고 일어나 민주정치를 설립하게 되었다.
- **13.** 오늘날에 와서는 국가의 규모가 그보다 더 커졌으므로 이제 어떤 다른 형태의 헌정질서가 거의 존재할 수 없다고 말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만약 우리가 왕정과 귀족정치의 상대적인 장점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돌아가 본다면, 또 다른 두 가지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첫째는 이러하다. 만약 왕정을 국가들을 위한 최선 형태의 정부라고 받아들인다면, 왕의 지위에 관한 문제는 무엇인가? 즉 왕의 자격은 그 가족에게 있는 것이어서 왕의 후손이 왕이 되어야 하는 것인가? 만약 그 후손들이 평범한 사람에 불과하다면 결과는 좋지 못할 것이다.

14. 왕이 자손에게 왕좌(王座)를 물려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어느 왕이고 이렇게 행동하리라고 믿기는 어렵다. 그렇게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인간의 본성으로 미루어 봐서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의 선을 요구하는 것이다. 어려움들을 제기하는 또 다른 문제는 왕의 친위대에 관한 것이다. 왕이 되는 사람은 신변에 갖고 있는 군대로써 자기에게 잘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강제할 수 있어야 하는가? 만일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그가 통치할 수 있겠는가?

- **15.** 그가 법에 의하여 다스리는 최고 통치가이며, 또 법률을 어기거나 임의로 행동한 일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병력(兵力)이 필요하다.
- 16. 법에 의해 통치하는 이러한 종류의 왕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는 쉽다. 왕은 일정한 양의 무력을 가져야 한다—즉 그의 국민 전체의 무력보다는 적지만 그 국가 내의 어느 한 개인이나 집단의 힘보다는 강한 힘이 필요한 것이다. 옛날에 어떤 사람이 폭군 혹은 독재자의 명칭을 갖고 국가의 수반이 되었을 때에 그의 친위대는 이런 성격을 띤 것이었다. 또한 시라쿠사이의 폭군 디오니시오스 (Dionysios)가 호위대를 요구했을 때, 한 평의원이 국민에게 충고한 것도 어느 정도 규모의 병력을 주어야 하는가 였다.

# 제16장

- (1287a) 1. 이제까지 우리는 자기의 임의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 의거해서 행동하는 왕에 관해서 언급해 왔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당면하여 해결해야 할 문 제는, 무엇이건 자기 마음대로 하는 왕의 경우이다. 앞장의 2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법에 따라서 행동하는 왕정은 그 자체로서는 헌정질서의 한 형태가 아니다. 종 신(終身) 군사령관 제도는 예를 들어, 민주정치나 귀족정치 같은 어떤 형태의 헌정 질서에도 존재할 수 있다. 또한 일반 행정의 영역에 있어서도 한 사람이 최고의 권위를 갖도록 하는 여러 다른 형태들의 정치질서를 갖는 국가들이 많다. 예를 들어서, 에피담노스에 이러한 종류의 관리가 있으며, 또한 이보다는 권한이 좀 제한되어 있지만 오푸스(Opus)에도 같은 종류의 관리가 있다.
- 2. 그러나 팜바실레이아(Pambasileia)라고 불리는 절대왕정은 왕이 모든 문제에 관하여 자기의 재량대로 다스리는 정치질서의 형태이다. 한 사람이 국가의 다른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최고의 권력을 갖는다는 것이, 그 국가가 평등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연스럽지 못한 것이라는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

- 다. 이 견해에 의하면, 자연적으로 동등한 사람들은 같은 권리와 가치를 지녀야 하며, 따라서 동등한 사람들에게 동등하지 못한 배분을 하는 것(혹은 역으로 동등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동등한 것을 배분하는 것)은 마치 음식과 의복을 분배하는 데있어서 그와 같은 방식을 따르면 좋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관직과 명예를 배분하는 데 있어서도 나쁜 방식일 것이다.
- 3. 여기에서 나온 결론은 평등한 사람들은 통치도 하고 통치를 받기도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며, 따라서 관직은 회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 이를 때 우리는 이미 법에 다다르게 된다. 왜냐하면 관직의 회전을 규정하는 이러한 제도 를 마련해 주는 것이 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제 말한 견해에 의하면 법에 의한 통치가 한 시민에 의한 통치보다 더 좋다는 것이다.
- 4. 같은 견해를 취하면, 설혹 개인이 지배하는 것이 더 좋다고 할지라도 이 개인들은 〈법의 수호자〉혹은 법의 대리인으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될 수 있다. 국가에 관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동등하며 평등한 시민인 경우 이 관직을 한 사람이 맡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주장한다.
- 만약 법이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가 몇몇 있다면, 사람도 이러한 경우들에 대하여 마찬가지로 해답을 줄 수 없을 것이다.
- 5. 법은, 관직을 맡는 사람들을 그 법의 정신에 익숙하도록 훈련시켜서, 〈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법만으로써는 공평하게 결정할 수 없는 문제들을 이들로 하여금 판결하고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그것은 이들로 하여금, 경험의 결과에 의하여 기존의 법률보다 더 좋아 보이는 개선을 하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법이 통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신과 이성만이 통치해야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사람이 통치해야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정치에 야수적인 요소를 첨가시키는 것과 같다. 욕망은 이러한 성격을 가진것이다. 정열도 또한 관직을 맡은 사람들이 최선의 인간들인 경우에도 이들을 타락시킨다. 따라서 법은 신과 이성의 순수한 목소리처럼 어떤 감정의 요소도 없는 이성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다.
- 6. 위에서 이미 언급한 의술과 같은 기술의 비유는 틀린 것이다. 교과서에 씌어 있

는 규칙에 따라서 치료하는 것이 못난 짓임은 사실이며, 의사로서의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의 치료를 받는 것이 더 좋은 것은 물론이다. 그러나 우리는 의사와 정치가 사이에는 치명적인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상기하지 않으면 안된다.

- 7. 의사는 개인적인 동기 때문에 이성에 어긋난 짓을 하지는 않는다. 의사는 환자를 고쳐주고 돈을 받을 뿐이다. 그러나 관직에 있는 정치인들은 자기 적들을 괴롭히고, 친구들에게 호의를 베풀기 위하여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관습이 있다. 만일환자들이, 의사가 자기들의 적과 공모하여 사리사욕을 위하여 자기들을 파멸시키려고 한다는 의혹을 품는다면, 그들은 교과서에 있는 규칙을 따라서 치료를 받기를 더욱 원할 것이다.
- 8. 또한 의사들이, 그들 자신이 (1287b) 아플 경우에는 치료를 받기 위하여 다른 의사들을 부른다. 그리고 훈련사들은 그들 자신이 훈련하기 위해서는 다른 훈련사들의 지도를 받는다. 이것은 모두 그들이 그들 자신의 경우를 판단할 경우에는 그들 자신의 감정의 영향하에 놓이게 되므로 진정한 판단을 할 수 없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정의를 구하려면 중립적인 권리를 찾아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런데 법이 바로 중립적인 권위인 것이다.
- 9. 그러나 불문(不文) 관습에 기초를 둔 법이야말로 성문법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가지며, 또한 더욱 중요한 문제에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이것은 사람에 의한 지배가 성문법에 의한 지배보다 설혹 더 안전하다고 할지라도 불문법의 지배보다 더 안전하지는 않다는 것을 암시하여 준다.
- 한 사람의 지배에 대하여 반대해야 할 또 한 가지의 이유는, 지배자 한 사람이 동시에 여러 가지 일에 대하여 두루 관심을 집중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지배자는 그를 도와줄 여러 관리들을 임명할 필요가 생길 것이다. 그러나 이 관리들을 처음부터 갖고 있는 것과 후에 한 사람의 선택에 의하여 임명되도록 하는 것사이에 어떤 진정한 차이가 있단 말인가?
- 10. 이 논의를 끝맺기 위해 이미 언급한 요점 하나를 첨가한다. 만약 어떤 좋은 사람이 그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낫다는 근거에서 남을 다스릴 권위를 갖는 것이 정당 하다면, 좋은 사람이 둘이 있다면 하나가 있는 것보다 더 나을 것이다. 이것을

호메로스는 시로 읊고 있다. 두 사람이 함께 가는데, 한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앞서 본다. 또한 호메로스는 아가멤논의 입을 빌어 다음과 같이 기원을 빈다.

네스토르(Nestor)처럼 나도 열 명의 고문이 있었으면.

오늘날에 있어서도 우리들은 많은 관리를 갖고 있다. 예를 들어, 판사는 법이 판결하기 어려운 일정한 문제들의 판결을 내리는 권한을 갖고 있는데, 그의 판결권은 그러한 문제들에만 국한된다. 왜냐하면 아무도 법이 법률로 다룰 수 있는 문제들에 관해서는 최선의 지배자이며 최선의 판사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기 때문이다. 11. 법이 모든 문제를 모두 포괄할 수 없고, 또 법 영역 내에 포함될 수 없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들이 생길 수 있으며 『최선의 법의 지배가 나은가, 최선의 사람의 지배가 나은가?』 하는 문제가 논의되게 되는 것이다. 세심한 심사숙고의 영역에 속하는 세부 사항들은 명백하게 법으로 규정할 수 없는 문제들이다. 법의 지배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그러한 문제들이 사람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한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다만 그런 문제들은 한 사람보다 여러 사람이 판단하는 것이 더 좋다고 주장한다는 것이다.

- 12. 법의 훈련을 받은 관직에 있는 사람 모두는 좋은 판단을 할 것이다. 그리고 한 사람이 여러 사람보다 더 잘 보고, 더 잘 판단하며, 더 잘 행동한다는 것은 언어도 단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감각기능이나 사지(四肢)는 제한되어 있는 반면에, 여러 사람들은 그만큼 많은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왕들은 자기 개인의 개인적인 친구나 정치적 지지자들을 동료로서 사용하여 그들의 눈, 귀, 코, 그리고 사지를 자기 것처럼 사용하는 것이다.
- 13. 왕의 동료들은 그의 친구임에 틀림없다. 만약 친구가 아니라면 왕의 정책을 좇아서 행동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그들이 그의 개인적인 친구거나 정치적인 지지자이거나 간에 그들은 또한 동등하며 평등한 사람일 것이다. 사람들의 친구는 다 동등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의 친구들이 관직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함

으로써, 그는 또한 그와 동등하며 평등한 사람들이 관직을 가져야 한다고 믿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것들이 왕정의 원칙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요지인 것이다.

## 제17장

- 1. 그러나 이러한 주장들은 부분적으로만 진실이다. 즉 어떤 사회들에 적용될 때만 진실이며 달리 적용될 때는 진실이 아니다. 어떤 종류의 사회는 그 성격상 전제적 형태의 지배를 받아야 하며, 다른 종류의 사회는 왕이 다스려야 하며, 또 어떤 종 류의 사회는 입헌적인 통치를 해야 한다. 그리고 이 사회들이 각기 자기에게 맞게 통치 받는 것이 올바르며 또한 편리하기도 한 것이다. (그러나 본질상 폭군정치나, 혹은 나쁜 또는 왜곡된 형태의 정치질서에 의하여 통치 받아야 하는 사회는 하나도 없다. 그러한 형태의 지배하에 있는 사회들은 비자연적인 상태에 떨어진 것이다.)
- 2. 위에 언급한 것은, 그 구성원이 동등하고 또한 평등한 집단에 있어서는 (1288a) 한 사람이 모든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절대적인 권위를 갖는다는 것이 정당하지도 편의적이지도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에 충분하다. 이것은 1인 그 자신의 법으로 지배함으로써 여러 법이 있건 없건 간에 마찬가지로 진실이며, 또는 지배하는 1인이좋은 사람으로서 역시 좋은 사람들을 다스리거나 혹은 나쁜 사람으로서 나쁜 사람을 다스리거나 간에 역시 진실이다. 이것은 또한 그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선의 우월함이 특별한 성격을 띤 것이 아닌 한, 그 사람이 선에 있어서 타인에 대하여 우월할 때도 역시 진실이다.
- **3.** 이제 우리는 그 특별한 성격이란 무엇인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그렇지만 사실은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이미 이전에 설명되었다.  $^{10}$
- 우리는 먼저, 어떤 종류의 집단이 왕정과 귀족정치, 입헌적인 정부에 각각 적절한 가를 결정하지 않으면 안된다.
- 4. 왕정에 적절한 사회는 자연적으로 정치적 지도능력이 뛰어난 특별한 종류의 사람, 혹은 가족을 산출해 내는 경향이 있는 그러한 종류의 사회다. 귀족정치에 적절

한 사회는 자연적으로 자유민에게 적절한 방식으로 정치적 지배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에 의하여 통치를 받을 수 있는 집단의 사람들을 산출해 내기 쉬운 사회이다. 입헌적 정부에 적절한 사회는 자연적으로 부유한 사람들 사이에, 자질과 공적에 따라서 관직을 배분하는 법체제하에서 통치를 할 수도 있고 통치를 받을 수도 있으며 군사적 능력을 갖고 있는 한 집단의 사람들이 존재하는 사회이다.

- 5. 가족 전체, 혹은 한 사람일지라도 다른 모든 사람들을 능가할 만큼 뛰어난 자질을 갖고 있는 경우에, 이 가족에게 왕권과 절대적 권위를 부여하거나, 혹은 이 한 사람을 왕으로 삼는 것이 올바를 것이다.
- 6. 그러나 문제는 단지 무엇이 올바르냐 하는 것뿐만은 아니다. 정의(正義)는, 어떠한 형태의 정치질서를 확립하거나 간에, 즉 그것이 귀족정치이거나 과두정치이거나 또는 민주정치이거나 간에 보통 그 근거로서 인용된다. 이 모든 형태의 정치에 있어서 항상 어떤 종류의 우수성을 인정하여 주는 것이 정의가 요구하는 바라고 주장한다. 그렇지만 이 주장되는 정의의 종류는 정부형태에 따라서 서로 다르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위에서 언급할 필요성을 느꼈던 특별한 근거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 적절한가 하는 것이다.
- 7. 뛰어나게 우월한 사람을 처형하거나, 영구히 추방하거나, 혹은 패각추방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망명하도록 하는 것은 분명히 적절치 못한 일일 것이다. 또한 그에게 윤번제 관직 담당 체제하에서 남에게 차례를 따라 지배를 받도록 요구하는 것도 적절치 못한 일일 것이다. 본질적으로 전체는 부분보다 결코 열등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아주 우월한 사람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는, 전체와 그 전체의 부분들과의 관계와도 같다.
- 8. 이제 남은 한 가지 길은, 그는 복종을 받아야 하며, 임기에 관계없이—즉 다른 사람과 교대함이 없이—주권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 이것으로써 왕정에 대한 우리들의 결론을 내린 셈이며, 또한 아래의 세 문제에 대
- **10.** 제13장 13, 14~15 참조

한 답변도 되는 셈이다—즉 왕정의 여러 다른 형태는 어떠한 것들인가? 그것은 국가들에 유리한가, 유리하지 못한가? 만약 유리하다면 어떤 국가들에게, 그리고 어떤 조건들하에서 유리한 것인가?

## 제18장

1. 우리는 올바른 정치질서에는 세 가지 형태가 있으며, 이들 중에 최선의 것은 최선의 사람들에 의하여 통치 받는 것이 틀림없다고 규정하였다. 이것은 1인, 한 가족 전체, 혹은 여러 명의 사람들이 모든 다른 사람들보다 선에 있어서 탁월하지만, 지배자나 피지배자 모두 그들의 역할을 수행하기에 적합해서 최고로 바람직한 생활방식을 이룩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이다. 우리들의 연구의 벽두에서 우리는 또한 좋은 사람으로서의 선과 최선 국가의 좋은 시민으로서의 선이 꼭 같은 것임을 밝혀내었다. 따라서 사람이 선을 달성하는 것과 꼭 같은 방식과 수단을 사용하여 (1288b) 귀족정치나 왕정의 유형을 따른 국가를 건설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그리하여 좋은 사람을 만드는 훈련과 행동의 관습은 일반적으로 훌륭한 정치가나 훌륭한 왕을 만드는 훈련과 행동의 관습과 동일하게 될 것이다.

2.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었으므로 우리는 다음에 『어떠한 조건하에서 최선의 정치질서 형태가 나올 가능성이 많으며, 또한 그것은 어떻게 설립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제기하여, 최선의 정치질서 형태를 다루도록 해 보아야 한다. 이 문제를 제대로 연구하기 위해서는 가장 소망스런 생활양식의 성격을 결정함으로써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sup>11</sup>

11. 제3권의 말(末)은 이렇게 끝이 나는데, 여기에서 미완성으로 끝나는 문장만은 적어도 제7권의 시작에서 다시 나온다. 이 때문에 오랫동안 학자들 사이에서 이 저술 원고의 올바른 순서의 문제가 숙제가되어왔는데, 즉 본래의 원고 순서대로 하지 않고 제7권과 제8권이 제3권의 뒤에 이어져 나와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 것이다. 이 번역에서는 본래 원고의 순서에 따랐다.



실제적 헌정질서와 그 변형



# 제1장

(1288b10) 1. 모든 실제적인 학문과 기술에 있어서, 세부적인 문제의 연구에 집착하지 않고 분야 전반을 포괄적으로 연구할 때, 모든 실제적인 학문과 기술에 적용되는 규칙이 있다. 이들은 각각 자기 주제의 범주에 적합한 서로 다른 방법을 생각해내야 한다. 예를 들어, 육체적 훈련의 기술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야 한다. (1) 어떤 형태의 체질(體質)에 어떤 형태의 훈련 방법이 적합한가. (2) 이상적인 훈련의 방법은 어떤 것인가? 즉 가장 좋은 체구를 타고난 사람을 위한 최선의 훈련방법과 최선 장비(왜냐하면 이상적인 훈련 방법이란 그러한 체격을 타고난 사람을위한 훈련 방법임에 틀림없기 때문이다)는 무엇인가? (3) 대부분의 보통 체격을 가진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훈련의 형태는 무엇인가? 왜냐하면 그것도 또한 육체적 훈련의 기술에 의하여 해결되어야 할 문제들 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 2.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4) 육체적인 훈련을 하기는 원하면서도, 경기에 필요한 수준의 기술과 조건을 달성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이런 경우에 훈련사와 체육교사는 또 다른 의무가 있는데, 그것은 그러한 사람이 바라는 정도의 능력의 수준을 갖도록 해주는 것이다. 육체 훈련 기술에 있어서 사실인 것은 명백하게 의술·조선·재단술, 그리고 모든 다른 기술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사실이다.
- 3. 이 결과 정치학의 연구도 마찬가지로 포괄적이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첫째, 정치학의 연구는 최선의 정치질서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고려하고, 정치질서가 이상적 상태에 접근하는 것을 방해하는 외적 요소가 없는 경우 이상적인 상태에 가깝게 가려면 어떠한 성질들을 갖고 있어야 하는가 하는 점을 고찰하지 않으면 안된다. 둘째로, 정치학은 어떠한 종류의 시민체에, 어떠한 종류의 정치질서가 알맞은가 하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최선의 정치질서는 일반적인 국가 운영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것이다. 그러므로 좋은 입법자와 진정 정치인은 무엇이 절대적으로 최선의 것인가 하는 것뿐만 아니라, 현실적 조건하에서 최선의 것은 무엇인가 하는 점에 관해서도 주의를 기울여야만 한다.

- 4. 셋째로, 정치학은 또한 어떤 가설에 기초를 두고 있는 그러한 종류의 정치질서를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 바꿔 말하면, 정치학을 연구하는 학자는, 있는 그대로 일정한 주어진 정치질서를 연구하여 그것이 어떻게 발생했으며 그것이 어떻게 하면 가장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는가를 연구할 수 있어야만 한다. 우리들이 생각할수 있는 경우로는, 어떤 나라가 이상적으로 최선의 정치질서를 갖고 있지도 않고 (혹은 이상적인 질서의 기본적 필요조건조차도 갖고 있지 않고), 주어진 조건하에서 가능한 최선의 정치질서도 갖고 있지 못하며, 단지 열등한 형태의 정치질서만을 갖고 있는 경우이다.
- 5. 넷째로, 이 모든 기능 이외에 정치학은 또한 국가들 일반에 가장 적합한 형태의 정치질서에 관한 지식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정치의 문제를 취급하는 대부분의 저술가들이—다른 면에 있어서는 훌륭함에도 불구하고—실제적인 효용의 문제들을 취급하는 것에 있어서는 실패하고 만다.
- 6. 우리는 이상적으로 최선의 정치질서를 공부하는 것으로만 족하지 않다. 우리는 또한 실제로 시행 가능한 형태의 정치질서를 연구하지 않으면 안되며, 그와 함께 국가들에게 일반적으로 가장 적합하며 운영하기에 가장 쉬운 형태의 정치질서도 마찬가지로 연구해야 한다. 실제로 저술가들은 두 가지 계층으로 나누어진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연구를 최고의 완성된 형태에만 국한시키는데, 이것은 애초에 많은 유리한 조건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실제로 할 수 있는 형태에 관한 연구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정치질서들은 일반적으로 연구하지 않고 단순히 스파르타적 혹은 어떤 다른 주어진 정치질서를 찬양하는 데 그친다. (1289a) 7. 우리가 제안해야 하는 정치질서 체제는,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으며 기존의 체제에 쉽게 이식시킬 수 있는 그러한 종류의 것이어야 한다. 기존 정치질서를 개혁하는 것은 새로운 정치질서를 건설하는 것만큼 어려운 문제이며, 이 것은 마치 어떤 교훈을 처음에 배우는 것이 후에 이것을 잊어버리는 것만큼 어려운 문제들에만 관하여 관심을 국한하지 말고, 이전에 말한 바와 같이 어떤 기존 한 법을 개선할 수도 있어야 한다.

- 8. 그렇게 하려면 세상에 정치질서가 몇 가지 종류나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실제 로는 사람들은 민주정치나 과두정치에는 한 가지 종류만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 은 잘못이다. 이 잘못을 피하기 위하여 우리는 각 정치질서의 여러 다른 변형을 새 겨두지 않으면 안된다.
- 우리들은 그 변형이 몇 개나 있으며, 또한 그들이 구성되는 상이한 방법이 몇 개나 있는지 알고 있어야 한다.
- 9. 정치학자들은 또한 법의 분야에 있어서도 꼭 같이 서로 다른 경우를 구별하려고 노력해야 하며, 절대적으로 최선인 법률과 각 정치질서에 적절한 법률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 우리가 〈각 정치질서에 적합하다〉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은, 법률들이 정치질서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져야지(실제에 있어서도 항상 그러하다), 정치질서가 법들에 맞도록 만들어질 수는 없기 때문이다.
- 10.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헌정질서란 『국가에 있어서 관직의 조직이며, 관직의 배분의 방법을 결정하고, 최고 권위를 정하며, 그 정치공동체와 구성원들 모두가 추구해야 하는 목적의 성격을 규정하여 놓은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법은 헌정 질서의 구조와 구별되는 것으로서, 관리들이 그들의 권한을 행사하며, 법률을 위반하는 자를 감시하고 제재하는 규칙을 말한다.
- 11. 법과 헌정질서의 관계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항상 각 헌정질서의 여러 변형과 그 변형의 수를 염두에 두어야 하는데, 그것은 각 정치질서에 적절한 법률들을 시행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민주정치, 혹은 독재정치에 한 가지 형태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양쪽 모두 여러 변형이 있다고 상정하는 경우에, 꼭 같은 법률들이 모든 과두정치들과 모든 민주정치들에 꼭 같이 유익할수는 없다.

# 제2장

1. 처음에 우리가 정치질서들에 관하여 논의할 때, 우리는 올바른 정치질서의 세 가지 형태를 구별했으며(즉 왕정·귀족정치, 그리고〈혼합정치〉), 또한 이 형태들

- 에 상응하는 세 가지 왜곡된 정치질서를 구별했다 (즉 폭군정치는 왕정의 왜곡이 고, 과두정치는 귀족정치의 왜곡이며, 민주정치는 〈혼합정치〉의 왜곡이다). 이 중에서 귀족정치와 왕정은 이미 고찰했다. 이상적 정치질서를 고찰한다는 것은 결국여기 말한 두 가지 정치질서를 고찰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두 이상적 정치질서와 같이 근본이 선이며 선을 실행하기 위한 필요한 수단들이 적절하게 갖추어진 사회를 목표로 하기 때문이다. 앞 구절에서 우리는 또한 귀족정치와 왕정 사이의 차이점의 성격을 정의했으며, 언제, 그리고 어디에서 왕정이 설립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였다. 따라서 이제 아래의 두 문제만 논의하면 될 것이다. (1) 모든 정치질서 혹은 헌정에 공통된 총칭으로서 불리어지는 〈혼합정치〉, (2) 과두정치, 민주정치, 그리고 폭군정치.
- 2. 이들 왜곡된 형태들 중에 어느 것이 최악의 것이며, 어느 것이 그 다음으로 나쁜가 하는 것은 명백하다. 첫째의 것, 즉 올바른 정치질서 중에서 가장 완벽한 것의 왜곡된 형태가 필연적으로 최악의 것임에 틀림없다. 왕정은 (1289b) 내용이 없이 단순한 이름에 불과하든가, 아니면 왕에게 위대한 개인적 우월성의 기초를 두어야 한다. 따라서 폭군정치는 최악의 것이며, 모든 왜곡된 정치질서들 중에서 진정한 정치질서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다. 과두정치는 귀족정치로부터 멀리 이탈한 것으로서 그 다음으로 나쁘다. 민주정치는 이 중에서 나쁜 정도가 제일 덜한 것이다.
- 3. 플라톤은 그의 《폴리티코스(Politikos)》에서 이미 같은 견해를 피력하였지만 그는 다른 원칙을 사용한 것이다. 그의 원칙에 의하면, 모든 정치질서는 나쁜 형태뿐만 아니라 좋은 형태를 가질 수 있다. 예를 들어 과두정치는 좋을 수도 있고 나쁠수도 있다. 이러한 원칙에 의하여 그는 민주정치의 좋은 형태를 좋은 형태의 정치질서 중에서는 최악의 것으로 등급을 매겼으며, 민주정치의 나쁜 형태를 나쁜 형태의 정치질서 중에는 최선의 것으로 규정하였다. 우리들의 견해는 이 두 정치질서가 어떤 형태를 취하건 간에 잘못이라는 것이다. 어떤 형태의 과두정치가 다른 형태의 과두정치보다 더 좋다 하고 말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우리는 그저 한 형태의 과두정치가 다른 형태의 과두정치만큼 나쁘지는 않다고 말할 수 있을 뿐이다.

- 4. 그러나 지금 좋은 순서대로 정치질서들의 등급을 매기는 문제는 잊기로 하자. 우리는 먼저 민주정치와 과두정치가 각각 여러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가정 위에서 각 정치질서의 형태의 변형들을 구별하고 열거해 보아야 한다. 둘째로, 어떤 형태의 정치질서가—이상적이지는 못하지만—가장 일반적으로 타당하며 좋은 가 고찰해 보아야 하며, 여기에서, 이 일반적 형태의 정치질서 이외에, 좀 더 귀족 정치적이며 잘 구성된 성격을 갖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채택하기에 적합한 어떤 다른 정치질서를 찾아낼 수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 5. 셋째로, 일반적으로 정치질서에 관련하여, 어떤 주권체에 어떤 정치질서가 바람직한가를 연구해야 한다. 예를 들어, 어떤 종류의 주권체에는 과두정치보다 민주정치가 필요할 것이며, 다른 종류의 주권체에는 민주정치보다 과두정치가 필요할 것이다. 넷째로, 이러한 여러 정치질서들을 설립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일에 착수해야 하는지를 고찰해 보아야 한다—즉 민주정치와 과두정치의 서로 다른 변형들을 이룩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 6. 다섯째로, 이러한 주제들에 관하여 우리의 능력이 닿는 한 간략히 설명한 후에 우리는 최종 문제를 다루려고 노력해야 한다. 정치질서 일반 또는 개별적으로 각 정치질서가 어떻게 파괴되는가, 그들은 어떻게 하면 유지될 수 있는가, 특별히 이러한 결과를 산출해 내는 경향이 있는 원인들은 무엇인가?

## 제3장

- 1. 왜 여러 가지로 다른 정치질서들이 있는가 하는 이유는 모든 국가가 각기 서로 다른 부분들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모든 국가는 분명히 여러 가족으로 구성되어 있다. 둘째로, 이 가족들의 집합은 여러 계급으로 나누어져 있다—즉 부유한계급, 가난한계급 중산계급으로 나뉘는데, 부자는 군인의 중장비를 소유하며 빈자는 그것을 소유하고 있지 못하다. 1
- 1. 고대 그리스의 군대는 철갑 투구를 자체 조달 할 수 있는 시민군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 2. 셋째로, 평민들은 여러 직업들, 즉 농업·상업·기계공예들에 종사하고 있다. 넷째로, 저명인사들 사이에도 차이점이 있는데, 즉 부와 재산의 양에 따른 차이점은, 예를 들어 말을 갖고 있는 것 같은 데에서 드러난다. 매우 부유한 사람만이 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 3. (그런데 이 이유 때문에 옛날 군대의 주력이 기병인 나라들은 과두정치의 본고 장이었다. 이 과두정치의 나라들은 인접국들과의 전쟁에 기병을 사용하였다. 에 우보이아(Euboia)섬에 있는 에레트리아(Eretria)와 칼키스, 그리고 마이안드로스 (Maiandros)에 있는 마그네시아, 소아시아의 많은 다른 도시국가들이 그 예이다.) 4. 저명한 사람들 간에, 부(富) 이외에도 다른 차이점들이 있다. 출신의 차이, 자질의 차이가 있으며, (1290a) 또 같은 종류의 다른 요소들에 근거를 둔 다른 차이점들도 있다. 이러한 요소들은 우리가 귀족정치를 논의하면서 모든 국가 생활에서 필요한 요소들을 구별하고 열거할 때에 국가의 부분들이라고 기술한 것들이다. 국가는 이러한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다. 어떤 때에는 이 부분들이 모두 헌정질서
- 의 통제에 참여하며 어떤 때에는 그 둘 중의 몇몇만이 참여하며, 또 어떤 때는 그들 중에 많은 요소가 참여한다.
- 5. 따라서 명백히 서로 종류가 다른 여러 정치질서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 정치질 서들을 통제하는 데 참여하는 부분들은 서로 그 종류가 다르며 따라서 그들은 서로 달라야 한다. 헌정질서란 국가의 관직들에 관한 조직이다. 이 조직에 의거하여 시민체는 관직을 배분하는데, 이 배분의 기준은 관직을 받는 사람들의 권력이거나, 또는 관직을 받는 사람들 모두에게 존재하는 일종의 평등이다. (위에서 권력이란 부자로서의 권력 혹은 가난한 자의 힘을 말하며, 평등이 기준인 경우에는 부자와 반자 양측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평등을 뜻한다.)
- 6. 따라서 국가의 여러 부분들의 차이점, 또는 우수성에 따라 관직의 배분을 조직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는 수만큼 많은 헌정질서가 있을 수 있다.

사실은 헌정질서에는 두 가지 종류밖에 없다는 의견이 흔히 있다. 보통 말을 할 때 모든 바람들을 대략 남풍과 북풍으로만 표현하고 방향이 다른 모든 바람들을 이 양자의 변형으로서만 취급하는 것처럼, 정치질서도 민주적 혹은 과두정치적이라 고만 표현한다.

- 7. 이러한 근거 위에서 귀족정치는 과두정치의 일종이라고 분류하여 과두정치의 범주 속에 넣어 버리며, 마찬가지로 〈혼합정치〉라고 불리는 정치질서는 민주정치의 범주로 분류하여 버리고 만다. 이것은 마치 서풍을 북풍의 하나로 분류하고 동풍을 남풍의 하나로 분류하는 것과 같다. 어떤 사람들은 음악의 형식에 있어서도꼭 같이 양분법이 사용된다고 생각한다. 즉 모든 음악은 도리아(Doria) 형식이거나 아니면 프리기아(Phrygia) 형식이라고 기술되어지며, 모든 다른 형식은 이두가지 중에 어느 한 가지라고 불리어진다.
- 8. 그러나 이것이 현재로서는 정치질서에 관한 지배적인 견해이기는 하지만 우리는 이미 위에서 시사한 것처럼 그들을 다른 기준에서 분류하는 것이 더 좋겠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진리에 더 가깝게 갈 수 있는 것이다. 이 기준 위에서, 우리는 한두 개의 〈올바른〉혹은 제대로 구성된 헌정질서를 가려낼 것이다. 다른 모든 것들은 최선의 질서의 왜곡이다. (이것은 마치 음악에 있어서, 제대로 맞추어진 형식의 왜곡된 모습을 갖는 것과 같다.) 이러한 왜곡된 형태들은 정상보다 더 엄격하고 지배적인 경우에 과두정치적으로 되며, 부드럽고 좀 느슨해질 때에는 민주정치적으로 된다.

#### 제4장

- 1. 오늘날 어떤 학자들은, 민주정치를 다수가 최고의 권위를 갖는 현정의 형태라고, 아무런 조건도 없이 바로 정의하여 버리고 마는데, 이것은 옳지 못한 것이다. 과두정치에 있어서도—그리고 사실상 모든 정치질서에 있어서—다수가 항상 최고의 권위를 갖는다. 마찬가지로 과두정치도 소수가 최고의 헌정적 권위를 갖는 형태라고 단순히 정의하여 버릴 수는 없다.
- 2. 전체 인구가 1천 3백 명인데 그 중에 1천 명이 부유한 사람이라고 가정해 보자. 이 1천 명이, 나머지 3백 명의 가난한 사람들이 자유민의 태생이며 그래서 부 이외 에는 자기들과 동등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아무 관직도 주지 않는 경우를 가정

해 보자. 여기에 민주정치가 있다고 아무도 말할 수 없을 것이다.

- 3. 혹은 가난한 사람이 소수임에도 불구하고 다수인 부자들보다 더 강력한 경우를 상상해 보자. 부(富)를 소유하고 있는 다수가 명예나 관직에 참여할 수 없는 그러한 정치질서를 아무도 과두정치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자유민이 최고의 권위를 갖는 경우에는 항상 민주정치이고, (1290b) 부자가 권력을 쥐고 있는 경우는 항상 과두정치라고 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 4. 실제로는 전자는 수가 많고 후자는 수가 적다. 즉 자유민으로 태어난 사람은 많지만 부자인 사람은 적다. 그렇지 않고 수만이 문제가 되어, 키의 크기에 따라 관직을 배분한다면 (이디오피아에서는 그렇게 한다고 한다), 혹은 얼굴 생김에 따라관직을 맡는다면 과두정치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키가 크거나 잘생긴 사람은 항상 소수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 5. 그렇지만 민주정치와 과두정치를 빈부의 기준에만 의거하여 구별하는 것은 충분하지 못하다. 이것은 수에만 따라 구별하는 것 이상으로 좋지 못하다. 우리는 민주정치 국가나 과두정치 국가가 모두 다른 많은 부분으로 이루어 졌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그들을 적절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다른 기준들을 사용하지 않으면 안된다. 예를 들어서, 소수의 자유민 출신이 다수의 비자유민 출신을 다스리는 정치질서에 민주정치라는 용어를 적용할 수 없다. (이러한 종류의 체제가 한 때 이오니아 만에 있는 아폴로니아(Apollonia)와 테라(Thera)에 있었다. 이두 경우에 있어서 모두 가문이 제일 좋은 사람들만이—그것은, 즉 본래 정착민들의 후예라는 뜻이다—모든 명예와 관직을 독점하였는데 이들은 전체 인구 중의 극소수에 불과하였다.) 또한 부자들이 단지 가난한 사람들보다 수가 많다는 이유 하나 만으로 최고의 권위를 갖는 정치질서에도, 과두정치라는 용어를 적용할 수가 없다.(그러한 정치질서의 예가 이전에 콜로폰(Kolophon)에 있었는데, 거기에서는 리디아(Lydia)와의 전쟁 이전에 시민들의 대다수가 큰 재산의 소유자였다.)
- 6. 〈민주정치〉라는 용어는 자유민 출신이며 가난한 자들이—동시에 다수이어서— 정부 통제하는 정치질서에만 제대로 적용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과두정치〉라는 말은, 가문이 좋고 부유한 사람들이—동시에 소수여

서—정부를 통제하는 정치질서에만 제대로 적용될 수 있다.

- 7.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의 정치질서가 있다는 일반적인 사실과 그 사실의 원인은 이제 입증되었다. 다음으로는 이제 막 언급한 두 가지 정치질서 이외에 어찌하여 더 많은 정치질서들이 있으며, 그것들의 성격은 어떠하며, 그것들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점을 설명하는 일이 남았다. 그렇게 함에 있어서 우리는 위에 이미 언급한, 모든 국가는 단일 단체가 아니며 여러 부분들로 이루어졌다는 원칙을 전제로 하여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
- 8. 여기서 생물학적 비유를 들어 보자. 만일 우리가 여러 다른 종류의 동물들을 분류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면, 모든 동물에 있어서 필요한 기관들과 부분들을 열거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예를 들어, 여기에는 감각기관들, 또는 입이나 위 같은 음식을 섭취하고 소화하는 기관들, 그리고 여러 짐승들이 사용하는 운동을 위한 기관들도 포함될 것이다. 그 다음으로 우리는 필요한 기관들을 모두 열거했다고 전제를 하고, 이들 기관에는 여러 형태가 있다고 또 하나의 상정을 할 것이다—즉, 다른 말로 하면 입·위·감각기관·운동기관들에는 모두 여러 다른 종류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이 여러 형태들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결합되어서여러 가지 서로 다른 동물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같은 종류의 동물이 입, 혹은 귀 등에 있어서 여러 다른 변형을 갖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여러 변형들의 가능한 결합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으므로 여러 가지 동물이 있게 된다. 혹은 다른 말로 하면, 동물의 종류 혹은 수는 필요한 기관들의 가능한 결합 방식의 수와 같게 될 것이다.
- 9. 앞에서 언급한 정치질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우리가 여러 차례 고찰한 바와 마찬가지로, 국가들도 한 부분이 아니라 여러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부분들 중의 하나는 식량의 생산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집단인데, 이들은 농부계급이라고 불린다. 둘째 부분은 기계공의 계급으로서 (1291a) 도시국가에 반드시 필요한 여러 가지 기술공예에 종사하는데, 그들 중에 어떤 것은 생활필수품들을 만드는 것이고, 또 어떤 것은 사치품 혹은 좋은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물품들을 만드는 것이다.

- 10. 셋째 부분은 상업계급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여기에는 상인이나 혹은 소매상 들로서 매매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을 포함한다. 넷째 부분은 농업 노동자들로서 구성된 농노 계급이며, 다섯째의 요소는 군대인데, 이 요소도 국가가 외적(外敵)의 노예가 되지 않으려면 위의 네 요소에 못지않게 필요한 것이다.
- 11. 그 본성이 자연적으로 굴종적인 사회를 어떻게 정당하게 국가라는 이름으로 부를 수 있겠는가? 국가의 본질은 독립과 자급자족이다. 그리고 노예의 표지는 독립성의 결여이다. 우리는 여기서 잠깐 이것이 플라톤의 《국가》에서 제시한 국가의 구성 부분에 관한 설명이 독창적이긴 하지만 적합하지 못한 것이라는 이유임을 주목하는 것이 좋겠다.
- 12.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네 요소는 직조자·농부·구두장이·건축가라는 것으로 그 이론의 시발점을 삼았다. 그 다음에 그는 이 네 가지 요소가 자급자족적이 아니라는 근거 위에서 또 다른 부분들을 첨가하는데, 이들은 대장장이, 필요한 가축을 돌보는 목축업자, 상인, 그리고 소매상들이다. 이들이 그가 묘사한 〈최고의 국가〉의 전체를 구성하는 부분들이다. 그런데 이것은 마치 국가가 선(善)을 달성하기 위해서 라기보다 생활필수품의 공급을 위하여 존재한다고 하는 것 같고, 또한 국가에 농부가 필요한 만큼 구두장이도 필요하다고 하는 것과 같다.
- 13. 국방력이 되는 요소는, 후에 가서 도시의 영역이 증가하여 이웃나라의 영토와 접촉이 생기고, 그 결과 전쟁이 일어나기까지에는 언급되지 않는다. 애초의 네 가지 요소는—또는 공통체를 구성하는 요소의 수가 몇이건 간에—정의를 시행하며, 무엇이 올바른가를 결정하여 주는 어떤 권위체를 필요로 할 것이다.
- 14. 만약 생물에 있어서 정신이 육체보다 더 근본적인 요소라고 친다면, 국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인체의 정신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육체적 욕망에 해당하는 부분보다 더 근본적인 요소로 간주되어야 한다. 국가에 있어서 정신에 해당하는 부분이란 군대, 정의의 법적 조직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정치적 이해의 재능을 필요로 하는 기능인 의회에 종사하는 부분 등을 의미한다.
- 15. 이 세 가지 기능들이—즉 전쟁 · 정의, 그리고 심의(審議)—서로 다른 범주에 속

하는지 혹은 단 하나의 범주에 속하는지 하는 것은 우리의 논의에 아무 관계도 없는 문제이다. 흔히 동일인이 군인으로서 복무하기도 하며, 동시에 농지를 경작하기도 한다. 따라서 우리는 만약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국가의 육체적인 필요를 공급하여 주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국가의 부분이라고 한다면, 그들이, 혹은 적어도 군대가, 필요한 부분이라는 일반적인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다. 국가의 일곱째 부분은 부자들의 집단인데, 이들은 그들의 재산으로 국가에 봉사한다.

- **16.** 여덟째 부분은 관리들로서 관직을 맡아 국가에 봉사하는 사람들이다. 정부가 없이는 어떤 국가도 존재할 수 없는 것이며, 따라서 영구히 혹은 차례대로, 국가에 이러한 봉사를 하고 관직에서 오는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
- 17. 그 다음으로는 이제 막 언급한 두 가지 요소만이 남았는데, 즉 심의의 기능을 맡은 부분과 소송자들의 권리를 결정해 주는 부분이다.
- 이들은 어떤 국가에도 존재해야 하며, 또한 선하고 올바른 근거 위에서 존재해야 하는 부분들이다. 따라서 정치의 분야에 있어서는 (1291b) 좋은 자질의 사람이 필요하다.
- 18. 우리는 여기서 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다른 요소들에 속하는 상이한 능력들을 동일인 또는 동일집단의 사람들이 보여준다고 일반적으로 주장되고 있다. 예를 들어 똑같은 사람들이 병사·농부, 그리고 장인의 역할을 하며, 또한 동일한 사람들이 의회에서 심의의 역할을 하고 동시에 법정에서 사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한다. 또한 모든 사람이 스스로가 정치적인 능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며, 누구나 대부분의 관직을 맡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한 가지 불가능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동일한 사람이 동시에 부자이며 가난한 자일 수는 없다는 것이다.
- 19. 이렇게 보면, 이 두 계급—즉 부자와 빈자가—이 어떻게 해서 특별한 그리고 독특한 의미에서 국가의 구성 부분으로서 간주되는지가 설명되는 것이다. 물론 이 것이 전부는 아니다. 이들 계급 중의 하나는 소수이며 다른 계급은 다수이기 때문에, 이들은 서로 반대되는 부분들로 보인다. 이러한 이유로 그들은 정치질서를 자기들 계급의 이익에 알맞도록 구성하는 것이다. 또한 같은 이유로 사람들은 세상

- 에는 두 가지의 정치질서, 즉 민주정치와 과두정치만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 20. 세상에는 이미 여러 정치질서가 있다는 사실과 그러한 사실에는 원인들이 있다는 것이 확실하게 되었다. 우리는 이제 이 두 가지 정치질서 즉 민주정치와 과두 정치에는 또한 여러 변형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야겠다. 이것은 이미 위에 말한 바에서 명백하게 되었다.
- 21. 이들 정치질서들이 서로 다른 것은 일반 평민과 저명인사들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일반 평민들에 관한 한, 일부는 농사를 짓고, 둘째 부류는 기술과 장인의 일을 하고, 셋째 부류는 물품을 매매하는 시장 일을 보며, 넷째 부류는 해양에 관계되는 일을 하는데, 이 안에는 또다시 해군과 해운업, 어업과 나룻배 일 등 여러 종류가 있다. (이렇게 세분화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인구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곳도 많다. 예를 들어서 타라스(Taras)와 비잔티움(Byzantium)에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나, 아테나이의 해군들, 아이기나(Aigina)와 키오스의 상선 선원들, 테네도스(Tenedos)의 사공들이 그러하다. 다섯째 부류는 미숙련 노동자들과, 너무 가난해서 여가를 전연 즐길 수 없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여섯째는 부모 중의 하나라도 자유민 출신이 아닌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또한 비슷한 성격을 가진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른다
- 22. 저명한 사람들은 부·가문·자질·교양, 그리고 같은 종류의 다른 속성에 따라서 여러 다른 종류로 나누어진다. 민주정치의 첫째 변형은 평등의 원칙을 가장 엄밀하게 추종한다고 하는 것이다. 이 변형에 있어서는 법에 의하여 평등은 빈자가 부자와 마찬가지이며, 양측이 모두 균등하고, 둘 중의 어느 하나도 최고의 권위를 갖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 23. 왜냐하면 만일 우리가 어떤 사상가들처럼, 자유와 평등이 민주정치에서 발견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들이 가장 잘 발견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국 면에서일 것이다. 즉, 모든 사람이 가능한 한 최대한도로 꼭 같이 정치적 권리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러한 종류의 정치질서는 민주정치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평민은 다수이고, 다수의 의사가 최고 권위이기 때문이다.

- 24. 민주정치의 둘째 변형은 재산의 자격 요건 위에서 관직들이 배분 되는 것인데, 그러나 자격 요건의 수준이 낮다. 이 자격을 갖춘 자는 관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그것을 잃어버리는 자는 여기에서 제외된다. 셋째 (1292a) 변형은 자유민 태생으로서 결격 요건이 없는 시민은 모두 관직을 맡을 수 있지만 법이 최고의권위인 형태이다.
- 25. 넷째 변형은 누구나 시민이기만 하면 관직을 맡을 수 있지만 역시 최고의 권위는 법인 형태이다. 민주정치의 다섯째 변형은 시민의 신분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을 관직을 맡도록 허용하는 점에 있어서 넷째의 것과 같지만, 여기에 있어서는 법이 아니고 국민이 최종적인 최고 권위를 갖는다. 이것은 법 대신에 대중들이 결정하는 법령이 최고의 권위를 가질 때에 일어난다. 그리고 이것은 대중 선동과 같은형태의 지도자들에 의해 나타난 결과이다.
- 26. 법을 준수하는 민주정치에서는 대중 선동가는 없다. 여기에서는 시민들 중에 훌륭한 사람들이 국정을 맡아 본다. 대중 선동가들은 법률이 최고 권위를 갖지 못하는 국가에서 나온다. 그러면 국민이 독재가가 되는 것이다—즉 많은 구성원으로 만들어진 한 독재체를 이루는데—다수가 개개인으로서가 아니라 집합적으로 최고 권위를 행사한다.
- 27. 호메로스가 『많은 수의 주인의 지배를 받는 것은 좋지 못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즉 다수인 집합적 지배를 뜻하는 것인지, 혹은 개인의 자격으로서 행동하는 여러 관리들의 지배를 뜻하는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그것이 어떻든 간에 이러한 종류의 민주정치는 독재자의 성격을 띠며, 법에 의하여 다스리는 것이 아니므로 곧 독재정치를 하려고 든다. 그것은 정치가 점차로 독재적이 되어가며, 아첨꾼이 명예를 갖게 되고, 1인이 통치하는 폭군정치 형태에 유사하게 된다.
- 28. 이 양자가 모두 비슷한 기질을 보인다. 양자가 모두 훌륭한 시민들에게 독재자들처럼 행동하며, 민주정치에 있어서의 법령이란 폭군정치에 있어서의 칙령과도 같다. 민주정치에 있어 대중 지도자는 폭군정치에 있어서 아첨꾼과 마찬가지이거나 아니면 적어도 그와 비슷하다. 양쪽 경우에 모두 총애를 받는 자들의 영향이 지

배적으로 된다—즉 폭군정치에 있어서는 아첨꾼이, 이것의 변형인 민주정치에 있어서는 대중 지도자가 큰 영향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 29. 대중 지도자들은 모든 문제를 인민의 결정에 돌림으로써, 법치의 지배를 법령의 지배로 대치해 버리고 만 것이다. 일단 모든 문제에 있어서 국민 전체가 최고의권위를 갖도록 하고 나면, 대중 지도자들 자신이 국민의 결정을 좌우하게 된다. 대중은 그저 그들의 지도를 따르게 된다. 이렇게 하여 대중 선동가들의 위치가 튼튼해지는 것이다.
- 30. 그러나 관리들에 대한 비판가도 또한 여기에 책임이 있다. 그들은, 『국민이 결정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국민은 이러한 권유를 민감하게 받아들여서 모든 관리들의 권위는 파괴되고 마는 것이다. 이런 형태의 민주정치가 진정한 헌정질서는 아니라는 견해는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견해로 보인다. 법률이 최고의 권위를 갖지 못하는 곳에 헌정질서는 있을 수 없는 것이다.
- 31. 모든 문제에 있어서 법이 최고의 권위를 가져야 하며, 관리들과 시민체는 구체적 내용에 관해서만 결정해야 한다. 여기에서 나오는 결론은 명백하다. 민주정치도 헌정의 한 형태일지 모르나, 모든 것이 단순히 법령에 의하여 운영되는 이 특정한 체제는 진정한 의미에서 민주정치는 아니다. 법령은 결코 일반적 규칙이 될 수없으며 어떤 진정한 헌정질서도 일반적 규칙에 기초해서는 안된다. 민주정치의 여러 다른 형태와 이 형태들의 정의에 관해서는 이만하기로 한다.

## 제5장

1. 과두정치들 중의 변형의 하나는, 관직을 맡으려면 일정한 재산의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인데, 이때 재산의 자격 요건은, 가난한 자들이—다수임에도 불구하고—헌정적인 권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배제할 만큼 높은 것이지만, 그래도 이 요구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참정권을 주는 것이다. 둘째의 변형은 재산의 자격요건이 (1292b) 높고, 공석의 공직에 대한 선거는 이와 같은 높은 요건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만 실시될 수 있는 것이다.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들 전체로부터 선거가 실시되는 경우에, 이 정치질서는 귀족정치의 방향으로 흐른다고 할 수 있으며, 특권직 집단만이 선거를 하는 경우에는 과두정치라고 할 수 있다.)

- 2. 셋째의 변형은 세습적인 것인데, 자손들이 부친을 승계하는 것이다. 넷째의 변형은 세습제라는 점에서 셋째의 것과 같지만, 여기에서 다른 점은 법치 대신에 개인 지배 체제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과두정치 형태들 중에서 이 변형은 군주정치 중의 폭군정치의 위치에 해당하며, 민주정치들 중에서 최종적으로 언급한 변형에 해당한다. 이러한 종류의 과두정치를 도당(徒黨) 혹은 〈과두적 왕조〉<sup>2</sup> 라고 부른다.
- 3. 민주정치와 과두정치의 몇 가지 변형들은 위에 말한 바와 같다.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는 때때로, 법적으로는 민주정치적이 아닌 헌정질서들이 국민들의 습관과 훈련에 따라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이와 반대로 정치질서가 법적으로는 민주정치적인 성향을 갖게 되어 있으나 국민의 훈련과 관습에 따라 과두정치 쪽으로 기울게 운영되는 경우도 있다.
- 4. 이러한 것은 특히 혁명 후에 일어난다. 시민들은 곧바로 기질을 바꿀 수는 없으며 혁명의 첫 단계에 있어서는 승리한 측이 반대편을 너무 탄압하지 않고 현상을 대부분 그대로 유지하는 것에 만족할 수 있게 된다. 그 결과로 혁명을 일으킨 사람들이 실제로 집권을 하고 있으면서도 예전의 법이 그대로 유효하게 남아 있는 것이다.

<sup>2.</sup> 과두적 왕조 : 원어의 δννασηεια ολιγωον άνδρŵν(소수인에 의한 왕조)에 해당하는 말인데, 과두정 치라기보다 폭군정치에 가까운 정치형태로서 법이나 정치적 정의와는 아무 상관도 없이 그저 몇 개의 강력한 가문들이 공모하여 세습적으로 과두정치적인 통치 형태를 유지하여 가는 것이다.

# 제6장

- 1. 이제까지 논의해 온 바만 미루어 보아도 민주정치와 과두정치에는 이렇게 많은 변형들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증명한 셈이다. 결국 아래 두 가지 중에 어느 하나일 것이다. 즉 위에 언급한 모든 여러 집단의 사람들이 헌정적 권리에 참여하거나, 아니면 그들 중 누구는 참여하고 누구는 참여하지 못하는 것이다.
- 2. 농민계급과 중산계급이 그 정치질서하에서 최고의 권위를 가질 때 그들은 정부를 정치의 원칙하에서 운영한다. 이들은 일을 해서 먹고 살 수는 있지만 여가를 즐길 수는 없으므로, 그들은 법을 최고의 권위로 해놓고 국민회의의 집회는 최소한으로 제한한다. 또한 여타의 국민들도 법에 의해 정해진 재산의 자격 요건을 갖추자마자 헌정적 권리에 참여하도록 허용된다.
- 3. 우리는 일반적으로 모든 시민에게 국정에 참여할 권리를 허용치 않는 체제는 과두정치적이며, 그것을 허용하는 체제는 민주정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어떤 민주정치에 있어서는, 필요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는 시민은 모두 참정권을 허용 받지만 재산이 넉넉치 못하면 정치활동에 필요한 여가를 즐길 수 없다. 이 것이 민주정치의 한 형태이며, 이러한 이유들로 해서 위와 같은 특성이 나오게 된다. 둘째의 형태는 논리적으로 그 다음에 오는 기준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그 기준은 가문이다. 여기에 있어서는 출생에 결격 사유가 없는 사람은 모두 법적으로는 참정권이 있지만, 실제로는 그들이 필요한 여가가 있을 때만 참정권을 행사할수 있게 되는 셈이다.
- 4. 이러한 종류의 민주정치에 있어서는 따라서 법이 최고의 권위를 갖게 되는데, 이것은 사람들에게 정치활동을 할 수 있는 비용을 마련해 줄 세수가 없기 때문이다. 셋째의 형태에 있어서는 자유민으로 태어났다는 한 가지 조건만 구비되면 누구나 헌정적 권리를 가질 수 있지만, 위에서 말한 이유 때문에 실제로는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여기에 있어서도 필연적으로 법의 지배가 나오게 된다.
- 5. 민주정치의 넷째 형태는 (1293a) 시간적으로 국가들의 실제적 발전에 있어서 최종적으로 나온 것이다. 여기에서는 두 가지 이유의 영향 때문에—즉 국가의 맨처음 규모에 비교해 보아 인구가 크게 증가한 것과 국가의 세수가 상당히 늘어났

다는 것—모든 사람들이 꼭 같이 헌정적 권리를 갖는 것인데, 이것은 대중이 수적으로 우세하기 때문이며, 또한 모든 사람들이 정치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국가가 수당을 지급하여 주는 제도에 의하여 가난한 사람들까지도 여가를 가질 수있도록 되기 때문이다.

- 6. 그러나 편의를 제공받는 사람들은 어떤 다른 부분보다 더 많은 여가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그들은 개인적인 일을 돌봐야 하는 의무 때문에 결코 지장을 받지 않는 반면에, 부유층은 오히려 이러한 지장을 받기 때문에 때때로 의회나 법정에 결석을 하는 결과가 나오게 된다. 이러한 조건들하에서는 가난한 대중이 그 정치질서에 있어서 법 대신에 최고의 권력을 갖게 된다.
- 7. 민주정치들의 형태는 이렇게 다양하며 그 원인들도 마찬가지로 다양하다. 과두 정치의 형태들로 관심을 돌려 보면, 우리는 먼저 시민 대다수가 유산층이지만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양은 근소하며 지나치게 크지 않은 반면에, 이 근소한 수준의 재산을 획득한 사람은 모두 헌정적 권리를 누릴 수 있는 형태를 먼저 꼽을 수 있다.
- 8. 이렇게 일반대중이 현정적 권리를 누리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형태에 있어서는 최고의 권위가 사람에게 있지 않고 법에 있는 결과가 된다. 이러한 형태의 온건한 과두정치는 군주의 개인적인 지배와는 전적으로 다르다. 그리고 국민들이 모든 일에서 벗어나 여가를 즐길 수 있을 만큼 부유하지도 않고, 국가의 지원에 의존해야 할 만큼 빈곤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들은 법이 지배해야 한다고 요구하게 될것이며, 그들 자신이 통치하겠다고 주장하지는 않을 것이다.
- 9. 둘째 형태의 과두정치는 유산계급의 수가 더 적고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은 더 클 때에 생기게 된다. 이러한 조건들하에서 유산계급은 더 큰 권력을 가지며, 헌정적 권리를 더 많이 요구하게 된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들 자신이 다른 계급들의 사람들을 선택하여 주권체에 참여시킬 수 있는 권리를 떠맡으며, 또한 아직은 법이 없이 지배할 만큼 강력하지는 못하므로 이러한 취지를 가진 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 10.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셋째 형태의 과두정치가 출현하는데. 이것은 사

정이 더욱 악화하여 위에서 보다 더 적은 수의 사람이 더 큰 재산을 소유하게 된때에 일어난다. 지배하고 있는 과두체제의 구성원들은 이제 모든 관직을 전적으로 독점하여 버리지만 그래도 아직은—비록 자손들이 그 아버지들을 계승해야 된다고 규정된 법에 불과할지라도—외형적으로는 법을 좇아서 행동한다.

11. 사정이 최악으로 나빠져서 재산의 규모나 개인적인 지식을 통한 영향력이 극대 화되었을 때, 넷째 그리고 최종적인 형태의 과두정치가 출현한다. 이렇게 출현하는 도당(徒黨) 혹은 〈과두적 왕조〉형태의 과두정치는 왕의 개인적인 통치와 매우 유사하며, 이제는 최고의 권위를 갖는 것은 법이 아니고 사람이다. 이 넷째 형태의 과두정치는 최종 형태의 민주정치와 유사하다.

#### 제7장

- 1. 아직도 민주정치와 과두정치 이외에도 두 가지 정치질서가 남아 있다. 이들 중의 하나는 위에 이미 언급한 바와 마찬가지로, 네 가지 주된 정치질서의 형태 중의하나로 흔히 간주된다. 네 가지의 주된 정치질서란 왕정·과두정치·민주정치· 귀족정치라고 불리는 형태의 정치질서들이다. 그러나 이 네 가지의 형태 이외에다섯째 형태가 또 있다. 이것은 모든 형태들의 공통적인 총칭 즉〈헌정(憲政)〉혹은 〈정체(政體)〉—으로 불리어지지만, 흔히 있는 것이 아니므로 여러 다른 형태들의 헌정질서를 분류하려고 시도한 학자들이 간과하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보통학자들은 플라톤이 《국가》에서 한 바와 마찬가지로, 단지 네 가지 형태를 열거하는 것에 그치고 마는 것이다. (1293b)
- 2. 〈귀족정치〉라는 이름은 첫째의 부분에서 이미 다루어진 형태의 정치질서에 적용하는 것이 올바를 것이다. 엄격하게 말하여 귀족정치라고 부를 수 있는 단 하나

3. 귀족정치의 어원 άρισηοι는 최선의 사람이라는 뜻임.

- 의 정치질서는, 그 구성원이 어떤 기준과 관련되어 상대적으로〈선할〉뿐만 아니라 도덕적 질(質)에 있어서도 절대적으로〈최선(最善)〉이어야 한다.<sup>3</sup> 그러한 정치질서에서만이 오직 좋은 사람과 좋은 시민이 절대적으로 동일시될 수 있다. 모든 여타의 정치질서에 있어서는, 선이란 그저 특별한 정치질서 혹은 특별한 기준의 상대적인 선일뿐이다.
- 3. 그러나 또 다른 형태의 정치질서가 몇 가지 더 있는데, 이들은 동시에 과두정치나 또는 소위〈혼합정치〉와 달라서 귀족정치들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 것들이다. 이것은 관직의 선출이 부(富)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미덕에도 근거를 두고 있는 경우이다. 이러한 형태의 정치질서들은 방금 언급한 두 가지 형태와 모두 다른 것이며, 따라서 귀족정치라고 불리게 된 것이다.
- 4. 이렇게 부르는 것은 올바르다. 왜냐하면 공공정책으로 선을 권장하지 않는 국가에 있어서까지도 명망이 있고 자질이 훌륭하다고 평판이 있는 사람들을 발견할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카르타고의 정치질서처럼 세 가지 요소를 모두—즉 부(富), 선(善), 그리고 수(數)—고려에 넣은 정치질서는 귀족정치적인 정치질서라고 부를 수 있다. 또한 스파르타처럼, 선과 수의 두 가지 요소만을 고려하며, 따라서 민주적 원칙과 귀족정치적인 원칙이 혼합되어 있는 정치질서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로 말할 수 있다.
- 5. 따라서 우리는 귀족정치 중에 첫째의 최선의 형태 이외에도 이들 두 가지 형태의 귀족정치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또한 그들 이외에도 특히 과두정치적인 성향을 갖는 소위 〈혼합정치〉의 여러 변형의 형태를 포함할 수 있다.

## 제8장

1. 이제 〈혼합정치〉라고 불리는 정치질서의 형태와 폭군정치의 형태를 다루는 문제가 남았다. 여기에서 우리는 〈혼합정치〉 자체는, 우리가 방금 언급한 귀족정치의 형태들과 마찬가지로 왜곡된 형태의 정치질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왜

곡된 형태와 관련시키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변명으로, 이 모든 정치질서들이 사실은 올바른 정치질서의 최선의 형태에 미치지 못하며, 따라서 왜곡된 형태들에 속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또한 처음에서 그들이 속한다고 생각되는 왜곡된 형태들은 그들 자신에 의해 야기되는 것들이라는 점을 부 언할 수 있을 것이다.

- 2. 폭군정치는 맨 끝에 언급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올바를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헌정질서를 연구하고 있으며, 그리고 모든 정치형태 중에서 폭군정치야말로 헌정적인 요소를 제일 적게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어째서 우리가 이러한 순서로 연구를 하는가 하는 이유이다.
- 이제 우리는 〈혼합정치〉를 다루어야 한다. 혼합정치의 특성은 이제 우리가 이미 과두정치와 민주정치의 성격을 정의했으므로 더 명백히 드러날 것이다.
- 3. 〈혼합정치〉란 일반적으로 말해서 두 정치질서의 혼합이라고 기술할 수 있다. 그러나 보통은 이 말을 민주정치 쪽으로 기우는 혼합정치 형태들에만 국한하여 사 용하며, 과두정치 쪽으로 기우는 형태들은 귀족정치라 부르고 〈혼합정치〉라 부르 지 않는다. 그 이유는 교양과 품행은 부유한 계급들과 더 관련이 많은 것이기 때문 이다.
- 4. 우리는 또한 부유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여러 이점들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실을 주시해야 하는데, 범죄자들은 이러한 이점들이 없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들은 〈신사(紳士)〉혹은 〈저명인사(著名人士)〉로 불린다. 귀족정치는 최선의 사람들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용어의 사용을 확대하여 과두정치들까지도 신사들이 지배하는 국가라고 기술하다.
- 5. (1293a) 사람들은 최선의 시민들이 통치하지 않고 빈곤한 계급이 통치하는 국

4. 이것은 제3권 제7장 5를 참조하라는 것으로 보임.

- 가에, 법에 의한 지배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역으로, 그들은 법의 지배하에 있지 않은 국가에 귀족정치가 존재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법 체제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복종하지 않으면 법의 지배는 확립할 수 없는 것이다.
- 6. 우리는 법의 지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을 구별해야 한다. 첫째는 제정된 법에 대한 복종을 의미하며, 두 번째는 복종되는 법이 또한 잘 제정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잘못 제정된 법도 또한 복종될 수 있다.) 두 번째의 의미는 또다시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즉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가능한 대로 최선의 법에 복종할수도 있고, 혹은 절대적으로 최선의 법에 복종할수도 있다.
- 7. 귀족정치의 근본적인 기준은, 자질(資質)에 따라서 관직을 배분하는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믿어지고 있다. 부(富)가 과두정치의 기준이며, 자유민 출신이라는 것이 민주정치의 기준인 것처럼 자질이 귀족정치의 기준이다. 다수결의 지배라는 원칙은 모든 정치질서에 존재한다. 과두정치, 귀족정치, 그리고 민주정치들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헌정적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 다수가 결정하는 것은 최종적이며 그리고 최고의 권위이다.
- 8. 〈혼합정치〉라고 불리는 형태의 정치질서는 대부분의 국가에 있어서 더 높은 이름으로 수식되어 있다. 혼합정치가 혼합하려고 하는 것은 단지 부자와 빈자, 혹은 부와 자유민 출신뿐이다. 그러나 부유한 사람들은 보통 신사의 지위를 갖는다고 생각한다.
- 9. 실제로는 혼합정치의 질서 형태에 있어서 동등하다고 할 만한 요소는 셋이 있는데, 그것은 자유민의 신분, 부, 그리고 자질이다. (귀족출신이라는 것은 때때로 네 번째 요소라고 생각되지만, 사실상 뒤에 나온 두 가지 요소의 필연적 결과에 불과하며 상속된 부와 자질의 혼합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명백하게 〈혼합정치〉라는 말은 두 가지 요소, 즉 부자와 빈자의 혼합에 대하여 사용해야만 한다. 그리고 〈귀족정치〉라는 말은 세 가지 요소의 혼합에만 국한하여 사용해야 하는데 이것은 사실 첫 번째의 진정한 형태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불리는 어떤 다른 형태보다

도 더 귀족적인 것이다.

**10.** 이제 우리는 왕정, 민주정치, 그리고 과두정치 이외에 또 다른 형태의 정치질 서가 있다는 것을 보았으며, 그리고 이 형태들과 본성은 무엇이며, 귀족정치의 여러 형태들은 서로 어떻게 다른가, 그리고 끝으로 귀족정치들과 〈혼합정치〉들은 서로 간에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고찰하였다.

#### 제9장

- 1. 이제 우리는 우리의 논의를 계속하여, 〈혼합정치〉라고 불리는 정치질서가 어떻게 하여 민주정치, 그리고 과두정치와 더불어 존재하게 되었으며, 그것은 어떤 방식으로 조직되어야 하는지를 살펴보아야겠다. 이러한 고찰의 과정에서 또한 민주정치와 과두정치의 특색은 무엇인가 하는 점이 명백하게 드러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먼저 이 두 가지 형태 사이의 차이점을 확실하게 해야 하며, 그러고는 이양자로부터 그들의 구성요소인 특성들을 취하여 그들 간의 결합물을 만들어 내야하기 때문이다.
- 2. 그러한 결합이나 혹은 혼합물을 만드는 데 있어서 기준이 되는 세 개의 서로 다른 원칙들이 있다. 첫째는 동시에 민주정치적인 그리고 과두정치적인 규칙들을 함께 사용하는 것이다. 우리는 법정의 출석에 관한 규칙을 예로 들 수가 있다. 5 과두 정치에 있어서는 부자들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으면 벌금형을 받으며, 가난한 자들은 출석한다고 하더라도 수당을 받지 못한다. 이와는 반대로 민주정치에 있어서는 가난한 자는 법정에 출석을 하면 수당을 받으며, 부자들은 출석을 하지 않아도 벌금형을 받지 않는다.
- 3. 이 양 규칙을 함께 결합하여 사용하는 것은 양자의 공통적 입장 혹은 중간적 입

<sup>5.</sup> 고대 그리스에 있어서는 법정에서 법관 노릇을 하는 것은 오늘날과 같이 직업적인 판사들이 아닌 일반시민이었다. 바커(E. Barker)의 앞의 책 177페이지 참조.

장을 채택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이유로 해서 그러한 방식은 양 정치질서의 혼합인 (1294b) 〈혼합정치〉의 특징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것이 가능한 여러 결합방식 중의 하나이다. 둘째 방식은 두 개의 상이한 규정들의 평균을 내거나 중간을취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 정치질서가 의회에 출석하는 권리를 얻기 위해서는 재산의 자격 요건이 전혀 없거나 혹은 그 자격 요건이 매우 낮다. 그러나 다른 정치질서는 높은 자격 요건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양자를 함께 사용하여 공통된 규칙을 찾아낼 수가 없으므로 둘 사이의 평균을 내야 한다.

- 4. 셋째의 결합 방식은 양자의 요소들을 결합하는 것으로, 즉 과두적 규정의 일부와 민주적 규정의 일부를 혼합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관리의 임명에 있어서 추첨 방식을 사용하는 것은 민주적이라고 간주되며 투표를 사용하는 것은 과두정치적이라고 간주된다. 또한 재산의 자격 요건이 요구되는 것은 과두정치적인 것으로 생각되며, 그것이 요구되지 않는 것은 민주정치적이라고 생각된다.
- 5. 따라서 여기에 있어서 귀족정치 혹은 〈혼합정치〉의 적절한 방식은 한 형태의 정치질서로부터 어떤 요소를 취하고 다른 정치질서로부터 다른 요소를 취하는 것 이다—이것은 즉, 과두정치로부터 관리들은 투표에 의하여 임명되어야 한다는 규칙을 취하고, 민주정치로부터는 재산의 자격 요건이 필요없다는 규칙을 취하는 것이다.
- 6. 우리는 이제 혼합의 일반적인 방법을 취급하였다. 민주정치와 과두정치를 잘 혼합했는가 하는 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혼합된 정치질서가 양쪽의 어느 것으로나 공평하게 저술될 수 있는 것이라는 점을 덧붙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때에는, 분명히 혼합이 훌륭하게 되었음에 틀림이 없다. 그것을 일반적으로 는 양극단 사이의 중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데, 이 중간에서 양극단의 특성을 모두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
- 7. 스파르타의 정치질서가 한 예이다. 스파르타의 정치조직이 여러 가지의 민주정 치적 면모를 갖고 있다는 근거에서 그것을 민주정치라고 기술하려는 사람이 많다. 우선 청소년을 교육하는 것에 관한 한, 부유층의 자제들도 가난한 집의 자제들과 마찬가지의 대우를 받으며, 그들은 모두 가난한 집의 자제들도 할 수 있는 수준의

교육을 받는다.

- 8. 성인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의 정책을 시행하며, 성인이 된 이후에도 꼭 같은 취급을 받는 것이다.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는 아무 차별을 받지 않는다. 공동식사에 있어서 음식은 모두 마찬가지이며, 부유한 자의 의복은 가난한 자도 마련할 수 있는 그러한 종류의 것이다.
- 9. 스파르타를 민주정치라고 기술하는 두 번째의 근거는, 국민이 양대 정치제도 중의 하나인 원로원에 대표를 선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그들 자신이 두 번째 제도 중의 하나인 감독기관에 선출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반면에 스파르타의 정치질서가 여러 가지 과두정치적인 요소를 갖고 있다는 근거에서 그것을 과두정치라고 기술하는 사람도 있다. 예를 들어 관리들은 모두 투표에 의해서 지명을 받으며, 추첨으로 선출되는 관리는 하나도 없다. 또한 사형이나 추방의 형벌을 내릴 수 있는 권리는 소수인이 장악하고 있으며, 이와 비슷한 면모들도 상당히 많다.
- 10. 제대로 혼합이 된 〈혼합정치〉는 마치 그것이 민주정치와 과두정치적인 요소를 함께 포함하고 있으며 또한 동시에 양 요소 중에 어느 것도 포함하고 있지 않는 것처럼 보여야 한다. 그것은 그 자신의 본질적인 힘에 의하여 안정성을 유지해야 하며 외부의 지원에 의존해서는 안된다. 또한 그것의 본질적인 힘은 다수가 그 정치체제의 존속을 찬성한다는 것이 아니라(저질의 정치질서에 있어서도 이러한 일은 일어날 수 있다), 국가 내의 어떤 부분도 다른 정치질서로 이전할 것을 찬성하지 않는다는 사실에서 나와야 한다.

우리는 이제 〈혼합정치〉와, 소위 귀족정치들이라고 불리는 혼합정치의 다른 형태들이 조직되어야 하는 방식을 기술하였다.

## 제10장

(1295a) **1.** 이제 폭군정치를 고찰할 일이 남아 있다. 폭군정치에 관해서는 별로 길 게 이야기할 것이 없지만, 그것이 우리의 정치질서의 분류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우리의 연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왕정에 관해서는 이미 처음 부분에서 논의되었다. 왕정에 관해 논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는 그것을 가장 흔히 사용하는 의미에서 고찰하였다. 즉 우리는 왕정이 국가에 해로운가, 유익한가 하는 것을 연구했으며, 어떤 종류의 사람이 왕이 되어야 하며, 왕은 어떤 부류의 출신이어야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왕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점들을 살펴보았다.

- 2. 그 과정에서 우리는 또한 두 가지 형태의 폭군정치를 구별했는데, 그것을 그 맥락에서 취급한 것은—그들이 모두 법에 복종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정부형태로 서—어떤 의미에서 그들의 성격이 왕정과 중복되기 때문이었다. 이 두 형태란 (1) 몇몇 야만인들 사이에서 찾아볼 수 있는 절대권을 가진 선거 군주제와, (2) 독재자 (aisumnetai)라고 불리는 같은 형태의 군주로서, 이것은 초기 그리스인들 사이에서 존재하였다.
- 3. 이 두 가지 형태 사이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반은 왕정이고 반은 폭군정이라고 부를 수 있다. 왕정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정부가 국민의 동의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법적인 기반 위에서 통치를 하기 때문이다. 폭군정치라고 부르는 것은 그것이 주인과 노예의 관계와 같은 성격을 띠며, 지배자의 의사에 따라 통치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또한 셋째 형태의 폭군정치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가장 흔하게 폭군정치라고 알려져 있는 것이다. 이것은 절대왕정 (pambasileia)과 반대되는 것이다.
- 4. 이 셋째 형태의 폭군정치는 한 사람이 어떠한 형태의 책임도 지지 않고, 그 신민들의 이득보다 자기 자신의 이득을 목적으로, 자기와 동등하거나 자기보다 우월 한 사람들을 지배하는 경우에 존재하게 된다. 따라서 그것은 힘에 의한 통치이며, 자유민은 결코 그러한 체제를 자발적으로 견디어 내지는 않을 것이다.

방금 말한 근거에 의하여, 폭군정치의 형태들은 이와 같으며, 그리고 변형(變形)의수(數)도 위에서 말한 바와 같다.

# 제11장

- 1. 우리는 이제 대부분의 국가와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최선의 정치질서와 최선의 생활방식은 무엇인가를 고찰해 보아야 한다. 그렇게 함에 있어서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도달할 수 없을 정도의 우수성의 기준이나, 예외적인 재능과 특별한 시설을 요구하는 교육의 수준, 혹은 이상적인 상태를 성취하는 정치질서를 기준으로 사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는 그저 대부분의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종류의 생활과 대부분의 국가가 향유할 수 있는 종류의 정치질서에만 관심을 집중할 것이다.
- 2. 우리가 방금 취급한 소위 〈귀족정치〉들은 한 극단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국가가 도달할 수 있는 경지 밖에 있거나, 혹은 다른 극단에 있어서는 〈혼합정치〉라고 불리는 정치질서에 너무도 밀접하므로, 별도로 고찰할 필요가 없이 그것과 동일한 것으로서 취급해야 한다. 우리가 방금 제기한 문제들은 모두 한 무리의 근본적인 원칙들에 비추어 해결될 수 있다.
- 3. 우리가 《윤리학》에서 나온 언명들 즉 (1) 진실로 행복한 생활이란 모든 장애로부터 벗어난 선의 생활이며, (2) 선이란 중용에 있는 것이다—을 진실이라고 받아들인다면, 최선의 생활방식은 중용에, 즉 모든 개인이 달성할 수 있는 것 같은 중용에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더욱이 시민들이 좋은 생활방식을 갖고 있는가, 아니면 나쁜 생활방식을 갖고 있는가를 결정하는 것과 같은 기준들이 정치질서의 평가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정치질서란 시민들의 생활방식이기때문이다.
- (1295b) 4. 모든 국가에 있어서 시민들을 세 가지 부분 혹은 세 가지 계급 즉, 매우 부유한 계층, 매우 가난한 계층, 그리고 그 중간을 형성하는 중산계급—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일반적인 원칙으로서 절제와 중용이 항상 가장 좋다는 것은 이미 인정하였다. 우리는 따라서 모든 재산의 소유에 있어서 중간상태가 최선이라고 결론지을 수 있다.
- 5. 이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가장 이성을 잘 따른다. 어느 양극단에 속하는 사람들—지나치게 아름다운 사람이나, 지나치게 튼튼한 사람이나, 지나치게 가문이

좋은 사람이나, 지나치게 부유한 사람이나, 혹은 다른 극단으로 가서 지나치게 약한 사람이나, 지나치게 비천한 사람들—은 이성을 따르기가 어렵다. 첫 번째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은 폭력이나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는 경향이 더 있으며,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작은 범죄와 건달 짓을 할 경향이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나쁜 짓은 폭력이나 건달 짓에서 나온다. 중산계급의 또 하나의 장점은 그들은 가장 야망이 적다는 것인데 이 야망이란 군사적인 또는 시민사회의 영역에 있어서 모두 국가에 위험한 것이다.

- 6. 또한 너무 많은 이점을 향유하는 사람들 즉 힘 · 부 · 친지 관계 등등 은, 남에게 복종하기를 꺼려하며 복종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부언하지 않을 수없다. 이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애초부터, 즉 어린 시절의 가족생활로부터 나온 결합인데, 사치스런 생활에 젖어서 학과의 문제에 있어서까지 규율 있는 습관을 갖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나 반대편의 극단에 있는 아무 이점도 없는 사람들에게도 결함이 있다. 즉, 그들은 너무 저속하고 겁이 많다는 것이다.
- 7. 따라서 일면으로는 마치 그들이 노예와 같이 지배하는 것은 모르고 복종하는 것만 아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마치 노예주인과 같이 어떤 권위에 대하여 복종하는 것은 모르고 지배하는 것만 아는 사람들도 있다. 그 결과로 국가는 자유민이 아니고 단지 노예와 주인으로서만 이루어져서, 한쪽에는 부러움과 시기심만이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경멸만이 있는 국가로 되고 만다. 이것은 우애의 정신이나 정치 공동체의 기질과는 거리가 먼 상태이다. 공동체는 우애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우애 대신에 적대심이 만연하는 경우에 사람들은 같은 길을 걸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 8. 국가는 가능한 한 평등하며 동등한 사람들로 구성된 사회로 되고자 한다. 그리고 다른 어떤 계급보다 중산계급이 이러한 종류의 구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중산계급에 기초를 두고 있는 국가가, 우리들의 견해에 의하여, 국가를 자연적으로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의 견지에서 볼 때, 가장 최선의 질서를 갖고 있음에 틀림없다. 중산계급은 다른 어떤 계급보다 더 많은 안전을 누린다.
- 9. 그들은 빈민들처럼 다른 사람의 물건을 탐내지도 않고, 또한 가난한 자들이 부

자의 물품을 탐내듯이 다른 사람이 그들의 소유를 탐내지도 않는다. 다른 사람에 대하여 음모를 꾸미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도 역시 음모를 꾸미지 않으므로, 그들은 위협이 없는 생활을 한다. 우리는 포킬리데스(Phokylides)의 기도를 음미해 보는 것이 좋겠다.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좋은 점이 많다. 나도 국가의 중산계급에 속했으면 좋겠다.

- 10. 이제까지 논의해 본 바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점이 명백하다. 첫째, 정치적 사회의 최선의 형태는 권력이 중산계급의 손에 있는 사회이며, 둘째, 중산계급이 큰 국가들이 좋은 정부를 달성할 수 있다—중산계급의 규모는 가능하다면 다른 양계급을 합한 것보다 더 강할 정도로 크거나, 아니면 적어도 양계급 중 어느 하나보다는 더 강할 정도로 커야 한다. 왜냐하면 이런 경우에는 어느 한쪽에 중산계급이가세하면 힘의 균형을 기울게 할 것이고, 그리하여 서로 적대하는 양극단 중의 어느 하나가 지배적으로 되는 것을 방지하기에 충분할 것이기 때문이다.
- 11. 따라서 국가의 구성원들이 적절하고 알맞은 재산을 갖고 있으면, 그 국가에는 아주 좋은 일이다. (1296a) 어떤 사람들은 재산이 많고 다른 사람들은 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결과적으로 극단적인 민주주의가 단순한 과두정치가 되거나 아니면 간접적으로 이 양극단의 모두에 대한 반발로써 폭군정치까지도 될 수 있다. 폭군정치는 가장 무분별한 형태의 민주주의나 폭군정치로부터 나온다. 그러나 중간 정도의 정치질서나 혹은 그와 유사한 정치질서로부터는 나올 가능성이 훨씬 적다.
- 12. 우리는 후에, 혁명과 정치질서의 변화를 다루게 될 때 그 원인을 설명할 것이다. 지금으로서는 중간 형태의 정치질서가 최선이라는 것이 분명하다. 이 형태에서는 파벌이 없다. 중산계급이 클 경우에는 시민들 사이의 분열 또는 파벌이 생길가능성이가장 적은 것이다.
- **13.** 일반적으로 큰 국가들은 큰 중산계급을 갖고 있으므로 파벌이 덜하다. 반대로 작은 국가들에 있어서는 전체 인구가 단지 두 계급으로만 나누어지기가 쉽다. 중간

- 에는 아무것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거의 모든 사람이—부자이거나 가난뱅이이다. 14. 일반적으로 민주정치가 과두정치들보다 수명이 더 길고 안전한 이유는 그들의 중산계급이 과두정치에서보다 그 수가 더 많고, 정부의 참여도도 더 크기 때문이다. 중산계급이 없고 가난한 사람들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민주정치들에 있어서는 말썽이 생기며, 그 체제는 곧바로 파괴되고 만다.
- 15. 또한 중산계급의 가치의 증거로서 최선의 입법자는 중산계급으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 솔론도 중산계급 출신이었는데, 이것은 그의 시를 보면 알 수 있다. 리쿠르고스도 마찬가지였으며(어떤 사람들은 그가 왕족 출신이었다고하는데), 카론다스나 대부분의 다른 입법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 16. 또한 이제 방금 말한 것으로 미루어 보면, 어째서 대부분의 정치질서들이 민주 정치가 아니면 과두정치인가 하는 것이 설명된다. 첫째로, 대부분의 국가에 있어서 중산계급은 일반적으로 수가 적은데, 그 결과로 두 개의 주된 계급들 유산층이나 또는 일반대중들 중의 어느 하나가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되면, 곧 중용의 도를 벗어나서 자기 계급의 이득에 맞는 방향으로 헌정질서를 만들어서 경우에 따라, 민주정치나 과두정치를 설립하는 것이다.
- 17. 둘째로, 대중과 부유한 계급 사이에는 파벌적인 분쟁과 투쟁이 쉽게 일어나며 그리고 때에 따라서 어느 쪽이 이기건 간에 이긴 쪽이 공동이해와 평등의 원칙에 근거를 둔 헌정질서를 세우기를 거부하며, 그러나 승리의 노획물로서 헌정적인 권리를 더 많이 차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각기 원칙에 따라 민주정치나 혹은 과두정치를 세우는 것이다.
- 18. 셋째로, 그리스에서 주도권을 잡은 두 국가(즉 아테나이와 스파르타)의 정책도 또한 비난을 받아야 한다. 각자가 모두 자기 자신의 형태의 정치질서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 즉 아테나이는 자기의 영향력하에 있는 국가들에 민주정치를 수립하였

- 고, 스파르타는 과두정치를 수립하였다. 각자는 모두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지배하에 있는 국가의 이익은 어느 하나도 생각하지 않았다.
- 19. 이들 세 가지 이유들이, 바로 중간 혹은 혼합 형태의 정치질서가 왜 설립된 일이 없는가—혹은, 기껏해야 몇몇 경우의 몇몇의 나라에만 설립되었는가—하는 것을 설명해 준다. 이제까지 정권을 잡은 위치에 있어 왔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단한 명만이 그러한 형태의 정치질서를 설립하도록 동의하였다. 6 그리고 이제는 이두 나라에 있어서 각기 (1296b) 평등의 체제를 원하지도 않고, 그 대신에 완전히 국가의 주도권을 잡거나 아니면 패배하는 경우 승리자에게 복종하는 것이 습관이되어 버렸다.
- 20. 이 논의로부터 무엇이 최선의 정치질서이며, 또 그 이유는 무엇인가가 명백해 진다. 우리가 일단 최선의 정치질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결정하고 나면 모든 다른 것들을 (우리가 이미 구별한 바 있는 민주정치와 과두정치의 상이한 변형들을 포함하여) 일괄하여, 그들의 질(質)의 좋고 나쁨에 따라 좋은 순서대로—즉, 첫 번째. 두 번째 등으로—나열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 21. 최선의 정치질서에 가장 가까운 것은 항상 다른 여타의 모든 것보다 좋을 것임에 틀림없다. 중용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은, 특별한 환경과 연관하여 판단하지 않는다면, 항상 여타의 것보다 나쁠 것임에 틀림없다. 내가 「특별한 환경과 연관하여」 라는 말을 쓰는 것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이다. 즉 어떤 종류의 정치질서는 본질적으로 더 나을 것일지는 모르나, 일정한 경우에 있어서는 어떤 다른 종류의 질서가 더 적합하지 않으리란 법은 없다. 그리고 실상 이러한 일은 흔히일어난다.

6. 뉴먼(Newman)에 의하면 한 사람이란 기원전 411년 아테나이의 온건한 지도자였던 테라메네스 (Theramenes)였을 것이라고 한다.

# 제12장

- 1. 순서에 따라 다음에 고찰해야 할 문제는, 『어떠한 그리고 어떠한 종류의 정치질 서가, 어떠한 그리고 어떠한 종류의 사람들에게 알맞은가?』 하는 것이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우리는 먼저 모든 정치질서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공리(公理)를하나 전제로 해야 한다—그것은 즉 어떤 정치질서가 존속되기를 바라는 국가의 부분이 그것을 바라지 않는 부분보다 더 강력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모든 국가의 성립에 있어서 질과 양이 두 구성요소라는 사실을 기억하지 않을 수 없다. 〈질〉이란 자유민 태생ㆍ부ㆍ교양, 그리고 훌륭한 가문 같은 것이며, 〈양〉이란 수적인 우세를 말한다.
- 2. 질은 국가를 구성하는 어느 한 부분에 속하며, 양은 다른 부분에 속한다. 예를 들어서, 천민 태생인 사람들이 가문이 좋은 사람들보다 수가 더 많으며, 혹은 가난 한 자들이 부자들보다 수가 더 많다. 그러나 어느 한 편의 수적인 우세는 다른 한쪽의 질적인 우세에 필적하기에 충분하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수와 양이 상호관계에 있어서 균형을 이루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
- 3. 그러한 근거 위에 우리는 세 가지 주장을 내세울 수가 있을 것이다. 첫째 가난한 자의 수가 부자들의 높은 질보다 더 우세한 경우에, 자연히 민주정치가 출현할 것이다. 또한 민주정치의 특별한 변형은 각기의 경우에 따라서 대중들이 나타내는 특별한 형태의 우수성에 달려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평민들의 대부분이 농부라면 우리들은 첫 번째 형태—즉, 빈농(貧農) 형태—의 민주정치를 갖게 될 것이며, 만약 그들이 기계공들이나 노동자들이라면, 〈극단적〉형태의 민주정치를 갖게될 것이다. 그리고 〈빈농〉형태와〈극단적〉형태의 민주정치 중간에 해당하는 형태들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둘째, 부유한 사람들과 귀족들의 질적인 우수성이 수적인 열세를 보충하고도 남는 경우에는 과두정치가 출현할 것이다. 또한마찬가지로 어떤 특정한 과두정치의 변형이 생기게 되는가 하는 것은 과두체제가보여 주는 우수성의 특별한 형태에 달려 있는 것이다.
- 4. (말이 난 김에, 입법자는 항상 중산계급 출신들을 그가 설립하는 어떠한 헌정에

도 불가결한 구성요소로 해야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는 것이 좋겠다. 만약 그가 제정하는 법률이 과두정치라면, 그는 중산계급이 그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놓아야 한다. 만일 민주적인 법률을 만든다면 그는 또한 중산계급이 이 법률을 지지하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

셋째, 중산계급의 수가 다른 두 계급을 합한 수보다 큰 경우에—또한 그것이 두 계급 중 어느 하나보다 큰 경우일지라도—〈혼합정치〉를 영원히 확립할 수 있을 것이다.

- 5. 그러한 경우에는 부자들이 빈민들과 결합하여 (1297a) 중산계급을 반대할 위험성이 없다. 왜냐하면 위의 두 계급 중 어느 쪽도 다른 쪽의 지배를 받아들이지 않으려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만약 그들이 〈혼합정치〉보다 더 그들의 공동이익에 적합한 정치질서를 발견하려고 노력한다 하더라도 그런 것을 발견해 낼 수 없다. 두 계급 중 어느 쪽도 그들 중 어느 하나가 지배하게 되는 체제를 용납하지 않기때문이다. 즉 그들은 상호 간에 신뢰가 거의 없다. 항상 중립적인 중재자가 신뢰를 가장 잘 받을 수 있는 입장에 있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사람〉이 그러한 중재자인 것이다.
- 6. 〈혼합정치〉에 있어서 요소들의 혼합이 더 훌륭하고 더 균형이 있을수록 그 정치질서의 수명은 오래갈 것이다. 여기에서 귀족정치적 질서를 확립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흔히 실수를 저지른다. 그러한 사람들은 부자들에게 더 많은 권력을 줄 뿐만 아니라, 또한 가짜의 권리로 대중을 속임으로써 그들을 기만한다. 환상적인 이득은 항상 장기적으로 진정한 악의 원인이 된다. 그리고 부자들이 저지르는 권리침해는 일반대중이 저지르는 것보다 정치질서에 더 파괴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이다.

## 제13장

1. 그럴듯한 가짜 권리를 주어 대중을 속이기 위하여 사용하는 헌정적 술책에는 다섯 가지가 있다. 그들은 각각 의회·관리직·법정, 무기의 소지, 그리고 운동에 관련된 것들이다. 의회에 관해서는 모두가 출석을 허용 받는다. 그러나 결석에 대한

벌금은 부자에게만 내려지거나 아니면 벌금의 액수가 훨씬 더 크다.

- 2. 관리직에 관해서는, 일정한 재산의 자격 요건을 갖춘 자들은 어떤 핑계를 대고 관리직을 거절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반면에, 가난한 자들은 그렇게 할 수 있다. 법정에 관해서도, 부자들은 결석하면 벌금형을 받지만, 빈민들은 결석을 해도 아무 벌도 받지 않는다. 혹은 다른 방식으로는—카론다스가 제정한 법에 있는 규칙인 바—빈민들은 매우 가벼운 벌금형을 받는 반면에 부자들은 매우 무거운 벌금형을 받는 것이다.
- 3. 어떤 국가에서는 의회와 법정의 출석에 관하여 다른 방식이 사용된다. 등록한 사람들은 모두 출석을 할 수 있다. 등록을 한 이후에 출석을 안 한 자는 무거운 벌 금을 받는다. 여기에서의 취지는, 사람들로 하여금 벌금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 움 때문에 등록하지 못한 결과로 법정과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 4. 무기의 소유와 운동의 실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의 방식이 사용된다. 빈민은 무기를 소지하지 않아도 되지만 부자들은 무기가 없으면 벌금을 받는다. 빈민들은 신체 훈련에 참석하지 않아도 벌금을 받지 않는 반면에 부자들은 벌금을 받는다. 그리하여 부자들은 벌금형 때문에 출석을 해야 하는 반면에 빈자들은 아무 벌금 조항이 없으므로 마음대로 결석해도 괜찮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 5. 이제 말한 법정의 술책들은 모두 과두정치적인 것들이다. 민주정치들도 이에 맞먹는 술책들이 있다. 즉 빈자들은 의회와 법정에 출석하면 수당을 받고 반면에 부자들은 결석해도 벌금형을 받지 않는다.
- 6. 만약 우리가 양측을 공평하게 혼합하려면, 양측의 요소들을 결합하지 않으면 안된다. 달리 말하면, 빈자들에게 출석 수당을 주는 동시에 부자들이 결석하면 벌금을 과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모두 공통의 정치질서에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 정치질서는 어느 한쪽에만 속하게 될 것이다. (1297b)
- 7. 〈혼합정치〉, 즉 여러 요소가 혼합된 국가의 정치질서는 무기를 소지하는 사람들로만 구성된 시민들에게, 즉 일정한 재산을 갖고 있는 시민들에게 기반을 두어야 한다. 그러나 이 자격을 절대적으로 정의하거나, 혹은 모든 경우에 있어서 일정한 양의 재산을 고정해서 말할 수는 없다. 우리는, 항상 정치적 권리를 갖는 사

- 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다수여야 한다는 원칙을 희생시키지 않고, 각 경우에 있어서 요구할 수 있는 최고의 액수를 찾아내고, 각 경우마다 그 액수를 정해줄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안된다.
- 8. 가난한 사람들은 정치적 특권을 향유하지 못할지라도 난폭한 취급을 당하거나 재산의 침해를 받지만 않는다면 별 불평 없이 가만히 있는다. 그러나 절제란 항상 쉬운 일이 아니며, 정치적인 권리를 향유하는 사람들이 자기들보다 아랫사람들에 게 항상 인간적으로 대우해 주는 것은 아니다.
- 9. 예를 들어, 전쟁 중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가난한 사람들은 대개 국가에서 아무 보조가 없으면 생계가 막연하며, 따라서 병역에 복무하기를 꺼려한다. 그러나 보조가 있으면 기꺼이 전장으로 나가는 것이다.
- 어떤 정치질서에 있어서는 실제로 군에 복무하고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전에 복무를 한 일이 있는 사람들까지도 시민으로 해주는 일이 있다. 예를 들어 테살리아(Thessalia) 남쪽에 있는 말리아(Malia)의 헌정은 양자에게 모두 선거권을 주었다. 그렇지만 관직에의 피선거권은 실제로 복무하고 있는 사람에게만 국한했다.
- 10. 고대 그리스에서 왕정 다음으로 출현한 첫 번째 형태의 정치질서에서는 군인들이 시민체를 이루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기병만이 시민이 되었다. 그 당시에는 군사력이나 군사적 우월은 기병의 특권이었다. 전략 체제가 없이는 보병은 쓸모가 없었으며, 그러한 체제를 갖는 데 필요한 경험과 규칙이 예전에는 없었으므로, 군사력이란 기병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의 규모가 증대함에 따라, 그리고 보병이 더 큰 힘을 갖게 됨에 따라 정치적 권리를 향유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게 되었다.
- 11. 이러한 이유로 그 당시에는 오늘날에 우리가 〈혼합정치〉라고 부르는 정치질서를 〈민주정치〉라는 이름으로 불렀다. 예전의 정치질서가 과두정치적이었고 그보다 더 오래된 옛날에는 군주정치였다는 사실은 당연하다. 국가의 인구가 소규모였을 때 중산계급의 규모도 크지 않았으며 조직이 별로 없고 수가 적은 국민 대중은 쉽게 위로부터의 통치를 용납하였다.
- 12. 우리는 이제까지 우리의 연구 계획에 있어서 언급한 다섯 가지의 주제 중에서 세 가지를 살펴본 셈이다. (1) 우리는, 어째서 정치질서는 다양한가, 그리고 왜 흔

히 열거하는 질서들 이외에도 다른 형태들이 있는가를 설명하였다. (민주정치도 여러 개의 형태가 있으며 다른 정치질서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또한 여러 형태들 사이의 차이점을 설명했으며, 여러 정치질서의 특성들의 원인을 설명하였다. (2) 우리는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무엇이 최선의 정치질서인가를 설명하였다. (3) 다른 정치질서에 관한 한 우리는, 어떤 종류의 시민들에게 어떤 종류의 정치질서가 적합한가를 설명하였다.

## 제14장

- 1. 이제 우리는 다음 문제를 연구해야 하는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그리고 각 정치질서마다 개별적으로 해야 한다. 우리는 먼저 이 문제를 다루기에 적합한 기반을 찾아내야 한다. 우선 우리는 모든 정치질서에는 세 가지 요소들, 혹은 〈권력들〉이 있으며, 좋은 입법자는 이 세 가지 요소의 주제에 관하여 각기 무엇이 국가에게 가장 좋은가 하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만일 이 세 가지가 모두 제대로 구성되어 있다면 정치질서 전체도 또한 제대로 구성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서로 다르게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치질서도 또한 다르게 될 것이다.
- 2. 이 세 가지 요소 중에서 첫 번째 것은 심의(審議)의 요소로써 공동관심사와 그 것의 적절한 조직에 관한 것이다. (1298a) 두 번째 요소는 관리(官吏)에 관한 요소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관리들이 무엇이며, 그들은 어떤 일을 담당해야 하고, 그리고 관리직을 맡는 사람들은 어떻게 임명되어야 하는가를 결정해야 한다.) 세 번째의 것은 사법적 요소이며, 이 요소를 어떻게 조직하는 것이 옳은가 하는 문제이다.
- 3. 심의적 요소는 다음 사항들에 관하여 최고의 권위를 갖는다. (1) 전쟁과 평화의 문제 그리고 동맹을 맺고 동맹을 해체하는 일, (2) 법률을 제정하는 일, (3) 사형·망명·재산몰수에 관련된 경우들, (4) 관리들을 임명하며, 그들의 임기가 만료되었을 때에 그들이 한 일에 관하여 책임을 묻는 일들이다. 이 요소는 세 가지 다른 방식으로 조직할 수 있다. 첫째는, 모든 시민들에게 그것을 다루는 모든 문제에 관한

결정권을 주는 것이며, 둘째는, 일부 시민들에게 모든 문제에 관한 결정권을 주는 것이고 (그 문제들을 모두 한 관직 혹은 여러 관직들에게 합동으로 회부하거나, 혹은 다른 문제들은 다른 관직에 회부함으로써), 셋째로는, 어떤 문제들에 관해서는 모든 시민에게 결정권을 주고, 다른 문제들에 관해서는 일부 시민들에게만 결정권을 주는 방식이다.

4. 이러한 방식들 중에 첫째의 것, 즉 모든 시민들에게 모든 문제에 관한 결정권을 주는 방식은 민주정치의 특성이다. 여기에 함축된 평등은 바로 국민이 바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실시하는 것은 여러 서로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첫째, 모든 시민들이 순서대로 문제들을 토론하기 위하여 집회를 하며, 한꺼번에 전부가모이지는 않는 방식이다. 이것이 밀레토스의 텔레클레스(Telekles)의 정치질서의 방식이었다.

(또한 이러한 방식의 변형으로서 다른 몇 개의 정치질서들의 예를 들 수 있는데, 이것은 여러 관리들의 회합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토의하지만, 시민들은 순서를 따라서—여러 부족들로부터 또는 부족들 내에 최소 단위들로부터 대표를 뽑아서—회합에 참여함으로써 결국은 시민이 모두 순서대로 회합에 참여해야만 하는 것이다.) 또한 모든 시민들이 순서대로 심의에 참여하는 이 방식의 일부로서, 시민들은 특정한 목적, 즉 법을 제정하거나, 헌정적인 문제를 취급하거나, 또는 관리들의 발표를 듣기 위해서만 모이는 것이다.

- 5. 이 첫 번째 방식을 실행하는 두 번째 방법은 모든 시민들이 함께 모여 토의를 하지만, 단지 세 가지 목적만을 위하여, 즉 관리들을 임명하고 심사하는 일, 법을 제정하는 일, 전쟁과 평화를 취급하는 일만을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다. 다른 문제들은 각 분야를 담당하는 관리들에게 위임(委任)하여 버리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관리들을 임명하는 문제는—선거에 의하거나 추첨에 의하거나 간에—모든시민들이 결정하는 것이다.
- 6. 세 번째 방식은 시민들이 두 가지 목적, 즉 관리를 지명하고 심사를 하는 일과, 전쟁과 외교 정책의 문제를 토의하기 위해서만 집회하며, 다른 일들은 관리들의 기구에 위임하여 버리는데, 이 관리들은 가능한 한은 선거제이며, 여기에는 경험

과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임명되어야 한다.

- 7. 네 번째 방식은 모든 사람들이 모든 문제에 관하여 모여서 논의하며, 관리들의 기구는 예비조사를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어느 문제에 관해서건 아무런 결정권이 없다. 오늘날 극단적인 민주정치는 이러한 방식으로 운영된다—극단적인 민주정 치란, 위에서 시사한 바와 같이, 과두정치 중에서 왕조적인 형태와 유사하며, 왕정 중에서 폭군정치의 형태와 유사한 것이다. 의회의 권력배분을 조직하는 이 모든 방식들은 민주정치적인 것이다. 두 번째의 조직체제는, 역시 여러 상이한 방식으로 실행될 수 있는데 시민들 중의 일부가 모든 문제를 심의하는 것이다.
- 8. 이 두 번째 체제를 이행하는 방식 중의 하나는 심의기구의 구성원들이 어느 정도의 재산 자격을 가져야 피선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따라서 의원의 수가 상당히 많아 진다. 또한 의원들은 법에 의해서 변경이 금지된 문제들에 관해서는 변경할 수 없으며 그저 그 규칙에 복중해야 한다. 또한 자격 요건에 필요한 양만큼 재산을 획득한 사람은 모두 심의의 권리를 갖도록 허용되어야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과두정치적인 요소를 볼 수 있는데, 단지 이 과두정치적인 요소가 〈혼합정치〉적인 성격을 띠는 것은 그 요소가 온건하기 때문이다. 이 체제를 시행하는 두 번째 방식은 심의기구의 구성원의 자격이 선택된 몇 명에게만 있지만—모든 사람에게 있지 않고—이 사람들은 (1298b) 이전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법이 정하는 바에 준해서 행동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은 과두정치의 특징적인 한 방식이다.
- 9. 이 체제를 실행하는 또 다른 방식은 심의의 권한을 갖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호선(互選)에 의하여 충원 하거나, 혹은 단순히 세습제에 의하여 계승하거나 하는 것이며, 법을 번복하는 권한을 갖는 것이다. 이것은 필연적으로 과두정치의 조직 방식이다.
- 10. 세 번째의 조직 체제는 시민들의 일부가 어떤 문제들만을 토의하지, 모든 문제를 토의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모든 시민들이 전쟁과 평화, 그리고 관리들의 심사에 관하여 논의하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지만, 그러나 관리들만이 이 이외의 문제들에 관하여 결정권을 가지며, 또한 이들 관리는 선거에 의하여임명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이 정치질서는 귀족정치이다. 또 다른 대

안은 어떤 결정 사항들은 선거에 의하여 지명된 사람들에 귀속하며, 다른 사항들은 추첨에 의하여 지명된 사람들이 결정하도록 하는 문제로 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 추첨 대상은 전원일 수도 있고, 혹은 미리 예선에서 뽑혀진 후보들만 일수도 있다.) 혹은, 모든 문제들을, 선출된 사람들과 추첨에 의하여 임명된 사람들이 함께 모여 토론하는 혼성(混成) 기구에서 결정하는 것이다. 그러한 조직 방식은 부분적으로는 귀족정치에 가까운 〈혼합정치〉의 특성이며, 부분적으로는 순수한 〈혼합정치〉의 특성이다.

- 11. 이러한 것들은 상이(相異)한 정치질서에 상응하는 심의기구의 다른 형태들이다. 각 정치질서는 우리가 구별한 어떤 체제 혹은 다른 체제들의 근거 위에서 조직되는 것이다
- 12. 민주정치—즉 오늘날에 특히 그리고 특별하게 민주적이라고 하는 형태의 민주 정치(그리고 이러한 형태의 민주정치에서는 국민의 권위가 법보다 우월하다)—의 이해에 맞는 정책은, 과두정치들이 법정의 집회에 적용하는 방식을 심의기구에 적용해서 그것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다. 그것은 법정이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을 강제로라도 출석시키는데, 출석을 않는 경우 벌금형을 주는 것이다—이것은 사람들에게 수당을 주어 출석하도록 하는 민주정치적 방식의 역이라고 할 수 있다. 민주정치는, 의회에 이러한 의무적 출석 방식을 적용하면 좋을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함께 국사를 논의할 때 토론의 결과는 훨씬 더 좋다. 즉 일반대중이 저명인사와 섞이고, 또한 저명인사가 일반대중에 섞여서 논의하면 더 좋을 것이다.
- 13. 또한 국가의 여러 부분이, 선거에 의하거나 추첨에 의하여 지명하거나 간에, 심의기구에 동수(同數)의 대표를 내면 민주정치에 이롭게 된다. 또한, 일반 평민의수가 정치적 경험을 지닌 저명인사들보다 훨씬 많은 경우에, 의회의 출석에 대한수당을 모든 시민에게 주지 않고 저명인사들과 수에 있어서 균형을 이룰 만큼의수를 시민들에게만 주거나, 혹은 저명인사들보다 일반시민들의 수적인 우세를 배제하기 위하여 추첨을 사용하는 것이 민주정치에 이로울 것이다.
- 14. 과두정치들의 이해에 알맞은 정책은 평민으로부터 몇몇 대표를 심의기구에 호 선하거나, 혹은 다른 방식을 사용하여, 〈예비위원회〉혹은 〈법적감시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어떤 나라들에서 존재하는 형태의 제도를 세우고, 그러고는 시민들로 하여금 이 제도의 구성원들이 이미 앞서서 말한 문제들을 다루도록 하는 것이다. (이후자의 방식에 의하면 일반국민들은 심의의 권리에 참여하지만 헌정의 규칙을 폐기할 수는 없을 것이다.)

15. 과두정치의 이해에 맞는 또 다른 일련의 정책은, 국민들이 정부가 제출한 것과 동일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합치되는 그러한 조치들에만 투표할 수 있도록 하거나, 혹은 다른 방식으로, 전체 국민은 의견을 낼 수는 있지만 심의기구는 관리들의 집 단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다. 만약 후자의 방식을 채택하면 그것은 〈혼합정치들〉에 있어서 따르는 실제와는 반대되는 방식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국민의 제안을 거부하는 데 있어서는 최고의 권위를 가지나, 제안을 통과시키는 데 있어서는 그렇지 못하며, 그들이 통과시키는 어떤 제안도 관리들에게 회부되어야 한다.

16. 〈혼합정치들〉에서 채택되는 실제는 이와는 반대이다. 소수의 관리들이 제안을 거부하는 데 있어서는 최고의 권위를 가지나 그들을 통과시키는 데 있어서는 그렇지 못하며, 그들이 통과시키는 어떤 제안도 다수들이 최종적으로 (1299a) 결정하도록 회부된다. 헌정질서에 있어서 심의적 혹은 최고의 권위를 갖는 요소에 관한우리들의 결론은 위와 같다.

## 제15장

1. 다음으로 고찰해야 할 문제는 행정적 요소, 즉 관리이다. 헌정질서 중의 이 요소는 심의적인 요소나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조직할 수 있다. 이러한 차이점들은 세 가지 점에 걸쳐서 나온다. (1) 관리들의 수, (2) 그들이 취급하는 문제들, (3) 각자의 임기의 기간……. 어떤 나라들에서는 임기가 6개월이며, 어떤 나라들에서는 그보다 짧고, 다른 나라들에서는 1년이며, 또 다른 나라들에서는 그보다더 길다. 우리는 이 기간들을 비교하는 것으로써 족하지 않고, 또한 관직이 중신직이어야 하는가, 또는 장기간, 즉 여러 해 동안이어야 하는가, 혹은 중신도 장기간도 아니고 단기간이어야 하는가, 그리고 이 경우에 있어서 동일인이 한 임기 이

상으로 관직을 맡아야 하는가, 아니면 각자가 한 번의 임기밖에 할 수 없어야 하는가 등의 문제를 일반적으로 연구해 보아야 한다. 또한 (4) 또 다른 문제점의 하나인 관리 임명의 방법을 고찰해야 하는데, 이것은 또 세 개의 의문—누가 피선(被選)의 자격이 있는가, 누가 선거권이 있는가, 선거는 어떠한 방식으로 행해져야 하는가를 제기한다.

- 2. 우리는 먼저 이 의문에 각기 적용할 수 있는 여러 방식들을 구별해야 하며, 그 다음으로 그 근거 위에서 특별한 형태의 정치질서에 맞는 특별한 형태의 관리제도를 결정해야한다. 그러나 우리는 우선 정의(定義)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즉 〈관리〉라는 말에 무엇을 포함시켜야 하는가? 정치적 결사는 많은 수의 서로 다른 관리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선거나 추첨에 의하여 어떠한 관직에 임명되는 사람들을 모두 관리라고 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공적 의식(儀式)을 관장하는 승려들을 관직에 포함할 수는 없다. 승려들의 관직은 정치적 관직과 다른 것으로 취급되어야 한다
- 3. 연극의 제작에 관련된 관리들도 마찬가지이며, 전령 혹은 외국에 사절로 가도록 뽑힌 사람들도 마찬가지이다. 공적 의무의 일반적 범위는 다음 세 가지 부류로 나누어 질 수 있다. 첫 번째 부류는 정치적인 것인데, 여기에서 하는 일은, 어떤 특정한 행동 분야에 있어서 전체 시민이나 (예를 들어, 장군이 전장에서 시민군을 지휘하는 것 같은), 혹은 시민들의 어떤 일부를 (예를 들어 부녀자와 아동들을 감독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일을 지시하듯이) 지시하는 것이다. 두 번째의 부류는 경제적인 기능인데, 이것은 분배하기 위한 곡식을 측량하도록 선출된 관리들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러한 관리들은 여러 국가에 있다.) 세 번째는 종속적인 혹은 천역을 하는 부류로써, 부유한 국가들에서 공적인 노예들이 수행하는 것 같은 의무들이다.
- 4. 이 모든 관직들 중에서 진정한 관리라는 칭호는 대체로 어떤 일정한 분야에서 토의하고, 결정하며, 그리고 지시를 내리는 임무를 띠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되어야 한다. 특히 관리의 특별한 표지가 되는 것은 지시를 내리는 의무이다. 그러나 이것은 모두 형식의 문제로서, 실제에 있어서는 거의 아무런 중요성이 없다. 이문제는 단순히 용어 상의 문제에 지나지 않으므로 여기에 관하여 법정에서 결정이

내려진 일은 없다. 그것은 단지 사변적 연구의 기회를 제공해줄 뿐이다.

- 5. 모든 정치질서, 특히 작은 나라들의 정치질서를 연구함에 있어서, 국가의 존립을 위하여 어떤 종류의 그리고 얼마만큼의 관리가 필요하며, 어떤 종류의 가치—설혹 그것이 필요치 않다고 할지라도—가 좋은 정치질서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가 하는 것을 구분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이다.
- 6. 큰 나라들에 있어서는 독립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각각 독립된 관리를 두는 것이 가능하며 동시에 옳은 일이다. 시민의 수가 많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관직을 맡기에 편리하다. 또한 어떤 관직들은 평생에 단 한 번만 맡을 수도 있고, 다른 관직들은 (한번 이상 맡을지라도) 긴 간격을 두고서만 맡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하면 편리할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한 사람이 여러 기능을 수행하지 않고 한 가지 기능만을 담당할 때에 더 잘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이점이 있다.
- (1299b) 7. 반대로, 작은 나라들에 있어서는 많은 기능을 소수 사람들이 장악해야한다. 시민의 수가 적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관리가 되기 어렵다. 만일 많은 사람들이 관직을 맡는다면, 누가 그들의 후계자가 될 것인가? 사실상 작은 나라들도 때때로 큰 나라들이나 마찬가지의 관리들과, 또 그들의 임기나 의무에 관한 같은 규정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또한 큰 나라들은 관리들을 거의 계속적으로 필요로 한며, 작은 나라들은 단지 오랜 기간을 두고서만 관리들을 필요로 한다.
- 8. 따라서 작은 나라들이 여러 의무들을 한몫에 그들 관리에게 부과하면 안된다는 이유는 없다. 그들은 서로 장애가 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어쨌든 인구가 적을 때에는 관리들을 팔방미인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최종적으로 해결하기 전에 여리 가지 문제를 고찰해야 한다. 첫째로 우리가, 한 관리가 얼마나 많은 관직을 맡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문제의 하나는, 국가가 얼마나 많은 관직을 반드시 필요로 하며, 또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는 않더라도 역시 갖추어야 하는 다른 관직들은 몇이나 되는가 하는 문제들을 미리 알아야 하는 것이다.
- 9. 둘째로, 여러 다른 장소에서 활동하는 다른 지방관리들이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문제들은 어떤 것이며 어떤 문제를 지역 전체를 관장하는 하나의 중앙관서가

담당해야 하는 일인가 하는 것을 빠뜨리지 말고 고찰하지 않으면 안된다. 질서의 유지가 그 한 예이다. 이 문제는, 우리가 시장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 관리가 필요하며 또 다른 장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한 관리가 필요 한가, 혹은 한 관리가 모든 장소에 있어서 질서유지를 전부 담당하는 것이 좋은가, 하는 질문을 제기한다. 셋째로, 취급해야 하는 문제를 근거로 하여 의무들을 배정해야 하는가, 혹은 관련된 사람들의 부류에 따라 책임을 나누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또한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질서의 유지라는 문제 전체를 담당하는 관리 한 명을 두어야 하는가, 아니면 아동들만 담당하는 또는 부녀자들만을 담당하는 관리들을 각각 두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또한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

10. 넷째로, 우리는 또한 정치질서들의 차이점을 고려해 보지 않으면 안된다. 이것은 관리제도가 정치질서에 따라 다른가, 혹은 모든 정치질서에 있어서 마찬가지인가 하는 문제를 제기한다. 모든 정치질서들에 있어서나(민주정치·과두정치·귀족정치, 그리고 군주정치) 마찬가지로 꼭 같은 관리제도—유일한 차이점은 개인적으로 관리들이 꼭 같은 혹은 유사한 사회계급에서 나오는가, 혹은 서로 다른 정치계급에 있어서는 서로 다른 계급으로부터 나오는가 하는 것뿐이다—로 정부가 구성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예를 들어, 귀족정치들에서는 교육을 받은 계급으로부터 나오며, 과두정치에 있어서는 부유한 계급으로부터 나오며, 민주정치에 있어서는 자유민으로부터 나오는 식이다.) 혹은 관리제도도, 관리들이나 마찬가지로 서로 다른 정치질서에 있어서는 어떤 면으로는 서로 차이가 난다고 할 수있을까? 그리고 여기에 유보조항으로써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꼭 같은 관리제도가 알맞고 다른 경우에 있어서는 관리제도란 서로 차이가 나게 마련이라고 부언할수 있는가? (예를 들어 어떤 정치질서에 있어 서는 관리들이 강력한 것이 적합하고. 다른 질서에 있어서는 꼭 같은 관리들이 허약한 것이 적합할 수도 있다.)

11. 사실상 어떤 관리제도들은 어느 일정한 정치질서의 형태에 전적으로 특유한 것이다. 예비의회의(probouloi의 의회)가 한 예이다. 그러한 기구는 민주정치와는 맞지 않으며 민주정치에 있어서는 일반의회(boulē)가 적절한 제도이다. 사실상 국민을 대신하여 예비적 심의의 임무를 띠고 있는 어떤 종류의 기구가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은 그들의 일상의 일을 돌볼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러한 기구의 규모가 작으면 그것은 과두정치적인 제도가 되는데, 예비의회는 항 상 소수이어서 따라서 항상 과두정치적일 것이다.

12. 일반의회와 예비의회가 함께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후자가 전자에 대한 견제의 역할을 한다. 그들은 과두정치적인 요소인 것이다. 그리고 일반의회는 민주정치적이다. 그러나 극단적인 형태의 민주정치들에 있어서는 의회 자체의 권위까지도 파괴되고 만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국민들이 직접 모여서 국가 전반의 업무를취급한다.

(1300a) 13. 이것은 의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에게 높은 수당을 주는 경우에 흔히 일어난다. 이 경우에 사람들은 자기들의 일을 돌볼 필요가 없으므로, 따라서 자주 집회를 하며, 그들 자신이 스스로 모든 문제들을 결정하는 것이다. 부녀자와 아동들을 담당하여 질서를 유지하는 관리들과, 비슷한 감독의 임무를 띤 다른 관리들은 민주정치보다 귀족정치에 더 알맞다. (가난한 자들의 부인들이 오고 가는 것을 규제하기는 불가능할 것이다.) 그들은 또한 과두정치에도 알맞지 않다. 과두정치에 있어서는 지배 계급의 부인들은 사치 생활을 하기 때문이다.

- 14. 현재로는 이런 문제들에 관하여 충분히 언급하였다. 이제 우리는 관리들의 임명에 관하여 철저히 설명해 보자. 여기서의 차이점들이란 세 가지 요소들과 연관되어 있는데, 이 세 가지 요소가 결합하여 모든 가능한 여러 가지 방식들이 나오게된다. 이 세 가지 요소란, (1) 임명을 하는 사람들, (2) 피선의 자격이 있는 사람들, (3) 임명의 기구이다.
- 15. 이 세 가지 요소가 각기 몇 가지 대안을 갖고 있으며, 이 세 가지 요소에 상응하는 세 가지 대안들이 있다. (1) 임명하는 사람들이 모든 시민이거나, 혹은 시민의일부일 수 있다. (2) 피선의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모든 시민이거나 시민의 일부일수 있는데, 그것은 재산의 자격ㆍ출생ㆍ자질, 혹은 어떤 유사한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예를 들어 메가라에서는 유일하게 피선의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망명에서함께 돌아와서 본 주민에 대항하여함께 싸운 사람들뿐이다). (3) 임명의 기구는 선거에 의할 수도 있고 혹은 추첨에 의할 수도 있다.

16. 그 위에 우리는 양쪽 대안을 한데 합쳐서 사용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아래와 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1) 어떤 관직에 관해서는 임명을 하는 사람들이 모든 시민이며, 다른 관직에 관해서는 시민의 일부만일 수 도 있으며, (2) 어떤 관직들에 관해서는 피선의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시민 전체이고, 다른 관직에 대해서는 시민의 일부만일 수도 있고, (3) 어떤 관직에 관해서는 임명의 방식이 선거이고, 다른 관직에 관해서는 추첨일 수 있다.

각 대안에 관해서 네 가지의 방식이 가능하다.

17. 모든 시민들이 임명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은 것을 의미 한다. (1) 모든 시민이 선거에 의해서 모든 시민 중에서 관리를 뽑는 방식, (2) 모든 시민이 추첨에 의하여 모든 시민으로부터 관직을 뽑는 방식(위에 말한 두 가지 경우에서 모든 시민으로부터 관리를 뽑는 것은, 모든 부분으로부터 부족·구역, 혹은 씨족들 같은 순서에 따라 관리를 뽑아 결국은 모두가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거나, 혹은 모든 시민으로부터 계속적으로 관리를 뽑거나 할 수 있다), (3) 모든 시민이 일정한 부분으로부터 선거에 의해 관리를 뽑는 방식 혹은 (4) 모든 시민이 일정한 부분으로부터 추첨에 의해 관리를 뽑는 방식이다. (그러나 모든 시민은 관리를 임명하는 기구로서,어떤 관직은 이들 중에 어떤 한 방식으로 임명 하고, 다른 관직들은 다른 방식으로임명할 수도 있다.)

18. 마찬가지로, 시민 중의 일부가 관리를 임명하는 방식은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의미한다. (1) 이 부분이 선거에 의하여 모든 시민으로부터 관리를 뽑거나, (2) 그것이모든 시민으로부터 추첨에 의하여 관리를 임명하거나, (3) 그것이 일정한 시민의부분으로부터 선거에 의하여 관리를 뽑거나, (4) 그것이 일부 시민으로부터 추첨에의하여 관리를 뽑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관리 임명권을 갖는 일부 시민이어떤 관직에 관해서는 이들 방법 중에 어느 하나에 의하여 관리를 임명하고, 다른관직은 다른 방식으로 임명할 수 있다. 즉, 어떤 관직에 대해서는 〈선거에 의하여모든 시민으로부터〉관리를 임명하며, 다른 관직에 대해서는 〈추첨에의하여모든시민으로부터〉관리를 임명할 수 있으며, 혹은 어떤 관직에 관해서는 〈선거에의하여시민의 일부로부터〉관리를 뽑고, 다른 관직에 대해서는〈추첨에의하여시

민의 일부로부터〉관리를 임명할 수 있다.) 그래서 다른 두 개의 결합 방식을 제외하고, 모두 열두 개의 방식이 있는 셈이다.

- 19. 먼저, 민주정치적인 방식이 둘이 있는데—(a) 모든 시민이 추첨이나 혹은 선거에 의하여 모든 시민으로부터 관리를 뽑는 방식과, (b) 모든 시민이 선거와 추첨양쪽에 의하되, 어떤 경우에는 한 방식을 사용하고 다른 경우에는 다른 방식을 사용하여 모든 시민으로부터 관리를 뽑는 방식이 있다. 둘째로, 〈혼합정치〉에 알맞은 아래와 같은 여러 가지 방식들이 또한 있다. (a) 하나는 모든 시민이 모든 시민으로부터 관리를 뽑는 방식(선거나 추첨의 어느 한 방식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두가지 방식을 모두 사용하여)이지만, 순서에 따라 각 부분별로 관리를 뽑으며 시민전체에서 계속적으로 뽑지 않는 것이다. (b) 다른 방식은, 모든 사람이 모든 시민으로부터 어떤 관직에 관리를 임명하지만 다른 관직들에 관해서는 일부 시민으로부터만 관리를 뽑는 것이다(역시 선거나 추첨의 어느 한 방식을 사용하거나 혹은 두 방식을 다함께 사용한다).
- 20. (c) 〈혼합정치〉에—그렇지만 과두정치 쪽으로 기우는 〈혼합정치〉에—맞는 또다른 방식은, 시민의 일부가 전체 시민으로부터 관리를 임명하되 어떤 관직은 선거에 의하여 임명하고 다른 관직은 추첨에 의하여 임명하는 것이다. (d) 〈혼합정치〉에—귀족정치에 근사한 〈혼합정치〉에 맞는 마지막 방식은 시민의 일부가 시민전체와 일부 시민으로부터 동시에 관리를 임명하는 것인데(즉, 어떤 관리는 시민전체로부터 다른 관리는 시민 일부로부터 임명하는 것), 이 경우에 전적으로 선거에 의하거나 전적으로 추첨에 의하거나, 혹은 어떤 관직은 선거에 의하고 다른 관직은 추첨에 의하거나 한다.
- (1300b) **21.** 셋째로, 과두정치에 맞는 방식은 시민의 일부가 시민의 일부로부터 선거·추첨 혹은 양자의 혼합 방식으로 관리를 임명하는 것이다. 끝으로, 귀족정치에 맞는 방식은, 선거의 방식에 의하여 일부 시민이 모든 시민으로부터 관리를 임명하거나, 혹은 모든 시민이 일부 시민으로부터 관리를 임명하는 것이다.
- 22. 관리의 임명에 있어서 사용할 수 있는 상이한 방법들의 수는 이와 같으며, 이들은 서로 다른 형태의 정치질서에 이와 같이 분포되어 있다. 어떤 방식이 각각의

경우에 있어서 편리하며, 또한 각 경우에 있어서 어떻게 임명해야 하는가를 이해하기 전에, 아직도 우리는 여러 다른 관직들의 기능의 성격을 이해하지 않으면 안된다. 관리들의 기능이라 하는 것은 세수의 관리나 군대의 통솔 같은 기능을 뜻한다. 예를 들어 장군의 기능과, 시장에서 계약을 감독하는 임명을 띤 관리의 기능은그 종류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 것이다.

#### 제16장

- 1. 이제 심의적 · 행정적 · 사법적 세 가지의 권한들 중에서 우리가 논의해야 할 것은 마지막의 것만이 남게 된다. 법정에 관련된 문제들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다른 분야에서 사용했던 것과 같은 방식을 따라야 한다. 여기에서 차이점이 야기되는 세 가지 문제는 (1) 법정의 구성원 자격 문제, (2) 그들의 권한, 그리고 (3) 법정의 구성원들을 임명하기 위한 기구의 문제이다. 구성원 자격의 문제는 법정이 모든 시민들로 이루어져야 하는가, 혹은 일부 시민으로만 이루어져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며, 권한의 문제는 법정에는 얼마나 많은 종류가 있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임명의 기구 문제는 임명을 투표에 의하는가 아니면 추첨에 의하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한다.
- 2. 우리는 먼저 법정의 종류는 얼마나 많은가 하는 문제를 결정해야 한다. 여기에는 여덟 가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먼저 관리들의 행동을 감사하기 위한 법정이었고, 둘째로 공동이해에 반하는 범죄를 다루는 법정이 있으며, 셋째로 헌정질서에 관련된 문제들을 다루는 법정이 있고, 넷째로는 (관리와 일반인들을 모두 포함하는 것인데) 벌금의 액수에 관한 분쟁을 다루는 것이 있고, 다섯째로는 일반인들 사이의 계약을 다루는 것으로써 상당한 정도의 액수가 문제되는 경우이며, 여섯째는 살인을 다루고, 일곱째는 이방인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다.
- 3. 살인을 다루는 법정은 여러 분야가 있을 수 있는데 이들은 한 집단의 판사들 밑에서 한데 합쳐지거나. 혹은 서로 다른 집단의 판사들에게 각각 귀속되거나 한다.

이들 중 한 분야는 고의적인 살인을 취급하며, 두 번째는 본의 아닌 살인을 취급하고, 세 번째는 살인행위 자체는 인정하나 그 이유에 관하여 논란이 많은 경우를 취급하며, 네 번째는 이전의 본의 아닌 살인을 저질러서 추방을 당했던 사람들이 귀국해서 고의로 저지른 살인행위를 취급하는 것이다. 마지막 분야의 예는 〈프레아토(Phreatto)의 법정〉<sup>7</sup> 이라고 알려져 있는 아테나이의 법정이다. 그러나 이러한종류의 사건들은 큰 국가에 있어서도 흔히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 4. 마찬가지로 이방인을 다루는 법정도 두 가지 분야가 있는데, 하나는 이방인과 이방인 사이의 문제를 다루며, 다른 하나는 이방인과 시민 사이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다. 끝으로 개인들 사이의 적은 액수의 돈이 관련된 계약문제를 취급하는 여덟 번째의 법정이 있다. 이것은 겨우 1드라크마, 5드라크마 혹은 그보다 좀 많은 액수의 돈이 걸린 분쟁을 다루는 것이다. 여기에서도 결정은 내려져야 하지만 큰 법정까지는 필요가 없는 것이다.
- 5. 마지막 세 가지 종류의 법정에 관해서는 더 깊이 들어갈 필요가 없고, 첫 번째의 다섯 가지 법정에만 관심을 국한시키는 것이 좋겠다. 이들은 모두 정치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법정들인데, 그것은 그들이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으면 내분과 현정질서의 착란을 초래할 문제들을 다루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다음 체제중에 어느 하나를 가져야 한다. (1) 모든 시민들이 우리가 구별한 문제들에 관하여판단을 내릴 수 있는 자격을 가져야 하며,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 (a) 투표나, 혹은 (b) 추첨에 의하여 선출되어야 한다. (2) 모든 시민들이 이러한 문제에 대해 판단할자격이 있지만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에 관해서는 투표로 법정 구성원을 정하며,다른 사람들에 관해서는 추첨으로 정하는 것이다. (3) 모든 시민들이 판단할 자격이 있지만 단지 이 문제들 중에 어느 일부에 관해서만 그러하며, 그러한 부분에 관련된 법정은 모두 마찬가지로 부분적으로는 투표에 의하여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7. 이 법정은 옛날 아테나이에 있었는데 여기서는 피고는 배 위에, 판사들은 육지에 있어서 재판을 진행했다고 한다.

추첨에 의하여 구성원을 뽑는 것이다.

(1301a) 6. 이것은 아래의 네 가지 상이한 체제를 뜻한다. 만약 부분적 방식을 따른다면—즉, 시민 전체가 아니라 일부 시민만이 법정의 구성원이 될 자격이 있다면—같은 수의 체제가 있게 될 것이다. 그러한 경우에 우리는 아래와 같은 여러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1) 시민의 일부로부터 투표에 의하여 뽑힌 판사가 모든 문제에 관하여 판결을 내리는 경우, (2) 시민의 일부로부터 추첨에 의하여 뽑힌 판사가모든 문제에 관하여 판결을 내리는 경우, (3) 투표에 의하여 시민의 일부로부터 뽑힌 판사들이 일정한 문제들을 판결하며, 추첨에 의하여 뽑힌 판사들은 다른 문제들을 판결하는 경우, (4) 마찬가지로 부분적으로는 투표와 부분적으로는 추첨에 의하여 뽑힌 판사들이 일정한 수의 법정에서만 재판하는 경우이다. 방금 말한 바와마찬가지로, 이 마지막 네 가지의 체제들이 위에서 말한 네 개의 체제에 그대로 정확하게 상응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 7. 그 위에 우리는 양 종류의 체제들을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법정은 시민 전체로부터 그 구성원을 뽑으며, 다른 법정은 시민체의 일부로부터 구성원을 뽑고, 또 다른 법정은 혼성된 구성원을 가지며 (이 경우에는 동일한 법정이 전체 시민으로부터 뽑힌 구성원과 일부 시민으로부터 뽑힌 구성원들로 함께 구성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또한 법정 구성원들이 투표나 추첨의 어느 한 방식에 의하여, 혹은 양자의 혼합에 의하여 임명될 수도 있다.
- 8. 이것으로써 법정이 구성될 수 있는 가능한 체제를 모두 열거한 셈이다. 첫 번째 종류의 체제, 즉 법정 구성원이 모든 시민으로부터 나오며, 또한 법정이 모든 문제에 관하여 판결하는 것은 시민적이다. 두 번째 종류, 즉 구성원이 일부 시민으로부터 나오며 법정이 모든 문제에 관하여 판결하는 것은 과두정치이다. 세 번째 종류, 즉 어떤 법정의 구성원들은 모든 시민들로부터 나오며, 다른 법정의 구성원들은 일부 시민들로부터 나오는 것은 귀족정치와 〈혼합정치〉의 특징이다.

Olje Foundation | Share the wisdom. Change the world.



혁명의 원인과 헌정질서의 변화



#### 제1장

(1301a19) 1. 이제 우리는 실제로 애초에 계획했던 첫 번째의 네 문제에 관해서는 논의를 끝낸 셈이다. 결론에 있어서는 마지막 문제만을 고찰해 보면 된다. 이 제목 아래에서 우리는 정치질서들에서 변화를 생성하는 일반적인 원인을 고려해 보아야 하며, 그들의 수와 성격을 살펴보아야 한다. 우리들은 또한 각 정치질서가 타락하기 쉬운 특별한 방식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즉, 어떤 정치질서로부터 어떤 정치질서로 가장 잘 변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설명해야 한다. 그 위에 우리는 정치질서의 안정성을 집단적으로 그리고 개별적으로 확보할 가능성이 높은 정책들을 제시해야 하고, 그리고 특정한 각 정치질서를 확립하는 데 최선의 수단들을 지적해야 한다.

- 2. 우리들 논의의 근거로서, 우리는 먼저 세상에 여러 서로 다른 정치질서들이 있는 이유는—이미 말한 바와 같이 모든 사람들이 정의를 칭송하며 비례적 평등의 원칙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는 일치하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그것을 달성하지 못한 다는 사실이라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
- 3. 민주정치는, 어떤 한 면에 있어서 평등한 사람들이 모든 면에 있어서 그리고 절 대적으로 평등하다는 의견에 뒷받침되어 일어난다. (사람들은 그들이 모두 평등한 자유민 출신이라는 사실이 그들은 곧 모두 절대적으로 평등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마찬가지로 과두정치는 어떤 면에서, 평등한 사람들까지도 전적으로 불평등하다는 의견에서 나온다. (부의 관점에서 우월한 사람이 자기 자신들을 절대적으로 우월한 것으로 쉽게 생각하고 마는 것이다.)
- 4. 그러한 의견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민주주의자들은 그들이 평등하다는 근거에서 모든 일에 있어서도 동등한 몫을 주장하며, 과두주의자들은 그들이 평등하지 않다는 즉, 보통 사람보다 우월하다는 근거에서 남보다 더 많은 몫을 요구하는 것이다.
- 5. 민주정치와 과두정치가 모두 일종의 정의에 근거를 두고 있지만, 둘 다 절대적 인 정의에는 미치지 못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양측이 모두 그들이 갖고 있는 정의의 개념에 일치되는 것만큼의 헌정적 권리를 향유하지 못하게 되면 소요를 일으

키는 것이다.

- 6. 자질이 뛰어난 사람들이 소요를 일으키려고 한다면 가장 정당화될 수 있는 일일 것이다(그렇지만 그들은 그러한 짓을 잘 하지 않을 것이지만). 왜냐하면 그들은—그리고 그들만이—절대적 우월성을 (1301b) 즐기고 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기 때문이다.
- 7. 좋은 가문 출신이 이 점을 근거로 하여 보통 사람보다 더 많은 몫을 요구하는 것에도 일리가 있다. 보통, 좋은 가문 출신이라는 것은, 선조가 자질과 공적과 함께 부를 가진 사람들의 특성이라고 생각된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이들이 반란의 원천이며 근원이고, 소요를 일으키는 원인인 것이다.
- 8. 이렇게 고려해 보면, 또한 헌정질서에 있어서 변화가 일어나는 두 개의 상이한 방식이 설명될 것이다. (1) 어떤 때에는 반란이 기존 정치질서에 반대하는 것이며, 또한 그 성격을 바꾸려는 의도에서 일어난다—즉 민주정치를 과두정치로, 과두정치를 민주정치로 바꾸려 하며, 또는 민주정치와 과두정치를 〈혼합정치〉와 귀족정치로, 혹은 역으로 후자는 전자로 바꾸려 하는 것이다. (2) 그러나 때때로 그것은 기존의 헌정질서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반란을 일으키는 정당이 세 방향 중에 하나나 혹은 다른 방향으로 더욱 온건한 노선을 따를 것이다. 첫째는, 기존의 정부체제를 즉 예를 들어, 과두정치나 군주정치를—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관리들을 그들 자신이 장악하려고 할 것이다.
- 9. 둘째로, 반란을 일으킨 정당이 헌정질서를 더 특징 있게 하거나 혹은 더 온건하게 하는 것을 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그것은 과두정치를 더, 혹은 덜 과두정치적으로 만들려고 하거나, 민주정치를 더 혹은 덜 민주정치적으로 만들려고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그것은 어떤 다른 형태의 정치질서에 있어서 그 질서를 더욱 졸라매거나 혹은 좀 풀어놓거나 하려고 할 수도 있다.
- 10. 셋째로, 반란을 일으키는 정당이 헌정질서의 어느 한 부분만을 변경시키는 데 노력을 기울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그것은 어떤 특정한 관직을 설치하거나 혹은 폐기하거나 할 수 있다. 어떤 저술가들은 리산드로스(Lysandros)가 스파르타의 왕정을 폐기하려고 했으며 파우사니아스(Pausanias) 왕은 감독인 제도를 없애려

했다고 말한다. 또한 에피다우로스(Epidauros)에서는 헌정질서를 부분적으로만 변경하여 부족의 족장들 회의가 민주정치의 성격을 가지는 의회로 대치되었다.

- 11.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까지도 관리의 임명이 표결에 붙여질 때에, 공공의회에 출석할 수 있는 관리들은 시민체 중의 시민들뿐이다. 그리고 집정관(Archon)이 1 인만 있는 것도 또 하나의 과두정치적인 면모이다.
- 이 모든 경우들에 있어서 소요의 원인은 불평등에서 발견될 수 있다—그렇지만 평등하지 못한 사람들이—그들 사이에 존재하는 불평등에 비례하여 처우를 받으면 불평등이 아닌 셈이다. (따라서 세습 왕정은 동등한 사람들 사이에 존재할 때에만 불평등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렇게 모든 소요의 근저에는 평등에 대한 갈망이 있는 것이다.
- 12. 그러나 평등에는 두 가지의 종류가 있다. 첫째 종류는 수적(數的)인 평등이며, 둘째 종류는 자격(資格)에 비례하는 평등이다. 〈수적 평등〉은, 획득하는 물건의수와 양에 있어서 평등하게 혹은 똑같이 취급받는 것을 의미하며, 〈자격에 비례하는 평등〉이란 비례적 평등의 근거에서 처우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자면, 수적으로는 3과 2의 차이는 2와 1의 차이와 마찬가지이지만, 비례적으로는 4와 2의 관계가 2와 1의 관계와 같은데, 그것은 2는 4에 대해서 1이 2에 있어서와 마찬가지 부분이기 때문이다.
- 13. 사람들은 절대적 정의란 자격에 대한 비례에 있다는 원칙에 쉽게 동의한다. 그러나 우리가 이 장(章)의 서두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그들은 실제 문제에 있어서는 의견의 문제를 달리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일면에서 평등하면 다른 모든 면에 있어서도 평등하다고 간주할 수 있다는 식의 주장을 하며, 다른 사람들은 어느 일면에서 우월하면 그들은 모든 면에 있어서 우월성을 주장할 수 있다는 식으로 주장 한다.
- 14. 사람들이 이렇게 두 가지 방식의 의견을 갖는 결과, 두 가지 형태의 정치질 서—민주정치와 과두정치—가 특히 지배적으로 된다. 좋은 자질과 가문은 소수 사 람들만이 갖고 있다. 그러나 민주정치와 과두정치에 기초를 두고 있는 그러한 성 질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의 사람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다. 어떤 국가에 있어서

도 가문이 좋고 자질이 훌륭한 사람들을 (1302a) 1백 명만큼이나 찾아낼 수는 없다. 그러나 부유한 사람들을 1백 명 찾아낼 수 있는 국가는 많다. 그러나 절대적으로 그리고 모든 면에 있어서 과두정치적 그리고 민주정치적 평등의 개념 중의 어느 하나에 기초를 둔 정치질서는 보잘것없는 것이다. 그 사실이 충분히 증명한다. 즉, 이러한 종류의 정치질서는 수명이 길지 못하다.

15. 그 이유는 간단하다. 누구든지 처음의 시작에서 실수를 저지를 때는 그 결말이 필연적으로 나빠야 한다. 올바른 방식은 어떤 경우에는 수적인 평등의 원칙을 사용하고, 또 다른 경우에는 자격에 비례하는 평등의 원칙을 사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정치가 과두정치보다 더 안전하고, 소요에 의한 고민이 덜한 형태의 정부임을 인정해야 한다.

16. 과두정치에는 두 가지 종류의 소요가 일어나기 쉬운데—첫째는 과두적 정당 그 자체의 당원들로부터 나오는 것이며, 두 번째의 것은 그 정당과 국민의 정당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민주정치에서의 소요는 민주주의 정당과 과두주의 정당 사이의 소요만이 있을 뿐이다. 그리고 민주적 정당들 자체 내에서는 아무 내분—적어도 말할 가치도 없는—은 없다. 민주정치는 또한 여기에서 우리의 관심이 되어 있는 모든 정치 형태들 중에 가장 안정된 형태의 정부—중산 계급에 기초를 둔〈혼합정치〉—에 과두정치보다 더 가깝다는 이점을 갖고 있다.

#### 제2장

- 1. 우리는 소요를 일어나게 하고 헌정질서의 일반적 운영에 변화를 초래하는 여러원인들을 고찰해봐야 하기 때문에, 그들의 기원과 원인에 관한 일반적 의견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 그것은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먼저 그것들을 각각별도로 간략하게 윤곽을 그림으로써 시작해야 한다. 우리가 연구해야 하는 세 가지 문제는, (1) 소요(點憂)에 이르게 하는 정신 상태, (2) 그러한 행동의 목표들, (3) 정치적 착란과 상호 간의 내분이 시작되는 계기들이다.
- 2. 사람들로 하여금 변화를 바라게끔 하는 정신적 자세의 주된 그리고 일반적 원

인은 우리가 방금 언급한 원인이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이 평등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소요를 일으키는데, 이러한 요소는 그들 자신이 사회적으로 이점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과 평등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별다른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데서 나온다. 또 다른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이 불평등, 즉 그들의 우월성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 차 있으므로 소요를 일으키는데, 이러한 태도는 그들이 사실상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함에도 불구하고 아무 특혜를 받지 못하고 단지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혹은 그보다도 못한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하는데서 나온다.

3. (이러한 열정들은 모두 일리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 그리 하여 열등한 사람들은 평등하게 되기 위하여 혁명가가 되어야 하며, 평등한 사람 들은 우월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혁명가가 된다.

소요를 일으키는 정신 상태는 바로 이것이다. 그들이 추구하는 목표는 이득과 명예이다. 또한 반대로 손해와 불명예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반란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다. 왜냐하면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단순히 그들 자신이나 친구들이 벌금이나 어떤 종류의 불명예를 피하고자 하는 수도 있기 때문이다.

- 4. 정치적 소란의 기원과 계기는 즉, 이러한 마음가짐을 부추기고, 방금 언급한 목표들을 추구하도록 하는 하나의 입장에서 보면 일곱이라고 할 수 있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면 그 이상이다.
- 5. 이들 두 계기는 (이득과 명예) 방금 언급한 두 목표와 동일하지만, 계기로써 생각해 보면 그들은 상이한 방식으로 행동한다. 목표로의 이득과 명예는 내분을 일으키는데, 왜냐하면 이제 방금 고찰한 바와 같이 사람들은 그들 자신이 이 목표들을 획득하려 하기 때문이다. 계기로서(1302b)의 그것들도 역시 내분을 일으키는데,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그들 자신보다 더 많은 몫을 어떤 경우는 정당하게. 또 어떤 경우는 부당하게—차지하는 것을 보기 때문이다.
- 6. 이득과 명예 이외에 또 다른 계기들은 오만·공포, 어떤 형태의 우월성의 존재, 경멸, 혹은 국가의 한 부분의 불균형한 비대 등이다. 내분에 이르는 또 다른 네 개의 계기는—그러나 다른 방식으로 일어나는—선거 음모, 고의적인 태만, 사소한

변화에 대한 부주의 그리고 국가의 구성 요소들의 불균형들이다.

## 제3장

- 1. 이러한 계기들 중에서 오만과 이익추구가 어떤 영향을 미치며, 이것이 어떠한 방식으로 소요에 이르는가 하는 것은 거의 명백하다. 관직에 있는 자들이 오만 무례하고 또한 그들의 개인적 이득을 추구할 때에, 시민들은 소요를 일으키게 되는데, 다른 사람들을 공격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람들에게 권력을 준 정치질서 자체에 대해서도 공격하는 것이다. 말이 난 김에 때때로 개인적 이득은 개인들을 희생해 가면서 추구되며, 때로는 대중들까지도 희생시키면서 추구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는 것이 좋겠다.
- 2. 명예가 어떻게 소요의 계기가 되며,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어떻게 소요를 초래 하는가 하는 것도 또한 명백하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불명예를 당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명예를 얻는 것을 볼 때에 소요를 일으킨다. 이들 양쪽이, 만약 명예의 수여나 불명예의 부과가 부당한 것이라면 모두 정당한 것이 못되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당연히 명예나 불명예를 받아야 한다.
- 3. 어떤 형태의 우월성의 존재가 소요를 일으키는 계기가 되는 것은, 어떤 한 사람 혹은 한 집단의 사람들이 어떤 국가에서 너무 강력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서 시민 일반의 힘을 합쳐도 당해내지 못할 정도에 이를 때이다. 그러한 위치는 결과적으로 왕정이나 혹은 〈도당적〉과두정치를 낳는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여러 국가들이 패각추방의 정책을 사용하게 된 것이다. 아르고스와 아테나이가 그 예이다. 그러나 먼저 그 정도로 뛰어난 사람들이 생기도록 허용한 이후에 그 구제책을 쓰려고 하는 것보다, 그러한 사람들이 애초부터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좋은 정책이다.
- 4. 공포는 두 부류의 사람들 즉, 처벌을 두려워하는 범죄자들과, 어떤 옳지 못한 일이 그들에게 닥칠 것이라고 예기하면서 전전긍긍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소요를 초래하는 계기가 된다. 후자의 경우의 예로 로데스(Rhodes)에 있었던 일을 인

용할 수 있다. 즉, 여기에서는 귀족들이 평민으로부터 여러 소송을 받아 두려워한 끝에 평민들에 대하여 반란을 일으켰다.

- 5. 경멸도 소요와 봉기의 또 다른 계기이다. 우리는 이것을 과두정치들에서 볼 수 있는데, 정치적 권리를 향유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향유하는 사람들보다 수가 더 많고 따라서 그들이 더 강력하다고 생각할 때 일어나는 것이다. 또한 민주정 치들에 있어서도 이러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즉 부유한 사람들이 주변에 만연하는 무질서와 무정부 상태를 멸시하는 경우에 일어난다. 멸시 때문에 붕괴한 민주정 치들의 예가 몇 개 있다—테베에서는 오에노피타(Oenophyta)의 전투(기원전 456년) 이후의 실정(失政)으로 인하여 민주정치가 파멸했으며, 메가라에서는 무질서와 무정부 상태로 인하여 초래된 패전(敗戰)의 결과로서 민주정치가 멸망하였고, 시라쿠사이에서는 젤론(Gelon)이 폭군이 되기 이전에 민주정치가 붕괴하기 시작했으며 로데스에서도 방금 언급한 귀족들의 반란이 있기 직전의 시기에 같은 일이 일어났다.
- 6. 국가의 한 부분의 불균형한 비대도 헌정질서적인 변화에 이르는 계기가 된다. 이것을 우리 몸에 비유하여 생각하면 알기 쉽다. 육체는 여러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육체의 균형을 유지하려면 그것이 균형 있게 성장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멸망하고 만다. (발이 4엘(ell)만큼이나 크고, 몸의 다른 부분이 2스팬(span)이라면 그렇게 될 것이다.) 혹은 이러한 경우 만약 이 불균형한 증가가 양적으로 뿐만 아니라 질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 같은 경우에 그것은 어떤 다른 짐승의 형태로 바뀔 수도 있을 것이다. 국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국가도 (1303a) 여러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중의 한 부분이 때로는 모르는 사이에 불균형하게 자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민주정치들과 〈혼합정치들〉에 있어서 가난한 자들의 수가 너무 커질 수 있는 것이다.
- 7. 어떤 때에는 이것은 우연한 사고의 결과일 수 있다. 예를 들어서, 타라스 (Taras)에서는, 페르시아 전쟁(기원전 480년) 직후에 이웃 이아픽스(Iapyx) 부족과의 전쟁에서 패전을 하고 많은 수의 귀족들이 전사를 한 결과로〈혼합정치〉가 민주정치로 바뀌고 말았다. 아르고스에서는 스파르타의 왕 클레오메네스

(Kleomenes)의 손에 〈일곱 번째의 사람들〉¹이 죽었기 때문에, 농노들 중에 일부를 시민들로 인정해 줄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정치질서가 민주정치로 바뀌었다. 아테나이에서는 펠로폰네소스 전쟁 중에 육지에서 몇 차례 패전하여 모든 등록된 시민들이 병역의 강제의무를 지는 체제가 됨으로써 귀족들의 수가 거의 고 갈되었다. 이것이 민주정치의 성장을 촉진시켰다.

- 8. 이들이 모두, 불균형한 비대 때문에 과두정치 혹은 온건한 정치질서에 나타난 변화의 경우이다. 그러나 민주정치들에서도 같은 이유로, 가능성이 희박한 것이기는 하나, 유사한 변화들이 또한 일어날 수 있다. 부자들의 수가 더 많아지거나, 혹은 재산이 증가하면, 민주정치는 과두정치나 〈가족주의적 과두정치〉로 바뀐다.
- 9. 다음으로 우리는 변화의 〈부수적인〉계기로 바꾸어, 먼저 선거 음모의 효과를 고찰해 보는 것이 좋겠다. 그런데 이것은 실제로 소요를 야기하지 않고도 헌정적 변화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헤라이아(Heraia)에서는 선거의 결과가 음모에 의하여 조작되었기 때문에, 결국 투표 대신 추첨을 사용하게 되었다. 고의적 부주의도 또한 변화의 계기가 될 수 있는데, 기존 정치질서에 충성하지 않은 사람들도 최고 관리직에 허용될 수 있는 것이다. 에우보이아의 오레우스(Oreus)가 그좋은 예이다. 헤라클레오도로스(Herakleodoros)가 관리가 되자 그 과두정치가무너졌고, 그 연후에 그는 그것을 민주정치 혹은 오히려〈혼합정치〉로 만들고 말았다.
- 10. 또 다른 계기로는 사소한 변화들을 등한히 하는 것이 있다. 작은 변화들을 소홀히 하면 제도들의 모든 체제가 부지불식간에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예를 들어, 암브라키아(Ambrakia)에서는 관직에 필요한 재산의 자격 요건이—처음에는 소액(小額)이었던 것이—결국은 완전히 없어지게 되었는데, 소액의 자격 요건이 있거나 아무것도 없거나 별 차이가 없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한 것이다.

<sup>1.</sup> 이들이 누구를 가리키는지는 확실치 않다. 이것은 어느 달의 7일째 전사한 사람들, 혹은 일곱 번째 부족 출신의 사람들일지 모른다고 추측할 뿐이다.

- 11. 인종(人種)이 다른 것도 소요의 원인이 될 수 있는데—하여튼 그들이 동화될 때까지는 이러한 위험이 있다. 국가는 우연한 시기에 우연히 사람들이 모여 구성될수는 없다. 국가의 창립 당시 혹은 그 이후에, 다른 인종의 사람들이 들어와 살도록 허용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소요에 시달림을 받았다. 예는 많이 있다. 아카이아 (Achaia)인들은 트로이젠(Troizen) 출신의 정착자들과 함께 시바리스(Sybaris)를 건설하는 데 참여했으나, 후에 자신들의 수가 증가하자 그들을 축출하고 말았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그 국가는 저주를 받게 된 것이다.
- 12. 투리오이(Thourioi)에서는 시바리스인들이 그곳을 함께 개척한 다른 이주민들과 다투었다. 그들은 그들이 그 땅의 소유자라는 근거에서 특별한 권리들을 요구하였지만 결국 축출당하고 말았다. 비잔티움에서는 후에 온 이주민들이 본래 살고 있던 개척민들에 대하여 음모를 꾸미다가 발각이 되어서, 강제로 축출당하고 말았으며, 안티사(Antissa)의 본래 개척민들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키오스의 망명인들에게 그곳에 거주하기를 허용하였다가 후에 추방을 하고 말았다. 반대로 작클레 (Zagkle)에서는 원주민들이 사모스(Samos)인들에게 거주를 허용했다가 자기 자신들이 추방을 당하고 말았다.
- 13. 흑해 연안의 아폴로니아(Apollonia)에서는 새 이주민들이 들어와서 소요가 일어났으며, 시라쿠사이에서는 폭군정치가 끝난 후에, 용병(傭兵)들과 이방인들에게 (1303b) 정치적 권리를 부여했다가 결국 소요와 내란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리고 암피폴리스(Amphipolis)에서는 원주민들이, 칼키디아(Chalkidia)의 개척민들을 들어오도록 허용했다가, 이들에게 거의 모두가 축출을 당하였다.
- (14. 위에서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과두정치들에 있어서는 대중이 자기들이 일으키는 소요가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근거는 그들이 실제로는 평등함에도 불구하고 평등한 권리를 얻지 못하였으므로 부당하게 취급당했다는 것이다. 민주정치들에 있어서는 저명인사들 이 소요를 일으키는 근거는 그들이 실제로 대중보다 우월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평등한 권리만을 가짐으로써 이것이 부당하다는 것이다.)
- **15.** 영토가 다른 것도 또한 소요의 계기가 된다. 이것은 정치적 통일성에 자연적으로 적합하지 못한 영토를 갖고 있는 나라들에서 일어난다. 클라조메나이

(Klazomenai)에서는 본토의 키트로스(Chytros)의 교외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섬에 사는 거주민들과 불화하였다. <sup>2</sup> 콜로폰(Kolophon)과 그것의 항구인 노티오스 (Nzotios) 사이에도 마찬가지의 불화가 있었다. 또한 아테나이에 있어서도 비슷한 차이점이 있었는데, 항구인 피라에우스<sup>3</sup>의 거주자들은 아테나이의 거주자들보다 더 민주적이다.

16. 전쟁에 비유해 보면, 전쟁에서는 아무리 작은 참호라도 격리선을 만들어 그것을 건너기 위해서는 연대가 흘어져야 하는 것처럼, 국가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으면 분열이 생기기 쉽다고 할 수 있다. 아마도 가장 커다란 구분은 덕과 악덕 사이의 구분이며, 그리고 그 다음으로 부와 빈곤의 구분이 있다. 또한 다른 구분들도 있는데, 이들은 다른 차이점에서 나오며, 어떤 것은 더 크고 어떤 것은 더 작다. 이들 중에 영토의 차이에 의하여 야기되는 분열도 넣을 수 있을 것이다.

## 제4장

- 1. 그러나 소요는 작은 계기들로부터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야기되는 문제는 작지 않다. 연관된 문제는 크다. 비록 작은 소요들일지라도 여기에 정부의 관리들이 연관되면 문제가 확대되는 것이다. 시라쿠사이의 역사 상에 그러한 예가 있는데, 관직에 있었던 두 젊은 사람이 애정 문제로 다툰 것을 발단으로 하여 헌정적인 혁명이 일어나게 된 일이 있었다.
- 2. 이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없는 사이에(둘이 동료 사이였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한 사람이 그의 친구를 유혹하여 변심을 하게 만들었다. 여기에 상처를 입은 사람은 화가 난 끝에 그의 동료의 부인을 유혹하여 관계를 맺음으로써 보복을 하였다.
- 2. 본토와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에 있어서는 본토 쪽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섬에 거주하는 사람들과 불화하였다.
- 3. 피라에우스(Piraeus): 식량의 조달을 외부와의 무역에 의존했기 때문에 따라서 군사력까지도 주로 해 군이었다. 이곳은 아테나이의 교외에 있었는데 바다에로의 관문 같은 곳이다.

- 이 둘은 모두 이 문제와 연관하여, 전체 시민을 자기들의 다툼에 끌어들였고, 결국 전 국가를 두 파당으로 분열시켰다.
- 3.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지도자 급의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관련된 분열이나 다툼은 그 시초에 주의를 하여 바로 진정시켜야 한다. 애초에 실수를 저지르면, 속담에,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처럼 처음에 작은 실수가 나머지 일에 있어서의 실수 전체와 같다.
- 4. 일반적으로 말해서 저명한 사람들 사이의 불화는 결과적으로 국가 전체를 연관시킨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페르시아 전쟁 이후 헤스티아에아(Hestiaea)에서 있었던 사건에서 볼 수 있다. 상속의 분배 문제에 관하여 두 형제가 다투었는데, 그들 중의 더 가난한 쪽이, 다른 편이 재산을 밝히거나 그들의 부친이 이루어놓은 재화의 수량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근거에서, 대중층의 지원을 받았고, 한편 상대방은 재산이 많았기 때문에 부유층의 도움을 확보하였다.
- 5. 또한 멜포이에서도 나중의 모든 불화(不和)의 시초는 (1304a) 한 결혼으로부터 나온 분쟁이었다. 신랑이 신부를 호송하여 가려고 신부의 집에 왔다가 그 집에서 어떤 사고가 일어났는데 이것은 나쁜 징조라 해석하고, 신부를 남겨놓은 채로 떠나고 말았다. 신부의 친척들은 그들이 모욕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그 보복으로 제사 때의 공물 중에 몇 가지 신성한 물건들을 집어넣음으로써 이것이 신성모독이라고 트집을 잡고 그를 죽여 버렸다.
- 6. 마찬가지로 미틸레네(Mitylene)에서도 여자 상속인들의 결혼에 관한 분쟁이 수 많은 곤란한 일들의 시초였는데 여기에는 아테나이와의 전쟁도 포함되어 있고, 이 전쟁 도중에 파케스(Paches)가 그 도시를 점령하였다. 부유한 시민 중의 하나인 티모파네스(Timophanes)가 두 딸을 남겨놓고 죽었다. 다른 시민인 텍산드로스 (Dexandros)가, 그의 아들들이 이 여자 상속인들과 결혼할 권리를 요구하기 위하여 청혼을 시작했는데 그만 여기에 실패하고 말았다, 그렇게 되자 그는 소요를 선동했으며, 그리고 아테나이의 영사(領事) 노릇을 했기 때문에 아테나이인들을 부추겨서 여기에 개입하도록 하였다. 4
- 7, 또한 포키스(Phokis)에서는, 한 여자상속인의 결혼에 관한 또 하나의 분쟁이 결

국 포키스 전체가 관련되게 된 신성(神性)전쟁의 시작이 되었는데, 이 분쟁에는 므나손(Mnason)의 아버지 므나세아스(Mnaseas)와 오노마르코스(Onomarchos)의 아버지 에우티크라테스(Euthykrates)가 관련되어 있었다. 에피담노스(Epidamnos)에서의 헌정적 혁명의 원인이 된 것도 결혼 문제였다. 어떤 사람이그의 딸을 다른 사람에게 약혼시켰는데, 후에 가서 방금 관리가 된 이 남자의 아버지로부터 벌금형을 받았다. 이렇게 되자 그 자신이 모욕을 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정치적 권력을 박탈당한 계급들과 연합하여 헌정질서를 뒤집어엎은 것이다.

- 8. 관리 중의 한 사람이나 국가의 어떤 다른 부분의 몇몇의 권리 또는 명성이 신장되는 결과로도 헌정질서는—과두정치 · 민주정치, 혹은 〈혼합정치〉의 어떤 방향으로든—변화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아테나이의 아레오파고스(Areopagos)의 의회는 페르시아 전쟁 동안에 명성을 얻어서, 그 결과로 당분간 헌정질서가 엄격하게되었다. (즉 과두정치의 방향으로 움직여 나갔다.) 그 후에 사태가 바뀌어서 해군에 복무하던 평민들의 공으로 살라미스(Salamis)에서 승리를 얻게 되었으며, 아테나이를 위하여 해군력에 의존하는 제국을 확보하게 되었는데, 이 결과로 민주정치측이 강화되게 되었다. 5
- 9. 아르고스의 귀족들도 만티네아(Mantinea)에서의 스파르타인들과의 전투(기원전 418년)에서 훌륭히 싸워 명성을 얻었는데, 여기에 자극을 받아 민주정치를 억압하려고 하였다. 반대로 시라쿠사이에서는 아테나이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주로 평민들의 공이었으므로 이들이 결국 기존의 〈혼합정치〉를 민주정치로 바꾸어 버리고 말았다. 칼키스에서는 국민들이 귀족들과 연합하여 폭군인 폭소스
- 4. 고대 그리스에 있어서는 도시국가들 사이에 서로 상주 외교사절이 없었고, 오늘날의 명예영사 제도와 비슷하게 그 도시국가의 시민 하나가 영사로 지목이 되면 그 나라에서 자기가 대표하는 나라의 이해관 계를 주선하였다.
- 5. 아리스토텔레스는 다른 저서 《아테나이의 헌법》에서 아테나이의 해군력과 민주정치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음을 설명하였다. 사실상 위에 잠깐 언급되었지만 평민 또는 하층민 출신으로 피라에우스와 아테나이에 거주하는 수병들이 아테나이의 정치에 있어서 민주적 혹은 급진적 요소의 역할을 하였다.

(Phoxos)를 제거하였는데, 여기에서 그들이 수행한 역할 때문에 즉시 헌정에 확고한 위치를 확보하였다. 이와 거의 비슷하게 암브라키아에서도 국민들이 음모자들과 힘을 합하여 폭군인 페리안드로스를 추방하였는데, 그 다음에 그들은 헌정질서를 대중적인 형태로 바꾸어 버리고 말았다.

- 10. 일반적으로 경험은 아래와 같은 항상 기억하지 않으면 안되는 교훈을 가르쳐 준다. 즉 국가에 새로운 권력을 첨가하는 어떠한 개인이나 집단도—즉 개인, 관리들의 집단, 부족, 혹은 일반적으로 어떤 집단이나 그룹 등 무엇이건 간에—소요를 야기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성공을 거둔 사람들의 명예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소요를 시작하거나, 아니면 성공을 거둔 자들이 그들 자신이 남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해서 다른 사람들과 평등한 신분에 머물러 있기를 거부함으로써 소요가 일어난다.
- 11. 보통 적대관계에 있다고 간주되는 국가의 부분들이—예를 들어 부자와 평민들—세력이 엇비슷하며, (1304b) 결정적인 역할을 할 중간계급이 없거나 거의 적을 때에 혁명들은 역시 일어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 중의 어느 한쪽이 뚜렷하게 우월할 때에는, 다른 한쪽은 자기보다 분명히 더 강한 상대와 투쟁을 하는 모험을 하려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 **12.** 이러한 이유 때문에 자질이 뛰어난 사람들은 원칙적으로 소요를 일으키려고 하지 않는다. 그들은 소수로써 다수에 대하여 싸워야 하기 때문이다.
- 일반적으로 보아, 소요의 발생과 원인 그리고 모든 정치질서들에 있어서의 변화는이와 같다. 정치적 혁명은 때로는 힘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때로는 기만에 의하여이루어진다고 부언할 수 있을 것이다. 힘은 초기 단계나 혹은 후의 단계로 사용될수 있다. 기만 역시 두 단계로 사용될수 있다.
- 13. 그것은 때때로 초기 단계에서 사용된다. 이러한 방식에서 변화는 당분간 모든 사람의 동의를 얻어 이루어지지만, 이러한 변경을 한 사람들은 그 다음에 가서는 모든 반대에도 불구하고 실권을 장악한다. 기원전 411년에 아테나이에서 있었던 4 백 인의 혁명도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 그들은 먼저 스파르타에 대한 전쟁을 하면 페르시아의 왕이 자금 지원을 해주리라는 보장을 함으로써 국민을 기만했으

며, 이러한 기만행위 후에 그들은 영구히 헌정질서를 장악하려 했다. 그러나 때로 는 처음에 설득을 한 다음에 후에도 비슷한 정책을 추구해서 일반적인 동의를 얻어서 정권을 유지하려는 것이다. 간단히 살펴볼 모든 정치제도에 있어서의 변화의 원인들은 이와 같다.

### 제5장

1. 우리는 먼저 서로 다른 정치질서들을 개별적으로 보고, 그 다음으로 이들 일반 적 명제들에 비추어 보아 이 형태들의 각기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연구해 보아야 한다.

민주정치들에 있어서는 대중 선동가들의 무분별한 방종 때문에 주로 변화가 일어 난다. 이것은 두 가지 형태를 취한다. 때때로 그들은 부자들을 거짓 비난함으로써 개별적으로 공격하며,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결속되도록 한다. (왜냐하면 가장 사 이가 나쁜 적들일지라도 공통의 위험 앞에선 단결하기 때문이다.) 때로는 그들은 부자에 대항하라고 국민들을 선동함으로써 한 계급으로서의 부자를 공격한다. 그 러한 행동의 결과는 여러 경우에서 볼 수 있다.

- 2. 코스(Kos)에서는 불성실한 대중 선동가들이 득세하고 귀족층이 그들에 대하여 결속함으로써 민주주의가 전복되었다. 로데스에서도 같은 일이 생겼는데, 여기에서는 대중 선동가들이 처음에는 의회와 법정에 출석하는 수당을 주는 체제를 도입하고, 그 필요한 기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군선<sup>6</sup>의 사령관들이 배에 장비를 갖추는 데 쓰기로 된 비용의 지불을 중지하였다. 그 결과 배의 사령관들은 조선업자들로부터 제기된 소송에 견디다 못해 힘을 합하여 민주정치를 전복시키고 말았다.
- 3. 흑해에 있는 헤라클레이아(Herakleia)에서는 이 식민지가 건설되자마자 대중 선동가들의 행동 때문에 민주정치가 멸망하고 말았다. 그들은 귀족들을 부당하게
- 6. 군선(軍船): 고대 그리스의 전형적인 전선(戰船)인데 세 줄의 노를 갖춘 배였다고 한다.

취급하였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을 축출하였지만 귀족들은 힘을 규합하여 그곳으로 돌아와서는 민주정치를 전복시키고 말았다.

- 4. 메가라(Megara)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민주정치가 멸망했다. 대중 선동가들은 부유층의 재산을 몰수할 구실을 찾는 데 혈안이 되어 많은 귀족들을 추방하였지만, 그 결과로 추방당한 자들의 수가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그들은 귀환하여 평민들을 전투에서 패배시키고 과두정치를 세우고 말았다. (1305a) 키메(Kyme)에서의 민주정치도 같은 운명을 맞이하였는데, 이것은 트라시마코스 (Thrasymachos)에 의하여 전복되었다.
- 5. 대부분의 다른 그리스의 국가들에 있어서의 변화를 조사해 보면 그들이 일반적으로 이러한 성격을 갖는다는 것을 보여주기에 충분하다. 때때로 선동가들은 국민의 인기를 얻는 데 혈안이 되어 부유층에게 공공의 부담을 지워 해를 입힘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결속하도록 한다—이러한 부담은 부자들로 하여금 파산하도록 하거나 혹은 그들의 수입을 해치는 것이다. 때로는 그들은 부유한 시민들의 재산을 압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정에서 허위의 고소를 한다.
- **6.** 옛날에는 동일인이 대중 선동가이며 장군이기도 한 경우에는 민주정치들이 폭 군정치로 바뀌었다. 초기 폭군 중의 대부분은 처음에 대중 선동가들이었다.
- 7. 어째서 한때는 이러했으며 오늘날에는 그렇지 않은가 하는 이유는 사회 발전의 문제이다. 웅변술이 아직 유치한 단계에 있었던 옛날에는 대중 선동가들은 언제나 군사령관들로부터 나왔다. 수사학의 기술이 발달된 오늘날에 있어서는 말재주가 있는 사람들이 대중 선동가들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형태의 사람들은 전쟁의 기술이 없으므로 폭군이 되려고 하지 않는다—그렇지만 여기 저기에 하나둘의 예외적인 경우는 있다.
- 8. 어째서 옛날에는 폭군정치가 더 자주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는 그때에는 높은 관직들이 개인들에게 맡겨졌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밀레토스의 폭군정치는 폭군 인 트라시불로스(Thrasybulos)가 여러 중요한 특권을 갖는 관직인 통령<sup>7</sup> 직을 맡았기 때문에 일어났다. 또 다른 이유는 옛날에는 도시들의 규모가 작았다는 사실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국민들은 그들의 농토에 매일매일 얽매이면서 시골에 살았

는데, 그들의 지도자들이 군사적 능력을 갖는 사람들인 경우에는 폭군정치를 세울기회가 있었다.

- 9. 그들은 일반적으로 국민의 신임에 힘입어 그렇게 하였다. 그리고 이 신임의 근거는 국민들이 부유한 사람들에게 갖는 적대감이었다. 그리하여 아테나이에서 페이시스트라토스(Peisistratos)는 평야의 당<sup>8</sup>에 대한 봉기를 지도함으로써 폭군이되었다. 테아게네스(Theagenes)는, 강가에 있는 그들의 땅 바깥에서 가축들을 방목하고 있는, 부유한 지주들을 적발하여 이 가축들을 도살한 후에 메가라의 폭군이 되었다.
- 10. 시라쿠사이에서는 디오니시오스가 다프나이오스(Daphnaios)와 또 다른 부자들을 탄핵함으로써 폭군의 위치를 얻었다. 부자들에 대한 그의 적대심 때문에 국민들은 그를 좋은 민주주의자로 신임한 것이다. 전통적인 그리고 〈조상 전래의〉 형태의 민주정치로부터 최근의 그리고 가장 현대적인 민주정치로의 변화도 또한 일어난다. 어떠한 재산의 자격 조항도 없이 투표에 의하여 관직을 채우며, 전체 국민이 투표를 하는 경우에는 관직을 맡으려는 후보자들은 대중 선동가들의 노릇을 하기 시작하며, 따라서 사태는 법 자체도 인민의 최고 권위 내에 포함돼 버리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
- 11. 이러한 결과를 막기 위하여—혹은 여하간에 그 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하여—적절한 방식은, 인민 전체에게 투표권을 주지 말고 개별적인 부족들에게 투표권을 주는 것이다. 이들이 주로 민주정치들에 있어서 모든 변화들의 원인이다.

<sup>7.</sup> 통령(統領): 그리스의  $\pi p \acute{o} au au au column$  해당하는 적당한 말이 없어 통령으로 번역하였다. 원래의 의미는 통 치자, 혹은 주인(lord)의 뜻이다.

<sup>8.</sup> 평야(平野)의 당(黨): 이것은 가난한 자들의 정당인 〈해안(海岸)의 당〉에 반대되는 것으로서 부유한 사람들의 정당이다. 이와 연관하여,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피라에우스의 수부(水夫)들이 민주정치적인 요소였다는 점을 상기할 수 있겠다.

# 제6장

- 1. 과두정치들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데 두 가지의 특별한 그리고 가장 명백한 방식이 있다. 그 하나는 정부가 대중을 부당하게 취급하는 것이다. 그런 경우에 어떤 지도자도 대중의 챔피언이 되는데, 이것은 그 지도자가 지배계급의 자체로부터 나온 경우에는 특히 그러하다. 낙소스(Naxos)섬의 리그다미스(Lygdamis)의 경우가이러했는데, 그는 후에 그 섬의 폭군이 되었다.
- 2. 지배계급 밖에서의 저항운동에서 (1305b) 시작되는 소요는 몇 가지의 서로 다른 형태를 취한다. 때로는 부유하지만 관직으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이 과두정치를 무너뜨린다. 이것은 관직을 담당한 사람들의 수가 매우 제한되어 있을 때 일어난다. 이것은 마실리아(Massilia), 이스트로스(Istros), 헤라클레이아, 그리고 다른도시들에서 일어났다.
- 3. 이 모든 과두정치들에 있어서 관직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소란을 일으켜 결국은 어떤 형태로든 참여할 수 있게 되기까지 그렇게 했는데, 처음에는 가정에서 형들에게 관직을 주고 다음에는 동생에게도 주었다. (어떤 나라들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이, 그리고 또 다른 나라들에서는 형과 동생이 함께 관직을 맡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는 것이 설명되어야 겠다.) 결국에 가서는 마실리아의 과두정치는 오히려 〈혼합정치〉의 성격을 더 많이 갖는 것으로 바뀌고 말았으며, 이스트로스에서는 민주정치로 되고 말았고, 헤라클레이아의 과두정치는 처음에는 소집단이 장악하고 있었으나, 후에 6백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관직을 담당하게끔 되었다.
- 4. 크니도스(Knidos)에서도 과두정치의 변화가 있었는데, 상당히 격렬한 것이었다. 여기에서는 귀족계급 자체 내에서 소요가 일어났다. 그들 중에 극소수만이 관직을 맡았는데, 만약 아버지가 관직을 맡았으면 아들은 그 자격을 상실하며, 만약어느 가정에 형제가 여럿 있다면 그 중에서 장남만이 관직을 맡을 자격이 있다는 규칙이 시행되었다. (이것에 관해서는 방금 언급한 일이 있다.) 이 내적 소요 과정에서 국민들이 개입하였다. 그리하여 귀족들 중에서 지도자를 추대하고 지배계급을 공격하여 승리를 거두었다—(항상 있는 일이지만) 그들의 적(敵)은 내분 때문에

망한 것이다.

5. 에리트라이(Erythrai)에서도 비슷한 종류의 일이 일어났다. 그것은 예전에 바실리다이(Basilidai)의 씨족이 과두정치적으로 통치했으며, 정부는 신중하게 국정을 운영했지만, 국민들이 자기들이 소외되어 있는 것을 못 마땅히 여기고 헌정질서를 변경시키고 말았다.

과두정치는 그 구성원 자신들이 개인적인 경쟁 때문에 대중 선동가의 노릇을 할 때에 내부로부터 혼란이 일어난다.

- 6. 이것은 두 가지의 서로 다른 방식으로 일어날 수 있다. 그 중 하나는 지배체 자체에 대해서 대중 선동가의 기술을 실시하는 것이다. 소수집단 중에서도 대중 선동가가 나올 수 있다. 아테나이에 있어서 30인의 시대<sup>9</sup>에 카리클레스(Charikles)와 그의 추종자들은 30인의 호의를 사서 권력을 장악했으며, 그리고 4백 인의 시대<sup>10</sup>에 프리니코스(Phrynichos)와 그의 추종자들도 같은 방식으로 행동하였다. 과두정치의 구성원들이 대중 선동가의 노릇을 하는 또 다른 방식은 대중을 상대로 하는 것이다. 라리사(Larisa)의 경우가 이러했는데, 여기에서는 경찰관리들이 대중에 의하여 선출이 되기 때문에 대중의 비위를 맞추었다. 이러한 일들은, 관리들은—그들 자신이 관리가 될 수 있는 사람들만이 투표권을 갖고 선거하는 대신에—모든 군인들 혹은 전국민까지도 포함하는 광범한 투표권을 갖는 대중이 선거하는 반면에, 피선거권이 정치적 구락부의 구성원들이나 큰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제한되어 있는 그러한 과두정치들에서 일반적으로 일어난다. (아비도스 (Abydos)에서의 사태가 이러했다.)
- 7. 법정이 최고 권위를 갖는 주권체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과두 정치들에서도 마찬가지의 난점들이 생긴다는 것을 부언하는 것이 좋겠다. 이러한 경우에 사람들은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중 선동가의 책략들

<sup>9. 30</sup>인의 시대: 이것은 기원전 404년에 30인이 아테나이의 국정을 요리하던 일을 말함.

<sup>10. 4</sup>백인의 시대: 기원전 411년에 4백 인이 아테나이의 국정을 맡아 하던 때의 일을 말함.

을 부리기 시작한다. 그리고 이 결과로 내분과 헌정질서의 변화가 생기게 되는데, 흑해 연안의 헤라클레이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과두정치의 구성원들의 몇 몇이 과두정치를 더욱 소수에게 국한시키려고 하는 경우에도 또한 어려운 일들이 생긴다. 그러면 권리의 평등을 부르짖는 사람들이 국민의 협력을 얻을 수밖에 없게 된다.

- 8. 과두정치들이 내부로부터 혼란될 수 있는 또 다른 방식은, 그 구성원들이 방종한 생활에 재산을 탕진하는 경우이다. 그러한 생활을 해 온 사람들은 혁명을 일으키려 한다. 그들은 그들 자신이 폭군이 되려하거나 (1306a) 혹은 어떤 다른 사람을 폭군으로 세우려고 한다. 시라쿠사이에서 히파리노스(Hipparinos)는 이러한 방식으로 디오니시오스를 폭군으로 세웠다. 암피폴리스에서는 클레오티모스 (Kleotimos)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칼키디아의 이주민을 입국시키고, 그들이 정착한 후에 그들을 선동하여 부자들을 공격하게 했다.
- 9. 또한 아이기나(Aigina)에서도 비슷한 이유로 카레스(Chares)와 교섭을 한 사람이 현정질서를 변경시키려고 했다. 이러한 종류의 사람들은 때로는 바로 정치적인 변화를 일으키려고 시도하며 때로는 공금을 횡령하는 데 그친다. 그러나 그것도 결국은 소요에 이르게 되는데, 이때에 죄인들 자신이 소요를 일으키거나 혹은 (흑해 연안의 아폴로니아(Apollonia)에서 일어났던 것 같이) 그들의 그릇된 행동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일으키거나 한다.
- 10. 일치단결한 과두정치는 내부로부터 쉽게 전복되지 않는다. 파르살로스 (Pharsalos)의 정치질서가 그 한 예다. 지배세력은 매우 제한되어 있지만 그 구성 원들이 상호 간에 올바르게 처신하기 때문에 많은 인구를 통치할 수 있다.

과두정치들이 내부로부터 붕괴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식은 과두정치 체제 내부에서 또 하나의 과두체가 성립되는 경우이다.

**11.** 이 사람이 누군지 이름은 알려져 있지 않은데, 방종한 생활 끝에 재산을 탕진하고 아테나이 장군인 카레스의 힘을 빌어 폭군정치를 시도하려 했다. 연대는 대략 기원전 367년으로 추정된다.

- 11. 이러한 경우에는, 정권에 참여할 수 있는 시민의 수가 매우 적은데도 불구하고 이들조차도 모두가 최고 관직을 담당할 수는 없게 되는 것이다. 옛날에 엘리스 (Elis)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 정권은 벌써 소수의 원로원의 의원들의 수중에 있었지만, 원로원의 의원으로 지명을 받는 사람들은 극소수의 몇 명에 지나지 않았다. 원로원의 구성원들은 그 수가 90명이었는데 모두 종신으로 관직을 담당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스파르타의 원로원 의원들과 많이 유사하게, 몇몇 제한된 수의 가족들의 이해에 특혜를 주는 방식으로 선출이 되었다.
- 12. 변화는, 과두정치들에서 전쟁시와 평화시에 있어서 마찬가지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다. 전시에는 과두정치의 구성원들이 국민의 불신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용병을 고용하지 않으면 안되는 경우에 변화들이 일어난다. 만약 한 사람이 이용병들의 지휘권을 갖게 되면, 코린토스에서 티모파네스(Timophanes)가 한 것처럼, 흔히 그 자신이 폭군이 되고 만다. 만약 지휘권이 몇 사람의 수중에 있게 된다면, 그들 자신이 도당(dynasteia)을 지어 정권을 장악하고 만다. 그러한 일이 일어날까 두려워하여 군대를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렇게 되면 대중에게 헌정질서에 참여할 권리를 약간은 부여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 13. 과두체제의 구성원들이, 상호 간에 서로 불신해서 국내의 안전 유지를 용병이나 중립적인 중재자—때때로 이렇게 권력을 위임받은 사람이 적대하는 양 파벌 모두에게 주인으로서 군림하게 된다—에게 위임하는 평화시에도 변화는 일어나는 것이다. 알레우아드(Aleuad) 씨족 중의 일원인 시미아스(Simias)의 통치 시절에라리사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 이피아데스(Iphiades)도 그 중의 하나인 파벌들이 서로 싸우고 있는 동안에 아비도스에서 이러한 일들이 또한 일어났다.
- 14. 결혼과 법적 소송의 문제 때문에 과두정치의 내부에서 소요가 또한 일어날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은 어느 한 파가 다른 파를 불쾌하게 만들어 내부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결혼 문제 때문에 분열이 생기는 것의 몇 가지 예는 이미 위에서 인용했다(제4장 5~7 참조). 또한 결혼 문제에 있어서 부당한 취급을 받은 것에 분개하여 디아고라스(Diagoras)가 에레트리아(Eretria)에서 기사들로 이루어진 과두정치를 뒤집어엎은 것에 관해서도 언급하는 것이 좋겠다.

- 15. 테베와 헤라클레이아에서는 법정에서의 판결 때문에 내분이 일어났다. 이 양쪽 경우에 있어서 모두 범죄는 간통이었는데, 이들에게 [헤라클레이아에서는 에우리티온(Eurytion)이었고, 테베에서는 아르키아스(Archias)였다] 가해진 형벌은 정의의 정신과 파벌 의식이 (1306b) 혼합된 방식으로 행해졌다—죄인들의 적들은 이들을 공중 앞에서 칼을 씌움으로써 그들의 원한을 풀었다.
- **16.** 또한 과두정치의 지배계급의 구성원들이, 지나치게 억압적인 과두정치들이 사용하는 방법들에 분개하여 이들을 전복시킨 일도 종종 일어났다. 예를 들어서, 크니도스와 키오스의 과두정치들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 끝으로, 때로는 우연한 사고 때문에 정치질서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다. 〈혼합정치들〉이라고 불리는 헌정과, 의회와 법정의 구성원이 되거나 다른 관직을 담당하기 위하여 재산의 자격 요건을 필요로 하는 과두정치의 형태들에서 이런 일이일어난다.
- 17. 이 자격 요건들은 기존 조건들을 기초로 하여 헌정적 권리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즉, 과두정치들에서는 소수에게, 그리고 〈혼합정치들〉에서는 중산계급에게—애초부터 고정되어 있었을는지도 모른다. 흔히 일어나는 일이지만, 그 다음에 평화의 기간이 오래거나 아니면 다른 운이 좋은 일이 있어서 물질적으로 풍요한 시기가 올 수 있다. 이 결과 같은 재산이 이제는 예전보다 몇 배나 되는 높은 값으로 평가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시민 전체가 모든 권리를 향유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변화는 때로는 점차로 조금씩 눈에 띄지 않게 이루어지지만, 때로는 급격히 일어난다.
- 18. 과두정치에 있어서 소요와 변화의 원인은 이와 같다. 일반적인 관찰 하나를 첨부하는 것이 좋겠다. 때로는 민주정치들과 과두정치들이 모두 반대되는 헌정 형태로 변화하지 않고 그들 자신의 형태의 어느 변형으로 바뀐다. 예를 들어, 법에 의하여 제한된 민주정치들과 과두정치들이 절대적인 체제로 바뀌기도 하는데, 마찬가지로 그 역도 일어날 수 있다.

## 제7장

- 1. 귀족정치들에 있어서는, 다른 이유들도 많지만, 작은 집단에게만 관직과 명예를 제한하는 데서 소요가 일어난다. 우리가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과두정치들에 있어서도 이러한 원인 때문에 소동이 발생하며, 귀족정치들도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과두정치이므로 당연히 이러한 원인에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다. 비록 이유는 다르지만, 두 형태의 정치질서에 있어서 모두 지배계급은 소수인데, 이러한 공통점에서 볼 때 귀족정치도 일종의 과두정치로 칠 수 있는 것이다.
- 2. 이러한 원인에서 나오는 소요는, 특히 대중이 그들도 자질에 있어서 그들의 지배자들만큼 훌륭하다는 확신으로 흥분하여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을 때 잘 일어난다. 스파르타의 파르테니아이<sup>12</sup>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바로 이 경우이다. 그들은 스파르타의 귀족 자손들이었는데, 그들의 권리를 되찾기 위하여 음모를 꾸몄지만 그만 발각이 되어서 타라스에 개척민으로 보내어졌다고 한다. 같은 종류의 소요가, 능력이 뛰어난, 그리고 자질이 아무에게도 뒤지지 않는 사람들이 이들보다더 큰 명예를 향유하고 있는 사람들에 의하여 불명예스러운 처우를 받았을 때에도일어날 수 있다. 스파르타의 왕이 리산드로스(Lysandros)를 잘못 대우했던 것이고 예이다.
- 3. 아게실라오스(Agesilaos) 왕의 재위시(在位時)에 스파르타의 귀족들에 대하여 음모를 꾸민 지도자였던 키나든(Kinadon)과 같이 기개가 높은 사람이 명예와 관직에서 제외되었을 때 또한 소요가 일어날 수 있다. 지배계급 중의 어떤 사람들이 지나치게 궁핍해지고, 다른 사람들은 지나치게 부유해질 때도 소요가 일어난다. 이러한 소요는 특히 전쟁 때에 일어난다. 예를 들어, 스파르타에서의 메세니아 전쟁 중에 이러한 일이 발생하였다.
- 4. 티르타이오스(Tyrtaios)의 시(詩) (1307a) 《법의 지배》를 보면 이것을 잘 알 수 있다. 이 시는 전쟁으로 가난뱅이가 된 사람들이 토지재산의 재분배를 요구하는

<sup>12.</sup> 파르테니아이(Partheniai): 기원전 8세기말에 타라스를 식민지로 개척한 사람들을 말하는데, 이들은 스파르타의 귀족 혹은 자유민들의 후예로서 사생아 출신이다.

것을 묘사하고 있다. 높은 지위를 갖고 있지만 그보다 더 높은 일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그 자신이 유일한 지배자가 되기 위하여 소요를 꾸미려 할 것이다. 페르시아 전쟁 중에 스파르타의 집정<sup>13</sup> 이었던 파우사니아스(Pausanias)가한 예이며, 카르타고에 있어서는 하노(Hanno)가 또 하나의 예이다.

- 5. 실제로 귀족정치나〈혼합정치〉의 몰락의 주원인이 되는 것은 그 현정질서 자체가 정의로부터 이탈하는 것이다. 양쪽 모두에 있어서 몰락의 기원은 서로 다른 요소들을 제대로 결합시키지 못한 것이다.〈혼합정치들〉에 있어서는 그 요소들이 민주정치와 과두정치이며, 귀족정치들에 있어서는 이 둘과 그리고 또 한 가지 자질의 요소가 참가된다. 그러나 후자에 있어서도 진정한 난점은 처음 두 요소를 결합시키는 것인데, 이들이 대부분의 소위 귀족정치들이 (그리고 또〈혼합정치들〉이)실제로 결합시키려고 노력하는 유일한 요소들인 것이다.
- 6. 귀족정치들과〈혼합정치들〉이라고 불리는 헌정질서의 유일한 차이점은 동일한 두 가지 요소를 어떤 방식으로 혼합시키는가 하는 데 달려 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이 왜 전자가 후자보다 더 안전한가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 요소들의 혼합 방식이 과두정치 쪽으로 흐르는 경향이 강한 것이 귀족정치라고 불리며, 이 혼합의 방식이 대중을 위하는 방향으로 흐르는 경향을〈혼합정치〉라고 부른다. 이렇게 보면, 왜 후자가 전자보다 더 안정되어 있는가 하는 점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수가 많을수록 더 강한 지원을 얻는다. 그리고 대중들은 그들이 평등한 권력의 배분을 받고 있는 정부에 더 잘 복종한다.
- 7. 재산이 상당히 있는 사람들은 이와는 다르다. 헌정질서에 따라 그들이 우월한 위치를 갖게 되면, 그들은 교만해지기 쉽고 또 더 많은 권력을 바라게 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정치질서가 평등하게 균형 잡히지 못하고, 어떤 방향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을 때. 그 정치질서는 그 방향으로 변화하는 경향이 있다. 특혜를 받는

<sup>13.</sup> 집정(執政): 원어의 στρατήσας는 전쟁 중에 군통수권을 장악하는 사령관이지만 그 역할은 순수한 군 사적인 영역 이외에도 미치는 것이므로 집정이라고 번역했다.

요소가 그의 이점을 더 증가시킬 것이다. 예를 들어〈혼합정치〉는 민주정치로 바뀌며, 귀족정치는 과두정치로 바뀐다.

- 8. 그러나 반대 방향으로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귀족정치가 민주정 치로 바뀔 수 있는데, 이것은 가난한 계급들이 그들 자신이 부당하게 대우를 받는다고 느껴 그 질서의 본래 성향을 반대방향으로 전환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혼합정치들〉도 마찬가지로 과두정치로 바뀔 수 있는데 즉 모든 〈혼합정치〉의 목표인 안정이, 각자가 자기에게 알맞은 처우를 받도록, 공적과 자질을 기준으로 한비례적 평등의 체제하에서만 성립할 수 있다는 확신이 강화되면 그렇게 된다.
- 9. 투리오이의 귀족정치에 이러한 성질의 변화가 일어났다. 첫 단계로, 관직을 담당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높은 재산의 자격 요건에 대한 반동으로, 관직의 수를 늘리고 동시에 재산의 자격 요건을 낮추는 변화가 일어났다. 그 다음 단계로, 귀족들이 불법적으로 전 토지를 몰수하여 버렸으므로(정치질서가 과두정치적인 편향성을 띠었으므로 이들이 탐욕을 부릴 수 있었다), 내란이 일어나게 되었다. 여기에서 대중들이 적대 관계의 과정에서 경화(硬化)되었기 때문에 경찰보다도 더욱 우세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법이 허용하는 것보다 더 많은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강제로 그들의 재산을 포기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 10. 모든 귀족정치적 정치질서에 있어서 존재하는 과두정치적 편향은 귀족들로 하여금 지나치게 탐욕을 부리도록 하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하는 것이 좋겠다. 예를들어, 스파르타에서 재산이 점차로 소수집단의 수중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볼 수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귀족들은 너무 많은 권력을 갖고 있어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무엇이나 하며, 또 그들이 원하는 대로 결혼을 할 수 있다. 남부 이탈리아의 로크리(Locri)의 한 시민의 딸과 시라쿠사이의 디오니시오스와의 결혼 때문에 이도시가 몰락한 것도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 이 결혼의 결과로 로크리에서 시라쿠사이의 폭군정치가 성립하게 되었다. 이러한 일은 민주정치나, 혹은 제대로 균형이잡힌 귀족정치에서는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 11. 모든 형태의 정치질서들에 관하여 이미 행한 일반적인 관찰이 (1307b)—즉 아주 사소한 일들일지라도 혁명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귀족정치에 있어서 특히 그

리하다. 귀족정치들은 특히 조금씩 조금씩 침식되어서 부지불식간에 변화하기 쉽다. 그들이 일단 그 정치질서의 어느 한 요소를 포기하고 나면, 이후에는 그보다 좀 더 중요한 다른 면들을 변경시키는 것이 더 쉽게 된다. 결국 그들은 국가의 전체제를 바꾸어 버리고 말게 된다.

- 12. 이러한 일은 실제로 투리오이의 현정질서에서 발생했다. 여기에서는 장군의 관직은 첫 임기가 5년의 기간이 지난 다음에야 재임할 수 있다는 법이 있었다. 그 런데 몇몇 젊은 사람들이 군인다운 자질이 있어서 군인들 사이에서 명성을 얻게 되었다.
- 이 젊은이들은, 국정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경멸하고, 쉽게 자기들의 뜻을 이룰 수 있다고 계산한 나머지, 이 법을 개정하려 했다. 이들의 목적은 장군들이 계속하여 재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는데, 이들은 이렇게 되면 국민들이 임기가 끝난 다음에도 지속적으로 쉽게 자기들을 선출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13. 이러한 제안을 심사하는 의무를 갖고 있는 관리들은—이들을 평의회(評議會)

- 라고 불렀다—처음에는 법의 개정을 반대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동의를 하게 되었는데, 이들은 이 법만 개정하면 헌정의 다른 부분은 건드리지 않으리라고 생각한 것이었다. 그러나 또 다른 개정이 논의되게 되었으며, 그들이 이것들을 반대하려했지만 속수무책으로 되고 말았다. 결국은 헌정의 모든 체계가, 혁명가들로 구성된 귀족정치적 도당(徒黨)이 최고의 권위를 갖는 형태로 바뀌고 말았다.
- 14. 일반적으로 정치질서는 내부에서나 마찬가지로 외부로부터도 침식당할 수 있다. 이것은, 이들이 그들의 가까운 이웃에나 혹은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강력한 반대되는 형태의 정치질서와 직면해 있을 때에 일어난다. 아테나이와 스파르타 제국이 위세를 떨치던 시대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 아테나이인들은 곳곳에서 과두정치들을 없앴으며, 스파르타인들은 그들 나름대로 민주정치들을 타압했다.

# 제8장

1. 이제까지. 서로 다른 여러 정치질서들에 있어서의 혁명과 소요의 원인들을 일반

적으로 서술했다. 이제 정치질서 일반, 그리고 상이한 형태의 질서들을 각각 유지 보존하는 방법들을 다루어야 한다. 우리는 한 일반 명제로부터 시작할 수 있다. 헌 정질서들을 파괴하는 원인을 파악하는 것은 또한 그들의 보존을 확실하게 하는 것 을 아는 것과도 같다. 반대되는 결과들은 반대되는 원인들에서 나온다. 파괴와 보 존은 서로 상반되는 결과들인 것이다.

- 2. 이러한 근거에서 우리는 아래와 같은 몇 가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로, 여러 요소들이 잘 혼합되어 있는 정치질서들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모든 무법 행위를 잘 감시하며, 특히 사소한 형태의 무법행위에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소한 형태의 무법 행위는 부지불식간에 뿌리를 내릴 수있는데, 이것은 마치 작은 지출이라도 계속하여 되풀이 되면 점차로 전 재산을 파산시키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 3. 이러한 지출들은 단번에 행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나가게 된다. 『개별적인 것이 작을 때 이들의 총화도 또한 작다』라는 논리적 오류가우리들을 오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마음도 이러한 경우에 그릇된 생각을 하게 된다. 이 논리적 오류는 어느 의미에서는 옳지만 다른 의미에서는 옳지 않다. 비록 작은 것들로 이루어져 있을지라도 전체 혹은 총화는 작지 않다.
- 4. 따라서 사소한 무법 행위를 방지해서 애초에 말썽을 없애도록 주의를 기울여야한다. 둘째로, 우리는 대중을 속이기 위한 계책들을 결코 (1308a) 믿어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설정하는 것이 좋다. 실제에 있어서는 항상 이러한 계책들은 폭로되기 마련이다. (우리는 이미 여기에서 말하는 바와 같은 헌정적인 계책들의 성격에 관하여 설명하였다.)
- 5. 셋째로, 우리는 어떤 나라들에 있어서의 그 정치체제의 안정성의 진정한 원인이 그들의 헌정체제 자체의 견고성에 있다기 보다, 그들의 관리들이 시민들 그리고 정치적 권리를 갖지 못한 국민들과 좋은 인간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다는점을 주목해야 한다. (이것은 과두정치나 귀족정치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사실이다.) 그러한 나라들에 있어서는 참정권이 없는 사람들도 결코 부당한 처우를 받지않는다. 반대로 그들 중에 지도자급 사람들은 헌정적 권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혜

택을 받는다. 그리고 그들 중에 야심이 있는 자들은 명예의 문제에 관하여 부당한 취급을 받지 않으며, 그렇지 않은 일반인들은 돈이나 이득의 문제에 관하여 나쁜 처우를 받지 않는다. 또한 이러한 나라들에 있어서는 관리나 다른 지배계급의 구 성원들도 상호 간에 민주주의적 평등의 정신으로 행동한다.

- 6. 민주주의자들은 평등의 원칙을 확대하여 모든 대중을 포함시키려고 한다. 명 백하게 올바른 것은—올바를 뿐만 아니라 편리하기도 한 것은—이 원칙이 진정한 의미에서 〈귀족들〉에게도 모두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배계급의 수가 많은 어떠한 나라들에 있어서도 민주정치적 제도를 많이 갖고 있는 것이 편리할 것이다. 예를 들어 관직의 재임 기간을 6개월로 한정해서, 〈귀족〉계급에 속하는 사람들은 모두 차례대로 관리로 재직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편리할 것이다. 〈귀족〉계급의 수가 많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이미 일종의 민주정치라는 뜻이다. 위에 이미 고찰한 바와 같이(제6장 6), 왜 그런 계급에서 흔히 대중 선동가들이 나오는가 하는 것이 그 이유이다.
- 7. 이러한 정책이 채택될 때, 과두정치나 귀족정치들은 족벌정치의 수중에 떨어질 위험성이 덜하다. 재임 기간이 짧은 관리들은 재임 기간이 긴 관리들보다 해를 끼칠 가능성이 덜하다. 그리하여 과두정치나 민주정치들에 있어서 관직의 재임 기간이 길면 폭군정치가 나오는 것이다. 민주정치나 과두정치들에 있어서 폭군정치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우두머리급 사람들이거나(즉 민주정치에 있어서는 대중선동가이며, 과두정치들에 있어서는 대가문의 가장들이다), 혹은 오랜 기간 동안주요한 관직을 갖고 있었던 관리들이다.
- 8. 어떤 정치질서의 유지는 한 국가가 어떠한 위험의 위협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사실에서 나올 뿐만 아니라, 이따금 그 반대도 성립한다. 위험이 임박해 있을 때에는 사람들이 이를 경계하며, 따라서 그들의 정치질서를 더 확고하게 보존한다. 그러므로 넷째로, 그 정치질서를 보존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모두 인위적으로라도 경각심을 앙양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경계를 하게 하고, 마치 밤에 보초를 선 사람들처럼 끊임없이 주의를 기울이도록 해야 한다.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은 먼위협을 가깝게 느끼도록 해야 한다.

- 9. 다섯째로, 입법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행동으로, 저명인사들 사이의 분쟁과 소요를 막도록 또한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 사이에 서 적대관계가 생기기 이전에도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지켜보아야 한 다. 평범한 사람들은 앞에 닥칠 어려움의 시작을 알아차리지 못한다. 진정한 정치 가만이 이것을 예견할 수 있다.
- 10. 과두정치들과 〈혼합정치들〉에 있어서의 재산의 자격 요건과 관련된 평가체제의 운영 과정에서 헌정질서의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재산의 자격 요건의 화폐 액수는 그대로인 반면에, 유통되는 화폐량은 크게 증가하는 경우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기 쉬울 것이다. 여섯째로, 이러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현재의 모든 평가 총액과 작년도의 총액을 비교해야 한다. 평가를 매년 하는 경우에는, 이 비교도 매년 (1308b) 하지 않으면 안되며—평가를 3~4년의 간격을 두고 하는 경우에는규모가 큰 국가에서는 그렇게 한다—이 간격에 맞추어 평가해야 한다. 만약 그런 경우에, 그 헌정질서하에서 의무적인 평가액이 지난번에 고정되었을 때보다 화폐의 총액이 몇 배 더 많든지 혹은 더 적다면, 여기에 상응하는 정도로 자격 요건을 높이거나 낮추는 법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 11. 이러한 정책이 채택되는 과두정치들과 〈혼합정치〉들에 있어서는 불가피하게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어떤 경우에는 〈혼합정치〉로부터 과두정치로, 그리고 과두 정치로부터 족벌정치로 변화가 일어날 것이며, 다른 경우에서는 그 반대 방향으로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즉 〈혼합정치〉로부터 민주정치로, 그리고 과두정치로부터 〈혼합정치〉 혹은 민주정치로 변화할 것이다.
- 12. 일곱째로, 민주정치들과 과두정치들이 함께 적용되는 법칙은—사실 이 법칙은 모든 정치질서에 적용된다—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현격한 차이가 나도록 지위가 높아지면 안된다는 것이다. 높은 명예들을 짧은 시일 내에 주는 것보다 오랜 시간에 걸쳐 적은 명예들을 수여하는 것이 더 좋은 정책이다. (사람은 쉽게 나쁜 습관이 든다. 그리고 누구나 운이 번창할 때에 악습에 빠지지 않고 지낼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만약 이 원칙에 따르지 않고 어떤 사람에게 함부로 여러 명예들을 수여한다면, 그 시정책으로는 최소한도로 이 명예들을 함부로 취소하지 말

고 조금씩 조금씩 여러 차례에 걸쳐서 취소해야 한다. 또한 적절한 입법을 통하여, 어떤 사람이 그의 부 혹은 친지관계에 힘입어 월등한 위치를 차지하는 위험에 대비하는 것도 좋은 정책이다. 만일 그렇게 할 수 없다면 그러한 위치를 획득한 사람들은 외국으로 보내어 제거해야 한다.

- 13. 사람들은 사적인 생활에 관련된 상황에서 혁명가가 되기도 한다. 따라서 여덟째로, 관청을 하나 두어 기존 정치질서와 맞지 않게 사는 자들을 감시해야 한다—즉 민주정치에서는 민주적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을 과두정치에서는 과두정치적으로 생활하지 않는 사람들을, 그리고 여타의 다른 정치질서에서도 거기에 각기 어울리지 않게 생활하는 자들을 감시해야 하는 것이다. 비슷한 이유로 어떤 시기에 특별히 번창하는 사회의 일부를 감시해야 한다.
- 14. 이러한 일부 사람들이 급격히 번창함으로써 발생하는 곤란한 문제들을 시정하려면, (a) 항상 그 반대편 사람들에게 국정을 돌보고 관직을 담당하도록 해서 빈자와 부유한 일부 사람들 사이의 균형과 융합이 이루어지도록 하거나(여기에서 문제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란 자질이 뛰어난 소수와 대중 혹은 부유한 층과 가난한층을 말한다), 아니면 (b) 중간계급 혹은 이 양자 사이에 개입할 수 있는 요소를 강화하도록 모색해야 한다. 그러한 정책을 쓰면 불평등으로부터 나오는 분열을 방지할 수 있다.
- 15. 아홉째로, 모든 형태의 정치질서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관리들로 하여금 관직을 그들의 사적 이득을 위하여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어떤 조처—이것은 입법에 의해서뿐만 아니라 경제의 일반적 체제에 의해서도—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어떤 정치질서에 있어서 보다 특히 과두정치적 정치질서에 있어서는 이것이주의를 요하는 문제이다.
- 16. 대중은 관직에서 제외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화를 내지 않는다. (어쩌면 그들은 그들 자신의 일을 돌볼 수 있는 여가가 생긴 것을 좋아할 수도 있다.) 그들을 정말 분노하게 만드는 것은 관직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공금을 횡령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들은 이 이중적 손실—즉 관직과 이득을 동시에 손해 보는 것—에 대하여 이중으로 격분하는 것이다.

- 17. 만약 사람들로 하여금 관직을 이용하여 사적인 이득을 얻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처가 마련될 수 있다면, 민주정치와 귀족정치를 결합시킬 수 있는 방법—유일한 가능한 방법—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저명인사들과 (1309a) 대중들이 이렇게 되면 함께 그들이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즉 민주정치에 맞게 관직을 담당할 권리가 모두에게 개방되지만, 실제로는 귀족정치에 맞도록 저명인사들만이 관직을 맡게 될 것이다.
- 18. 이득의 수단으로서 관직을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다면 이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가난한 자들은 더 이상 관직을 맡으려고 하지 않을 것이며(왜냐하면 관직을 맡는다고 해서 아무 이득이 생기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 자신의 일을 돌보는 것을 더 좋아할 것이다. 부자들은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공금의보조를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관직을 맡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가난한 자들은 자기의 일을 근면하게 돌보게 되어 부자가 될 수 있는 이점이 있고 저명인사들은 우연히 관리가 된 자들의 지배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을 좋게 생각할 것이다. 19. 공금횡령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임기가 끝난 관리들이 모든 시민이 있는 앞에
- 19. 공급왕령을 망시하기 위해서는 임기가 끝난 관리들이 모든 시민이 있는 앞에서 공급을 인계해 주어야 하며 재산목록은 각 씨족·부족·구역에 각각 보관되어야 한다. 다른 방식으로도 어떤 관리도 이득을 남기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법으로 좋은 명성을 얻은 사람에게 명예를 수여하도록 정해야 한다.
- 20. 끝으로, 두 개의 상이한, 그러나 또 상응하는 규칙을 시사할 수 있는데, 하나는 민주정치들을 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과두정치들을 위한 것이다. 민주정치들에 있어서는 부자들을 보호해 주어야 한다. 그들의 재산을 재분배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어야 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재산에서 나오는 생산품도 마찬가지로 안전하게 보호해 주어야 한다. 어떤 정치질서하에서도 몰지각하게 이루어진 것처럼 재산을 평등하게 분배하여 버리는 짓은 결코 허용하면 안된다. 설혹 부자들이 기꺼이 그렇게 하려고 할지라도 그들로 하여금 연극제의 합창단에 필요한 비용이나 횃불경주의 비용을 부담하거나, 또는 그런 종류의 다른 봉사 같은 비용이많이 들지만 쓸모없는 공적(公的) 봉사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것도 또한 좋은 정책이다. 이와 반대로, 과두정치들에 있어서는 가난한 자들에게 많은 관심을 기

울여야 한다. 그들에게 어떤 수당이 있는 관직들을 배정해 주어야 하며, 만약 부자가 그들에게 폭행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계급의 사람들에게 폭행을 저질렀을 때보다 더 엄한 형벌을 부과해야 한다. 또한, 유산 상속도 유증권(遺贈權)에 의하여 물려지지 않고 세습권에 의하여 상속되어야 한다. 또한 한 사람이 한번 이상 유산 상속을 할 수 없도록 되어야 한다. <sup>14</sup> 이러한 체제하에서는 재산이 좀 더 균등하게 분배될 것이며 더 많은 가난한 자들이 넉넉한 위치로 올라설 수 있을 것이다.

21. 재산 이외의 문제들에 있어서도 헌정적 권리를 덜 갖고 있는 자들에게 평등한 위치 혹은 우선권까지도 주어야 한다. 즉 민주정치에 있어서는 부유한 자들에게, 과두정치에 있어서는 가난한 자들에게 그러한 혜택을 주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헌정의 최고의 관직들은 예외이다. 이 관직들은 완전한 헌정적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만이 혹은 어쨌건 그들이 주로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

## 제9장

- 1. 최고의 관직을 담당해야 하는 사람들은 세 가지의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첫째는 기존의 헌정질서에 대한 충성이며, 둘째는 그 관직의 의무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 고도의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셋째는 선과 정의를 갖추어야 하는데, 그것은 각 정치질서의 성격에 알맞은 특정한 형태로 갖추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만약 정의의 원칙이 정치질서에 따라 변천하는 것이라면, 정의의 성격도 또한 거기에 상응하는 여러 가지가 될 것이다.)
- 2. 어떤 한 사람이 이 세 가지 자격을 모두 구비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명백히 문제가 생긴다. 즉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인 것이다. 예를 들어 (1309b) A는 둘째 자격을 갖추고 있으며 또한 군인으로서의 능력도 있지만, 다른

14. 만약 유증권리(遺贈權利)에 의하여 유산이 상속되거나 한 사람이 여러 차례 상속을 받는다면, 재산이 몇 사람의 손에 집적될 수 있으므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처방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두 가지 요건을 결하고 있어서, 성격이 선하지도 못하고 그 헌정질서에 충성심도 없을 수 있다. B는 성격이 올바르고 헌정질서에 충성심도 있지만, 능력이 모자랄수 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가?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 점을 고려해야 할 것 같다—즉 전체적으로 보아, 어느 것이 더 흔히 있는 자격이며 어느 것이 더 드문 자격인가 하는 것이다.

- 3. 그리하여 군대의 관직에는 성격보다 군인으로서의 경험을 더 고려해야 한다. 왜냐하면 군인으로서의 능력은 드문 것이고 선한 성격은 더 흔한 것이기 때문이다. 재산의 관리직이나 재무담당 관직에는 이것과 반대되는 원칙에 따라야 한다. 그러한 관직은 보통 이상의 좋은 성격을 요구하는 것이지만 그 관직에 필요한 지식이란 우리가 모두 갖고 있는 정도이다.
- 4. 이 세 가지 자격 요건에 관하여 또 다른 문제가 하나 제기된다. 만약 어떤 사람이 능력과 헌정에 대한 충성의 두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그 사람은 셋째의 자격 요건인 선(善)도 갖추어야 하는가? 아니면 공중의 이해(利害)를 돌보기 위해서는 처음 둘째의 자격 요건 자체만으로도 충분한가? 우리는 이 의문을 다른 문제 하나를 제기함으로써 답변할 수 있다. 이 첫째의 두 자격 요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그들의 감정적 욕구를 조절하지 못할 수도 있지 않은가? 사실상 자기의 감정을 억제할 수 없는 사람은—그들이 자신에 관한 지식이나 자신에 대한 충성을 갖고 있을지라도—그들 자신의 이해를 돌볼 수도 없으며, 또한 마찬가지로 공적인 이해에도 봉사할 수 없지 않겠는가?
- 5.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까지 논의해 온 과정에서 헌정적 안정성을 도모해 주는 것으로 시사된 모든 법적 원칙들을 지킴으로써 그 정치질서는 유지되기 쉬우리라고 생각할 수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되풀이해서 시사된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원칙—즉 어떤 헌정질서가 존속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수가 그것을 바라지 않는사람들의 수보다 더 많아야 한다는—에 주목하는 것이 좋겠다.
- 6. 이 모든 일들에 덧붙여서, 또 다른 한 가지 일을 기억해야 한다. 그렇지만 이것은 왜곡된 형태의 정부들에 있어서는 실제로 잊혀지고 만다. 이것은 중용의 가치이다. 민주적이라고 생각되는 많은 조처들이 실제로는 바로 민주정치의 기반을 파

괴하며, 과두정치적이라고 생각되는 많은 조처들이 사실상 과두정치들의 기반을 파괴한다.

- 7. 이러한 정부형태들의 어느 한쪽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들 자신이 좋아하는 정부형태가 유일하게 올바른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일들을 극단적으로 밀고 나간다. 그들은 균형이 정치질서에 있어서, 말하자면 코에 있어서나 마찬가지로 필요한 것임을 깨닫지 못한다. 코는 이상적인 곧은 형태에서 어느 정도 빗나가서 약간 구부러지거나 뭉툭할지라도 보기에 멋있고 좋아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빗나간 정도가 이들 중에 어느 한편의 극단으로 치우치게 되면 그 코는 얼굴의 나머지 부분과 조화되지 못하게 되며, 만약 그 정도가 더욱 심해지면 그것은 전혀 코 같아 보이지도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코는 이 두 상반되는 극단 중의 어느 한쪽으로지나치게 치우치며 다른 한쪽으로부터 너무 멀리 멀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 8. 코나 혹은 신체의 어느 다른 부분에 관하여 이와 같은 것은, 정치질서들에 관해서도 또한 마찬가지이다. 과두정치나 민주정치가 모두, 비록 그들이 이상적인 정부형태에서 벗어나는 것일지라도, 그런대로 견딜 수 있는 정부형태일 수 있다. 그러나 만일 그들 중에 어느 하나를 그 방향으로 더욱 더 밀고 나가면, 그것은 점점더 나쁜 정치질서가 되며, 결국은 전혀 헌정질서라고 할 수 없는 것이 되고 말 것이다.
- 9. 따라서 입법자나 정치가들의 의무는, 어떤 민주정치적인 조처가 민주정치를 보존해 주며, 또한 파괴하는가를 알아야 하며, 마찬가지로 어떤 과두정치적인 조처가 과두정치를 존속시키며 또한 망치는가를 알아야 한다. 이 정치질서들 중에 어느 것도 부자와 빈자를 함께 그 질서 내에 포함시키지 않으면 존재하거나 존속할수 없다. 따라서 만약 평등한 소유의 체제가 이들 중의 어느 하나에 도입된다면, 그 결과 필연적으로 새로운 다른 형태의 정치질서가 생겨나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부와 빈곤을 없애는 급진적인 입법은 (1310a) 이것들과 함께 이것들 위에 기초를 둔 이전의 정치질서들도 없애고 말 것이다.
- 10. 과두정치나 민주정치들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정치인들은 그들이 갖고 있는 지식의 결핍 때문에 실수를 저지르게 된다. 예를 들어서 국민의 의사가 법보다 우

월한 그러한 형태의 민주정치에서는 대중 선동가들이 실수를 저지른다. 대중 선동 가들은 항상 국가를 두 부분으로 나누어 부자들을 공격한다. 그러나 그들에게 있 어서 올바른 정책은 바로 그 반대이다. 즉 그들은 항상 부자들을 옹호하여 발언을 한다고 주장해야 한다. 과두정치들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의 정책을 좇아야 한다. 과두정치가들은 가난한 자를 위하여 말한다고 해야 하며, 그들이 하는 선서도 현 재 하고 있는 것과는 정반대의 것이어야 한다.

- 11. 어떤 나라들에 있어서는 그들의 선서는 다음과 같다. 『나는 국민 대중에게 악의를 품을 것이며, 그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나쁜 짓을 행할 것이다.』 그들은 이것과는 정반대의 소신을 가져야 하며 또 그것을 드러내 보여주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은 『나는 국민 대중에게 나쁜 짓을 하지 않겠다』 라는 선언을 포함해야 한다. 그러나 헌정질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우리가 강구한 모든 수단 중에 가장훌륭한 것은—그러나 이것은 오늘날에 일반적으로 등한시되고 있다—시민들을 그들 헌정질서의 정신으로 교육시키는 것이다.
- 12. 만약 시민 자신들이 교육의 영향이나 습관에 의하여 그 헌정질서에 맞는 성향 즉 민주정치적인 법률들이 있는 나라에서는 민주적인 성향을 가져야 하며, 과 두정치적인 법률들이 있는 곳에서는 과두적인 성향을 가져야 한다—을 갖도록 조정되어지지 않으면, 설혹 시민 일반의 동의에 의한 최선의 법률들도 아무 이점이 없다. 개개인에게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국가에도 방종한 성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모두에게 교육이 필요한 것이다.
- 13. 시민들을 그의 헌정질서의 정신으로 교육하는 것은, 과두정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나 혹은 민주정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즐겨하는 그러한 행동을 하는 데 있지 않다. 그것은 과두정치나 혹은 민주정치가 존속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행동을 하는 데 있다. 오늘날에 있어 실제는 이와 매우 다르다. 과두정치들에서는 관리들의 자손들은 사치스런 생활을 하는데, 그러한 사이에 가난한 집의 자손들은 운동이나 매일 매일의 노동으로 단련되어, 세상을 뒤집어엎어 버릴 의지와 힘을 쌓아가는 것이다.
- 14. 극단적 형태의 민주정치들에서는—이러한 형태의 민주정치가 특별히 민주적

이라고 간주된다—그들의 진정한 이해와 정반대되는 정책을 추구한다. 이러한 행동을 하는 이유는 자유에 관하여 그릇된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민주정치의 특징이라고 하는 두 가지 개념이 있다. 그 중의 하나는 다수의 주권의 개념이며, 다른 하나는 개인들의 자유의 개념이다.

- 15. 민주주의자들은 정의란 평등에 있는 것이라고 전제를 함으로써 시작한다. 다음에 그는 평등을 대중의 의사가 최고의 권위라는 것과 동일시하게 된다. 결국은, 〈자유와 평등〉이 〈좋아하는 것을 마음대로 하는 것〉에 있다고 하는 견해를 갖게된다. 그러한 견해의 결과로, 극단적인 민주정치들에 있어서는 각자가 자기 좋은 대로 사는 것이다. 혹은 에우리피데스(Euripides)는 그가 바라는 어떠한 목적이건간에 라고 말한다.
- **16.** 이것은 천한 자유의 개념이다. 헌정질서의 규칙에 따라 생활하는 것은 노예의 생활이 아니라 구제(救濟)로 생각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정치질서의 변화와 파괴를 유발시키는 원인들은 이와 같으며, 그들의 보존과 안정을 확보하는 수단도 위에 말한 바와 같다.

### 제10장

- 1.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군주정치의 정부에 관해서 그 파괴의 원인들과 보존의 수단들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sup>16</sup> (1310b) 일반적으로, 고유한 의미에서 헌정질서 들에 관하여 이미 위에서 말한 바가 왕정들과 폭군정치들에도 거의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2. 왕정은 귀족정치의 성격과 같다. 폭군정치는 과두정치와 민주정치의 극단적인 형태들의 혼합체이며, 이러한 이유로 그것은 다른 어떠한 형태의 정부보다 국민에
- 15. 에우리피데스의 희곡 중에 원전이 알려져 있지 않은 미완성 유고 833번에 나온다.
- **16.** 여기서 군주정치라 함은 한 사람이 다스리는 정치라는 뜻으로서, 왕정 혹은 폭군정치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 따라서 군주정치를 왕정과 혼동하면 안된다.

게 해독을 끼치는 것이다. 폭군정치는 두 개의 나쁜 형태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두 양자의 나쁜 면과 잘못을 모두 갖고 있는 것이다.

- 3. 군주정치의 이 두 가지 형태는 그들의 기원에 있어서 정반대로 서로 다르다. 왕정들은 대중에 비해서 더 나은 계층의 사람들을 도와주려는 목적으로 생겨났으며, 이 계층들로부터 왕들이 나온다. 그리고 그들이 차지하는 위치의 근거는, 성격과 행동에 있어서 그들 자신이나 그들의 가족이 뛰어나다는 사실이다. 이와 반대로 폭군들은 인민과 대중으로부터 나오며, 저명한 사람들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이 상류계급으로부터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는 목적을 갖는다.
- **4.** 역사의 기록을 보면 이것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의 폭군들은 대중 선동가로서 정 치생활을 시작했는데, 그들은 저명한 인사들을 비방함으로써 인민들의 신임을 얻 었다.
- 5. 그러나 국가의 인구가 한층 불어나고 있던 시대에, 이러한 방식으로 많은 폭군 정치들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이전에는 다른 방식으로 폭군정치가 생겨나기도 했다. 그것들 중의 어떤 것은 왕의 야심 때문에 생겨났는데, 이들 야심 적인 왕은 전통적인 권력의 한계를 넘어서서 더 전제적인 권위를 가지려고 한 것이다. 또 다른 폭군정치들은 처음에 최고 관직에 선출 된 사람들이 만들었는데, 고대에는 〈민정관〉이나〈신성사절(神聖使節)〉들<sup>17</sup>은 임기가 오래 계속되는 관습이 있었으므로 그렇게 하기가 더욱 쉬웠다. 또 다른 폭군정치들은 과두정치들에서 한사람을 주요 관직들을 감독하는 직책에 임명하는 관행에서 나왔다.
- 6. 이러한 방식들로, 야심가가 원하기만 하면 쉽게 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처음부터 그는 이미 권력을 갖고 있었으므로—어떤 경우에는 왕으로, 다른 경우에는 다른 고위 관직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그것을 이용할 수 있

<sup>17.</sup> 바커는  $\delta\eta\mu\nu\rho\gamma$ ( $\alpha$ 를 공공의인(公共醫人 · public craftsman)으로 번역했는데, 원어의 ή $\delta\eta\mu\nu$ 0  $\nu\rho\gamma$ ( $\alpha$ 는 handicraft나 workmanship의 뜻 이외에  $\delta\eta\mu\nu\rho\rho\gamma$ ( $\alpha$ 의 판이었다.  $\delta\eta\mu\nu\rho\rho\gamma$ ( $\alpha$ 는 handicraftman 이외에, 〈평민을 위하여 일하는 관리〉의 뜻이 있어서 〈민정관(民政官)〉으로 여기서는 번역했으며, 〈신성사절〉이란 종교적인 경기 혹은 신탁을 받기 위하여 보내어지는 사절을 말한다.

었던 것이다. 아르고스의 페이돈(Pheidon)이나 또는 다른 많은 사람들이 왕으로서 시작해서 폭군이 되고 말았다. 이오니아와 아크라가스(Akragas)의 팔라리스 (Phalaris)의 폭군들은 그들의 관직을 디딤돌로 이용했다. 레온티노이(Leontinoi)의 파나이티오스(Panaitios), 코린토스의 킵셀로스(Kypselos), 아테나이의 피시스트라토스, 시라쿠사이의 디오니시오스, 그리고 다른 곳의 다른 많은 폭군들은 대중 선동가들로 시작하여 폭군이 되었다.

- 7. 우리가 이미 관찰한 바와 마찬가지로 왕정은 귀족정치의 성격을 띠는 것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귀족정치와 마찬가지로 왕정도 자질과 공적에 기초를 두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기초를 두고 있는 자질은 개인적 (혹은 가족의) 성질에 있을 수도 있으며, 혹은 남에게 베푼 유익한 일일 수도 있고, 또는 이 양자와 능력을 결합한 것일 수도 있다.
- 8. 왕의 위치를 획득한 사람들은 모두 실제로 그들이 살고 있는 도시나 지방에 유익한 일을 했거나 혹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은, 아테나이의 코드로스(Kodros)처럼 그들의 국가를 패전에서 구한 사람들이었으며, 다른 사람들은, 페르시아의 키로스(Kyros)처럼 조국을 해방시켰고, 또 다른 사람들은 스파르타나 마케도니아의 왕들처럼, 혹은 에피로스(Epiros)의 몰로시아(Molossia) 왕들처럼 그들 국가의 영토를 정했거나 또는 획득하였다.
- 9. 사회의 보호자의 위치에 있는 것이 왕의 목표이다. (1311a) 즉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며, 인민 대중을 오만한 처사나 압정으로부터 구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미 관찰한 바와 마찬가지로 폭군정치란 이것과 정반대이다. 폭군정치에서는 폭군의 개인적 이득이 되지 않는 공적인 이해는 무시되어 버리고 만다. 폭군의 목적은 그 자신의 쾌락이며, 왕의 목적은 선이다.
- **10.** 우리는 여기에 따르는 결과들을 알 수 있다. 폭군은 부를 탐하는데 왕은 명성을 가져다주는 것을 원한다. 왕의 근위대는 시민으로 이루어진 군대인 반면에 폭군의 호위병은 외국의 용병이다.
- **11.** 명백하게 폭군정치는 과두정치와 민주정치의 해악을 함께 갖고 있다. 과두정치 로부터는 부를 축적하는 목표와 목적을 취한다. 왜냐하면 폭군이 그 자신의 사치

한 생활과 호위병을 유지하는 것은 그의 부를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폭군정치는 과두정치로부터 대중을 불신하는 습관과, 그 결과로 대중이 무기를 갖 지 못하도록 하는 정책을 취한다. 폭군정치는 또한 일반대중을 억압하며, 그들을 도시로부터 추방하여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점에 있어서 과두정치와 공통이다.

- 12. 폭군정치가 저명인사들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 공개적 혹은 비밀로 그들을 파멸시키는 정책, 그들을 추방하는 습관 등을 취하는 것은 민주정치로부터 나오는데, 이것은 그들을 자기의 권력에 대한 경쟁자 또는 방해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사실상 저명인사들은 폭군에 대한 장애물 이상이다. 그들은 또한 폭군들에 대하여 음모를 하는 적극적인 요소이기도 하다—왜냐하면 어떤 경우에는 그들 자신이지배자가 되려는 욕망 때문이며, 다른 경우에서는 노예가 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 13. 이렇게 보면 페리안드로스가 그의 동료 폭군인 트라시불로스에게 준 조언을 이해할 수 있다. 페리안드로스는 곡식밭에서 특별히 키가 큰 곡식들을 자기 지팡이로 때려눕혔던 것이다. 그것은 그가 때때로 뛰어난 시민들을 제거해야 한다는 시사였던 것이다.

군주정치 체제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들에서의 혁명의 원인은 보통 정상적인 정치질서를 갖고 있는 나라들의 혁명의 원인들과 마찬가지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은 이미 앞에서 언급하였다. 부당한 억압·공포, 그리고 멸시 때문에 때때로 시민들이 그들의 군주에 대하여 반란을 일으킨다. 가장 빈번하게 혁명의 원인이 되는 부당한 억압의 형태는 모욕이다. 그러나 재산의 몰수도 때로는 동일한 효과를 갖는다.

- 14. 혁명분자들이 추구하는 목표는, 혁명의 발달과 마찬가지로, 폭군정치나 왕정들에 있어서도 일반 정상적인 정치질서에 있어서와 같다. 최고의 지배자들은 부와 명예를 향유하는데, 이것들은 누구나가 바라는 욕망의 대상이다. 혁명분자들은 때로는 최고 지배자를 공격하며 때로는 그의 관직을 공격한다. 모욕적인 언동에 의하여 분기하였다면 지배자 개인을 직접 공격한다.
- 15. 모욕적인 언동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떤 것이건 간에 공통적으로 분노

를 자아낸다. 지배자를 홧김에 공격하는 자들은 복수를 하려고 하는 것이며 야심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하르모디오스(Harmodios)와 아리스토기톤 (Aristogiton)에 의해서 아테나이의 페이시스트라토스의 아들들이 공격을 받은 것은, 그들이 하르모디오스의 누이에게 불명예스러운 짓을 했고, 그리하여 그에게 치욕을 안겨주었기 때문이었다. 하르모디오스는 그의 누이를 위하여 공격했고, 그친구인 아리스토기톤은 그를 위하여 여기에 (1311a39) 가담한 것이다.

16. <sup>18</sup>암브라키아의 폭군인 페리안드로스는 그가 좋아하는 동성애의 상대와 술을 마시다가 그 상대에게 『아직 나의 아이를 배지 않았는가?』 하고 (1311a) 물었는데 이것이 혁명의 발단이 되었다. 그리고 파우사니아스<sup>19</sup>는 필리포스(Philipos) 왕이 아탈로스(Attalos)와 그의 친구들이 그를 모욕하도록 했기 때문에 필리포스를 공격하였다. 그리고 데르다스(Derdas)는 그가 젊었을 때에 그에게 모욕을 가했다는 이유로 아민타스(Amyntas) 왕을 공격하였다. 키프로스의 에바고라스(Evagoras)는 그의 아들이 어떤 내시의 처를 빼앗아 치욕을 주었기 때문에, 그 내시에 의하여 공격을 받고 살해당했다.

17. 어떤 왕들의 국민에 가한 파렴치한 행동 때문에 또한 많은 반란이 일어났다. 그 한 예는, 크라타이오스(Krataios)가 아르켈라오스(Archelaos)를 공격한 것인데, 그 원인은 아마도 그가 항상 아르켈라오스의 교제 관계에 관해서 불만이 많아 사소한 일로도 공격을 가할 이유가 되기에 충분했을 것이다. 혹은, 그렇지 않으면.

<sup>18.</sup> 아래 16~18의 세 항에 걸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성적(性的) 혹은 동성애적(同性愛的) 원인이 발단이 되어서 지배자들에게 반란을 일으킨 경우들을 예로 들고 있다. 그런데 이들 중에 어느 것도 그리스 본토의 고유의 지역이나 역사에 속하지 않는다. 바커는 이 부분을 정치이론이나 정치학의 입장에서 별중요성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본문에서 생략하여 부록으로 다루고 있다. 아래 부분은 다른 문헌에서 보충했지만 분류기호는 그대로 바커의 것을 사용했음을 밝혀둔다.

<sup>19.</sup> 파우사니아스(Pausanias): 기원전 336년에 필리포스 왕을 살해한 가문의 젊은이였으며, 뒤에 나오는 아탈로스(Attalos)는 필리포스의 처 클레오파트라의 아저씨였다.

아르켈라오스가 그의 딸 중의 하나를 그에게 주기로 동의한 다음에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시라스(Sirras)와 아리바이오스(Aribaios)와의 전쟁 중에 곤경에 빠지자 큰 딸을 엘리메이아(Elimeia)의 왕에게 출가시켜 버렸고, 둘째 딸은 그의 아들인 아민타스에게 주어 버린 것이 원인이었는지도 모른다. 둘째 딸을 아민타스에게 준 것은 그렇게 하면 그가 클레오파트라에게서 난 그의 아들과 사이가 좋게 지내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어쨌건 간에 크라타이오스가 앙심을 품은 것은 주로에 관계 때문이었다.

18. 그리고 라리사의 헬라노크라테스(Hellanokrates)도 같은 이유로 공격에 가담했다. 왜냐하면 그 역시 아르켈라오스의 총애를 받았지만, 약속한 대로 자기 고향으로 돌려보내 주지 않았으므로, 아르켈라오스가 그를 좋아하는 것은 진정한 열정적인 사랑 때문이 아니고 오만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또다른 예로는, 아이노스(Ainos)의 파로온(Parrhon)과 헤라클리데스(Hera klides)는 부친의 복수를 하기 위하여 트라케(Thrake)의 왕 코티스(Kotys)를 죽였는데, 그것은 아다마스(Adamas)가 코티스에게 반란을 일으킨 것은 그가 어렸을 적에 코티스가 무례한 짓을 했다고 하여 그를 병신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20 (1311b23) 19. 모욕적인 언동은 또한 육체적인 폭력의 형태를 취할 수도 있다. 그러한 짓을 당하면 사람들은 흔히 분기에 찬다. 그들이 모욕을 당했다고 느꼈을 때는 왕가와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나 혹은 왕의 관리까지도 죽이려고 하는 것이다. 21 (1311b 26) 예를 들어, 미틸레네(Mytilene)의 펜틸로스(Penthilos) 가문 사람들 이 돌아다니면서 막대기로 사람들을 두드리고 다니자, 메가클레스(Megakles)와 그의 친구들이 그들을 공격하여 죽이고 말았으며, 후에 스메르디스(Smerdis)는 자기 처(妻)의 면전에서 구타를 당하고 끌려가자 결국 펜틸로스를 죽이고 말았다.

**<sup>20.</sup>**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항과 20항에 걸쳐 이러한 경우의 예를 열거하고 있으나 역주18의 경우처럼 본 문에서는 생략되어 있는데, 아래에 보충하고자 한다.

<sup>22.</sup> 미틸레네의 초기 과두정치 당시의 지배 가문 사람들을 말한다.

- 20. 또한 데캄니코스(Dekamnichos)는 아르켈라오스에 대한 반란을 처음으로 선동하는 지도적 역할을 했는데, 그가 화가 난 원인은, 아르켈라오스가 그를 시인인에우리피데스에게 넘겨주어 매질을 당하도록 했기 때문이었다. 에우리피데스가 그에게 화가 난 원인은, 그가 에우리피데스에게서 입냄새가 난다고 말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비슷한 이유 때문에 다른 많은 사람들이 모해(謀害)를 당했다.
- (1311b36) 21. 우리가 이전에 이미 관찰한 바와 마찬가지로, 공포도 군주정치들이나 헌정질서를 갖고 있는 나라들에는 반란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페르시아의 근위대장인 아르타파네스(Artapanes)가 그의 군주인 크세록세스(Xerxes)를 죽인 것은 두려움 때문이다. 그는 크세록세스가 다리오스(Darios)를 죽이지 말라고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을 저녁식사 중에 해서 기억을 잘 못할 것이고 그래서용서받으리라고 생각하고, 다리우스를 교수형에 처하고 말았는데, 그것이 그만 발각되자, 처벌받을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그런 일을 저질렀던 것이다.
- 22. 때때로 군주들은 신하에게 멸시를 받아 공격을 당한다. 아시리아의 사르다나 팔로스(Sardanapalos)가, (1312a) 여자들과 함께 섞여서 머리를 빗고 있는 광경을 어떤 사람이 보았는데 그 사람이 그만 사르다나팔로스를 죽이고 만 것이다. (어쨌든 떠도는 이야기라서 사실 그대로가 아닐지도 모르지만, 만약 그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면 다른 어떤 사람에게 일어났던 일은 틀림없을 것이다.)
- 23. 시라쿠사이의 디오니시오스 2세는 이와 비슷하게 멸시를 받아 공격을 당했다. 그 공격자는 디오니시오스가 그 신하들로부터 멸시를 당하며 항상 술에 취해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었다. 지배자의 친구들까지도 어떤 때에는 그를 멸시하기 때문에 공격한다. 그가 그들에게 주는 믿음 때문에 멸시감이 생기고 결국 그들은 그가 아무것도 알아차리지 못한다고 믿게 된다.
- 24. 어떤 반란자들은 또한 일종의 경멸감에서 그들이 쉽게 권력을 장악할 수 있다고 믿고 반란을 일으킨다. 그들은 그들 자신이 강력하며, 이 강력함 때문에 어떤 위험도 경시할 수 있다고 생각하므로 쉽게 거사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장군들은 그들의 군주를 공격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키로스는 아스티아게스(Astyages)를 반격했는데, 이것은 그의 사치에 빠진 습관과 보잘것없게 된 능력을 멸시했기 때

문이다. 트라케인인 세우테스(Seuthes)는 장군이었을 때 아마도코스(Amadokos) 왕을 공격하였는데, 이것도 비슷한 이유 때문이었다.

- 25. 때로는 한 가지 이유 때문이 아니라 여러 이유 때문에 반란을 일으킨다. 예를 들어, 경멸은 탐욕과 결부될 수 있는데, 미트리다테스(Mithridates)가 그의 부친인 페르시아의 영주 아리오바르자네스(Ariobarzanes)를 공격한 것과 같은 경우이다. 그러나 여러 복합적인 원인에서 일어나는 반란은, 일반적으로 강인한 정열을 가진 자로서 그들의 군주에게 봉사하는 높은 군대의 직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일으킨다. 힘으로 무장된 용기는 배짱 좋은 행동으로 바뀌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용기와 힘이 결합되면 쉽게 승리를 이루리란 신념에서 반란을 일으킨다.
- 명성을 얻기 위하여 반란을 일으키는 경우는 이제까지 우리가 언급한 것과 성격이 다른 원인 때문이다.
- 26. 명성에 대한 욕구 때문에 반란의 위험을 무릅쓸 결의가 되어 있는 사람은, 저 높은 명예나 큰 이득을 얻기 위하여 폭군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과는 매우 다른 방식으로 행동한다. 그러한 종류의 사람들은 단순히 욕심이나 야심에 의하여 움직이지만, 진정한 명성을 바라는 사람은 마치 그가 그의 동료들 중에서 어떤 명성을 얻음직한 큰 모험을 할 기회가 주어진 것처럼 높은 기개를 가지고 지배자를 공격할 것이다—즉 그는 영광을 원하지 왕국을 원하는 것은 아닌 것이다.
- **27.** 그러한 이유로 행동하는 사람들은 사실상 소수에 불과하다. 그들은 실패할 경우의 그들의 안전에 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 28.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디온(Dion)이 소수의 휘하 사람들을 거느리고 디오니시 오스 2세를 치기 위하여 원정의 항해에 나섰을 때와 같은 결심—거의 소수의 사람만이 세울 수 있는 결심—이 있을 것이다. 디온(Dion)은 아래와 같이 말했다. 『나의 마음은, 내가 어느 지경에 까지 도달하건 간에 이 거사에 있어서 그만큼 한 것으로 만족한다. 그렇다. 만약 내가 상륙한 직후에 죽는다고 할지라도 나로서는 그렇게 죽는 것으로 만족한다.』
- 29. 폭군정치가 타도되어질 수 있는 방식—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이미 관찰한 바와 같다. 즉, 모든 다른 형태의 정부에 관해서도 그대로 적용된다—중의 하나는 외

부적인 원인들에 의한 것이다. (1312b)

반대의 헌정질서를 갖고 있는 다른 국가가 폭군정치를 하고 있는 나라보다 더 강력할 수 있다. 서로 반대되는 정치적 원칙의 대립 때문에<sup>28</sup> 그러한 국가는 폭군정치를 타도하려고 할 것이다. 의지와, 그것을 뒷받침해 주는 힘이 있는 경우에는 항상 길이 있다.

- 30. 이러한 상반되는 정치질서의 대립은 다른 형태들을 취할 수도 있다. 대중의, 폭정의 극단적인 형태를 취하는 민주정치도, 헤시오도스가 『도공(陶工)도 도공과 다툰다』라고 말한 것과 마찬가지의 방식으로 폭군정치와 분쟁을 일으킨다. 왕정과 귀족정치는 이와 반대되는 이유로, 그리고 그들의 정치질서가 그 정신에 있어 반대되므로 폭군정치와 다툰다. 이러한 이유로, 왕이 지배하는 스파르타는 대부분의 폭군정치를 억눌렀으며, 시라쿠사이도 좋은 정치질서를 갖고 있었던 기간 동안에 동일한 정책을 추구했다.
- 31. 폭군정치들은 또한 내적인 원인에 의하여 파괴될 수도 있다. 폭군정치를 하는 도당 내부에서 분쟁이 날 수 있다. 이러한 일은 시라쿠사이에서 겔로(Gelo)의 집 안에서 일어났으며, 우리 시대에서는 디오니시오스 2세 집안에서 다시 발생했다. 겔로가 세운 폭군정치는 트라시불로스에 의하여 망했는데, 그는 겔로의 후계자인 히에로(Hiero)와 형제지간이었다. 히에로가 죽자 그 다음의 후계자인 겔로의 아들의 비위를 맞추었으며, 그 자신이 권력을 장악할 야심에 차서 겔로의 아들을 쾌락에 탐낙한 생활을 하도록 유혹했다. 이렇게 되자 그 후계자의 친척들은 처음에는 트라시불로스를 내쫓고 폭군정치를 구하기 위하여 파벌을 형성했다가 시기가 무르익자 가족 전체를 추방하고 말았다.
- **32.** 디오니시오스가 멸망한 것은 그의 친척인 디온 때문이었는데, 디온은 그에 대하여 원정을 하여 인민의 지원으로 그를 내쫓았지만, 결국 그 자신도 죽고 말았다.

<sup>23.</sup> 이 경우의 원칙들을 오늘날의 용어로 말하면 정치 이념이라고 하여도 좋을 것이다. 바퀴의 앞의 책 239페이지 주(註)2를 참조

가장 흔하게 반란의 원인이 되는 것은 증오와 경멸의 두 가지 경우이다. 모든 폭군들은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증오를 자아내게 한다. 그러나 흔히 폭군정치들이 실제로 전복되는 원인은 경멸이다.

- 33. 그 증거로, 그들 자신의 노력으로 폭군정치를 세운 폭군들은 일반적으로 그 위치를 끝까지 유지하여 나가지만, 그들의 후계자들은 거의 즉시로 그 자리를 잃고만다.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들은 남에게 경멸을 받으며,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다. 증오는 분노를 포함하는 것으로 생각해야 하는데, 이것은 거의 마찬가지 종류의 효과를 내는 것이다.
- 34. 사실상 흔히 분노는 더 효과적인 자극이다. 분노한 사람은 더 격렬하게 공격적으로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격정 때문에 쉬면서 생각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모욕을 당하는 것보다 더 사람의 자제력을 없애는 것은 없다. 페이시스트라토스의 가문의 붕괴를 초래한 것은 이 이유이며, 다른 많은 폭군정치들도 같은 이유로 멸망했다.
- **35.** 그러나 증오는 사람들로 하여금 타산을 계산할 수 있도록 한다. 사람들은 자기의 적을 고통을 느끼지 않고도 증오할 수 있다. 그러나 분노는 항상 고통을 수반하며 이 고통이 계산하기를 어렵게 만든다.

요약하면 순수한, 그리고 궁극적 형태의 과두정치와 극단적 형태의 민주정치를 전복시키는 경향이 있는 위에 언급한 모든 원인들이 마찬가지로 폭군정치에도 치명적인 것으로 생각되어야 한다. 사실상 이러한 형태의 정치들은 그 자신이 집합적폭군정치에 불과하다.

- 36. 왕정은 외부적 요인에 의하여 붕괴될 가능성이 가장 적다. 따라서 그것은 오래 지속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그것이 붕괴하는 원인들은 일반적으로 내적인 원인이다. 그러한 원인들은 두 가지 형태를 취할 수 있다. 하나는 (1313a) 왕가 내의 내분이며, 다른 하나는 왕이라기보다 폭군처럼 지배를 하려고 하는 것인데, 즉 아무런 법적 제한 없이 더 큰 특권을 주장하는 것이다.
- **37.** 왕정은 이제 한물 간 정치형태이다. 그리고 오늘날 나오는 그러한 형태의 정부는 개인적인 정부이거나 아니면 폭군정치이다. 왕정은 중요한 문제들에 있어서 최

고의 권위를 갖는 왕이 국민의 동의에 의하여 다스리는 정부이다. 국민들은 일반적으로 평등해서 왕의 관직에 맞는 위엄과 위풍을 갖춘 뛰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다. 따라서 그러한 형태의 정부에 대해서 동의의 근거가 없다. 그래서 그것이 사기나 힘에 의하여 강요될 때는 즉시 폭군정치의 한 형태로 간주된다.

38. 한 가문에만 제한된 왕정은 이제까지 언급하지 않은 또 다른 원인에 의해서 전복되기 쉽다. 이러한 형태의 왕들은 흔히 그들의 신하의 경멸을 사거나, 아니면 그들이 왕으로서의 위엄이 있을 뿐이지 폭군 같은 권력은 없다는 것은 잊어버리고남을 모욕하거나 해를 끼치는 짓을 저지른다. 그 다음에는 그들을 전복시키기란쉬운 일이다. 신하가 기꺼이 신하 노릇을 하려고 하지 않으면 이미 왕은 왕이 아니다. 그렇지만 폭군정치에 있어서는 그들의 신하가 기꺼이 복종을 하건 안 하건 간에 폭군은 그대로 폭군일 수 있는 것이다.

군주정치 형태의 정부들이 전복되는 것은 이러한, 그리고 이와 비슷한 이유들에서 나온다.

## 제11장

- 1. 군주정치 형태의 정부들을 일반적으로 살펴보면, 그들은 모두 그들의 파멸을 초 래하기 쉬운 원인들과 반대되는 방식에 의하여 보존된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왕정의 경우에 왕은 절제의 정책에 의하여 그의 왕위를 보존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가 특권을 갖는 영역이 작으면 작을수록 왕의 권위는 손상을받지 않고 더 오래 유지될 수 있다. 그 자신은 국민의 주인이라기보다 더 평등한사람으로서 행동을 하면 국민들의 편에서는 그를 덜 시기할 것이다.
- 2. 이것이 몰로시아(Molossia)인들 사이에서 왕정이 오래 살아남은 이유이다. 스파르타의 왕정이 오래 존속되는 이유도, 부분적으로는 11인의 왕 사이에 처음부터

권력이 분립되었다는 데 있으며, 부분적으로는 그 이후에 테오폼포스<sup>24</sup>가 추구한 일반적으로 온건한 정책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가 감독인의 관직을 설정한 데 있다. 결국 그는 장기적으로 보아 스파르타의 왕정에서 왕의 본래 권력의 일부를 삭제함으로써 스파르타의 왕정을 강화했다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그가 왕정의 중요성을 축소했다기보다 확대했다고 하는 것이 일리가 있겠다.

- 3. 그의 부인이 그에게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았던 것보다 더 적은 권한을 아들들에게 물려주게 된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은가 하고 물었을 때 그가 한 답변은 바로 이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아래와 같이 답변했다고 한다. 『천만에, 그렇지 않다. 나는 그들에게 훨씬 오래 지속될 권력을 남겨주는 것이다.』
- 4. 폭군정치들은 완전히 정반대되는 두 가지 방법에 의하여 보존될 수 있다. 그들 중의 하나는 전통적인 방법인데 대부분의 폭군들이 아직도 그대로 따르고 있는 통치 방식이기도 하다. 이들 중에 많은 것이 코린토스의 페리안드로스가 처음 시작한 것이라 한다. 그러나 그 중의 여러 면모는 또한 페르시아의 통치 체제에서 나온 것이다.
- 5. 이 방법은 우리들의 논의 과정에서 폭군정치를 보존시키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그것이 보존되어질 수 있는 한에 있어서는) 이미 언급된 몇 가지 조처를 포함한다. 예를 들어, 여기에는 뛰어난 사람을 제거하거나 기개가 높은 사람을 없애는 방식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또 다른 조처들도 포함되어 있다. 그들 중의 하나는 공동식사제, 클럽, (1313b) 교육 또는 이와 비슷한 성격을 가진 어떠한 것도 금지하는 것이다. 즉 다른 말로 하면, 국민 상호 간의 신뢰와 높은 기개의 두 가지 성향을 자아냄직한 어떠한 것에 대해서도 이를 기피하는 태도를 말한다. 두 번째의 조처는 문화적인 목적을 위한 집회, 또는 비슷한 성격을 가진 어떤 모임도 금지하는 것이다. 한 마디로 말하면 모든 수단을 다하여 모든 국민들이 가능한 한 서로 상대방에게 이방인처럼 되도록 하는 것이다. (국민들이 서로 친숙해지면 항상 상호 간

24. 테오폼포스(Theopompos): 기원전 8세기 중엽의 스파르타의 왕.

- 에 신뢰가 생기기 때문이다.)
- 6. 세 번째 방식의 정책은 모든 도시 거주자들에게 항상 공적인 장소에 나타나고 늘 궁전 문 부근에 서성거리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은 지배자가 피지배자들의 행동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며, 피지배자들로 하여금 매일매일 복종의 습관에 의하여 굴종적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방식의 정책은 또한 페르시아와 야만인들 사이에서 공통적으로 있는 비슷한 성격을 가진 다른 조처들을 포함하는데, 이들은 모두 폭군정치를 증진시키는 일반적인 효과를 낸다.
- 7. 네 번째 방식의 정책은 모든 사람들의 언동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정보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은 비밀경찰이 있어야 하는데, 시라쿠사이의 여자 정보원이나 혹은 폭군 히에로가 모든 사회적인 집회와 공적인 모임에 보낸 염탐꾼 같은 것이다. (사람들은 비밀경찰을 두려워하여 본심을 털어놓기를 꺼려하며, 본심을 털어놓는 경우에는 발각되기 쉽다.)
- 8. 또 다른 방식의 정책은 친구와 친구 사이에, 대중과 저명인사들 사이에, 그리고 부자들 중의 어느 일부와 다른 사람들 사이에 불화를 만들며, 상호 간의 불신의 씨를 뿌리는 것이다. 끝으로 폭군들은 또한 그들의 피지배자들을 가난하게 만드는 정책을 쓰는데, 이것은 부분적으로는 시민으로 이루어진 군대를 유지할 수 있는 수단을 갖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부분적으로는 그들이 매일매일의 생계를 유지하기에 급급한 나머지 모의를 할 여유가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9. 이 정책의 한 예는 이집트에서 피라미드를 건축한 것이며, 또 다른 하나는 킵셀로스 가문이 사원에 막대한 시주를 한 것이다. 세 번째로는 페이시스트라토스 집 안이 올림포스의 제우스신을 위하여 사원을 건설한 것이며, 네 번째의 예는 폴리크라테스(Polykrates)가 사모스의 기념비를 더 추가하여 세운 것이다. (이러한 행동들은 모두 동일한 목적을 갖고 있다. 즉 폭군의 신민들을 더욱 가난하게 하며 그들의 여가를 박탈하기 위한 것이다.)
- 10. 세금의 부과도 비슷한 결과를 낸다. 시라쿠사이의 예를 인용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디오니시오스 1세의 폭군정치 기간 동안에 5년을 기한으로 하여 국민들이국가에게 그들의 전 재산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러한 정책의 성질은 폭군

들로 하여금 전쟁 도발자로 또한 만들게 했는데, 즉 그들의 신민들을 항상 한눈을 팔 수 없이 바쁘게 만들고 계속적으로 지도자를 필요하게시리 만드는 목적을 갖는 것이다.

왕들은 그들의 친구에 의하여 왕이 되고 또한 유지된다. 그 반면에 폭군들은, 『모든 사람들이 내가 망하기를 바라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친구들이다. 라는 원칙하에서 누구보다도 친구들을 불신한다.

- 11. 그리하여 극단적인 민주정치들에서 적용되는 방법들은 모두 폭군정치들에서 도 찾아 볼 수 있다. 그들은 모두 가족 내에서 여성 측이 영향력을 갖도록 고무하는데, 이것은 부인들이 자기 남편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마찬가지 이유로 노예들에게 관대하다. 노예와 부녀자들은 폭군들에 대하여 모의를 할 가능성이 적으며, 사실상 그들은 폭군정치하에서 더 형편이 좋으므로, 폭군의 지배를 좋아할 수밖에 없다. 마찬가지로 그들은 국민이 폭군이나 마찬가지로 최고의 권위를 행사하기를 즐기는 민주정치를 또한 좋아한다.
- 12. 이러한 이유로 이 두 형태의 정부에서는 모두 아첨꾼들이 명예 있는 지위를 차지한다. 민주정치들은 〈민주정치의 아첨꾼들〉이라고 부를 수 있는 대중 선동가들을 좋아하며, 폭군들은 비굴한 친구들을 좋아한다—(1314a) 그런데 폭군의 주변에 있는 측근들이 하는 일이 바로 이것이다. 그러므로 폭군정치란 나쁜 사람들을 친구로 선택하는 체제이다. 폭군들은 아부를 좋아하는데, 자유인의 정신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몸을 굽혀 그런 일을 할 수 없다. 좋은 사람이 친구가 될 수도 있으나 그는 어쨌든 아첨꾼은 되지 않을 것이다.
- 13. 나쁜 사람들은 아첨할 준비가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나쁜 목적을 위한 좋은 도구가 된다. 속담에 『못이 못을 제거한다』라고 한 것은 이러한 것을 이르는 것이다. 폭군들은 독립성과 존엄성의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을 결코 좋아하지 않는 습관이 있다. 폭군은 그러한 성격을 자기 자신만이 독점하려고 한다. 그는 경쟁이 될 만한 위험을 보이거나 독립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의 특권을 잠식하며 그의 최고 권력을 깎는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그러한 사람을 그 자신의 권위를 파괴하는 사람으로 증오한다.

**14.** 또한 폭군들은 같은 시민들보다 외국인과 함께 식사하거나 자리를 함께 하기를 더 좋아한다. 그들은, 시민은 적이지만 이방인은 아무런 반대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폭군의 기법은 이와 같으며, 그의 권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수단들은 위에 말한 바와 같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나쁜 짓의 밑바닥을 맴돈다. 폭군들은 모두 세 개의 주된 부류로 요약하여 분류할 수 있는데, 이들은 각각 폭군들이 추구하는 세 가지 목표에 상응하는 것이다.

15. 그들의 첫 번째 목표와 목적은 피지배자들의 기개를 꺾어놓는 것이다. 그들은 기개가 없는 사람은 결코 누구에 대해서도 음모를 꾸미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들의 두 번째 목적은 상호 간에 불신을 자아내는 것이다. 국민들이 상호 간에 신뢰를 갖기 시작하지 않는 한 폭군정치는 결코 전복되지 않는다. 이 이유 때문에 폭군들은 항상 좋은 사람들을 꺼려한다. 그들은, 좋은 사람들은 그들의 권위에 이중적으로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먼저 그들은 마치 노예처럼 통치를 받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하므로 위험하며, 또한 그들 상호 간에 그리고 일반적으로 충성심이 있으며 상호 간이나 혹은 어떤 다른 사람이라도 배신하지 않으려고 하므로 위험하다.

16. 폭군들의 세 번째 그리고 마지막 목적은 피지배자들로 하여금 어떤 행동도 취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는 것이다. 아무도 불가능한 일을 시도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누구도 모두가 행동을 취할 수 없을 때에는 폭군정치를 전복하려고 기도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폭군들이 흔히 쓰는 정책의 기본이 되는 세 가지 원칙을 세울 수 있다. 그들이 취하는 어떠한 조처도 결국 이 세 가지 생각 중의 어느 하나로 이해 할 수 있는데, (1) 국민들 사이에 상호 불신을 조장하는 것, (2) 그들로 하여금 어떤 행동도 취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3) 그들의 기개를 꺾어 놓는 것 등이다.

17. 또한 여기에서 폭군정치를 유지하는 두 가지 주요 방법 중에 하나를 이야기했다. 그러나 행동의 방향이 거의 첫 번째의 것과 정반대되는 두 번째의 방법이 있다. 18. 우리가 잠시 뒤로 돌아가서 왕정들을 파괴하는 원인을 살펴보면, 이 두 번째 방식의 성격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왕정이 파괴되는 방식 중의 하나는 그것이 폭군정치의 성격을 갖도록 변화하는 것이라는 점을 고찰한 바 있다. 이것은, 폭군정치를 보존하는 방식의 하나는 그것을 왕정의 성격을 갖도록 변화시키는 것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여기에는 한 가지 조건이 따르는데, 이렇게 개혁된 폭군일지라도 그대로 권력을 유지하며, 국민의 동의가 있건 없건 간에 지배하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권력까지도 양도해 버리면 폭군정치 자체를 없애는 일이 되고 말 것이다.

- 19. 따라서 폭군정치의 근본적인 조건으로서의 권력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 이외에는 폭군이 왕의 역할을 잘 해내는 연기자로서의 구실을 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그렇게 해내는 듯이 보여야 한다. 우선 그는 공금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잘 돌보는 것처럼 보여야 한다. (1314b) 그는 평민의 불만을 일으키는 함부로 선물을 주는 짓을 삼가야 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생활고로 허덕이는 국민들에게서 억지로 돈을 거두어들여서 이를 유녀(遊女)들이나, 이방인, 그리고 사치품 교역에 탕진하면 항상 이런 불만이 나오기 마련이다) 그의 수입과 지출을 기록하여 결산해야 하는데 이것은 여러 폭군들이 실제로 실시한 정책이다. 이러한 통치 방식으로 그는 폭군이라기보다 대리인 같아 보일 것이다.
- 20. 그렇다고 해서 그가, 국정(國政)을 통제하는 한에 있어서는, 적자(赤字)를 낼 걱정은 없다. 그리고 만약 그가 나라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한다면, 적자를 내게 되는 것이 국내에 돈을 잔뜩 남겨두는 것보다 이롭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 러한 경우에, 그가 임명하는 섭정(攝政)은 그 자신이 정권을 장악하려는 기도를 할 가능성이 적기 때문이다. 그리고 외국에서 전쟁을 수행하는 폭군은 실상 시민들보다 섭정을 더 두려워해야 한다. 섭정은 뒤에 남지만 시민들은 지배자와 함께 전장으로 가기 때문이다.
- 21. 그 다음 두 번째로, 그는 세금을 부과하고 다른 기부금을 징수하되, 공공 업무를 위해서거나, 필요한 때에는 군사적으로 긴급한 필요에 사용하기 위한 의도에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는 사적인수입이 아니라 공공 세수를 취급하는 보호자나 대리인의 역할을 해야 한다.

폭군은 가혹하지 않으면서 위엄이 있어 보여야 하며, 그의 앞에 오는 사람은 두려움보다 경외감에서 행동하도록 처신해야 한다.

- 22. 이것은 그가 존경심을 낳도록 하지 못하면 달성할 수 없는 목표이다. 따라서 그는 다른 능력이 없더라도 군인다운 능력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하며, 유능한 군인이라는 인상을 주어야 한다. 즉 개인적으로 소년이나 소녀를 막론하고 국민 중의 누구의 정절도 범했다는 혐의를 받아서는 결코 안되며, 그의 측근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의심을 받아서는 안된다.
- 23. 그의 집안의 부녀자들도 다른 여자들과의 접촉에 있어서 같은 규칙을 지켜야한다. 흔히, 여자의 거만함 때문에 폭군정치들이 망하고 했다. 개인적인 취향에 있어서는 오늘날 보는 어떤 폭군들과는 정반대여야 한다. 이들은 새벽에 시작하여계속해서 며칠을 즐기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실제로 그들의 생각에는 사람들이그들의 행락(行樂)과 즐거움을 부러워하리라고 여기는 것이다.
- 24. 이상적으로는 폭군은 그의 쾌락에 있어서 절도를 지켜야 한다. 만일 그가 이이상을 달성할 수 없으면, 적어도 쾌락을 피하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어야 한다. 술주정뱅이나 정신이 혼미한 사람은 쉽게 경멸을 당하고 공격을 받지만, 정신이 똑바르고 경계를 늦추지 않는 사람은 그런 일을 당하는 법이 없다. 사실상 폭군은 우리가 폭군의 특징으로 기술한 거의 모든 것에 정반대가 되어야 한다. 그는 그가살고 있는 도시를, 그가 폭군이 아니고 마치 그 도시의 이득을 돌보는 수탁자(受託者)처럼 설계하고 미화해야 한다.
- 25. 그는 항상 종교적 의식에 대하여 특별한 열성을 보여야 한다. 사람들은 폭군이 신을 두려워하며 신에게 관심을 기울인다고 생각하면 (1315a) 그들 자신이 부당하게 취급받는 것을 덜 두려워한다. 그리고 신들 자신이 그와 좋은 사이라고 생각하면 그에 대하여 음모를 꾸미기를 좀 더 주저하는 것이다. 동시에 폭군은 종교적인 열성을 보이되 어리석음에 빠져서는 안된다.
- 26. 그는 또한 계급과 지위를 막론하고 좋은 사람들에게 명예를 부여해야 하는데, 이 사람들이, 만약 자기 동료 시민들이 자유롭게 자기들 사이에서 명예를 나누어 가진다면 결코 이 이상으로 명예를 얻지는 못 했으리라고 생각할 만큼 해주어야

한다. 그는 그러한 명예는 친히 나누어 주어야 하지만, 모든 형벌은 관리나 법정이 행하도록 해야 한다.

- 27. 모든 형태의 군주정치적 정부에 공통되는 주의사항은 어떤 한 사람을 높은 지위로 승진시켜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만약 그러한 승진을 꼭 해야만 한다면 여러사람들을 함께 시켜주어야 한다. 그렇게 하면 그들은 서로서로를 감시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꼭 어느 한 사람을 어떤 높은 자리로 승진시켜 주어야 한다면, 결코용감한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을 택해서는 안된다. 그러한 종류의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떤 행동의 분야에 있어서나 제일 먼저 행동을 취한다. 그 반대로 만약사람을 권좌로부터 제거해야 한다면 이 제거의 과정이 점진적이어야 하고, 단번에그의 권위를 모두 박탈해서는 안된다.
- 28. 폭군은 어떠한 형태의 난폭한 짓도 삼가야 하는데, 무엇보다도 특히 두 가지 짓을 즉 육체적인 모욕을 가하는 것과, 젊은이의 정조를 범하는 짓을 하면 안된다. 그는 명예 감각이 예민한 사람과 상대하고 있을 때에는 특히 행동을 조심해야한다. 금전 문제에 있어서 거만한 행동을 하면 돈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이를 분하게 여기지만, 명예에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오만한 태도를 하면 명예와 덕이 있는 사람의 분노를 산다.
- 29. 따라서 폭군은 그런 행동을 삼가야 하며, 아니면 최소한도로, 그가 어떤 형벌을 가할 때에는, 오만함에서가 아니라 아버지 같은 입장에서 버릇을 들이기 위하여 그렇게 한다는 점을 명백히 해야 한다. 또한 젊은이들과 애정 관계에 있을 때에는, 권력을 남용해서가 아니라, 진정한 사랑에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여기게 해야한다. 또한 그러한 경우에 있어서 모두 그가 남에게 가한 명예훼손에 대하여 더 큰 명예를 수여하여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
- **30.** 암살은 거사 후에 살아서 달아날 생각을 않는 사람들이 이를 기도할 때 가장 위험하며, 따라서 이를 가장 조심해야 한다.
- 31. 이러한 이유로, 그들 자신이나 혹은 그들이 애착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치욕을 입혔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조심해야 한다. 격분하여 작동하는 사람들 은 그들 자신을 돌보지 않는다. 헤라클레이토스(Herakleitos)의 말은 이를 증명한

- 다. 『기(氣)가 달아올라 있는 사람과 싸우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그는 기꺼이 생명으로 대가를 치르려 하기 때문이다.』
- 32. 사회적 정책의 문제에서 볼 때, 폭군은, 국가는 두 가지 계층 부자와 빈자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상기해야 한다. 가능하면, 이 양 계층이 모두 폭군의 권력 덕택에, 그들이 생활상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으며, 서로 상대방에게서 위해를 입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해야 한다. 그러나 만약 어느 한쪽이 다른 쪽보다 강력하면, 폭군은 그쪽을 특히 자기편이 되도록 해야 한다. 어느 한편의 힘을 자기의 힘에 추가하게 되면, 그는 그의 지위에 대한 어떤 위협에도 견딜 수 있을 것이다.
- 33. 이러한 일들을 자세하게 취급할 필요는 없다. 일반적인 목적은 충분히 명백하다. 폭군은 그의 신민에게 전제자로서가 아니라, (1315b) 인민의 대리인이나 왕으로 보여야 한다. 그는 그 자신의 이득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고 공적인 복리의 수탁자로서 보여야 하며 그 자신의 생활의 목표로써 지나침이 없는 절제를 추구해야한다. 그는 저명인사들과의 사교(社交)를 가져야 하지만 동시에 대중의 호감을 사도록 해야한다.
- 34. 그러한 방법으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은 두 가지가 있다. 첫째로는, 그의 지배가 더 고상해지고 더 좋은 통치가 될 것이다. 그의 신민들은 굴욕에서 해방되어 좀 더나은 사람들이 될 수 있고, 그 자신도 증오와 공포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다. 둘째로, 그의 지배가 더 오래 유지될 것이며, 그 자신도 전적으로 선한 성향은 아닐지라도 적어도 반은 선한—설혹 선악이 반반 정도일지라도 어쨌든 완전히 악한 것은 아닌—인격에 길들 것이다.

# 제12장<sup>25</sup>

(1315b11) 1. 그러나 여러 정치질서들 중에서 과두정치와 폭군정치가 가장 수명이 짧다. 가장 오래 지속된 폭군정치는 시키온(Sikyon)의 오르타고라스(Orthagoras)와 그의 후손들에 의한 것이었는데, 한 세기 동안 존속되었다. 이것이 그렇게 오래간 이유는 그들이 신민들에게 절제 있게 처신했고, 일반적으로 법률에 잘 복종했기 때문이었다. 그들 중의 하나였던 클레이스테네스(Kleisthenes)는 군인다운 자질이 너무 뛰어났으므로 국민에게서 경멸을 받지 않았으며, 이 가문은 신민의 생활에 관심을 기울여서 대중의 호감을 샀다.

- 2. 클레이스테네스에 관한 기록에 의하면, 그는 경기에서 자기에게 패배의 판정을 내린 심판에게 상을 내렸다고 하며, 시키온의 광장에 있는 좌상(坐像)은 판정을 내리는 심판의 용상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 아테나이의 폭군 폐이시스트라토스에 관해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는 아레오파고스(Areopagos) 의회가 다루는 한 소송 사건에 그 자신이 피고로 호출을 당하여 출정하도록 허용했다고 하다
- 3. 두 번째로 오래 지속된 것은 코린토스의 킵셀로스 가문의 폭군정치인데, 이것은 73년 반 동안 계속 됐다고 한다. 킵셀로스 자신은 3년 동안 폭군 노릇을 했으며, 페리안드로스는 4년 반 동안을, 그리고 고르디아스(Gordias)의 아들인 프삼메티코스(Psammetichos)는 3년 동안 폭군 노릇을 했다.
- 4. 이 폭군정치가 오래 간 이유도 시키온에서와 마찬가지였다. 킵셀로스는 그의 신민의 호감을 샀고, 그의 통치의 전 기간을 통하여 호위병을 두지 않았다. 페리안 드로스 자신도 비록 전제자(專制者)였지만, 훌륭한 군인임을 증명하였다.

25. 이 장(章)의 1~6까지는 흔히 다른 사람이 써넣은 것이라고 하여 본문에서 괄호에 넣어 처리하거나 아니면 아주 삭제하여 버리는데, 그것은 논문의 주지에서 벗어나는 점이 있고 또 여기에 인용된 역사적 사실들도 틀린 경우가 있다는 이유에서이지만 여기에서는 독자들이 스스로 판단하게끔 전문을 그대로 번역하기로 한다.

- 5. 세 번째로 오래 간 폭군정치는 아테나이의 페이시스트라토스 가문이었지만 단지 이 경우에 있어서는 통치가 간헐적이었다. 페이시스트라토스는 그의 통치 기간 동안 단지 17년만 폭군 노릇을 했다. 그의 아들들은 모두 합해서 18년 동안 폭군 노릇을 했으므로 가족 전체의 통치 기간은 전부 35년에 국한된다.
- 6. 다른 폭군정치들 중 가장 오래 지탱한 것은 시라쿠사이의 겔로와 히에로의 폭군정치였다. 그렇지만 이것 역시 상대적으로 기간이 짧았으며, 전부 합하여 겨우 18년 동안 지속한 셈이다. 겔로는 7년 동안 폭군 노릇을 했으며 재위 8년 째에 죽었다. 히에로는 1년 동안 통치했고, 트라시불로스는 통치 1개월 만에 쫓겨났다. (1315b39) 폭군정치들은 일반적으로 모두 수명이 매우 짧다.
- 7. 이제 우리는 헌정들과 군주정들의 유지와 파괴를 야기하는 모든 (혹은 거의 모든) 원인들을 다루었다. 결론적으로 (1316a) 우리는 플라톤이 그의 《국가》에서 정치질서를 대상으로 다루었지만 그것은 결함이 많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첫째로, 플라톤은 그 자신의 제1의 이상적 정치질서에 특수한 변화의 원인을 특별히 지적하지 못했다.
- 8. 그는 아무것도 영속하지 못하며, 모든 것들은 일정한 기간 후에는 변화한다고 말한다. 그는 계속해서 말하기를, 그러한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변화의 근원은 숫자의 체제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한다. 즉 『근비율(根比率) 4대 3이 5와 합할 때 두 가지의 조화수열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다. (그는 도형의 산술치가 3승이 될 때에 이것이 일어난다는 뜻의 말을 첨가하고 있다.)<sup>26</sup> 여기에서 함축된 의미는. 생식과
- 26, 아리스토텔레스는 여기에서, 학자들 사이에 아직도 수수께끼로 남아 있는 플라톤의 유명한 소위〈혼례의 숫자〉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다. 이 말은 《국가》 8권 546c에 나오는데,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예를 들어,5²=3²+4²; 216=3³+4³+5³=6³; 12,960,000=3,600²=(3x4x5)⁴ 등], 변의 길이가 각각 3, 4, 5 인 피타고라스의 직각 삼각형과 관련이 있고, 수태(受胎)와 출산에 관련이 있음을 알 뿐이고 이렇다 할 정설이 없다. 콘포드(F.M. Cornford) 교수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우주와 소우주, 천상과 인간세계 사이의 상응적 관계이며, 양자에 동시에 숫자적 원칙이 작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해설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콘포드의 《플라톤의 국가론(The Republic of Plato)》(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64), 269페이지, 그리고 바커의 앞의 책, 251 및 254페이지 참조.

정에 있어서 때때로 결코 교육할 수도 없는 저질의 사람이 태어난다는 것이다. 아마도 이 뜻 자체는 틀린 것이 아닐 것이다. 결코 교육할 수도 없고 좋은 사람으로만들 수도 없는 인간들이 있을 수 있다.

- 9. 그러나 왜 이것이 《국가》에 묘사된 이상국가의 특유한 변화의 원인이 되어야 하는가? 오히려 이것은 모든 국가에 공통되며 존재하는 모든 사물에 공통된 성질이 아니겠는가? 또 다른 문제점이 있다. 그는 시간의 경과가 만물이 변화하는 원인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처음 시작할 때 동시에 시작하지 않은 사물들이 동시에 변화를 일으키는 일을 설명할 수 있겠는가? 변화의 시기가 다가오기 하루 전에 생겨난 것도 동시에 변화하는가?
- 10. 우리는 또한 왜 이상적인 국가가 스파르타 형태의 국가로 바뀌어야 하는가 하는 의문을 제기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정치질서들은 유사한 형태로 변화하기보다 반대되는 형태로 변화한다. 플라톤이 스파르타 형태의 정치질서가 과두정치로 바뀌며, 과두정치는 민주정치로 바뀌며, 그리고 민주정치는 폭군정치로 바뀐다고 기술하였는데 그가 언급한 이 다른 변화들에 대해서도 같은 논점이 적용된다.
- 11. 사실상 이와 정반대의 일도 마찬가지로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민주정치는 과두정치로 변화할 수 있으며 민주정치가 군주정치로 바뀌기보다는 더 쉽게 과두정치로 바뀔 수 있다.

변화의 과정이 폭군정치에 이르면 플라톤은 거기에서 중단하고 만다. 그는 그들이 변화하는지 혹은 변화하지 않는지, 그리고 만약 그들이 변화한다면 그 원인은 무엇이며, 어떤 정치질서로 변화하는지 결코 설명하지 않는다. 이것을 설명하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 왜냐하면 그에 따르면 폭군정치는, 회전하는 변화의 주기에 따라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의 이상적 정치질서로 다시 되돌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12. 그러나 실제로는 폭군정치는 또 다른 형태의 폭군정치로 바뀐다. 예를 들어 시키온에서의 폭군정치가 미로(Myro) 치하의 폭군정치 형태로부터 클레이스테네스 치하의 형태로 바뀌거나, 칼키스에서의 안틸레온(Antileon)의 폭군정치처럼 과두 정치로 바뀔 수도 있으며, 시라쿠사이의 겔로의 폭군정치처럼 민주정치로 변화할

수도 있고, 스파르타에서의 카릴라오스(Charilaos)의 폭군정치나 카르타고에서 일어났던 것처럼 귀족정치로 바뀔 수도 있다.

- 13. 또한 과두정치에 뒤이어 폭군정치가 생길 수도 있다. 시칠리아에서 고대의 과두 정치들은 대개 이러한 운명을 맞게 되었다. 레온티노이에서 과두정치에 뒤이어, 예를 들어, 파나이티오스(Panaitios)의 폭군정치가 출현했으며, 겔라(Gela)에서는 한 폭군정치에 뒤이어 클레안드로스(Kleandros)의 폭군정치가 또 출현했고, 레기움 (Rhegium)에서는 또한 폭군정치에 뒤이어 아낙실라오스 (Anaxilaos)의 폭군정치가 나왔다. 또한 많은 다른 나라들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방식의 변화가 일어났다.
- 14. 플라톤이, 스파르타 형태의 정치질서가 과두정치로 바뀌는 이유는 관리들이 돈을 좋아하게 되거나, 사리사욕을 탐하게 된다는 사실에만 있다고 생각한 것은 이상한 일이다. 그는, 그 원인을 매우 월등한 부를 (1316b)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연적으로 생기는 확신(確信), 즉 국가에서 재산이 없는 사람들이 재산이 있는 사람들과 신분이 같다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데서 찾으려 하지 않았다. 실제 로는 많은 과두정치들에 있어서 사리사욕을 탐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며, 이것을 금하는 특정한 법률들이 있다. 반면에, 카르타고는 민주적인 정치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들은 흔히 사리사욕을 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치질서는 성격을 바꾼 일이 없다.
- 15. 플라톤이, 과두정치를 하고 있는 나라는 실제로 두 나라—부유한 자의 국가와 가난한 자의 국가—라고 말한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 그러한 나라는 스파르타식의 국가나, 혹은 만민들이 재산에 있어서 평등하고, 자질이나 공적도 같은 수준인어떤 다른 형태의 나라에 있어서보다 이러한 성격이 더 많이 나타나게 되는가?
- 16. 과두정치는, 어느 한 사람도 그 이전보다 가난해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민주정치로 바뀔 수 있다. 그것은 가난한 자들이 다수가 된다는 단순한 이유이다. 반대로, 역시 부유한 계층이 대중보다 더 강력하며 대중은 수동적인데 반하여 이들은 능동적이라는 단순한 이유 때문에, 민주정치가 과두정치로 바뀔 수 있는 것이다.
- 17. 따라서 과두정치가 민주정치로 바뀌는 데는 여러 이유들이 있다. 그러나 플라 톤은 한 가지 이유—즉 사치한 생활의 결과로 빚을 지게 되고 결국 가난해진다는

것—에만 국한하여 설명하는데, 이 견해는 모든 사람 혹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음에 부자였다는 전제를 해야 한다.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실제로는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재산을 잃어버리는 경우에는 혁명가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다른 사람들은 재산을 잃어버리고도 아무 나쁜 결과를 빚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그 결과 일어나는 어떠한 변화도 어떤 다른 형태의 정치질서로의 변화라기보다민주정치로 변화하기가 더 쉽다.

18. 또 다른 문제점이 있다. 명예나 관직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모욕이나 부당한 대 우를 받는 경우에 플라톤의 견해대로, 지나친 자유의 감각 때문에, 〈자기 마음대 로 하는〉 방종으로 인하여 재산을 탕진하는 일이 없을지라도, 내분이나 정치질서 의 변화를 초래하기에 충분하다.

민주정치와 과두정치에는 여러 변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크라테스는<sup>27</sup> 이 양형태 중의 어느 하나만 있는 것처럼 그들의 변화를 논의하는 것이다.

**27.** 잘 아는 바와 같이 플라톤의 《국가》에 있어서 주대화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소크라테스이므로 그의 이름을 인용한 것임.

Olje Foundation | Share the wisdom. Change the world.



안정기반을 위한 민주정치와 과두정치의 건설 방법



# 제1장

- (1316a) 1. 이제까지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루어 왔으며, 여러 주제들의 수와 여러 형태들의 성격을 논의해 왔다. 즉 (a) 헌정의 최고 기관인 심의기관, (b) 행정 관직들의 구조, (c) 사법기관들이다. 이와 연관하여 우리는 또한 각 정치질서의 형태에 적합한 여러 가지의 성격을 논하였다. 우리는 또한 여러 가지 다른 정치질서들이 파괴되거나 유지되는 원인들과 계기들을 취급했다.
- 2. 민주정치와 다른 형태의 정치질서들은 각각 여러 변형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이 제 우리는 각 변형에 관하여 아직도 남아 있는 문제들과, 그리고 특히 각자에게 적합하고 유익한 조직의 방식은 무엇인가를 고려해 보아야 한다.
- 3. 우리는 또한 삼권의 각각을 조직하는 여러 방법들의 가능한 결합도 연구해 보아야 한다. (1317a) 왜냐하면 그러한 결합의 결과는 여러 정치질서들을 서로 중복되게 하며, 조금씩 성격이 변화하여 서로서로 닮게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귀족정치를 과두정치와 중복되게 하거나. 〈혼합정치〉를 민주정치와 중복되게 하는 것이다.
- 4. 이러한 가능한 결합들—이것은 사실 연구해 보아야 하지만 아직까지 논의되지는 않았다—을 예를 들어서 설명할 수 있다. 심의기관과 행정관리를 선거하는 방식은 과두정치적인 기반에서 이루어질 수 있으면서, 동시에 사법기구들은 귀족정치적인 기반에서 구성된다. 사법기구들과 심의기관은 과두정치적인 기반에서 구성되며, 그 반면에 행정관리들을 선출하는 방식은 귀족정치적인 기반에서 이루어진다. 다른 방식으로도 똑같은 결과—즉 헌정질서의 부분 혹은 요소들은 모두 똑같은 면모를 갖는 것은 아니라는—를 얻을 수 있다.
- 5. 우리는 이미 어떠한 시민체에 어떠한 종류의 민주정치가 적합한가를 설명했으며, 어떤 형태의 사회에 어떤 종류의 과두정치가 알맞으며, 그리고 어떤 종류의 국민에게 어떤 다른 형태의 정치질서가 적합한가도 설명했다. 그러나 우리들의 지금의 목적은 다른 더 많은 것을 요구한다.
- 6. 각 국가마다 어떤 종류의 정치질서가 가장 좋은가 하는 것은 확실치가 않다. 우리는 또한 이러한—그리고 다른—여러 변형들을 건설하는 적절한 방법을 확실하

게 구별하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들은 이 문제를 간결하게 다루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민주정치로부터 고찰하기 시작하면, 그 과정에서 민주정치와 반대되는 것, 즉 흔히 과두정치라고 부르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 7. 이 연구의 목적을 위하여 우리는 민주정치의 모든 속성과, 일반적으로 민주정치의 특징이라고 하는 모든 면모를 고찰해 보아야 한다. 이러한 속성들을 합해 보면 여러 다른 형태의 민주정치를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면 왜 여러 형태가 있으며, 또 어째서 그 형태들이 서로 다른가를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 8. 왜 민주정치에는 여러 형태가 있는가 하는 것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그 하나는 이미 언급되었다. 즉 그것은 여러 다른 국가들 사이의 국민들의 성격 차이이다. 어떤 곳에서는 국민들이 농민들이며, 다른 곳에서는 기계공이나 막벌이 노동자들이다. 그들이 구성하는 민주정치는 서로 다르게 된다. 그렇지만 기계공들에게 농부들을 섞이게 하거나,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양자에게 막벌이 노동자들을 또 추가한다면, 완전히 새로운 차이가 생겨나는데, 이 차이는 같은 것 중에 더 좋은 것과 더 나쁜 것의 차이라기보다는 완전히 서로 다른 것들의 차이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의 관심은 이 첫 번째 원인이 아니다. 우리는 이와 다른 두 번째 이유를 고찰해 보아야 한다.
- 9. 서로 다른 형태의 민주정치가 존재하게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민주정치의 특징이 되며 그것의 속성이라고 하는 여러 면모들이 가능한 여러 방식으로 결합되는 것이다. 어떤 종류의 민주정치는 이러한 속성들을 조금만 갖고 있으며 두 번째 형태의 민주정치는 이런 면모들을 더 많이 갖고 있고, 세 번째의 것은 이들을 모두 갖고 있다. 그래서 민주정치의 모든 속성들을 개별적으로 연구하는 것에는 이중적인 이점이 있다. 그러한 연구는 어떤 사람이 원하는 어떤 새로운 형태의 민주정치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또한 기존 형태들을 개혁하는 데도 도움이된다.
- **10.** 어떤 헌정질서를 건설하는 데 몰두해 있는 사람들은 흔히 그 정치질서의 기반이 되는 사상들과 관련되는 모든 속성들을 한데 뭉쳐 버리려고 한다. 그러나 정치

질서들의 파괴와 존속의 문제를 다룰 때 우리가 이미 고찰한 바와 마찬가지로, 이 것은 오류이다.

이제 민주정치적 헌정질서들의 조건, 도덕적 성향, 그리고 목표들을 고찰해 보기로 하자.

### 제2장

- 1. 민주정치 형태의 정치질서에서 기초가 되는 사상은 자유이다. (자유는 민주정치 하에서만 향유할 수 있다고 흔히들 말한다. 또한 이것이 (1317b) 모든 민주정치의 목표라고도 말한다.) 자유는 여러 형태를 갖고 있다. 그 형태 중의 하나는 정치적인 것인데, 지배자와 피지배자와의 상호교환이다.
- 2. 민주적인 정의의 개념은 산술적 평등의 향유이며, 공적(功績)의 기초에 따른 비례적 평등이 아니다. 이 산술적 정의의 개념에 따르면 필연적으로 대중이 최고의권위를 가져야 한다. 즉 다수의 의사가 최종적인 결정이며 정의의 표현이어야 한다. 민주주의적 주장에 따르면 각 시민이 다른 모든 시민과 평등한 기반에서 있다.이러한 결과로 민주정치들에 있어서는 가난한 자들—그들은 다수이며, 그래서 다수의 의사가 최고의 권위를 갖는다—이 부자들보다 더 높은 권력을 행사한다.
- 3. 이와 같은 것이 모든 민주주의자들이 공통적으로 바라는 정치질서의 목표로 삼는 자유의 첫 번째 형태이다. 다른 형태의 자유는 시민적인 것인데, 〈자기 좋은 대로 사는 것〉이다. 민주주의자들은 그러한 생활이 자유인의 본분이며, 이것은 노예의 본분이 그들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닌 것과 같다고 주장한다.
- 4. 이것이 민주정치의 두 번째 목표이다. 이상적으로는 그것의 문제는 어떠한 정부의 간섭도 받지 않는 것이며, 만약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상호 교환에서 나오는 것 같은 그런 자유를 의미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그것은 평등에 기초를 둔 일반적인 자유의 체제에 기여하는 것이다.
- 5. 민주주의 이념과 그것이 나오는 근본은 이와 같으므로, 우리는 이제 계속해서 민주정치의 속성들과 제도들을 연구할 수 있다. 행정기관의 면에서 보면, 관리들

은 모든 사람에 의해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선출되며, 모든 사람이 각자를 지배하 고, 각자는 또 모든 사람을 지배하는 체제이다. 모든 관직들—혹은 어쨌든 어떤 실 제적 경험과 직업적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는 모든 관직. 여기서는 관리에 대한 재 산의 자격 요건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원칙이 있다—을 추첨에 의하여 임명하는 방 식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이 자격 조건이 가능한 한 최저 수준이어야 한다 는 것이다. 또한 군인의 직책을 제외하고는. 동일 인물이 관직을 두 번 연임할 수 없거나, 혹은 여하간에 몇 번밖에는 연임할 수 없고, 그것도 소수의 관직에 한해서 만 그렇게 한다. 끝으로 모든 관직—혹은 가능한 한 많은 관직—의 임기가 짧아야 한다는 원칙도 있다. 사법기관의 면에서는 인민법정의 체제가 있는데, 이것은 모 든 시민이나 혹은 모든 시민으로부터 선출된 사람들로 구성되며 모든 경우에—혹 은 적어도 대부분의 경우와 가장 중대한 문제들, 즉 관청의 회계감사, 헌정적인 문 제들, 그리고 계약의 문제 같은 것들—결정하는 권한을 갖는다. 심의기관의 면에 서는, 인민의 의회가 모든 문제에 관하여 최고의 권위를 갖는다는—혹은, 적어도 가장 중요한 문제들에 관하여 최고 권위를 가지며, 이와 반대로 햇정관리들은 아 무 문제에 관해서도 최종적 권한이 없으며, 혹은 가능한 한 최소한의 문제에만 결 정권이 있다는—원칙이 있다.

6. 민주정치에 있어서, 대중의회에 출석하는 모든 시민들에게 수당을 주는 적절한 수단이 없는 경우에는 행정관리들 중에 가장 인기가 있는 것은 평의회이다. 1 만약수당을 지불할 적절한 수단이 있으면 평의회 자체도 권력을 박탈당하며, 우리가이전에 이미 살펴본 바와 마찬가지로, 대중은 일단 수당만 확보되면 모든 국사를 그들 손에 장악하고 만다.

1. 여기에서 평의회를 행정관리에 포함시킨 것은 주목할만 하다. 아테나이의 경우에 평의회는 5백 명 정도의 평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이들은 추첨에 의하여 선출되고 출석 수당을 받았다. 이들의 업무는 대중의회의 일정을 준비하고 세수를 관리하며 행정적 기능을 하는 것이었다. 바커의 앞의 책, 259페이지, 不(註)1을 참조,

- 7. 이러한 수당을 지불하는 체제가 민주정치의 또 다른 속성이다. 이상적으로는 모든 영역에 있어서—대중의회, 법정, 그리고 행정관청들—수당을 지불하는 것이지만, 그렇게 할 수 없으면 적어도 법정 · 평의회, 그리고 미리 예고된 대중의 의회 모임, 그리고 또한 어떤 행정위원회에서—혹은 최소한도로, 그 구성원들이 함께 식사를 하여야 하는 어느 위원회일지라도—봉사하는 것에는 수당이 지불된다. <sup>2</sup> (과두정치의 특징은 좋은 가문 · 부 · 교양인 반면에, 민주정치의 속성들은 그 반대—즉 천한 출신 · 가난, 그리고 저속함—인 것으로 보인다.)
- 8. 민주정치의 또 다른 특징은 모든 종신직 관직을 없애는 것이다. 혹은 적어도, 만약 그러한 관직들이 예전의 어느 시기로부터 잔존하여 남아 있다면 (1318a) 그 관직들의 권한을 축소시키며, 또한 어떤 종신 관직도 선거에 의하지 않고 추첨을 사용하여 임명하는 것이다.
- 9. 민주정치들의 공통된 속성들은 일반적으로 이와 같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일반적으로 특히 민주정치에 전형적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종류의 국민과 민주정치의 형태를 고찰해 보면, 우리는 그것을 민주정치적인 정의의 개념—즉 산술적근거 위에 기초를 둔 만인에게 평등한 권리의 개념—이라고 알려져 있는 것과 연관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여기에서 평등이란 가난한 계급이 부자들보다 더 큰 권한을 행사하면 안된다거나, 혹은 다른 말로 하면, 가난한 계급만이 최고의 권위를행사하면 안되고 수의 기초에서 모든 시민이 평등하게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만약 이러한 해석을 따른다면, 민주정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평등—그리고 자유—이 진실로 그들이 바라는 정치질서에 의하여 성취될 수 있다고 믿을 수 있을 것이다.

2. 위원회의 구성원들이 공동식사를 하도록 하는 것은 이들로 하여금 정규적이고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는 취지였다고 한다. 바커의 앞의 책, 259페이지, 주(註)3을 참조.

# 제3장

- 1. 이것은 『실제에 있어서 그러한 평등은 어떻게 확보되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한다. 시민들의 평가된 재산들은 두 개의 같은 조로 나뉘어, 한 조는 5백 명의 재산이 많은 사람들로 구성하고 다른 조는 1천 명의 재산이 적은 사람들로 구성해야 하는가? 그래서 이 1천 명과 5백 명이 모두 같은 투표 권리를 갖도록 해야할 것인가? 혹은 또 다른 방식으로 이러한 종류의 평등(즉 개인이 아니라 재산에 기반을둔 평등)을 어떤 다른 체제로 계산해야할 것인가? 예를 들어, 이 체제란 이전의 것처럼 재산들을 두 개의 같은 조로 나누되, 한 조의 5백 명과 다른 조의 1천 명에서 같은 수의 대표들을 선출하여, 이 대표들이 선거와 법정을 운영하고 관리하도록하는 것이다.
- 2. 이러한 근거에서 이루어진 현정질서는 민주정치의 정의(正義)의 개념에 가장합치되는 것이겠는가? 혹은 재산보다 수에 근거를 둔 헌정질서가 더 참되게 정의와 합치되겠는가? 민주주의자들은 정의란 다수인의 의사라고 대답한다. 과두정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정의는 유산계급의 다수 의사이며 그래서 재산의 비중을 근거로 하여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고 대답한다.
- 3. 이 두 대답이 모두 불평등과 부정의를 포함하고 있다. 만일 정의가 소수인의 의사라면, 이것의 논리적인 결과는 폭군정치일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의의 과두정치적 개념을 그것의 논리적인 결과로 밀고 나가면, 모든 다른 사람들의 재산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한 사람이 당연히 유일한 지배자가될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반대로, 만약 정의를 다수인의 의사라고 한다면, 이전에 고찰한 바와 마찬가지로 이 다수는 틀림없이 옳지 못한 행동을할 것이며, 부유한 소수인의 재산을 압수할 것이다.
- 4. 이러한 입장에서 우리는, 양측에서 주장하는 정의(正義)의 정의(定義)에 입각하여, 『양측이 함께 합의할 수 있는 그러한 종류의 평등이란 무엇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해야 한다. 양측이 모두 시민들 중의 주된 부분이 최고의 권위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이 언명을 받아들이되, 여기에 약간의 수정을 가해야 한다. 국가는 두 개의 계급, 즉 부유층과 가난한 층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우리는 최고의

권위를 이 양 계급의 의사, 혹은 양 계급 중의 다수의 의사에 귀속하도록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양 계급이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어떤 문제에 대하여 대립하고 있는 경우를 상상해 보자. 이러한 경우에는 다수이며 동시에 대부분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의사에 최고 권위가 귀속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5. 예를 들어 보자. 부유한 계급에 10명이 있고 가난한 계급에 20명이 있는데, 이부유한 10명 중에 6명이 가난한 계급의 20명 중의 15명과 대립되는 결정을 내렸다고 치자. 이것은 부유한 계급의 4명이 가난한 계급의 다수와 의견이 합치하며, 또한 가난한 계급의 소수인 5명이 부유한 계급의 다수와 의견이 같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두 개의 요소를 한데 합쳐서 상대방보다 재산의 양이 더 많은 측이 최종 결정권을 가져야 한다.
- 6. 물론 양측이 절대적으로 동일하여 결과적으로 정돈(停頓) 상태가 일어날 수 있다. 그렇지만 이것은 오늘날 인민의회나 법정이 동수(同數)로 분열되어 있을 때에흔히 일어나는 것보다 더 어려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하거나, 혹은 어떤 다른 유사한 방식을 쓰면 된다.

(1318b) 이러한 평등과 정의의 문제들에 있어서, 진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이론적으로 탐구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것은 어려운 일이기는 하지만, 사람들이 그들 자신의 이기적 이해를 확보하기에 충분한 힘을 갖고 있을 때 그들로 하여금 정의롭게 행동하도록 설득하는 것보다는 쉬운 일이다. 약한 측은 항상 평등과정의를 갈망하지만, 강한 자는 여기에 아무 관심도 기울이지 않는다.

## 제4장

1. 앞서의 연구 과정에서 이미 고찰한 바와 마찬가지로, 민주정치의 네 가지 변형 중에서 최선의 것은 분류의 순서 중에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다. 그것은 또한 가장 오래된 형태의 민주정치이기도하다. 그러나 그것이 첫 번째로 나오는 이유는 이러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여러 다른 종류의 국민들의 등급을 매기는 일과 관련된 이유이다. 여러 국민들 중에 처음에 나오는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은 농민들로 이루어

진 국민들이다. 따라서 국민의 대부분이 농업 혹은 목축업에 의하여 생활하는 곳에 있어서는 민주정치를 건설하는 것에 아무 어려움도 없다.

- 2. 이러한 국민들은 큰 재산이 없기 때문에 부지런하게 일을 한다. 그리하여 그들은 의회에 출석할 시간이 없는 것이다. 그들은 생활필수품을 갖고 있지 못하므로 그들의 일에 집착하며, 자기 소유의 것이 아닌 것은 탐내지 않는다. 사실상 그들은 정치에 관여함으로써 큰 이득을 얻는 바가 없다면, 정치나 정부의 일보다도 그들 자신의 노동을 더 즐겨 한다.
- 3. 대중은 명예보다는 물질적인 이득을 탐낸다. 그들은 그들이 일할 수 있고 그들의 소득을 빼앗기지만 않는다면, 그들은 고금을 막론하고 참을성 있게 폭군정치를 견디어 내며 그것을 용납하는데, 이것을 보아도 이를 잘 알 수 있다. 그들은 기회만 있다면 곧 부자가 되거나 혹은 적어도 가난에서 벗어난다.
- 4. 대중은, 관리를 선거하고 그들에게 책임을 묻는 권리만 주면 노력과 지위에 관한 모든 욕망이 만족된다. 사실상 대중이 이보다도 더 적은 권력으로도 만족한 예가 많이 있다. 만티네이아(Mantineia)의 예를 들어 보면, 여기에서는 국민들이 관리를 선출하는 권리가 없었으면서도(그 대신에 이 권리는 순번제에 의하여 국민들로부터 선택된 사람들에게 있었다). 어쨌든 심의의 권한을 행사했다.
- 5. 그러한 체제는 그래도 민주정치 체제라고 간주되어야 하며, 만티네이아에서도 그렇게 했다.<sup>3</sup> 이 일반적인 근거 위에서, 우리는 일반 실제와 마찬가지로 정책도 첫 번째 형태의 민주정치에 있어서는 균형체제였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일면으로 는, 모든 시민들은 관리를 선출하고, 그들을 감사하며, 법정에 출석하여 사건을 다루는 세 가지 권리를 가지며, 다른 면으로는, 가장 중요한 관리들은 선거에 의해서 선출하고<sup>4</sup> 일정한 재산의 자격 요건이 있는 사람들만이 담당하도록 제한되어 있었

<sup>3.</sup> 여기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언급한 만티네이아의 정치체제는 기원전 421년 경, 즉 아리스토텔레스 시대보다 한 세기 앞섰던 것으로 추정된다.

<sup>4.</sup> 선거에 의하여 관리를 뽑는 것은 추첨에 의한 것보다 과두정치적인데, 이것은 자질·공적·부(富) 등의 평가가 관리 선출에 있어서 어느 정도 평가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 다. 관직의 중요성이 크면 클수록, 요구되는 재산의 소유 정도도 높을 수 있다. 이와는 다르게, 어떤 관직도 아무런 자격 요건이 요구되지 않지만, 능력이 있는 사람들만이 실제로 이에 임명되도록 할 수도 있다.
- 6. 이러한 방식으로 다스려지는 국가는 틀림없이 좋은 정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최선의 사람들이 항상 관직을 맡을 것이며, 국민들은 여기에 동의하고, 자질이 뛰어난 사람들에게 적대적인 감정을 갖지 않을 것이다.) 자질이 뛰어나며 저명한 사람들도, 다른 열등한 자들에게 지배를 받지 않도록 해주고 그들 자신이 올바르게 통치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것은 국민에게 감사권을 부여함으로써 가능하게 된다) 체제하에서 반드시 만족하게 될 것이다.
- 7. 이렇게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무엇이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지 않는 것이 어느 사람에게나 항상 유리하다.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게 되면 (1319a) 우리 모두에게 있는 나쁜 충동들에 대한 방비책이 없어지게 되는 셈이다. 어떤 정치질서를 막론하고도, 책임을 지는 원칙이 있으면, 늘 항상 유리한 결과가 나오게 될 것이다. 즉 가장 훌륭한 사람들이 정치를 맡아서 하되, 그릇된 행동은 하지 않을 것이며, 그 반면에 대중도 정당한 권리들을 향유할 것이다. 8. 이런 농민 대중에 기초한 형태의 민주정치가 명백히 가장 좋다. 그 이유도 또한
- 8. 이런 농민 대중에 기초한 형태의 민주정치가 명백히 가장 좋다. 그 이유도 또한 명백한데, 즉 이런 정치질서의 기초가 되는 국민도 일정한 자질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국민을 만들려면 예전에 일반적으로 사용했던 법률들—예를 들어, 일정한 한도 이상의 토지의 소유를 금하거나, 혹은 적어도 시의 중심이나 경계로부터 일정한 거리 내에서는 이를 금지하는 법률 같은 것—이 유용할 수 있다.
- 9. 또한 상당히 많은 수의 나라들에 있어서, 애초에 자기 가족에게 분양된 토지를 팔 수 없도록 하는 법률들이 있었다. 또한 옥실로스(Oxylos)가 만들었다고 하는 법률도 있었는데, 이것은, 결국 토지 소유자의 재산의 일정한 비율에 의해서는 저장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살로니카(Salonika) 부근의 도시 아피티스 (Aphytis)의 법 같은 것은, 시정책으로서,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서, 채택해야 한다.
- 10. 아피티스의 주민들은 영토는 작고 인구는 많지만 모두 농업에 종사한다. 그 이

유는 재산을 단일 단위로 평가하지 않기 때문이다. 평가를 하기 위해서 재산을 여러 부분으로 나눈다. 이 부분들은 규모가 아주 작아서 가난한 토지 소유자라고 할지라도 그 소유재산이 참정권(參政權)의 자격 요건이 되는 수준을 넘어서게 된다. 11. 농민들 다음으로 가장 좋은 국민은 가축으로 생업을 하는 목축민이다. 그들의특징은 대부분 농민들의 특징과 유사하다. 그러나 체질이 강건하고, 야외에서 야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므로, 그들은 전쟁을 하기에 좋은 조건을 갖도록 특별히훈련되고 단련되었다.

- 12. 민주정치의 다른 변형들의 기반이 되는 다른 종류의 국민들은, 거의 예외 없이 더 질이 나쁜 것들이다. 그들은 저질의 생활을 하고 있다. 그리고 기계공·상점 주인·뜨내기 노동자들로 구성된 국민이 종사하는 직종 중의 어느 것도, 우수성을 이룰 여지가 없다.
- 13.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은 시장과 도시 중심가를 어슬렁거리며 돌아다니므로 일 반적으로 대중의회의 회기(會期)에 참석하기 쉽다. 농민들은 이와는 달리 시골에 분산되어 있으므로, 자주 모이지도 않고, 이런 종류의 모임을 가질 필요성을 그렇 게 느끼지도 않는다.
- 14. 여기에 덧붙여서, 도시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시골의 이점이 있으면, 좋은 민주정치나 좋은 〈혼합정치〉를 건설하기 쉽다. 이렇게 되면 국민의 대다수가 도시의 교외의 자기들의 농토가 있는 곳에 거주할 수밖에 없게 되며, 설혹 시장<sup>5</sup> 부근에서 사는 우중(愚衆)들이 있을지라도, 시골에 사는 거주민들이 모두 참석할 수 없는 대중의회는 열지 못한다는 규칙을 만들어 놓아야 한다.
- 15. 이제 첫 번째의 최선 형태의 민주정치를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가를 살펴보았다. 이제까지 이야기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서 다른 변형들은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가도 명백하다. 그들은 각기 점점 더 가난한 계급을 포함하게 되므로, 단계적으로 첫 번째 최선 형태의 민주정치로부터 벗어나게 된다.

**<sup>5.</sup>** 시장(市場): 여기서의 시장, ή αγορα는 우리가 하는 물품교환이나 매매의 장소일 뿐만 아니라 관청들이 있는 행정 중심지이며, 동시에 사람들이 모여 의견을 나누고 토론을 벌이는 장소이기도 하다.

(1319a) 최종적인 형태의 것은 모든 계급들을 같이 포함하는 것이며, 법과 관습에서 제대로 구성되지 못하면 지탱할 수도 없고, 어느 국가나 모두 시행할 수 없는 것이다. 이 형태의 민주정치의—그리고 다른 정부형태도 마찬가지이지만—파멸을 초래하는 원인들에 관해서는 이미 5권에서 기술하였다.

- 16. 그것을 건설함에 있어서, 대중을 대표하는 정당의 지도자들은 보통 단순히 가능한 한 최대한도로 국민의 수를 증가시킴으로써 대중의 세력을 강화하려고 한다. 그리하여 법적으로 출생이 뚜렷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사생아에게까지 시민권을 부여하며, 부계(父系)나 모계(母系)에서 한 사람만이 시민인 자에게도 시민권을 허용한다. 사실상 이러한 국가에 있어서는 이 정책만큼 〈대중〉에게 이득이 되는 것은 없다.
- 7. 그러나 대중 선동가들이 보통 이런 정책을 추구하지만, 진실로 추구해야 할 정책은 이와는 다르다. 국민의 수를 증가시키는 것은 인민대중의 수가 상류층과 중산계급을 합한 세력을 약간 넘어서는 정도에서 그쳐야 한다. 이 이상으로는 결코더 증가시켜서는 안된다. 대중의 수가 너무 압도적으로 많게 되면, 헌정질서의 균형이 착란되며, 상류층이 더욱 더 민주정치에 대하여 불만과 불안을 갖게 될 것이다. 키레네에서는 이렇게 하여 혁명이 일어났다. 작은 악은 무시될 수 있지만, 큰악은 항상 사람이 주의해서 보게 된다.
- **18.** 최종적이며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민주정치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유용한 또 다른 조처는, 아테나이의 클레이스테네스가 민주정치를 고양하기 위하여 도입한 조처나, 혹은 키레네의 민주정부를 건설한 사람들이 취한 것 같은 조처들이다.
- 19. 이것은 예전에 있었던 민족과 부족 이외에 새로운 민족과 부족들을 여럿 창건 하는 것이며 사적 종교<sup>6</sup>의 수를 줄이고, 공공장소에서 의식을 집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가능한 한 최대한도로 시민들이 서로 섞여서 지내며, 이전의 충성 관계를 파괴하도록 모든 조처를 다하는 것이다.

<sup>6.</sup> 사적 종교(私的 宗教): 이것은 부족 혹은 씨족의 고유한 혹은 기타 다른 사사로운 종교적 연맹의 종교 를 뜻한다.

20. 폭군들이 채택하는 조처도 모두 마찬가지로 민주정치에 맞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그 한 예로써, 노예들에게 방종한 자유를 허용하며(이것은 어느 정도 까지는 알맞기도 하고 유익하기도 하다), 부녀자와 아이들에게도 많은 자유를 주는 것을 들 수 있다. 또한 〈마음 내키는 대로 사는 것〉을 묵인하여 주는 것도 예로 들 수 있다. 이러한 정책을 쓰면, 이런 것을 허용하는 정치질서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절제 있는 생활보다는 아무런 규율도 없이 사는 것을 더 즐거워한다.

#### 제5장

- 1. 이러한 종류의 헌정질서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나 입법자들은, 이러한 질서를 건설하는 것만으로 일이 끝나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될 것이다. 정말로 중요한 일은 헌정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다. 어떤 종류의 정치질서하에서도 국가는 2, 3일 동안은 지탱할 수 있다.
- 2. 따라서 입법자들은 여러 정치질서들의 보존과 파괴를 야기하는 원인들에 관심을 집중시켜야 하며—이 문제는 이미 취급되었다—이것을 근거로 하여 정치질서의 안정을 도모하도록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그들은 모든 파괴의 요소들을 예방할 수 있도록 주의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데, 무엇보다도 그 질서를 보존할 수 있는 모든 요소들을 포함하는 (1320a) 일군(一群)의 법률들을, 관습법이거나 제정법이거나 간에, 그들 국가에 남겨주어야 한다. 그들은 민주정치나 과두정치냐를 막론하고 진정한 올바른 정책은 양자를 가능한 한 극단적으로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이 양자를 모두 가능한 한 오래 존속하도록 해주는 것이라는 신념을 가져야 한다.
- 3. 오늘날의 대중 선동가들은 그들 나라의 국민들의 비위를 맞추기에 급급하여 법정을 통하여 많은 양의 사유재산을 몰수해서 이를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그들 정치질서의 안녕에 마음을 쓰는 사람들은 그러한 실제를 시정하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들은 법정에서 부과된 벌금이 공공재산이 되거나국고의 수입이 되지 않도록 하는 법률을 통과시켜야 하며, 그 대신에 이 벌금을 사

원의 재산이 되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법을 두려워할 것이며(왜냐하면 그들은 마찬가지의 벌금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중은 이 벌금으로부터 아무 이득을 얻지 못하므로 모든 피고의 유죄판결을 내리기를 덜 즐겨 할 것이다.

- 4. 공적인 기소도 또한, 될 수 있으면 적어야 한다. 그리고 벌금을 많이 먹여서 기소자들이 함부로 고소를 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 그러한 소송은 보통 저명인 사들에 대해서만 제기되며 대중편에 속하는 사람들에게는 하지 않는다. 그러나 어디에서이건, 가능하기만 하다면, 모든 시민들이 함께 그 헌정질서와 그리고 그 질서하의 정부에 귀속되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이며, 혹은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적어도 어떤 시민이 정부를 적으로 간주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 5. 일반적으로, 수당을 지불하는 체제가 없이는 시민들로 하여금 대중의회에 참석하도록 하기가 곤란한, 인구가 많은 나라들에서 극단적인 민주정치를 찾아볼 수있다. 그러한 체제는 국가가 이미 그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충분한 수입을 확보하고 있지 않는 한, 저명인사들에게는 별 상관이 없다. 여기에 필요한 자금은 재산세, 재산몰수 또는 옳지 못한 법정을 통하여 마련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방법들은 모두 과거에 민주정치들을 파멸시킨 원인이 되었다. 이렇게 보면 이미 충분한 재원(財源)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면 대중의회는 집회 수가 적어야 하며, 대중인민의 법정도 그 구성원 수는 많을지라도 법정을 여는 횟수는 적어야 한다.
- 6. 이렇게 법정의 횟수를 제한하면 두 가지 이점이 있다. 첫째로, 부유층은 법정에 관련된 비용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그런데 부유한 계층들은, 가난한 사람들 만이 법정에 출석하는 수당을 받으며 부자들은 그것을 받지 못할 때에 법정에 드는 비용을 더욱 두려워한다. 둘째로, 법정에서 다루는 사건들이 더 잘 다루어지게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부자들이 법에 기꺼이 출석할 것이기 때문이다. (부자들은 여러 날에 걸쳐서 자기들 일을 돌보지 못하게 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지만, 잠깐 동안 일을 비우는 것은 별로 마음을 쓰지 않는다.)
- 7. 이와 반대로 국가가 수당을 지불하는 체제의 비용을 감당하기에 충분한 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오늘날 대중 선동가들이 추구하는 정책은 피해야 한다. 대중 선동

가들은 여기에서 남은 돈을 인민들에게 나누어 주는 버릇이 있다. 또한 인민들은 한번 이 배당(配當)을 받으면 계속하여 같은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가난 한 자를 도우려 하는 것은 구멍이 뚫린 항아리를 채우려고 하는 것과 같다.

그러나 진정한 민주정치가의 의무는 대중이 지나치게 가난하지 않도록 돌보아 주 는 것이다.

- 8. 빈곤(資困) 때문에 민주정치의 여러 결함이 야기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일정한 물질적 여유를 지속적인 수준으로 확보하여 주는 조처들을 취해야 한다. 이것은 부유한 계급을 포함한 모든 계급에 이로운 것이다. 따라서 만약 국고에여유가 생기면 이것을 기금으로 모아이 기금을 가난한 자들에게 생활자금으로 분배해 주는 것이다. 만일 충분한 기금이 축적될 수만 있다면, 가난한 사람들이 일정한 토지를 구입하기에 충분한 자금을 주는 것이 이상적인 분배 방식이다. 그렇게할 수 없다면 이 자금은 가난한 사람들이 장사나 농사의 밑천으로 삼기에 충분할만큼 액수가 커야한다.
- 9. 만약 모든 가난한 사람들에게 동시에 그런 자금을 줄 수 없다면, 부족별로 혹은 다른 방식으로 차례에 따라 분배되어야 한다. 그리고 또한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의무적인 의회의 집회에 참석하는 수당을 주기에 충분한 액수의 돈을 기부해야 한다. 그 대신에 부자들은 불필요한 공공봉사의 비용을 내지 않아도 되도록해야 한다. 카르타고의 정부는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정책을 추구하여 인민의 지지를 확보하였다. 이 정부는 정규적으로 인민대중으로부터 몇 사람을 뽑아 지방의마을로 내려보내한 밑천 잡을 수 있도록 해주었다.
- 10. 지각이 있고 사려분별이 있는 저명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로 하여금 생업을 찾도록 자진하여 도와준다—즉, 각자가 한 무리의 가난한 사람들을 맡아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생업을 시작할 밑천을 대어주는 것이다. 타라스의 시민들이 한일도 본받을 만한 일이다. 이 나라의 부유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그들의 재산을 공용함으로써 대중들의 호감을 샀다.
- 7. 앞 2권에서 나온 아리스토텔레스의 재산에 관한 이론은, 소유는 사유(私有)로 하되 그 사용은 공유(共有)로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나온 타라스의 예는 이 이론에 맞는다.

11. 타라스 사람들은 또한 모든 관직들을 두 부류로 나누었는데—한 부류는 선거에 의하여 임명하고, 다른 부류는 추첨에 의하여 임명하는 것이다—이것은, 후자는 인민들로 하여금 관직에 참여할 기회를 주는 반면에, 전자는 더 좋은 행정을 확보 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생각에서였다. 각 관청의 구성원들을 두 부류로 나누어서 도—즉 선출된 부류와 추첨에 의하여 임명된 부류—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 제6장

- 1. 우리는 이제, 민주정치들은 어떻게 건설되어야 하는가를 설명했으며, 그 과정에 있어서 실지로 과두정치들을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가도 보여준 셈이다. 이것은 과 두정치의 변형들의 구조에 의거하여 계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과두정치들 중의 첫 번째, 그리고 가장 잘 균형이 잡힌 것은 〈혼합정치〉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정치질서에 매우 가까운 것이다.
- 2. 이러한 형태의 과두정치에 있어서는 하위층과 고위층의 두 개의 별도의 평가명 부(評價名簿)가 있어야 한다. 하위층의 명부에 이름이 오르면 말단관직에 임명될 자격이 있게 되고, 더 중요한 관직에 임명되려면 고위층의 명부에 이름이 올라야 한다. 반면에 이 평가 명단에 이름이 오를 만큼 충분한 재산을 획득한 사람은 누 구나 헌정질서에 참여할 권리를 부여받아야 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인민대중 중의 충분한 수의 사람들이 국정에 참여하게 되어서, 참정권을 누리는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더 큰 세력을 이루게 된다.
- 3. 새롭게 참정권을 부여받은 사람들은 인민들 중의 좀 나은 부분으로부터 뽑아야 한다.
- 그 다음 형태의 과두정치의 변형은 첫 번째의 것과 같은 방식에 의해 구성되지만, 관직을 맡는 데 요구되는 자격 요건이 약간 더 엄격하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결국 극단적 민주정치에 상응하는 과두정치의 변형에 도달하게 된다. 이 형태의 과두정 치는 그 성격이 도당에 의한 정치에 가까우며, 또한 폭군정치와 가장 유사하다. 그

리고 이것이 과두정치 중의 최악의 것이므로 모든 안전보장대책이 필요하다.

- 4. 육체가 튼튼한 사람은 신체적인 위험을 무릅쓸 수 있다. 좋은 선원이 타고 있는, 항해에 적절한 배는 여러 어려움을 겪고도 침몰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병약한 몸을 갖고 있는 사람이나, 잘못 건조되고 승무원이 나쁜 배는 작은 어려움도 견딜 수 없다. 정치질서도 이와 마찬가지여서, 최악의 정치질서는 최대의 경계를 (1321a) 필요로 한다.
- 5. 민주정치들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시민의 수가 많은 것이 이 체제를 유지하여 주는 요소이다. 즉 민주정치들에 있어서는 수(數)가 이와 반대되는 요소의 자질과 공적을 기초로 한 배분적 정의(正義)의 체제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과 두정치들은 명백히 민주정치의 안보 대책과 반대되는 방법에 의하여 안전을 추구해야 한다. 즉, 그들 조직의 우수성에 의하여 안전을 도모해야 하는 것이다.

## 제7장

- 1. 국민 대중을 네 가지로—즉 농부·공장인·상인, 그리고 날품팔이 노동자들—주로 구분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군인도 또한 네 가지—즉 기병, 중보병(重步兵), 경보병(輕步兵) 그리고 해군—가 있다. 어떤 나라가 기병을 사용하기에 적합한 입지 조건을 갖고 있을 때는 강력한 과두정치를 구성할 좋은 여건이 있다. 즉 그러한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안보를 위하여 기병이 필요한 것인데, 말을 사육할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큰 부자들뿐이다. 중보병을 사용하기에 알맞은 나라에 있어서는 자연히 그 다음 형태의 좀 완화된 과두정치가 출현한다. 왜냐하면 중무장한보병이 되려면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야 하며, 가난한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기때문이다
- 2. 경보병이나 해군은 전적으로 민주정치 편이다. 그리고 오늘날처럼 경보병과 해 군력이 큰 경우에 있어서는 국내 정치에 내분이 생길 때 일반적으로 과두정치 측 이 패배한다. 이러한 상황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경보병과 기병 그리고 중보병을 적절한 숫자로 섞어서 사용하면 되는데, 어떤 군사령관들은 실제로 이러한 일을

하였다.

- 3. 대중이 정치적 내분에서 부유한 계급을 패배시킬 수 있는 이유는, 경무장을 하고 기동력이 있는 군대가 기병이나 중보병을 쉽게 처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중출신들로만 이루어진 경보병의 군사력을 증강시키는 과두정치는 따라서 그 자신에 대한 도전 세력을 강화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결과를 막으려면 징집 체제를 변경해서 연령별로 군에 소집하되, 과두지배자들의 자제들도 소년기에 경보병 무기 사용법과 전술 훈련을 받아야 한다. 그렇게 하면, 그들이 나이를 더먹게 되었을 때 실제에 있어서 경보병의 의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게 될 것이다.
- 4. 과두정치하의 대중이 정치체제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는 몇 가지 방법이 있다. 이 중의 한 방법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마찬가지로, 재산의 평가 명단에 이름을 올리기에 충분한 재산을 획득한 사람에게는 누구나 관직을 담당할 권리를 주는 것이다. 또 다른 방법은, 수년 동안 기계공의 일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 관직을 담당할 권리를 주는 것인데, 이것을 실제로 행하는 예로서 테베를 들수 있다. 8세 번째 방법은 마살리아에서 행하고 있는 것인데, 실제로 그 당시에 있어서 참정권이 있건 없건 간에, 관직을 담당할 자질이 있는 사람은 모두 이름을 올리는 명단을 작성하는 것이다.
- 5. 반드시 완전한 시민의 자격을 갖춘 사람들만이 담당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관직들은, 보수가 없는 공공봉사를 수행하는 의무를 포함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렇게 하면 국민들이 그들 자신이 그러한 관직들로부터 소외당할지라도 여기에 기꺼이 따르게 되는 것이다. 또한 이렇게 하면 국민들은 이 관직을 맡는 특권을 위하여 그렇게 높은 대가를 지불하는 관리들을 쉽게 용납하게 될 것이다.
- 6. 이 고위 관리들은 그들이 관직에 취임하면서 상당한 기부를 하고, 재임 기간 동안 공공건물을 건설하는 것도 좋은 일이다. 국민들은—이렇게 그들이 제공한 것을

<sup>8.</sup> 이 점은 위에서도 몇 차례 언급된 바 있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기계적 천역(賤役)을 하는 기계공의 직업에 종사하면 정치적 판단을 내려야 하는 일에는 알맞지 않다고 생각했다.

즐기고, 그들의 도시가 그들이 헌납한 장식이나 기념품들로 꾸며지는 것을 보며— 그 과두정치가 존속하는 것을 용납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봉사를 한 저명인사들 은, 그들 자신이 제공한 눈에 띄는 기념물들을 볼 수 있으므로 흡족해 할 것이다. 7. 그러나 오늘날의 과두정치자들은 이러한 정책을 추구하지 않는다. 그들의 정책 은 정반대로 명예와 이득을 탐할 뿐이다. 이렇게 보면, 이러한 과두정치는 그저 〈지 배자의 수가 적은〉 민주정치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 제8장

(1321b) 1. 민주정치와 과두정치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좇아야 하는 방법들에 관해서는 이것으로 충분하겠다. 이제는 행정관직의 올바른 배분과 그들의 수와 성격, 그리고 각자에게 고유한 기능들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겠다—그런데 이 주제는 앞에서 이미 취급한 일이 있다. 어떤 국가일지라도 절대적으로 필요불가결한 관직들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다. 제대로 통치되는 국가는 훌륭한 조직과 질서를 확보해주는 관직들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 2. 또한 우리가 이미 고찰한 바와 마찬가지로, 작은 나라에서 관직의 수가 적어야하며 큰 나라에서는 관직의 수가 많아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관직들은 통합할 수 있으며 어떤 것들은 분리시켜야 하는가를 빼놓지 않고 고찰해야 한다.
- 3. 필요불가결한 관직 중에서 첫 번째의 것은 시장(市場)을 관리하는 관직이다. 이 것은 계약을 감시하며 좋은 질서를 유지하는 관직을 필요로 한다. 어떤 나라에서 나 관직 상호 간의 물질적 필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매매행위가 있어야 한다. 매매행위는 또한 자급자족을 이루는 가장 손쉬운 수단이다. 그런데 자급자족이야말로 일반적으로 사람이 공통의 정치질서하에 모여 살게 되는 주된 목적이라고 한다.
- 4. 여기에 따르는 두 번째의 기능은 이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서, 좋은 질 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시가의 중심에 있는 사적·공적 재산을 감독하는 것이다. 즉 낡은 건물이나 도로들을 유지하고 수선하며, 분쟁을 막기 위하여 재산의 경계 를 감찰하거나 정부가 관심을 써야 하는 다른 유사한 문제들을 돌보는 것이다.

- 5. 이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관리를 일반적으로 시정감독관(Astynomos)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인구가 더 많은 국가들에 있어서는 여러 담당 부서들이 있어서 각기 그 독자의 영역, 즉 도시의 성벽을 유지하는 것, 공동우물을 감독하는 것, 그리고 도시의 항구를 통제하는 것 같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 6. 세 번째로 불가결한 관직은 두 번째의 것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그 기능들은 마찬가지이지만 도시 밖에서, 즉 시골에서 행사하는 점만이 다를 뿐이다. 이 관직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때때로 농촌감독자(Agronomoi)라 부르며, 때로는 삼림감독자라고도 부른다.
- 이렇게 별개의 기능을 갖고 있는 첫 번째의 세 가지 관직 외에도, 세금을 받고 관리하며 여러 관청들의 부서에 정해진 액수대로 이를 지불해 주는 네 번째의 관직이 있다. 이 관직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회계징수관 혹은 재무관(財務官)이라고 부른다.
- 7. 다섯 번째의 관직은 사적인 계약의 등기와 법정의 결정을 취급하는 것이다. 이 관청에서 고소를 하며 예비심사를 한다. 여러 나라에 있어서 이 관청은(시정감독 관과 마찬가지로) 여러 부서로 나누어져 있지만, 한 관리가(혹은 관리들의 위원회가) 업무 전반을 일괄하여 통솔한다. 이 관직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공공기록관(公共記錄官)·관리인·기록자, 혹은 다른 유사한 명칭으로 부른다.
- 8. 이제 이 다섯 번째의 관직에 당연하게 쫓아오는 또 다른 관직을 고찰해 볼 차례 인데, 이 관직도 그 자체로서 동시에 가장 필요불가결하며 모든 관직들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기도 하다. 이 관직은 범법자에 대한 선고를 집행하는 일을 맡는다. (1322a) 즉, 공공 명단에 이름이 나붙은 사람들로부터 국가에 바쳐야 할 벌금을 징수하며 죄수를 관리하는 것이다.
- 9. 이것이 어려운 관직인 이유는 이 관직이 미움을 많이 사며, 상당히 이득을 볼 가능성이 많지 않는 한, 사람들이 이 관직을 맡기를 꺼려하거나, 혹은 그것을 맡는 다고 하더라도 법이 요구하는 엄격성을 가지고 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싫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없어서는 안될 관직이다. 고소를 하더라도 효과 있는 결말이 나오지 않는다면, 각자의 권리의 한계를 결정하기 위하

여 고소를 하더라도 얻는 바가 없을 것이다. 즉 만약 사람들이 소송에 결정을 내려주는 체제가 없어서 공동생활을 할 수 없다면, 마찬가지로 그러한 결정을 강행할 체제가 없어서 공동생활은 불가능하다.

10. 이 관직의 어려움에 비춰 보아, 이 관직의 의무는 전문화된 한 기구에만 맡겨 져서는 안된다. 그 임무들은 여러 다른 법정에서 나온 대표들의 손에 위탁되어야 하며, 마찬가지 방식으로 공적인 채무를 지고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써 붙이는 임무도 여러 대표들에게 나누어 갖도록 해야 한다. 여기에 덧붙여, 이 임무를 여러 관리들의 기구에 분담시키면 판결을 집행하는 데도 약간의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임기가 끝나 관직에서 물러나는 관리들의 위원회가 선고한 형벌은, 새로 취임하는 관리들의 기구가 이를 집행하도록 남겨두는 것도 좋겠다. 만약 이것이 불가능해서 같은 임기 내에 관리들이 형벌을 선고하고 이를 집행하는 것을 담당하는 것이좋다. 예를 들어서, 시장감독관이 선고한 형벌을 시정감독관이 집행하거나, 또는 시정감독관이 선고한 형벌을 다른 관리들이 집행하는 것이다.

11. 형벌을 집행하는 데 따르는 미움을 사는 것이 적으면 적을수록 그러한 형벌의 집행은 더 효과적이 될 것이다. 같은 기구가 형벌을 선고하며 동시에 이를 집행하기까지 하면, 이 기구를 구성하는 사람들은 이중으로 증오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동일한 집단의 관리들이 모든 형벌을 집행하게 되면, 이 사람은 모든 사람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또한 여러 나라들에 있어서 죄수를 관리하는 임무를 띠고 있는 관직과 선고를 집행하는 임무를 띤 관직들이 분산되어 있다. 예를 들어, 아테나이에 있어서는 죄수를 관리하는 것은 〈11인 위원회〉》의 특별한 임무이다.

**12.** 이렇게 보면, 이 관직을 분산시키고 이 관직에도, 형벌의 집행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정책적 조처를 적용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간수(看守)의 관직도 형벌을 집행하는 관직만큼 불가결한 것이다. 그러나 이 관직은 좋은 사

9. 사실은 11인 위원회는 죄수의 관리와 함께 사형언도를 집행하는 임무도 띠고 있었다.

람들이 특히 꺼려하며, 그렇지만 나쁜 사람의 손에 맡길 수도 없는 것이다. (나쁜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대해 간수의 역할을 하는 것보다 더 간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다.)

13. 따라서 우리는 아래와 같이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즉 감옥을 감독하는 것은 그목적 하나만을 위해서 임명된 기구에 맡기거나, 또는 어느 한 기구에 영구하게 맡기면 안된다. 이 의무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번갈아 가면서 맡아야 한다. 이 사람들은 부분적으로는 청소년층 시민들로부터 뽑고(즉 젊은이들에게 군대나 경찰의 훈련을 하는 나라들에 있어서는), 부분적으로는 관리들의 기구로부터 뽑아서 구성해야 한다.

국가의 가장 필요불가결한 이들 여섯 관직들을 먼저 뽑아야 한다. 그 다음 순서로 는 여러 관직들이 있는데, 이들도 불가결한 것이지만 그 중요성에 있어서도 한층 높다. 이들 관직은 풍부한 경험과 고도의 성실성을 요구한다.

- 14. 이들 중에 우선 무엇보다 먼저 도시의 방비를 담당하는 관직과, 군사적 목적을 가진 관직들을 꼽을 수 있다. 전시(戰時)는 평화시든 간에 도시의 성벽과 문을 감독하며, 시민을 훈련하고 사열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 어떤 나라들에 있어서는 이런 여러 의무를 취급하는 여러 별개의 관직들이 있고, 어떤 나라에서는 소수의 관직만을 두며, 작은 나라들에 있어서는 이런 문제들을 모두 관장하는 관직 하나만을 두는 것으로 족하다.
- 15. 이러한 관직들을 담당한 사람들을 보통 장군 혹은 사령관이라고 부른다. (1322b) 기병·경보병·궁수(弓手)·해군 등이 별도의 군대로 각각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때때로 이들이 각기 별개의 명령하에 있으며, 이런 경우에 이들을 지휘하는 관리는 제독·기병 장군, 혹은 경보병 장군으로 각기 불린다. 이들 밑에 있는 장교들은 해군사관·기병사관, 혹은 부대 장교들로 각기 불린다. 이들보다 작은 단위의 부대를 지휘하는 장교들도 각각 이에 상응하는 직함을 갖는다. 이 조직 전체가 한 부서를 형성하는데, 이것이 군사령부이다.
- 16. 이제 방금 기술한 군사령부의 조직으로부터 우리의 관심을 재무부서의 조직으로 돌려 보자. 국가의 관직들 몇몇이 많은 액수의 공금(公金)을 취급한다. 따라서

다른 여타 관청들의 회계를 받고 감사를 하는 기능만을 수행하는 재무 담당의 별개의 관청이 있어야 한다. 장소에 따라 이 관직을 담당하는 사람들을 부르는 이름이 각기 다르다. 즉 감사관, 회계관, 검사관, 혹은 국고담당관으로 불린다.

- 17. 이미 언급한 여러 관직들 이외에도 다른 어떤 관직보다 더 국정 전반을 통제하는 또 하나의 관직이 있다. 이 관직은 많은 나라들에 있어서 의회에 안건들을 상정하며 이를 종결짓는 이중적 권한을 갖고 있다. 그렇지 못한 경우에, 즉 인민들 자신이 이러한 임무를 통제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 관직은 의회의 진행을 사회한다. 왜냐하면 헌정체제를 통제하는 권위에 대하여 회의를 개최하는 역할을 맡아서하는 관직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관직을 담당하는 사람을 어떤 나라에서는 예비위원회(Proboulioi)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이들이 심의의 진행을 시작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민의회가 있는 곳에서는 이들을 그저 위원회(boulē)라 부른다.
- 18. 중요한 관직들은 대략 이와 같은 성격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외에도 국가적으로 섬기는 신(神)들의 예배를 담당하는 또 다른 업무의 분야가 있으며, 여기에는 사원(寺院)관리자나 승려와 같은 관리들이 필요하다. 사원의 관리자란 사원의 건물을 유지하고 수선하며, 여러 신들에게 예배를 하는데 배정된 다른 재산을 관리하는 임무를 띠고 있다. 10
- 19. 때때로 (예를 들어 작은 나라에 있어서) 이 업무 전반을 한 개의 관직이 맡아본다. 다른 나라들에 있어서는 이것을 여러 관직들이 분장(分掌)하며, 승려 이외에도 제물(祭物)을 감독하는 사람, 성역(聖域)을 돌보는 사람, 또는 종교적 재산을 돌보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다.
- 20. 이 여러 관직들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또 하나의 별개의 관직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은 특별히 그 도시의 공동취사장에서 행해지는 모든 공적 제물을 관리하는 임무를 띠고 있으며, 그러므로 법적으로 승려들의 소관 사항이 아닌 것이

**<sup>10.</sup>** 그리스 시대에 있어서는 국가와 사회, 종교의 구분이 없었다. 그리하여 여기에서 승려들을 관리로 기술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 다. 이 관직을 담당하는 사람을 어떤 나라에서는 통치자라고 부르며 다른 곳에서 는 왕이라고 부르고, 또 어떤 곳에서는 통령<sup>11</sup>이라고 부른다.
- 21. 모든 국가들에 필요한 관직들을 요약하여 그들이 수행하는 여러 기능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먼저 공적 종교의식·군사 문제, 그리고 국고수입과 지출에 관련된 기능들이 있다. 둘째, 시장·중심가·항구, 그리고 농촌에 관련된 기능들이 있다. 셋째, 법정, 계약의 등기, 형벌식 집행, 죄수의 관리, 그리고 관리들의 회계를 검열하며 감사하고 조사하는 것과 관련된 기능들이 있다. 마지막으로 공공업무를 논의하는 것과 관련된 기능들이 있다.
- 22. 그 이외에도 더 부유하며 풍기 문제와 사회 기율에 관심을 쓰는 어떤 나라들에는 거기에만 특유한 관직들이 있다. 이 관직들은 여자를 감독하여 법을 지키도록하고, 어린이를 (1323a) 감독하고 체육훈련을 담당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는 또한 체육경기 · 연극 경연, 그리고 다른 모든 유사한 관람거리를 감독하는 관청들도 포함시킬 수 있다.
- 23. 이 관직들 중에 어떤 것은—예를 들어, 아녀자들을 감독하는 관직들은—분명히 민주정치에 있어서는 맞지 않을 것이다. 가난한 사람은 노예가 없으므로 그의부인과 아이들을 일꾼 혹은 하인으로 사용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 24. 선거인이 최고 관리를 선출하는 것을 관장하는 세 종류의 관직이 있다. 첫 번째의 것은 법의 수호자이며 두 번째의 것은 예비위원회이고, 세 번째의 것은 위원회이다. 첫 번째의 것은 귀족정치에 알맞은 것이고, 두 번째의 것은 과두정치에 알맞으며, 세 번째의 것은 민주정치에 적합하다. 이제 우리는 거의 모든 종류의 관직의 윤곽을 기술 했다. 그러나……<sup>12</sup>

<sup>11.</sup> 통령(統領): 제5권 주(註)7을 참조

<sup>12,</sup> 이 장(章)은 미완성인 채로 끝나며, 24는 제대로 된 원고라기보다 간단한 노트 같아 보이는데, 특히 마지막 문장은 중간에 끝나 버리고 만다.



정치적 이상과 교육적 원리



## 제1장

(1323a14) 1. 우리가 다음 주제인 이상적 정치질서의 성격 연구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기 전에, 먼저 가장 바람직한 생활방식의 성격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것이 분명하지 못한 한에서는 이상적 정치질서의 성격도 분명하게 될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하면 무슨 예기치 못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한, 주어진 상황에 있어서 가능한 최선의 정치질서란 최선의 생활 방식과 합치될 것이다. 1

2. 따라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경우에 있어서 모든 사람에게 가장 바람 직한 생활방식의 개념에 관한 어떤 합의된 개념을 찾아내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와 동일한 생활방식이 개인의 경우에 있어서나 마찬가지로 공동체의 경우에 있어서도 바람직한 것인지 알아보지 않으면 안된다.

최선의 생활의 성격 문제는 우리가 이미 일반대중을 위한 저술에서 취급한 바 있다. <sup>2</sup> 그 저술에서 언급한 것 중의 상당한 부분이 적절한 것이라고 생각되므로, 그 것을 여기에 인용하여 사용해야 할 것이다.

3.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최선의 생활을 구성하는 요소를 분류하는 방식이 하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은 이 구성요소들을 외부적 선, 육체의 선, 그리고 영혼의 선으로 분류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행복한 사람이라면 이들 서로 상이한 〈선(善)들〉을 모두 갖추어야한다는 데도 이의가 없을 것이다.

<sup>1.</sup> 아리스토텔레스가 어째서 이 장(章)에서 이상적 정치질서에 〈주어진 상황에 있어서 가능한 최선의 것 〉이라는 제한을 첨가했는지는 분명치 않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보통 이상적 정치질서란 말을 절대적으로 최선인, 즉 어느 상황이나 경우를 막론하고 최선의 정치질서라는 뜻으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이 점에 관해서는 바커(Barker)나 뉴먼(Newman) 같은 사람들이 모두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sup>2.</sup> 여기에서 〈일반대중을 위한 저술〉이란 아리스토텔레스가 가르치고 있었던 학원 리케이온의 내부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일반에게 공개된 강의(exoteric discourses)를 뜻한다. 여기에 대하여 〈정치학〉 같이 내부의 학생들만을 위한 가르침을 esoteric discourses라고 부른다. 제3권 제6장 5를 참조.

- 4. 용기 · 절제 · 정의 · 지혜를 조금도 갖고 있지 못한 사람을 아무도 행복하다고 부르지 않을 것이다. <sup>3</sup> 또한 자기 머리 위를 윙윙거리고 돌아다니는 파리를 두려워 하거나, 갈증이나 공복감이 난다고 해서 극단적인 형태의 낭비를 서슴지 않는 사람이나, 적은 돈을 위하여 가장 친한 친구도 파멸시키려는 사람이나, 어린애나 혹은 정신병자와 마찬가지로 지각이 없고 방황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아무도 행복하다고 하지 않을 것이다.
- 5. 이러한 명제들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올바르다고 받아들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선들을 각각 어느 정도로 갖추어야 하는가? 그리고 어떤 선의 다른 선에 대한 상대적인 우월성은 어떤 것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하면 곧 의견의 차이가 생기게 된다.
- 어떤 경우에는 선이 조금만 있어도 좋다고 본다. 그러나 부와 재산·권력·명성 등 모든 이러한 것들은 아무 한계가 없이 지나칠 정도로 탐을 내는 것이다.
- 6. 이러한 방식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답변을 줄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에 관해서는 현실 자체가 당신에게 답변을 얻도록 해줄 것이다. 당신 자신이, 영혼의 선들은 외부적 선들에 의하여 유지되거나 획득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는 정반대인 것이다. 당신 자신이, (1323b) 행복이란—사람들이 그것을 쾌락이나 선, 혹은 이 양자에서 찾건 찾지 않건 간에—자기들의 개성과 정신을 최대한도로 계발하고, 외부적 선의 획득을 절제 있는 한도로 제한한 사람들에게 속하는 것이며, 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외부적인 선을 획득했지만 영혼의 선이 결핍된 사람들에게 속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이론적으로 고찰해 보아도 이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다.
- 7. 다른 모든 도구들이나 마찬가지로 외부적 선들은 필연적으로 크기의 제한이 있다. 사실상 모든 효용이 있는 물건들이 이러한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sup>3.</sup> 여기 열거된 네 가지가 그리스에 있어서 훌륭한 사람이 갖추어야 할 4원덕으로 꼽혔던 것이다. 뒤에 나오는 네 가지는 여기에 상응하는 악덕(惡德)의 극단적인 예이다.

이러한 것들이 너무 많게 되면 이것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해독을 끼치거나, 아니면 적어도 그에게 아무런 이득도 주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런데 영혼의 선들은 각기 그 양이 크면 클수록 그 효용도 크다—여기에서 〈효용〉을 이 선들의 속성이라고 말하는 것이 올바른지 아닌지는 확실치 않지만, 단순히 그것을 〈가치〉라고만 해서도 안될 것이다.

- 8. 일반적으로 말해서 우리는 아래와 같은 명제를 내세울 수 있다. 『A라는 사물의 최선 상태의, B라는 사물의 최선 상태에 관한 관계는 A의 B에 대한 관계와 같다.』 따라서 만약 영혼이 우리들의 육체나 재산보다 더 귀중한 것이라면—본질적으로 그리고 우리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영혼의 최선 상태도 필연적으로 우리들의 재산이나 육체의 최선 상태와 마찬가지의 관계를 가질 것임에 틀림없다.
- 9. 영혼을 위해서는 이들 다른 것들(즉 재산, 그리고 신체의 건강)이 바람직한 것이며, 올바른 지각을 가진 사람은 여기에 따라서 이들을 얻으려 하는 것이지 이들을 위하여 영혼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님을 부언해 두자.
- 10. 따라서 우리는 각 개인의 몫이 되는 행복의 양은 그의 선과 지혜의 양과 동일하며 그가 행하는 선과 지혜로운 행동의 총화와 같다는 것에 항의할 수 있다. 신(神) 그 자신의 성격도 이 결론에 부합된다. 신은 행복하며 즐거운 존재이지만, 그의 존재의 성격 자체 때문에 그 자신이 행복한 것이지 어떤 외부적인 선 때문에 그러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면 어째서 행복하다는 것과 운이 좋다는 것은 항상 다른 것인지가 설명된다. 사건이나 우연에 의하여 영혼 외부의 선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누구도 단순히 사건이나 우연에 의하여 정의롭고 절제 있게 될 수는 없다.
- 11. 그 다음으로는, 마찬가지로 추리의 일반적인 연결에 의하여 도덕적으로 최선 인 국가가 행복하며 또한 〈형편이 좋은〉 국가라는 원칙에 도달하게 된다. 〈형편이 좋다〉는 것은〈올바르게 행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개인의 경우에 있어서나 마찬가지로 국가에 있어서도 선과 지혜가 없이는 올바른 것을 행할 수 없다.
- 12. 국가의 용기, 그리고 국가의 정의와 지혜는 개인이 이러한 자질을 갖추었을 때 용감하며 정의롭고 지혜롭다는 평을 듣는 것과 마찬가지의 힘과 성격을

갖는 것이다.

- 13. 이러한 고찰들은 적어도 우리의 논의에 철학적인 서론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고찰들은 우리가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들을 다루고 있지만, 그러나 여기에서 연관된 논의를 전부 전개하는 것도 또한 불가능하다. 그것은 이와 또 다른 연구 분야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이다. 여기서는 아래와 같은 명제를 설정하는 것으로써 충분할 것이다. 『개별적으로 개인들에 있어서이거나 집합적으로 국가에 있어서이거나 간에, 최선의 생활방식은 생활로 하여금 선의 활동의 성격을 갖도록 해주는 필수조건들이 (1324a) 제대로 구비되어 있는 선의 생활이다.』
- **14.** 이 명제에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들의 현재의 연구 관심에 관한 문제를 여기에 그대로 남겨두고, 우리들의 견해에 수긍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의 주장에 답변하는 것은 다음 기회로 미루는 것이 좋겠다.

## 제2장

- 1. 이제, 국가의 행복이 개인의 행복과 동일한가 아니면 서로 다른가 하는 것을 논의해야 한다. 그 답변은 명백하다. 우리는 모두 그들이 동일하다는 데 합의했던 것이다.
- 2. 개인의 복지가 그가 갖고 있는 부에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국가도 또한 그것이 부유할 때 전체적으로 행복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폭군의 생활을 다른 어떤 생활 방식보다 더 높이 여기는 사람들은, 또한 가장 커다란 제국을 갖고 있는 나라가 가장 행복한 나라라고 생각할 것이다. 개인들을 그들의 선에 따라서 평가하는 사람은, 또한 국가의 행복도 그들의 선에 비례하는 것으로 여길 것이다.
- 3. 여기에서 제기되는 두 가지 문제는 모두 약간의 고찰을 필요로 한다. 첫 번째의 것은, 『어떤 생활방식이 더 바람직한가? 다른 시민들과 함께 공적인 활동에 참여 하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국가 내에서 이방인처럼 모든 정치사회의 연관에서 초 탈하여 생활하는 것이 좋은가?』하는 문제이다. 두 번째의 것은, 『우리가 국가의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에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하건

- 혹은 다수에게 있어서만 바람직한 것이라고 간주하건 간에, 국가의 최선의 정치질 서와 또 그것의 가장 좋은 성향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이다.
- 4. 이 두 번째 문제는—개인에게 있어서 무엇이 좋은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는 첫 번째 의문과는 달리—정치사상의 문제이며, 정치적인 사고를 요하는 문제이다. 그리고 우리가 현재 이 분야에 속하는 논의를 하고 있으므로, 우리는 그것이 다른 어떤 문제들보다 우리들의 현재 연구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5. 최선의 정치질서에 관해서는 한 가지 명확한 점이 있다. 즉 그것은 모든 종류의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최선 상태에서 행복하게 생활하도록 해주는 정치적 조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점은 명백하나 다른 점에 관해서는 의견의 차이가 있다. 선(善)의 생활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사람들까지도, 아래에 나오는 문제들에 관해서는 의견이 분열되어 있다. 『어떤 생활방식이 가장 바람직한가? 행동과 정치적 생활이 가장 바람직한가? 아니면 모든 외부적 상황에서 초탈한 생활, 예를 들어, 어떤 사람들이 철학자로서 가치가 있는 유일한 생활방식이라고 보는, 명상의 생활이 가장 바람직한가?』
- 6. 여기에서 우리는 예나 지금이나 선의 명성을 얻기 위하여 가장 열망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명백히 선택된 두 가지의 생활방식—정치적·공적 생활과 철학적 생활방식—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 둘 중에 어느 편이 올바른가 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왜냐하면 개인의 문제이거나 혹은 국가의 문제이거나 간에지혜는 항상 더 높은 수준에 도달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 7. 인접 국가들에 대하여 어떤 권위를 행사하려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 그들은 그 권위가 전제적일 때 이것을 최고의 부정의(不正義)라고 생각 한다. 그들은 또한 이 권위가 합법적인 것일 때에도 이것이 다른 나라에 대한 부정의가 아닐지라도, 자기 자신의 복지에 장애가 되는 것으로 본다. 또 다른 사람들은 정반대의 견해를 취하여, 실제 정치적인 생활이야말로 사람에게 유일한 생활이라고 주장한다. 그들은 사적인 생활은 공적인 생활이나 (1324b) 정치적 생활에 비해 아무런 행동의 전망이 없다고 믿는다.
- 8. 실제적인 정치적 생활에 찬성하는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주장을 이 정도에서

- 그친다. 다른 사람들은 이보다 더 나아가서, 전제적인 폭군정치 형태의 정치질서가 행복을 주는 유일한 정치질서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사실상 어떤 나라에 있어서는 헌정질서와 법이 모두 인접 국가들에 대하여 전제적인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루어졌다.
- 9. 대부분의 나라들에 있어서 대부분의 법은 그저 잡다한 입법의 혼합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이 법률들이 어떤 정도로나 하나의 목적에 집중되어 있는 곳에 있어서는 그 목적이란 항상 정복(征服)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예를 들어 스파르타와 크레테에 있어서 교육 체제와 대부분의 법률은 일반적으로 전쟁을 목표로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 10. 마찬가지로 다른 나라를 정복할 만큼 강력한 모든 야만인들은 군사적 용맹성을 최고의 명예로 여긴다. 이것은 켈트인, 스키테스(Skythes)인, 페르시아인, 트라케(Thrake)인들에서 볼 수 있는 바와 마찬가지이다. 이들 중에 어느 나라들은 분명하게 군사적 자질을 적극적으로 고취하는 법률까지도 갖고 있다. 예를 들어, 카르타고에서는 새로운 전쟁을 할 때마다 군인들에게 새 팔찌를 장신구로 준다고 한다.
- 11. 또한 옛날에 마케도니아에서는 적을 하나도 죽이지 못한 사람에 대하여 허리 띠 대신에 멜빵을 하게 하는 형벌을 가하는 법이 있었다. 스키테스인들은 적을 하나도 죽이지 못한 사람에게는 어떤 축제에서의 돌아가며 술을 마시는 공동의 친목 술잔으로 술을 마시지 못하도록 하는 관습이 있었다. 호전적인 이베리아인들도 비슷한 관습이 있었는데, 죽은 사람의 무덤 주위에, 그가 생전에 죽인 적의 수만큼 뾰족한 돌로 둥글게 원을 만들어 놓는다.
- 12. 민족에 따라 다르지만, 이러한 종류의 제도들이 많이 있다. 그들 중의 어떤 것은 법에 의하여 정해져 있고, 또 어떤 것들은 관습에 의한 것이다. 그러나 아마도 이 문제를 잘 생각해 보면, 정치가가 이웃나라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이웃나라를 지배하고 다스릴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이 매우 이상하게 들린다.
- 13. 합법적이 아닌 일을 어떻게 법률가나, 정치가가 온당하게 행할 수 있겠는가? 또한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올바른가, 그른가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통치하는

것이 합법적일 수 있는가? 전쟁에 이긴 정복자라 할지라도 옳지 않을 수가 있다. 이러한 형태의 정치에 상응하는 것을 어느 다른 직업 분야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의사나 항해사는 그들의 환자나 승무원을 다루는 데 있어서 결코 강압이나 속임수를 써서는 안되는 것이다.

- 14. 그러나 정치에 관해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복에 의한 지배가 진정한 도(道)라고 믿는 것 같다. 또한 사람들은 그들 자신은 결코 올바르거나 혹은 편리하다고까지 용납하지 않을 그러한 방식으로 타인에 대하여 행동하기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들 자신과 그들 자신의 일에 관해서는 그들은 정의에 입각한 권위를 요구한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문제에 관해서는 그들의 정의에 관한 관심은 없어지고 만다.
- 15. 만약 세상에 자유롭게 되어야 하는 요소와 함께 지배를 받아야 하는 요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이 세상은 기이한 곳이 될 것이다. 만약 사실이 이러하다면 지배는 지배를 받아야 하는 요소에만 국한되어야 하며 누구에게나 적용되어서는 안된다. 우리는 연회나 축제에 사용하기 위하여 사람을 사냥하지 않는다. 우리가 사냥을 하는 것은 이 목적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잡기 위한 것이며, 이 목적을 위하여 사냥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식용으로 쓰는 야생동물이다. (1325a)
- 16. 어떤 국가가 홀로 존속하며 그 자체로 고립되어 행복하게 사는 경우를 상상할 수 있다. 그러한 나라가 어느 곳에서 홀로 존속하며, 좋은 법 체제하에 생활한다고 가정해 보자. 그 국가는 분명히 좋은 정치질서를 갖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정 치질서에는 전쟁이나 적국의 정복에 관한 아무 계획도 들어 있지 않을 것이다. 왜 냐하면 우리의 가정에 따르면 이 나라에는 적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 17. 그렇다면 이제까지 논의한 바로 미루어 보아, 모든 군사 목적의 추구가 꼭 같이 좋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좋다는 것은 제한된 의미에서만 그러하다는 것이 명백하다. 전쟁의 추구는 인간의 모든 다른 목적들을 초월하는 주된 목적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의 주된 목적에 대한 수단일 뿐이다. 좋은 입법자가 어떤 국가나 사회혹은 사람들에 관하여 입법을 하건 간에 염두에 두어야 할 주된 목적은 좋은 생활속에서 사람들이 다른 사람과의 공동생활을 즐겨야 하며, 이것을 통하여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18. 실제의 법률들은 환경에 따라서 여러 양상을 보일 수 있다. 만약 어느 국가에 인접한 다른 국가들이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입법자의 의무는 그들의 서로 다른 성격에 따라 적합한 군사훈련 방식을 마련하며,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들이 각기 제기하는 위협에 대처할 적절한 방도를 강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제기된 문제는 즉 이상적 정치질서가 추구해야 하는 목적은 후에 다시 고찰하는 것이 좋겠다.

## 제3장

- 1. 이제 우리는 선의 생활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일반적 원칙을 받아들이는 데 합의하면서도, 선의 생활을 하는 올바른 방식에 관해서는 의견이 분열되어 있는 사람들의 견해들을 고찰해 보아야 한다. 따라서 서로 다른 두 개의 학파의 견해를 논의해 보아야 한다. 그 하나는, 자유로운 개인의 생활을 정치인의 생활과 구별하여, 어떤 다른 것보다도 자유로운 생활을 좋게 여기며, 따라서 정치적 관직을 회피하는 사람들이다. 다른 하나는, 정치인의 생활을 최선의 생활로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은 〈잘 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행복을 적극적으로 〈좋은 일을 하는 것〉과 동일시한다. 이 두 학파는 모두 어떤 점에 있어서는 옳지만 다른 점에 있어서는 그르다.
- 2. 첫 번째 학파는, 자유로운 개인의 생활이 많은 노예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의 생활보다 더 좋다고 주장하는 점에 있어서 옳다. 천역(賤役)을 하는 노예들을 관리하는 것은 별로 고상한 일이 못된다. 또한 천역에 관하여 지시를 내리는 것도 별 훌륭한 일이 아니다. 반면에 어떤 형태의 권위이건 간에 단순히 〈지배〉라고만 보는 것은 옳지 못하다. 자유인에 대한 권위는 노예에 대한 권위와 많이 다른 바, 이것은 본질적인 자유인이 본질적인 노예와 다른 것만큼이나 차이가 난다. 그러나 이문제에 관해서는 1권에서 이미 충분히 이야기하였다.
- 3. 첫 번째 학파의 또 다른 오류는 행동을 싫어하며 비행동을 찬양하는 것이다. 행

복이라는 것은 행동의 상태이며, 선을 많이 이행하는 올바르고 절제 있는 사람들의 행동이다. 우리가 도달한 결론은 최고의 권위가 또한 최고의 그리고 최선의 행동들을 실천하는 힘이기 때문에 그것이 모든 선 중에서 최고의 것이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도 있을 것이다.

- 4. 이러한 견지에서 보면, 권위를 행사할 능력이 있는 사람은 그 권위를 결코 그이웃사람에게 양도해서는 안되며, 이와는 반대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권위를 빼앗아야 한다는 말이 된다. 즉 아버지는 자식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식들은 그들의 부친을 전혀 안중에 두지 않으며, 어떤 친구도 그들의 친구들을 생각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모두, 『최선의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잘 하는〉 것이 최선의 것이다』라는 원칙에 따라서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실제로 약탈과 폭력을 자행한 사람들이 최고로 바람직한 목표를 (1325b) 달성한다면 그러한 견해에도 일리가 있을지 모른다.
- 5. 그러나 아마도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렇게 된다고 가정하는 것은 사실상 그릇된 가정을 하는 것이다. 행동자 자신이 어느 정도로 타자에 비하여 뛰어나지 않으면—즉 남편이 그의 부인보다 뛰어나거나, 부모가 그의 자식보다 훌륭하거나 혹은 주인이 그의 노예보다 뛰어나거나 하는 정도로—그 행동도 선하거나 뛰어날 수 없다. 그렇다면 나쁜 짓을 저지르는 자는 그가 이 나쁜 짓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이미 잃어버린 선에 상당한 만큼의 이득을 결코 달성할 수 없다. 동등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사회에 있어서는 관직이 순번의 원칙에 의하여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 올바르고 정의로운 것인데, 이것은 평등과 동격의 이념을 요구하는 것이다.
- 6. 그러나 동등한 사람들이 동등하지 못한 몫을 갖게 되거나, 동격인 사람들이 동 등하지 못한 처우를 받는 것은 모두 옳지 못하다. 그리하여 우리는 어떤 사람이 선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보다 월등하고, 또한 거기에 덧붙여 실제로 최선의 일을 할수 있는 능력도 뛰어난 경우에, 그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이 정의로우며 그 사람을 좇는 것이 옳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 7. 선(善) 그 자체로는 충분하지 못하다. 여기에 또한 선을 적극적으로 행할 수 있

는 능력이 따라야 한다. 만약 우리의 견해가 옳다면, 그리고 행복이란 〈좋은 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실제 행동을 하는 생활이 최선의 것이며, 이것은 전체 로서의 모든 국가에 있어서나 각 개인의 행동에 있어서나 마찬가지라는 결론이 나온다.

- 8. 그러나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실제 행동의 생활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연관되는 생활이 될 필요는 없다. 또한 우리들의 생각이 행동에 의해서만 성취될 수 있는 목표에 집중되어 있을 때에만 적극적인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그들 자신 이외의 아무 목표가 없는 사색, 그리고 순수하게 그 자체만을 위하여 하는 명상이나 일련의 사고가 더 적극적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어져야 한다.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이다. 어떤 종류의 행동은 따라서 우리들의 목적이며목표이다. 그러나 외향적인 행동들의 영역에 있어서도, 행동은 자신의 생각에 근거하여 스스로 그러한 행동들을 취한 당사자가 된 사람들의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사실상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며, 이 말의 진정한 뜻이다.
- 9. 따라서 다른 나라와 격리되어 있으며 독립된 상태에서 살기로 작정한 국가들을 비적극적이라고 할 필요는 없다. 그들은 국가 내의 여러 집단들 사이에서 활동을 벌일 수 있다. 즉 그러한 국가의 서로 다른 집단들은 상호 연관을 많이 갖게 될 것이다.
- **10.** 이것은 또한 개인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사실이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신 자신과 우주 전체에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신과 우주는 그들 자신의 내부적 생활 이외에는 아무런 활동들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에게 있어서 최선의 생활방법이, 마찬가지로 국가 전체와 국가의 모든 구성원들에게도 최선의 생활방법임이 명백하다.

# 제4장

1. 이러한 일반적 예비고찰에 입각하여, 그리고 우리가 이전에 한 이상국가에 관한 논의를 염두에 두고 이제는 나머지 문제에 착수하는 것이 좋겠다. 첫 번째로 제기 되는 질문은, 『이상적 국가를 건설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반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 2. 이상적 정치질서는 그 성격에 맞는 물질적 조건<sup>4</sup>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우리는 따라서 기본적으로, 이상적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실천 가능한 여러 이상적 조건들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이 조건들은 먼저 시민들 그리고 영토를 포함한다.
- 3. 모든 생산자들은—예를 들어, 직조공이나 (1326a) 혹은 조선공—그들의 생산 분야에 적절한 재료가 있어야 한다. 이 재료들이 잘 준비되면 될수록 그들의 기술 은 더 잘 발휘될 것이다. 생산자들이나 마찬가지로 정치가나 입법자도 적절한 재 료가 있어야 하며, 또한 이 재료들이 그들의 필요에 알맞는 상태에 있어야 한다.
- 4. 국가의 필수조건으로 필요한 맨 첫 번째의 요소는 인적 자원이다. 여기에 관하여 우리는 당연하게 필요로 하는 인구의 질과 양을 고찰해 보아야 한다. 두 번째의 요소는 영토인 바, 여기에 관해서도 우리는 질과 함께 그 양도 고찰해 보아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국가의 행복은 국가가 크기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 그들의 견해가 옳을지도 모르지만, 설혹 그들이 옳다고 할지라도 국가가 크게 되거나작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은 알지 못하는 것이다.
- 5. 그들은 국가의 크고 작음을 수량적으로 보아 인구의 규모에 따라 대소를 판단한다. 그러나 인구의 규모보다도 그 능력이 척도가 되어야 옳다. 다른 사물이나 마찬가지로 국가도 어떤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데, 이 국가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능력이 최대인 국가를, 가장 위대한 국가로 간주하여야 한다. 마찬가지 방식으로, 히포크라테스를 그보다 몸의 크기가 더 큰 사람보다 〈더 위대하다〉고 (사람으로서가아니라 의사로서) 말하는 것이 당연하다.

4. 물질적 조건: 원어 Xρηγία는 Xρηγός, 즉 부유한 시민이 맡아 합창 · 연극의 비용을 대는 관직을 뜻하는 바, 여기에서 재산 · 물질적 수단 등의 뜻이 파생했으며, 여기에서는 물질적 조건으로 번역하였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떤 이상적 질서에도 이 물질적 조건이 필요한 것이라고 말한다.

- 6. 그러나 국가를 그 인구의 크기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할지라도, 어떤 단순한 우연적인 총계에 의하여 그렇게 판단하는 것은 옳지 못한 일이다. 우리는 국가들이 많은 수의 노예와, 외국인 거류민, 그리고 외국인들을 포함하기 쉽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만일 우리가 어떤 국가를 인구의 척도로 판단한다면 그 인구라는 말을 국가의 구성원이며 국가 구성에 있어서 근본적인 요소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만 국한해야 할 것이다. 이들의 수가 뛰어나게 많다면 그 국가가 크다는 증거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싸움터로 많은 수의 기계공으로 이루어진 군대를 내보내며, 중무장한 보병은 조금밖에 없는 그런 나라는 결코 대국(大國)이라 할수 없다. 즉 대국이란 인구가 많은 국가는 아닌 것이다.
- 7. 고찰해야 할 문제가 또 하나 있다. 경험에 의하면, 인구가 많은 나라는 일반적으로 준법의 습관을 확립하기가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관찰해 보건대, 통치가 잘 된다는 명성이 있는 나라는 반드시 인구를 어떤 방식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점은 철학적인 근거에서 보아도 증명이 된다.
- 8. 법이란 질서의 체제이다. 따라서 법에 대해서 복종하는 일반적인 습관은 일반적인 질서 체제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질서라는 것은 많은 수에 대해서는 불가능한 것이다. 무한한 수에 대하여 질서를 창조하는 것은 신의 권능이며, 이 권능은 보통 많은 수와 큰 공간의 아름다움이 따르는 이 우주 전체를 하나의 질서로 통합하는 것이다.
- 9. 따라서 우리는, 가장 아름다운 국가가, 위에 언급한 수준의 질서와 규모를 한데 결합시키는 국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다른 모든 사물이나 마찬가지로 (동식물 또는 생명이 없는 도구들) 일정한 크기의 척도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 10. 어떠한 것도, 그것이 만약 너무 지나치게 작거나 지나치게 크다면 그 기능을 수행할 힘을 앓고 말 것이다. 그것은 때로는 그 본성을 전적으로 잃어버리게 되거나, 혹은 그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면, 결함을 갖게 될 것이다. 배를 예로 들어 보자. 길이가 6인치에 불과하거나 혹은 1백2천 피트나 되는 배는 배가 아닐 것이다.

또는 이보다는 좀 낫다고 할지라도, 그 배가 적절하게 크지 않거나 거추장스럽게 크다면 항해에 어려운 점들이 생길 것이다.

11. 국가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인구가 너무 적은 국가는 자급자족을 이룰 수 없다. (그런데 국가는 그것의 정의에 의하면, 자급자족인 사회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인구가 너무 많은 국가는 물질적 필요에 관해서는 자급자족을 이룬다. (그런데 물질적 필요의 자급자족은 야만인들도 이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는 진정한 정치질서를 이룩할 수 없다는 명백한 이유 때문에 진정한 국가라고 할 수 없다. 누가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통솔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누가 스텐토르 같은 목소리를 갖고 있지 않는 한 명령을 내릴 수 있겠는가?

따라서 국가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의 단계는 우선, 정치적 결사의 형태와 모습을 갖추고, 좋은 생활 방식을 이룩하는 목적을 위하여 자족할 정도로 인구를 필요로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12. 이 첫 단계의 인구보다 더 많은 인구를 갖게 되면 더 큰 국가라고 할 수 있지만, 이러한 인구의 증가는, 위에서 고찰한 바와 마찬가지로 무한정 계속될 수는 없다. 인구 증가의 한계는 무엇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실제 사실을 조사해 보면 쉽게 대답할 수 있는 문제이다. 국가의 활동은 부분적으로는 통치자(統治者)들의 활동이며, 부분적으로는 피치자(被治者)들의 활동이다. 통치자들의 기능은 결정을 내리고 명령을 하는 것이며, 피치자의 기능은 통치자를 선거하는 것이다.
- 13. 권리에 관한 분쟁 문제에 결정을 내리며, 또한 후보자들의 자질에 따라 정부의 관직을 배정하기 위하여 국가의 시민들은 서로 상대방의 인품을 알아야 한다. 이 렇지 못하면 관직을 배분하는 일이나 결정을 내리는 일이 어렵게 될 것이다. 이 문제들은 둘 다 즉흥적으로 행동하면 안되는 문제이다. 그러나 인구가 너무 많은 곳에 있어서는 명백히 이러한 일이 발생한다.

<sup>5.</sup> 스텐토르(Stentor):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에 나오는 〈트로이 전쟁〉 당시의 목소리가 큰 전설적인 전령.

**14.** 이러한 조건들하에서는 또 다른 일도 발생한다. 즉 이방인과 외국인 거주민들이 쉽게 정치적 권리를 행사하는 데 참여하게 된다. 이들이 쉽게 군중들 사이에서 발각되지 않고 행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찰해 보면, 명백히 인구의 최적 수준을 알 수 있다. 한 마디로 말하면, 그 것은 『자급자족의 생활을 이룩하기에 필요하면서 동시에 쉽게 한번에 알아볼 수 있는 최대한의 수』이다. 이것으로 인구의 최적 규모에 관한 논의를 끝마치는 것이 좋겠다.

## 제5장

- 1. 영토의 문제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 토양의 성분에 관한 한, 누구나 최대한의 자급자족을 확보해 줄 수 있는 영토를 좋게 생각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모든 것을 갖고 있으며 아무것도 결핍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영토는 모든 종류의 농작물을 생산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영토 규모와 범위에 관해서는, 영토가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여유 있는 생활과 절제 있는 생활을 결합하는 여가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줄 만큼 커야 한다.
- 2. 이 척도가 옳은가 그른가 하는 문제는, 후에 가서 재산과 생활수단, 소유의 일 반적 문제를 고려하고, 소유와 사용 사이의 올바른 관계를 연구할 때에 더 자세하게 해야 할 것이다. 이것도 매우 논란이 많은 문제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들의 생활을 인색함과 낭비의 양극단 중의 어느 하나로 운영하는 경향이 있다.
- 3. 영토의 일반적인 위치에 관해서는 아래와 같은 처방(비록 여기에는 군사전문가들의 충고가 참고되어야 한다는 여러 문제가 제기되지만)을 쉽게 할 수 있다. 즉, 국가의 영토는 적에게는 접근하기 어려워야 하며, 그 국민들은 쉽게 밖으로 나갈수 (1327a) 있어야 한다. 위에서 인구에 관하여 언급한 것은 즉 그것이 일시에 쉽게 한번에 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영토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한 번에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영토는 또한 쉽게 방어할 수 있는 영토이다. 중심 도시의이상적인 위치는 그것이 육로(陸路)로나 해로(海路)로나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

다는 것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4. 여기에는 두 가지의 문제가 수반되는데, 첫째, 위에 언급한 바와 마찬가지로 도시는 공동(共同)의 군사 중심지로서 영토의 어느 곳에나 쉽게 증원군(增援軍)을 보낼 수 있어야 한다. 두 번째는, 도시가 또한 편리한 상업 중심지로서 국내에서 생산되는 식량 공급, 건축 자재, 그리고 다른 비슷한 산업 자재들의 운반을 쉽게 다룰 수 있어야 한다.

## 제6장

- 1. 질서가 잘 잡혀 있는 나라가 바다에 인접해 있는 것이 이로운가, 해로운가 하는 문제에는 매우 논란이 많다. 어떤 사람들은, 바다에 인접해 있으면 다른 법체제하 에서 탄생하고 교육을 받은 이방인이 많이 쏟아져 들어와, 그 결과로 인구가 증가 하게 되므로 이것이 좋은 질서 유지에 해롭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많은 상인들이 바다를 이용하여 상품을 수출하고 수입하므로 인구의 증가가 필연적이라고 주장 하며, 이것을 좋은 정치에 해로운 것으로 본다.
- 2. 그 반면에 만약 이러한 인구의 증가를 회피할 수 있다면, 국가의 영토나 도시가 바다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안보나 생활필수품의 공급을 위하여 더 좋다는 것은 의심할 바 없다.
- 3. 안전을 확보하며 적의 공격에 더 용이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국가는 육지나 바다에서 꼭 같이 방어 할 수 있어야 한다. 국가가 해군과 육군을 함께 사용할 수 있어서, 양면으로 동시에 활동할 수 있거나 아니면 이 중 어느 한 면에서 활동할 수 있다면, 공세를 취하여 침략자에게 타격을 입히는 것 이외에도 훨씬 더 유리한 위치에 있게 될 것이다.
- 4. 마찬가지로 물질의 공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가는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물품을 수입하며, 그 대가로 국내 생산품 중의 잉여분을 수출할 수 있어야 한다. 국가는 국가 자신을 위하여 상인으로서 행동해야 하지만, 타자를 위해서는 상인 노릇을 하면 안된다. 상업의 중심지가 되는 국가는 단지 세수를 위해서만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만약 국가가 이러한 종류의 영리행위를 추구해서는 안된다면 당연히 그러한 종류의 교역 중심지가 되어서는 안된다.

- 5. 오늘날 현실을 살펴보면 어떤 도시들이나 영토들은 흔히 수도에 편리하도록 위치한 항구나 선창을 갖고 있다. 즉 이 항구들은 수도와는 별도로 따로 떨어져 있지만, 그 거리가 그렇게 먼 것은 아니어서, 수도와 연결하는 성벽이나 혹은 다른 유사한 요새로 연결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이다. 6 이러한 방법에 의하면 항구나선창에 연결되어 있는 이점을 확실히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위협적인 요소가 되는 불리한 점은 상호 간에 거래를 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을 분명하게 지적하여 정의해 주는 입법에 의하여 쉽게 대처할 수 있다.
- 6. 해군력을 어느 정도로 보유하고 있으면 큰 이득이 된다. 이것은 단지 자체 방어문제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국가는 또한 육군이나 해군으로 (1327b) 원조를 하거나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인접 국가들이 있을 수 있다.
- 7. 그러한 군사력의 실제 규모와 수는 그 국가가 추구하려는 생활방식에 달려 있으며 그것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만약 국가가 다른 나라들에 대하여 지도적 역할을 행하며, 다른 나라와 적극적인 관계를 가지려 한다면 그 나라의 해군력은 여기에 관련된 활동들에 상당한 정도이어야 한다. 해군의 노 젓는 사람들 때문에 반드시 인구의 증가가 발생할 필요는 없다. 그러한 사람들은 시민의 일부가 되어서는 안된다.
- 8. 그렇지만 해병은 완전한 자유민의 계급에 속한다. 그들은 보병의 일부로 취급 해야 하며, 승선해서는 통제와 지휘를 한다. 그러나 노 젓는 사공은 이와는 다르 며. 만약 쉽게 구할 수 있는 농장 노동자나 농노가 많이 있으면, 이들로부터 항상
- 6. 좋은 예가 아테나이인데, 주지하고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아테나이는 해외와의 무역을 주종으로 하는 상업국이었으며 군사적으로는 해군에 주로 의지하였다. 그런데 아테나이의 항구는 피라에우스 (Piraeus)로써 아테나이로부터 약 5마일 가량 떨어져 있지만 아테나이인들은 이를 소위 〈긴 성벽〉으로 연결하여 전쟁 중에도 해로(海路)와의 연결을 확보했다. 그리하여 아테나이는 이 항구가 도시로부터 일 정한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었으므로 항구의 여러 폐해를 피할 수 있었다.

사공을 쉽게 마음대로 구할 수 있다. 우리는 현재 많은 나라들이 실제로 이러한 정책을 추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헤라클레이아(Herakleia)에서는 이러한 정책을 사용하는데 즉 다른 나라들보다 수가 적은 시민들로부터 상당한 수의삼단(3段) 노가 달린 배의 승무원을 채운다.

영토·항구·도시·바다, 그리고 해군력에 대한 결론은 이것으로 충분하겠다.

# 제7장

- 1. 우리는 이미 국가의 인구의 양을 정하는 데 있어서 적절한 기준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이제 우리는 국가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질에 관하여 생각해 보고, 국민된 자들이 어떤 종류의 자연적인 품성을 가져야 하는가를 연구해 보아야 한다. 우리가 일반적인 입장을 취하여, 일정한 기준과 명성을 가진 그리스의 국가들뿐만 아니라 사람이 살 수 있는 세계 전역에 걸쳐 분포되어 있는 비 그리스인들까지도 고찰해 본다면, 이 품성이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에 관하여 어떤 개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2. 일반적으로 추운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그리고 특히 유럽의 추운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기질이 용감하지만 기술이나 지능이 모자란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비교적 자유로운 상태에 계속 남아 있지만 정치적인 발전을 이룩하지 못하며 다른 사람들을 통치하는 능력도 없다. 아시아의 사람들은 기술과 지능을 갖추고 있지만 기개가 모자란다. 이 이유 때문에 그들은 계속하여 신하나 노예 노릇을 하는 것이다.
- 3. 그리스 인종은, 지리적 위치가 이들의 중간이며, 이 양측의 품성을 모두 구비하고 있다. 그리스인들은 기개와 함께 지능도 갖추고 있다. 이들 중의 한 품성 때문에 이들은 자유민으로 남아 있으며, 다른 품성으로 말미암아 최고도의 정치적 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것이다. 단지 정치적인 통일성만 이룩할 수 있다면 모든 다른 민족을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 4. 그리스인과 비 그리스인들 사이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의 차이점을 그리스인들

자체 내에서도 또한 찾아볼 수 있다. 그리스인들 중에 일부는 그 품성이 한 군데에 치우쳐 있으며, 다른 일부는 기개와 지능이 훌륭하게 배합되어 있다.

- 이렇게 생각해 보면 입법자가 쉽게 선의 생활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종류의 국민은 지능과 기개가 결합된 품성을 자연적으로 타고난 사람들임을 알 수 있다.
- 5. 어떤 사람들은 수호자 계급이 갖추어야 하는 태도라고 하는 것은 즉 그들이 아는 사람들에게 우호적이며 모르는 사람들에게 엄격한 태도—기개가 높은 기질을 가진 사람들의 태도라고 한다.<sup>7</sup> 기개는 우리들의 영혼 중에서 (1328a) 사랑과 우정에서 발로되는 기능이다. 그 증거로 우리들과 지면이 있는 사람이나 친구들이 우리를 무시했다고 생각할 때에 우리는 더 크게 감정을 상하는 것이다.
- 6. 아르킬로코스(Archilochos)가 그 친구들에 대하여 불만을 토로할 때에 자연히 그의 감정이 상하였음을 말하게 된 것도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대는 그들 자신의 친구들 집에서 모욕을 당하였다.

우리 영혼 중의 이런 기능은 우정이나 사랑에서만 발로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또한 우리들에게 있어서 모든 명령을 내리는, 그리고 자유를 느끼는 능력의 근원이 된다.

7. 그러나 사람들이 그들이 모르는 사람에게 가혹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sup>8</sup>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가혹하게 대해서는 안된다. 또한 도량이 넓은 사람은 사실상 품성(品性)이 나쁜 짓을 한 사람을 대할 때를 제외하고는, 엄격하지 않다. 이경우에 있어서도 그들 자신에게 나쁜 짓을 저질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 7. 이것은 분명히 플라톤의 《國家》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이다.
- 8. 이것도 또한 플라톤에 관한 언급이다.

아는 사람들이라면, 그들은 더욱 혹독한 태도를 취하기 쉬운데, 그 이유는 위에서 고찰한 바와 같다.

8. 이것은 단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한 경우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들의 어떤 일로 우리에게 보답해야 할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해를 끼치고 거기에 모욕까지 가하는 셈이며, 나쁜 짓을 하는 것과 동시에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어떤 시인은 다음과 같이 읊었다.

형제간의 갈등이란 혹독한 것이다.

또 다른 시인은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지나치게 사랑한 사람들은 서로 미워할 수 있다 그들이 사랑했던 것만큼이나.

9. 일반적으로 말해서(왜냐하면 철학적 논의에 있어서 요구되는 정밀성의 정도는 감각인식의 자료를 다루는 데 있어서 필요로 하는 것만큼 크지 않기 때문이다), 이 상국가에 필요한 기본적 조건들에 관하여 우리가 도달한 결론은 대략 이와 같다. 즉 (1) 시민체의 적절한 규모, 그리고 시민들의 자연적 품성의 적절한 성격, (2) 영토의 적정 규모와 알맞은 토양의 품질에 관한 것이다.

## 제8장

1. 다른 자연적으로 이루어진 복합체와 마찬가지로, 국가에 있어서 전체의 존속에 필요한 조건들은 체제 전체의 일부로서 역할하는 유기적 부분들이 아니다.<sup>9</sup> 그렇다면 명백하게 우리는 단일한 전체를 형성하는 국가나 혹은 어떤 다른 결사의 존

9. 뒤에〈조건(條件)〉들이〈부분(部分)〉들과 어떻게 다른지 설명이 나온다.

속에 필요한 요소들이 국가, 혹은 그러한 결사의 〈부분들〉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 2. 이것은 모든 구성원들에게 공통되며, 그들 모두에게 동일한 어떤 한 가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성원 각자가 이 요소를 소유하고 있는 양(量)은 서로 다를 수 있다. 또 이 요소 자체도 여러 가지—예를 들어, 식량·땅덩어리, 혹은 그런 어떤 다른 것—일 수 있다.
- 3. 그런데 어떤 목적에 봉사하는 수단과 그러한 수단들이 봉사하는 목적 사이에는 수단은 생산을 하며, 목적은 생산물을 인수한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동일하거나 공통인 것이 없다. 예를 들어 건축도구와, 이 건축도구들을 사용하는 일꾼들과, 그들의 행동에 의하여 생산되는 결과의 관계를 살펴보자. 건축자와 그가 지은 집 사이에는 아무 공통점이 없다. 즉 건축자의 기술은 단순히 수단에 지나지 않으며, 집은 목적인 것이다.
- 4. 이렇게 보면 국가가 재산을 필요로 할지라도, 재산은 국가의 일부가 아니라는 결론이 나온다. 재산은 사실상 여러 생명체와 무생명체를 포함한다. 그러나 국가는 동등한 사람들의 결사이며 동등한 사람들만이 이룰 수 있는 결사이다. 그리고 국가의 목적은 가능한 한 최선의 그리고 최고의 생활이다.
- 5. 최고의 선이란 행복이며, 그것은 활동력과 선의 완전한 행사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생활에 있어서는 모든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어떤 사람은 여기에 완전하게 참여하며 또 다른 사람은 단지 부분적으로만 참여하거나 혹은 전혀 아무런 참여도 하지 못한다. 그 결과는 명백하다. 이 서로 상이한 능력들에 따라서 여러 종류의 또 여러 다른 변형의 국가가 출현하며, 여러 다른 정치질서가 나오게 된다. (1328b) 여러 방법과 여러 수단으로 행복을 추구하므로, 상이한 민족들은 그들 자신을 위하여 상이한 생활방식과 역시 서로 다른 정치질서를 창출하다
- 6. 이제는 국가의 존속에 필요한 모든 요소들을 열거할 일이 남아 있다. 이들 요소들을 수록한 명부는 우리가 국가의 구성〈부분들〉이라고 부른 것과 함께 국가의〈조건들〉이라고 이름 지은 것들을 포함할 것이다. 그러한 명부를 만들기 위해서 우

리는 먼저 국가가 얼마나 많은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지 알아보아야 한다. 그러면 우리는 국가가 포함해야 하는 요소들이 어느 정도인지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 7. 첫 번째로 마련되어야 하는 것은 식량이다. 그 다음으로 기술과 기능이다. 왜냐하면 생활을 하는 데는 많은 도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세 번째로는 무기이다. 국가의 구성원들은 항상 무기를 지녀야 하는데, 이것은 일면으로는 권위를 유지하고 반항적 요소를 억압하기 위해서이며, 다른 일면으로는 외부로부터의 침략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 네 번째로 마련되어야 하는 것은 일정한 재산의 공급인바, 이것은 국내의 수요와 함께 군사적 목적에도 필요하다. 다섯 번째로는 (그렇지만 사실상 그 중요성에 비추어 보아 첫 번째인) 신들을 숭상하는 제도의 확립, 혹은 소위 공적예배의 확립이다. 여섯 번째의 것, 그리고 가장 절실하게 중요한 것은, 공동이해를 위하여 무엇이 필요하며, 사람들의 사적인 거래에 있어서 무엇이 정의인가 하는 것을 결정하는 방법이다.
- 8. 이러한 것들이 모든 국가가 필요로 하는 기능들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는 우연 히 이루어진 집단이 아니다. 국가는, 우리가 누차 말한 바와 마찬가지로, 생활을 목적으로 하여 자급자족적이어야 하는 집단이다. 그리고 만약 이 기능들 중에 어 느 것이라도 없다면 그 국가는 완전한 의미에서 자급자족적이라고 할 수 없다.
- 9. 따라서 국가는 이 모든 기능들을 수행할 능력이 있도록 구성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국가는 필요로 하는 식량을 생산하는 농부들의 집단을 포함해야 하며, 또한 기술자·군사력·재산가 계급·승려들, 그리고 필요한 문제들을 결정하며 공공이해가 무엇인지 결정하는 집단을 포함해야 한다.

### 제9장

1. 이러한 문제들은 해결되었지만 또 다른 문제 하나가 남아 있다. 즉, 국가의 모든 구성원들이 이 모든 기능의 수행에 참여해야 하는가? (그것도 가능하다. 즉 동일 한 사람들이 모두 동시에 농사를 짓고, 기술자와 기능공의 역할도 하고, 그리고 국사를 논의하며 사법적 결정을 내리는 일도 할 수 있다.) 아니면, 이러한 다른 기능

- 을 각각 담당하는 개별의 집단이 있어야 하는가? 혹은, 또 다르게, 어떤 기능들은 서로 다른 집단이 맡아서 하고, 다른 기능들은 모두 공동으로 해야 하는가? 모든 정치질서에 있어서 동일한 체제를 따를 필요는 없는 것이다.
- 2. 우리가 이미 고찰한 바와 같이 여러 다른 체제가 가능하다. 모든 사람이 모든 기능에 참여할 수도 있고, 서로 다른 사람들이 서로 다른 기능들을 맡아서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여러 방식이 있으므로 서로 다른 정치질서가 나오게 되는 것이다. 즉 민주정치들에 있어서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기능에 참여하는 반면에, 과두정치들에 있어서는 이와는 상반되는 방식을 따른다.
- 3. 여기에서 우리의 관심은 최선의 혹은 이상적인 질서이다. 그런데 최선의 정치질서란 그 정치질서하에서 국가가 최대의 행복을 이룩할 수 있는 것이며, 이것은 우리가 이미 말한 바와 마찬가지로, 선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원칙에 입각해서 보면, 이상적 정치질서를 가진 국가는—단순히 특정한 기준에 대하여 상 대적으로 올바른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절대적으로 올바른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국가는—그 시민들이 천하고 선에 해로운 직업인 기계공이나 상점주인으로서 생활해서는 안된다.
- **4.** 또한 그러한 국가의 시민들은 (1329a) 농사일을 해서도 안된다. 즉 선을 키우기 위해서 그리고 정치적 활동을 하기 위해서도 여가가 필요한 것이다.
- 그 반면에 군사력과 공동이해를 논의하며 사법적인 문제를 결정하는 집단은 둘 다 국가에 없어서는 안되며, 명백하게 특별한 그리고 특정한 의미에서 국가의 〈부분 들〉이다. 그들은 별도로 존재해야 하는가? 혹은 이 양 기능들을 동일한 한 집단의 사람들이 맡아서 해야 하는가?
- 5. 여기에 대한 답변은, 명백히 어떤 의미에서 그리고 어떤 견지에서 보면 동일한 집단의 사람들이 이 기능들을 담당해야 하지만, 다른 의미에서 그리고 다른 견지에서 보면 별도로 존재해야 한다. 일 이면으로는 이 기능이 각기 서로 다른 생활의 정수(精髓)를 필요로 한다. 즉, 국사를 논의하는 것은 장년기의 지혜를 필요로 하며, 전쟁은 청년기의 활력을 요구한다. 이러한 견지에서 보면 이 기능들은 각기 서로 다른 집단의 사람들이 맡아 해야 하는 것이다. 반면에 힘을 사용하기에 (혹은

힘의 사용을 막기에) 충분한 활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영구히 타인에게 예속된 상태에 머물러 있으리라고 생각할 수 없다. 이러한 견지에서 보면 두 가지 기능이 같은 집단의 사람들에게 속해야 한다. 우리는 군사력을 통제하는 것이 또한 헌정 질서의 미래의 운명을 통제하는 것임을 성찰해야 한다.

- 6. 따라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도는 이 두 가지 현정적 권력을 동일한 집단의 사람들에게—즉 두 연령집단에—속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동시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차례를 밟아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이다. 자연은 젊음에 활기를 주고 나이를 먹음에 따라 지혜를 주도록 되어 있다. 그러므로 국가의두 연령집단에 권력을 배분함에 있어서 이 자연질서를 좇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그것은 현명하며 동시에 올바른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근거에서 권력을 배분하는 것은 사람들의 자질에 따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 7. 이러한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들은 또한 재산의 소유자이어야 한다. 국가의 시민들은 일정한 재산을 갖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만이 국가의 시민인 것이다. 기계공 계급은 국가에 아무런 참여권이 없다. 그리고 선의 〈생산자〉가아닌 어떤 계급도 국가에 참여할 수 없다. 이러한 결론은 명백히 이상국가의 원칙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이 원칙에 의하면 행복이 선과 함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이 견해를 시민 전체를 포용하도록 확대하여 적용하고 국가의 구성요소 중에 어느 하나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면, 행복은 국가 전체에 귀속될 수밖에 없다.<sup>10</sup>
- 8. 우리가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당연하게 노예나 야만족 출신의 농노들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볼 때, 재산은 시민에게 속해야 한다는 또 하나의 논거가 나오는 셈이다.

우리가 열거한 여섯 가지 요소 혹은 계급들 중에 승려직만 남아 있다.

10. 이것은 플라톤이 《國家》에서 제시한 이상적 질서에 대한 비판으로 볼 수 있다. 플라톤은 상이한 계급들이 엄격하게 기능을 분화하여 담당하고 있어서, 예를 들어, 지배계급은 재산의 소유에서 오는 즐거움을 누릴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이다.

- 9. 승려 직책의 기본적 윤곽은 명백하다. 농부 계급 혹은 기계공 계급의 출신은 결코 승려가 되어서는 안된다. 신들을 예배하는 것은 시민들이 해야 할 문제이다. 이제 방금 말한 방식에 따르면, 시민들은 두 집단 즉 청년들의 군사적 집단과 장년이나 노년층의 국정을 논의하는 집단으로 나누어진다. 후자의 집단 중에 더 늙은 사람들, 즉 이미 나이가 먹어 노쇠한 사람들이 신의 예배에 관한 일을 맡아서 해야하며, 신에 봉사하는 일 속에서 휴식을 얻어야 한다. 따라서 승려의 관직들은 이들에게 배정되어야 한다.
- 10. 이것으로서 국가를 구성하는 데 필요한 〈조건들〉과 국가의 구성 〈부분들〉에 대한 우리의 연구는 끝났다. 농부들·기능공, 그리고 뜨내기 날품팔이, 노동자 집 단들은 이 범주들 중에 첫 번째에 속한다. 두 번째의 집단은 군인과 국정을 논하며 사법 결정을 하는 집단을 포함한다. 이들은 각기 별개의 요소이다. 이 기능의 분화는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평생 계속되며, 다른 경우에 있어서는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연령에 따라 승계하는 것이다.

### 제10장

- 1. 국가는 여러 계급으로 나누어져 있어야 하며, 군인 계급과 농사를 짓는 계급은 별도로 나누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은 (1329b) 국가에 관한 이론에 있어서 새로운 혹은 최근에 이루어진 발견도 아닌 것이다. 오늘날에 있어서까지도 이집트에서는 아직도 이렇게 하고 있으며, 크레테도 마찬가지이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이것은 이집트에 있어서는 세소스트리스(Sesostris)의 입법과 함께 시작되었으며, 크레테에 있어서는 미노스왕의 입법으로 시작했다고 한다.
- 2. 공동식사를 하는 제도도 또한 매우 오래된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크레테에 있어서는 미노스왕의 통치 때에 시작되었지만, 남부 이탈리아에 있어서는 이보다 역사가 오래된다.
- 3. 그 당시를 기술한 사가(史家)들은 전설적인 오이노트리아(Oinotria)의 왕의 이 야기를 하는데, 이 왕의 이름은 이탈루스(Italus) 였으므로 그 이후부터 오이노트

리아인들은 (그들의 이전 이름을 바꾸어) 〈이탈리아인〉들이라고 불리어지게 되었으며, 또 이 왕의 이름을 좇아 스킬라키움(Scylacium)만(灣)에서부터 라메투스 (Lametus)만을—이 두 만 사이의 거리는 반나절만 여행하면 갈 수 있을 정도의 거리이다—연결하는 선의 남쪽에 있는 유럽의 돌출부에<sup>11</sup> 〈이탈리(Itali)〉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다.

- 4. 이들 사가에 의하면, 이 이탈루스왕이 오이노트리아인들을 목축인들로부터 농경인들로 전환시켰다고 하며, 여러 가지 법률을 실시하였지만 그 중에서 최초로 공동식사제를 도입했다고 한다. 이 체제와 그가 만든 법률들 중의 일부는 오늘날에도 그의 후손들 사이에서 시행되고 있다.
- 5. 위에 말한 선(線)의 북서쪽으로, 캄파니아(Campania)에 이르기까지 오피키 (Opici)인들이 살았는데, 이들은 이전에는 아우소니아(Ausonia)인들이라고 불리 었으며 오늘날에도 그렇게 불린다. 동북방쪽으로, 이아피기아(Iapygia)와 이오니 아만 쪽으로, 시리티스(Siritis)라고 불리어지는 땅에는 코니아(Chonia) 인들이 살 았는데, 이들도 원래는 오이노트리아인들이었다.
- 6. 그리하여 공동식사 제도가 시작된 것은 남부 이탈리아에서였다. 위에 언급한 다른 제도—즉 시민들이 여러 계급으로 나누어지는 것—는 이집트에서 시작하였다. 즉 세소스트리스의 통치가 미노스의 통치보다 훨씬 먼저이기 때문이다.
- 7. 우리는 또한 대부분의 다른 사회제도들이 각기 그 기원을 달리한다고 믿을 수밖에 없다. 그들은 여러 다른 기회에 그리고 오랜 시간에 걸쳐 만들어 졌으므로 이것을 일일이 셀 수 없는 정도이다. 우리는 필요성 그 자체가 계속적으로 필요불가결한 발명의 어머니라고 생각해도 좋겠다. 그러한 근거에서, 이러한 제도들이 마련된 후에는 생활을 미화하거나 운치 있게 하는 발명들도 또한 점차로 생겨났으리라고 상상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일반적인 원칙은 다른 분야에 있어서나 마찬가지로 정치적 분야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11. 즉 오늘날 이탈리아의 장화같이 생긴 지형에서 발가락에 해당하는 부분.

- 8. 이집트의 역사를 보면 모든 정치적인 제도들이 매우 오래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집트인들을 지상에서 가장 역사가 깊은 민족이라고 친다. 그들은 언 제나 일련의 법과 정치 체제를 갖고 있었다. 우리는 우리들 이전에 적절하게 창출 된 것을 물려받아서 사용해야 하며, 이제까지 빠진 것들만을 발견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 9. 우리들이 생각한 이상적인 국가에 있어서는, 무기를 소지하며 정부의 운영에 참여하는 계급이 토지를 소유해 한다는 것을 이미 위에서 말한 바 있다. 또한 어찌 하여 농사를 짓는 계급이 이들 두 계급과 별도로 존재해야 하는가, 영토의 규모는 어느 정도이어야 하는가, 그리고 토양은 어떤 종류이어야 하는가도 이미 설명하였다. 우리는 이제 토지의 분배를, 즉 토지를 어떻게 경작하며, 농사짓는 계급의 성격은 어떠해야 하는가를 논의해야 한다. 토지분배 문제에 관한 우리들의 입장은이 두 가지 일이 결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일면으로는 어떤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토지를 공유로 하면 안되는 반면에 (1330a)—그렇지만 친구들 사이에 소유물을 함께 사용하듯이 토지의 사용은 공동으로 해야 한다—시민들은 누구나 생계의 수단을 갖고 있어야 한다.
- 10. 일반적으로 공동식사 제도가 모든 좋은 질서를 갖고 있는 나라에 유익하다고 한다. 우리는 후에 어째서 우리도 이와 같은 견해에 동의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할 것이다. 공동식사에 참여하는 권리는 모든 시민에게 평등하게 있어야 한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은 이외에도 다른 가계지출을 동시에 해야 하므로, 그들 수입으로는 그들에게 배정된 몫의 비용을 내기가 항상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공동식사제도의 운영비용은 공금에서 지출되어야 한다. 그리고 공적인 종교의식에 들어가는 비용도 일반적으로 국고 부담으로 해야 한다.
- 11.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국가의 영토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그 한 부분은 공용 재산이며, 다른 부분은 사적인 소유자들에게 속하게 될 것이다. 이 두 부분들은 또다시 각각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공용재산의 한 부분은 신들의 예배에 배정되어야 하며, 다른 한 부분은 공동식사 체제의 비용에 충당하도록 되어야 한다. 사적 소유자들에게 속한 땅은 역시 두 부분으로 나누어

- 져서, 한 부분은 국경에 있어야 하며 또 다른 부분은 도시에 가깝게 있어야 한다. 그리하여 각자가 이 양 부분에 일정한 땅을 소유하도록 되어서 모두 같이 양 부분에 자기 이해관계를 갖고 있도록 되어야 한다. 이렇게 하면 두 가지 이득이 있다. 즉 이것은 평등과 정의를 요구하는 주장을 만족시키며, 또 국경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 시민들 사이의 단결을 더 용이하게 한다.
- 12. 만약 그러한 제도적 마련이 없다면 어떤 시민들은 인접국가와의 적대관계를 도발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것이며, 다른 사람들, 즉 국경 부근에 땅이 없는 사람들은 이것을 지나치게 중대하게 생각하고 심지어 불명예까지도 감수하려 할 것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어떤 나라들은, 국경 부근에 사는 시민들은 인접국가들과의 적대관계를 논의하는 데 참여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법률을 갖고있다. 그 이유는 그들 개인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그들의 판단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 13. 우리는 이러한 방식으로 국가의 토지가 분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 이유들은 위에 말한 바와 같다. 토지를 경작하는 계급은, 만일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노예가 되어야 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그러나 이 노예들은 단일한 인종 출신이어서는 안되며 용감한 기질을 갖고 있는 인종 출신이어서도 안된다. 이렇게 하면 노동력의 공급을 잘 확보할 수 있는 이점이 있으며, 동시에 어떤 혁명적인 계획의 위험도 배제하게 될 것이다. 만약 토지 경작을 노예로 충당할 수 없으면 차선책은 그리스인 출신이 아닌 농노 계급이 이를 담당하는 것인데, 이들의 기질도 위에 말한 바와 같아야 한다.
- 14. 개인 재산에 고용된 농사꾼들은 그 재산의 소유자에 속해 있어야 한다. 공용재산에 고용되어 있는 자들은 공중에게 속해 있어야 한다. 우리들은 후에 노예들을 어떻게 처우해야 하는가, 그리고 어찌 하여 이들에게 궁극적으로는 노동의 보수로 해방시켜 줄 것을 약속하는 것이 현명한가 하는 점을 논의할 것이다.

# 제11장

- 1. 우리가 위에서 이미 고찰한 바와 마찬가지로 국가의 도시는 사정이 허락하는 한에서 바다와 육지에로의 연결이 좋고, 영토의 전역에도 마찬가지로 연결이 잘 되는 공동 중심지이어야 한다. 내적으로는, 그리고 그 자체의 배치에 있어서 우리는네 가지 문제를 고려에 넣고 도시의 이상적인 설계를 해야 한다. 첫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위생(衛生)이다.
- 2. 동쪽으로 경사가 졌으며 그쪽으로부터 불어오는 바람에 노출되어 있는 도시들이 가장 위생에 좋다. 그 다음으로 좋은 것은 북풍을 막아주도록 되어있는 도시인데 이것은 겨울 보건에 좋다. (1330b) 두 가지 다른 고려점은 정치적 및 군사적 활동을 위하여 그 도시가 편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 3. 군사 활동의 목적을 위해서는, 그 도시의 거주인들이 밖으로 나가기는 쉽지만 적이 접근하거나 봉쇄하기는 어려워야 한다. 그것은 또한 가능하면, 자연적인 물의 공급원과 시내를 갖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만약 그러한 공급원이 없는 경우에는, 오늘날 빗물을 다량으로 저장하여 둘 수 있는 대규모의 수원지(水源池)를 만들어서 이것에 대신하는 방법이 발견되었으므로 이 수원지가 전쟁에 의하여 도시 주변의 영토와 연결이 끊겼을 때에도 주민들에게 물을 공급해 줄 수 있을 것이다.
- 4. 주민들의 보건 · 위생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은 그들의 거주지가 건강에 좋은 지역에 있거나 환기 또는 일조(日照)에 좋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또한 좋은 식수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도 의미한다. 이 문제는 가볍게 취급할 수 없다. 우리가, 우리의 육체를 유지하기 위하여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흔히 사용하는 요소는 우리의 육체적 건강에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물과 공기는 모두 이러한 성질에 작용하는 것이다.
- 5. 따라서 어떤 사려 깊게 국정을 처리하는 국가에 있어서도 수원이 위생상 좋지 못하거나 혹은 좋은 물의 공급이 적절하게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면, 식수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과는 별도로 공급되어야 한다.
- 요새(要塞)의 계획에 있어서는 모든 정치질서에 한결같이 좋은 단일정책이란 없다. 도시 내의 요새(Acropolis)는 과두정치와 군주정치에 적합하다. 평평한 평원

- 은 민주정치 성격에 적합하다. 그러나 이 양자가 모두 귀족정치에는 맞지 않는데, 여기에는 여러 개의 서로 다른 요새가 더 낫다.
- 6. 히포다모스<sup>12</sup> 가 도입한 새로운 형식에 따라 제대로 설계를 하면, 개인 집들의 배치가 평화시의 활동을 위해서는 더 편리하고 더 보기가 좋다고 일반적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군사적 안전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과는 정반대의 형태가 더 바람직하다. 그리고 이 입장에서 보면 옛날식의 뒤죽박죽으로 된 시가지가 훨씬 더 좋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외국 군대가 밖으로 나가거나 침략군이 침입해 들어오기 어렵기 때문이다.
- 7. 따라서 두 가지 방식을 함께 병용해야 한다. 이러한 방식은, 포도나무 재배자들이 포도의 〈덩굴〉을 심는 방식을 채택하면 된다. 혹은 다른 방식으로는, 어떤 부분이나 구역에는 제대로 된 도시구획을 하고, 이것을 도시 전체에는 적용시키지않는 방법도 있다. 이렇게 하면 군사적 안보에도 좋고, 미관에도 좋을 것이다.
- 8. 도시들을 성벽으로 둘러싸서 요새화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어떤 때에는 군사적으로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국가들은 그러한 성벽에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것은 케케묵은 생각이다. 왜냐하면, 군사적으로 뛰어나다고 자부하는 국가들이 실제 사실에 있어서 그렇지 못한 예를 많이 알고 있기 때문이다.
- 9. 문제가 비슷하지만 수적으로 약간 우세한 국가와 다투는 경우라면, 성벽으로 방책을 구축하여 군사적인 안전을 달성하려고 하는 것은 별로 명예스러운 일이 못된다. 그러나 때로는—이러한 일은 항상 가능하다—침략군이 너무 강력하여 인간적이거나 혹은 심지어 초인간적인 용기만을 갖고는 당해낼 수 없는 경우가 있다. 그렇다면 국가가 패망을 피하고 고통과 굴욕을 면하기 위해서는 최선의 군사적 방

<sup>12.</sup> 히포다모스(Hippodamos): 도시계획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었는데 도시계획을 그 정치적인 연관성에서 생각하여 저술을 하였다. 제2권 제8장 참조. 여기에서 말한 개인 집의 배치는 직선으로 설계한 것이다.

법은 가능한 한 가장 튼튼한 성벽으로 방벽을 세우는 것이다. (1331a) 이것은 오늘 날에는 특히 그러한데, 왜냐하면 쇠뇌나 혹은 도시를 공략하기 위한 다른 기구들이 매우 정밀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 10. 도시가 성벽으로 방비되면 안된다고 하는 것은, 국가의 영토를 침략에 무방비 상태로 방치하여 두자고 하는 것이나, 또는 모든 고지의 요새도 평면과 같이 평평하게 하자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 그것은 마치 사사로운 개인 집에 거주하는 사람이 겁쟁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하여 집 밖에 담장을 세우지 않으려는 것과 같다.
- 11. 우리는 또한 성벽으로 방비된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경우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여유있게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을 상기해야 한다. 즉 성벽에 의거하여 전쟁을 할 수도 있고, 성벽에 의존치 않고 독자적으로 전쟁을 할 수도 있다—그러나 성벽의 방비가 없는 국민은 이렇게 유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 만일 이러한 주장을받아들인다면, 그 결론은 단지 도시는 성벽으로 에워싸야 한다는 것뿐 아니라, 성벽은 항상 훼손됨 없이 잘 보존되어야 하며 군사적인 필요와 함께 미적 감각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 특히 최근의 군사적 발명에 따라 이러한 필요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 12. 공격군의 관심사는 항상 어떻게 하면 이점을 얻을 수 있나 하는 새로운 방법을 발견해내는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고 찾아내는 것은 마찬가지로 방어를 하는 쪽의 관심사이기도 하다. 그 결과 이미 여러 발명이 나오게 되었다. 방어가 매우 튼튼한 사람에게는 누구도 공격을 할 생각조차 않을 것이다.

### 제12장

1. 우리가 공동식사의 식탁에서는 시민들이 골고루 섞이도록 자리를 나누어 앉아야 하며, 그리고 성벽에는 곳곳에 파수막을 세워야 하고, 또한 적절한 간격을 두고 감시탑을 만들어 놓아야 한다면, 이 파수막들에도 공동식사장을 설치해야 한다는 생각이 저절로 떠오르게 될 것이다.

- 2. 이렇게 하는 것이 공동식사를 골고루 하게 하는 방법인데 또 다른 방법도 있다. 관리들이 함께 식사를 하는 식탁은 공공의 종교의식에 사용되는 공적인 건물과 어떤 편리한 공유의 장소에서 함께 있도록 해도 좋을 것이다. 단 그러한 건물이 델포이의 신화에 따라서, 혹은 법에 의하여 다른 건물들로부터 멀리 따로 떨어져 있어야 하는 경우는 예외이다.
- 3. 이 장소는 높은 곳에 있어서 사람들이 올려다보고 훌륭한 장소로 생각하기에 충분할 만큼 눈에 띄는 곳이어야 하며, 부근에 있는 도시의 다른 부분보다 지형적으로 유리해야 한다. 이 장소의 바로 아래에 공공 광장을 만들도록 해야 하는데, 이러한 종류의 광장을 테살리아에서는 자유광장이라고 부른다.
- 4. 이 장소에는 어떤 상품도 있어서는 안되며, 기계공이나, 농부 혹은 다른 그러한 사람들은 관리적 호출이 있는 경우에만 이 장소에 들어올 수 있는 허가를 얻도록 되어야 한다. 만약 이 장소에 노인들의 휴식처를 마련한다면 더욱 유쾌하게 될 것 이다.
- 5. 휴식을 위한 마련들은 (공동식사를 위한 마련이나 마찬가지로) 연령이 다른 집단에 따라 서로 달라야 한다. 만약 이 계획에 따른다면 어떤 관리들은 젊은 층과함께 머무르고, 한편 나이 많은 사람들은 다른 관리들과 함께 섞여 있도록 해야한다. 관리들과함께 있어서 그들의 관찰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자유민에게 활기를 주는 수치감, 그리고 진정한 겸손의 감정을 갖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13
- (1331a) **6.** 매매를 위한 시장은 공공 광장과는 별도로 있어야 하며, 그것과는 약간의 거리를 둔 장소에 있어야 한다. 시장은 해외에서 수입된 물건이나 또는 국내에서 생산된 물건이나 함께 쌓아 놓기에 편리한 장소에 있어야 한다.
- 국가의 일을 맡아 보는 사람들은 관리 이외에 승려들도 있다. 그리고 승려들의 공 동식사 장소는, 관리들이나 마찬가지로 사원의 건물들에 함께 있어야 한다.

13. 아마도 아리스토텔레스는 여기에서 동성연애적인 감정의 경향이 관리들과 함께 있음으로써 절제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 같다.

- 7. 계약, 법률상의 고소, 법정에의 소환, 그리고 그러한 종류의 다른 일들을 맡아서 하는 관리들이 있어야 하는 마땅한 장소는 어떤 광장이나 혹은 일반을 위한 공공 휴식장소 가까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 또한 시장을 감독하는 일이나 도시를 감독하는 임무를 맡고 있는 관리들도 추가할 수 있다. 이러한 조건에 가장 잘 맞는 장소는 시장터이다. 공공 광장은 이보다 좀 높은 고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우리의 계획에 따르면 여가를 즐기기 위한 장소이다. 그 반면에 시장터는 업무활동을 하는 장소인 것이다.
- 8. 우리가 기술한 일반적인 체제는 시골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 거기에서도 또한 여러 관리들이—때로는 이들을 삼림감독이라 부르고 때로는 전원감독이라고 부르기도 한다—그들의 의무와 관련이 되는 감시 초소와 공동식탁을 갖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시골에는 여러 사원이 산재해 있어야 하는데, 그들 중의 어떤 것은 신들을, 또 다른 것은 영웅들을 섬기는 것이다.
- 9. 그러나 여기에서 너무 자세한 세부 사항과 설명들에 시간을 낭비하면 안되겠다. 그러한 문제들에 관해서는 이론을 만들기는 쉽지만, 그 이론을 실현하기는 훨씬 더 어렵다. 우리는 그러한 사항들에 관하여 우리의 바람에 따라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이러한 일들은 우연히 결정되고 만다. 따라서 우리는 당분간은 이 문제들을 더 공부하는 것은 그만두기로 하자.

#### 제13장

- 1. 우리는 이제 헌정질서 그 자체에 관하여 논의해 보아야 한다. 즉 여기에서는 국가가 행복한 생활을 향유하고 좋은 정치질서를 갖고 있기 위하여 필요한 요소들의 성격과 특성을 설명해야 한다.
- 2. 어디에서고 그리고 언제나 복지(福祉)의 요체가 되는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의 것은 행동의 목표와 목적을 올바르게 정하는 것이다. 두 번째의 것은 그 목적에 가장 적합한 행동을 찾아내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일—즉 목적과 수단—은 때때로 일치하며 때로는 일치하지 못한다. 때로는 목표는 바르게 정했지만 그것을 실제

행동으로 달성하는 데 실패하며, 때로는 그 목적에 대한 수단은 모두 성공적으로 이행되었지만 애초에 정한 목적이 졸렬한 목적에 불과한 것일 수 있다. 때로는 두 가지 점에서 모두 실패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의사는 육체적 건강의 적절한 성질을 오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이 실제로 마음먹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도 제대로 찾아내지 못할 수 있다. 모든 과학과 기술에 있어서 올바른 길은 양자들을 모두 똑같이 파악하는 것이다. 즉 목적 그 자체와 그 목적에 맞는 행동들도 제대로 파악해야 하는 것이다.

- 3. 좋은 생활, 즉 행복은 분명히 모든 사람이 목표로 삼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그 목적을 달성할 능력이 있고, 다른 사람들은 그들 자신의 소질이나 혹은 어떤 기회가 없어서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 (우리는 좋은 생활을 위해서는 일정한 양의 물질적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한다. 그런데 타고난 소질이 좋은 사람에게는 이 물질적 조건의 양이 많지 않아도 되지만 (1332a) 타고난 소질이 보잘것없는 사람에게는 많은 물질적 조건이 필요하다.)
- 4. 또한 어떤 사람들은 애초부터 잘못 시작한다. 즉 그들은 행복을 달성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을 그릇된 방향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의 연구 목적을 위하여 행복의 성격을 명백히 해두는 것이 분명히 필요하겠다.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바는 최선의 정치질서를 찾아내는 것이다. 최선의 정치질서 란 최선의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국가의 정치질서를 뜻한다. 최선의 방식으로 구성된 국가는 행복을 달성할 가능성이 가장 큰 국가인 것이다.
- 5. 《윤리학》에서는 (거기에서 나온 논의가 올바르다면) 행복이란 『완전한 수준으로, 그리고 절대적이며, 상대적이 아닌 방식으로써 선을 실천하는 것과 그 힘』 이라고 정의했었다.
- 6. 〈상대적〉이란 필요하며 그리고 강제로 이행되는 행동의 방식을 뜻한다. 〈절대적〉이란 본질적인 가치를 갖고 있는 행동의 방식을 뜻한다. 예를 들어, 올바른 행동들의 경우를 생각해 보자. 올바른 형(刑)이나 벌(罰)을 가하는 것은 사실 선의 행동이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행동자에게 강행되는 행동이며 따라서 필요성으로서만 가치를 갖는다. (즉 개인이나 국가이거나 간에 그러한 행동을 취하지 않아도 된

다면 더 좋을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부나 명예를 수여하는 행동은 다른 범주에 속하며, 그것들은 최고의 가치를 갖는 행동이다.

- 7. 형벌을 가하는 행동은 어떤 의미에서 악(惡)인 어떤 것을 선택하는 행동이다. 처음 말한 것 같은 종류의 행동들은 이와 반대되는 성격을 갖고 있다. 그들은 즉어떤 선의 창조이며 기반이다. 마찬가지 방식으로, 우리는 좋은 사람이라면 가난에서 오는 악·질병 또는 다른 생활에 있어서의 불행한 일들을 잘 처리하겠지만, 그 반면에 행복이란 이러한 것들과는 반대의 것이라는 사실은 그대로 존속한다고말할 수 있다. 우리가 윤리학에 관하여 논하면서 다른 곳에서 말했던 것처럼, 진실로 선하고 행복한 사람은 그 자신의 선의 본성에 의하여 절대적인 이점들을 바로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 8. 그가 그러한 이점들을 사용하는 것도 또한 절대적인 선을 현현(顯現)할 것이며 또한 절대적인 가치를 가질 것은 명백하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만 보고, 사람들은 외적인 이점들이 행복의 원인이라고 잘못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마치 훌륭한 하프의 연주가 그 연주가의 기술 때문이 아니고 악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과 같다.
- 이제까지 논의해 온 것에 따르면, 국가의 어떤 요소들은 자연적으로 〈주어져〉 있 거나 아니면 쉽게 손에 넣을 수 있어야 하며, 다른 것들은 입법자의 기술에 의하여 마련되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 9. 따라서 우리는 우리들의 국가가 운명(運命)의 왕국의 모든 점에 있어서 이상적인 조건을 갖고 있도록 기원해야 한다. 이것은, 즉 자연적으로 〈주어진〉 것의 영역에 있어서는 국가가 최대한도로 혜택을 받고 있다고 가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의 선은 이와는 별도의 문제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운명의 영역에서 벗어나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목적의 영역에 들어가는 것이다. 국가는 그 국가의 통치에참여하는 시민들의 선을 좇아 선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상정한 국가에 있어서는 모든 시민이 정부에 참여한다.
- **10.**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사람이 좋은 사람으로 될 수 있는가 고려해 보아야 한다. 사실상 우리 모두가 개별적으로 각자가 선한 사람이 아닐지라도 집단적으로

좋게 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이보다 개별적인 시민 각자가 선한 사람이 된다면 더 좋을 것이다. 즉 모든 사람의 선은 각자가 선하다면 필연적으로 따라오게 마련이다.

개인들이 선하고 덕성 있게 될 수 있는 세 가지 수단이 있다.

- 11. 이 세 가지 수단들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자연적인 천품과, 우리가 형성하는 습관들, 우리들의 내부에 있는 이성적인 원칙이다. 타고난 천품의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는 먼저 사람으로서 출발하는 것이며—즉 어떤 다른 종류의 동물이 아니며—또한 사람으로서도 일정한 육체와 영혼의 성질을 타고난 사람으로서 세상에 나오게 되는 것이다. (1352b) 사실상 어떤 성질들은 처음에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 이들은 습관에 의하여 변화한다. 즉 자연은 이들을 사람 속에 중립적인 형태로 심어 놓았으므로 습관의 영향에 따라서 좋은 방향으로 또는 나쁜 방향으로도 변화할 수 있는 것이다.
- 12. 사람 이외의 다른 동물들은 대개 자연적 충동에 의하여 살아간다. 단지 어떤 동물들은 약간의 정도로 습관에 의하여 행동하기도 한다. 사람은 자연적인 충동과 습관 이외에도 이성적인 원칙에 의해서도 생활한다. 그리고 이러한 천품은 독특하게 사람만이 갖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사람의 이 세 가지 능력이 모두 합치되는 방향으로 조절되어야 한다. 흔히 사람들은, 일단 어떤 다른 행동 방식이 더 좋다는 확신이 서기만 하면, 이성의 원칙에 따라 습관과 자연적인 충동에 따르지 않게 된다.
  13. 우리는 앞의 제7장에서, 시민들이 입법자의 기술(技術)에 의하여 쉽게 태도가형성되려면 어떤 천품을 타고나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결정지었다. 시민들이 그러한 천품을 갖고 있으면 나머지 일은 전적으로 입법자가 마련하는 교육에 달려있는 문제이다. 시민들은 그러한 것을 부분적으로는 습관의 훈련으로부터 배울 것이며,부분적으로는 교육의 체제로부터 배우게 될 것이다.

#### 제14장

1. 모든 정치적 결사들은 지배자와 피지배자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우리는 이 양자

- 가 평생토록 서로 분리된 별개의 집단이어야 하는가, 아니면 동일집단에 함께 섞여 있어야 하는가를 고찰해 보지 않으면 안된다. 교육의 체제는 필연적으로 우리가 이 문제에 어떠한 답변을 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다.
- 2. 우리는 지배자와 피지배자 사이에 영구적인 구별이 확립되는 것이 명백하게 더좋은 그러한 환경을 상상할 수 있다. 어떤 국가에 있어서 한 계급이 다른 집단보다월등하게 뛰어나서 마치 영웅이나 신이 인간보다 뛰어난 것 같은 정도에 이른다면이렇게 될 것이다. 즉 이 경우에 어떤 계급의 사람들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현저하게 월등하므로, 피지배층에 대한 지배층의 우월성은 논란의 여지없이 명백한 것이다.
- 3. 그러나 이러한 가정을 하는 것은 약간 무리이다. 또한 저술가인 스킬락스 (Skylax)가 인도에서 존재한다고 기술한 바의 왕과 신민들 사이의 현격한 차이 같은 것은 실제 생활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정치체제에 참여해야 하며, 이 체제하에서 서로 순번을 바꾸어 가며 통치하기도 하고, 통치를 받기도 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이 결론은 여러 근거에서 옳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동등한 사람들로 구성된 사회에 있어서의 평등이란 모든 사람이 같은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어떤 정치질서가 부정의한 원칙에 입각해 있다면 그것은 유지될 수 없는 것이다.
- 4. 그렇게 되면 피치자인 시민들이나 시골에 거주하는 사람들까지도 힘을 합하여 혁명을 일으킬 것이다. 그렇게 되면 집권충들은 이들에게 대적하기에는 너무 수가 적게 될 것이다. 반면에 치자(治者)와 피치자 사이에 어떤 차이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입법자들은, 치자와 피치자가 어떻게 차이가 나면 서도 공통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가 하는 난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된다.
- **5.** 우리는 이미 앞 장(章)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관하여 언급한 일이 있다.
- 우리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치자와 피치자 사이의 구별을 자연(自然)이 제공해 준 것이라고 이미 시사한 바 있다. 자연은 일반적으로 동일한 시민들을 두 개의 상이 한 연령집단으로, 즉 청소년층과 노년층으로 나누어 놓았다. 이들 중의 나이 어린

집단은 지배를 받아야 하고, 나이 많은 집단은 통치의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다. 나이 젊은 사람들은 지배를 당하는 것을 나쁘게 생각하지도 않고, 자기 자신들이 통치자들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또한 젊은 사람들은 그들이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통치권을 인수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더구나 이러한 일은 일 어나지 않을 것이다.

- 6. 따라서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지배자와 피지배자는 같은 종류의 사람들이라고 말해야 하며, 다른 의미에 있어서는 그들은 서로 다르다고 해야 한다. 그들의 교육의 문제에 있어서도 이것은 마찬가지이다. (1333a) 어떤 관점에서 보면 교육은 치자나 피치자에게 마찬가지여야 하며, 다른 관점에서 보면 서로 달라야 한다. 격언에 이르기를, "만약 통치를 잘 하려면 먼저 잘 복종하는 것을 배우지 않으면 안된다」라고 했다. 첫 번째 부분에서 이미 말한 바와 마찬가지로, 정부는 두 개의 상이한 방법으로 운영될 수 있다. 첫 번째 방법은 통치자의 이익을 위하여 통치하는 것이고, 두 번째의 방법은 피치자의 이익을 위하여 통치하는 것이고, 두 번째의 방법은 피치자의 이익을 위하여 통치하는 것이다. 전자의 방법을 우리는 〈독재정치(즉 노예의 정부〉)라고 부르며 후자의 방법을 〈자유민의 정부〉라고 부른다.
- 7. 자유민의 정부에 있어서 시민들에게 부과되는 어떤 의무들은, 독재정치에서 강요되는 일들과 그 일 자체에 있어서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을 하는 목적에 있어서 서로 다르다. 이것은, 실상 자유민 중의 청소년층이, 일반적으로 부역이라고 생각되는 많은 일을 수행해도 불명예가 아니라는 것을 뜻한다. 어떤 행동을 다른 행동으로부터 구별하여 명예롭다 혹은 불명예스럽다고 하는 것은 그 행동 자체의 내재적인 성격이 아니라 그 행동을 하는 목표, 혹은 목적이 관건이 되는 것이다.
- 8. 우리는 통치에 참여하는 완전한 자격을 가진 시민의 우수성은 좋은 사람의 우수성과 동일하다고 규정하였다. 우리는 또한 처음에는 피치자인 사람도 궁극적으로는 통치에 참여해야 한다고 전제하였다. 이 전제로부터 입법자는 그의 시민들이좋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따라서 그는 어떠한 제도를 채택해야 이러한 결과가 생성될 것인가, 그리고 좋은 생활이 지향하는 목적이나목표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지 않으면 안된다.

- 9. 영혼에는 두 가지 서로 다른 부분들이 있다. 이 부분들 중의 하나는 그 자체 내의 성격에 본질적으로 합리적인 원칙을 갖고 있다. 다른 부분은 이 원칙을 갖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러한 원칙에 복종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선하다〉라고 말할 때에는, 그 사람이 영혼의 이 양 부분에 걸쳐서 모두 훌륭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두 부분 중에 어느 쪽에 특히 인생의 목적이 존재하는 것일까? 이러한 의문에 대한 답변은 우리가 방금 보여 준 영혼의 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 **10.** 자연(自然)의 세계나 인위(人為)의 세계를 막론하고 저차원은 항상 고차원을 위하여 존재한다.
- 이성적 원칙을 갖고 있는 영혼의 부분이 더 고차원의 부분이다. 그러나 이 부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좇는 원칙에 따라 그 자신이 또다시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이 원칙을 좇으면, 합리적 원칙은 부분적으로는 실제적이고 부분적으로는 가변적이다.
- 11. 따라서 명백히 이 원칙을 갖고 있는 영혼의 부분도 여기에 상응하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야 한다. 우리는 또한 영혼의 여러 부분들이 수직계층적 상하관계를 갖고 있으므로 이 부분들의 활동들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관계를 갖고 있으리라는 점을 부언할 수 있겠다. 따라서 가능한 활동을 성취할 수 있는 사람들이나, 혹은 이 활동들 중에 두 가지만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더 고차원인 부분의 활동을 더 좋아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는 모두 언제나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 중에 최고의 것을 더 좋아하는 것이다.
- 12. 전반적으로 우리의 생활도 또한 여러 다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즉 활동과 여가, 전쟁과 평화 등이며, 또한 활동의 영역에 있어서도 우리는 또다시 단순히 필요하거나 그저 유용한 활동들과, 그 자체로서 좋은 활동들을 구별할 수 있다.
- 13. 우리가 우리 인생의 여러 분야와 그들의 서로 다른 활동들에 대하여 갖는 선호 (選好)는 필연적으로 우리가 우리 영혼의 여러 부분과 그 부분들의 서로 다른 분야에 대하여 갖는 선호감과 일반적으로 같은 방식을 좇아 형성될 것이다. 따라서 전쟁은 단지 평화에 대한 수단으로서만 간주되어야 하며, 활동은 여가에 대한 수단

- 으로, 단순히 필요하거나 그저 유용한 행동들은 그 자체로써 좋은 행동들에 대한 수단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진정한 정치인의 입법은 이러한 모든 요소들을 충분히 고려에 넣고 이루어져야 한다. 우선 첫째로, 그 입법은 영혼의 여러 다른 부분들과 또한 그들의 서로 다른 활동들을 포괄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이 분야에 있어서 그것은 저차원보다 고차원을 지향하며, 수단보다 목적을 지향해야 한다.
- 14. 두 번째로, 그것은 또한 생활의 여러 다른 부분과 방식들 그리고 행동의 서로 다른 범주들을 포괄하고, 이들을 위에 말한 것과 같은 관점(觀點)에서 다루어야 한다. 국가의 시민들은 활기찬 생활과 그리고 전쟁을 수행할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도 사실이다. (1333b) 그러나 그들은 이보다 더 여가와 평화의 생활을 영위할 수있어야 한다. 또한 그들이 필요하고 유용한 행동들을 할 수 있어야 함도 사실이지만, 이보다 더 그 자체로서 좋은 행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어린 시절과 아직도 교육이 필요한 성년기의 여러 단계에 있어서의 교육에서 좇아야 할 일반적인 목표는이와 같다.
- 15. 오늘날에 최선의 정치질서를 갖고 있다고 치는 그리스 국가들과 그 국가들의 정치체제를 이룩한 입법자들은 모두 이러한 이상에 미치지 못하였다. 명백히 그들이 제정한 정치질서들은 생활의 고차원적 목적을 염두에 두고 만든 것은 아니며, 또한 그들이 만든 법률이나 교육체제도 모든 덕성을 지향하도록 되어 있지 못하다. 오히려 그 반대로, 단지 실용적이며 더 이득을 많이 내는 그러한 성격과 성질의 배양을 목표로 천하게 타락되어 가는 것이다.
- 16. 이러한 입장을 채택한 최근의 몇몇 작가들에서도 마찬가지의 정신을 엿볼 수 있다. 그들은 스파르타의 정치질서를 찬양하며, 스파르타의 입법자가 그의 전체 입법을 전쟁과 정복의 목표를 위하여 마련한 취지를 찬양한다. 이러한 견해는 논 쟁을 통하여 쉽게 반박할 수 있으며, 그것은 또한 이미 사실의 증거에 의하여 반박 되어졌다.
- 17.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국(帝國)의 원칙을 신봉한다. 이것은 제국을 성취하면 크게 물질적인 번영을 얻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스파르타의 정치질서에 관하여 저술한 모든 다른 사람들이나 마찬가지로 티브론(Thibron)도 명백하게 이런 뜻

에서 스파르타의 입법자가 국민들로 하여금 위험에 대처하도록 훈련시킨 결과, 제국을 창설하게 되었다고 찬양한다.

- 18. 오늘날 스파르타인들은 그들의 제국을 상실했으며, 그래서 우리는 모두 스파르타가 행복한 공동체가 아님을 우리 스스로 볼 수 있고, 또한 그들의 입법자가 올바르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실상 스파르타가 오늘날과 같은 처지에 처하게 된 것은 그 입법자가 열심히 기울인 노력의 엉뚱한 결과이다. 스파르타인들은 그가 제정한 법률을 그대로 지켜왔으며, 그 법률들을 최대한도로 이행해왔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스파르타는 사람의 생활을 가치 있게 만드는 모든 것을 상실한 것이다.
- 19. 어쨌든 스파르타를 찬양하고 지지한 사람들은 입법자가 선택해야 하는 정부형 태에 관하여 오류를 저지른 것이다. 자유민에 의한 정부는 어떤 형태의 독재정치보다 선과 더 많이 연관되어 있으며, 훨씬 더 훌륭한 정부이다. 우리는 여기에서한 가지 생각해보아야 할 문제가 있다. 전쟁에서의 승리와 인접 국가들을 복속시키는 것을 위하여 국민들이 훈련받는 국가를 행복하다고 생각할 수 없다. 또한 그러한 나라의 입법자를 찬양할 수도 없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 그러한 정책에는 국내 생활에 해독을 끼칠 위험이 크게 따른다.
- 20. 즉 명백하게 그러한 정책에는 어떤 시민이라도 그렇게 할 수만 있으면, 그 자신의 나라의 정부를 탈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 함축되어 있기 때문이다. 스파르타인들이 그들의 왕인 파우사니아스가 바로 이러한 일을 기도했다고 탄핵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일은 그가 이미 그렇게 높은 관직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났다.
- 우리는 정복이나 전쟁을 위하여 시민들을 훈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나 그러한 정책들이, 어느 하나도 정치인답거나, 혹은 실제로 유용하거나 올바르지 못하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 21. 선은 개인들이나 공동체에 있어서 동일하다. 그리고 입법자는 시민들의 마음속에 선을 주입시키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노예로 될 수 없는 사람들을 노예화하기 위하여 전쟁 훈련을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된다. 국

가의 목적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첫째로 국민들이 그들 자신이 결코 남의 노예가되지 않도록 하는 것과, 둘째로 사람들로 하여금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위치에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1334a) 이 지도력은 일반적인 노예체제를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피치자의 이익을 지향하는 지도력이어야 한다. 셋째로 사람들로 하여금 본성이 노예로 되어야 하는 자들의 주인 노릇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22. 입법자가 여가와 평화를 전쟁에 관련되는 모든 입법의 주된 목적으로 삼아야한다는 증거로서—사실은 이것이 모든 다른 입법의 목적도 되는 것이다—우리는 실제적인 사실의 증거를 인용할 수 있다. 전쟁을 주목적으로 삼는 나라들은 대개전쟁을 하고 있는 동안에만 안전하다. 그들은 목적을 달성하여 제국을 형성하자마자 붕괴하며, 평화시에는 마치 사용하지 않은 칼처럼 그들의 기질을 상실하고 마는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는 입법자가 국민들로 하여금 여가를 적절하게 사용하도록 아무런 훈련도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비난을 받아 마땅한 것이다.

# 제15장

- 1. 사람들의 최종적인 목적은 그들이 개인적으로 행동하건 집단적으로 행동하건 간에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 추구하는 기준은 최선의 정치질서 가 추구하는 기준과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여가를 선용하는 데 필요한 자질을 개인이나 마찬가지로 국가도 갖고 있어야 함이 명백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 차례 주장한 바와 마찬가지로, 평화는 전쟁의 최종 목표이며, 여가는 일의 궁극적 목적이기 때문이다.
- 2. 여가를 선용하며 마음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자질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들 중에 어떤 것은 여가 자체의 기간 동안에 그리고 여가에 있어서 작용하며, 또 어떤 것들은 직업적인 활동에 있어서 그리고 그 활동 기간 중에 작용하는 것이다. 여가를 이용할 수 있으려면 여러 가지의 필요한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국가는 절제의 자질을 갖고 있어야 하며, 또한 용기와 인내의 자질도 갖고 있어야 한다. 격언에 말하기를, 『노예들에게는 여가가 있을 수 없다』라고 했다.

그리고 용기 있게 위험에 대처할 수 없는 사람은 쉽게 다른 사람의 노예가 되고 말 것이다.

- 3. 직업적인 일의 활동을 위해서는 용기와 인내의 자질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여가의 활동을 위해서는 지혜를 필요로 한다. 또한 절제와 정의는 이 양자에 모두 필요로 하는 자질들이다. 그렇지만 이들은 평화와 여가의 시기에 특별히 필요하다. 전쟁을 하는 시기에 있어서는 자동적으로 절제와 정의가 강요된다. 물질적인 풍요를 향유하는 시기나, 평화에 따르는 여가가 많은 시기에 있어서는 사람들이 교만하기 쉽다.
- 4. 따라서 인생에서 뛰어나게 성공을 거두고, 시인들이 노래한 〈행복한 섬들〉의 주민들처럼 세상에서 행복이라고 일컫는 것을 모두 향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더 많은 정도의 정의와 절제가 요구된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풍성한 축복을 받아서 더 많은 여가를 가질 수 있을수록 더 많은 절제와 정의 그리고 지혜를 필요로 하게 될 것이다.
- 5. 우리는 이제 어째서 행복과 선을 이룩하려고 모색하는 국가가 이 세 가지의 덕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있다. 만약 생활에서의 선들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라면, 여가 시간에 그들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특별히 더 부끄러운 일임에 틀림없다. 또한 전쟁이나 직업적인 일에 종사하는 동안에 훌륭하게 처신하는 사람들이, 평화와 여가의 기간 동안에 노예의 수준으로 전략하고 만다면 특별히 다른 사람의 지탄을 받아야 할 것이다.
- 6. 우수함은 스파르타와 같이 훈련에 의해서 달성하려고 해서는 안된다. 스파르타 인들은 최선의 선의 성격에 관한 견해에 있어서 이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 (1334b) 동일하다. 스파르타인들이 다른 사람들과 다른 점은, 그들이 이 세상의 선을 획득하는 올바른 방법은 한 가지의 우수성을 개발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뿐이다. 그들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외부적인 선을 더 높게 생각했고, 그리고 그들이 주는 향락이 우수성을 일반적으로 여러 분야에 걸쳐 개발하는 데서 나오는 것보다 더 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한 가지 분야에 있어서의 우수성만을 개발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분야에 걸친 우수성을 이룩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우리

가 이미 논의한 바와 마찬가지로 이 우수성은 어떤 다른 목적보다 그 자체를 위하여 개발되어야 한다. <sup>14</sup> 그렇지만 아직도 『어떻게 그리고 어떠한 수단으로 일반적인 우수성을 성취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

- 7. 앞 장에서 이미 해놓은 분류에 의하여 우리는 일반적인 우수성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수단들은 자연적으로 타고난 소질 · 습관, 그리고 이성적 원칙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들 중에 첫 번째의 것인 천부의 소질에 관한 한, 우리는 이미 시민들이 어떠한 성격의 소질을 갖고 있어야 하는가 하는 점에 관하여 제7장에서 결론을 내 렸다. 이제 나머지 두 가지만을 고찰해 보고. 좋은 습관을 갖도록 훈련하는 것과 합리적인 원칙을 잘 사용하도록 훈련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먼저인가 하는 것을 정하는 것만이 남았다. 이 두 가지 방식의 훈련은 가능한 한 상호 간에 조화가 되 도록 조절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성적 원칙이 최고의 이상을 달성하지 못 할 수도 있고, 습관을 통하여 주어진 훈련도 마찬가지로 결함을 드러낼 수가 있다. 8. 이러한 결과를 염두에 두고 우리는 두 가지 것을 자명한 것으로 가정할 수 있 다. 첫째, 사람의 생활의 영역에 있어서 (이것은 모든 생활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그러하다) 첫 시작은 탄생이다. 그러나 그러한 시작으로부터 이루어지는 목적은 어떤 더 높은 목적을 향한 일보 전진일 뿐이다. 사람의 본성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성적 원칙과 이성적 사고의 행사이다. 따라서 우리는 처음부터 우리들 시민의 습관의 훈련과 탄생을 이러한 능력의 사용이라는 견지에서 규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
- 9. 두 번째로, 영혼과 육체는 두 가지의 별개의 것인 것과 마찬가지로, 영혼에 있어서도 또한 두 가지 부분이 있다. 즉, 비합리적인 것과 합리적인 것의 두 부분이다. 그리고 또한 이 두 부분에 각각 상응하는 두 가지 상태들이 있다. 즉 육욕(肉

<sup>14.</sup> 이 문장은 그리스 원어에 의하면 상당한 부분이 빠져 있어 완전한 번역이 불가능한 바, 학자들이 탈락되었으리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보충하여 완전한 문장을 만들었다. 여기에서는 뉴먼이 추측하여 보충한 것에 따라 번역했다. 바커의 앞의 책 322페이지 참조.

慾)의 상태와 순수사고(純粹思考)의 상태이다. 태어날 때 시간적으로는 육체가 영혼에 선행하며, 영혼 중에서도 비합리적인 부분이 합리적인 부분에 선행한다.

10. 이것은 태어날 때부터 유아(幼兒)에게서 육욕의 모든 표시—즉 분노·억지, 그리고 욕망—를 볼 수 있지만, 추론이나 사색은 그들이 나이를 더 먹어야만 나타나는 기능임을 보아 분명히 알 수 있다. 여기에서 나오는 결론은 명백하다. 유아에 있어서는 영혼보다 육체를 더 잘 돌봐 주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의 육욕은 그 다음으로 통제 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그러나 그들의 육욕을 통제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을 이롭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은 마치 그들의 육체를 보살펴주는 것이 그들의 영혼을 위한 것임과 같다.

#### 제16장

- 1. 만약 우리가, 입법자는 처음부터 국가에 가능한 한 건강한 신체를 가진 아기들이 태어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가정한다면, 그가 우선적으로 결혼문제에 마음을 써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 문제에 관하여, 입법자는 결혼 당사자들의 적정 연령은 무엇이며 그들은 어떤 자질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지 고려해 보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 2. 결혼문제에 관하여 법률을 만드는 데 있어서 고려해 보아야 하는 첫 번째 문제는, 남편과 아내가 동거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기간(期間)이다. 결혼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부부가 동시에 성생활의 동일시기에 함께 도달해야 한다는 것이다. 육체적인 능력에 있어서 간격이 벌어지면 안된다. 즉 남편이 아직도 아기를 생산할능력이 있는데 아내가 임신이 불가능하거나, 혹은 아내가 임신이 가능한 반면에 남편이 아기를 생산할 능력이 없게 되는 것 같은 일이 있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면 결혼 당사자들 사이에 불화와 분쟁을 일으키기 쉽다. 두 번째로 생각해야 할 문제는 아이들과 부모들 사이의 연령 차이이다.
- 3. 일면으로는 이 연령 차이가 너무 크면 안되며(부친의 나이가 너무 많으면 아이들에게 부모다운 지도를 해줄 수가 없고, 또한 아이들로부터 효도를 받을 기회

도 없게 된다), 그러나 다른 일면으로는 이 연령 차이가 너무 적어서도 (1335a) 안된다.

4. 그것도 또한 상당한 난점들을 낳게 된다. 즉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부모들과 거의 동년배라고 생각하고, 부모를 대하는 데 있어서 공경하는 태도가 부족하기 쉬우며, 또 집안일의 처리에 있어서도 의견 대립을 유발하기 쉽다. 세 번째로 입법자가 염두에 두어야 할 문제는—그리고 바로 이 점에서 우리는 이제 방금 우리가 일탈한 문제점으로 되돌아가게 된다—그 목적들에 부응할 수 있는 건강한 어린아이들이 생기도록 마련하는 것이다.

실은 이 모든 목적들은 단 하나의 정책을 사용함으로써 한꺼번에 달성할 수 있다.

- 5. 일반적으로 남자는 생식 가능한 기간이 70세에서 끝이 나며, 여자는 50세에 끝이 난다. 따라서 혼인관계의 시작은 부부 양측이 여기에 상응하는 간격을 두고 맞추어져야 한다. 따라서 결혼 당시 남자가 여자보다 20세 연상이어야 할 것이다.
- 6. 부모들이 너무 젊어서 결혼하게 되면 자손을 낳는 데 해롭다. 동물의 세계에서는 전반적으로 나이가 어린 부모의 새끼들은 불구가 많다. 이들은 즉 남성보다 여성 출산이 되는 경향이 있고 체구도 왜소하다. 우리는 인간 세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결과가 나오리라고 추측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추측을 뒷받침해 줄 증거도 있다. 남자와 여자가 조혼(早婚)을 하는 관습이 있는 나라들에 있어서는 모두 그주민들이 제대로 발육이 되지 못하고 몸집도 작다.
- 7. 또한 나이 어려서 결혼한 여자들은 출산의 진통을 더 어렵게 겪으며 출산시에 사망하는 비율도 높다.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옛날에 트로이겐 (Troizen) 사람들에게 있었던 신탁(神託)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다고 한다(그 신탁은 『나이 어린 땅을 갈지 말라』는 것이었다). 이것은 농산물의 경작에 관한 말이 아니었고, 너무 어린 나이에 결혼한 여자들의 사망률이 높은 것에 관한 경고였다.
- 8. 또한 여자들이 일찍 결혼하지 않으면 성욕의 억제에도 좋다. 젊은 여자들은 일단 성적 교섭을 갖게 되면 성생활이 더 무절제하다고 한다. 또한 남자의 체구도, 종자(種子)가 성장을 완료하기 이전에 성적 교섭이 시작된다면 제대로 발육이 되지 못한다고 한다. (종자도 또한 일정한 성장 기간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 기간

- 은 종자가 발육하는 과정에 있어서 정확하게 지키든지 아니면 약간의 변화 밖에는 허용할 수 없다.)
- 9. 따라서 여자는 대략 18세에 결혼해야 하며, 남자는 37세 혹은 그 언저리에서 결혼해야 한다. 만일 이러한 연령에 관한 규칙을 지킨다면 부부 양측의 육체가 아직도 절정기에 있을 때에 결합이 이루어지게 되며, 또한 양측의 생식 능력이 동시에 끝나는 것과 때를 같이하여 함께 끝나게 될 것이다. 자손들이 부모를 계승하는 것도 가장 바람직한 상태로 일어나게 될 것이다.
- 10. 우리는, 결혼하자마자 즉시 생식이 시작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자손들이 그들 자신의 인생의 절정기가 시작되는 시기에 그리고 부친의 활력이 70세에 도달하면서 종막을 고하는 바로 그 시기에, 가업을 물려받게 될 것이다.
- 이제 우리는 결혼의 적령에 관한 논의를 끝내었다. 결혼 시기로서 일 년 중 어느 계절이 적합한가 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오늘날 사람들의 대부분이 좇고 있는 관행이 올바른 것이므로 여기에 맞추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다. 즉 남자와 여자가 새 살림을 차리는 시기는 겨울로 되어 있는 것이다.
- 11. 결혼한 부부는 또한 스스로 아기를 출산하는 것에 관하여 의사들이나 자연과학자들로부터 배울 수 있는 여러 가지 교훈을 연구해야 한다. 의사들은 그들에게육체적으로 좋은 조건에 있는 시기들에 관하여 필요한 (1335a) 모든 것을 가르쳐줄 수 있으며, 자연과학자들은 출산에 좋은 바람(風)에 관하여 가르쳐줄 수 있다. (예를 들어, 그들은 북풍이 남풍보다 더 좋다고 한다.)
- 12. 부모들이 어떤 육체적인 습관을 가져야 그들 자손이 장래에 좋은 체구를 갖는데 가장 유익할 것인가? 이것은 우리가 육아문제를 다루게 될 때에 더 면밀한 관심을 기울여 연구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몇 가지 일반적인 시사를 줄수는 있다. 체육가의 육체적 습관은 시민생활의 일반적 목적들에 알맞은 좋은 조건을 생성하지도 못하며, 또한 정상적인 건강이나 생식에도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한다. 병약한 사람이나 육체적으로 힘든 활동에 적합하지 못한 사람의 습관도 마찬가지로 유익하지 못하다.
- 13. 따라서 좋은 습관을 들이려면 일정한 양의 육체적 활동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이 활동은, 체육가의 경우에 있어서처럼 격렬하거나 전문적인 것이어서는 안된다. 그것은 오히려 자유민의 모든 육체적 활동에 맞는 일반적인 운동이어야 한다.

남편들이나 마찬가지로 부인들도 우리가 방금 말한 육체적 조건들을 갖추고 있어 야 한다.

- 14. 임신한 부인들은 그들의 몸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그들은 정규적인 운동을 하고 영양분이 풍부한 음식을 취해야 한다. 입법자는 임신부들에게 의무적으로 아기의 출산을 주관하는 여신들의 신전에 참배하는 목적을 위하여 매일 순례를 하도록 규정하여 놓으면, 그들로 하여금 쉽게 정규적인 운동을 하는 습관을 갖도록 할수 있다. 그러나 그들의 정신은 육체와는 달리 별다른 활동이 없이 한가해야 한다. 왜냐하면 마치 식물들이 토양에 의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태아는 분명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모친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 15. 여기에서, 태어난 어린이는 항상 양육해야 하는가, 아니면 때때로 유기(遺棄) 하여 죽게 내버려 두어도 좋은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sup>15</sup> 확실히 불구아동을 양육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은 있어야 한다. 이와 반면에 사회 관습의 체제가 인구의 무제한 증가에 반대하도록 되어 있는 모든 나라들에 있어서는, 단순히 인구를 일정수준 이하로 유지하기 위해서 어린이를 유기하여 죽도록 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도 있어야 한다. 이 경우에는 각 가정의 인원수를 제한하는 것이 올바른 일이며, 만약이렇게 정해진 한계를 넘어 서서 회임(懷妊)을 하게 되는 경우 태아의 생명과 감각이 생기기 전에 유산을 시키도록 해야 한다. (유산을 시키는 것이 옳은가 그른가하는 문제는 따라서 태아에 아직 감각과 생명이 이미 시작되었는가 아니면 아직 없는가 하는 것에 달려 있다.)
- 16. 이제 우리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생활을 시작해야 하는 적절한 연령을 결정하였다. 아직도 남아 있는 문제는 그들이 아이들을 출산함으로써 국가에 기여할 수있는 기간의 길이를 결정하는 일이다. 미숙한 젊은 사람들에서 태어난 아이들이나 마찬가지로, 너무 나이가 많은 사람들에게서 태어난 아이들도 육체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불완전한 경향이 있다. 너무 나이가 들어서 낳은 아이는 허약하다. 우

리는 따라서 인생에 있어서 정신적으로 최고 절정인 기간에 의하여 생식이 계속되어야 하는 시간의 길이를 정할 수 있을 것이다.

- 17. 이 기간은—어떤 시인들은 7년을 주기로 하여 이것을 인생의 척도로 삼았는데, 이들이 제시한 것과 같이—대부분의 남자들에게는 대략 50세 때에 온다. 따라서 남자가 대략 50세에서 4세 혹은 5세 정도 지나게 되면 아이를 출산시키는 역할로 부터 해방되어야 할 것이다. 그 이후로는 그들은 건강이나 혹은 다른 유사한 원인 때문에 성적인 관계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18. 남편이나 아내가 간통을 하다가 발각되는 것은—그들의 결혼생활의 전 기간, 즉 그들이 부부라고 불리어지는 전 기간을 통하여 그것이 어느 시기에 일어나건 간에, 혹은 어떠한 형태를 취하건 간에—치욕적인 일로 되어야 한다. 그러나 세상에 아이를 출산시키는 바로 그 기간 동안에 (1336a) 간통을 행하다가 발각되는 것은 그러한 범죄에 알맞은 수치스러운 낙인을 찍어 처벌해야 하는 문제이다.

# 제17장

- 1. 아기가 태어난 이후에, 그들의 성장 기간 동안에 그들이 취하는 영양분은 그들의 육체적인 능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해 보건 간에, 또는 우리가 동물의 세계나, 혹은 군인다운 체질을 만들어내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야만인들의 예를 살펴보아도, 유아의 육체적인 발전에 가장 적합한 것은 모유를 풍부히 섭취하도록 하는 것임은 명백하다. 그리고 그들이 질병에서 벗어나도록 하려면 될 수 있는 대로 술을 덜 먹이는 것이 좋다.
- 2. 또한 유아들이 할 수 있는 한 모든 종류의 육체적인 운동을 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유아의 연약한 사지가 불구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어떤 야만인들은 아직도 기계적인 도구를 사용하여 유아의 육체가 똑바르게 되도록 한다. 유아를 처음부터 추위를 견디어내는 습관을 갖도록 키우는 것이 좋다. 이것은 그들의 건강 일반에도 매우 유익하며, 그들의 군대 복무를 위하여 미리 육체를 튼튼하게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일이다.

- 3. 그렇기 때문에 어떤 야만인들은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찬 강물 속에 집어넣는 습관이 있으며, 또는 켈트족 같은 야만인들은 아기들에게 옷을 가볍게 입히는 습관이 있다. 아이들에게 습관을 심어주는 것이 가능한 영역에서는 매우 어릴 때부터 이 습관을 들이는 과정을 시작해서 그것을 점차로 증진시키는 것이 가장 좋다. 아이들의 체질은 자연적으로 따뜻하므로 추위를 이기는 훈련을 하는 데 적합하다. 4. 유아 때의 훈련은 이제 막 기술한 방법들 혹은 다른 유사한 방법들에 따라서 행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다. 어린이 시기의 다음 단계, 즉 5세까지 계속 되는 기간 동안에는 어떤 의무적인 일이나 학습을 시켜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성장에 지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에 육체가 무기력하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약간의 운동을 하도록 해야 한다. 이 운동은 게임을 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하도록 해야 한다.
- 5. 이 게임들은 너무 힘들거나 너무 유약한 것이어서는 안되며, 자유인에게 알맞은 것이어야 한다. 또한 이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관리들은(이 관리들을 일반적으로 교육감독관이라고 부른다) 이 연령의 어린 아이들에게 들려주어야 하는 동화나이야기 종류를 정해 두도록 관심을 써야 한다. 이러한 모든 일들은 아이들에게 후일에 추구할 직업을 위하여 준비시켜 주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이하는 놀이까지도 대부분은 후일에 이들이 진지(真摯)해야 하는 일의 모방이어야한다.
- 6. 플라톤은 그의 《법률》에서 어린아이들로 하여금 그들의 허파를 지나치게 긴장 시키거나 흐느껴 우는 일을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런 종류의 사상 가들은 이런 문제를 다루는 관점에 있어서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일은 어린이의 성장을 돕는 것이며, 그 나름대로 일종의 육체적 활동이다. 또한 어른이 호흡을 조절하는 것이 활동을 위한 힘을 주는 것과 꼭 마찬가지로, 허파를 긴장 시키는 것도 어린이들을 튼튼하게 만드는 것이다.
- 7. 교육감독관들은 어린이들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 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통제 해야 한다. 특히 그들은 어린이들이 노예들과는 될 수 있는 대로 적은 시간을 보내 도록 조심하지 않으면 안된다. 어린이들이 7세에 이르기까지 (1336b) 지나게 되는

인생의 단계는 자연히 집안에서 훈련을 받는 기간이다. 그리고 비록 그들이 나이가 어릴지라도, 그들이 천한 일을 듣고 보게 되면 천한 습관을 갖게 되기 쉽다.

- 8. 따라서 입법자의 기본적인 의무는 국가의 전역에 걸쳐서 나쁜 말의 사용을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어떤 종류이건 나쁜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나쁜 행동에 이르는 첩경이다. 특히 나이 어린 사람들은 그런 나쁜 말을 듣거나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9. 모든 금지에도 불구하고 점잖치 못한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는 자들은 거기에 따라 처벌을 받아야 한다. 아직 공동식사를 하는 장소에서 비스듬하게 반쯤 눕는 자세를 취하도록 허용받지 못한 자유민 중의 청소년층은 신체적 형벌 혹은 다른 불명예스러운 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sup>15</sup> 그리고 나이를 더 먹은 사람들이 천하고 불명예스러운 짓을 저지름으로써 자유민이 아닌 노예 같은 행동을 한 것에 대한 처벌로서 벌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만약 이렇게 점잖치 못한 언어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면, 또한 명백하게 점잖치 못한 그림을 보여주는 것이나 점잖치 못한 극을 공연하는 것도 금지 해야만 한다.

10. 따라서 정부의 의무는 어떤 종류의 점잖지 못한 행동을 묘사한 회화나 조각을 금지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신들의 축제의 경우, 법에 의하여 상스러운 짓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는 법에 의하여 일정한 연령에 도달한 사람들은 그들 자신이 이 축제에 참석하는 것으로써 그들의 처자는 여기에 참석하지 않아도 되도록 할 수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15. 고대 그리스에서는 영아를 유기하는 일이 흔히 있었던 것 같다. 이것은 그리스 시대의 극(劇)의 주인 공들이 때로 이렇게 방기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보통 남자아이보다는 여자아이를 더잘 유기했다고 하며, 버리는 장소는 흔히 도시 내에 있는 언덕이었다고 한다.

- 11. 입법자는 젊은 사람들이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여 공동식탁에서 연장자와 함께 음주를 하고 비스듬하게 누울 수 있는 권리<sup>16</sup>를 갖게 되기까지는 희극이나 익살극 <sup>17</sup>을 보지 못하도록 금지해야 한다. 그 시기까지에는 그들은 교육을 받아 그러한 것들을 보아도 나쁜 영향을 받지 않게 될 것이다.
- 12. 우리는 이제 이 문제에 관하여 피상적으로 설명하였다. 우리는 이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서, 후에 그러한 문제를 법적으로 통제하는 것에 관한 찬·반 양론이나 그 통제가 어떠한 형태를 취해야 하는가를 논의하게 될 때 이것을 더 자세하게 결정해야 한다. 여기에서는 단지 현재 바로 필요한 문제에 관해서만 언급하였다.
- 13. 비극배우인 테오도로스(Theodoros)는, 그는 아직까지 아무리 보잘것없는 배우일지라도 자기 자신이 무대에 등장하기 전에는 결코 관객들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했는데, 그 이유는 그의 표현을 빈다면, 『관객들은 그들에게 처음 나오는 배우를 좋아하게 되는』 까닭이라고 말했다. 아마도 이 말에는 일리가 있다. 이것은 우리들이 다른 사람과 사귀게 되는 과정에서뿐만 아니라 어떤 사물과 접촉하는 데서도 실제로 일어나기 쉽다. 우리는 항상 우리가 처음 대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
- 14. 따라서 젊은이들은 일찍부터 천한 것과 특히 악덕 혹은 악의(惡意)에 연관된 어떤 것과 친숙하게 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첫 5년이 무사하게 지난 다음에는 어린이들은 다음 두 해, 즉 그들이 일곱 살이 될 때까지 다른 사람들이 그들 자신이 후일에 배우지 않으면 안되는 공부를 하는 것을 지켜보며 지내야 한다.

<sup>16.</sup> 고대 그리스나 로마에 있어서 식탁에서 보통 취하는 자세는 반쯤 눕는 것이었다. 그러나 청소년층은 의자에 똑바로 앉도록 되어 있었고 긴 의자에 반쯤 눕는 자세를 취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다. 또한 주목할만한 점은 미성년자에게는 체형(體刑)을 가하도록 한 점이었는데, 이것은 후에 유럽 특히 영국의 사립학교에 그대로 물려진 것으로 보인다.

<sup>17.</sup> 익살극: 여기에서 이것을 익살극으로 번역한 것은 원어의 όαμβος인데, 이것은 디오니소스 축제에서 낭송하는 시구로서 흔히 상스러운 내용으로 되어 있다.

- 15. 교육에는 두 개의 서로 상이한 기간이 있어야 한다. 첫 번째 기간은 7세에서 사춘기에 이르는 기간이며, 두 번째 기간은 사춘기로부터 12세에 이르는 기간이다. 사람의 일생을 7년 주기로 나누는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올바르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자연적으로 (1337a) 이루어진 일생의 구분을 좇아야 한다. 교육의 목적은 일반적으로 모든 기술의 목적이나 마찬가지로, 단순히 자연의 결점을 개선함으로써 그것을 모방하는 것이다.
- 16.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고찰해야 할 세 가지 문제가 제기된다. 첫 번째 문제는 어린이의 교육에 관한 어떤 법전이 있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두 번째의 문제는 어린이의 교육이 국가가 맡아야 하는 문제인가 아니면 오늘날에 아직도 절대다수의 경우에 있어서 그러한 것처럼 사적인 기반에서 행해져야 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세 번째로 고찰해야 할 문제는 교육에 관한 법전이 어떤 성격을 띠어야 하는가 하는 것이다.

Olje Foundation | Share the wisdom. Change the world.



청소년의 교육



#### 제1장

(1337a11) 1. 누구나 입법자의 주된 그리고 가장 우선적인 관심이 되어야 하는 것은, 청소년의 교육이라는 데 동의할 것이다. 이러한 견해를 취하는 데는 두 가지의이유가 있는데, 먼저, 만약 교육을 등한히 하면 그 나라의 정치질서에 나쁜 영향을미칠 것이다.

- 2. 국가의 시민들은 항상 그들의 국가의 정치질서에 알맞은 교육을 받아야 한다. 어떤 정치질서에 알맞은 시민의 성격 형태는 애초에 그 정치질서를 창출해낸 힘이며, 동시에 그것을 유지시켜 주는 동력(動力)이다. 즉 민주적 성격 형태는 민주정치를 유지시키며, 과두정치적 형태는 과두정치를 만들어내고 유지시킨다. 또한 이러한 방식으로 높이 올라갈수록 고상한 형태의 성격은 항상 더 높은 차원의 정치질서를 산출하는 경향이 있다. 두 번째로, 모든 형태의 능력이나 모든 형태의 기술은 그것을 행사하려면 어느 정도의 예비훈련과 습관을 쌓아야 한다. 따라서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선을 행하려면 그 이전에 적절한 훈련을 쌓고 올바른 습관을 들여야 한다.
- 3. 국가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공통의 목적을 갖고 있다. 따라서 명백하게 한 국가의 교육 체제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것이어야 하며, 이 체제를 마련하는 것은 공적인 활동의 문제가 되어야 한다. 교육은, 오늘날처럼 부모가 각기 자기 자식들을 위하여 개인적으로 교육을 마련하고, 그 자신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방식대로 사적인 교습을 받도록 하는 사사로운 일이 되어서는 안된다. 공통의 목적을 위한 훈련도 또한 그 자체가 공통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4. 이러한 견해를 취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우리는 시민이 각자 단지 그 자신에만 속한 것으로 간주해서는 안된다. 우리는 모든 시민이 국가에 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각자는 국가의 일부분이며, 각 부분을 위한 준비도 당연히 전체를 위한 준비에 조절되어야 한다. 이 점에 있어서, 다른 몇 가지 점에 있어서와 같이, 스파르타인들을 찬양할 만하다. 그들은 청소년의 훈련에 최대의 관심을 기울이며, 또한 그 관심을 개인적인 자격으로서가 아니라 집단적으로 기울이는 것이다.

#### 제2장

- 1. 이제 우리는 교육의 성격과 교육을 하는 방법에 관하여 고찰해 보아야 한다. 현재로서는 교육의 주제에 관하여 의견이 분열되어 있다. 단순한 선을 목적으로 하거나 혹은 가능한 한 최선의 생활을 목적으로 하거나 간에, 젊은이들이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 또한 교육이사물의 이해를 주안점으로 해야 하는가, 아니면 도덕적 성격의 계발을 주안점으로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의견이 명백하지 않다.
- 2. 우리가 실제 사실을 살펴보면 유감스럽게도 매우 혼란스럽다. 실제는 교육의 주제가 실생활에 유용한 것이어야 하는가, 혹은 선을 이룩하는 것이어야 하는가, 아니면 지식의 영역을 넓히는 것이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 아무런 해결의 도움도 주지 못한다. 이러한 종류의 연구가 모두 각기 어느 정도의 지지자를 (1337b) 갖고 있다. 예를 들어, 선을 이룩하는 공부들을 살펴보면, 아무런 의견의합치도 없음을 볼 수 있다. 무엇보다 먼저 선 그 자체도 그것을 높이 생각하는 각자에게 모두 동일한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런 사정하에서 선을 올바르게 행하는 방법에 관해 이견(異見)이 있다는 사실은 놀랄 만한 일이 아니다.
- 3. 실제적으로 필요한 유용한 주제들이 아동 교육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렇다고 해서 실용적인 주제를 모두 포함시켜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직업에는 자유민에 적합한 것도 있으며 그들에게 적합하지 못한 것도 있다. 따라서 어린이에게 주입시키는 실용적인 지식의 총계는 결코 그들로 하여금 기계공 같은 마음을 갖도록 하는 정도이어서는 안된다.
- 4. 〈기계적(banausos)〉이라는 말은 자유민의 육체·영혼, 혹은 정신을 선의 시행이나 추구에 적합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모든 종류의 직업·기술, 혹은 교육에 적용되는 것이다.
- 5. 따라서 우리는 〈기계적〉이란 말을 사람의 육체적 상태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어떤 기술이나 기예, 혹은 이득을 목적으로 하여 추구하는 직업으로서 사람의 정신을 지나치게 혹사하거나 천하게 만드는 어떤 직종에도 적용할 수 있다. 자유로운 지식 분야들에 관해서도 거의 마찬가지의 말을 할 수 있다. 이 분야 중의 어떤

것들은 일정한 정도까지는 완전히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지만, 그것을 완성하기 위하여 지나치게 집중을 하면 이제 방금 말한 것과 마찬가지의 나쁜 효과를 내기쉽다.

6. 행동을 하거나 어떤 주제를 공부하는 목적이 상당히 중요한 관건이 된다. 개인 적 필요를 충족하거나, 친구를 돕기 위해서이거나, 혹은 선을 이루기 위하여 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자유로운 것이다. 그러나 꼭 같은 행동일지라도 다른 사람의 뜻에 따라 반복적으로 하게 된다면 천역이며 노예의 일로 치는 것이다.

#### 제3장

- 1. 위에 이미 말한 바와 마찬가지로, 교육에서 배워야 할 교과목들은 이제 일반적으로 모두 설정이 된 셈인데, 이들은 두 가지 서로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다. 보통교육의 기본적인 과목들은 대략 네 가지가 있다. 그것들은 읽기·쓰기·체육, 그리고 음악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 미술을 추가한다. 이 주제들 중에 첫 번째의 것과 마지막 것은,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다른 방식으로, 생활에 있어서 실제적인 목적을 위하여 유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체육은 보통 용기의 덕을 함양한다고 생각한다. 음악 교육의 목적은 분명치 않고 여러 가지 논란도 많다.
- 2. 현재로는 사실상 음악 공부는 그 목적이 마치 쾌락에 있는 것처럼 행해지고 있다. 그러나 애초에 음악을 교육의 주제로 삼게 된 진정한 이유는 이보다 훨씬 고차원의 것이다. 우리 인간성 그 자체가 우리들로 하여금 여기를 올바르게 사용하며 또한 올바른 직업을 찾아낼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찾는 경향이 있다. (여기에 관해서는 우리가 때때로 언급한 바 있다.) 사실상, 다시 한번 되풀이하지만, 우리의모든 생활의 기본이 되는 것은 여가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능력인 것이다.
- 3. 진실로, 우리에겐 직업과 여가가 동시에 필요하다. 그러나 여가가 직업보다 더높은 것이며, 또한 여가는 직업활동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목적임도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들의 문제는 우리의 여가를 채워줄 활동의 방식을 찾아내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들의 여가를 유흥(遊興)으로 채울 수는 없다. 그렇게 하면 유흥이 생애

의 모든 것이고, 모든 목적인 셈으로 되는 것이다.

- 4.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유흥은 생활의 어느 한 면에 주로 연관되는 것이다. 즉 직업과 연관되는 것이다. (이것은 쉽게 증명할 수 있다. 일을 하는 사람은 휴식이 필요한 것인데, 유흥은 바로 이 휴식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유흥이나 오락은 적절한 시기, 그리고 적절한 계절에만 우리들의 국가에서 허용되어야 하며, 원기를 회복시키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유흥은 사람의 마음에 심한 노동으로부터의 해방감을 (1338a) 자아내게 한다. 또한 유흥이 제공하는 쾌락은 휴식을 마련하여 준다. 여가는 다른 문제이다. 즉 우리는 그것을 그 자체로서 본질적인 쾌락과 행복 그리고 즐거움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 5. 그러한 종류의 행복은 직업적인 일에 종사하는 사람은 누릴 수 없는 것이며, 여가가 있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항상아직 이루어지지 못하였다고 생각하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일에 종사한다. 그러나즐거움은 현존하는 목적이다. 모든 사람은 즐거움의 쾌락만이 있고 고통은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 즐거움에 수반되는 쾌락의 성격에 관해서는 모든 사람이 의견을같이 하는 것은 아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성격 또는 성향에 따라서 이것을 다르게생각한다. 그러나 가장 고귀한 근원에서 나오는 최고의 쾌락은 최고의 선(善)을 이룬 사람의 쾌락일 것이다.
- 6. 따라서 명백히 여가를 정신의 계발(啓發)을 위하여 적절히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연구해야 하는 학문과 교육의 분야들이 있다. 또한 직업적인 목적을 갖는 교육은 단지 수단(手段)으로서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반면에, 이러한 공부들은 그 자체로서 목적이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7. 이렇게 보면, 어째서 우리 조상들이 음악을 교육의 일부로 하였던 이유를 알 수 있다. 그들이 그렇게 한 것은 음악이 실생활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어서가 아니었다. 음악은 실생활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다. 또한 음악이 다른 주제들처럼 유용하기 때문이어서도 아니었다. 예를 들어, 글을 쓰고 읽는 것은 여러 가지로 실생활에 유익하다. 즉 돈을 벌거나 가계를 꾸려나가거나, 지식의 획득, 그리고 여러 정

지적 활동에 유용한 것이다. 그림을 그리는 것도 여러 다른 미술가의 작품을 더 정확하게 판단하도록 도움을 준다는 점에 있어서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림을 더 현명하게 구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음악은 심지어는 체육처럼 건강이나 전쟁의 기술을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 음악은 이들 중의 어느 것과도 관련이 없다.

8. 따라서 음악의 가치란 여가 중의 정신의 계발뿐이다. 그리고 음악이 교육에 도입된 것은 명백히 이 이유에서이다. 음악은 사람에게 자유인으로서 당연히 있어야하는 교양(教養)의 일부분인 것이다. 이러한 뜻에서 호메로스는 아래와 같은 시를쓴 것이다. 그 구절은

훌륭한 연회에 초대받는 사람들은 아래와 같은 사람들뿐이다.

라는 것으로 시작하여 아래와 같이 이어진다.

9.

그들은 음유시인을 불러 그의 음악으로 모든 사물을 즐겁게 한다.

또 다른 구절에서 호메로스는 오딧세우스의 입을 빌어 음악이야말로 모든 사람이 즐거울 때에 가장 좋은 여흥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또한 아래와 같이 읊었다.

식당에서 잔치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질서 있게 자리를 잡고 앉아서 조용히 음악에 귀를 기울인다.

**10.** 위에 말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교육의 분야 중에는 필요하기 때문이 아니라 단순히 그 자체로서 좋으며 또한 자유인으로서 적절한 것이기 때문에 부모들이 그

자녀들에게 시켜야 하는 교육이 있다고 볼 수 있음이 명백하다. 이러한 종류의 교육이 한 개의 주제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인가, 혹은 여러 주제를 포함하는 것인가, 그리고 만약 여러 주제가 있다면, 그들은 어떠한 것이며 어떻게 공부하여야 하는 가 하는 문제들은 앞으로 논의해 보아야 할 것이다.

- 11. 그러나 우리는 현 단계에서 이미 전통에서 찾아볼 수 있는 증거가 우리의 일반적인 견해를 뒷받침해 준다고 말할 수 있다. 즉, 이것은 오래 전부터 확립된 교육의 주제를 보아서도 알 수 있다. 음악의 경우를 예로 들어도 이 점은 충분히 명백하다. 또한 우리는 어찌하여 실생활에 유용한 공부들 중에 어떤 것은—예를 들어, 읽기와 쓰기—단순히 유용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또한 그것이 다른 분야의 여러 지식의 획득을 가능하게 해 주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것도 말할 수 있다.
- 12. 마찬가지로, 미술 교육을 시키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림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 실수를 하거나 혹은 미술품의 매매에 있어서 속임을 당하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1338b) 것이라기보다, 오히려 어떤 형태나 모습의 아름다움을 관찰할 수 있는 감식 능력을 주기 위한 것이다. 모든 것에서 실생활의 실익(實益)을 목표로 하는 것은 고상한 자유로운 정신에는 전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다.
- 13. 자녀의 교육에 있어서 우리는 이성의 도구를 사용하기에 앞서서 습관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야 하며, 정신을 다루기에 앞서서 육체를 다루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자녀들을 먼저 체육교사와 게임교사들에게 맡겨야 한다. 전자는 그들에게 적절한 육체의 습관을 갖도록 해줄 것이며, 후자는 모든 경기에 필요한 기술을 갖추게 해줄 것이다.

## 제4장

1. 일반적으로 젊은이의 교육에 최대의 관심을 기울이는 것으로 알려진 나라들 중에는 육체의 운동가다운 습관을 길들이는 것을 추구하되, 신체의 성장과 모습에 심각한 해독을 끼치고서도 그렇게 하는 나라들이 몇 있다. 스파르타인들은 이 특

정한 잘못은 저지르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은 젊은이들을 너무 엄격한 훈련을 시켜서 야만인으로 만들어 버리고 마는데,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용기의 덕을 함양하는 데 있어서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 2. 그러나 우리가 되풀이하여 말한 바와 마찬가지로, 용기 하나만을 목적으로 혹은 이것만을 주목적으로 젊은이들의 훈련을 시행하는 것은 오류다. 그리고 설혹용기만이 교육의 주목적이라고 할지라도, 스파르타인들이 이것을 훈련시키는 방법은 옳지 못하다. 동물의 세계나 야만인들 사이에 있어서도 용기는 항상 최대의 흉포성(凶暴性)과 연관된 것은 아니며, 더 부드럽고, 말하자면 사자와 같은 기질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관찰을 통하여 알 수 있다.
- 3. 사실상 많은 야만인들이 살인이나 혹은 심지어 식인(食人)을 할 정도로 까지 되어있는 경우도 있다. 흑해 연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아카이아인과 해니오키 (Heniochi)인들은 이러한 종류의 인종들이다. 내륙에 살고 있는 주민들 중에도 이들이나 마찬가지로 혹은 이들보다 더 야만스러운 인종도 있다. 이들은 산적질을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그들은 진정한 용기를 갖고 있지 못하다.
- 4. 우리들이 경험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스파르타인들 자신까지도 단지 그들이 엄격한 훈련을 부지런하게 시행하는 유일한 사람들인 동안에 있어서만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였다. 오늘날에는 스파르타인들은 체육경기나 실제전쟁에 있어서나 모두 패배를 당한다. 그들이 이전에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했던 것은 그들의 젊은이가 특별한 훈련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고, 단순히 그들의 적수들이 아무 훈련을 받지 않고 있을 때에 그들은 어떤 훈련을 했었다는 사실에 기인할 따름이다.
- 5. 흉포한 기질이 아니라 고상한 마음이 승자(勝者)가 되는 것이다. 고귀한 용기를 필요로 하는 위험이 있을 때에 훌륭하게 싸움을 하는 것은 늑대나 혹은 다른 포악 한 맹수가 아니다. 사람만이 올바른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것이다.
- 6. 젊은이들로 하여금 함부로 포악한 짓을 하도록 방치하고, 그들에게 진실로 필요로 하는 교육을 시키지 않는 것은 사실상 그들로 하여금 천하고 상스러운 상태로 전략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그들로 하여금 어떤 한 면에 있어서는 정

치인의 목적에 봉사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유용성은 이 한 면에 불과 하게 되며, 또한 이 일면에 있어서도, 위에 언급한 바와 마찬가지로, 다른 방식으 로 훈련을 받은 사람들보다 그 질이 떨어지는 봉사밖에는 할 수 없다.

- 7. 우리들은 스파르타인들을 평가함에 있어서 그들을 이전에 이룩한 업적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현재 상태를 근거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오늘날의 스파르타식 훈련에는 그 경쟁자들이 있지만 옛날에는 아무 경쟁자도 없었던 셈이다. 이제, 신체적 훈련의 필요성과 그 훈련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방법에 관해서는 일반적으로 의견의 합치를 본 셈이다. 사춘기의 연령에 이르기까지는 훈련이 가벼워야 하며, 그리고 육체의 적절한 성장에 지장이 될 만한 과격한 운동이나 엄격한 음식조절이 있어서는 안된다.
- 8. 초기에 훈련을 너무 심하게 시키면 거기에서 나오는 나쁜 영향은 (1339a) 현저하게 명백하다. 올림픽 경기에서의 우승자의 명단을 보면, 이전에 소년 경기에서 우승한 자로서 성인 경기에서도 우승한 사람의 경우는 단지 2, 3건에 불과하다. 그 이유는 소년 시절의 훈련과 거기에 따르는 의무적인 운동들 때문에 후에 가서는 결국 힘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 9. 사춘기의 연령에 이른 다음에는, 그 다음 3년 동안은 다른 학과목의 공부를 해야한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성장 기간 동안에는 강화훈련과 엄격한 음식 조절을 하는 것이 옳다. 정신과 육체를 동시에 사용하는 일을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두 가지의 서로 상이한 종류의 일들은 자연히 서로 다른, 사실상 정반대의 효과를 낸다. 육체적인 일은 정신의 활동을 둔하게 하며, 정신적인 일은 육체에 지장을 준다.

# 제5장

1. 우리는 위에서 이미 음악에 관해서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한 일이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그 논의의 실마리를 다시 찾아서 좀 더 깊은 고찰을 해 보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하면 이 주제를 전면적으로 다룰 때에 자연히 있어야 하는 일종의 서론 같은 것이 나올 것이다.

- 2. 음악의 정확한 효과를 정의(定義)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또한 음악 공부를 해야 하는 목적을 정확하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어려운 일이다. 어떤 사람들은, 음악의 목적은 마치 잠을 자거나 물을 마시는 것처럼 단순히 오락과 휴식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 잠을 자거나 물을 마시는 것은 그 자체로써 좋은 일은 아니다. 그러나어쨌든 그것들은 즐거운 일들이다. 에우리피데스는, 그것들은 『쓸데없는 근심들을 사라지도록 한다』고 했다.
- 3. 이런 근거에서, 흔히 때때로 음악을 이 둘이나 마찬가지로 치게 되면, 잠을 자거나 물을 마시는 일과 음악을 (여기에 춤을 첨가하기도 한다) 모두 꼭 같은 방식으로 취급한다. 다른 견해도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은 음악이 우리들로 하여금 올바른 방식으로 쾌락을 느끼는 습관을 들임으로써 우리들의 성격에 격조를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만큼(마치 체육이 우리들의 몸에 일정한 격조를 주는 것처럼), 선을 이룩하는 데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 4. 또 다른 세 번째의 견해—즉 음악이 우리들의 마음의 계발과 도덕적 지혜의 성장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다는—도 가능하다.

분명히 젊은이의 교육에는 오락을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된다. 배움은 오락의 문제가 아니다. 배움에는 노력과 고통이 따르는 것이다. 반면에 마음의 계발은 아이들이나 아직 성년에 이르지 못한 젊은이들에게는 적절치 못한 것임도 사실이다. 그들 자신이 아직도 불완전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궁극적인 목적을 다룰 수 없기때문이다.

- 5. 어린이들의 공부 과제는 이들이 성인으로서 완전히 성장했을 때에 즐길 수 있는 오락의 수단과 방법들로 이루어진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이러한 입장을 취한다면, 우리는 왜 어린이들이 그들 자신이 이 음악을 연주하도록 교육을 받아야 하는가 하고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그들은 왜 페르시아나 메디아의 왕들의 예에 따라서, 음악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들의 연주나 노래를 들음으로써 즐거움을 얻으며, 음악 교육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인가?
- 6. 음악을 전문적인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단지 배우기 위해서만 연습하는 사람들보다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다. 우리는 또한 만약 어린이들이 열

심히 음악연주를 배우도록 해야 한다면, 또한 마찬가지로 음식을 만드는 것도 배우지 않으면 안된다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조리에 맞지 않는 말이다.

- 7. 어린이들이 그들 자신이 음악을 연주할 수 있도록 배워야 하는가의 여부의 문제는, 음악을 사람의 성격을 개선할 수 있는 힘으로서 생각해 본다면 마찬가지로 제기되는 문제이다. 여기에 있어서 우리는 역시 『왜 어린이들이 그들 자신이 연주할수 있도록 교육을 받아야 하며, 왜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음악을 듣는 것만으로는 올바른 방식으로 음악을 (1339b) 즐기며 감상하는 능력을 갖는 데 충분하지 않은가』하는 문제를 제기할수 있다. 스파르타인들은 바로 이 원칙에 의거하여 행동한다. 그들은 연주를 배우지는 않지만, 사람들이 전하는 말에 의하면, 좋은 가락과 나쁜가락의 차이를 제대로 감상할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한다.
- 8. 만약 우리가 음악에 관한 세 번째의 입장을 취해서, 음악을 우리들의 행복을 중 진하고 교양을 계발하기 위하여 사용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거의 마찬가지의 의문 에 도달하게 된다. 어째서 우리는 이 목적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이 하는 연주에 의 존하여 교육을 받는 대신에, 우리 자신이 음악을 배우지 않으면 안되는가 여기에 서 우리는 우리가 신에 대하여 갖고 있는 생각을 상기하는 것이 좋겠다. 우리들의 시인들이 묘사하는 제우스는 노래를 부르지도 않고 하프를 켜지도 않는다. 그는 단순히 들을 뿐이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 자들을 천하다고 생각하기 쉽다. 우 리는 그들이, 사람이 술에 취했거나 장난을 칠 때에만 행동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행동한다고 생각한다.
- 9. 그러나 이것은 아마도 후에 고찰해 보아야 할 문제이다. 우리는 먼저 음악이 교육에 포함되어야 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러면 또 다음과 같은 문제가 제기된다. 『음악은 위에 구별한 세 가지 방식 중에 어떤 방식으로 작용하는가? 교육적인 방식인가, 오락의 방식인가, 정신계발의 방식인가?』 음악을 이 세 가지와 모두 연관시켜야 할 몇 가지 이유들이 있다. 왜냐하면 명백히 음악은 이들 모두의 공통된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 **10.** 오락은 휴식을 가져오기 위한 것이며, 휴식은, 그 본성이 활동에 의하여 초래되는 고통을 치료해 주는 것이므로, 필연적으로 쾌락의 요소를 갖고 있어야 한다.

또한 마찬가지로 정신의 계발도 고결한 요소와 함께 쾌락의 요소도 갖고 있어야한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합치된 견해이다. 그리고 진정한 행복의 정신은 이들 요소의 모두로 이루어진 정신이다.

11. 이제 우리는 모두, 음악이 기악이건 성악이건 간에 가장 커다란 쾌락 중의 하나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여하튼 간에 우리는 시인 무사이오스(Musaios)의 말을 인용할 수 있다.

# 인간에게 가장 감미로운 것은 노래이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서 어찌하여 사람들이 그들의 사교적 연희나 유흥에 음악의 도움을 빌리는 것이 가장 자연적인 일인가 하는 이유를 알 수 있다. 음악은 사람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힘을 갖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따라서 음악이 사람들에게 주는 쾌락이, 어린이들이 음악 교육을 받아야 하는 이유 중의 하나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 12. 모든 나쁘지 않은 쾌락들은 이중적 용도를 가진다. 그들은 우리들의 목표인 행복을 달성하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또한 휴식의 수단으로써 우리에게 봉사한다. 그러나 우리는 흔히 휴식을 즐기며 동시에 오락에 몰입할 수도 있다. (이것은 이 이외의 어떤 초월적인 목적을 위해서라기보다 단순히 그들이 우리에 주는 쾌락을 위해서이다.) 따라서 젊은이들로 하여금 음악으로부터 오는 쾌락 속에서 잠시 동안 활동을 쉬고 휴식을 취하게 하는 것이 좋다.
- 13. 사실상 사람은 오락을 그들 생활의 목적으로 삼게 되는 함정에 빠지기 쉽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생활의 목적이 일종의 쾌락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종류의 쾌락은 일상적인 것이 아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것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일상적인 쾌락을 그것으로 잘못 생각하기 쉬운 것이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쾌락은 일반적으로 인간 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에 일종의 유사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 목적은 미래의 어떤 결과를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그 자체만으로도 바람직하다. 그리고 오락에서 나오는 쾌락도 유사하다. 그들은 미래

의 어떤 결과를 위하여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서 이미 일어난 어떤 것 때문에 그것을 바라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미 겪은 수고와 고통 때문에 쾌락을 바라는 것이다.

**14.**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이러한 종류의 쾌락으로부터 나오는 행복을 추구하는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리에 맞는 일일 것이다.

그러나 사람이 음악을 찾는 것은 쾌락만을 위해서가 아니다. 또 다른 이유는 음악이 휴식을 제공하는 데 실제적인 효용이 있기 때문이다. 음악을 찾는 이유는 이러한 것으로 보인다.

15. 그러나 우리는 또한 음악이 이 두 가지의 기능 이외에도 또 다른, 즉 이제까지 언급한 용도보다 더 높은 가치를 갖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아마도 모든 사람이 음악으로부터 얻는 공통적인 쾌락—음악에서 나오는 쾌락은 사실상 자연적이고 본능적이며, 이러한 이유 때문에 모든 형태의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나모든 연령층의 사람들이 음악을 즐기는 것이다—에 우리들이 참여하는 것보다 더커다란 문제가 여기에 연관되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아마도 우리는 음악이 또한우리들의 성격과 우리들의 영혼에 어떤 종류의 연관성을 갖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보아야 한다

16. 만약 우리의 성격이 음악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면, 음악은 분명히 그러한 연관을 가질 것이다. 우리들의 성격이 그렇게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은 여러 가지의다른 곡조들, 특히 올림포스의 곡조들이 끼치는 영향을 보아도 명백하다. 올림포스의 곡조들은 영혼에 고무적인 효과를 낸다고 일반적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고취 감은 영혼의 성격에 대한 영향이다.

7. 우리는 단순히 박자나 곡조 같은 것이 전혀 없는 흉내내는 소리를 들을지라도 사람들은 공감하는 감정을 갖게 된다고 부언할 수 있다. 음악은 쾌락의 범주에 속하며, 또한 선은 사람이 환희의 감정을 느껴야 하는 때에 그것을 느끼며 올바르게 사랑과 증오의 감정을 갖는 것이므로, 우리는 명백하게 몇 가지 결론을 도출해낼수 있다. 첫째, 훌륭한 성격과 좋은 행동에 대하여 기쁨을 느끼고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습관만큼 우리가 획득해야 할 중요한 습관도 없고 배워야 할 중요한 과목

도 없다는 것이다.

- 18. 그 다음으로, 음악적인 박자와 곡조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실제 본성에 가깝도록, 성격의 상태에 대한 영상(影像)을 우리에게 준다—즉 분노와 평정한 마음의 영상과, 인내와 절제의 영상, 또한 이들과 반대되는 모든 형태의 영상을 묘사하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 자신의 경험을 돌아보아도 명백한 사실이다. 이러한 영상의 묘사를 듣는 것은 영혼이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는 것이다.
- 19. 어떤 영상에서 기쁨을 느끼거나 고통을 느끼는 습관을 획득하는 것은, 실제 사실에 있어서 기쁨이나 고통을 느끼는 것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어떤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대상의 조각된 영상을 바라보는 데서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은—순수하게 그 조각의 본질적인 형태 때문에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은—또한 실제 대상물 그 자체를 쳐다보는 데서도 쾌락을 느낄 것이다.
- 20. 사실상 우리들 감각기관들 중의 어떤 것의 대상은 즉, 촉각이나 미각 같은 것은, 성격의 상태에 어떤 묘사도 제공할 수 없다. 시각의 대상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 정도가 미약하다. 사실상 모습이나 형태로써 성격의 상태에 유사한 연관을 갖는 것이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 그 닮는 정도가 크지 못하다. 또한 우리는 모든 종류의 사람들이 시각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한다. 더욱이 시각예술에 의하여 표현되는 모습과 색채는 성격의 상태에 대한 묘사가 아니라 그것의 시사 (示唆)에 불과하다.
- 21. 그리고 그들은 육체가 어떤 종류의 감정의 영향하에 있을 때 그 육체를 묘사함으로써만 할 수 있는 시사인 것이다. 그러나 상이한 미술작품들을 바라봄으로써 얻는 효과들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 한에 있어서는, 젊은이들은 파우소(Pauso)의 작품들을 보지 못하도록 해야 하며, 폴리그노토스(Polygnotos)나 또는 도덕적 성격을 묘사하는 어떤 다른 화가나 조각가의 작품을 공부하도록 해야 한다.
- 그러나 음악의 작곡에 있어서는 문제가 다르다. 음악은 본질상 성격의 상태를 표현한 것이다.
- 22. 이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우선 양식(樣式)의 성격이 여러 가지이다. 그리하여음악을 듣는 사람들은 그들이 듣는 음악의 다른 양식에 따라 서로 다른 영향을 받

을 것이다. 어떤 양식의 음악의 효과는 슬픈 그리고 엄숙한 기질을 낳게 될 것이다. (1340b) 예를 들어 이것은 믹솔리디아(Mixolydia)이라고 불리는 양식의 경우이다. 다른 양식들은 (즉 부드러운 양식 같은 것들은) 마음의 격조를 풀어주는 효과를 낸다. 또 다른 양식은 온건한 그리고 가다듬은 기질을 내도록 특별히 마련되어진다. 이것이 도리아 양식의 특유한 힘이라고 한다. 그 반면에 프리기아 (Phrygia) 양식은 격정과 영감을 주는 것이라고 한다.

23. 우리는 음악 교육의 문제를 공부해 온 사람들이 내놓은 이러한 견해에 찬동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들의 이론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실제 사실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이제 방금 음악의 양식에 관하여 말한 것은 마찬가지로 여러 종류의 음악의 박자에도 통용될 수 있다. 이 여러 형태들 중의 어떤 것은 좀 더 안정된 성격을 갖고 있으며, 다른 것은 활발한 성격을 갖고 있다. 이 후자에 속하는 것들은, 그들이 천한율동에 맞추어 진행되는가 아니면 자유민에게 더 적합한 방식으로 진행되는가에따라서 다시 나누어진다.

- 24. 이제까지 우리가 논의해 온 것에 의하면 분명히 음악은 영혼의 성격에 영향을 미치는 힘을 갖고 있다. 만약 음악이 이 효과를 낼 수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교육의 주제가 되어야 하며 젊은이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 25. 우리는 음악 교육이 젊은이들의 타고난 소질에 좋다는 것을 부언할 수 있다. 젊은이들은 나이가 어리므로 감미롭지 못한 일은 달갑게 여기지 못한다. 그런데 음악은 본질적으로 감미로운 성질을 갖고 있다. 또한 이것만이 전부는 아니다. 음악의 양식이나 율동은 자연적인 감미로움과 함께 영혼과의 친화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왜 많은 사상가들이 영혼과 화음을 연관시키는지 설명이 된다. 즉 어떤 사람들은 영혼이 바로 화음이라고 하며, 다른 사람들은 영혼이 화음의 속성을 갖고 있다고 한다.

## 제6장

- 1. 이제, 어린이들이 실제로 노래를 부르거나 악기를 연주하는 방식에 의하여 음악을 배워야 하는가 하는, 이미 임시로 제기된 문제에 해답을 구하는 일이 남아 있다. 명백하게 실제로 음악을 하는 것에 참여했는가 하는 것은 실제 적성(適性)의획득에 큰 차이를 나타낸다. 실제로 음악을 해 보지 않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제대로 평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어려운 일인 것이다.
- 2. 어린이들도 항상 어떤 할 일이 있어야 한다. 아르키타스(Archytas)가 만든 딸 랑이는 (이 장난감은 흔들면 소리가 나도록 되어 있어서, 아이들의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고 그들이 집안의 물건을 부수지 못하도록 해주는 것이다) 훌륭한 발명품임에는 틀림이 없다. 어린이들은 조용히 앉아 있을 수가 없다. 진짜 딸랑이는 유아시절의 어린이에게 맞는 것이지만, 좀 더 자란 아이들에게는 음악 훈련이 딸랑이의 역할을 할 것이다.
- 3. 이렇게 고찰해 보면, 음악 훈련에는 약간은 실제로 음악을 하는 것에 참여하는 것이 들어 있어야 한다. 성장 중의 여러 연령층에 어떤 것이 적합한가, 혹은 적합하지 않은가를 결정하는 것에는 아무 어려움도 없다. 그리고 우리는 실제로 음악을 행하도록 하는 것을 포함한 음악의 공부가 직업적이며, 그리고 기계적이라는 반론에 대하여 쉽게 답변할 수 있다.
- 4. 우리는 먼저 소년들이 실제 음악의 연주에 참여하는 목적은, 단지 그들이 다른 사람의 연주를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데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것은 그들이 나이 어렸을 때에 음악을 연습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것은 또한 그들이 좀 더 나이를 먹어서, 더 어렸을 적에 그들이 받은 교육의 덕택으로 무엇이 좋은가를 판단하고 음악을 제대로 감상할 수 있게 되었을 때에는, 더 이상 음악의 연습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 5. 음악 공부에 대한 흔히 있는 비난—즉 그것이 직업적인, 혹은 기계적인 마음의 경향을 일으킨다는 비난—은 우리가 잠시 몇 가지만 생각해 보면 쉽게 답변할 수 있다. 첫째, 시민다운 우수함을 목적으로 해서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까지 계속하여 실제로 음악을 하는 것에 참여해야 하는가? 둘째로, 그들이 교육을

받아야 하는 (1341a) 음악의 선율과 율동의 성질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 셋째로, 그들이 교습을 받아야 하는 악기들의 성격은 어떤 것인가? (왜냐하면 악기에 따라서도 여러 가지 차이가 나오기 때문이다.)

6. 만약 우리가 이러한 문제들에 해답을 줄 수 있으면, 우리는 또한 앞에 말한 음악에 대한 비난에도 답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어떤 종류의 음악들은 기계적인 효과를 낼 수도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음악의 공부가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행해져야 한다는 것은 가정(假定)의 진리로 받아들일 수 있다—그것은 즉, 소년들로 하여금 후일에 그들이 더 성숙했 을 때에 그들의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도 않고 군인으로서의 그리고 시민으로서 훈련을 받는 기간 동안의 여러 목적들에 비능률적인 습관이 몸에 배지 않도록 하 는 그러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우선 육체적인 활동에 있어서, 그리고 후에 지식의 추구에 있어서 비능률적인 습관을 들이면 안되는 것이다.

- 7. 음악의 공부는 만약 두 가지 조건들만—첫째, 음악 공부를 하는 아동들이 직업적인 경쟁들에 속하는 종류의 음악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둘째, 그들은 최근에와서 여러 음악 경연에 도입되어서 그 다음에 교육 부문에까지 전래된 유별나게뛰어난 종류의 음악기술의 발휘를 시도해서는 안된다는 조건—이루어지면 이러한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 8. 그렇게 하더라도, 음악을 하는 것은 학생들이 단순히 좋은 선율과 율동을 감상할 수 있는 능력을 갖기 시작해서 그저 거의 모든 노예나 어린이들, 심지어는 어떤 동물들까지도 느낄 수 있는 음악의 공동 요소들을 즐기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는 정도까지만 해야 한다.

사용해야 하는 악기의 성격도 또한 방금 말한 바에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9. 음악 교육에 있어서 피리는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또한 하프나 그러한 모든 다른 악기들처럼 직업적 기술을 요구하는 어떤 다른 악기도 피해야 한다. 사용해야 하는 악기들은 학생들로 하여금 음악 자체의 분야나 혹은 어떤 다른 공부 분야에 있어서 더 지혜롭게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어야 한다. 피리를 사용하면 안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 그것이 성격의 상태를 표현하지 않으며, 오히려 일시적인 종교

적 흥분 감정을 표현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것은 관중에게 감정의 정화<sup>1</sup> 효과를 내야하며, 교육의 필요가 없는 경우에 사용해야 한다.

- 10. 교육에 있어서 피리를 사용하면 안된다는 또 하나의 근거는, 피리를 연주하면 연주자가 그의 음성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선조들이 청소년과 자유민들에게—이전에는 피리의 사용을 고무한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피리의 연주를 금지시킨 것은 올바른 일이었다.
- 11. 옛날에는 우리의 선조들은 부유했기 때문에 여가가 더 많이 생기게 되었고, 그리하여 일반적으로 뛰어난 기술에 대한 취미가 높았다. 그리고 페르시아 전쟁과 그 이후에 그들이 이루어 놓은 업적 때문에 자만심이 높아졌다. 그리하여 단순히 새로운 경지만을 탐색하기에 급급하여 무차별하게 모든 공부에 손을 댄 것이다. 이런 정신에서 그들은 교육에 피리의 연주를 도입한 것이었다.
- 12. 스파르타에서까지도 합창지휘자가, 그 자신이 친히 무용수들을 위하여 피리를 연주했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아테나이에서는 피리의 연주가 큰 유행이 되어서 대부분의 자유민들이 이 유행을 좇았다. 합창단의 피리연주자인 엑판티데스 (Ekphantides)를 기념하기 위하여, 무용수와 합창단의 경비를 대주었던 트라시포스(Thrasippos)가 세운 기념비가 이를 증명한다. 후일에 가서 사람들이 무엇이 진정으로 우수함에 기여하며, 무엇이 그와 반대되는 효과를 내는가 하는 것을 더 잘판단할 수 있게 되었을 때에, 피리부는 것을 더 많이 해 본 결과 결국은 그것을 거부하게 되었다.
- 13. 옛날에 있었던 다른 악기들도 또한 많이 버리게 되었다. 즉 단순히 관중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마련된 찌터나 류우트, 그리고 이들과 함께 헵타곤<sup>2</sup>·트라이 앵글·부키나, <sup>3</sup> 그리고 단순하게 손재주만을 필요로 하는 모든 다른 악기들도 (1341b) 버림을 받았다. 피리에 관한 옛 사람들의 신화에는 교훈이 있다. 신화에,

<sup>1.</sup> 감정(感情)의 정화: 그리스의 원어에서 세척의 뜻을 가진 katharsis를 이렇게 번역하였다.

<sup>2.</sup> 헵타곤(heptagon): 원어로 7각형이라는 뜻인데, 악기의 일종으로 추정됨.

<sup>3.</sup> 부키나: 악기의 일종.

의하면 아테나이<sup>4</sup>는 피리를 발명하였는데, 그 후에 그것을 버리고 말았다고 한다. **14.** 이 이야기의 나머지 부분에도 일리가 있다. 아테나이는 피리를 불고 있는 도중에 거기에 비친 그 여자의 얼굴이 추한 데 혐오를 느껴 그것을 던져 버리고 말았다고 한다. 그렇지만 아테나이는 우리가 모두 지식과 예술의 기술을 담당한다고 여기는 여신이다. 따라서 그 여신이 그것을 버린 것은, 피리 연주를 공부하는 것이정신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기 때문이었다고 하는 것이 더 그럴싸한 이야기로보인다.

15. 따라서 사용하는 악기에 있어서나 추구하는 기술의 능숙한 정도에 있어서나 간에 우리는 직업적인 교습 체제를 거부해야 한다. 직업적인 교습 체제란 학생들로 하여금 경연 준비를 시키는 목적으로 마련된 체제를 뜻한다. 그러한 체제에서는 연주자는 음악을 그 자신의 개선의 수단으로써 다루는 것이 아니고, 그의 연주를 듣고 있는 청중의 쾌락에—그것도 천한 쾌락에—봉사하도록 한다. 이러한 이유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사람의 연주를 자유민에게는 적당치 않으며 오히려 피고용자에게 맞는 어떤 것이라고 간주한다.

16. 또한 연주자 자신들도 이 과정에서 천하게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들이 그들의 목표로 삼는 기준은 나쁜 기준이다. 청중이 속되면 음악의 질도 천하게 되는 경향이 있으며 예술가 자신들도 청중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으므로, 여기에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영향을 받는 것은 정신에 있어서만이 아니라 육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청중의 취미에 맞추어 몸을 흔들거나 움직이기 때문이다.

#### 제7장

1. 이제, 음악의 여러 가지 양식(樣式)과 박자(拍子)에 관하여 고찰해야겠다. 즉, 이들이 모두 함께 사용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음악을 교육의 목적으로 연습하는

4. 아테나이(Athenai): 그리스의 여신의 하나로써 군사·학문·예술 등을 담당함.

사람들이 다른 목적으로 연습하는 사람들과 같은 규칙을 지켜야 하는가, 아니면 그들 자신의 특별한 규칙에 따라야 하는가 하는 문제들을 결정해야 한다. 여기에 또 다른 문제 하나를 고찰해야 한다. 우리가 쉽게 관찰할 수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음악은 선율과 박자의 두 가지 수단에 의하여 생성된다. 따라서 우리는 이 두수단 중의 어느 쪽이 교육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알아야 하며, 또한 좋은 선율을 갖고 있는 음악과 좋은 박자를 갖고 있는 음악 중의 어떤 것을 더 낫게 생각하여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면 안된다.

- 2. 그러나 우리는 오늘날의 몇몇 음악가들과 또한 음악 교육의 일반적인 문제에 정통해 있는 철학 쪽의 몇몇 사상가들이, 이 문제들에 관하여 한 고찰에는 많은 진리가 있다고 믿는다. 따라서 우리는, 이 문제를 각각 엄격하게 다루고자 하는 학생은 이 권위자들의 의견을 참조하기를 권한다. 그리고 우리 자신은 여기에서, 법률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따라야 할 대략적인 원칙의 일반적인 윤곽을 묘사하는데 그치려고 한다.
- 3. 우리는 우리 시대의 철학사상가들 몇 사람이 해 놓은 선율(旋律)의 분류를 그대로 받아들이고자 한다. 이들에 의하면, 선율은 성격을 표현하는 것들, 행동을 자극하는 것들, 그리고 영감을 내는 것들로 나누어진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상가들이 또한 음악의 양식도, 각기 다른 양식이 각각 서로 다른 선율들에 상응하도록,이 선율과의 상관관계에서 음악 양식의 성격도 규정해 놓았음을 볼 수 있다. 그 반면에, 이미 말한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음악이 제공할 수 있는 어떤 단일한 혜택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 혜택들을 위해서 그것을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음악이 줄 수 있는 혜택에는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교육이며, 둘째는 감정의 방출이고 세 번째는 계발의 혜택인 바, 여기에는 휴식과 긴장해소가 연관되어 있다.이제까지 말한 바에 따르면 (1342a)음악에서 모든 양식을 사용하되 그것들을 같은 종류의 방식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명백하다. 교육이 목적인 경우에는,여기에 사용되어야 하는 양식은 성격을 가장 잘 표현하는 양식들이다. 다른 사람의 연주를 듣는 경우에는,우리는 또한 사람의 행동을 자극하거나 그들에게 영감을 주는 양식을 받아들이는 것이 좋다.

- 4. 몇몇 사람의 영혼을 강하게 자극할 수 있는 감정은 모든 사람의 영혼을 움직일 것이며, 사람에 따라 정도의 차이 밖에는 내지 않을 것이다. 연민·공포, 그리고 영감은 그러한 감정들이다. 많은 사람들이 특히 경험하기 쉬운 것은 어떤 종류의 영감에 사로잡혀 있다는 느낌이다. 우리들 자신이 관찰할 수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사람들은 종교적인 선율에 영향을 받는다. 그들이 그들의 영혼을 종교적인 흥분으로 채우는 선율들의 영향하에 있을 때에는, 그들은 마치 의사의 치료나 정화(淨化)를 받은 것처럼 조용해지며 평정을 회복한다.
- 5. 공포나 연민의 감정 혹은 다른 어떤 감정에 특히 지배받기 쉬운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 종류의 효과가 일어난다. 사실상 그것은 우리들 자신에게도 각자가 어느 감정에 흐르기 쉬운 정도에 비례하여 일어날 것이다. 그 결과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어떤 종류의 감정의 정화와 쾌락이 수반된 감정의 방출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특별히 감정을 정화하도록 하는 의도를 갖고 만들어진 선율들은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들 모두에게 결백한 기쁨의 근원이 된다고 부언해도 좋을 것이다.
- 6. 우리는 더 나아가서 이러한 선율들과 음악의 양식을 음악 경연대회에 출연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도록 요구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청중에는 두 가지 서로 다른 종류가 있다. 첫째는 자유롭고 교육받은 자들로 구성된 청중들이고, 둘째의 부류는 기계공, 고용된 노동자들, 그리고 그와 같은 부류의 사람들로 구성된 청중이다. 따라서 필요한 휴식을 주기 위해서는 첫째 종류의 청중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둘째 종류의 청중을 위해서도 경연대회와 축제가 있어야 한다.
- 7. 둘째 부류의 사람들의 영혼이 자연적인 상태로부터 변태적으로 왜곡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음악의 양식에 있어서도 여기에 상응하도록 왜곡된 선율들과 마 찬가지로 무리하게 변형되고 지나치게 과장된 선율들이 있다. 사람은 자기에게 가 장 잘 맞는 것으로부터 쾌락을 얻으며, 따라서 우리는 질이 낮은 청중 앞에서 경연 을 하는 음악가들에게는 그들의 청중에 맞는 저급한 종류의 음악을 사용하도록 허 용해 주지 않으면 안된다.
- 8. 우리가 이미 주목한 바와 마찬가지로 교육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하는 선율들과 양식들은 성격(性格)을 표현하는 것들이어야 한다. 우리가 이미 관찰한 바와 같이

도리아 양식은 이러한 것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철학적 연구와 음악 교육에 관심을 가져온 사람들이 천거하는 어떤 다른 양식의 음악도 채택해야 한다. 9. 플라톤은 그의 《국가》에서 도리아 양식과 함께 채택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양식은 프리기아 양식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잘못이다. 그는 그 이전에 피리의 사용을 금했으므로 그의 이러한 실수는 더 두드러져 보인다. 실제로 프리기아 양식은 (1342 a) 그것이 내는 효과에 있어서, 마치 피리가 다른 악기들과 연관되어 있는 것처럼 다른 양식들과 연관되어 있다. 이들은 모두 종교적인 흥분과 일반적 감정의 효과를 낸다.

- 10. 우리는 시(詩)를 보면 사실이 이렇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디오니소스적인 광란과 그러한 모든 감정적 흥분 상태는 다른 악기의 반주로 불리어지는 것보다 피리로 반주될 때 더 자연스럽게 표현된다. 마찬가지로, 양식의 문제에 있어서도 프리기아 양식으로 되어 있는 선율들이 그러한 마음의 상태에 맞는 수단임을 알 수 있다. 열광적인 시<sup>5</sup>는 일반적으로 성격이 프리기아 양식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이 경우의 좋은 예이다.
- 11. 음악예술의 전문가들은 열광적인 시의 성격을 분명하게 해주는 많은 예들을 인용한다. 필록세노스<sup>6</sup>의 경우가 이 중의 하나이다. 그는 《뮈시아(Mysia)인들》이라는 제목을 가진 열광적인 시를 도리아 양식으로 지으려고 했지만 실패하고 말았다. 그는 그의 주제의 성격 자체 때문에, 결국에 더 적합한 프리기아 양식으로 되돌아오지 않을 수 없었다.
- **12.** 사람들은 도리아 양식이 일반적으로 가장 장중하고 인내의 기질을 가장 잘 표현한다고 한다. 그것은 또한 다른 장점이 있다. 우리들의 일반적인 의견에 의하면, 두 극단 사이의 중간에 위치한 중용(中庸)이 더 좋은 것이며 이것을 좋아야한다고

<sup>5.</sup> 열광적인 시(詩): 원어 ὁδιθύρομιβος는 원래 디오니소스 신의 탄생을 축하하는 음악과 춤이 곁들인 시의 형식인데, 후에 가서는 더 확대되어 여러 가지로 쓰이게 되었다. 이것은 항상 프리기아 양식이고, 따라서 피리가 반주하는 것이다.

<sup>6.</sup> 필록세노스(Philoxenos): 기원전 435~380년에 살았던 가장 유명한 〈열광적인 시〉의 작가 중의 하나였는데, 처음에 사테나이에 거주하였다가 후에 가서 시라쿠사이의 디오니시오스의 궁정에서 살았다.

한다. 도리아 양식은 다른 양식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중용의 위치에 있다. 따라서 교육의 도구로서 젊은이들에게 가장 적합한 것은 도리아 양식의 선율들이다.

- 13. 인간이 추구하는 목표에는 두 가지—즉, 가능한 것과 적합한 것—가 있다. 그리고 각자는 이러한 목표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경우 무엇이 가능하며 무엇이 적합한가에 관하여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그에게 이것은 그의 연령에 따라 결정된다. 늙고 지친 사람은 높은 소리를 내는 양식의 노래를 부르기가 곤란하다. 그리고 자연 그 자체도 그 연령에 이른 사람에게는 저음의 부드러운 양식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 14. 따라서 어떤 음악가들은 저음의 부드러운 양식이 음주(飲酒)와 연관되어 있다는 근거에서 이 양식들을 교육의 도구로서 사용하면 안된다고 한 플라톤의 견해를 이 주장은 음주의 직접적인 효과를 근거로 한 것은 아니며 (음주의 직접적인 효과는 주정을 부리게 하는 것이다) 음주 후에 일어나는 효과, 즉 기력의 소모에 근거를 둔 것이다—비난하는데, 이것은 올바른 것이다. 우리는 앞으로 닥쳐올 시기와 노년기를 기억해야만 한다. 그리하여 늙은이들의 필요를 위하여 저음의 부드러운 양식도 또한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 15. 우리는 또한 아름다움의 매력과 어떤 교육적인 힘을 결합함으로써 젊은 시기에 적합한 양식도 포함시켜야 한다. 이러한 결합은, 특히 리디아 양식에 나타나는 것 같다. 따라서 음악 교육에 있어서 좇아야 할 세 가지 기준—즉 중용적인 것, 가능한 것, 그리고 적합한 것—이 있는 것이다.

지은이 소개 | 아리스토텔레스(BC384~BC322)

고대 그리스의 학문을 총정리, 집대성한 최초의 철학가. 소크라테스는 저술을 남기지 않았고, 플라톤은 스승 소크라테스가 남긴 대화를 기록했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비판과 수용을 토대로 한 그의 사상을 글로 남겼기에 후세에 이와 같은 평가를 받는다. 중세 및 근세의 사상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오늘날 사용하는 철학용어의 대부분이 그로부터 유래. 특히 정치학은 정치에 관한 세계 최초의 체계적 서술이다.

#### 옮긴이 소개 | 라종일

1940년 서울 출생, 서울대학교 정치학괴를 졸업하고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경희대학교 교수로 강단에 섰으며, 국가정보원 고위직과 주일 · 주영 대사를 역임하며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대표적인 외교안보통으로 활동했다. 저서로 (세계의 발견), (현대서구정치론), (사람과 정치), 역서로 (100년 전의 여행 100년 후의 교훈), (현대소설과 정치학) 등이 있다. 우석대 총장 퇴임 후 2011년 현재 한양대학교 국제학부 석좌교수로 학생들과 만나고, 한국밀레니엄연구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 정치학

©사단법인 올재, 2012

**발행** | 2012년 5월 30일

펴낸이 | 홍정욱

기획 · 편집 | 이상민 주준형 박경림

**편집디자인** | 캠퍼스헤럴드 (02-727-0681)

아트디렉터 | 김용덕

디자인 | 이현주

**인쇄 · 제작** | (주)헤럴드미디어

**펴낸곳** | 사단법인 올재

출판등록 | 2011년 11월 4일 제300-2011-188호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삼청동 157-78

전화 | 02-720-8278

**팩스** | 02-773-0250

홈페이지 | www.olje.or.kr